6·25戰爭史 7

中共軍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 · 25전쟁사 7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서 문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 Carr)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간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여 역사의 영속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역사는 죽어있는 화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변화하고 진화하여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 또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백만여 명이 넘는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고, 천만여 명의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생겨났으며,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되는 등 전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로 1·21 청와대 습격 사건,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그리고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이어져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극의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 생존과 번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지난 2003년부터 기존의 6·25전쟁사를 대신하여 소련, 중국, 북한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적성국의 자료와 비밀이 해제된 유엔군의 자료를 종합하여 총 11권에 달하는 6·25전쟁사를 재발간하게 된 것은 과거의 역사적 진실을 통해 당면한 위협의 실체를 직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전개된 중공군의 대대적인 참전,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으로 후퇴해야만 했던 당시 전황 등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자료의 추가적인 확보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집필한 역저인 만큼 이 책자가 군 및 학계의 연구자들은 물론, 국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는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사의 교훈을 도출하여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는 군사 편찬 사업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최북진 연구소장과 집필자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군사사 연구편찬 전문기관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귀중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친 전몰장병과 무명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 흘렸던 유엔 참전국의 장병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국방부장관 김 태 영

발 간 사



올해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인 6·25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온 민족사적 재앙이었습니다. 무려 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13만 7천여 명의 국군과 3만 6천여 명의 유엔군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울이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에서는 민족상잔의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일찍이 1967년부터 국내와 미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6·25전쟁사 전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2003년부터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적성국가를 포함한 전쟁 당사국들이 공개한 사료와 참전자들의 증언, 연구소의 다양한 연구결과 등 방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6·25전쟁사를 새롭게 재조명하는 원대한 편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일곱 번째 산물인 『6·25전쟁사』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찬된 『6·25전쟁사』에서는 집필자들이 1950년 10월 25일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한중 국경선을 향한 총공세로부터 중공군의 대반격, 그리고 이로 인한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철수까지의 전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6·25전쟁 참전 배경과 철저한 준비과정, 국군과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공세, 중공군의 제1·2차 공세,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의 지상 및 해상철수작전과 함께 소련 공군의 참전 등이 객관성 있는 사료를 근간으로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6·25전쟁사』 제7권의 발간은 미소와 남북 관계에 관한 역사적 접근이 가능한 시점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새로운 비밀문서들이 공개되어 새로운 사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6·25전쟁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도 6·25전쟁의 원인과 관련된 다양한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문서보관소가 소장했던 당시의 진실을 규명하는 문헌들을 통해 "김일성이 6·25전쟁을 기획했고, 스탈린이 동의했으며, 모택동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은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성취한 커다란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고 진행되는 전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인내를 요구합니다. 집필진의 혼신의 노력으로 출간된 이 책자가 6·25전쟁 당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자유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국들의 헌신적인 지원, 그리고 국군의 용전분투 등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새롭게 인식하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국내외 전쟁사 연구관계자들에게는 6·25전쟁의 실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료의 분석과 집필에 열과 성을 다해준 집필자 여러분과 인쇄를 맡아준 국군인쇄창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견을 내어주신 백선엽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감수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 8월

군사편찬연구소장 **최 북 진**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 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절·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 표기하였다.
   장 : 제1장, 제2장, 제3장, ……
   절 : 제1절, 제2절, 제3절, ……
   항 : 1, 2, 3, ……
   목 : 1), 2), 3)

2. 이 책에 사용된 부호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 : 인명·지명·숙어 등 해당 한자를 묶거나 해설, 보충한 경우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표시
   ‘ ’ : 인용문이나 대화체 문장의 일부분을 간추리거나 강조 표시
   『 』: 서명이나 신문매체를 표시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랐다. 문장은 한글 위주로 가급적 평이하게 썼으며,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용어나 고유명사 등은 한자 또는 영어 등 원래의 단어를 ( ) 안에 표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명의 경우 과거에 한자로 표기했던 지명들 중 널리 알려져 있는 지명은 한글로 바꾸어 표기했으나 잘 알려지지 않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지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 )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4. 외국의 인명·지명 등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표기했다.
   (1)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가급적 해당국 언어의 발음에 가깝도록 한글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넣었다.
   (2) 각 장 별로 처음 나오는 고유 명사는 ( ) 안에 원어를 병기했다.

5. 본문에 인용된 외국어 자료는 원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평이한 문체로 번역했다. 다만 그 의미상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해야 할 고유명사나 관용어 등은 그대로 사용했다.

6. 인용된 중국어 자료 중 간자체와 번자체 모두를 번자체로 통일해 표기했다.

7. 주기(註記)는 후주(後註)로 하여 각 장 끝부분에 수록했다. 본 문의 내용 중에 추가 설명이나 해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후주에 수록했다.

8. 집필자는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명기했다.

9. 상황도는 1950년대 1:5만 군사지도를 사용했다. 개요의 상황도는 개요 마지막 부분에, 본문의 상황도는 해당 부분에 각각 수록했다.

10. 북한군과 관련된 용어는 국방부의 '정신교육지침'과 대외 공식간행물인 『국방백서』의 수준에 준하여 전쟁사의 맥락에 맞도록 북한군, 인민군 등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 또한 전쟁 후에 달라진 북한지명은 과거의 지명을 표기하면서 ( ) 안에 현재의 지명을 명시했다.

11. 중공군과 관련된 용어는 많은 부분에서 과거와 다르게 표기했다. 그 중 과거 중공으로 명시했던 명칭을 세분화해 정부를 지칭할 때는 '중국'으로, 중국공산당을 지칭할 때는 '중국공산당'으로 명시했다. '중공군'의 경우 "중국공산당의 군대"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아울러 중국의 인명과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했으며, 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모택동'은 '마오쩌둥(毛澤東)'으로, '팽덕회'는 '펑더화이(彭德懷)'로 각각 수정했다. 지명의 경우 과거의 '북경'은 '베이징(北京)'으로 수정했다.

목 차

장관 서문

발간사

일러두기

제 1 장 총 개요 / 1

제 1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 3
제 2 절 양측의 전쟁지도 ····· 9
제 3 절 각 장별 수록 범위 및 내용 ····· 15

제 2 장 중국의 개입에서 참전까지 / 17

제 1 절 중국의 참전 배경 ····· 19
제 2 절 중국공산당 수뇌부의 참전결정 과정 ····· 32
제 3 절 마오쩌둥의 참전동기 및 참전결정 요인 ····· 57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82

제 3 장 중공군 참전 개시 후의 상황전개 / 95

제 1 절 중공군 출현 직전 피아의 동향 ····· 97
제 2 절 중공군의 한반도 전개와 전략목표 ····· 135
제 3 절 피아의 전쟁지도 ····· 182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240

제 4 장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 / 269

제 1 절 작전 개요 ····· 271
제 2 절 작전 계획 ····· 273
제 3 절 유엔군의 진격과 중공군의 반격 ····· 280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373

제 5 장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 387

제 1 절 작전 개요 ····· 389
제 2 절 작전 계획 ····· 392
제 3 절 유엔군의 공세와 중공군의 반격 ····· 398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502

제 6 장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 / 519

제 1 절 작전 개요 ····· 521
제 2 절 작전 계획 ····· 523
제 3 절 유엔군의 철수와 38도선 방어선 형성 ····· 529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571

제 7 장 해군작전 / 579

제 1 절 작전 개요 ····· 581
제 2 절 북한 해군과 유엔 해군 상황 ····· 585
제 3 절 유엔 및 한국 해군작전 ····· 588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637

제 8 장 공군작전 / 649

제 1 절 작전 개요 ····· 651
제 2 절 북한 공군 복원 및 소련 공군 참전 ····· 660
제 3 절 유엔 및 한국 공군작전 ····· 680
제 4 절 분석 및 평가 ····· 734

제 9 장 총 평 / 749

제 1 절 전쟁지도 ····· 752
제 2 절 작전 및 전술 ····· 758
제 3 절 결 론 ····· 773

부 록 / 775

1. 영문약어 및 함정명칭 ····· 777
2. 연 표 ····· 780

참고문헌 / 787

찾아보기 / 799

〈표 목 차〉

〈표 2-1〉 둥베이변방군 전투편성표 ····· 25
〈표 3-1〉 1950년 10월 하순경 북한군 전투서열표 ····· 116
〈표 3-2〉 중공군 후방 병참 지휘계통도 ····· 149
〈표 3-3〉 제1차 입북한 중공군 군단급 이상 주요 지휘관 신상명세 ····· 158
〈표 3-4〉 제1차 전역시 중공군 전투서열표 ····· 165
〈표 3-5〉 중공군의 정치통제 계통도 ····· 168
〈표 3-6〉 중공군 제9병단 주요 지휘관 군사경력 ····· 204
〈표 4-1〉 제1차 공세시 중공군 및 북한군의 전투편성 ····· 280
〈표 4-2〉 중국인민지원군 지휘체계 ····· 281
〈표 4-3〉 중공군 각 제대별 전투서열 ····· 283
〈표 4-4〉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 283
〈표 4-5〉 중공군 제13병단 지휘부 ····· 284
〈표 4-6〉 북한군 전투서열(1950. 11. 17 현재)····· 285
〈표 4-7〉 중공군 제1차 공세시 전투력(1950년 10월말 현재) ····· 288
〈표 4-8〉 미 제8군 지휘체계(1950. 10. 24 현재)····· 290
〈표 4-9〉 유엔군 전투서열 ····· 291
〈표 4-10〉 전투서열 및 지휘관 ····· 297
〈표 4-11〉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10
〈표 4-12〉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18
〈표 4-13〉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27
〈표 4-14〉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40
〈표 4-15〉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50
〈표 4-16〉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57
〈표 4-17〉 참가부대 및 지휘관 ····· 364
〈표 4-18〉 중공군 제1차 공세시 국군 및 유엔군의 인명피해 ····· 374
〈표 4-19〉 중공군 제1차 공세시 중공군의 전과 ····· 375
〈표 5-1〉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전투편성 ····· 398
〈표 5-2〉 중공군 제9병단 전투서열 ····· 399
〈표 5-3〉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 400
〈표 5-4〉 북한군 전투서열 ····· 400
〈표 5-5〉 공산군(연합사령부) 지휘체계 ····· 402
〈표 5-6〉 북한군 전투서열 ····· 403
〈표 5-7〉 중공군 및 북한군 보유장비 ····· 404
〈표 5-8〉 미 제8군의 군단별 공격축선 ····· 406

〈표 5-9〉 미 제10군단의 공격축선 ····· 406
〈표 5-10〉 미 제8군 지휘체계 ····· 408
〈표 5-11〉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14
〈표 5-1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29
〈표 5-13〉 참가부대 및 지휘관 ····· 442
〈표 5-14〉 참가부대 및 지휘관 ····· 449
〈표 5-15〉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59
〈표 5-16〉 미 제2사단 병력현황(1950. 11. 30 현재)····· 467
〈표 5-17〉 미 제2사단 인명손실(1950. 11. 30 현재)····· 467
〈표 5-18〉 군우리 전투시 미 제2사단 포병부대의 손실 ····· 468
〈표 5-19〉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70
〈표 5-20〉 전투서열 및 지휘관 ····· 492
〈표 5-21〉 중공군 제2차 공세시 국군 및 유엔군의 인명피해 현황 ····· 503
〈표 5-22〉 중공군 제2차 공세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주요 전과 ····· 504
〈표 6-1〉 중공군 및 북한군의 제대별 임무 ····· 527
〈표 6-2〉 전투서열 및 지휘관 ····· 540
〈표 6-3〉 참가부대 및 지휘관 ····· 547
〈표 6-4〉 흥남기동함대 편성 ····· 551
〈표 6-5〉 미 제8군의 방어 배치 ····· 564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 ····· 587
〈표 7-2〉 흥남철수작전 기동함대 편성 ····· 596
〈표 7-3〉 흥남철수작전시 항공기 운용 ····· 605
〈표 7-4〉 함포사격 지원작전 참가함정 ····· 606
〈표 7-5〉 함포사격 탄약소모량 ····· 607
〈표 8-1〉 북한 및 소련공군 지휘관계(1950년 12월말 기준) ····· 655
〈표 8-2〉 유엔공군 지휘관계(1950년 12월말 기준) ····· 656
〈표 8-3〉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0. 12. 31 기준) ····· 658
〈표 8-4〉 중국 주둔 소련 공군부대 현황(1950. 12. 31 기준) ····· 670
〈표 8-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예하부대 편성 ····· 671
〈표 8-6〉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지휘소 및 통제관리소(1950년 12월) ··· 675
〈표 8-7〉 6·25전쟁 참가 제트전투기의 성능 및 제원(1950년 12월 기준)··· 677
〈표 8-8〉 제64전투비행군단 전투 활동 결과(1950. 11~12월) ····· 678
〈표 8-9〉 한국 전개 전투부대의 재편성(1950. 12. 1) ····· 685
〈표 8-10〉 북한지역 주요도시 파괴율 ····· 696
〈표 8-11〉 미 제1해병사단 철수 간 극동공군의 공수 지원량 ····· 701
〈표 8-12〉 유엔공군 1950년 11~12월 5일까지 전과 현황 ····· 707

〈표 8-13〉 1950년 6~12월간 총 비행활동 추이 ····· 710
〈표 8-14〉 1950년 11~12월 중 주·야,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현황 ····· 711
〈표 8-15〉 1950년 11~12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 712
〈표 8-16〉 1950년 6~12월 근접항공지원 비행활동 현황 ····· 713
〈표 8-17〉 1950년 6~12월 무장정찰/항공차단 비행활동 현황 ····· 716
〈표 8-18〉 1950년 12월 유엔공군 공격에 의한 적 사망자 현황 ····· 718
〈표 8-19〉 1950년 6~12월 공수비행 활동 ····· 720
〈표 8-20〉 한국 공군 지휘관계(1950년 12월말 기준) ····· 724
〈표 8-21〉 공군비행단 T-6 활동(1950. 9. 24~11. 30) ····· 727
〈표 8-22〉 정찰비행전대 비행활동(1950. 10. 1~12. 31) ····· 728
〈표 8-23〉 지상군 상황과 공군비행활동 추이 ····· 736

〈상황도 목차〉

〈상황도 2-1〉 둥베이변방군의 이동 및 배치 ····· 26
〈상황도 2-2〉 중국의 지정적 지형도 ····· 65
〈상황도 2-3〉 중국 둥베이 지역과 한반도의 지정적 관계도 ····· 66
〈상황도 2-4〉 1950년 당시 북중간의 교통로 ····· 73
〈상황도 3-1〉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 이전 중국수뇌부의 전략배치 구상도 (1950년 10월 14일) ····· 140
〈상황도 3-2〉 중공군 각 군단별 전개방향 ····· 155
〈상황도 3-3〉 중공군 제1차 전역시 피아 접전도 ····· 188
〈상황도 4-1〉 운산지구 전투 ····· 298
〈상황도 4-2〉 운산-영변 후퇴 상황(1) ····· 302
〈상황도 4-3〉 운산-영변 후퇴 상황(2) ····· 306
〈상황도 4-4〉 구성-정거동 진격작전 ····· 312
〈상황도 4-5〉 개천-비호산 전투 ····· 317
〈상황도 4-6〉 개천-비호산 전투(1) ····· 321
〈상황도 4-7〉 개천-비호산 전투(2) ····· 324
〈상황도 4-8〉 온정리(운산) 전투 ····· 329
〈상황도 4-9〉 초산진격·철수작전 ····· 334
〈상황도 4-10〉 장진호 진격작전 ····· 343
〈상황도 4-11〉 혜산진 진격작전 ····· 353
〈상황도 4-12〉 길주-청진 진격작전 ····· 360
〈상황도 4-13〉 합수-백암 진격작전 ····· 366

〈상황도 5-1〉 덕천전투 ····· 415
〈상황도 5-2〉 덕천전투(1) ····· 417
〈상황도 5-3〉 덕천전투(2) ····· 420
〈상황도 5-4〉 덕천전투(3) ····· 422
〈상황도 5-5〉 덕천전투(4) ····· 424
〈상황도 5-6〉 영원전투 ····· 430
〈상황도 5-7〉 영원전투(1) ····· 433
〈상황도 5-8〉 영원전투(2) ····· 436
〈상황도 5-9〉 영원전투(3) ····· 438
〈상황도 5-10〉 와원전투 ····· 451
〈상황도 5-11〉 군우리 철수작전 ····· 458
〈상황도 5-12〉 유담리방어전 ····· 474
〈상황도 5-13〉 유담리-하갈우리 철수전 ····· 480
〈상황도 6-1〉 미 제8군의 철수계획 ····· 542
〈상황도 6-2〉 미 제10군단 철수계획 ····· 553
〈상황도 7-1〉 흥남철수작전 일정과 철수 방향 ····· 598
〈상황도 7-2〉 미 육군 제3사단 흥남철수작전 ····· 602
〈상황도 7-3〉 동서해안 철수작전 ····· 635



제 1 장 총 개요

제 1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제 2 절	양측의 전쟁지도
제 3 절	각 장별 수록 범위 및 내용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어 3년 1개월 2일 만인 1953년 7월 27일, 민족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아픔을 남긴 채 종전이 아닌 휴전의 형태로 멈추어진 전쟁이다. 이 전쟁은 5천여 년에 걸친 민족 역사를 통해 가장 치열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으로서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6·25전쟁사 제7권『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에 수록된 총 개요는 3개의 절로 구성했다. 그중 제1절은 독자들이 중공군의 참전으로 야기된 '새로운 전쟁'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950년 6월 25일, 전쟁 시작으로부터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 이전까지 4개월간의 상황을 요약 정리해 수록했다. 제2절은 본 책자인 6·25전쟁사 제7권의 내용에 대한 요약으로 중공군의 참전과 그들의 제1·2차 공세로 인해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38도선으로 후퇴하여 전개하기까지의 상황과 양측의 의도 및 작전수행에 대해 수록했다. 마지막 제3절에서는 본 책자의 각 장별 수록 내용과 중점을 요약해 제시했다.

제 1 절 북한군 남침 이후 상황 요약

1.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서울 피탈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해 왔던 북한군이 38도선 전역에서 기습남침을 시작했다. 200여 대의 T-34전차 등 최신장비로 무장한 북한군은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공세를 감행했다. 전쟁 시작과 함께 38도선을 따라 설치된 국군의 방어선은 곳곳이 돌파되고 말았다.

다음날인 26일 오후 1시에는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가 함락되었다. 육탄공격으로 맞서는 국군의 방어선을 차례로 돌파한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28일 01시경 미아리고개(현 길음고개)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수도(首都) 서울은 불과 3일 만에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날 02시 30분에는 북한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한강교가 폭파되었다. 그 바람에 한강 북쪽에 남아있던 150만 서울시민은 북한군의 볼모가 되고 미처 철수하지 못한 국군의 주력까지 철수로가 차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었다. 춘천 북방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의 용전분투로 서울 후방을 차단하려했던 북한군의 기도를 막아낸 것이었다. 또한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서울에서 지체하고 있던 사이 국군은 전선에서 삼삼오오로 철수해 오는 병력을 재편성해 한강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국군이 7월 3일까지 5일 동안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엔에 구원을 요청하는 한편 미군을 주축으로 한 우방 국가들이 지원군을 파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2. 유엔군의 참전과 지연전

유엔이 승인한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속했다.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지체 없이 참전을 결정했다. 유엔의 행보도 빨라졌다. 미국의 요청으로 26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38도선 북쪽으로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28일, 유엔은 권고를 무시한 채 남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에 대해 군사적인 제재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7월 7일에는 유엔 역사상 최초로 유엔군이 창설되었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 미국 등 자유우방국의 군대가 유엔의 기치(旗幟) 아래 파병되었다. 초대 유엔군사령관에는 미국의 극동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acArthur) 원수가 임명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아더 원수는 한국군을 지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7월 14일, 맥아더 원수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그 사이에 남진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사단이 파병되었다. 그러나 싸울 준비가 부족했던 제24사단은 오산·평택·천안전투에서 잇달아 패배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해서 금강선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해 북한군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믿었던 금강방어선 역시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전력과 그들의 측방기동 및 후방차단 전술에 밀려 무너졌다. 이어서 7월 20일에는 중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전을 빼앗기면서 미 제24사단이 붕괴되고 사단장마저 실종되었다.

북한군의 공세는 거침이 없었다. 미군이 참전한 것을 보기만 해도 혼비백산 도주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 달리 북한군은 결코 호락호락한 군대가 아니었다. 7월 24일까지 미 제8군사령부가 대구에 설치되고 이어서 제25사단, 제1기병사단, 제29독립연대 등이 잇달아 파병되었지만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없었다. 북한군의 공격기세를 저지하지 못한 국군과 유엔군은 7월 한 달 내내 후퇴를 계속하면서 후속부대 증원을 위한 시간을 벌기에 급급했다. 마침내 7월 말에는 낙동강을 연하는 지역까지 철수했다.

그 무렵 국군과 유엔군이 확보하고 있던 지역은 남한 전체 면적의 1/10 정도에 불과하였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남한 전 지역의 90%를 빼앗긴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오로지 낙동강 일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편성해 필사의 각오로 최후의 거점인 부산만큼은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했다.

3. 낙동강방어선전투

낙동강방어선은 대구 북서쪽 왜관으로부터 남쪽으로 낙동강을 따라 창녕-마산에 이르기 까지 120㎞ 구간을 유엔군이 담당하고, 왜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다부

동-신령-기계-포항을 연하는 80㎞ 구간을 국군이 담당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비로소 좌우가 완전하게 연결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공세는 매서웠다. 유엔군이 담당하는 마산·왜관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는 다부동·기계·포항 일대의 지역에서는 운명을 건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9월이 되면서 양측의 전투력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미군을 주축으로 한 자유우방국의 지원병력이 속속 도착하면서 유엔군의 전투력이 급속히 향상된 것이다. 국군의 전투력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군은 가용한 거의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방어선 돌파에 투입했다. 그러나 그들의 공세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다. 전쟁 초기 무적의 위용을 자랑했던 T-34전차도 겨우 100여 대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던 유엔공군의 끊임없는 후방차단으로 대부분의 보급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상보급도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해군에 의해 차단되었다.

그렇지만 전장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월 말부터 시작된 북한군의 발악적인 공격에 의해 낙동강방어선 곳곳이 돌파되고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담당하고 있던 대구 북쪽의 왜관·다부동 일대와 국군이 담당하고 있던 영천 일대의 상황은 심각했다. 북한군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지상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은 방어선을 마산-밀양-울산을 연하는 선으로 철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처럼 9월의 위기는 심각했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어 모든 역량을 낙동강방어선에 투입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악의 상황인 것만은 확실했다.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볼 때 결코 국군과 유엔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북한군이 그 같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 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전장의 주도권을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객관적인 전력이 부족하더라도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전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군의 9월공세가 증명해준 것이다.

4. 인천상륙작전과 38도선 회복

8월과 9월 중순까지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낙동강 너머로 몰아붙이며 최후의 공세를 계속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국군과 유엔군 편에 섰다. 유엔 해군과 공군의 후방차단으로 추가적인 증원과 보급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던 북한군에 비해 국군과 유엔군은 제한 없는 보급지원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에서 파병한 유엔군 병력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전세를 결정적으로 역전시킬 반격작전을 차근차근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9월 15일, 상륙작전을 위해 새로 편성된 제10군단을 인천에 상륙시켰다. 인천의 지형적 불리점 등 많은 제한요인에 따라 주위의 만류와 우려가 많았지만 맥아더 원수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은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낙동강 일대에 투입된 북한군 13개 사단의 주력은 후방이 차단되었다. 낙동강방어선의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에 나서자 그 사이에 갇힌 북한군은 붕괴되었다. 남침시 미군을 연거푸 격파하며 기세등등했던 북한군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말에는 38도선까지 진출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반격을 시작한 지 불과 15일 만에 전쟁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켰다. 최초 유엔이 결의했던 전쟁목표를 달성한 셈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은 이번 기회에 남과 북이 합쳐진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유엔 역시 북한군이 남침하기 이전부터 추구해 왔던 한반도 통일정부 수립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5. 38도선 돌파와 북진

10월 1일, 동해안 지역의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해 북진을 시작했다. 이어 유엔의 북진결의에 따라 10월 9일, 서부지역의 유엔군도 38도선을 돌파했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모든 역량을 낙동강 일대에 투입했던 북한군은 그들의 주력이 붕괴된 후부터 저항력을 상실했다.

북진작전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이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을 확보하는 것만 남았다. 10월 21일, 평양 북쪽 순천에 도달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2대대는 "이날 중으로 순천 북쪽 50㎞ 지점에 위치한 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수령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대대장은 전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전조등을 밝히고 개천으로 향했다.

도중에 1개 대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한군 패잔병과 조우했다. 그러나 그들을 포로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대대장은 차량에 탑승한 채로 적을 향해 소리쳤다. "전쟁은 끝났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대대장의 호령이 끝나자 적들은 대부분 무기를 버리고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다. 그 바람에 대대는 당일 중으로 개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어 26일에는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 북쪽의 압록강까지 진출했다.

한편 동부전선에서도 미 제7사단이 혜산진에,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일대에 그리고 국군 제1군단도 해안선을 따라 청진 일원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기습적인 제1·2차 공세가 감행됨에 따라 전장은 전혀 다른 상황, 즉 새로운 전쟁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제 2 절 양측의 전쟁지도

1. 양측의 상황 및 작전개황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추수감사절, 즉 1950년 11월 말까지는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전 병력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압록강과 두만강 선까지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10월 24일 10시, 국군과 유엔군은 "추수감사절 공세"를 개시했다. 청천강을 도하한 미 제8군은 압록강으로, 함흥과 흥남을 점령한 미 제10군단은 장진호와 청진으로 향했다. 국경을 향해 진격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다음날 운산(구읍리)과 온정리(운산) 일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공격을 받았다.

중공군 제1차 공세의 시작이었다. 은밀하게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 제13병단 예하의 5개 군단이 적유령산맥 남단에 배치되어 운산-희천 방향으로 공격하고, 나머지 1개 군단은 장진호 일대에서 아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최초로 압록강변의 초산에 진입했지만 다른 축선의 아군 부대들은 중공군의 저항으로 공격이 좌절되거나 포위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는 예상하지 못했던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좌절되고 말았다.

중공군의 개입을 알아차린 맥아더 원수는 그들의 조직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1월 24일,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유엔군의 공세를 사전에 예상하고 있던 중공군은 제13병단을 적유령산맥 남쪽에, 제9병단을 장진호 및 개마고원 일대에 배치해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공군은 다음날인 11월 25일을 기해 기습적인 반격으로 '제2차 공세'를 감행했다.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에 진입한 중공군이 의용군으로 구성된 몇 개 사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의 중공군은 조직적인 지휘체제를 갖춘 30개 사단, 30만여 명이 투입되어 있었다. 서부전선의 중공군은 주공을 미 제8군의 우측방에 지향시켜 청천강 이남으로 진출했다.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호 일대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진격을 저지했다. 이로 인해 미 제2사단은 군우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 계곡에서 많은 인명을 희생하는 치열한 전투 끝에 가까스로 포위망을 벗어날 수 있었다.

12월 2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철수명령을 하달했고, 12월 5일에는 평양을 포기한 후 38도선을 향해 남하했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역시 흥남지역에 집결해 해상철수를 단행함으로써 북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 중공군의 의도 및 작전수행

마오쩌둥(毛澤東)과 중공군 지도부는 북진하는 유엔군 부대들이 평양을 점령한 후 부대정비를 위해 일정기간 정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경우 중공군은 원산-평양을 연하는 선 북쪽의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구축한 후 청천강 남쪽에 2~3개의 방어선을 구축해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을 저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지체함 없이 한·중 국경선을 향해 파죽지세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상황이 급변하게 되자 10월 21일, 마오쩌둥은 “중요지역에 매복해 공격 중인 부대를 기습하되 화력이 비교적 미약한 국군부대들을 먼저 섬멸한 후 미군과 영국군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온정리(운산) 일대에서 국군 제6사단이 기습공격을 받았던 것은 그 같은 마오쩌둥의 작전지도 결과였다. 하지만 국군 제7사단이 개천 동쪽의 비호산을 끝까지 확보함으로써 제7·8사단까지 포위·섬멸하려 했던 중공군의 기도는 좌절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1차 공세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을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이어 중공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곧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그들은 공격해 오는 부대들을 그들이 설정한 살상지대로 깊숙이 유인해 섬멸하기 위한 '유인격멸(誘引擊滅)작전'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작전을 준비했다.

제1단계 : 유엔군이 공격해 오면 계획적으로 철수하면서 예정된 공격지점까지 유인한 후, 기습적인 타격을 가해 격멸한다. 특히 한국군부대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
제2단계 : 대규모 병력을 우회기동(迂廻機動)시켜 유엔군의 후방을 기습한다.
제3단계 : 전선(戰線)을 평양-원산을 연하는 선까지 추진한다.

11월 24일, 국군과 유엔군이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하자 중공군은 전선의 정찰대들에게 보급품을 유기(遺棄)하면서 철수하도록 하고 그동안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 150명을 풀어주는 등 철저하게 유엔군을 기만했다. 이어 철수를 계속하면서 서부지역에서 18개 사단, 동부지역에서 12개 사단이 각각 지정된 위치에 매복했다. 마침내 국군과 유엔군 부대들이 그들의 계획된 지점에 도달하자 중공군은 일제히 공세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전투의지마저 박탈하는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그 결과 중공군은 12월 6일, 평양을 점령한데 이어 동부전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해상으로 축출한 후 12월 말에는 전쟁 이전 남·북이 대치했던 38도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3. 소련의 의도 및 개입한계 설정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신속한 진격을 계속하자 김일성의 전쟁을 후원 또는 조종하고 있던 소련의 입장에서도 상황은 심각했다. 스탈린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련과 미국의 군사력이 직접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소련 지상군은 물론 공군의 참전 역시 가급적 회피하려

했다. 그 같은 스탈린의 의도는 중공군의 참전을 논의하는 과장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1950년 10월 10일, 중공군의 출병사실을 소련에 통보한 후 출병에 따른 군사협력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저우언라이(周恩來)와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북한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소련군이 당장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첫째, 소련은 북한과 접경지역이 너무 좁아 병력파견과 운용에 애로가 있다. 둘째, 소련군을 북한으로부터 이미 완전히 철수한 상황에서 재차 소련군을 파병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속마음은 이 같은 표면적인 이유보다 소련군의 참전을 통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로 야기될 전쟁의 확산을 우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의 진정한 의도는 소련의 역할을 중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대신 중공군을 전면에 내세워 국군 및 유엔군과 대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의도에 따라 스탈린은 중국이 출병할 경우 소련은 충분한 무기와 전쟁물자를 공급함은 물론 공군을 출동시켜 중국 둥베이(東北)지역과 베이징, 텐진, 상하이 등 해안지역을 방어하고 북한지역 압록강 연안에 전개하는 중공군을 엄호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소련의 역할과 소련공군의 임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었다. 즉 소련은 중국에 대한 군수 물자 및 장비를 제공하되 지상군은 참전하지 않고 공군의 참전으로 역할을 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군의 경우에도 소련 본토에서 이륙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의 직접참전을 은폐하기 위해 중국에 주둔한 소련 공군이 참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들의 임무 또한 중국 둥베이지방을 방어하고 북한지역 압록강 연안에 전개한 중공군을 엄호하는 것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었다.

6·25전쟁과 관련된 스탈린의 의도와 입장은 이전에도 명백히 드러난바 있었다. 즉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이 교착된 상황이 야기되자 소련 군부 일각에서는 수 개의 소련군 전차사단을 투입해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스탈린이 묵살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1950년 9월 말경에 제기된 소련 전투비행연대의 평양 파견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않았다. 아울러 스탈린은 소련공군으로 한국에 위치한 미군비행장을 폭격해 달라는 김일성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스탈린의 방침은 전쟁기간 내내 견지되었다. 이에 따라 소련공군은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창설하여 예하에 2~3개 비행사단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력을 유지시켜 소련 공군의 과도한 참전으로 인한 확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 그들의 작전 범위에 대해서도 소위 'MIG회랑'(MIG Alley)이라 불리는 압록강과 강계, 덕천, 신안주, 선천, 신의주를 잇는 지역으로 제한했다.

4. 국군과 유엔군의 의도 및 작전수행

소련과 중국의 개입을 우려했던 미국 정부는 맥아더 원수에게 "한·중 국경선에는 국군부대만 진출하게 한다."라는 훈령을 하달했다. 이른바 '9·27훈령'이었다. 그러나 공격부대들이 최종목표를 향해 숨 가쁜 공격을 계속하고 있던 10월 24일, 맥아더 원수는 "전 병력을 투입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9·27훈령의 제한사항을 철폐하는 명령이었다.

다음날인 25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의해 국군 제6사단이 붕괴되고, 미 제1기병사단 등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맥아더 원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즉 중공군이 개입했더라도 그 규모는 수풍발전소를 방호하기 위한 수천 또는 수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임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해 그들을 격파하고 국경선까지 진출하면 전쟁은 끝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맥아더 원수의 신념에 따라 11월 24일, 시작된 국군과 유엔군의 최종공세, 즉 크리스마스작전은 중공군의 올가미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에게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다. 맨 먼저 서부전선에서 국군 제6·7·8사단이 무너졌고, 이어 군우리(개천)에서 철수하던 미 제2사단은 중공군 6개 사단이 매복하고 있는 10㎞ 구간을 돌파하는 동안 궤멸직전까지 몰리는 등의 위기를 겪었다.

동부전선에서도 장진호 일대까지 진출하였던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 8개

사단에 포위된 상황에서 천신만고의 사투 끝에 그들의 포위망을 돌파한 후 흥남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이어진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의 흥남철수 역시 한(恨) 많은 철수작전이었다.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의 강력한 공세와 유엔군의 피해는 유엔군 전쟁지도부의 심리적 공황상태까지 불러왔다. 중공군의 능력을 과도하게 오판한 유엔군 지휘부는 "현 상황에서는 중공군과 접촉을 단절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2월 3일, "대규모의 중공군이 성천을 향해 남하 중이다."는 보고를 접수한 워커 장군은 사실여부를 판단해 볼 겨를도 없이 "중공군이 평양에서 유엔군 주력의 포위격멸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즉각 평양철수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12월 4일, 평양에 산재한 산업시설과 공업시설을 파괴하고, 평양에 집적된 2천여 톤의 보급품도 동시에 파괴했다. 그리고 가용한 선박을 평양 서남쪽 진남포항으로 총 동원해 부상병 및 포로와 3만여 명의 피란민을 수송하는 등 오로지 남으로 후퇴하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평양에서 철수를 시작한 유엔군은 기동장비가 낙후된 중공군과 비교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200여km를 단숨에 후퇴하여 12월 20일을 전후해 임진강-춘천 북쪽-양양을 연하는 38도선에 도달했다. 이어 새로운 방어진지를 편성한 국군과 유엔군은 남진해 올 중공군을 기다리게 되었다.

제 3 절 각 장별 수록 범위 및 내용

6·25전쟁사 제7권『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는 제6권『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에 이어 중공군의 개입에 따라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시작된 1950년 10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전투상황에 대해 최근에 공개된 공산권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기술했다. 이 책에 반영된 핵심내용은 중공군의 참전결정과 파병, 중공군 참전 후의 상황전개, 국군과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 흥남철수를 중심으로 한 해군작전, 소련공군의 참전을 포함한 공군작전 등이다. 수록 범위 및 내용을 각 장으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중국의 개입에서 참전까지"는 새롭게 편찬된『6·25전쟁사』제1권 제2장 제3절(193~208쪽)에 수록된 **"중공의 한반도 군사정책과 전략"**을 배경으로 새롭게 기술했다. 특히 중국의 6·25전쟁 개입배경, 중국 수뇌부의 파병결정 과정, 마오쩌둥의 참전동기(결정요인), 중공군의 파병준비 등에 대해 중국·미국·일본 측 문헌·자료를 분석해 수록했다.

제3장 "중공군 참전 개시 후의 상황전개"는 피아의 정세, 당시 국내 상황과 한국정부의 전시조치, 국제정세와 피아의 전쟁지도에 대해 수록했으며 특히 최근 공개된 러시아, 중국 측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했다.

제4장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는 기존의 6·25전쟁사 제5권(1972) 제36절 "압록강방면 철수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중국 측 자료를 참고해 피아의 부대와 지휘관 편성을 추가했다. 아울러 과거의 지명들은 현행 군사지도 및 일반지도를 참조해

수정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온정리'가 1954년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운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온정리전투"는 "온정리(운산)전투"로 명시했으며, "운산전투"는 "운산(구읍리)전투"로 수정했다.

제5장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는 기존의 6·25전쟁사(1972) 제5권 제36장 "압록강방면 철수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중국 측 자료를 분석해 피아의 부대와 지휘관 편성을 추가했다. 아울러 과거의 지명들은 현행 군사지도 및 일반지도를 참조해 수정했다. 예를 들어 과거의 '군우리'는 개천의 일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군우리전투"는 "군우리(개천)전투"로 명시했다.

제6장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는 기존의 6·25전쟁사 제5권(1972) 제36장 "압록강 방면 철수작전"과 제37장 "두만강방면 철수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다. 흥남철수작전, 성진철수작전 등은 지상군관련 내용과 해군관련 내용으로 구분해 해군관련 내용은 제7장 "해군작전"에 수록했다.

제7장 "해군작전"은 기존의 6·25전쟁사 제5권(1972) 제37장 "두만강방면 철수작전"과 제38장 "제2차 38도선 방수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다. 흥남철수작전, 성진철수작전 등은 제6장에 수록된 지상군 관련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군관련 내용 위주로 수록했으며, 특히 흥남철수작전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제8장 "공군작전"은 기존의 6·25전쟁사 제5권(1972) 제37장 "두만강방면 철수작전"과 제38장 "제2차 38도선 방수작전"을 기초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종합해 수록했으며, 소련공군의 참전과 북한공군 재건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제9장 "총평"은 제2장~제8장에 수록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서 분석 및 평가결과 도출된 교훈적인 요소를 위주로 수록했다.

(집필 : 최용호)



제 2 장 중국의 개입에서 참전까지

제 1 절	중국의 참전 배경
제 2 절	중국공산당 수뇌부의 참전결정 과정
제 3 절	마오쩌둥의 참전동기 및 참전결정 요인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중국의 참전 배경

1. 마오쩌둥(毛澤東)의 남침전쟁 동의

마오쩌둥은 중국대륙의 석권이 가시권에 들어오기 전인 1949년 이전까지만 해도 김일성정권이 준비해오던 대남침략전쟁에 대해 대외적으로는 지지를 표명한 바 없다. 1946년 중반부터 점화된 국공내전이 본격화 된 이후부터 계속된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으로 약칭함)군의 공격에 대한 대응과 활로모색에 급급한 나머지 국외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오쩌둥은 자국내 국공투쟁이 종결되지 않은 1949년 10월 이전까지는 김일성의 남침전쟁에 대해 원론적 지지를 보내는 수준에 머물렀다. 김일성이 특사를 통해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의사를 전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마오쩌둥은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다. 북한의 군사력이 준비돼 있지 않았던 데다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태여 나설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다 급박하게 돌아가던 자국 내 정치, 군사 상황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어 마오쩌둥은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다.

마오쩌둥이 국내문제에 전념하고 있을 즈음, 대략 1949년 말에서 이듬해 초 북한조선노동당 차원에서 남침을 결정한 김일성은[1] 북한 자력으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3월 초 전격적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스탈린에게 한반도적화를 위한 무력도발을 승낙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스탈린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남침불가를 분명히 했다. 첫째, 북한군의 군사력은 아직 속전속결로 남한군을 손쉽게 제압할 정도가 아니다. 둘째,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셋째, 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38도선 분할에 관한 협정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세 가지 장애가 사라지는 환경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무력도발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2)]





왼쪽 : 크레믈린의 막후에서 6·25전쟁 계획에서부터 지원, 도발, 휴전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한 소련 수상 스탈린. 김일성은 당시 71세였던 그의 말이 곧 "법"이라고 했다.
오른쪽 : 스탈린의 요청을 들어줌으로써 6·25전쟁 도발이 성사되게 만든 장본인 마오쩌둥. 그는 당시 57세로서 중국국가 주석이었다.

중국대륙의 적화가 코앞에 다가오자 공산화의 다음 차례는 한반도이고, 그 주역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김일성은 자신의 전쟁도발 계획이 스탈린의 "권고"에 떠밀려 기약 없게 되자 눈을 돌려 이번에는 마오쩌둥의 의향을 타진했다. 그는 1949년 4월 하순 자신의 복심인 김일을 베이핑[(北平)-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베이징(北京)의 명칭]에 보내 마오쩌둥에게 "아시아 정보국", 즉 "아시아 공산당, 노동당 코민포름"을 창설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남침전쟁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일성의 이 요청은 남침전쟁을 공산진영 대 자유민주진영의 대결구도로 몰고 가려는 저의로 판단된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두 가지로 응대했다. 먼저 '아시아 공산당, 노동당 코민포름' 결성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조직을 결성하게 되면 미국, 일본 등에게 군사동맹으로 오인 받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먼저 "아시아의 공산국가"들과 관계를 트고 충분한 정세파악과 연구를 거친 뒤에 결성하는 게 좋다고 했다.[3)]

다음으로 남침전쟁 지지요청에 대해서는 '민족혁명', '민족해방전쟁'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원론적으로 동의했다. 한반도적화를 위한 군사준비 차원에서 최소한 중국공산당군 소속 한인병력의 북한귀환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한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요청에 응해 1949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들이 골간을 이룬 둥베이(東北)군구 소속 제164사단과 제166사단을 북한으로 인계해주면서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본 6·25전쟁사 총서 제1권에서 설명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마오쩌둥은 한인병력을 대거 북한에 넘겨줌으로써 이 시기부터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전쟁의 주요 동력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마오쩌둥은 공산국가들간의 상호지원을 규정한 국제주의이념에 토대를 둔 원론적 지지와 한인병력의 북한인계 이외에는 더 이상 한반도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 1949년 10월 신중국을 수립하고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상 그에게 시급한 국가적 현안들—중국국민당잔당 소탕, 타이완(臺灣)"해방", 경제재건, 국가통합, 소련과의 관계재정립을 통한 국가안보 확립, 제국주의 잔재 청산을 통한 주권국가로서의 위상 재정립 등과 같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국외 전쟁문제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국내과제들의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소련의 지원을 얻고,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1949년 12월 중순 모스크바를 방문, 결사적으로 스탈린을 압박한 끝에 스탈린과 장제스(蔣介石)가 1945년 8월 14일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이하 조약 체결 당사자인 소련을 기준으로 편의상 이를 '구중소동맹'으로 칭함)을 대체할 새로운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이하 편의상 이를 '신중소동맹'으로 칭함)의 체결을 이끌어 냈다.[4]

스탈린은 애초 예기치 않았었고, 또한 원치 않았던 신중소동맹 체결을 마오쩌둥에게 허여함과 동시에 중국동북의 뤼순(旅順) 주둔 소련군을 2년 내로 철수시키기로 마오쩌둥에게 약속함으로써 머지않아 소련의 동북아 전략기지를 상실하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스탈린은 그 동안 구중소동맹으로 누려왔던 중국내 기득권을 대신할 새로운 전략지대를 확보할 요량으로, 보류해놨던 김일성의 남침도발을 동의해주기로 결심했다. 중국내 기득권이란 창춘(長春)철도의 투자 지분 및 경영권, 뤼순항과 다롄(大連)항의 사용권, 신장(新疆)을 중심으로 서북지역에서 소련이

누렸던 각종 특권 등 장제스 정권 이래 소련이 중국에서 보장받은 각종 이권을 가리킨다. 신중소동맹체결을 계기로 스탈린은 새로운 동북아전략을 가다듬었고, 그 구상이 갖춰지자 즉각 1950년 1월 하순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을 승인했다.[5]

소련 측으로부터 방소허락 통보를 받고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은 스탈린으로부터 자신의 대남침략전쟁 도발을 승인 받았다. 승인은 반드시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조건부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마오쩌둥과 이 문제를 상의하되 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전쟁발동을 보류하고 새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총괄하면 스탈린과 김일성은 의도적으로 마오쩌둥을 제외한 상태에서 남침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오쩌둥은 실제 남침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한 당사자였지만 정작 이 논의에서는 완전히 배제, 소외돼 있었던 셈이다.

소련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일성은 박헌영을 대동하고 비밀리에 베이징을 방문해 5월 13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 3박 4일간 체류하면서 마오쩌둥에게 지난 3~4월에 이루어진 모스크바 방문시 스탈린과 나눈 회담결과를 설명했다. 김일성으로부터 스탈린이 한반도남침전쟁을 허락했다는 얘길 들은 마오쩌둥은 놀랍고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의 언급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그 진위여부를 스탈린에게 문의한 결과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바꾸어 비로소 기왕에 결정된 무력통일에 관한 김일성의 기본구상에 지지를 표명했다.[6]

마오쩌둥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중국은 군대를 파견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련은 미국과 38도선을 국제적으로 체결한 당사자로서 얄타(Yalta)협정의 제한을 받게 돼 있어 38도선 체제를 허무는 전쟁에 참여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소회담시 스탈린이 언급한 소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소련과 달리 중국은 이러한 조약의 제약이 없으므로 한반도와 관련해 하등의 국제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북지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7] 마오쩌둥은 또 북한과 소련 쌍방이 이미 개전을 결정한 이상 전쟁은 중북 양국의 공동과제가 됐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미국

을 맹주로 한 서방 제국주의세력의 참전 가능성을 전제로 마오쩌둥은 충분한 군사준비를 강조했다.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상호 견해가 달라 얼마간 설왕설래가 오고 갔지만 마오쩌둥은 일단 동의의사를 표명한 뒤부터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으며, 북한 지도부가 설명한 남북한의 정세판단에 대해서도 동조했다. 나아가 그는 오히려 신중소동맹을 모방한 중북간의 '우호동맹상호협조조약' 체결을 제의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기왕에 동의한 이상 전쟁도발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취지였고, "동의할 바엔 실제 언동"으로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의 동의는 단지 스탈린의 조건부 동의를 최종적으로 성사시켜주는 절차상의 문제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중소동맹을 맺은 이상 마오쩌둥이 동의를 거부하기엔 이미 구조적으로 너무 깊숙이 스탈린의 전략구도 속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미리 계획적으로 북한정권을 보호하며, 군사 무기 및 장비 등을 직접 원조해주면서 김일성의 전쟁도발의지를 확고하게 심어놓은 후 이번에는 중소동맹을 맺어주면서 교묘하게 상대를 겉으로 한껏 추켜세우는 중국적 방식으로 마오쩌둥을 소련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8)]

1950년 5월 16일 김일성 일행이 평양으로 귀환하던 날, 스탈린은 마오쩌둥 앞으로 중국과 북한이 한반도 통일 후 '우호동맹상호협조조약'을 맺는 것에 동의한다고 타전했다. 이는 북한, 중국, 소련 3자간에 하나의 반서방 블록이 결성된 것을 뜻하며, 이 3각축 중 각기 한 변씩을 구성하겠다는 중북간의 상호 약정을 추인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로써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의 공산진영측 3자간에 전쟁도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셈이다.

2. 초기대응 : 마오쩌둥의 대미 인식변화와 이중적 군사 예비조치

북한군의 남침과 한국군의 대응을 둘러싼 전쟁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본 총서 제2권에서 다룬 바 있다. 여기에는 김일성이 개전한 후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의

파병도 포함돼 있다.

한편 6·25전쟁 발발 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침묵하고 있던 중국은 미국이 미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에 급파하자 비로소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오쩌둥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저의를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저의를 의심한 중국은 타이완해협 봉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6·25전쟁 발발 후 중국정부가 보여준 최초의 대외 공식반응이 미 제7함대의 타이완해협 진주에 대한 비난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오쩌둥이 서둘러 군사력 배치를 조정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였다.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자 마오쩌둥은 미군이 북한을 거쳐 중국 둥베이지역으로 진격해올 것으로 예단했는데, 이에 따라 먼저 미군에 대항할 북한정권을 지원할 준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반도와 중국 둥베이지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긴급히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둥베이지역에 대한 군사역량을 증강시켜 안보태세를 공고히 함으로써 돌발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9)]

중공군 배치의 재조정은 먼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서기처 수준에서 논의를 거친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1950년 6월 28일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국가 안보전략의 중점 재조정에 따른 중국의 국방 군사배치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즉 그간의 타이완 공격작전 준비는 계속 추진한다. 그와 동시에 둥베이변방의 안전을 지킬 '둥베이변방군'을 긴급히 편성해 둥베이지역으로 이동 배치한 후 만일 미군이 38도선을 넘을 경우 즉각 개입하기로 하되 그에 관한 최종 당론은 사태추이를 보아가면서 결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둥베이지역에서의 방어작전과 유사시 한반도 군사진입에 필요한 소련의 공군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국 수뇌부가 그 때까지 지속해온 중국국민당 잔여 부대의 소탕을 포함해 타이완에 대한 재공격준비를 일단 보류하고 즉각 중국인민해방군을 전시 비상 예비동원체제로 신속하게 전환시킨 것은 북한군이 수세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전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은 8월 중·하순에 이르러서였다.

마오쩌둥은 일찍부터 6·25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월 7일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중공 중앙군사위원회 국방군사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했다. 이 날은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이 맥아더(Douglas MacArthur)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한 날이었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2차에 걸친 국방군사회의의 심의와 마오쩌둥의 재가를 거쳐 이른바 '둥베이변방군'을 편성하여 7월 15일부터 총 25만 여명의 병력을 둥베이지역으로 이동시켰다.[10] 둥베이변방군은 제4야전군을 주력으로 하여 중앙군사위원회의 국방전략예비대인 제13병단 예하 제38·제39·제40군단[11]과 둥베이군구로 배속된 제42군단, 그리고 제1·제2·제8 등의 3개 포병사단과 공병, 기병 등의 특종부대 수 개 사단 및 연대로 편성된 것이었다. 선발된 병과와 부대별 병력 수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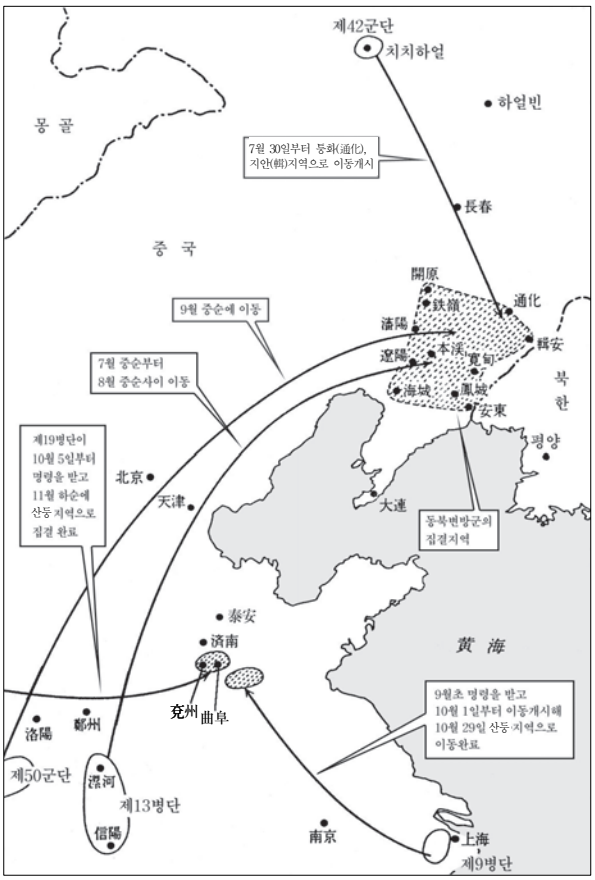
<표 2-1> 둥베이변방군 전투편성표[12]

부 대		편성 인원(명)
제13병단	병단사령부	1,400
	제38군단	49,015
	제39군단	57,907
	제40군단	50,916
	소 계	159,238
제42군단		47,857
포병사령부	포병사령부 본부	1,000
	제1포병사단	9,478
	제2포병사단	9,233
	제8포병사단	9,499
	4개 고사포병연대	8,134
	소 계	37,353
1개 기병연대		1,100
제6공병연대		2,200
3개 자동차병연대		3,000
총 계		250,748

둥베이변방군은 대략 8월 5일 이전에 압록강 중국쪽 대안의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 각 부대의 집결지는 아래와 같았다. 제13병단 사령부는 안둥[安東, 현 단둥(丹東)]에 주둔했다. 제38군단 사령부는 톄링(鐵嶺)에, 그리고 예하부대 제112·제113·제114사단은 각각 톄링, 신카이위안(新開原), 라오카이위안(老開原)에 위치했다. 제39군단 사령부는 랴오양(遼陽)에, 예하부대 제115·116·117사단은 각각 랴오양, 투자툰(土佳屯), 하이청(海城)에 위치했다. 제40군단은 사령부와 예하 제118·제119·제120사단이 전부 안둥에 집결했다. 제42군단 사령부는 퉁화(通化)에, 예하의 제124·제125·제126사단은 각각 퉁화, 싼위안푸(三源浦), 류허(柳河)에 집결했다. 특종병 사령부는 펑청(豊城)에 위치했고, 예하 제1·제2·제8야전포병 사단은 각각 펑청, 번시(本溪), 퉁화에 위치했다. 고사포 연대는 안둥과 라구샤오(拉古哨)에 집결했으며, 1개 공병연대는 안둥에 위치했다. 제13병단에 배속된 제13기병 연대는 안둥에 집결했으며, 전시 군수지원 임무를 맡은 둥베이군구 예하 제169사단은 다둥커우(大東溝)에 배치됐다.[13]

둥베이지역의 제1선으로 이동해온 둥베이변방군의 북한 진입 전 배치지역을 도면으로 나타내면 <상황도 2-1>과 같았다.

<상황도 2-1> 둥베이변방군의 이동 및 배치



출처 :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110쪽.

상기 4개 군단은 둥베이변방군으로 개편할 것을 명령받고 둥베이지역으로 이동해 왔지만 둥베이변방군의 지휘부가 편성될 때까지 당분간 원 소속인 제4야전군과 중난(中南)군구의 지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치 군사훈련에 필요한 군수, 병참, 수송 등에 관해서는 선양(瀋陽) 둥베이군구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마오쩌둥은 1차로 둥베이변방군의 편성과 함께 둥베이의 중북국경지역으로 이동시킨 후 1950년 8월 들어 한반도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한반도 진입을 상정한 추가 병력이동을 두 차례 더 진행시켜 8월 하순에서 10월에 걸쳐 둥베이변방군을 지원할 병력을 제2선과 제3선의 지정한 위치로 배치했다.[14] 그가 7월 중순 둥베이변방군의 편성, 이동 외에 그 후속조치로서 또 다시 중북국경지역에 군 병력을 2차에 걸쳐 대규모로 증강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세 가지였다. 첫째, 8월 4일 한반도 군사개입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둘째, 8월 하순부터 시작된 압록강 하류의 안둥시 일대에 대한 미 공군기의 잦은 중국영공 침범과 그로 인한 압록강 교량의 피폭 가능성, 셋째, 한반도 남단의 급격한 전황반전의 징후였다. 압록강 교량이 미군기에 폭파될 경우 중공군의 북한진입이 차질을 빚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중공 수뇌부는 한반도의 전황반전에 대해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전략변경 : 타이완 "해방" 작전의 중단에서 한반도 군사개입으로

미 제7함대의 타이완해협 봉쇄와 그 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공 수뇌부 수준에서 그간 현지 야전군이 준비해오던 타이완공격 준비공작을 계속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발발 후에도 타이완 공격을 포기하지 않고 한동안 계획대로 추진했다.

그러나 8월 초에 이르러 중공 중앙정치국 수준에서 한반도 군사개입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게 되면서 타이완공격의 연기를 중공 당론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

고, 실제 타이완의 해방문제가 중공지도부의 일차적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 후의 일이다. 말하자면 이 시기까지만 해도 베이징 수뇌부는 한반도보다 타이완문제의 해결에 더 많은 주위와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의 공습으로 북한군이 더 이상 남진할 수 없게 되고, 미군을 위시한 유엔군이 속속 한반도로 진입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징후마저 감지되자 불과 며칠 사이에 중공 수뇌부는 한반도 파병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8월 4일에 소집된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서는 다시 한번 타이완"해방"작전의 연기와 북한파병에 관한 원칙적인 동의가 당 정치국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유엔으로 복귀한 소련의 유엔 대표 야콥 말리코(Jacob A. Malik)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 약함)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안을 제출한 날과 같은 날이었다. 또 역설적이게도 한반도에서는 북한군이 한국군과 유엔군을 뒤쫓아 전면적으로 낙동강을 도하하기 시작한 날로서 북한군의 대남 공세가 최고조에 있던 시점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단 마오쩌둥은 1951년 침공을 예정으로 그 때까지 준비해오던 타이완해협 도해작전을 1952년 이후로 미루고, 그 대신 해·공군력을 증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는 8월 11일 중공 화둥(華東)군구 사령관 천이(陳毅)에게 1951년에는 타이완공격을 하지 않고 1952년에 가서 상황을 보아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15] 이 사실을 두고 중국 학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또 관방이든 개인 연구자든 한결같이 미군의 타이완해협 급파로 중국인민해방군이 계획해온 타이완"해방" 군사작전을 잠시 보류, 연기했거나 혹은 이미 임무를 해제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16] 그러나 다음 항에서 후술하겠지만 실제 이 군사작전계획이 중단된 것은 1950년 9월 말 경이었다.

이 조치는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상 타이완"해방"을 6·25전쟁 종결 후로 무기한 연기한 셈이 된다. 또 한편으로 그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자체가 해·공군의 전투력 부족으로 즉각 군사작전이 불가능했던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마오쩌둥이 타이완"해방"작전을 연기한 이면에는 미국을 겨냥한 무력개입을 작정한 사실 외에 즉각적인 타이완"해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기초한 그 자신의 정세

판단도 한몫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미 제7함대의 타이완해협 진주행위를 분명 중국영토에 대한 침공 혹은 적어도 통일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했지만, 다른 한편 그 전략전환은 중공군 자체가 해·공군력이 미비했던 연유로 사실상 단기간 내에 타이완점령 시도가 불가능했던 현실에서 스스로의 취약점을 직시한 이성적 대처이기도 했다.[17]

중국의 최고 수뇌부 수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거론된 타이완"해방" 계획의 연기는 그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정사실화 돼 간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급격한 전황변화로 인해 타이완공격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 반면, 이에 반비례해 한반도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4. 전황반전 : 유엔군의 북진과 김일성의 구원요청

북한군은 초기 파죽지세의 남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 뿐만 아니라 낙동강전선이 형성된 1950년 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더니 결국 한미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맞춰 낙동강방어선을 반격시발점으로 9월 16일 오전 9시 정각부터 개시된 '아군'의[18] 총반격에 밀려 전면 퇴각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대규모 병력이 동원된 인천상륙작전으로 아군은 인천탈환에 이어 9월 28일 서울을 수복했다.

이로써 아군은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작전을 통해 최초에 의도했던 작전의 목적, 즉 적의 격멸과 수도 탈환을 통한 전황반전을 달성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지역적으로 한강이남 낙동강 방어선의 제1전선과 원래의 제1전선에서 파생된 제2전선이 형성돼 이중 양상으로 전개됐다. 제1전선에서는 이미 북한군의 주력이 패주를 거듭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제2전선은 제1전선에서 후퇴하던 북한군 가운데 낙오된 일부 병력과 이에 가세한 일부 남한의 좌익적 세력들이 유격전으로 저항하는 형태로 전환됐다.

또 전투적 차원을 넘어 전쟁차원에서는 군사적 국면에서 정치적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면전환의 계기는 38도선 돌파문제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 미국정부 내에서도 군부와 행정부, 미군과 미군 이외의 유엔군 사이에 각각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북진결행 여부를 둘러싸고 존재했던 상반된 입장과 주장들은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결국 북진을 추진하는 것으로 수렴됐다. 이어서 9월 말 미국 수뇌부가 하달한 유엔군의 북진과 북한군의 격멸지시가 바로 미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현지 유엔군사령관에게 하달됐다. 얼마 뒤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북진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됨으로써 그간 북진을 두고 벌어진 유엔참전국들 간의 정치적 논란도 정리됐다.

워싱턴으로부터 북진명령이 떨어지자 맥아더는 먼저 10월 1일 방송으로 북한 수뇌부에 대해 항복을 권고했다. 사실상 이 시점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한국군이 10월 1일 동부전선의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개시한 상태였다.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맥아더의 항복권고란 바로 조건부 미군의 북진을 의미한다. 따라서 김일성이 항복을 거부할 경우 한국군에 이어 미군의 북진도 미구에 닥쳐올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었다.

그런데 김일성은 서울탈환에 당황하긴 했어도 맥아더의 항복권유는 뿌리쳤고, 나아가 즉각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즉 9월 28일 북한노동당 주최로 긴급 내각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선 소련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김일성은 박헌영과 연명으로 작성한 서한을 스탈린에게 북한 주재 소련대사 쉬티코프(Tetentii F. Shtykov)를 통해 전했다.[19] 김일성의 서한을 전달한 쉬티코프는 이 때 스탈린에게 보낸 별도의 첨부 전문에서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소련 전문가들과 북한 주재 소련기관 및 요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건의했다. 김일성은 이 서한에서 북한군 자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스탈린에게 미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 소련군을 직접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의 군대로 편성된 국제의용군을 조직해 북한을 지원해주도록 간청했다.[20] 이것은 과거 군사파병을 거절한 마오쩌둥을 스탈린으

로 하여금 움직여 보려는 시도였다.

김일성은 10월 1일 맥아더의 항복권고 방송을 청취한 뒤 북한 주재 중국대사 니즈량(倪志亮)의 외교라인을 통해 중국 수뇌부에게 압록강 대안에 집결시켜 놓은 중국인민해방군 제13병단을 신속하게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고, 또한 박일우를 재차 베이징으로 급파해 자신이 박헌영과 연명으로 작성한 친서를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은 시간적으로 대략 10월 2일 밤 시각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21] 이것은 한국군의 북진개시 직후 베이징에 전한 김일성의 자필 서한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 가운데는 김일성이 중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최초의 문헌인 셈이다.[22] 스탈린의 회답을 받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베이징 측에다 군대파병을 요청한 것을 보면 김일성이 얼마나 다급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일성의 친필서한은 먼저 수세에 몰린 전황을 언급하고, "중국인민의 특별한 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김일성은 파죽지세의 개전 초기와는 달리 유엔군의 인천상륙으로 전황이 완전히 불리해졌으며, 서울을 탈환한 "적이 계속해서 38도선 이북지역을 향해 공격해올 것 같은 데, 만약 북한군이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지 못하면 적의 기도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3] 이어서 김일성은 "적이 만약 계속해서 38도선 이북지역을 공격해 오면" 북한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니 하는 수 없이 당신(마오쩌둥)에게 특별한 지원을 부탁한다"고 지원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즉 그는 "적이 38도선 이북을 공격해오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중국 인민지원군을 직접 출동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한 것이다.[24]

이제 김일성과 그의 공산당이 살아남을 지, 공은 소련과 중국에게 넘어갔다. 소련과 중국은 김일성의 구원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적으로 자국의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일이었다.

제 2 절 중국공산당 수뇌부의 참전결정 과정

1. 중국의 대미 경고와 마오쩌둥의 파병결심

김일성으로부터 소련군이나 혹은 국제의용군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 받은 스탈린은 소련군을 직접 파병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1950년 10월 1일 한반도에서 발을 뺄 셈으로 북한의 소련기관 및 그 요원들을 철수시키자는 쉬티코프의 건의를 승인하면서 마오쩌둥에게 중공군 5개 혹은 6개 사단을 의용군 명의로 38도선으로 즉시 투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요청에 이어 10월 2일 새벽 북한 주재 중국대사 니즈량을 통해서도 김일성의 긴급 파병을 요청한 전문을 받은 후 '중국인민지원군' 명의로 군 병력의 일부를 북한에 파병하겠다고 결정하게 된다. 그가 주도한 파병결정에 관한 과정은 다음 절에서 상론하겠다.

그런데 중공군 파병은 중국공산당의 당론으로 결정되기 전 먼저 마오쩌둥의 결심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무엇을 계기로 파병을 결심하게 됐을까? 그 결정적 계기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결과 북한군 지도부가 서울을 내주게 됨으로써 북한군의 병참선이 차단당하게 됐고, 북한군의 사기저하 혹은 전의 상실을 초래케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부전선에서 고립된 북한군 주력의 전투역량을 마비상태에 빠뜨리게 만든 상황이었다.[25]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미군이 38도선에서 멈출 것 같지도 않았다. 또 설상가상으로 중국 지도부는 9월 16일 인도정부를 경유해 들어온 미국 행정부의 북진의사를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임을 알리기라도 하듯 9월 20일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이 유엔총회에서 북진을 결행할 것이라고 천명한 상태였다.[26]

중국은 미국의 진의를 확인하려면 미국과의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이 모두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황파악을 통한 자체 분석과 판단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개전 이래 북한 지도부의 비협조로 한반도 전황이 베이징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연유로 인천상륙 후의 전황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 시기 마오쩌둥은 한반도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수습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의 미군북진에 대비한 심리적, 실제적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그의 언설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상반된 개념이 혼재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공산중국에 대해 적대의식을 공공연히 표출해온 맥아더의 성마름이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으로 가까스로 억제되고 있었지만, 북진으로 중공의 통치를 종식시키겠다는 맥아더의 생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했다. 당시 중국 수뇌부는 트루먼과 맥아더 간의 전략적 견해 차이를 간파하지 못했고, 양자는 대중국 확전 문제에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에서 누가 실제로 대외정책을 수립하는지, 대통령 트루먼, 국무장관 애치슨, 국방장관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으로 약함)의장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ley),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중에 누가 전쟁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27]

마오쩌둥은 불확실성의 안개를 걷어줄 것으로 저우언라이가 유엔에 제출해놓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즉 '5개국 법안'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다. 그의 전망에 따르면, 1950년 9월 20일을 전후한 시점에서 미국은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또 영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노선을 지지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중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했으므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게 아시아문제에서 벗어나도록 권유하리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큰 잡음 없이 조선사태로부터 탈출구를 모색하고 타협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28] 그러나 이 판단은 사실상 사태가 그런 식으로 수습되기를 바란 희망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미국과 유엔이 유엔안보리에 제출된 소련과 중국의 한반도 사태에 대한 해결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마오쩌둥은 무력수단에 의지하기로 하고, 중국의 의사결정 구조의 특성상 당 차원의 군사개입 결의를 확정짓기 위해 먼저 자신이 파병을

결심할 필요가 있었다. 전술했다시피 군사개입은 비록 1950년 8월 4일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원칙적인 방향이 정해진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전체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고위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마오쩌둥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수집 가능한 분산적인 자료들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건대 마오쩌둥이 최종적으로 6·25전쟁에 개입하기로 내심 마음을 굳힌 시기는 유엔에서 중국의 안이 부결됨과 동시에 유엔군의 북진이 결정된 시점인 1950년 9월 하순 쯤으로 판단된다.[29] 이 사실은 마오쩌둥 자신이 먼저 6·25전쟁 파병을 결정함과 동시에 타이완 "해방"작전을 완전히 연기한 시간이 동일한 9월 말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총괄하면,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대리로서 마오쩌둥의 각종 군사관련 지시를 이행하고 보좌한 녜룽전(聶榮臻)이 언급했듯이 마오쩌둥은 유엔에서의 외교적 상황과 한반도 전황의 추이에 따라 오랜 장고 끝에 여러 번에 걸쳐 계기적으로 파병에 대한 결심을 굳혀간 것이다.[30] 마오쩌둥의 중국 현지 방어전략이 한반도 파병이라는 한반도 전진방어 전략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한미 연합군의 인천상륙 후 진행된 일련의 상황변화였다. 북한의 구원요청을 받는 것과 별개로 마오쩌둥의 파병 결심은 외부로부터의 요청이나 혹은 어떤 외압이 작용하지 않은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만약 외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이 현실화된 시점인 1950년 7월 초에 중국에 5~6개 사단을 38도선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외압이라면 외압이었다. 중국학계의 대다수 연구서들은 이 사실을 근거로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한 것은 자체적인 결정으로 보지 않고 소련과 북한의 공식적인 지원요청에 응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의 한 면만을 보고 확대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과 소련의 지원요청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파병을 결정하도록 구속력을 지녔다거나 혹은 파병을 결정한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마오쩌둥이 미군의 북진으로 인한 중국 자체의 안보위기상황을 우선시했던 사실이 참전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였다. 바꿔 말하면 중국은 북한이나 소련이 병력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자체적인 판단과 이유에서 참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2. 중국공산당의 참전 당론 결정과정

마오쩌둥은 당, 정, 군 계통에서 여타 중국공산당의 지도급 인물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대외전쟁 참전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여타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이 장기간 자신에게 부여된 국가중대사에 관한 최후 결정권을 임의로 행사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내 의견을 구해온 연유로 당시까지만 해도 권력 운용형태가 집단지도체제처럼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공내전이 완전히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대를 해외로 보낸다는 것, 특히 그 목적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은 당, 정, 군 고위 지도자들의 전체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31]

그러나 1950년 9월 말부터 10월 초순에 걸쳐 중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도부내에는 참전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당내에는 승산 없는 전쟁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노골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반대의견은 중국공산당 내 공식적인 의결기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고, 당원 개개인들의 의견이었다.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돼 공론화 된 것은 스탈린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난 뒤부터였다. 마오쩌둥은 파병을 결심한 차에 10월 1일 베이징 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스탈린으로부터 중공군의 북한파병을 요청 받게 되자 즉각적으로 소집한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긴급회의석상에서 북한과 스탈린의 지원요청 사실을 알렸다.

10월 1일 밤부터 시작된 정치국 서기처회의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지만 뚜렷한 단안을 내리지 못했고, 단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과 베이징 거주 고위 군사 지도자들을 참가시켜 전체 의사를 들어보자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원론적으로 군사개입을 찬성하지만, 즉각적 참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내 온건 다수파의 반대에 부닥친 마오쩌둥은 참전문

제로 상당히 고심했다. 중국의 회고록 가운데 마오쩌둥이 전쟁개입 결정문제로 3일 밤낮으로 앉거나 서거나 하면서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전해진 것은 이 시기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32]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마오쩌둥은 주전파 인물들을 불러 들여 당내 의견을 뒤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10월 2일 새벽 2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확대회의 개최를 지시하면서 가오강(高崗)에게 지체 없이 베이징으로 와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확대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제13병단 사령관으로서 파병개입의 선봉장이 될 덩화(鄧華)에게는 군사준비를 앞당겨 마친 후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원래의 계획대로 "새로운 적"과 싸울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33]

전술했다시피 마오쩌둥은 스탈린에 이어 10월 2일 새벽 북한 주재 중국대사 니즈량 등의 외교라인을 통해 김일성 측으로부터도 긴급 파병을 요청한 전문을 받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국가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발휘해 중국인민지원군 명의로 군 병력의 일부를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출동명령은 내리지 않았으며, 북한 지도부에도 파병결정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동시에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정치국회의를 통해 참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여타 정치국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자신의 생각을 스탈린에게 통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작성해놓고 다음날 정치국확대회의에서 다수가 찬성하면 발송할 생각이었다. 즉 "지원군 명의로 일부 군대를 북한으로 보내 미국과 그 주구인 이승만 군대와 싸워 북한동지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으니 중공군의 북한 진입 후 중공군의 작전활동을 엄호할 공군기를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34]

사실상 중공군을 엄호할 소련공군기는 중공군의 북한 진입시에만 긴요했던 게 아니라 미군과의 전투에서 전쟁의 주도권 확보와 작전반경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둥베이지역 후방군수지원의 원활, 그리고 미 공군기의 중국 공업 중심지에 대한 전략폭격과 공습에 대응한 대비까지 보장해줄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

마오쩌둥은 병을 빙자해 한반도 파병군사령관 직위를 고사한 린뱌오(林彪) 대신

부득이 펑더화이(彭德懷)를 파병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에게 펑더화이를 이틀 후의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했다.[35] 당시 펑더화이는 중공 시베이(西北)국 제1서기로서 산시(陝西)성에서 군정책임을 맡고 있었다.

마오쩌둥은 당내 다수의 반대로 자신의 파병안이 통과되지 않자 스탈린에게 보내려고 작성해둔 공군지원 요청전문을 발송할 수 없었고, 파병도 잠시 보류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스탈린과 상의하고 싶다"는 내용을 소련대사 로신(N. V. Roshchin)을 경유해 모스크바에 전달했다. 마오쩌둥이 발송한 서한에 대한 스탈린의 오해와 그로 인한 스탈린의 공군지원의 보류 등에 대해선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앞 절에서 언급한, 박일우가 베이징을 방문해 마오쩌둥에게 "특별한 지원", 즉 중공군의 파병을 요청한 김일성과 박헌영의 서한을 전한 것은 대략 이 때를 전후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박일우의 베이징방문을 통한 북한 수뇌부의 파병요청은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통한 전문과 특사를 통한 서한에 이어 세 번째였다. 지원요청을 받은 마오쩌둥은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지만 우선 대미경고에 기대를 걸고 다시 한번 대미경고를 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스탈린의 의사를 완전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확답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대미경고와 관련해 저우언라이가 미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해 심야에 베이징 주재 인도 대사 파니카르(K. M. Panikkar)를 불러 다시 한 번 미 행정부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는 전쟁을 한반도에 국한시키자는 이른바 "전쟁의 국지화"에 대한 희망과 한국군의 단독 북진은 상관없지만 미군이 38도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반드시 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36] 그러나 절박함과 단호함이 혼재된 저우언라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스탈린의 공군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전이었지만 거듭되는 북한의 지원요청에 마오쩌둥은 10월 4일 오후 중공 중앙정치국확대회의를 소집해 다시 한 번 참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저우언라이, 가오강 등의 당내 주전파들도 "미 제국주의"가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참전결정을 주도했던 마오쩌둥의 의사가 중국공산당의 당론으로 결정되는데 주된 역할을 한 펑더화이

가오강도 미국이 북한전역을 점령해버리면 중국으로선 군대를 진입시킬 명분을 잃게 되고, 미국의 공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중국을 침략할 때까지 수수방관하면 중국혁명은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역설했다.[37]

하지만 이 날의 회의에서도 참전여부에 대해선 결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10월 5일 오후 중앙정치국 위원 13명 전원과 중앙위원 등이 배석한 중공 중앙정치국확대회의가 다시 이넨탕(頤年堂)에서 속개됐지만, 이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와 찬성 의견이 맞섰다. 이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사전에 지지를 약속 받은 펑더화이의 참전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게 됨에 따라 회의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말하자면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내정된 지지자의 역할을 맡긴 셈이다. 펑더화이는 이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을 침공해 중국의 둥베이지역을 위협하고, 또 타이완을 장악해 중국연해의 상하이(上海), 화둥 등지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언제든지 중국을 공격해올 구실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보했다가는 사회주의 건설이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38] 당 동료들의 반대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내세운 자신들이 위기에 처한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을 내버려둘 순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39]

10월 5일 오후의 정치국확대회의의 결과 참전에 미온적이었던 주더, 덩샤오핑 등이 마오쩌둥 지지로 입장을 바꿨고, 펑더화이를 비롯해 약간의 찬성자가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스탈린의 입장과 공군 지원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한 분위기 탓에 찬반 의견대립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회의 후 마오쩌둥은 자신에 대한 주요 지지자로서 좌중을 참전지지자로 견인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저우언라이, 가오강, 펑더화이 세 사람만을 중난하이(中南海) 내에 소재한 마오쩌둥의 관저로 저녁식사에 초대했다.[40] 마오쩌둥의 참전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당시 참전결정과 전쟁수행에 결정적인 위치에 있었던 펑더화이와 가오강 두 사람의 전폭적 지지였다. 펑더화이와 가오강은 중공군이 한국군을 제압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자신했고, 참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참전하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41] 이 같은 펑과 가오의 전술적 파악과 지지는 마오쩌둥이 참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결심하는데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마오쩌둥은 군사적 능력면에서나 신의면에서도 펑더화이를 가장 신임했다. 펑더화이는 중공군총사령관으로 참전하여 김일성 정권을 구했다. 그러나 그는 훗날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 말 마오쩌둥에게 숙청당했다.

앞뒤 정황과 관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 펑더화이, 가오강, 저우언라이 네 사람 사이에 향후의 회의에서 결정될 참전에 관련된 문제들과 소련에 급파할 대표 선정 문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이 자원해서 참전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였고, 마오쩌둥도 이를 흔쾌히 허락했다. 소련에 파견할 대표로는 저우언

라이와 린뱌오가 선정됐다. 중공 대표의 소련방문 건은 이미 10월 2일 마오쩌둥이 로신을 통해 스탈린에게 의사를 타진한 결과 10월 5일 스탈린의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였었다. 이에 따라 먼저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베이징에서의 회의가 종결되는 대로 즉시 선양으로 돌아가 10일 안으로 출동대기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 출동시간은 우선 잠정적으로 10월 15일로 정했고, 1주일 후인 10월 22일부터 중공군을 북한의 북쪽지역에 집결시키기로 계획을 잡았다.[42]

중공군의 파병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10월 6일의 정치국회의에서였고, 스탈린으로부터 소련공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이 전제됐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반도 상의 제공권이 미국에 장악돼 있는 상황에서 공군의 엄호 없이 대규모 병력을 북한으로 진입시켜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중공군과 미군의 전투력 격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사실상 중국의 파병결정은 관련 자료들의 확정성 결여로 인해 언제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 날 저우언라이가 파병 시 공군기 엄호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소련을 방문하기로 결정됐고, 실제로 이틀 후 저우언라이 일행이 소련으로 급파된 것을 보면 최소한 북한에 참전사실을 통보한 10월 8일 이전에는 내부 방침으로 결정된 게 분명하다.

미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을 개시한 이후인 10월 8일 마오쩌둥은 세 방향으로 대처했다. 첫째, 저우언라이와 린뱌오를 소련으로 급파해 스탈린과 파병시의 공군 지원 여부에 대해 담판 짓도록 했다. 둘째, 펑더화이를 정식으로 '抗美援朝人民志願軍' 사령관으로 임명한 후 그를 선양으로 보내 북한진입을 준비시켰다. 셋째는 북한 수뇌부에 파병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펑더화이로 하여금 북한측과 실무 차원에서 작전방안을 논의케 한 것이다.

저우언라이의 소련방문은 파병과 파병불가의 두 방안을 가지고 스탈린을 압박해 그로 하여금 소련공군의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이에 관한 행적과 결과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 사안을 순차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펑더화이는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제4야전군 위주의 둥베이변방군이 지휘에 잘

따라줄지 염려하면서도 참전을 지지한 이상 항미원조지원군 사령관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마오쩌둥이 구상했던 지휘관직은 최초 수위(粟裕)에서 린뱌오로, 린뱌오에서 다시 펑더화이에게 낙착된 것이다. 이날 오전 중앙정치국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펑더화이는 마오안잉을 데리고 비행기편으로 선양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마오쩌둥의 지시대로 둥베이변방군은 즉각 '중국인민지원군'(이하 '중공군'으로 칭함)으로 개칭됐으며, '지원군'의 지휘기구와 전투서열도 제13병단과 그에 소속된 제38·제39·제40·제42군단, 그리고 둥베이변방군 포병사령부와 제1·제2·제8포병 사단 순으로 정해졌다. 이 부대들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후 대기하도록 조치됐다.[43] 말하자면 마오쩌둥은 개전 전 김일성에게 파병을 스스로 공언한 것을 지키게 된 셈이다.

다음으로 마오쩌둥은 북한주재 중국대사 니즈량을 통해 김일성에게 중국이 군대를 보내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했다. 또한 펑더화이의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 임명사실과 그리고 중공군의 후방지원 문제와 기타 둥베이 지역에서의 대북지원 문제는 둥베이군구 사령관 겸 정치위원인 가오강이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덧붙여 김일성에게 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박일우를 선양으로 보내 펑더화이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44]

한편 10월 8일 마오쩌둥의 전보를 지참하고 평양의 차이청원(柴成文)과 함께 그날 밤 늦게 평양 모란봉 밑의 지하 지휘소로 찾아온 니즈량으로부터 중국의 참전결정 사실을 전해들은 김일성은 니즈량의 두 손을 잡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들과 축하주를 연거푸 세 잔이나 들이켰다. 그리고 바로 박일우를 선양으로 보내 펑더화이, 가오강과 회동케 했다. 후술하겠지만 김일성은 같은 날 스탈린으로부터도 중국의 참전지원 결정 사실을 전해 들었다. 중국 수뇌부로부터 구원군을 지원하겠다는 전갈에 희망을 가지게 된 김일성은 10월 10일 밤과 10월 11일 이틀간에 걸쳐 방송으로 전체 북한군에게 소련과 중국의 지지와 원조를 받고 있으니 "끝까지 항전할 것"을 호소했다.[45]

그러면서도 김일성 자신은 피신하기 위해 이미 10월 9일 강계를 임시 "수도"로 정해 놓은 상태였고, 나흘 뒤인 10월 13일 북한을 탈출하라는 스탈린의 전보를

받은 날 극비리에 평양을 빠져 나갔다.[46] 당, 정의 주요 기관, 주요 학교와 단체 등이 그를 따라 철수했고, 각국 외교사절들은 만포로 피하도록 조치됐다. 객관적인 정세는 김일성이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엔 전세가 반전 불가능한 상태로 치달아 유엔군의 평양 점령이 임박해진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 10월 8일 베이징에서 선양으로 돌아간 펑더화이와 가오강은 김일성이 급파한 박일우와 그날 밤부터 다음날에 걸쳐 회담했다. 이 과정에서 박일우는 펑더화이와 가오강에게 중공군을 신속히 진입시켜 함흥-신안주 선을 장악해줄 것을 요청한 김일성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펑더화이는 박일우에게 중국이 10일 후 군대를 북한으로 출동시킬 계획이라는 사실을 김일성에게 전하도록 했다. 그리고 전황을 분석하고 북한진입 후의 작전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등 북중 협력문제를 숙의한 결과 중공군의 북한진입 전 먼저 펑더화이 자신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펑더화이와 가오강은 다음날 오전 '항미원조지원군'의 군단급 이상 지휘관 회의를 열어 중국공산당 수뇌부의 파병결정 사실을 고지하면서 향후 10일 이내에 출동준비를 완료하도록 독려했다. 그리고 대략 오전 11시 경 주요 지휘관들의 최대 관심사인 파병시 공군기의 엄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마오쩌둥에게 공군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 질의는 중국 공군의 열악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펑더화이 등 현지 주요 군사지휘관들이 소련 측으로부터 대미 전투에 필수적인 전투기 및 폭격기의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대변한 것이었다.[47]

그 이전 1950년 7월 초순 스탈린은 중공군 9개 사단의 북한진입을 엄호 지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소련 전투비행 사단이 둥베이 각지에 주둔케 됐다. 하지만 중국 내 소련 전투비행사단은 스탈린의 지침 없이 자의적으로 한반도까지 임무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펑더화이는 이 점을 모를 리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중국 공군이 창설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항공기 조종사들은 훈련중에 있었고, 전투기와 폭격기는 모두 소련에 의존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펑더화이는 덩화, 홍쉐즈(洪學智) 등 제13병단의 주요 지휘관들과 중공군의 입북방안을 연구한 후 10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작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는 마오쩌둥에게 2개 군단과 2개 포병사단을 우선 파병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바꿔 제1선의 4개 군단과 3개 포병사단 전체를 10월 15일에 출동시켜 10월 20일 혹은 늦어도 10월 22일까지 압록강 남단 북한의 지정된 지점에 집결시킨 후 적 섬멸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작전방안을 제시했다.[48] 즉 펑더화이의 전술적 복안은 병력을 집중해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었다. 작전계획을 변경한 까닭은 미 공군의 공습으로 압록강 철교가 폭파되면 수송의 어려움으로 병력을 우세하게 집중시키기가 어렵게 돼 전투개시 '타이밍'을 놓칠 것(失去戰機)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상기 전술방안을 보고 받은 마오쩌둥은 먼저 10월 10일 김일성에게 남쪽에서 미처 북으로 퇴각하지 못한 북한군으로 하여금 적의 후방지역에 전선을 형성하도록 권고하면서 만약 북한군 4~5만 명으로 이 임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북쪽에서의 전략지역 방어작전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쪽의 전략지역 방어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오쩌둥과 펑더화이 등 중국 수뇌부가 전략적 방어선으로 설정한 북한의 평안남도 덕천 지역의 산악지대를 확보하겠다는 의미였다.[49]

이 지시에 의거, 이날 선양의 펑더화이는 덕천으로 들어가 김일성과 상의하겠다고 보고한 후 다음 날인 10월 11일 먼저 안둥으로 가서 전황을 관찰했다. 펑더화이는 안둥을 거쳐 10월 12일 압록강 중상류의 도강지점을 점검하면서 현지 집결부대의 도강 준비상황을 보고받은 후 다시 안둥으로 돌아와 중앙군사위원회, 즉 마오쩌둥에게 중공군의 도강계획을 보고했다. 그리고 직접 덕천으로 잠입해 들어가 전선을 시찰하기 위해 채비를 하고 있었다.

펑더화이가 안둥, 압록강 중상류 등지의 전방에서 적정과 도강조건을 살피고 있을 즈음 베이징의 마오쩌둥은 10월 11일 4개 군단을 모두 북한으로 진입시키자는 펑더화이의 제안에 동의한 상태였고, 그에게 그대로 시행하되 당분간 소련 공군기의 출동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라는 전문을 발송했다. 마오쩌둥은 같

은 날 화둥군구사령관 천이에게도 화둥 지역에 주둔중인 고사포 1개 연대를 10월 14일 상하이에서 선양을 경유해 압록강 일대의 전방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고, 공군은 당분간 출동할 수 없다고 알렸다.[50] 계속해서 10월 12일에 화둥군구 지휘부에게도 송스룬(宋時輪)이 이끄는 제9병단의 둥베이 북상을 앞당겨 실시하라고 명령했다.[51] 즉 제1선 부대의 북한진입과 동시에 제2선의 병력도 출동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파병을 재고하게 된 반전이 발생했다. 마오쩌둥은 상기 지시를 하달한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2일 밤 8시 자신의 지시를 번복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펑더화이, 가오강, 덩화 등에게 10월 9일 지시한 대북 군사지원을 잠시 보류하라는 것이었다. "소련공군의 준비가 좋지 않아서 당분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 "출동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중공군 4개 군단의 북한진입을 잠시 실행에 옮기지 말고, 제13병단의 각 부대는 주둔지에서 훈련을 하면서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동시에 마오쩌둥은 화둥군구사령관 천이, 정치위원 야오수스(饒漱石)와 제9병단 사령관 송스룬에게도 둥베이변방군의 출동을 보류한다고 알리고 산둥(山東)과 화둥 지역 일대의 주둔지에서 부대정비와 훈련을 하면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

마오쩌둥이 북한파병을 갑자기 보류한 까닭은 스탈린이 저우언라이를 통해 북한정권을 포기할지라도 중국의 한반도 작전에 대해 향후 2개월 내지 2개월 반 동안은 소련공군의 엄호지원을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진입하면서까지 엄호하기는 곤란하고 후방인 중국 영공 내에서만 엄호하겠다는 의사였다. 이것은 곧 스탈린이 1950년 7월에 중국 수뇌부에게 했던 약속을 번복한 셈이었다. 펑더화이는 약속번복 내용의 통보와 함께 마오쩌둥과 네룽전으로부터 각기 소환을 지시한 두 통의 전화를 받고 10월 12일 심야에 급거 안둥에서 열차로 선양까지 가서 다음날 오전 선양에서 비행기로 베이징으로 날아갔다.[52]

10월 13일 정오 베이징에 도착한 펑더화이와 가오강은 오후 긴급히 소집된 중난하이 이넨탕의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 간에 벌어진 열띤 논의 결과 소련 공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대북군사지원을

감행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 시기 중국지도부는 10월 13일 이미 금천을 점령한 미군, 영국군과 한국군이 모두 평양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미 해병사단이 평양을 협공하기 위해 진남포 상륙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원산에 집결할 예정이었던 한국군 제6·제8사단 등 2개 사단도 진격로를 바꿔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고 알고 있던 상태였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전략지대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시점은 미군의 평양 점령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중공군의 선두가 현 주둔지에서 전략적 거점지역인 덕천까지 200㎞나 되는 거리를 도보로 도달하려면 약 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10월 19일 출발한다고 해도 26일에야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틀을 쉬고 난후 28일부터 겨우 덕천-영원선 이남의 진지공사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27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 전 병력이 압록강을 건너려면 10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10월 28일에야 도강을 마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었다.

이 회의에서 압록강 북안의 4개 군단을 위시한 3개 포병사단, 자동차연대, 고사포연대와 공병연대 등 이른바 제1선 병력 전체가 10월 18일과 19일에 걸쳐 도강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소련측에 "정치국회의에서 참전하기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이 통보대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참석자들 전원이 소련공군의 작전지원 없이도 북한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그 이유는 그들이 소련 전투기의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참전하는 편이 중국에 유리하고, 이 때가 아니면 적기를 놓치고 만다는 마오쩌둥, 펑더화이, 가오강 등 주전파의 주장에 설득됐기 때문일 것이다.

개입방침이 확정되자 회의 후 당일인 13일 밤 10시 마오쩌둥은 즉시 소련의 저우언라이에게 소련공군의 엄호지원이 없어도 중공군은 참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스탈린에게 통보하라는 전문을 보냈다. 그리고 저우언라이에게는 소련에 며칠 더 체류하면서 공군기, 대포, 전차 등의 무기 장비의 지원 방식과 한반도에서의 중공군 작전에 대한 소련 공군기의 공중엄호 지원이 불가능하면 베이징, 톈진(天津), 상하이, 선양, 난징(南京), 칭다오(青島) 등의 주요 도시에 대한 공중 엄

호는 가능한지 몇 가지 불명확한 문제들을 명확히 확인한 뒤에 귀국하라고 지시했다.[53]

이로부터 세 시간이 지난 10월 14일 새벽 1시 마오쩌둥은 군사출동 조치로서, 출동을 잠시 보류시켜 놓았던 제2선 병력을 제1선으로 이동을 재차 가동시켰다. 내용인즉슨 후미 부대가 도착하면 제9병단 전체는 타이안(泰安), 취푸(曲阜)지역에 집결해 훈련하면서 둥베이로의 출동명령을 기다리되 먼저 고사포부대만 즉각 둥베이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이었다.[54] 요컨대 이틀 전 10월 12일 밤 9시 천이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내용, 즉 송스룬의 제9병단 중 후미 부대 전원이 집결지를 향해 10월 28일 상하이, 창러(常熱)를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재가한 것이다. 연이어 마오쩌둥은 10월 14일 새벽 3시와 그리고 그 후 2회 연속으로 저우언라이를 매개로 소련측에 북한의 전황과 중공군을 10월 19일 입북시킬 예정이라는 사실을 담은 전문을 발송했다.

저우언라이가 마오쩌둥으로부터 파병을 결정했다는 전보를 받은 시각은 크리미야 반도로부터 10월 12일 오후(베이징보다 5시간이 늦은 모스크바 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약 하루가 지난 13일 오후 5시경이었다.[55] 이 전보내용은 10월 14일 스탈린에게 전달됐다. 그리고 저우언라이는 다시 한번 몰로토프(Viacheslav M. Molotov)와 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소련측은 저우언라이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마오쩌둥에게 차관 형태로 무기 장비는 제공할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중공군의 작전수행에 대한 공군지원은 2개월 혹은 2개월 반 뒤에나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이 문제는 다음 절 저우언라이의 소련방문을 논할 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0월 14일 늦은 시각에 소련 측이 중공군에 대한 엄호지원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오자 마오쩌둥은 19일에 출발하기로 한 군사출동을 하루 정도 앞당기기로 하고 중공군의 주력을 18일 혹은 늦어도 19일에는 압록강 도강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긴박한 움직임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측의 전황변화를 반영하는 대응이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경위는 제3장 제2절에 가서 언급할 것이다.

3. 참전조건 : 소련공군의 지원 여부

소련 공군의 지원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가 하는 점은 중국 수뇌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였다. 왜냐하면 당시의 중국공군으로는 중공군의 한반도 전개시의 엄호, 전투개시 후 필요한 각종 지상작전에 대한 공중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1949년 11월 창설된 중국공군은 국민당 공군기를 접수한 113대로 출발한 뒤 이듬해 10월 중순 당시 2개 사단 2개 연대가 전부로서 상하이, 난징 등지의 소련 공군으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항공기를 모두 합해도 120대를 넘지 못했다.[56] 이 가운데 전투출격이 가능한 것은 MIG-15전투기 38대, LA-11전투기 39대, TU-2폭격기 9대와 ILIUSHIN-10전투기 25대 등이었다.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비행한 시간도 겨우 15시간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그 수도 극소수였다.[57]

그 후 10월 28일 중국공군 제4혼성여단은 둥베이 지역의 랴오양에서 공군 제4전투비행여단으로 개편됐지만, 전투투입은커녕 비행훈련에 들어간 것이 전방 안둥의 랑토우(浪頭)기지로 건너온 뒤였다. 즉 12월 21일 중국공군 제28대대가 라오양에서 안둥의 랑토우비행장으로 전개된 후 이곳에서 소련공군의 지도로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는데, 미 공군기의 출격이 없는 날을 골라 안주, 희천 등지의 상공으로 날아들면서 연습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정식으로 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1951년 1월 21일이었다.[58] 이때에도 출격한 비행기는 겨우 몇 대의 전투기에 지나지 않았다.[59] 중국공군이 주로 보유한 소련제 MIG-5기와 MIG-15기 등은 낡고 구식이어서 비행시간이 극히 짧고 작전반경이 작았기 때문에 안둥의 랑토우 비행장을 이륙하면 청천강 일대에 제한된 지역에서 5분 정도 작전을 펴다가 되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60] 따라서 중공군의 참전에 즈음해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거나 보강해줄 수 있는 것은 소련공군의 지원뿐이었다.

중공군의 작전에 대한 소련 공군기의 엄호 지원은 중소동맹 체결시 중소 양국

중 어느 일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다른 일국은 공격당한 국가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서로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의미가 있는 사안이기도 했다.

마오쩌둥의 소련방문 지시를 받은 저우언라이와 린뱌오는 급거 비서 캉이민(康一民)과 통역 스쩌(師哲)를 데리고 10월 8일 군용기 편으로 베이징을 출발해 먼저 시베리아 바이칼 호의 이르쿠츠크로 갔다. 그 곳에서 소련측이 보내온 전용기로 갈아타고 10월 10일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이틀씩이나 소요된 까닭은 모스크바까지 직항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이르쿠츠크를 경유해야 했는데다 그곳에서 갈아탄 소련 비행기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저우언라이 일행은 다음날 10월 11일 불가닌(Nikolai A. Bulganin)과 같이 비행기로 스탈린이 휴양하고 있는 흑해 연안 크리미야반도 소치 부근의 압하지아에 당도해 당일 오후 스탈린과 회담했다. 중국측은 린뱌오가 동석했을 뿐인데 반해 소련측은 스탈린을 위시해 거의 모든 정치국 위원이 배석했다. 저우언라이 측의 소련어 통역은 스쩌가 수행했고, 스탈린의 중국어 통역은 소련측의 페도렌코(N. T. Fedorenko)가 맡았다. 지금까지 이 회담 참석자들의 발언내용이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중소 쌍방이 회담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저우언라이는 스탈린에게 한반도 전황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초기 승승장구했을 때와 달리 전황의 역전에 대비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중국 지도부 내에 출병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대립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파병이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다. 저우언라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거론하면서 스탈린의 지원보따리를 열려고 시도했다. 중국은 장기간 전쟁을 겪은 관계로 파괴가 극심하고 많은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국민의 곤고한 생활을 개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회복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군대의 무기와 장비가 부실한 상태에서 대미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전쟁을 지탱하기 어렵게 돼 장기간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형제국가에 악영향만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61] 저우언라이가 이처럼 중국이 개

입한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적 부담을 지대하게 안게 될 것이라는 발언은 소련학자 곤차로프(Sergei N. Goncharov)가 일찍이 주장한 바 있듯이 마오쩌둥이 스탈린으로부터 군사원조를 얻어내려는 담판전략의 일환이었다.[62]

이에 대해 스탈린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했다. 첫째, 미군이 이미 38도선을 넘어 북한지역을 공격함으로 인해 북한이 최대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중국이 응당 군사를 보내 북한군의 병력을 구해줘 다른 기회를 엿보게 해야만 김일성 정권이 소생할 희망이 있다. 북한군이 미군에 격멸되든, 아니면 스스로 후퇴하든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의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둥베이지역 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회복에 직결된 둥베이지역이 위협을 받게 되면 결국 이 지역의 경제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만일 북한의 김일성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눈뜨고 희생을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차라리 조직적, 계획적으로 후퇴하라고 권고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병력, 무기, 물자와 주요 당 간부들을 중국 둥베이지역으로 퇴각하도록 허락해주는 게 낫다. 노약자, 부상자 대부분은 소련 경내로 물러나도록 하겠다. 주요 병력을 중국 둥베이지역으로 퇴각시키려는 것은 이 지역으로 퇴각시키는 것이 소련으로 퇴각시켜 한반도로 재 진입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재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하간 중국과 소련은 이 역할을 떠맡아야 하고, 이 의사를 즉각 김일성에게 통고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63] 스탈린의 언명은 일단 북한정권의 구원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병력지원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중국이 직접 나서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김일성 정권을 망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소련은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저우언라이는 훗날 스탈린과의 회담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다. 미군이 "압록강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는 스탈린을 찾아가 그와 논의하기로 결심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혹자는 출병하자는 것이었고, 혹자는 출병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출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우리는 공군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가 하고 스탈린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동요하면서 중

국이 곤란하다면 출병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을 잃는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주의이며, 중국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64] 스탈린이 언급한 후반부 대화의 일단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맥락이었다.

첫째,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시킨 지 오래인 소련이 다시 군대를 북한에 파견한다는 것은 미국과 직접적인 교전을 벌이자는 의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일정한 병력을 보낼 수 있는 중국이 참전해야 한다. 참전하면 소련은 무기, 장비 지원은 물론, 작전 시 한반도의 전방에 깊숙이 투입하지 않고 후방인 중국 영내의 수송선 엄호에 국한한다면 소련공군의 엄호지원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전투기를 한반도의 전선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전투기가 격추돼 조종사가 포로가 될 경우 필시 국제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65] 요컨대 스탈린은 스스로 밝혔듯이 소련군 조종사들이 미군 조종사들과 압록강 변에서 충돌해 격추돼 포로가 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지원은 극력 회피하려고 한 셈이다. 소련공군기가 중공군을 엄호하는 중 미군기 혹은 미 지상군에 격추돼 조종사가 포로가 될 경우 그것은 미국과 맺은 얄타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둘째, 스탈린은 중공군의 무기 장비를 소련의 무기 장비로 바꾸려는 중국 지도부의 구상에 부응해 보병, 포병, 공병, 전차병, 기계화 부대 등 중국의 육군과 공군의 무장, 그리고 해군건립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출병하겠다면, 소련은 중국측이 무장시킬 사단규모에 필요한 양만큼 원하는 대로 전차, 대포, 항공기 및 장비, 기계화 부대와 특과병 부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련공군의 중국 영공내 지원과 여타 무기 장비 원조를 약속한 스탈린은 바로 즉석에서 불가닌에게 향후 소련군부와 함께 중공군 무기 장비의 교체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하라고 지시했다.[66] 하지만 회담은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이 끝났다.

회담종료 후, 10월 11일 늦은 시각이었지만 스탈린과 저우언라이는 연명으로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타전해 회담결과를 통보했다. 이 전문은 중국시각으로 대략

10월 12일 오후 중국 수뇌부에 접수됐다. 스탈린과 저우언라이가 연명으로 발송했다는 이 전문은 현재 존재여부가 불투명하고, 공개된 적도 없지만 마오쩌둥은 이 전문을 받아 봤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전문을 통해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중소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에 대항하기로 약속한 것과 달리 소련과 중국이 파병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사를 전했다.[67] 스탈린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공군기의 타 기지로의 전개 곤란 등 소련공군의 출격준비 미비 때문에 2개월에서 2개월 반 동안은 북한에서의 전투시 중공군에 대한 엄호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68] 말하자면 이것은 참전을 보류하든가 아니면 즉각 참전하겠다면 소련군의 엄호와 지원 없이 북한진입을 결행하라는 의사표시로서, 중공군이 6·25전쟁에 출동할 경우 공중엄호와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했다.

당시 소련 극동공군은 전투기 2,800대, 전폭기 1,700대, 수송기 500대와 정찰기 300대 등 총 5,30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랴오둥(遼東)반도의 뤼순과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공군기지가 있었고, 둥베이지역에도 비행장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지 전개문제를 해결하는데 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69] 따라서 스탈린이 공군 엄호지원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실상 미군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서 마오쩌둥이 중국인 조종사들의 양성을 통해 공군 2개 사단을 양도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언급한 1951년 봄 이전까지 참전을 피해 가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70] 이유는 소련 공군기가 전장에 투입될 경우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발생되고, 그것이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스탈린은 사실상 1950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중공군이 북한으로 들어가면 공군엄호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자신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10월 7일 소련 공군기로 중국 지상군의 북한진입 뿐만 아니라 한반도내에서의 대미 전투작전을 지원하고, 또한 중국의 주요 공업중심도시를 보호해주라고 한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이를 두고 훗날 마오쩌둥은 스탈린이 공군지원을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금까지의 논급으로 우리는 두 사람이 제각기 상대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전술한, 10월 13일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북한 철수를 권고한 배경이었다. 스탈린은 저우언라이에게 소련공군의 즉각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킨 이상 중국이 참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즉시 두 가지 긴급조치를 취했다.

첫째, 10월 13일 오전 소련해군 제1부부장 겸 해군 총참모장으로부터 북한의 함흥이 미 해군과 공군의 맹폭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보고[71]를 접한 스탈린은 즉각 북한의 쉬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잔여 병력을 데리고 소련과 중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했고, 쉬티코프에게는 김일성이 철수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함흥은 북한지역의 공업 중심도시이자 서해안의 신안주 선을 횡으로 잇는 동해안의 전략지역으로서 동해안을 따라 두만강까지 진격할 수 있는 요로였기 때문에 스탈린으로선 이 지역이 맹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 있다. 김일성이 당일 밤 평양을 빠져나간 것은 이 같은 스탈린의 지시와 쉬티코프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일성 정권은 출범시부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관계로 소련과 중국의 거래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용도폐기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둘째, 유엔 주재 소련대표 비신스키(Andrei Vyshinsky)로 하여금 미국을 겨냥해 양보를 보장할테니 북진"강경책"을 중지하고, 소련과 과거 제2차 세계대전시의 협력관계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케 했다.[72]

4. 반전 : 파병결정 철회에서 재결정으로

스탈린의 입장변화에 직면한 마오쩌둥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소련공군기의 엄호 없이도 파병할 것인가? 아니면 참전을 보류하고 사태를 지켜보고 말것인가? 그렇게 되면 김일성 정권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자신을 포함해서 당 내부적으로 참전방침이 선 상태였고, 더군다나 김일성에게 파병결정

사실을 통보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마오쩌둥으로선 관망만 하기에는 중국 지도부가 설정해놓은 전략적 방어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그다지 저항을 받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방어지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 한시바삐 참전해야 하는데, 과연 중공군은 2개월 내지 2개월 반 동안 소련공군기의 공중엄호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현대화된 미군과 작전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마오쩌둥은 다시 이 문제에 대해 거듭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오쩌둥은 명령을 내렸던 중공군의 출동을 즉시 중지시킨 후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그는 스탈린과의 회담을 마친 후 모스크바로 돌아가 있던 저우언라이를 경유해 10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스탈린에게 중국은 소련공군의 한반도 지원 없이도 참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스탈린에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소련공군의 즉각적 지원 없이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복안은 경제, 문화 등의 국내건설과 일반 군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련측이 미화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해주기만 한다면 중공군은 "안심하고 북한에 들어가 장기전을 펼칠 수 있으며, 국내 대다수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만약 소련이 2개월 혹은 2개월 반 내에 공군을 출동시켜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지원하는 것" 외에 베이징, 톈진, 선양〔안산(鞍山), 푸순(撫順)〕, 상하이, 난징, 칭다오 등 중국의 주요 공업 중심지를 엄호할 수 있도록 공군기를 더 보내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공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2개월 혹은 2개월 반 내에 만약 미군의 공습을 당해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참아낼 것"이라는 각오였다.[73] 이러한 사정이, 최소 2개월 이상 소련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마오쩌둥이 전략방어지대로 설정한 덕천 이북 묘향산맥의 산악지대를 선점한 후 소련공군이 출격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미군과의 조우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약체인 한국군을 주로 공격하겠다는 전술을 펴기로 한 배경이었다.

환언하면 마오쩌둥의 상기 요청사항들은 그동안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서로 주고

받은 전문에 나타난 모호하고 불분명한 문제들, 예컨대 소련공군의 출동시간과 소련공군 및 무기 장비의 원조형식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한반도상의 제공권이 미 공군에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마오쩌둥에게 화급한 초미의 관심사는 중공군의 개입시 엄호, 그리고 개입후의 전투를 지원할 소련공군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어차피 소련지상군을 직접 파병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양지하고 있던 마오쩌둥으로선 최소한 소련공군의 지원 폭과 무기 장비의 지원형식이 확인돼야 했다.

이 문제는 스탈린이 2개월 혹은 2개월 반 후에 공군기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중공군과 같이 참전할 것인지, 혹은 중공군을 먼저 북한에 들어가게 할 것인지, 출동의 선후문제 뿐만 아니라 중공군의 입북작전까지 엄호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영내의 방공 및 후방 병참선에 대한 보호에만 국한할 것인지 지원의 범위와 관련돼 있었다.[74] 물론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극구 피하려는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중국인 조종사를 속성으로 양성하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중국 공군을 무장시켜 북한정권의 구원임무를 모두 중국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었다. 반면 공군력이 전무에 가까운 처지에 있던 마오쩌둥으로서는 소련이 모든 공군력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했다.

전술했다시피 이러한 문제들을 매듭짓기 위해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에게 며칠 더 모스크바에 남아서 소련측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동시에 베이징의 소련대사에게도 가능한 한 소련이 공군 지원을 2개월 이상 늦춰선 안 될 것이며, 10월 7일에 이어 재차 중국정부는 현금으로 무기 장비를 구입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차관형식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부연했다.[75] 저우언라이는 상황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즉시 몰로토프를 통해 흑해의 휴양지에 머무르고 있는 스탈린에게 소련공군의 즉각적인 엄호 없이도 중국이 단독으로 참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스탈린과의 재회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저우언라이는 스탈린과 만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날 밤 몰로토프와 만나 그 전날 스탈린에게 제시한 지원항목과 그 규모를 재차 거론했고, 두 사람은

지원물자의 하치 장소, 인수, 재운반, 보관, 인도 인수의 수속 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그리고 10월 14일 저우언라이는 재차 스탈린에게 그 전날 접수한 마오쩌둥의 전보내용을 전했고, 서면을 통해 소련의 원조문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8개항의 문제를 제기했다. 8개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련은 제트전투기 16개 연대를 출동시킨 후 연이어 폭격기를 북한으로 출격시켜 중공군의 작전에 협력할 수 없는가?[76] 둘째, 소련 정부가 2개월 혹은 2개월 반 후에 출동시키겠다는 공군부대는 한반도에서의 작전을 지원해줄 수 있는가? 또 이 외에 엄호용 공군기를 더 보내어 중국 근해의 각 대도시에 주둔케 할 수 있는가? 셋째, 중공군이 북한에 진입해 북한군과 공동으로 전투수행 시 중공군과 북한군 상호 지휘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항공기, 전차, 각종 포 종류, 해군 장비 외에 자동차, 중요 공병 기자재 등을 신용구매할 경우 제공해줄 수 있는가?[77]

저우언라이와 로신 양측으로부터 마오쩌둥이 소련공군의 즉각적 지원과 무관하게 참전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접한 스탈린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즉각 10월 14일 전보로 쉬티코프에게 결단을 못 내리던 중국 지도부가 마침내 참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김일성에게 북한 철수를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전문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중국의 참전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장비는 소련이 제공할테니 중공군의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는 중국 지도부와 상의해서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78] 이번에도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중국과 상의하게 만듦으로써 중국을 제1선으로 밀어 넣고 소련은 그 배후에 숨어버리는 고전적인 수법을 구사한 셈이다.

저우언라이는 2~3일 더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 장비를 주문하는 등 지원에 관한 문제를 매듭짓고 귀국했다. 소련정부는 중국정부가 신용구매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항공기, 대포, 전차 등의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병 100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탄약과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56억 루블을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마오쩌둥이 의사 타진한 중국

연해지역에 대한 공군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중공군이 방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79]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은 소련의 무기 장비 지원을 받기로 하고, 즉각적이 아니라 2개월 혹은 2개월 반 후 공군지원을 받되 지원의 범위를 중국 내에 한정하기로 함으로써 스탈린의 조건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중공군 주력의 북한진입 출발예정일인 10월 17일 오후 5시 마오쩌둥은 펑더화이, 가오강, 덩화에게 출발일을 늦춰 선두 2개 부대를 10월 19일에 출동시키도록 지시하면서 펑더화이와 가오강을 급히 베이징으로 호출했다. 10월 19일의 출동은 정식으로 18일에 명령을 내리겠지만 구체적인 출발시간과 향후 대책은 10월 18일 소련에서 귀국하는 저우언라이로부터 소련의 군사지원에 관한 소련 측과의 담판 결과를 직접 들은 후에 결정하자는 것이었다.[80] 이로 인해 이미 16일 오후부터 북한영내로 진입한 일부 중공군의 전진이 중지됐다. 펑더화이와 가오강은 급거 회경하라는 마오쩌둥의 급전을 받자 바로 선양을 거쳐 18일 새벽 비행기로 베이징에 도착했으며, 그리고 그날 오후 마오쩌둥이 주재한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 참석했다.

상기 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소련에서 막 귀국한 저우언라이로부터 소련이 각종 무기장비는 제공할 수 있지만 한반도 내 전투에 대한 공군기의 엄호는 불가능하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는 보고를 듣고 더 이상 변동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즉각 대기중이던 중공군을 북한으로 전개시켰는데, 이에 관해선 제3장 제2절에서 다시 거론하겠다.

제 3 절 마오쩌둥의 참전동기 및 참전결정 요인

1. 북한정권의 붕괴방지

지금까지 우리는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군사개입하게 된 전 과정을 밝히게 됐다. 그러면 그는 왜 군사개입하게 됐을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군사개입하게 된 동기 내지 목적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동기들이 복합된 것이다. 그것들을 모두 망라하면 대략 6개 이상이 되지만 본문에서는 그 가운데 주요 결정요인이랄 수 있는 4가지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다. 4가지 요인 중 가장 1차적인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북한정권의 붕괴방지는 김일성을 돕는 행위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마오쩌둥을 위시한 중국지도부는 한반도와 중국이 이른바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에 있고, 북한은 중국의 입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 혹은 관념은 그 시대, 중공지도부 요원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중국 역대 왕조의 많은 지식인과 전략가들도 오랫동안 한반도의 지정적 중요성을 인식해 왔었다. 그들은 자국의 안보논리에 입각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한중 양국에 대해 거리의 근접성과 안보의 밀접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그들 식으로 흔히 "순망치한"의 관계에 있다고 표현한다.[81]

한반도에 대한 순망치한적 인식은 하나의 역사적 유산처럼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내려오면서 중국과 중국인들에게 지정적 안보관으로 정착하게 된 유산이었다. 즉 明淸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가 중국 이외의 외부세력-일본이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에 점령당하면 중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 받게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정형화 된 안보관이었다.[82] 이것은 일반 중국인은 물론

순원(孫文), 다이지타오(戴季陶), 후한민(胡漢民), 탕샤오이(唐紹儀), 송쟈오런(宋敎仁), 천궈푸(陳果夫), 순커(孫科), 장제스 등 중국국민당의 주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중국국민당과 정치이념을 달리한 중국공산당의 신중국 정치엘리트들에게도 나타난 공통적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중국인의 집단적 인식이자 가치이기도 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접한 한중 국경지역. 한중 국경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 하구처럼 넓은 곳도 있지만 이처럼 수십 m에 불과한 지역도 있다.

중국공산당의 당수로서 사해 평등주의의 신념에 입각해 중국 주변의 약소국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한 이상주의자, 보편주의자로 자처한 마오쩌둥도 예외 없이 한반도에 대해 순망치한 개념으로 인식했다. 인간은 환경에 대해 지각한대로 반응한다고 볼 때 마오쩌둥도 당시 주변국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지정 전략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군사전략 및 책략의 고안과 개발에 역사와 중국고전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교훈을 얻었던 그가 그 점을 지각하지 않았을 리 없었을 것이다. 즉 자국의 정치환경을 지각했다면 그 역시 한반도에 대한 보편 중국인들의 순망치한적 인식, 혹은 관념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사실상 마오쩌둥은 북한정권과의 관계를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고, 대문이 망가지면 집 안채가 위태로운”(脣亡齒寒, 戶破則堂危) 관계로 인식했다.[83] 마오쩌둥이 왕조체제를 부정하는 새로운 혁명사상과 정치이념을 내세웠다고 해도 그것은 자국의 정치문화에서 완전히 유리된 것일 수가 없었고, 단지 변증법적 발전의 한 과정에 있었을 뿐이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인도요청에 응해 1947년부터 6·25전쟁 발발 직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최소 5만 명 이상의 “한적” 사병을 북한으로 보내준 것도 한반도에 대한 순망치한적 인식에 따른 결과였다. 목적은 물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으로 이송된 한적 사병들이란 주로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해방 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공내전에 중국공산당군으로 참전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출신지는 한반도 남북 각지의 다양한 지역이었으나 중국공산당 측은 그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전원 북한으로 보냈다. 한적 사병들 중에는 북한행을 원하지 않은 남한 출신자들도 적지 않았다.[84] 중국의 일방적 조치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한 강권적 처사였다. 한적 사병들은 단지 인간의 귀향조차 국가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시킬 도구로 수단화한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자국의 대한반도 안전망을 형성시킬 방패막이로 동원됐을 뿐이다.

해방 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한적 사병들과 같이 북한으로 들어간 자들 가운데 중국공산당계 출신 한인 그룹인 이른바 ‘연안파’(延安派)가 정권을 장악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북한권력 내에 주류가 돼주기를 기대했다.[85] 그게 여의치 않다면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연안파들이 포함된 반미적이면서 친중국적인 정권의 존재가 필요했다.

1950년 5월 마오쩌둥이 베이징을 방문한 김일성의 남침전쟁 구상에 동의하면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도 순망치한의 관점에서 남침을 ‘민족해방혁명 전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가 북한정권에 장악돼야 한다는 원론적, 혹은 당위론적인 기대에서 나온 의사표시였다.[86] 그리고 그것은 노회한 스탈린의 참전압력을 간접적으로 받은 마오쩌둥이 중소동맹조약의 체결로 약정된 국가이익의 원활한 환수를 보장받기

위해 자신이 원치 않은 부적절한 시기에 전쟁을 지지하게 된, "내키지 않는 참전"을 결정한 결과였다.

스탈린의 요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마오쩌둥이 기대한 반대급부는 사실상 북한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보장받게 될 국가안보에도 연관돼 있었다. 즉 중국이 존폐의 기로에 선 김일성 정권을 구제하려고 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 중북관계를 순망치한의 관계로 파악한 이상 중국자체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의 전제조건은 북한정권이 반미적이고 친중국적이어야 했다. 당시 김일성 정권은 두 조건을 다 충족하고 있었다. 김일성 정권은 출발부터 공산주의혁명을 표방했고, 소련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 수립된 소련의 위성국가였다. 따라서 김일성 정권은 공산주의혁명을 표방한 이상 중공 정권과는 이념적으로 동지적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을 반제국주의의 공동 적으로 삼음으로써 자연히 반미적, 친 중국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국가안보와 국익보호 의식이 혼재된 마오쩌둥의 전쟁동의 및 지지표명은 마침내 원론적 지지 차원을 넘어 같은 해 10월 중공군의 한반도 군사개입이라는 실제 행위로 이어졌던 것이다.

한반도를 자국의 안보에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한 것은 비단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중공 지도부의 여타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념이었다. 예를 들면 중공 당내 대표적 주전론자의 한 사람이었던 둥베이군구사령관 가오강의 견해가 이에 해당된다. 1950년 8월 중순의 선양 군사회의에서 가오강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이 왜 한반도에 파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만약 미국 침략자가 북한을 점령한다면 의문의 여지없이 틀림없이 역량을 갖춰 우리 둥베이와 화베이(華北)를 공격하고, 우리의 조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북한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이 역량을 갖춰 기세를 높여 중국을 공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섬멸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능동적으로 북한군과 협력해 우리의 국토 밖에서 적을 없애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좋은가? 분명히 우리의 국토 밖에서 적을 없애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의 친구에게 유리하고, 세계인민이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평화민주를 쟁취하는 것에도 이롭다. 그러므로 조국을 수호하고, 승리를 공고히 하며, 제국주

의의 침략계획을 분쇄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인민을 지원해 북한인민이 해방되고 북한으로 하여금 민주독립의 통일국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인민의 적은 바로 우리의 적이고, 북한인민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다. 북한을 지원하는 것과 우리의 조국을 지키는 것과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은 정의로운 것이다."[87]

중국은 전쟁이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이 같은 이념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주입했다. 그들이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강조한대로, "脣齒相依의 형제국"인 북한정권이 미국의 북진으로 붕괴, 멸망하면 전화가 중국으로 번져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정권을 존속시켜야 했다. 중국이 미국을 불구대천의 적으로 규정한 이유도 중국 "인민의 생존과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을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88]

총괄하면,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가오강 등 중공 당내 주전파가 주도한 중국의 무력개입은 김일성이 속전속결로 미군이 한반도에 발을 디디기 전에 남한의 전 지역을 점령해주기를 원했던 그들 자신의 기대와 달리 전쟁 발발과 거의 동시에 전개된 미군의 즉각 개입과 연이은 북진에 따른 김일성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구원조치였던 셈이다.

2. 국가안보를 위한 자구책의 선제발동

그렇다면 이번엔 마오쩌둥이 왜 와해 직전의 김일성정권을 살려내려고 했는지 좀더 구조적으로 접근해 국내 정치적 목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기로 하자. 마오쩌둥이 미군의 한반도 석권 저지를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으려고 한 동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자국안보를 고려한 것으로서 대한반도 순망치한 개념을 인지한 결과였다. '순망치한적 인식'이란 중국의 전략적 핵심지역(core)을 방위하려면 먼저 그 주변(periphery)을 방위해야 하고, 주변지역인 둥베이지역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둥베이지역의 주변지역인 북한의 김일성정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것의 구체적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중국의 안보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 중국은 공산주의의 실현을 표방한 공산국가로서 이념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다른 노선을 추구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가치체계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실현은 먼저 영토와 주권이 온전하게 보전되고,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라는 정치제도와 "마르크스 및 레닌주의와 마오쩌둥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유지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 밖에 경제발전, 과학기술의 발달, 국가위상 제고 및 그 영향력 행사, 중화민족으로서의 생존과 발전의 보장 등은 이러한 목표들의 달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89] 또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당시 중국은 오늘날과 달리 국가안보를 해결할 자체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대외 의존성이 컸던 상황이었다. 마오쩌둥이 공산주의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실현시켜 줄 수단으로 소련을 선택한 사정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전후 태동되기 시작한 세계적 수준의 미소냉전이 아시아로 확산됨으로써 동북아에서 진행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블록화는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자국의 안보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 전후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는 인접국인 소련과 일본, 그리고 미국 정도였다. 이 가운데 잠재적 위협세력인 소련은 마오쩌둥이 1950년 2월 중순 스탈린과의 중소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동맹의 일원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 중국의 양성적 적대국은 아니었다. 즉 중소동맹의 체결로 중국으로선 적어도 후방으로부터 뒷덜미를 잡힐 일은 없게 된 안보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정적 관점에서 볼 때 동맹은 어떤 나라가 자국의 지정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지정적 가능성을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채택하는 국가간의 관계 맺음이다. 신 중소동맹조약은 일본과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각기 자국의 대일, 대미 전략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 조약은 내용상 군사안보, 경제교류, 이념적 결속 등 다목적 용도로 맺어진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대외 안보전략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국가군에 대한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었다. 요컨대 소련은 미국을 적대시한 신중국의 든든한 후방 지원세력이 된 것이다. 스탈린과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한 뒤 마오쩌둥은 중소동맹에 대해 경제적 이익추구와 국가 안보적 목적의식이 혼재된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중소동맹으로 인해 국내건설에 매진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제국주의국가가 중국을 침략하면 소련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90]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일본과 미국은 실제적인 중국침략 가능국가로 간주됐다. 1945년 8월 중순과 1950년 2월 중순에 각기 체결된 두 차례의 중소동맹조약은 모두 일본에 대항하거나 그 견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이미 6·25전쟁 발발 전부터 일본의 재기를 우려해 왔었다. 두 사람은 중소동맹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일본이 장차 틀림없이 고개를 들 것이라고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91] 그들은 일본이 미국의 사주를 받거나 혹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재진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92]

미국의 경우 중국과 연접된 국경선이 형성돼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국은 미국을 지정적 관점에서 인근 주변국으로 간주해 왔다. 더욱이 미국은 공산중국과 정치이념이 상이한데다 소련에 대해서도 봉쇄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가상 적대국의 공격력을 해외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주된 세력으로 간주됐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상황이 바뀌면 어떤 형태로든 중국 재진출을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고 판단됐다. 실제로 만일 중미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도 군사력을 중국까지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 점을 늘 우려해온 마오쩌둥은 이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군사력의 해외파병 기동 능력을 보여주듯 6·25전쟁 발발 직후 즉각 군대를 한반도에 투입시킴과 동시에 미 제7함대를 타이완해협으로 급파시킨 것은 그간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미국을 바라본 마오쩌둥에게 미국의 한반도전쟁 개입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즉 미국이 취한 이 같은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통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진출에 있고, 이 조치로 한반도와 타이완의 대안인 화둥(華東)연해지역을 통해 재진출하려는 기도로 간주한 것이다. 1950년 8월 4일 마오쩌둥은 중공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의구심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는 "만약 미 제국주의가 승리하면, 득의양양해 할 것이며,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미국의 최종 목적을 의심했다.[93]

마오쩌둥이 우려한 상황은 같은 해 9월말을 전후해 현실로 나타났다. 한국군의 단독 북진은 수용하겠지만 미군이 38도선 월경 북진을 감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중국정부의 대미 경고에 대해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유엔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갈치려는 시도"(a bald attempt to blackmail the UN), 혹은 "허세"(bluff)로 일축하고 예정대로 북진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모스크바의 개입을 우려했지, 베이징의 경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괘념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중국 지도부에 김일성의 구원요청이 전해진 것에 이어 한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하고,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계속적인 공격에 따라 10월 중순 평양이 점령되고, 압록강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전역이 석권될 상황이 전개됐다. 마오쩌둥에게 있어 미군의 압록강 진격은 곧 김일성정권의 붕괴를 의미했고, 그것은 바로 중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다름 아니었다.

현대 중국의 지정적 안보개념에 따르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영토를 지정적으로 핵심(혹은 중핵)지대, 변경(邊疆)지대, 완충지대, 전략적 영토경계지대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해왔다. 핵심지대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인 창장(長江), 황허장(黃河江) 중하류 유역과 남방의 주장(珠江)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변경지대는 핵심지대를 보호하는 바깥 외연지역으로서 핵심지대를 에워싼 둥베이, 네이멍구(內蒙古), 신장 위구르, 칭하이(靑海), 광시(廣西)지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완충지대는 변경지대 바깥 지역의 동북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5개 지역이다.

이처럼 수도와 핵심지대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면서 변경으로 외연이 확대되면서 네 겹으로 둘러싸는 방어개념은 변경지역의 위치가 핵심지역으로부터 원

거리일수록 효과가 크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문명의 정도와 관련된 가치가 최대로 집중돼 있는 곳이 핵심이고, 반대로 그 값이 아주 적거나 제로에 가까운 곳이 주변지역이기 때문이다. 핵심지역은 주도지역이고, 주변지역은 의존 혹은 종속지역이다. 지정적 관계에서 핵심부가 되게 하는 요소들은 높은 경제력, 군사력, 고도의 문명 정도 등이다. 주변부가 되게 하는 요인은 아주 낮은 경제력, 문명의 정도가 낮은 것이다. 수도는 핵심 가운데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상주하고, 그 통치기관들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치이념과 국가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두뇌와 중추신경과 같은 곳이다.[94]

<상황도 2-2> 중국의 지정적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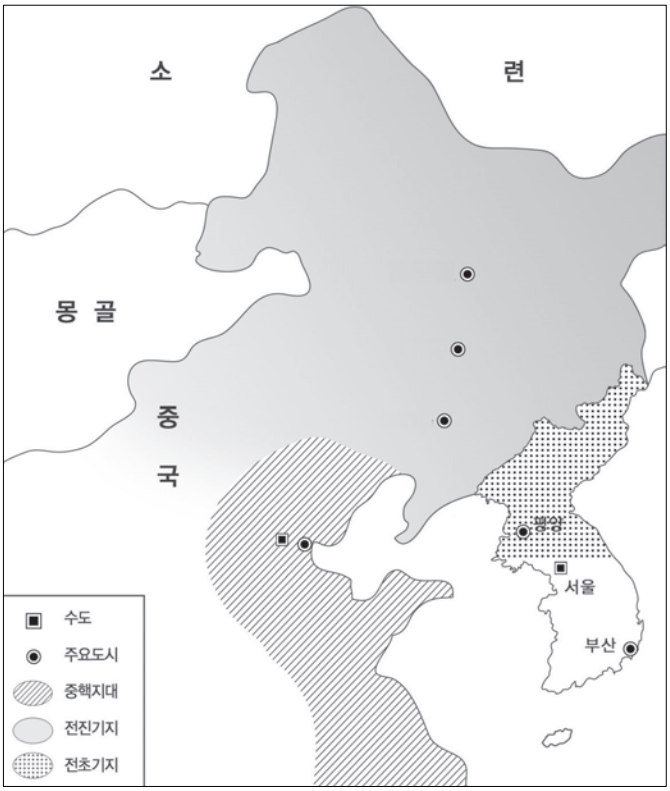


출처 :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285쪽.

핵심지역이 외침에 점령당하면 마치 인간에게서 심장이 멎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수도가 점령당하면 국가전체를 통제, 통치하는 통어기능(head function)이나 국민의 감정과 충성심을 모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국민결속기능(keystone function) 등, 수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바로

국가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95]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는 신 중국 수립직전 마오쩌둥이 중공군을 배치한 형식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 사실을 보면 마오쩌둥의 안보개념이 전통 중국의 연장선에서 전승됐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실증된 셈이다.

<상황도 2-3> 중국 둥베이 지역과 한반도의 지정적 관계도



출처 :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292쪽.

중국인의 국가안보 개념에 따라 핵심지대, 둥베이지역, 한반도 세 지역간의 지정적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감하면 북한은 중국안보의 전초기지(outpost)이고, 둥베이는 전진기지(advanced base)에 속하며, 관내 핵심지역은 둥베이를 지원하는 후방 지원기지(supporting base)인 셈이다.

이러한 지정적 상호관계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중국 둥베이의 전진기지가 되고, 둥베이지역은 후방 지원기지에 속하게 된다. 중국이 군사 지정적 관점에서 늘 '누가' 한반도를 '어떤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촉수를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념적인 문제와도 얽혀 있다. 한반도에 어떠한 정치체제가 정통성을 갖춘 통치권력으

로 들어선다 해도 그것이 중국의 국가통치이념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중국적 공세의 형태를 띤 위협을 가져다주는 경우라면 자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과 함께 적절한 대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전후 북한의 김일성정권은 공산주의를 국가이념으로 내건 반미적인 정치세력으로 출발했다. 또 6·25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중순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중소동맹을 모델로 한반도 통일 후 '中朝友好同盟相互協助條約'을 맺기로 약속하기도 했다.[96]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정권의 한반도통일 혹은 적어도 북한정권의 존속은 중국의 안보에 불가결한 완충국가(buffer state)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셈인데,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이상적이었다.

그런데 미군의 압록강과 두만강 접근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경너머 자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심각한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미국이 설령 중국으로 재진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미세력이 한반도북단을 장악하고 정권을 수립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중국의 둥베이변경이 미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오쩌둥으로선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사실에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의 1950년 10월 2일 발언은 그러한 심사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조선전역을 미국에 점거되도록 내버려두면 조선혁명의 역량은 근본적인 실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침략자들은 더 날뛰게 될 터고, 그렇게 되면 아시아지역 전체에 불리한 것이 된다."[97]

또 1951년 10월 23일 마오쩌둥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第1屆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 개막사에서 '미국이 타이완을 점령하고, 북한까지 침략하고, 중국 동북변경지역까지 쳐들어 왔기 때문에 중국이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의 기치를 내건 것은 완전히 정당한 전쟁'이라는 식으로 언급한 바 있다.[98] 즉 한반도 무력개입은 자위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는 인식이었는데, 이와 관련해 헨리 키신저(Henry Kinssinger)는 마오쩌둥으로선 만약 북한에서 미국을 저지하지 못하면 중국영토 내에서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99]

이러한 자국 안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지정적 위기의식은 참전결정의 단독 요인은 아니었고, 여타 요인들과 서로 얽혀 있었다. 여타 복수의 요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중공 정권의 안위와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요인들의 중량은 중국 수뇌부로 하여금 중국 국내에 앉아서 "적"을 기다리기 보다는 국외의 전장으로 들어가 과감하게 미군과 한국군을 공격하는 "적극적 방어" 전략을 구사하게 만들었다. 다음 절에서는 복수의 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구하도록 하겠다.

3. 국내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국외전장화

신 중국은 정권출범 초기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즉 첫째, 스탈린으로부터 약속받은 이권환수와 외국과의 평등한 외교관계 수립을 통한 국가의 진정한 독립쟁취, 둘째, 대륙 도처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국민당의 잔류부대, 특무와 토비들의 섬멸을 통한 국내정치의 안정, 셋째, 타이완과 티베트 공략을 통한 국가 정치적 통일의 완성, 넷째, 피폐된 경제를 전전 수준으로 회복시켜 국가재정의 안정 및 민생안정의 도모, 다섯째, 토지개혁의 추진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었다.[100]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은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의 공고화, 나아가 공산국가로서의 중국의 국가안보에 직결된다. 국가과제와 국가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요소만 고려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정치, 외교,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이른바 국력의 종합 운용을 통해 지켜야 한다는 포괄적 안보전략 개념에서 비춰봐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건국 후 중국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마오쩌둥이 정립한 몇 가지 외교원칙에 따라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노력했다. 외교원칙의 초점은 국가의 독립과 자유, 영토와 주권을 상호 보장하고,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에 대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국민당 및 중화민국과 관계를 끊고, 신 중국을 승인한다면 어떤 국가들과도 평등하게 수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6·25전쟁 발발 전까지 소련을 필두로 북한, 베트남 등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구권 공산국가들을 포함해 도합 17개국과 수교했으며, 영국 등 7개국으로부터는 정권에 대한 승인을 얻어내는 외교적 개가를 올렸다.[101]

스탈린과도 새로운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부 소련의 중국내 이권을 조건부로 돌려받는 과업을 성취했다. 도처에서 저항중인 국민당군에 대해서도 막바지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또 지방간의 편차가 존재하긴 했지만 중국정부는 6·25전쟁 발발 전부터 이미 공업설비의 재가동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시행해나가고 있던 중이었다. 경제회복에 투입될 얼마간의 자본은 마오쩌둥이 중소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소련으로부터 제공받기로 돼 있었다. 토지개혁 역시 중공 각 지방국 별로 착수토록 해 부분적으로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였다.

마오쩌둥에게 상기 과제들은 당시 중국정부가 전력을 투구하고 있던 최우선적 현안들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들을 거국적으로 실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내의 정치적 안정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국경의 안전이 필수적이었다. 더욱이 내전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는 판국에 국내든 국외든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할 처지가 아니었다. 국가대사의 추진에 차질을 빚을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과 그리고 오랜 내전으로 인한 피폐된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기술과 자본도입의 길이 막히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102] 특히 군사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은 극력 피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 재진출이라고 예단한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103] 왜냐하면 우려했던 미군의 반격이 미구에 출현할 긴급문제로 대두되면서 적대적인 미군이 중북 국경 가까이에서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마오쩌둥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을 의미했는데, 와해직전에 놓여있는 북한정권을 구해야만 둥베이지역이 안정될 것이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전장화되지 않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의 뇌리에 미국은 제국주의국가로서 세계패권을 지향하는 패권국

가로 각인됐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패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하부적 차원에서 반드시 중국을 제압하려 들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어차피 미국과의 한판 전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마오쩌둥은 미국과의 일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104]

북한정권의 와해방지의 필요성에 관해선 이미 선행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됐다. 그 결과 이면에는 둥베이지역이 미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중국의 핵심지역이 위험해지게 되는 지정적 관계와 그에 대한 마오쩌둥의 우려가 내재돼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설사 미군이 중국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정권이 한국군과 미군에 접수되면 대량의 북한난민과 북한군의 중국 둥베이 지역 유입(flow-in)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가정은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 중국이 입게 될 각종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요컨대 북한의 구원은 김일성 정권이 붕괴된 후 맞닥뜨리게 될 상황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마오쩌둥이 중국 둥베이 지역을 국가안보에 긴요한 지역으로 중시한 까닭은 이 지역이 베이징과 화베이 등 중국 내 핵심지역의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안보적 측면 외에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둥베이 지역이 핵심지역의 입술에 위치해 있다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지역에는 대량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는데다 각종 근대적 공업시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당시 둥베이 지역은 행정적으로 러허(熱河)성, 랴오시(遼西)성, 랴오둥성, 지린(吉林)성, 송장(松江)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 6개 성과 선양, 뤼순-다롄, 푸순(撫順), 안산, 번시 등 5개 시로 나뉘어져 있었다. 전국 총면적 960만㎢의 1할도 채 되지 않은 약 79만㎢에 인구수는 2,942만 명으로서 당시 중국 전체 총인구 5억 5,196만 명의 5.3%를 점하고 있었다.[105] 작은 면적에, 적은 인구비율이었지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업생산력은 절대적이었다. 1949년 10월 신 중국이 수립될 즈음 전국 70% 이상의 공업과 교통망이 전 국토의 11.3%에 불과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둥베이 지역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당시 낙후된 농업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국은 각종 근대적 공업설비가 집중적으로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는 둥베이 지역과 상하이, 광저우 지역 정도뿐이었다. 이 중 둥베이 지역의 공업제품은 경공업 제품이 대종을 이루는 상하이, 광저우 지역과 달리 경공업인 방직제품을 포함해 석탄, 시멘트, 화학제품, 자동차, 항공기와 각종 군수품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반적 의미의 중공업이 아니라 항공기 등 군사무기까지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 중국의 경제복구에 기반이 될 정도로 경제적 비중이 높았음은 물론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했다.

신중국의 처지에서는 3년 여 이상의 국공내전으로 피폐된 경제상황을 호전시켜 각종 생산력을 전쟁 전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은 중국정부에게 지체할 수 없는 화급한 과제였다.[106] 그러자면 자본과 기술도입이 선행돼야 했는데, 이 문제는 중소동맹으로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그것을 일궈낼 공업설비는 여전히 불충분했다. 그나마 둥베이 지역의 공업이 당시 중국전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터였다.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경제건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둥베이 지역의 공업시설을 보호해야 했다.

앞 절에서 확인한 바 있지만 저우언라이는 북한을 순망치한 관계로 파악하고, 만약 북한정권이 미군에 무너지면 중국의 둥베이 지역이 안정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의 한 가지가 바로 이 지역에 밀집돼 있는 공업시설이 미 공군기의 폭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었다. 저우언라이는 중국공업의 반 이상이 둥베이 지역에 있고, 둥베이 지역 공업설비의 반 이상이 남쪽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1950년 8월 2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두 달 사이 "미군기가 12차례나 중국을 침범"했었고, 최근에는 압록강뿐만 아니라 그 대안인 콴뎬(寬甸)까지 날아와 시위, 정찰, 기총소사와 폭격을 가한다고 강조했다. 저우언라이는 이 같은 대중 선동적인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면서 미군이 압록강변에 도달하면 어떻게 안전하게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107]

그런데 미군의 북진을 저지해서 설령 둥베이 지역의 공업지대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둥베이지역 공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최대의 전력공급원인 수풍댐을 보호

하지 못한다면 이 지역의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아예 가동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수풍발전소는 남만주 지역의 전체 전기수요량 중 상당부분 혹은 전부를 만족시키고 있었다.[108] 이 사실은 둥베이지역 공업시설의 주요 기반이자 그것의 지속적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공급원임과 동시에 중요한 전략목표물로 상정됐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려면 압록강의 수풍댐과 발전소를 수중에 넣고 있어야 한다. 이 점은 실제로 마오쩌둥이 파병출동 직전 시점인 1950년 10월 13일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둥베이지방이 더욱 불리해져 둥베이변방군 전부가 발이 묶이고, 남만주 〔즉 선양-다롄 간 철도 이동의 좡허(庄河), 안둥, 린장(臨江), 칭위안(淸原)과 선양 서남쪽의 랴요중(遼中) 등지〕 지역의 전력이 통제돼 버릴 것"이라고 우려한 사실에서 증명된다.[109]

이 점은 전쟁 당시 남한사회 내에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던 중국의 참전이유에 대한 추측성 풍문을 사실로 입증한 셈이다. 당시 항간에는 자국 영토에 대한 미국의 위협을 느낀 중국이 막연히 북한침략자를 도와 막대한 인명희생과 물자를 소모했을 리가 없다면서 압록강의 수풍댐을 북한과 공동으로 방어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설이 나돌았었다.[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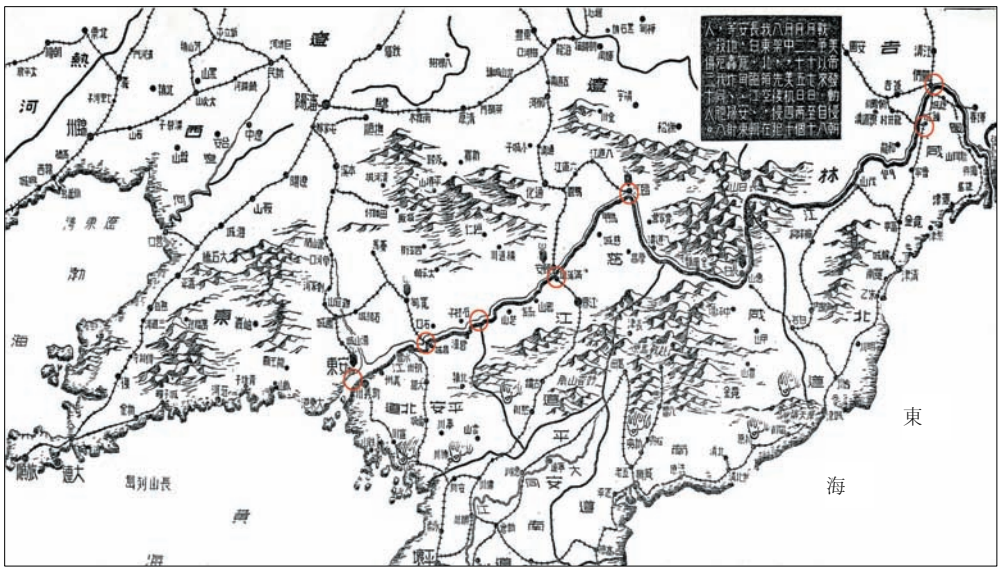
마오쩌둥이 중공군 주력을 두만강 방향으로 진입시키지 않고 압록강 중하류로 진입시켜 평안북도지역을 주 전장으로 삼은 배경도 수풍댐 보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점을 포함한 여타 이유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미군 주력이 이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들이 압록강변에서 진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 중국으로 진입한다면 이 지역의 북중 간 교량을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북중간에는 수로를 통한 도진이 몇 개소 있었지만 군사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모두 규모가 작았다. <상황도 2-4>가 현시하는 바와 같이 1950년 당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다리는 7개소 가량 있었다. 이 가운데 대량의 군대가 이동할 수 있을 만큼 비교적 규모가 큰 것으로는 함경북도의 온성(남양)-투먼(圖們), 온성-훈춘(琿春), 종성-룽징춘(龍井村)

간의 다리와 평안북도의 신의주-안둥, 만포-지안 간의 교량을 합쳐 다섯 개 정도가 있었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의 핵심지에 들어가려면 두만강 쪽 다리 보다 압록강변의 다리를 건너는 편이 여타 통로보다 빨랐다. 즉 그 루트는 북한에서 중국 관내로 바로 통하는 첩경이었다. 중공군의 참전 전 둥베이변방군의 전진 지휘소가 압록강 대안의 안둥에 설치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둘째, 중국 둥베이군구의 후방 근거지가 선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다, 선양에서 두만강 쪽으로 통하는 철도도 북쪽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두만강 쪽으로는 대규모 군 병력이 신속하게 전개하기가 어려웠다.

<상황도 2-4> 1950년 당시 북중간의 교통로



지도 가운데 붉은 색으로 ○친 부분이 북중간을 이어준 철도, 도로 등의 주요 교량들이었다.

출처 :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310쪽.

셋째, 마오쩌둥은 중공군을 평안북도 일대 북중간의 주요 교통로에 매복시켜 미군을 기습, 격파함으로써 이 지역 북단의 전략적 목표물인 수풍댐을 보호하려고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미군의 주력이 이 지역으로 진격

해올 것을 상정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1950년 8월 9일 저우언라이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대리 네룽전과 연명한 전보로 둥베이군구사령관 가오강과 허진넨에게 중공 중앙이 옌지(延吉), 투먼 지역에는 큰 敵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니 이 지역에 대병력을 배치할 필요가 없고, 대신 둥베이군구가 예하 병력을 파견해 이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들은 차이청원과 니웨이팅(倪蔚庭)에게 이 사실을 김일성에게도 전하도록 지시했다.[111]

넷째, 소련의 참전개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련군이 진입해올 경우 그들을 두만강 지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두만강 지역을 비워뒀을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을 종합 정리하면, 중국의 참전 동기 혹은 목표는 첫째, 생사기로에 선 북한정권의 구원, 둘째, 향후 부딪히게 될 국내의 몇 가지 국가재건에 불리한 국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점, 셋째, 둥베이 지역과 수풍댐의 동시 보호 등 세 가지로 큰 가닥을 잡을 수 있다.



사진은 두만강의 온성(남양)-투먼 간 교량. 다리 건너 지역은 중국 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온성이다.

그러나 상기 동기와 목적만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 개입 후 예상되는 상황전개와 미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가능성을 미리 치밀하게

따져봐야 하고, 참전에 미온적인 지도급 당 간부들을 납득시켜야 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수뇌부는 참전을 목적으로 자국군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검토한 후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 전면전 또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관해서였다. 이 점은 당시 중국 전역의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던 화제였다.[112]

둘째,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미국이 중국 화둥지역의 연해 지역과 둥베이 지역의 중공업 및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폭격을 가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셋째, 대륙반격의 기회를 노려온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군이 화중(華中), 화둥 지역으로 상륙해 반격하거나 혹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한반도 북단으로 공격해올 가능성이다. 이미 1950년 8월 25일 시점에 마오쩌둥은 타이완의 중국국민당군이 대륙해안을 습격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다.[113]

넷째, 중국국민당과 연계돼 각지에 잔존하고 있는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이 격심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다섯째, 전쟁이 한반도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인력희생이 따를 뿐만 아니라 다대한 물자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재건은 요원해질 수 있었다. 이것을 감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였다.

여섯째, 소련이 중소동맹조약에 근거해 참전해오면 중국의 둥베이 지역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소련의존도가 심화돼 중국에 대한 소련의 간섭이 예상된다는 점이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한 참전 반대자들이 제기한 반대논리의 핵심도 이러한 점들을 우려한데에 따른 것이었다. 즉 정권이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경제건설이 더 시급한 시점에 대외 전쟁, 특히 강대국인 미국과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적인 입장이었다. 또 장기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고, 건국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도 있었다.[114] 미군이 둥베이 지역으로 공격해들어 올 경우 상기 국가과제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예상 가능한 사태를 미연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학계에는 마오쩌둥의 몇 가지 참전동기 가운데 소련의 참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115] 학계의 주장대로 마오쩌둥의 유도에 따른 결과가 됐든, 아니면 소련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참전하게 됐든, 어쨌든 마오쩌둥은 소련군의 군사개입을 예상해봤을 것이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소련군이 개입하더라도 중국으로 들어오게 해선 안 될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소련이 참전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마오쩌둥은 미군이 압록강까지 도달하기 전에 먼저 전진방어 지역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북진 진격로상에서 대규모 매복을 통해 적에게 중대한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술은 지정학에서 자국영토를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개념을 가리키는 글라시스(glacis)에 해당된다. 글라시스는 원래 국경으로 쓰이는 산이나 산맥의 정상 바로 너머에 자국 방어를 위해 확보해놓은 땅을 가리킨다. 한 국가가 외침에 직면했을 때 국경 안쪽에서 방어전을 치를 경우 자칫하면 쉽게 국경돌파를 당할 수 있으므로 국경너머 어느 정도의 폭을 지닌 땅을 확보해 그곳에서 방어전을 치르면 자국영토를 이중으로 보호(double projection)할 수 있다. 이 지역을 글라시스라고 칭하고, 또 이 같은 방어전술을 의미하기도 한다.[116] 마오쩌둥은 전략적인 견지에서 한반도 북단의 묘향산맥 이북 지역을 글라시스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켜 두기로 했다. 그는 이 같은 선제 매복공격의 감행을 통한 "적극적 방어"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 경제적 고려 외에 마오쩌둥은 상기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전쟁을 통해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듯하다. 즉 전쟁에 무력 개입함으로써 중국사회를 지속적인 긴장상태로 있게 하는 한편, '미국의

위협'을 부풀려 군중동원체제로 몰아가 군중들을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투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것은 순즈(孫子)의 "이병상적"(以兵嘗敵) 개념의 원용이다. 즉 마오쩌둥은 자신이 구상한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위협을 조장함으로써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거나 혹은 민중동원을 용이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노린 정치적 목적은 다름 아니다. 외부의 위협을 이용해 국민들의 중화주의적 단결의식과 일체감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회주의 국가체제로의 변혁을 위한 기반구축에 동원하고,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에 걸맞는 국민으로 통합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4. 중화주의적 報恩의식과 大國의식의 결합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대로 마오쩌둥이 6·25전쟁 참전을 결정하게 된데는 국가안보가 가장 우선적인 동기였지만, 그 한 가지에만 국한된 단일 동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마오쩌둥은 국가안전 외에 국내 정치적인 목적, 북한정권의 구원, 스탈린과의 관계유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정치적 목적 등의 국내적 요인 외에 대외적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대외적 요인은 국익과도 직결된 사안이자 동시에 중공의 이념적 자기 동일성을 충족시켜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자의 비중을 따진다면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모두 그들이 공개적으로 선전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국가이익과 현실정치였다.

북한 정권의 존속과 중국안보와의 함수관계에 관해선 이미 선행 논의에서 깊숙이 다루어본 결과 그것들에는 공통적으로 일차적으로 자국의 국익을 보장받기 위한 동기가 관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도출된 결론의 하나로서 북한

정권이 존속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두 번째 동기가 형성된 이면에는 군사개입을 결정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한 중국과 북한간의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었다.

중국과 북한 김일성 정권이 밀착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공동의 무장투쟁이었다. 그것은 일제 패망 후 이른바 국공내전 시 중국공산당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속됐다. 첫째, 수많은 한인 투사들이 중국의 반군벌 투쟁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혁명에도 직접 투신했다. 둘째, 한인 지사들이 항일운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했다. 셋째, 해방 후 국공내전 시기 김일성은 줄곧 중국공산당 편에 서서 중국공산당군이 대국민당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17]

위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다수 노동자, 농민과 혁명적 지식인들은 북한이 오랫동안 중국혁명을 도와줬으므로 이제 중국이 북한을 도와 줘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118] 중국의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국가 지도층 인사들은 일종의 국가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대국으로서의 문화적, 역사적인 자부심에 바탕을 둔 중화주의 관념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했던 중국인이 과거 조공을 허락했던 번속국으로부터 중대한 도움을 받고도 모른 체한다면 그것은 대국의식이 잠재돼 있는 중국인으로서 스스로 체면을 손상시키는 처사다. 보편 중국인들은 대개 자국의 대국의식과 인근 주변타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이 강했다.[119] 이 점에서는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실제로 그들은 사해평등을 주창하고 약소국의 독립을 지지한 공산주의자들이었지만 직접 “중국은 대국이다”라고 언급할 만큼 대국의식이 몸에 배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120]

중국 지도부가 중화주의적 체면이 가미된 報恩 관념에서 북한을 지원했을 것으로 판단케 하는 대목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공산당군으로 활동했던 한인병력을 거의 모두-최소 5만 명 이상-를 김일성의 남침준비 단계인 1949년에서 이듬해 50년에 걸쳐 북한으로 넘겨줬다. 이것은 인도적 관점에서 그들을 원래의 조국으로 보내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사실상 이것은 중국

지도부가 이른바 중국혁명에 투신한 한반도 남·북한 각지의 한인들을 그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전원 북한으로 들여 보내줌으로써 중국혁명에 대한 공로를 모두 북한정권이 가로채게 만든 것과 다를 바 없다.

전후 북한으로 들어온 중국공산당군 계열의 한인들은 북한정권을 수립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다. 북한의 최고 실력자로 등장한 김일성과 그와 함께 북한정권을 건설하는데 핵심역할을 맡았던 최용건, 김책, 이복림과 전설적 신화를 남기고 산화한 이홍광은 중공군 산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무정, 박일우, 방호산, 김웅, 김광협, 강건, 최현, 김창덕, 김일, 안길 등과 같은 북한의 정치, 군사의 핵심 지도부를 형성한 인물들도 바로 항일무장투쟁을 지도한 사람들 중의 일부였다.

북한군의 중국적 기원을 면밀하게 추적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극비'로 분류된 인민군 문화장교 집단의 전체 통계는 상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계량화 해준다. 이 통계에 따르면, 1949년 12월 현재 인민군 문화간부 442명 중 출신별로 항일연군 5명(1.1%), 제8로군이 422명(95.5%), 지하운동가 9명(2%), 기타 출신이 6명(1.4%)으로, 거의 전원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말하자면 중국에서의 투쟁경력을 갖고 있는 장교가 무려 97%에 육박했던 것이다. 특히 제8로군 출신은 전체 북한군 문화간부 중 95% 이상이었다. 제8로군은 국민당군에 소속돼 있으면서 군수 보급품은 국민정부로부터 지급받았지만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부대 운용면에서는 마오쩌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부대였다.

북한군 문화간부 가운데 97% 이상이 중국공산당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북한군 간부의 '전부'가 중공군 출신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특히 문화장교는 군내의 정치 및 사상교육과 정훈을 담당한 장교들이었기 때문에 군내 중국의 영향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90% 이상이 최소한 2년 이상, 그리고 8% 정도는 5년 이상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참전 경험자들이었다.[121] 게다가 북한군으로 편입돼 온 최소 5만 명 이상의 한인출신 사병들이 이들을 떠받치고 있었다. 한적 사병들의 북한이입은 북한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하부구조를 지탱해줌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공고화와

남침 준비자체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 것이다.

저우언라이가 언급한 북한정권 내의 중국적 요소는 상기와 같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절대적인 우세에 있었던 인적 자원들이 포진해 있는데다 북한정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부채의식이 더해져 한층 더 견고해졌다. 중국 국가 부주석 류샤오치는 1950년 1월 말 베이징대사로 부임해온 이주연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중북 양국은 국경이 인접해 있고, 다같이 제국주의의 압박을 받았으며, 제국주의에 반대해 장기간 함께 싸워왔다"고 하면서 양국이 중대한 이익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950년 8월 25일, 저우언라이도 "조선민족은 부지런하고 용감한 민족이며, 중화민족과 혈육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선민족-이 때 조선민족은 바로 북한정권을 가리킨다-은 중국인민을 도와준 바 있고, 현재도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고 있으니 중국은 당연코 그들을 지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122] 저우언라이가 북한정권을 도와줘야 할 이유로 든 것은 두 민족이 혈연관계에 있는 데다 공산주의이념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과거 중국을 도와준 적이 있는 북한이 현재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 9월 22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은 좀더 직접적으로 중국적 보은의식을 밝혔다. 즉 중국인은 과거 재중 한인들의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에 참여한 "의협심 강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며, 중국이 승리한 이제 "앞으로 영원히 북한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행위와 전쟁의 확대 음모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123]

중국이 대북 지원을 일종의 부채의식이 투영돼 있는 대국적 의무감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 북한정권은 중국과의 혈맹의식과 이념적 동지의식의 강조로 화답했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전쟁준비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발발 후에도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행위"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둥베이 지역 내 조선족을 북한군으로 차출하기 위한 징발에 협력했다. 조선족은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보인다. 조선족이 모집에 응한 비율이 전체 둥베이 지역 주민들의 그것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기 때문이다.[124]

그러면 마오쩌둥의 군사개입 동기에는 자국의 이익추구와 과거 김일성정권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부채의식 이외에 다른 이념적인 요인이 스며들 가능성은 없었는가? 이와 관련해 그간 학계에서는 중국의 대북지원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천하는 전략적 수단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념에 따라 전체 공산권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세계패권 장악에 반대하기 위해 출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125] 이 주장은 마오쩌둥이 북한에 대한 원조의 의미에 대해 "북한은 우리나라의 우호적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자신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 사실로 보아 일견 타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126] 마오쩌둥의 언급에서 명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재고를 요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볼 때 본질을 비켜간 주장이기 때문이다. 즉 마오쩌둥은 스탈린, 김일성과 같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동지적 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그에게 "아시아 반제 동맹 그룹"류의 국제 공산당조직을 결성해서 대미전쟁을 치르자고 요청했을 때 시기상조라고 이를 반대한 사실은 그가 이념 보다는 현실정치와 국가이익을 우선시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이 군사 개입한 것은 자국의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북한정권을 구제하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지 북한정권의 공산주의운동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127]

결국 한마디로 마오쩌둥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으로 6·25전쟁에 파병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목적의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같은 목적의식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국가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치장됐을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6·25전쟁 발발요인으로서의 마오쩌둥의 역할

전쟁 발발 전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은 한반도 남침전쟁을 긴밀히 모의했고, 합일점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이 6·25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들어줬다. 첫째는 김일성의 요청에 응해 최소 5만 명 이상의 한인 병력을 북한에 제공해준 사실이다. 병력의 충족은 전쟁수행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승패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둘째는 스탈린을 압박해 새로운 중소동맹조약을 체결케 함으로써 연쇄적으로 스탈린으로 하여금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승인하게 만든 점이다. 스탈린은 중소동맹조약 체결로 중국에게 기존 얄타제체로 보장 받은 중국에서의 기득권 중 소련의 극동 해군기지 역할을 해온 뤼순, 다롄항을 중국에 반환해주게 되자 이를 대신할 새로운 전략지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의 적화를 구상했고, 자신의 이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김일성을 이용했던 것이다. 셋째는 김일성의 남침전쟁 도발구상을 동의함으로써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조건부 승낙을 최종적으로 충족시켜준 점이다.

위 세 가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제적 조치 내지 결과를 수반했다. 먼저 북한에 넘겨준 5만 명 이상의 한인 병사들은 전쟁 발발 직전 북한군 10개 사단 총 19만 8,000여 병력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됐다. 이는 같은 시기 북한군을 남한의 육군 8개 사단 총 10만 5,000여 명의 병력에 비해 2 : 1로 우세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만일 이 병력이 북한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면 북한군은 한국군 병력수를 앞지를 수 없었다. 그런데다 북한군으로 편입된 중공군 출신자들은 단순히 북한군을 양적으로만 팽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수준까지 높였다.

그들은 실전경험이 풍부했고, 고참병들은 북한군 전체 군관의 3분의 1이나 차지했다.[128] 또 일반 사병들도 전군 차원의 부대 전투검열 시 사격, 소대공격, 백병전 등의 전술을 포함한 일반 전투훈련에서 결함이 없는 우수한 성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129] 이는 당시 실전경험이 전무했던 여타 북한군 장병들과 뚜렷하게 비교가 된 점이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전쟁 전 중공이 인수해준 한인 병력은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이 조치는 북한군의 전력을 크게 증강시켰고, 이 점은 김일성이 대남 적화전쟁에 승리를 자신하게 만든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쟁도발 결정에도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마오쩌둥이 동의해주지 않았다면 스탈린이 언명한대로 전쟁은 무기한 연기됐거나, 최소한 김일성이 1950년에는 전쟁도발을 감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은 뒤집어 얘기하면 마오쩌둥의 동의가 없었다면 전쟁이 연기됐거나 발발하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2. 이념과 명분 속의 치열한 국익전쟁과 중국의 참전목적

김일성의 남침계획을 동의해줬을 뿐만 아니라 무기 장비 및 병력까지 지원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모두 세계 공산주의운동을 이끈 공산세계의 지도자였다. 스탈린은 1949년 여름 모스크바를 찾아간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으로서 당 서열 3위인 류샤오치(劉少奇)와의 대담을 통해 자신과 마오쩌둥이 각기 서방과 동방에서 세계 공산주의운동을 이끌기로 한 이른바 "동서 역할분담"에 공감한 바 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유사시에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게 돼 있었다. 마오쩌둥이 군대를 파병해 북한정권을 지원해준 것도 스탈린이 그랬듯이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일종의 이념적 형태로 권장되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천한 행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승인한 것이나 마오쩌둥이 북한정권을 기사회생시키기 위해 군대를 보낸 지지 및 지원 행위의 이면에는 각자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한 동기가 존재했었고, 치밀한 손익계산을 따져본 것이었다. 즉 스탈린은 중소동맹 체결로 중국에게 돌려주게 된 중국에서의 기존 소련의 국가이익을 한반도 적화를 통해 회복하려고 남침을 동의한 것이었다. 또 전쟁을 통해 중미 대결을 장기화 해 미국의 동북아 진출과 영향력을 축소 내지 견제하려고 했으며,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이중적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반면 마오쩌둥은 중소동맹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스탈린이 약속한 중국의 국익을 환수받기 위해 스탈린의 참전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마오쩌둥이 추구한 이른바 "국익"이란 게 전체 중국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익이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음에도 경우에 따라선 참으로 모호할 때가 많다. 그것이 특정 정치 지도자의 동기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의되기 쉽기 때문이다. 누가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내용은 국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사익이거나 혹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게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정권의 이익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익을 거론하는 정치지도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의 실체를 제시하고, 국민 대다수가 그것에 공감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존재할 때 국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한반도전쟁에 개입하면서 개입의 이유로 내세운 "국익을 위한 것"은 중국국민에게 국익의 실체를 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개인이나 그를 위시한 소수 집권층의 의지의 충족, 혹은 중국공산당의 계급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스탈린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북한정권이 붕괴 일보 직전에 처하자 냉정하게 김일성 정권을 포기하려고 했다. 김일성도 서울수복 후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 직전에 북한정권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한 상태였음에도 중국세력을 등에 업은 연안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추종자들의 당내 입지가 위축되거나 배제될 것을 염려해 중공군의 파병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했었다.[130] 이는 전쟁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경구를 상기시키는, 국제관계의 냉혹성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31] 스탈린과 마오쩌둥도 클라우제비츠처럼 한반도전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동족상잔이라는 한민족 역사상 유례없는 민족적 비극을 낳건 말건 오로지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김일성 역시 스탈린, 마오쩌둥과 동일한 전쟁관을 공유하고 있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남침전쟁을 지지, 지원하면서 국제주의를 모토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이었을 뿐 실제로는 국제주의의 실현이나 혹은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를 추구한 김일성정권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일성 정권을 존속시켜야만 곧 자국의 안보가 보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이 참전목표로서 미군과 여타 유엔군을 모두 섬멸하거나 한반도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나 저우언라이가 최소한 전쟁 전 상황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이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었다.[132] 미군과 유엔군의 섬멸이나 한반도에서의 구축이 쉽지 않을 경우 전쟁발발 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오쩌둥이 노린 차선의 참전목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미군과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3. 미중의 상호 오인과 중국의 파국적 선택

1950년 10월 초, 맥아더는 유엔군사령관 자격으로, 즉 교전권자로서 상대 교전권자인 김일성에게 항복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북진을 결행했다. 미군이 북진을 개시할 즈음 중국은 미 행정부에 미군이 38도선을 넘으면 중국이 군사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를 무시했고, 중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국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북중국경선에서의 중국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이를 믿지 않았고, 미국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중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참전은 이처럼 중미 상호간에 소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대의 통보내용을 제각기 주관적으로 해석한 결과 상대의 의사를 오인한 결과였다.

마오쩌둥이 미국은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고 한 예단은 그가 진실로 믿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군사개입의 명분 혹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였는지는 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영역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마오쩌둥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중국공산당 내 참전반대파들을 설득해 참전까지 밀고 갔다는 사실과 그리고 중공군의 참전을 빌미로 국내에서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기치하에 민중동원을 전국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펼쳤다는 점이다.

전자는 국제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문제로서 중공군의 참전이 정당했는가 하는 점과 연계돼 있고, 후자는 참전이 단일 목적뿐이었는가 하는 점과 연결돼 있다. 후자부터 언급하면 마오쩌둥은 참전의 국외적 목적 외에 국내의 정치적 의도 및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엿보인다. 전자와 관련해 참전의 동기가 국내적이었든 국제적이었든 아니면 양자의 복합이었든, 문제는 중국의 참전이 자국의 자위권을 위해 발동한 "고유한 권리"였던가 하는 점이다. 자위권 발동은 유엔헌장에서 국가의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inherent right)로 인정하고 있듯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제51조)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오류를 짚어보면 우선 마오쩌둥은 유엔군의 북진이 중국에 대해 "침략"할 것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상황을 작위적으로 전개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 중국정부에게 중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전달했고, 더군다나 미군의 압록강 접근은 "침략"도 아니었다. 환언하면, 전쟁상태에서는 교전국이 적국의 영토에 병력을 투입해도 영역침범의 위법이 되지 않지만, 당시 중국은 한국과, 또 미국과도 전쟁상태가 아니었다. 유엔총회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침략은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해하는 무력행사이거나 또는 유엔헌장과 양립하지 않는 다른 방법에 의한 국가의 무력행사를 행사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제1조)[133] 그런데 유엔군의 북진과 압록강 진격은 이러한 요건 가운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한을 먼저 침략한 불법 세력에 대한 발본색원적 응징이었다.

중국의 파병은 국제법적 적법성을 결여한 행위였다. 우선 당시 중국은 유엔회원국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도 아니었다. 중국은 정부수립 후 소련 및 공산권국가들과 영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에게서 외교적으로 승인받았지만 유엔은 타이완의 중화민국정부만을 "중국"의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중소동맹을 체결하면서 중국에 반환해주기로 약속한 중국내 소련의 기득권익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 스탈린의 참전권유에 편승했던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였다. 북한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유엔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유엔과 다수의 국가들부터 외교적으로 승인을 받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단독의 국제적 존재"였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무력공격을 받아 유엔에 긴급 지원요청을 했고, 그것은 하나의 국가로서 가지는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보전에 대한 한국인의 기본권(the Korean people's fundamental national rights)이었다.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북한의 불법 무력공격을 받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134] 유엔이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한 것은 집단자위권의 일환으로 이 기본권 행사에 응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엔의 명의로 6·25전쟁에 군대를 보낸 미국의 군사개입은 집단자위의 한 예로서 유엔을 대표해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요건인 "무력공격"에 대응한 행위였던 셈이다. 또한 38도 이북 지역에 대한 군사행위, 즉 북진도 침략자에 대한 응징으로서 정당한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논의와 결정을 거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었다.

(집필 : 서상문)

주(註)

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 나남출판사, 1996년), 제1권, 153쪽.

2) 「스탈린과 북한대표단과의 담화기록」(1949년 3월 7일), 『서울신문』(1995년 5월 15일), 제5면.

3) 「什特科夫關於金日成通報金一在北平談判情況致維辛斯基電」(1949年5月15日), 沈志華編, 『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臺北 :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年), 上冊, 188쪽 ; 「科瓦廖夫關於毛澤東通報與金一會談的情況致史達林電」(1949年5月18日), 沈志華編, 같은 책, 189쪽.

4) 두 조약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徐相文, 「毛澤東與韓戰 : 介入背景、決策過程和動機」(臺灣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博士學位畢業論文, 2006年7月), 제2장 제3절을 참조하라.

5) 스탈린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徐相文, 「毛澤東與韓戰 : 介入背景、決策過程和動機」 위 논문, 제2장 제3절 "중소동맹과 스탈린의 새로운 동북아전략"과 제4절 "전쟁으로 가는 길—스탈린의 조건부 남침동의"를 참고하라.

6) "6·25전쟁관련 기본 문헌 자료", 대한민국외무부 편역, 『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서울 : 편역자 소장, 1994년), 26쪽.

7) 「로신이 박헌영의 보고에 대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년 5월 15일), 『서울신문』(1995년 5월 29일) ; 대한민국외무부 편역, 위 자료, 26~27쪽.

8)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213.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상문, 『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72~74쪽을 참조하라.

10) 중국인민해방군이 중국 둥베이지역으로 이동한 시점과 병력 수에 대해선 과거 본 연구총서 제1권에서 약간 다른 주장이 있었다. 즉 1950년 2월에서 7월초에 걸쳐 총 40만 명의 중공군 병력이 중국둥베이지역에 집결한 것으로 기술한 바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서울 : 편자출판, 2004년), 제1권(戰爭의 背景과 原因), 208쪽.〕 이 주장의 전거는 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장군들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한 영국의 박사논문이었다. 이와 달리 본문에서 주장한 25만 여명의 근거는 중국군사과학원에서 간행된 『抗美援朝戰爭史』였고, 더군다나 이 『抗美援朝戰爭史』 제1권이 근거한 자료는 중공중앙군사위원회 작전부가 작성한 '작전계획'이었다는 점에서 후자가 더 신빙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병력수를 수정하게 됐다.

11) 중국군의 편제는 병력 수와 편제 규모에서 한국군과 달랐는데, 최상위 단위 부대인 야전군 아래 '兵團'은 한국군의 군(army corps)에 상당한다. 그 다음 차하 단계의 '軍'은 우리의 군단에 해당된다. 그 이하 쌍방의 군편제를 등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師=사단, 團=연대, 營=대대, 連=중대, 排=소대 등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병단을 제외하고 모두 편의적으로 한국군 단위부대 명칭으로 고쳐 기술하겠다.

12) 통계 내용은 1950년 7월 8일 중앙군사위원회 작전부가 작성한 계획을 근거로 했다. 후에 제6공병 연대는 포병사령부의 지휘를 받았으며, 기병연대는 제13병단 직속으로 정찰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3개 자동차 수송연대는 각 군단에 배속됐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抗美援朝戰爭史』(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67쪽에서 재인용.

13) 「高崗致中央軍委電」(1950年8月12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 위 책, 70~71쪽에서 재인용.

14) 자세한 내용은 서상문,「6·25전쟁 초기 사적 대응—군대이동과 배치를 중심으로—」, 육군본부 군사연구실,『軍事硏究』, 제122집, 153~160쪽을 참조하라.

1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1卷, 62~63쪽.

16)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毛澤東軍事思想硏究年譜組編,『毛澤東軍事年譜1927-1958』(南寧 : 廣西人民出版社, 1994年), 791쪽 ; Zhang Xiao Ming, "China'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the Korean W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6·25전쟁과 東北아 군사관계의 변화』(서울 : 편자 출판, 2005년 6월), 91쪽.

17) 서상문,「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論析」,『軍史』, 第54號(2005년 4월), 242쪽.

18) "아군"이라는 용어는 자국군을 말하고, 우군은 자국군은 아니지만 동맹군이라든가 같은 편에 선 군대를 가리킨다. 엄밀하게 구분해 유엔군은 한국군의 우군이고, 아군이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는 공산군에 대칭하는 의미에서 편의상 유엔군과 한국군을 모두 "아군"으로 부르기로 했다.

19) 沈志華,『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廣州 : 廣東人民出版社, 2003年), 220~221쪽.

20) 김일성,「尊敬하는 이·브·쓰딸린 同志에게」(1950년 9월 2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한국전쟁 관련 주요 문서』, No.9.

21) 중국학계의 쉬옌(徐焰)은 박일우가 중국 지도부에 김일성, 박헌영의 친서를 전달한 시간을 10월 3일이었다고 서술했다. 徐焰,『毛澤東與中抗美援朝戰爭—正確而輝煌的運籌帷幄』(北京 : 解放軍出版社, 2003年), 89쪽. 그러나 이 서한의 초안은 이미 9월 29일에 잡혀져 있었고, 화급을 요하는 서한이 베이징까지 전달되는데 이틀씩이나 소요됐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22) 柴成文、趙勇田,『板門店談判』(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2年第2版), 71쪽. 이와 관련해 중국학계의 쉬옌은 한국군의 북진사실이 베이징 지도부에 최초로 보고된 시점은 10월 1일이라고 주장했다. 徐焰, 위 책, 75쪽.

23) 金日成、朴憲永,「敬愛的毛澤東同志」(1950年10月1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6·25전쟁 관련 주요 문서』, No.10, 4쪽 ; 楊鳳安、王天成,『駕馭朝鮮戰爭的人』(北京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年), 62~63쪽.

24) 金日成、朴憲永,「敬愛的毛澤東同志」(1950年10月1日), 위 주와 같은 문헌, 5쪽 ; 楊鳳安、王天成, 위 책, 62~63쪽.

25) 徐相文,「關於"毛澤東預言美軍仁川登陸"的時間考」『中共黨史資料』, 第73輯(北京 : 2000年3月), 185쪽.

26)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pp.451~452.

27)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년), 369쪽.

28) 위 책, 116~117쪽.

29) 이 주장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추론은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147~150쪽을 참조하라.

30) Nie Rongzhen, *Inside the Red Star—The Memoirs of Marshal Nie Rongzhen*(Beijing : New World Press, 1988), pp.634~635.

31)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182쪽.

32) Chow Ching-Wen, *The Years of Storm : 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translated and edited by Lai Ming(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117.

33) 毛澤東,「軍委關於邊防軍隨時待命出動問題電報」(1950年10月2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538쪽. (이하『建國以來毛澤東文稿』만 표기함.)

34) 毛澤東,「關於決定派軍隊入朝作戰給斯大林的電報」(1950年10月2日), 위 책, 539쪽.

35)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400쪽.

36) 周恩來,「美軍如越過三八線, 我們要管」(1950年10月3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外交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0年), 第4卷, 25, 27쪽 ; K. M. Panikkar, *In two Chinas : Memoirs of Diplomat*(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pp.109~110.

37) 대한민국외무부역,『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 57쪽.

38)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207~208쪽.

39) "彭德懷自述" 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年), 257~258쪽.

40)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p.185.

41)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毛澤東軍事思想研究年譜組編,『毛澤東軍事年譜1927-1958』, 800쪽.

42)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 403쪽.

43) 毛澤東,「關於組成中國人民志願軍的命令」(1950年10月8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43쪽.

44) 毛澤東,「關於派遣志願軍入朝作戰問題給金日成的電報」(1950年10月8日), 위 책, 545쪽 ;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 405쪽.

45) 金日成,「用鮮血保衛祖國的每一村土地」(1950年10月11日),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年), 第6卷, 125쪽.

46) 북한이 "수도"를 옮겼다고 공표한 것은 10월 21일 북한 방송을 통해서였으며, 강계가 아니라 신의주로 옮겼다고 위장, 은폐했다.

47)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年), 40쪽 ;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 404쪽.

48) 彭德懷,「彭德懷致毛澤東電」(1950年10月10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第1卷, 166쪽에서 재인용.

49) 毛澤東,「關於開闢敵後戰場等問題給金日成、彭德懷的電報」(1950年10月10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47쪽.

50) 毛澤東,「關於同意四個軍三個炮兵師全部出動給彭德懷等的電報」(1950年10月11日), 위 책, 548쪽.

51) 毛澤東,「關於九兵團提前北上給陳毅的電報」(1950年10月12日), 위 책, 551쪽.

52)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 405쪽.

53) 毛澤東,「中國人民志願軍應當和必須入朝參戰」(1950年10月13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毛澤東文集』(北京 : 人民出版社, 1999年), 第6卷, 104쪽. (이하『毛澤東文集』만 표기)

54) 毛澤東,「關於九兵團到泰安曲阜區域集結待命給陳毅的電報」(1950年10月14日),『建國以來毛澤東稿』, 第1冊, 557쪽.

55) 곤차로프(Sergei N. Goncharov)는 저우언라이 일행이 스탈린과의 흑해 회담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시간이 11일 오후 3시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저우언라이의 소련도착이 10월 9

일이었는지, 아니면 10일이었는지 일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기록한 스쩌의 회고록에 근거해 저우언라이의 소련도착을 10일로 보고, 스탈린과의 회담이 끝난 시간을 자연히 그 다음날인 11일로 추론했기 때문이다. Sergei N. Goncharov etc., John W. Lewis, and Xue Litai, p.191. 이와 달리 쉬옌은 13일로 봤다. 徐焰,『毛澤東與中抗美援朝戰爭—正確而輝煌的運籌帷幄』119쪽. 그러나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건대 저우언라이 일행은 스탈린과의 회담을 10월 12일 새벽녘(러시아 시간)에 마친 후 불가닌, 몰로토프(Viacheslav M. Molotov)와 함께 비행기로 흑해를 출발해 당일 오후 3시경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56) 鄧力群、馬洪、武衡主編,『當代中國空軍』(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129쪽. 중국 측의 다른 자료에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는 119대가 전부였다는 주장도 있다.

57) 위 책, 129쪽.

58) 위 책, 129~131쪽.

59) 위 책, 78~88쪽 ; 中國人民解放軍歷史資料叢書編審委員會編,『空軍回憶史料』(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2年), 245~249쪽.

60) 孔憲東、張隨軍、吳天軍,「志願軍空軍在朝鮮戰場」『縱橫』, 總第130期(2000年10月), 4~5쪽,

61) 저우언라이의 발언 내용과 그 후의 회고에 관해선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傳1949-1976』(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8年), 上冊, 60~61쪽 ;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年修訂本), 496쪽.

62) Sergei N. Goncharov, etc., *op. cit.,* p.188.

63)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 496~497쪽.

64) 周恩來,「在中共中央工作會議上的報告記錄」(1960年7月31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傳1949-1976』, 上冊, 61쪽에서 재인용.

65)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 497~498쪽.

66) 위 책, 498쪽.

67) 스쩌의 회고에 따르면 스탈린은 대포, 전차 등 중국 측이 요청한 무기 장비는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한반도 진입 후 중공군이 전개할 전투에 대한 공군기의 엄호는 곤란하고 단지 압록강까지의 후방 엄호만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師哲, 위 책, 498쪽을 보라.

68) 張希,「中國人民志願軍入朝前夕"突然"暫停的經過」『黨史研究資料』, 1993年第1期, 3쪽 ; 李海文,「中共中央究竟何時決定志願軍出國作戰?」『黨的文獻』, 1993年 第5期, 88쪽.

69) Paul Kesaris ed.,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 Ⅱ : 1946-1953 The Far East, Washington*, A Microfilm Project of University Pub. of America, Inc., 1979, No.9, 沈志華,『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廣州 : 廣東省人民出版社, 2003年), 257쪽 주87에서 재인용.

70)「羅申轉發毛澤東關於對中國提供空軍掩護等問題致史達林電」(1950年7月22日), 위 책, 483쪽.

71) 스탈린에게 보고된 소련 해군 제7함대의 정찰보고는 항공모함 3척을 위시해서 순양함과 구축함 등 최소 총 24척 이상의 미 해군과 공군이 함흥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戈洛夫科和福金關於咸興地區戰況呈史達林的報告」(1950年10月13日),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596쪽.

72) 南佐民等譯,『朝鮮戰爭內幕』(杭州 : 浙江人民出版社, 1989年), 130쪽.

73) 毛澤東,「中國人民志願軍應當和必須入朝參戰」(1950年10月13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03~104쪽.

74) 沈志華,『毛澤東、斯大林與朝鮮戰爭』, 242쪽.

75)「羅申關於毛澤東決定出兵等的問題致史達林電」(1950年10月13日),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597쪽.

76) 마오쩌둥이 지원을 요청한 16개 비행연대는 소련의 편제를 가리킨다. 16개 비행연대는 당시 중국 공군의 편제로 계산하면 8개 비행사단으로 전투기는 총 400대였다. 중국공군 1개 비행사단은 2개 비행연대로 편성돼 있고, 1개 비행연대의 전투기는 25대였다.

77)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501~502쪽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年譜 1949-1976』, 上卷, 86쪽.

78)「史達林關於中國出兵援助朝鮮問題致金日成電」(1950年10月14日),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中冊, 601쪽.

79)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 University of Kansas, 1995), p.84.

80) 毛澤東,「關於志願軍先頭部隊出動時間給彭德懷、高崗等的電報」(1950年10月17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567쪽 ;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年), 443쪽.

81) 순망치한과 유사한 표현으로 一衣帶水, 一水相隔, 脣齒相依 등이 있다. 이 용어들은 모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같은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 이외의 국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의미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8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상문,「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毛澤東의 6·25전쟁 개입동기」, 한국해양전략연구소,『STRATEGY 21』, Summer 2007, Vol.10 No.1. 272~275쪽을 참조하라.

83) 楊鳳安、王天成,『駕馭朝鮮戰爭的人』, 71쪽.

84) 김중생,『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서울 : 명지출판사, 2000년), 267~268쪽.

85) 朱德,「朱德司令最勉朝鮮同志學習怎麼樣建立民族統一戰線」,『解放日報』(1945年2月10日).

86) 大韓民國外務部編譯,『韓國戰爭關聯蘇聯極秘 外交文書 1949.1-1953.8』, 26~27쪽.

8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1卷, 91~92쪽.

88) 吳冷西,「爲什麼我國人民對於美國擴大侵朝戰爭不能置之不理?」『時事手冊』, 第2期(1950年11月5日), 3쪽.

89) 劉慶元著, 김옥준 역,『탈냉전시대 중국 국가안보전략』(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년), 11~12쪽.

90) 毛澤東,「在中央人民政府委員會第六次會議上的講話」(1950年4月11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290~291쪽.

91)「斯大林與毛澤東會談記錄」(1950年1月22日), 沈志華,『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341쪽.

92)「什特科夫關於金日成通報金一在北平談判情況致維辛斯基電」(1949年5月15日), 沈志華編,『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上冊, 187쪽.

93) 薄一波,『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北京 : 人民出版社, 1997年修訂本), 上冊, 44쪽.

94) 이 주장을 뒷받침 하는 역사적 실례들에 대해선 서상문,『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1917~1923』(서울 : 백산서당, 2008년), 제2장과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286쪽 주 36을 참조하라.

95) 이 밖에도 수도는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외연결기능(link function)과 국경지대의 안정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변경조직 통제기능(frontier-organizer function)이 있다. Spate O. H. K.,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Jackson W. A. D.,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p.171.

96) 大韓民國外務部編譯,『韓國戰爭關聯蘇聯極秘 外交文書 1949.1-1953.8』, 25~26쪽.

97) 毛澤東,「關於決定派軍隊入朝作戰給斯大林的電報」(1950年10月2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39쪽.

98) 毛澤東,「在全國政協一屆三次會議上的講話」(1951年10月23日),『毛澤東軍事文集』第6卷, 184쪽.

99) Henry Kissinger,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p.479.

100)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299쪽.

101) 영국 이외에 중국을 승인한 국가로는 스위스,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이 있었다.

102) 신중국 수립 당시의 경제상황에 관한 각종 수치와 통계에 관해선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301쪽 주 62를 참조하라.

103) Sergei N. Goncharov, *etc., op. cit.,* p.181.

104) 楊鳳安、王天成,『駕馭朝鮮戰爭的人』, 66쪽.

105) 6·25전쟁 당시 중국 둥베이는 6개 성으로 돼 있었지만, 그 후 1954년에 랴오시성과 랴오둥성이 랴오닝성으로 통합됐고, 랴오시성은 1956년에 폐지된 후 그 지역은 화베이성, 랴오닝성, 네이멍구 자치구에 분할 편입됐다. 여기선 서술의 편의상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으로 구분하겠다.

106)「斯大林與毛澤東會談記錄」(1949年12月16日), 沈志華著,『毛澤東、斯大林與韓戰—中蘇最高機密檔案』(香港 : 天地圖書, 1998年), '附錄', 382쪽.

107) 周恩來,「抗美援朝, 保衛和平」(1950년10月24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外交文選』, 第4卷, 73쪽.

108)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308쪽.

109) 毛澤東,「關於我軍應當入朝參戰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3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56쪽.

110)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爭一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2년), A20쪽.

111)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年譜1949-1976』, 上卷, 63쪽.

112)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 303쪽.

113) 毛澤東,「軍委關於準備對付敵軍可能向潮山及海陸豊登陸襲擊的電報」(1950年8月25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1冊, 480쪽.

114) Chow Ching-Wen, *op. cit.,* pp.116~117.

115) 곤차로프는 마오쩌둥이 파병개입을 결정했을 때 몇 가지 사항을 참전 결정요인으로 고려했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 지도부는 중소동맹의 체결과 소련이 동북아에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국의 공업 중심지인 둥베이지역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점을 확실히 담보하려면 그 전제조건으로 소련을 끌어들여야 했는데, 마오쩌둥은 소련을 끌어 들이기 위해 6·25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Sergei N. Goncharov, etc, *op. cit.,* p.182.

116) 任德淳,『地政學—理論과 實際』(서울 : 法文社, 1999년), 81쪽.

117)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선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316~328쪽을 참조하라.

118)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도서출판 열림, 1998년), 115쪽.

119) 그 형성과정과 배경에 대해서는 丁世鉉,「中華우월의식의 형성과정과 배경」『中蘇硏究』, 제7권 제1호를 참조하라.

120) 外交部外交史硏究室,『當代中國使節外交生涯』(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1995年第), 第1輯, 94쪽.

121) 박명림,『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239쪽.

122) 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周恩來年譜1949-1976』(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7年), 上卷, 69쪽.

123)『新華月報』(1950年9月22日),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1卷, 48~49쪽에서 재인용.

124) 徐澤榮,「"中國介入朝鮮戰爭之始末與目標"分章摘要」『傳記文學』, 第77卷第4期(2000年10月號), 49쪽.

125) 楊鳳安、王天成,『駕馭朝鮮戰爭的人』65쪽. 이외에 沈志華의 주장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126) 위 책, 71쪽.

127) 이 주장을 뒷받침 하는 논증적 논의에 대해선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333~343쪽을 참조하라.

12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서울 : 저자출판, 2004년), 제1권(전쟁의 배경과 원인), 276쪽.

129)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 고려원, 1991년), 제1권, 167쪽.

13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1950년 9월 22일),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년), 147쪽 ; 서상문,「중공군 참전」『朝鮮日報』(2010년 5월 17일), 제A6면.

131) Carl Von Clausewitz,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99.

132) 전자는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 잘 나와 있고, 후자는 10월 3일 저우언라이가 제기한 것이다. 毛澤東,「關於決定派軍隊隨入朝作戰給斯大林的電報」(1950年10月2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39쪽 ; 周恩來,「美軍如越過三八線, 我們要管」(1950年10月3日),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硏究室編,『周恩來外交文選』第4卷, 27쪽.

133) 安田寬 外6人共著,『自衛權再考』(東京 : 知識社, 1987年), 206쪽.

134) 松井芳郎,『現代の國際關係と自決權』(東京 : 新日本出版社, 1981年), 58~62쪽.



제 3 장 중공군 참전 개시 후의 상황전개

제 1 절	중공군 출현 직전 피아의 동향
제 2 절	중공군의 한반도 전개와 전략목표
제 3 절	피아의 전쟁지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중공군 출현 직전 피아의 동향

1. 맥아더의 북진한계선 철폐와 북한정권의 퇴각

태평양의 웨이크섬(Wake Island)에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의 흡족한 회담을 마치고 일본 토쿄에 돌아온 더글라스 맥아더(Douglas MacArthu) 원수는 1950년 10월 17일, 약 2주전 자신이 내린 10월 2일자 '작전명령 제2호'에 명시된 유엔군의 북진을 제한한 평양-원산 선을 철폐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계획인 유엔군사령부의 '작전명령 제4호'를 하달했다. 서부전선에서 한국군과 유엔군 5개 사단이 평양을 남동쪽에서 반원을 그리면서 에워싸기 시작했고, 동부전선에선 적으로부터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원산을 점령한 한국군 제1군단이 진격을 계속해 호도반도에서 미 해군의 원산항 소해작전을 방해하던 북한군 잔적을 소탕한 시점이었다.

맥아더는 이 새로운 명령서에서 미 제8군과 제10군단 사이에 선천-청산장시-관동-평원을 잇는 선을 기준으로 전투지경선을 설정하고, 제8군 사령관 월턴 워커(Walton Waker) 중장에게 이 선의 좌측으로 진격하게 했다. 그리고 제10군단장 에드워드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에게는 작전경계선을 북동방면의 덕실리-풍산-성진까지 확장해 주었다. 제10군단의 작전경계선으로 주어진 이 새로운 지역은 경도 126도 45분을 기준으로 북위 39도 28분, 토쿄 127도 8분의 신압을 지나 북동쪽으로 북위 40도 54분, 토쿄 127도 10분의 장진과 북위 41도 24분, 토쿄 127도 4분에 위치한 후창을 잇는 선이었다. 즉 유엔군의 북진한계선이 애초의 평양-원산 이북의 정주-군우리(현 개천)-덕천-영원-함흥-흥남선을 넘어서 함경남북도로까지 넓혀진 것이다.[1)]





왼쪽 : 서부 전선을 담당한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
오른쪽 : 동부 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두 사람 사이엔 북진 선두 경쟁 심리가 존재했다.

상기 정주-흥남선은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대략 90km 내지 17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른바 "맥아더 라인"이라고 불렸다. 맥아더의 최초 북진계획에 따르면, 미 제8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면 두 부대가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각기 동서로 방향을 틀어 평양-원산선에서 합류하기로 돼 있었다. 평양과 원산을 동서로 이은 뒤 이 평양-원산선에서 한반도 북반부를 봉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평양-원산선 이북의 정주-군우리-덕천-영원-함흥-흥남선 이북 지역에는 자신이 특별지시를 내리지 않는 한 한국군만 진격시키기로 하고, 유엔군은 이 선을 넘지 못하게 북진을 제한해 왔었다.[2)]

그런데 맥아더가 이 선을 허물게 됨에 따라 이 선 대신 또 하나의 맥아더의 라인, 즉 "신 맥아더 라인"이 생겨났다. "신 맥아더 라인"은 방위로는 북위 38도 60분과 39도 80분 사이의 청천강 하류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공간에 해당되고, 동서 횡단거리가 북한에서 가장 짧은 곳이었다. 지역개념으로는 대략 평안북도 서해안 서한만 북안의 철산반도 이서의 선천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평안북도의 적유령산맥의 주봉 가운에 하나인 백산(1,875m) 이북의 고인동을 거쳐 함경북도 길명지구대의 남쪽 입구에 위치해 있는 동해안의 성진에 이른다. 즉 선천-청산장시-

고인동-평원-덕실리-풍산-성진 등을 연하면서 원호를 그리는 이 선은 지역에 따라 이수가 들쑥날쑥하지만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대략 48~64㎞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다. '맥아더 라인'의 북진한계선이 제한을 둔 90㎞ 내지 170㎞보다 얼추 40~110㎞ 정도가 더 북쪽으로 올라간 셈이다. 이로써 유엔군은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 지역까지는 마음대로 진격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맥아더는 평양 탈환전 워커 장군에게 김포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87공수연대를 10월 21일에 평양 북방 약 48㎞지점의 숙천과 순천지역에 투입하는 공수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역을 노린 것은 숙천과 순천이 모두 평양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나가고, 횡으로 도로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군 후방사령부가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숙천은 평양에서 안주-정주-선천을 거쳐 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통과역이 있고, 순천은 평양-순천-개천-희천-강계-만포 간의 만포선 철도의 주요 역이다. 또한 신의주와 만포로 향한 도로도 각기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이 도로를 장악하면 평양에서 북으로 빠져나간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는 곳이었다.[3)]

맥아더는 당시 각기 인천과 부산에서 승선해 동해안으로 북상중인 미 제10군단의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 병력이 곧 원산으로 상륙할 것으로 판단했고, 제10군단이 원산에 상륙하면 바로 서진시켜 제187공수연대와 접촉케 한 후 이 병력을 모두 알몬드의 휘하에 두고 적 수뇌부에 대한 일망타진 작전을 지휘케 하려고 했다.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해 평양을 빠져나간 김일성 등 북한정권의 수뇌부 요인들을 생포할 뿐만 아니라 적의 보급통신망을 와해시키고, 북한군에 끌려간 3,000여 명의 미군포로들을 구출하고자 한 것이다.[4)]

이 작전계획은 평양이 함락되자 즉각 새로운 목표를 향해 총 진격을 지시한 맥아더의 명령으로 실행에 옮겨졌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0월 20일 새벽 02시 30분에 출동을 개시한 미 제187공수연대는 이틀간에 걸쳐 미 제314·제21수송 비행대대의 C-119, C-47수송기 113대에 분승해 총 4,000명의 병력과 105㎜곡사포 12문, 90㎜대공포 4문과 각종 차량 82대 등의 장비를 투입했다. 예정된 지점에 낙하한

공수대원들은 연대장 프랭크 보웬(Frank S. Bowen) 대령의 지휘하에 숙천 남쪽 약 3.2㎞지점의 구릉지대를 점령한 뒤 그 곳을 통과하는 도로와 철도를 모두 차단했다.[5]

이처럼 대규모 중장비가 동원된 6·25전쟁 최초의 공수작전을 직접 공중 시찰하면서 공수대원들이 목표지점에 낙하한 후 아무런 적의 저항을 받지 않고 집결하는 광경을 상공에서 지켜본 맥아더는 자신이 목표한 적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의 공수작전으로 적은 완전히 기습을 당한 것 같아서 지금 북한에 남아 있는 적 병력의 약 절반에 상당하는 3만 명이 아직도 평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 터인데, 그들은 이제 이곳에서 소멸되거나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6]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미 공수부대원들이 거둔 전과는 적군 사살은 겨우 5명이었으며 포로도 42명에 지나지 않았고, 김일성 등의 수뇌부 요원들은 한 명도 잡지 못했다. 또 구출된 미군포로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십 구의 미군포로 시체를 발견한데 그쳤다. 다만 숙천 쪽에서 영유-어파리에서 후퇴해오던 북한군 연대 규모의 병력을 소탕한 것이 가장 큰 전과였다.[7] 후방퇴로 차단으로 적 수뇌부를 포위, 생포하려고 한 작전은 김일성과 북한의 당, 정, 군의 주요 기관 및 요원들이 미리 평양을 빠져 나갔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과연 김일성은 언제 평양을 빠져 나갔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 평양탈환 전부터 시작된 김일성의 도주경로와 목적 등 그의 행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는 그와 북한군이 단순히 패주한 것으로만 초점을 맞춰 이해한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중국측의 충고 겸 요청을 받고, 중공군이 전략적 방어지대에 들어와 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북한군을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후퇴시켰다. 그는 스스로 아군의 북진에 쫓긴 이 시기의 후퇴를 "전략적 후퇴"라고 주장하지만,[8] 이는 중국적 전술개념의 차용이다. 중국의 전술개념에서 보면 이른바 "전략적 후퇴"란 전력이 열세한 군대가 우세한 적의 공격을 받아 적을 신속히 격파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전투력을 보존하여 반격을 가할 기회를 만들거나 반격을 준비할 목적으로 계획성 있게 후퇴하는 군사행위를 말한다. 통상 전략적

퇴각은 공간을 내주는 대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루어진다.[9]

김일성은 중국 수뇌부측에서 요구한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때는 이미 평양을 빠져 나간 지 오래된 시점이었다. 10월 22일 시점엔 그는 대동(현 동창) 부근에서 펑더화이(彭德懷)와 만나 전황을 설명하고 방어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가 평양을 벗어난 시기는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의 탈출지시가 있은 10월 13일 밤이었거나 혹은 14일 새벽이 유력하다.[10] 평양을 빠져 나온 김일성은 "볼가"라는 소련제 고급 승용차로 이날 순천, 개천을 거쳐 덕천으로 가서 덕천의 지세를 답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일성은 10월 15일 박일우를 특사로 선양(瀋陽)의 펑더화이에게 보내 또 다시 중공군의 지체없는 파병을 요청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김일성 자신과 회동해 줄 것을 재촉했다.[11]

한편 펑더화이는 베이징(北京)에서 중공 중앙정치국 긴급회의를 마치고 마오쩌둥(毛澤東), 가오강(高崗)과 참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후 선양으로 날아가 10월 14일 사단급 이상 간부동원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회에서 그는 참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적정과 지형조건에 근거"해 과거 중국 국내에서 취했던 "운동전"(일명 "기동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하 본고에서는 "기동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은 북한지역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12] 앞장 제2절에서 밝혔듯이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2개 군단과 2개 포병사단만 먼저 파병하려던 계획을 바꿔 4개 군단과 3개 포병사단 전체를 10월 15일에 출동시켜 10월 20일 혹은 늦어도 10월 22일까지 북한의 평안남도 덕천 지역의 산악지대에 집결시킨 후 여기서 적 섬멸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작전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는 직접 덕천의 지세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에 덕천으로 가려고 했었지만 연일 계속된 마오쩌둥, 가오강과의 작전방침 상의, 제13병단 지휘부 간부들과의 회의주재로 베이징과 선양을 분망하게 오고 간 탓에 미처 북한으로 들어가 현장을 답사할 수 없었다. 마오쩌둥은 10월 14일 소련의 저우언라이(周恩來)에게 보낸 전보에서 자신이 펑더화이에게 덕천에 가서 이 지역을 답사, 연구한 후 평양-원산철도 이북지역과 덕천-영원 간 도로 이남 사이 지역에 방어진지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13] 펑더화이와 마오쩌둥이 덕천을 전략방어지대로 선정했

다면 전장의 총지휘자인 펑더화이가 현장 답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사전에 김일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점은 상식선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결과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압록강의 한중 국경지역으로부터 대략 120㎞ 정도 떨어져 있는 덕천 지역은 마오쩌둥이 설정한 전략적 방어지대로서 적의 북상을 저지하고 중국 둥베이 지역을 이중으로 방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즉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글라시스"였다. 또한 이 지역은 중공군이 초반 "전략방어"전을 통해 미군과 한국군의 북진을 저지하고, 북한정권을 구원함과 동시에 반격의 기틀을 마련해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계획한 곳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를 통했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김일성에게 중공군이 도달할 때까지 이 지역을 확보하고 있기를 요청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과 중국지도부 사이의 연락은 주로 평양 탈출시부터 김일성을 따라나선 북한 주재 중국대사 니즈량(倪志亮)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전술적 충고이자 권고이기로 했던 중국수뇌부의 요청에 응한 김일성은 남한지역에서 패주해온 북한군 패잔병들을 수습하고, 모든 병력을 청천강 북안으로 총퇴각 시켜 대략 박천-덕천-영원-장진선 지역에서 방어선을 구축해 중공군이 도착할 때까지 아군의 북진을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이 추측은 지금부터 그의 행적을 추적해보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우선, 김일성은 마오쩌둥이 요청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첫째는 아군의 인천상륙작전 전 인천지역 방어에 대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에도 결국 방어에 실패한 바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했듯이 10월 10일 4~5만 명으로 적 후방지역에 전선을 형성하라고 한 권고도 지키지 못해 아군의 진격을 지연시키는데 별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이번엔 마오쩌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존재했을 수 있다. 만약 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면 김일성 자신에 대한 중국수뇌부의 신뢰는 차치하고, 중공군의 방어작전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중공군이 덕천지역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엔군과 미군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했었다. 그는 실제로 유엔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북한군의 퇴각을 촉진하기 위해 지연전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14] 이 지시와 함께 김일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방송연설을 통해 전체 북한군에게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워 북한지역을 사수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후퇴하는 도중에도 전군에 더 이상 "퇴각할 곳이 없다"면서 진지를 사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북한노동당 정치위원들의 군내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고, 만약 명령 없이 무기를 버리고 함부로 전투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다면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다. 또 전선 혹은 전장에서 도주하는 자와 유언비어 살포자를 색출하기 위해 각 군단과 사단 지휘관들에게 "독전대"를 조직해 후방 방어부대들과 연합부대에 투입시키도록 명령했다.[15]

둘째, 한·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의 후방 주민들에게 전방에 대한 보급보장, 그리고 북한군 철수시 "반드시 모든 물자와 일체의 철도 운수기자재들을 옮겨가도록 해 적에게 한 대의 기차, 한 대의 자동차, 한 톨의 양식도 남겨주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당시 북한 점령지 곳곳의 들판에는 북한군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볏단들이 쌓여 있었는데,[16] 김일성의 명령이 공허하게 들리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그는 아군 점령지의 후방 주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한 유격전을 벌리고, 전체 북한인민들에게 "모든 힘을 준비해 적에게 새롭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을 호소했다.[17]

셋째, 남한 각지로부터 산발적으로 도주해오던 북한군을 제2전선 부대로 통합 편성해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등지에서 아군의 후방 교란을 시도했다. 10월 20일경 북한조선노동당 중앙은 남진하는 중공군의 대오에 끼여 남한의 한국군 후방을 교란할 이른바 "자위대"를 산악지역으로 내려 보냈다. 자위대는 대대, 중대, 소대 순으로 편제돼 있었고, 1개 대대라 해봤자 겨우 80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미군이 주로 이용하는 기동로를 피해 산길을 택해 북한군 제2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원도 이천 근처의 가래주라는 곳까지 내려갔다. 북한군의 총 퇴각시 남쪽에 낙오된

북한군 패잔병들이 모여든 곳이었다. 또 한국군의 후방지역 교란임무를 띠고 남하한 자위대 병력도 전부 이곳에 집결했다. 제2군단장 최현이 이곳으로 집결한 병력을 간추려 조직재편을 담당하고 있었고, 남로당의 거물 이승엽도 여기에 합류했다. 제1지대는 3개 여단으로 편성돼 있었고, 지대장은 당시 북한노동당 서울시 시당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응빈이었다. 각 여단은 3개 대대를 두었는데, 1개 여단은 대략 400~500명 정도였다.[18] 이 병력은 남한 각지에서 유격활동을 폈지만 국군의 북진을 중단시킬 만큼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넷째, 평양을 물러난 뒤에도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북한군에게 평양방어 시간을 좀 더 끌도록 하기 위해 약간의 저항을 시도케 했다. 예컨대 평양 시내 곳곳에 대량의 지뢰를 매설하고, 각처에 모래주머니와 철조망 등으로 장애물을 쌓았으며, 고지에는 견고한 참호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의용군이나 심지어 고령자들까지 강제로 이러한 곳으로 끌고 와 저항을 꾀했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다. 또한 평양방어가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아군의 진격을 축차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첫 번째 방어지역으로 선정한 숙천 남방 13㎞지점의 영유-어파리 선에서 평양을 빠져나온 병력을 수습해 방어전을 치르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술한 미군의 공수작전으로 이 역시 실패했다.

당시 영유-어파리 지역은 이 두 곳을 횡으로 잇는 고지군으로 이뤄져 있어 일종의 천연방어선으로서 평양 이북-청천강 이남의 서쪽 지역 중 방어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었다. 북한군 지휘부는 평양에서 퇴각한 북한군 제46사단 제239연대 병력 약 2,500명에게 이 선의 넓은 정면을 점령하고 있다가 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고 했었다. 이 제239연대는 지연전을 감행하기 위해 후위 예비대로 남겨둔 부대였다. 그러나 제239연대는 평양에서 북으로 밀고 올라오는 한국군 제1사단과 이 진격에 호응하기 위해 숙천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미 제187공수연대 제3대대에게 포위되기 전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 후퇴하라는 상급부대의 명령을 받고 미군과 결정적인 전투를 피하고 퇴각했다.[19]

북한군이 숙천 남방지역에서 시도한 1차 방어전이 실패했다는 것은 곧 후술하게 되겠지만 중국수뇌부가 상정한 첫 번째 전략적 방어지대 확보가 여의치 않았

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아군의 북진이 그 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기도 했다. 10월 21일 시점에는 중부전선의 양덕, 성천 지구를 점령한 한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제7·제8사단이 계속 북진 중에 있었고, 동부전선의 한국군 제1군단이 지휘하는 제3사단과 수도사단도 호도반도를 지나 함흥을 점령한 상태였다. 또 동해안에서는 이틀 전인 10월 19일 미 제10군단 병력을 태운 함정들이 원산 수역에 도달했고, 당초 10월 20일까지는 원산으로 상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10월 10일부터 개시된 원산항 기뢰 제거 작업이 끝나기를 해상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20]

이 시기 북진중의 아군 총병력은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지휘하에 지상군 34만 9,331명, 공군 3만 6,677명, 해군 5만 9,438명을 합쳐 총 44만 5,000여 명에 달했다.[21] 이 중 유엔지상군이 미군 3개 군단 예하의 6개 사단과 1개 공수연대, 영국군 제27여단, 터키 여단, 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 필리핀 제10대대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군은 전후방에 3개 군단 총 11개 보병사단이 있었다.

해·공군을 제외한 지상군의 전선별 병력배치와 부대 운용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서부 및 중부전선은 워커 중장에게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한국군 제2군단 등 3개 군단 예하의 미군, 영국군, 한국군 등 도합 8개 사단과 3개 여단 및 1개 공수연대, 3개 독립대대에 대한 운용권한이 주어진 상태였다. 미 제1군단은 미 제1기병사단과 제24사단, 영국군 제27여단, 한국군 제1사단을 지휘했다. 미 제9군단은 미 제2·제25보병 사단과 제187공수연대를 지휘했고, 한국군 제2군단 예하에는 제6·제7·제8사단이 있었다. 서부 및 중부전선의 총 병력은 24만 1,000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미군이 12만여 명, 영국군 1만 1,100여 명, 터키군 5,000여 명, 한국군 10만 5,000여 명이었다.[22]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미 제1해병사단, 제7보병사단과 한국군 제1군단(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휘하에 두고 북진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이 즈음 미 제3사단이 미국 본토에서 일본으로 이동 중에 있었으며, 이 부대는 맥아더의 미 극동군 사령부에 도착하면 미 제10군단의 예비대로 운용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예비사단을 포함해 미 제10군단이 지휘하는 유엔군 및 한

국군 5개 사단, 1개 공병여단, 1개 해병연대, 1개 해병항공병연대를 합쳐 동부전선의 총 병력은 약 10만 3,500여 명이었다.[23] 이 중 미군이 6만 6,900여 명, 영국군이 234명, 한국군이 3만 6,400여 명이었다.[24] 이 밖에 38도선 이남의 후방에는 10월 16일 갓 신설된 국군 제3군단이 제2사단과 제5사단을 관할하여 후방 보급로 경비, 남한내 적게릴라 소탕임무를 맡았고, 제9·제10·제11사단은 한국국방부 직할로 돼 있었다.

평양점령 후 10월 21일부터 청천강 이북의 "맥아더 라인"을 향해 북진을 속개한 아군은 1차로 영유-어파리에서 북한군의 "최대 저항"[25]을 물리친 뒤로 청천강에 이르기까지 서부전선에선 더 이상 그 같은 규모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북진에 가속도가 붙은 아군은 머지않아 청천강에 다다를 참이었다. 이즈음 한국군 육·해·공 3군 총사령관 정일권 장군은 북한의 혹독한 겨울날씨를 감안해 조심스럽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방어진지의 폭이 비교적 짧은 청천강선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일단 그곳에서 겨울을 지낸 후 다시 북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에 격노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일언지하에 거절당하고 말았다.[26] 이승만 대통령으로선 통일이 목전에 다가온 만큼 여기서 북진을 멈출 수 없었다.

국군은 청천강을 향해 진격을 계속했고, 숙천-순천지역의 미군 공수작전에 보조역할을 맡기 위해 일찍부터 평양을 뒤로 하고 북진에 나선 한국군 제1사단이 23일 군우리에서 청천강 남안을 따라 안주를 거쳐 10월 24일에는 청천강 북안의 영변을 점령했다. 중부지역으로 진격한 국군 제2군단의 제7사단과 제8사단도 10월 23일에 청천강까지 진출했고, 제6사단도 24일에 청천강에 도달했다. 이 날 청천강을 건너기 시작한 영국군 제27여단도 25일 도하를 완료했다.

동부전선에선 한국군 수도사단이 10월 22일 함경북도 북청, 중양리, 마전동, 신흥까지 점령했다. 동해안에서는 원산 앞 바다에 부설된 2,000기의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끝나고 그간 해상에서 대기해온 미 제1해병사단이 10월 26일 원산으로 적의 저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륙, 이른바 '행정상륙'을 개시했다.[27] 28일엔 미 제10군단 병력 전원이 상륙을 완료하게 되고, 이어서 흥남항까지 소개하기 직전이었다.

작전타이밍이 맞지 않은데다 원산에서 기뢰에 부딪치는 의외의 장애물을 만나 의도했던 적 수뇌부 포위작전이 차질을 빚어 손안에 들어올 듯 했던 상황장악이 한발 멀어지게 됐지만 외양적으로 보면 인천상륙 후 맥아더가 설정한 지역까지는 수중에 넣은 형국이었다. 그러나 북한수뇌부는 온전하게 존재했다. 또한 산발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형태이긴 했지만 북한군도 평양-원산 선을 넘어 가버렸기 때문에 맥아더가 구상한 최초의 작전목표는 실질적으로 별반 달성된 게 없었다.

원래의 작전계획대로 한국군만 이 선을 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목표를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을 시도할 것인가? 이 시점은 전쟁의 성격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였다. 맥아더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기존의 작전계획과 다른, 그럼으로써 미국 행정부는 물론, 주요 우방인 영국정부마저 놀라고 우려하게 만든 새로운 작전을 구사했다. 즉 10월 24일 맥아더 자신이 약 1주 전 10월 17일 임의로 설정한 "신 맥아더 라인"마저 철폐하고, 휘하의 워커 장군과 알몬드 장군에게 한국군과 유엔군 가릴 것 없이 가용한 모든 지상군 병력을 동원해 최고의 속도로 정주-군우리-덕천-영원-함흥-흥남선을 넘어 북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28] 그리고 이 제한선은 단순히 최초의 목표에 불과하며, 한국군만이 이 선 북쪽에서 작전하도록 제한한 것도 북한군이 항복하지 않고 모두 퇴각해버린 상황에선 의미가 없다고 역설하면서 새로운 작전실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유엔군을 한중 국경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북진한계선을 아예 없애버린 맥아더의 작전방침 변경은 사실상 중공군 참전 관련 정보의 부재 내지 첩보판독의 오류에다 미군이 평양을 점령한 후부터 조기승리를 낙관한 자만이 겹쳐진 심리적 소치였다. 이 시기 자신의 판단을 과신한 맥아더는 전쟁종결을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한 상태였다. 그는 벌써 10월 20일 제202호 작전계획을 하달하여 미제10군단 중 1개 사단만 한반도에 남아 군정(military administration)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타 부대들은 축차적으로 한반도에서 철수하도록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었다.[29] 맥아더의 자신감은 서부전선의 아군 선두부대가 청천강을 넘어서기 시작하자 중공군 출현 가능성을 무시하고,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까지는 전쟁을 종료시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으로 발전한 것이다.

맥아더의 명령은 한중 국경지역에는 한국군만 투입해야 한다는 미 합참의 제한을 무시한 것으로서 성격적으로 그 전에 번복한 북진제한선 철폐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래서 미 합참은 이 독단적 조치를 '9·27훈령'에 명시된 작전의 한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보고, 그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맥아더는 자신의 명령이 9월 30일자 "우리는 당신이 38도선 북쪽으로 진격함에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조금도 구애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맥아더에게 작전수행의 신축성을 부여한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국방장관의 서한 그리고 10월 15일 웨이크섬에서 가진 트루먼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30]

북진한계선의 전면 철폐는 분명 미 합참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맥아더가 임의로 내린 조치였지만, 이에 대해 미 합참은 이번에도 '9·27훈령'을 이행하는 조치로 양해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의를 달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하고 말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군 수뇌부는 오히려 맥아더의 판단을 믿고, 군정을 담당할 미 제10군단 1개 사단만 남기고 나머지 병력은 귀국시키겠다는 그의 구상이 실행되도록 준비 조치까지 취했다. 예컨대 미 육군부는 맥아더의 구상에 호응해 10월 25일 맥아더에게 10월과 11월에 미 극동군 병력을 보충하기로 돼 있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미 합참에서도 계획에 잡혀 있던 유엔군의 증원을 취소했다.[31]

이로써 맥아더가 지시한 제약 없는 북진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었다. 유엔군도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공히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 지역으로까지 진격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맥아더가 철폐한 신맥아더 라인 이북의 박천-덕천-영원 지역은 공교롭게도 마오쩌둥이 설정한 중공군의 전략적 방어지대와 겹치는 곳이었다. 만약 맥아더의 계획대로 아군이 이곳을 점령한다면 태천, 운산[32], 희천 등의 주요 교통요지는 물론, 그 북쪽의 묘향산맥, 적유령산맥, 장진호와 부전령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주요 거점 도시들을 압록강변까지의 진격에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묘향산맥, 적유령 산맥의 고지대에서 그 이북지역의 적을 감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이 지역이 적의 수중

에 들어가면 아군이 적에게 감제 당한다.

장진호는 북쪽과 서쪽, 남쪽으로 갈라진 좁고 긴 3개의 기본갈래로 이루어져 있다. 부전령산맥 쪽으로 고대산(1,768m), 오봉(2,004m), 동백산(2,096m) 등이 영광군과 평안남도의 대흥군과 접하고 있고, 서쪽은 낭림산맥이 뻗어 내리면서 천의물산(2,032m), 낭림산(2,184m) 등 2,000m가 넘는 고산이 솟구쳐 있어 동서 양 지역에 대한 거대한 감제지역이 된다.[33] 또 함흥에서 신흥군, 부전군을 거쳐 혜산으로 통하는 중간 길목에 위치한 부전령은 평균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부전호는 해발 1,355m에 있다—로서 남쪽은 경동지괴의 앞면으로 38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은 각기 백역산(1,856m)과 백암산(1,740m)이 솟아 있다. 게다가 부전령은 오로리(현 영광)에서 원풍리에 이르는 도로와 오로리에서 광대리에 이르는 도로를 장악할 수 있어 한반도 동북부 산악지구의 중요한 교통요지였다.[34] 마오쩌둥이 일찍부터 박천-덕천-영원 선을 주목하고, 김일성에게 중공군이 그곳에 배치되기 전까지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청한 배경에는 이 같은 지형적 특수성을 간파하고 그러한 지세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김일성은 마오쩌둥의 요청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는 북한군이 영유-어파리 방어전투에서 패배한 뒤 박천-덕천-영원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이하 서술은 그의 행적에 대한 추적과 사실 복원을 축으로 전개된다.

2. 김일성의 반격 시도 실패와 남침책임 전가

서부와 중부전선에서 아군이 평균적으로 10월 23일 경에 벌써 청천강 어귀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김일성이 박천-덕천-영원-장진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중국수뇌부의 계획을 실현시키기엔 너무나 시간이 촉급했었고, 이런 연유로 적어도 이 전에 이미 이 구상을 포기하고 덕천 이북의 청천강 북안 지역으로 퇴각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김일성은 평양을 빠져 나와 덕천에다 북한군 임시지휘소를 설치한 뒤 이곳에서 줄곧 지연작전과 병력수습을 지휘하다가 펑더화이가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접한 10월 19일 밤 즉각 니즈량을 대동하고 평안북도 희천을 거쳐 대유동으로 향했다.[35] 이때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중공군은 덕천 지역 산악지대에서 진지를 구축하기는커녕 이 지역에 도달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상황을 방치해둘 경우 압록강 도하중인 중공군의 도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해 마오쩌둥은 10월 21일 새벽 긴급히 기존 방침을 바꿔 펑더화이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달했다. 즉 북한군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고, 중공군이 안착할 수 있는 지역을 점령, 확보하기 위해 덕천-영원선 보다 더 북쪽의 평안남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의 도계지역인 묘향산(1,909m), 소백산(2,015m) 등의 감제고지군을 장악하고, 동서 양 전선을 갈라 한국군과 유엔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진지를 구축한 후 방어전을 전개하라는 지시였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중국수뇌부의 작전방침이 방어전에서 기동전으로 수정됐다. 김일성과 만나 전황을 전해 듣고 진지방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펑더화이의 긴급보고를 받은 마오쩌둥이 내린 결정이었다. 북한 현지로 들어간 펑더화이는 10월 21일 김일성과 대유동에서 만나 대책을 숙의했는데, 이 때 김일성은 펑더화이에게 유엔군과 한국군이 아직도 덕천 남방 200㎞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군은 이미 그들이 있던 대유동 뒤쪽까지 도달한 상태였다.[36] 또한 중공군이 방어전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진지를 구축하려면 북한군이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줘야 했는데 당시 북한군은 가용한 병력이라곤 도처에 흩어져 있는 병력을 다해 봐야 3개 사단 정도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같은 긴급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평양-원산 이북의 산악지대에서 소련공군의 지원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면서 방어진지를 구축해 방어전을 치르려던 원래의 계획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즉각 자신의 구상을 버리고 적이 눈치 채지 못한 채 방심하고 북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런 기습공격으로 한국군부터 격멸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원래 미군과 국군이 11월 쯤 덕천지역을 공격해올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한 뒤 방어진지에서 분할 섬멸하기로 구상하고 있었다. 그

는 첫째 시기는 전적으로 한국군만을 공격하기로 한 10월 13일의 계획에 따라 먼저 압록강변으로 돌출되게 접근해오고 있던 한국군을 주 대상으로 공격하기로 하고, 펑더화이에게 7일에서 10일 정도를 소요할 예정으로 제1차 공세를 감행하라고 지시했다.[37]

다음날 10월 22일 펑더화이는 김일성과 상의한 작전방침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했다. 그 내용은 마오쩌둥의 구상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면서도 좀더 구체적이었는데, 핵심은 안둥, 창톈, 지안 등 중공군의 북한 전개 길목으로 이어지는 3개 도강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구성-희천-장진 이북 지역과 창톈(長甸)하구-지안(輯安)-린장(臨江)선의 도하선을 지키면서 시간을 벌어 반격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공권을 쥐고 있지 않은 관계로 공군의 폭격과 전차를 앞세운 적의 육·해·공 합동공격을 막아내기 힘든 이상 아예 동서 해안 연안의 도시들, 심지어 신의주까지 모두 미련 없이 포기한다. 그리고 적을 분산시켜 중공군의 병력소모를 줄이고, 1개 군단으로 적을 감제하고, 3개 군단의 군사력을 집중해 한국군 2개 사단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원산-평양선 이북의 산악지역을 장악,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지역에서 북한군의 유격전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었다.[38]

마오쩌둥은 이 보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재차 정세를 분석한 후 자신의 작전구상을 확정해 10월 23일 펑더화이, 가오강에게 하달했다. 덧붙여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은 자신의 판단을 전했다. 즉 그는 현재의 병력배치로 과연 적이 모르게 순식간에 한국군 3~4개 사단을 섬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향후 전쟁의 흐름을 수세에서 공세로 바꿀 수 있는 관건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은 배치를 다시 할 것이고, 적어도 한동안은 신의주, 선천, 정주 등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함흥에서 원산지역으로 후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39]

한편 중국지도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펑더화이와 함께 전략지대를 점검한 김일성으로선 이번에는 구성-희천-장진 이북의 산악지대를 점령해 유엔군과 한국군의 이 지역 접근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했다. 김일성은 중공군이 북한으로 안전

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중북 간 교통로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병력재배치를 시도했다.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설정한 지역은 덕천-영원 북쪽 묘향산 일대, 구성, 초산 및 강계 지역 등이었다. 이 외에 동부전선의 국군과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동부 산악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풍산 지역에도 병력을 집결, 배치시키기로 구상한 듯하다.

김일성은 펑더화이와 전황을 숙의하는 한편 북한군을 증설하면서 평양방어사령부에 소속됐던 북한군과 남쪽에서 패주해온 북한군에게 평양-신의주, 평양-개천 방향으로 신속하게 후퇴하라고 재촉했다.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북한군은 중공군의 지원을 기다리면서 전략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건을 제외하고 웬만한 것들은 모두 팽개치고 각 집결지로 황망히 이동했다. 시간에 쫓겨 퇴각하다보니 곳곳에 사용하던 차량 등의 각종 장비와 쓰던 군수물자까지 그대로 놔뒀거나 열차에 적재된 채로 내버려 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퇴각에 급급한 나머지 식사를 준비해놓고도 손을 대지 못한 음식들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전우였던 부상자와 낙오병까지 팽개쳤으며, 심지어 김일성이 타고 다니던 승용차까지 두고 도주했다.[40] 북한군이 이처럼 빨리, 쉽게 후퇴했기 때문에 나중에 맥아더가 북한군이 괴멸된 것으로 여기고 조기 전쟁종결을 선포하게 된다.

북한군은 "모든 물자와 철도 운수기재 일체를 옮겨가도록 해 적에게 한 대의 열차, 한 대의 자동차, 한 톨의 양식도 남겨주지 말라"는 김일성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김일성의 승용차마저 팽개쳤듯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부지하는데 최선을 다한 듯 했다. 그들이 김일성의 지시에 최선을 다하거나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은 무고한 양민의 살해였다. 북한군 당국은 남침 후 서울 등의 남한점령지에서 체포하거나 회유, 강제로 구인한 사회저명인사들과 북한행을 자원한 인사를 합해 총 120여명을 네 차례에 걸쳐 미리 평양에 데려다 놓고 사상개조 교육을 해왔었다.[41] 북한당국은 이 인사들을 평양이 함락되기 직전에 후방으로 끌고 가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가 하면,[42] 후퇴 종용에 응하지 않은 이들은 모두 평양 현지에서 살해했다. 국군이 평양에 입성해보니 평양

형무소에는 무차별적으로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43] 이것은 명백히 전쟁 중 군과 무관한 민간인의 체포, 학대와 처형을 금지한 제네바협정의 위반이기도 하다.

일부 북한군은 퇴각하면서 아군을 험준한 산악지역내로 유인해 진격을 지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다. 그래서 주요 도로와 요소요소에 소대 혹은 중대 규모의 병력을 은밀히 배치해놓고 저항하거나 아군의 보급로 등을 기습하곤 했다. 혹은 첩자를 투입해 허위정보로 아군의 전진을 지연시키려고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다.[44]

이와 관련해 먼저 1950년 10월 중순 이 시기의 북한군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료상에 나타난 편제로만 보면, 당시 김일성은 27개 사단 약 27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병력을 가용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 중국측 자료에는 북한 수뇌부가 유엔군의 북진 저지에 투입해 지휘 통제할 수 있었던 병력은 구성 지역의 제1군단 예하 3개 남짓한 사단과 장진부근의 1개 노동자연대와 전차연대 병력을 합쳐 9만 명뿐이었다고 한다.[45] 이 숫자는 당시 북한군 총 27개 사단 27만 명 중 3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중 대부분은 새로 편성된 부대로서 훈련 중에 있어 방어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많지 않았다. 나머지 18만 명은 중국에 9만 명, 38도선 남북지역에 9개 사단 이상의 9만 명이 흩어져 있었던 관계로 가용한 상황이 아니었다.

중국에 있던 9만 명은 새로 편성된 3개 군단 9개 사단과 1개 전차연대 소속이었다.[46] 38도선 남북지역에 흩어져 있던 9만 명은 일부가 남한 각지로부터 산발적으로 퇴각해와 북한조선노동당 중앙과 북한군 수뇌부의 명령에 따라 제2전선 부대로 통합 편성됐고, 최현의 지휘하에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예컨대 제4사단(2개 대대는 기존 부대), 제7사단(2개 보병연대, 1개 포병연대는 기존 부대)이 영원 북쪽지역에 위치해 있었다.[47] 남쪽에 흩어져 있던 북한군 부대들은 12월초에 가서야 3개 군단 정도가 원대 복귀하게 된다.[48]

김일성이 운용할 수 있던 병력은 중국측 자료에는 9만 명이었다고 돼 있지만, 실제 그 자신이 직접 가용하다고 언급한 병력은 3개 사단 규모에 불과했다. 이것은 10월 21일 오후 압록강을 건너온 펑더화이에게 그가 밝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이었다. 그는 펑더화이에게 자신이 쓸 수 있던 병력은 덕천-영변 이북 묘향산 일대의 1개 사단, 숙천에 배치된 2개 보병사단(신편 제7사단, 기존 제4사단)과 박천의 1개 전차사단, 장진 부근의 1개 공병연대와 1개 전차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49]

앞서 보았듯이 상기 3개 사단 중 제4사단과 제7사단은 최현의 지휘하에 "영원 북쪽"지역에 있던 2개 사단을 말한다. 즉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집결했거나 혹은 새로 편성된 북한군의 주력은 청천강 남쪽의 숙천에서 그 위쪽 청천강 북안의 박천에 있었던 것이다. 이 2개 사단은 영유-어파리 방어전에서 물러났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남쪽에서 북으로 이동하던 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하면 10월 21일 시점 북한군은 숙천-박천-영변-덕천-영원-장진선에 배치돼 있었거나 혹은 일부가 이동 중에 있었고, 이와 별개로 구성 지역에도 일부 병력이 있었지만 직접 청천강 방어전투에까지 투입될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무기, 장비까지 모두 버리고 퇴각했지만 가까스로 전략지대에 도달하거나 신설돼 배치된 북한군은 겨우 3개 사단 병력으로 많아봐야 4만여 명을 넘지 않았다. 북한군의 퇴각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데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했지만 그 중에 북한군 자체의 문제 외에도 주요 전략지역과 교량,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을 파괴한 미 공군의 폭격을 간과할 수 없다.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개시한 이후 미 공군의 B-26폭격기는 북한지역의 모든 형태의 교량, 산악도로, 하천 도선장, 철도역의 창고들과 전선 인접지역에 위치한 거점들을 폭격했다. 소련고문단측의 보고에 따르면, 미 공군의 폭탄 투하는 보통의 경우 2,000m에서 3,000m 고도의 수평비행을 통해,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대공포가 배치된 곳의 목표물 지역에서는 4,000m 내지 5,000m 고도에서 이루어졌다.[50]

김일성은 이 병력에다 영유-어파리 방어전에 이어 10월 23일~24일 경 남쪽에서 후퇴해온 일부 북한군을 합쳐 청천강 선에서 방어전을 펼치게 했다.[51] 하지만 북한군은 청천강 선에서도 뒤로 밀렸다. 청천강 선에 배치할 병력이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청천강에서도 밀리자 김일성은 이번엔 이 병력으로 마오쩌둥이 선정한 전략지대인 덕천-영원 지역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략

지대 확보에도 실패했다. 김일성은 청천강 북안에서 방어에 실패한 뒤 병력을 덕천-영원 지역으로 이동시켜 배치하기보다 바로 덕천-영원 북쪽 지역으로 병력을 집결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덕천-영원 지역을 확보하기엔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빨랐었고, 아군의 진격을 저지하기엔 북한군의 병력수가 적었으며, 사기도 저하된 상황에서 상응한 전투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략지대를 확보하지 못한 김일성의 실책이 결국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원래 계획했던 매복을 통한 방어작전을 아군에 대한 기습 유인 공격작전으로 급작스럽게 변경하게 된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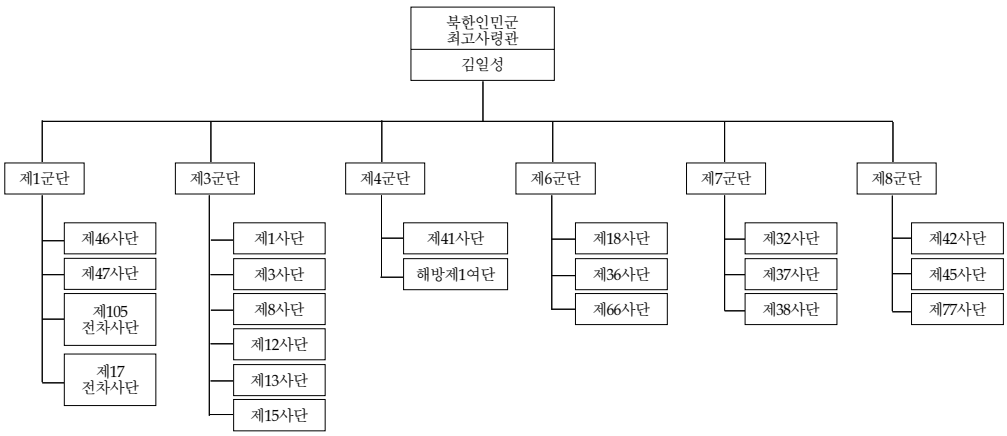
덕천-영원선에서 물러난 김일성은 중국 지안의 압록강 대안인 만포의 남쪽 일대와 강계 지역을 사수하려고 했다. 이것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새로운 전쟁이 개시되기 전 마지막으로 시도한 방어기도였던 셈이다. 그가 이 지역을 중시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마오쩌둥이 중시한 전략목표물인 수풍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수풍댐이 지니고 있던 전략적 가치와 마오쩌둥이 이를 보호할 것을 강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2장에서 고찰한 바 있다. 둘째는 초기 중공군의 북한전개로 세 곳 가운데 지안-만포 전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압록강 하류의 안둥과 창뎬 하구는 그 때까지 국군과 유엔군이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관계로 10월 23일 중국내에서 이동을 개시한 중공군 제66군단이 안둥으로 도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도하지점인 지안-만포선은 국군 제6사단의 선두부대가 초산을 향해 쾌속으로 진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장담할 상황이 아니었다. 초산에서 조금만 더 북상하면 바로 지안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길목인 만포다. 만약 만포 일대가 아군의 수중에 떨어지면 곧 있게 될 중공군의 전개가 지장을 받을 수 있었다. 제3절 피아의 전쟁지도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이 시점은 중공군 제50군단 제148사단이 초산으로 가기 위해 지안에서 도강하기 직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당시 수습 가능한 병력 전원을 주요 방어지인 덕천-영변 이북의 묘향산, 구성, 강계, 풍산-장진 등 네 지역에 배치했다. 북한군의 작전계획서 등의 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현재로선 김일성이 이 전략지역 네 곳에

각기 어느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려고 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의 단편적 자료와 전후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략 각 거점지역에 적게는 2~3개 사단, 많게는 6개 사단 이상을 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모든 사단이 완편 사단인 것은 아니었다. 이 당시 북한군의 전투서열은 아래 표와 같았다.[52]

<표 3-1> 1950년 10월 하순경 북한군 전투서열표



지역별로 보면 묘향산, 구성 지역에는 북한군 제1군단 예하 3개 사단 약 3만 명을 배치했다.[53] 강계 지역에는 제3군단 예하 6개 사단(제1·제3·제8·제12·제13·제15사단) 5만 3,000명이 도달하거나 배치돼 있었다.[54] 풍산 지역에는 제4군단 소속 1개 사단 및 1개 여단과 2개 연대 병력 약 2만 명 정도가 배치돼 있었다.[55] 이 중 주목되는 사실은 초산으로 향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강계 지역에 당시 북한군의 가용한 전체 병력 중 절반이 넘는 6개 사단을 투입한 점이다. 특히 이 6개 사단 중 자신의 충복 오백룡 소장이 이끄는 제8사단을 전방에 배치했다. 당시 아군 수색대에 확인된 바로 초산 북쪽 2㎞ 떨어진 압록강 변에 대략 300명 정도의 북한군이 배치돼 있던 것[56]도 아마 이 제8사단 예하 부대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북한군은 이미 병력수로나, 장병들의 전투의지 면에서나 한 마디로 파

멸 일보직전의 상황에 있었다. 무릇 군사력의 붕괴는 곧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다. 북한정권이란 게 출발부터 군사무력에 의존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무너지면 정권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바꿔 말하면, 아군 앞에는 바야흐로 적군의 와해와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점에서 김일성은 북진 전 공표된 맥아더의 항복권고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었다. 그것만이 동족간에 더 이상 불필요한 사상자를 내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족의 통일에 협조함으로써 그나마 자신이 저질렀던 동족상잔의 역사적 죄과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맥아더의 항복권고를 비웃기까지 했었던 그는 애초부터 항복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57] 그 후 그는 이곳을 떠나 창성→유평→창성을 거쳐 고산진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그 뒤 그는 잠시 강계에 있다가 중국 둥베이(東北)의 퉁화(通化)로 옮겼다는 주장이 있지만,[58]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



중국쪽에서 바라본 고산진 김일성의 임시지휘소(중간의 기와 집). 전면의 강은 압록강 상류다. 김일성은 이 곳에 숨어 지내면서 북한군과 당을 지휘했는데,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강폭이 수 십 m에 불과해 중국으로 피신하기에는 안성맞춤인 지역이었다. 그는 여차하면 이곳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가 왜 강폭이 좁은 개울과 같은 이 곳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김일성은 후퇴하면서 북한군으로 하여금 남한의 저명인사들을 처형하거나 사지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가운데 쓸만한 남자들은 신병으로든 의

용병으로든 모두 끌고 갔고, 나머지 북한군에 협조하지 않거나 순응하지 않은 "불순분자"들은 대부분 처형시켰다. 연도에 나와 아군의 북진행렬을 환영하거나 점령지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노인, 부녀자와 아이들뿐인 곡절이 여기에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평양감옥소에 널브러진 시체들 가운데는 납북인사들도 포함돼 있었을 것이겠지만 시체들의 대부분은 무고한 "반공주의자" 혹은 "반공인사"들이었다. "반공주의자"들의 처형은 비단 평양에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 원산, 함흥의 형무소에서도 많은 구금자들이 처형당했다. 평양, 원산, 함흥에서 발견된 시체들은 모두 아군이 이 도시들을 점령하기 직전인 10월 중순 북한군이 거의 동일한 시각에 처형한 것이었다.[59]

이 사실로 보아 북한군의 "반공주의자" 혹은 "반공인사"의 처형은 단순히 북한군의 개별 부대 수준에서 자행된 것이 아니라 이 보다 더 높은 최고 수뇌부 수준, 즉 김일성의 지시를 이행한 계획적 살해행위였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김일성이 하부 조직에 직접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고, 또 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군이 서울 점령시에 구금, 체포한 사회저명인사들을 북으로 압송해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든 것은 전쟁도발자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인 그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은 도주하면서까지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민족사적인 죄행을 저질렀던 셈이다.

김일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침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이용해 당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시도에 나섰다. 그는 11월 7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남침전쟁을 공동으로 결정했던 박헌영 등의 정적들에게 남침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다. 11월 7일 소련 10월혁명 33주년 기념일 만포의 소련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김일성은 남침하면 남한의 민중들이 봉기할 것이라고 했던 박헌영의 말에 대해 "여보, 박헌영이! 당신이 말한 그 빨치산이 다 어디에 갔는가? 백성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갔는가?"라고 박헌영을 면전에서 힐난하며 전쟁패배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60]

그 후 김일성은 한 달 뒤인 12월 21일 1년 만에 열린 북한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도 당내 주요 정적들을 제거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그간의 전쟁을 총괄하는 보고를 했는데,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이 공략에 실패한 원

인과 책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지휘 오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모두 일선 지휘관들의 잘못된 지휘 탓으로 돌렸다. 그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라는 마오쩌둥의 충고를 무시하고 개전과 동시에 줄곧 남한의 영토점령에 치중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북한군 "일부 지휘관들"이 "적을 포위 섬멸하여 적의 유생역량을 소멸함으로써 적의 재기를 불가능케 할 대신에 적을 한갓 밀고만 나가서 일정한 시기에 적군이 다시 편성할 가능성을 주었다"고 비판했다.[61] 즉 북한군 일부 지휘관들이 병력 이동에 대한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제 때에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언급한 적의 "유생역량"을 소멸하라는 것은 적의 병력 혹은 적의 군대를 없애라는 의미의 중국식 표현으로서 남침개시 전 마오쩌둥이 그에게 권고한 전술지침이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적의 유생역량을 소멸함으로써 적의 재기를 불가능케 할 대신에" "적을 한갓 밀고만 나가서" 결국 남한'해방'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 회의에서 당과 군의 많은 고위 간부들이 해임됐다. 김일이 문화성 보위부부상에서 해임됐으며, 연안파의 대표 주자격인 무정도 제2군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김일성이 이미 중징계 당한 무정을 당시 강하게 비판한 것은 아마 펑더화이와 그의 특별한 관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무정과 펑더화이는 중국혁명과정에서 함께 싸운 오랜 전우였으며, 펑더화이가 무정의 결혼까지 주선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김일성은 자신이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정을 제압하기 위해 그에게 가혹한 책벌조치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62] 이 밖에도 김한중과 최광이 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으며, 북강원도 당위원장 임춘추와 남강원도 당위원장 조진성, 경기도 당위원장 박광희 등이 출당되거나 문책을 받았다.[63]

이처럼 김일성이 역설적이게도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도 남침결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당내 권력장악 시도를 통해 버틸 수 있었던 허장성세는 앞의 제2장에서 살펴본 대로 중국수뇌부가 김일성의 중공군 파병요청을 받아들여 파병을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소련군의 파병은 불가하다고 거절한 상황에서 김일성이 걸 수밖에 없었던 거의 유일한 의지처이자 최후의 희망이었다.

3. 유엔 및 한국정부의 북한점령지 정책 시행

1950년 9월 하순, 유엔은 북진을 결정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쟁목표를 “전쟁 이전 상태로의 회복”에서 “통일한국의 실현”정책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군사작전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작전방침대로 결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향후 북한점령지역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가 문제였다. 이른바 군정문제였다. “군정”이란 군이 군사 점령지에서 입법, 사법, 행정에 걸쳐 직접 통치를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것은 전쟁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북진에 따른 북한지역의 군정은 당연히 한국정부가 주체가 돼 시행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한국정부의 지도급 인사들 수준에서는 북한지역 군정에 대해서 이미 1950년 8월 미국정부와 유엔 및 언론에서 북한군정 실시여부, 군정의 주체와 방법 등이 거론될 때부터 의식하기 시작했었다. 예를 들어 8월 20일 이승만 대통령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장면 박사가 유엔의 신탁통치가 있을 것이라는 외신보도에 대해 공박한 것과 또 9월 1일 유엔총회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지역에 대한 민사행정권, 즉 전시통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이 그것이다. 장면 박사가 외신보도에 대해 공박한 내용은 신탁통치나 북한정권이 포함된 연립정부 구성 등에 대해 한국정부는 단호히 반대하며, 유엔 감시하에 북한 몫으로 남겨둔 100석의 국회의원 궐석선거를 치러 통일할 것이라는 의사였다.[64]

그런데 한국정부의 북한군정 의지는 분명했고, 강렬했지만 군정실시 계획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군정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예컨대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 북한군정 실시계획은 아예 없었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10월 7일 육군본부가 38도선을 돌파한 한국군에게 내린 군의 행동지침인 육본훈령 제86호가 유일했다. 내용은 군의 민사작전 차원에서 북한주민을 대할 때 적이 아니라 “해방된 형제”로 대하고, 한국군은 북한민간인에 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수호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군정에 대한 절차나 방법, 수단 등을 제시한 계획서는 아니었다.[65] 따라서 한국정부는 미 육군성이 맥아더 원수에게 군정 세부계획을 송달한 미국정부 보다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었다.

10월 3일 맥아더 원수에게 최초로 전해진 이 군정계획은 크게 3단계로 북한을 통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제1단계에서는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지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며, 그는 유엔과 미국정부의 통제를 받을 뿐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 이 기간 정부활동은 실질적인 지방 및 도행정의 복구에 치중하며, 주로 구호활동과 최소한의 지원제공, 법과 질서의 유지 및 확립이라는 치안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제2단계에서는 유엔한국위원단의 지도하에 정상적인 정치,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군사안보는 2차적인 관심사가 된다. 이 기간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지역에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는데, 다만 군사적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한국위원단이나 위원들의 자문이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제3단계는 선거를 통해 수립된 통일한국정부가 통치권을 인수하고, 한국안보를 위해 필요한 군대를 제외한 모든 유엔군을 철수시키는 단계였다. 이 단계에서 유엔군사령관은 이북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자신의 휘하 유엔군의 군사적 안전에만 책임을 진다.[66]

위 계획의 세부지시 사항에는 38도선 이북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점령업무 집행기구 이외에는 어떤 형태의 중앙정부도 창설할 수 없게 돼 있었다. 또 유엔군사령관은 점령업무와 통일에 도움이 될 경우 필요한 사람을 임명, 파면, 추대할 권한을 보유하고 점령지역의 정치단체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게 돼 있었다.[67]

맥아더는 10월 7일 북진을 결정하면서 상기 지침을 작전명령 제2호에 의거해 미 제8군 사령관과 제10군단장에게 하달했다. 미군이 개성을 점령하기도 전이었다. 이 날 유엔은 오랫동안 논의해온 “한국의 독립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 유엔은 한반도 통일정책 방향을 “한반도 전체의 통일, 독립된 민주적 정부수립, 안정, 평화상태의 확고한 수립”에 두고 그 실현의지를 밝혔다. 의지는 분명했지만, 그 의지를 실천하는 주체는 유엔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을 지향한 유엔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한국정부가 북한통치의 주체가 되는 것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초 그 중심에는 인도가 있었다. 인도는 남한이 한반도 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또한 유엔

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한국정부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주권이 자동적으로 북한에까지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유엔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형식은 신탁통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한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 후 한 동안 유엔 내에선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통치 형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군정을 실시할 것인지, 신탁통치를 시행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다.[68]

이러한 동향은 바로 워싱턴에까지 파급됐다. 미 국무부 안에서도 인도가 제기한 반대 방안대로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북한에까지 연장 적용시키느냐, 다른 기구를 잠정적으로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에 새로운 통일정부를 수립시킬 것인가 하는 방안들이 논의돼오던 중이었다. 미 행정부는 점령정책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구상을 마련해 놓았다. 첫째 단계는 유엔한국통일위원단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한국군과 유엔군을 각기 절반으로 한 점령부대가 주요 도시들을 장악해 북한군의 무장해제, 민간구호, 공공기관 기능회복 등의 임무를 맡는다. 둘째 단계는 유엔한국통일위원단이 도착해 북한 각지의 답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따라 구호, 재건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한다. 셋째 단계는 유엔 감시하에 북한지역 안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고, 동시에 한국정부와 유엔의 동의를 통한 한국의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69] 요컨대 유엔의 주관하에 3단계로 점령정책을 주도하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관리는 당연히 한국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한국정부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정부는 남·북한의 전국선거가 아니라 북한지역에 국한된 선거를 통해 북한지역 대표 의석으로 비워둔 것을 보충하는 식이 돼야 하고,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북한에 연장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10월 9일 유엔은 맥아더에게 한국정부의 북한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 임의로 한국정부에게 북한통치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삼갈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맥아더는 유엔과 미 육군부로부터 동시에 점령군사령관으로서 민정 통수권한을 위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현

재 미국행정부 내에서 이 문제가 철저히 검토되고 있으니 결말이 날 때까지 이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을 신중히 해줄 것을 권고했다. 다음 날, 미 행정부의 입장을 통보 받은 미 육군부는 앞서 10월 7일에 접수한 미 육군성 군정지침과 틀이 거의 유사한 3단계 군정실시 계획을 상정했다. 최초 단계는 북한지역내에 질서가 회복돼 내적인 안전을 되찾을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맥아더 장군이 유엔과 미국정부의 통제하에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반도 전역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맥아더 장군이 완전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유엔한국위원단의 건의와 충고를 받아 유엔군 병력을 이용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진다. 마지막 단계는 선거종결, 통일정부 수립 후 한국에 파견된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새로 탄생한 한국정부에 대한 통제를 줄여나가는 단계였다. 이 단계에선 현지 사령관은 수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70]

미 육군부는 맥아더에게 '통일한국정부'를 세우기 전에 점령군으로서 통수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시했다. 즉 이 지시는 '한반도 정권과도기' 동안 북한에 대한 민정감독 행사대행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사실상 맥아더가 점령기간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는 공공질서 회복, 피폐된 국민경제 복구, 한국인들이 통일을 이루도록 준비시키고, 북한정권의 소멸 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승만 정부의 통치범위를 북한지역에까지 연장시킬 의도가 없었고, 북한지역에 군정과 다른 의미를 가지는 중앙정부기구를 둘 생각이 없었다.[71]

이 소식이 한국정부에 전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또 한 번 격분하여 이렇게 말했다. "무슨 놈의 소리냐? 북한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땅이 아닌가.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북진하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국군이 아닌가. 유엔군도 북진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군대지 대한국군은 아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한 주권행사는 의당히 우리가 해야 한다."[72]

그러나 유엔의 결정에 반영된 것은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였다. 10월 12일에 개최된 유엔한국임시위원회에서 유엔은 기존에 논의돼온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와 북한점령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유엔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UNCURK)이 북한지역의 행정을 관장

할 때까지 유엔군사령부가 잠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통치권과 일반행정을 관할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인원에 대해 통괄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73] 한국정부를 한반도전역의 합법적 통치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10·12 결의안'이었다. 같은 날, 유엔한국임시위원회는 군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이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와 행정면에서 유엔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과 현안문제를 논의하여 모든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해줄 것을 미국정부에게 요청했다.[74]

그런데 유엔과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한국정부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것 일뿐,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마치 해방 전후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에 관해 한국민의 의사를 무시했던 전례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한 유엔결의에 위배되는 처사이기도 했다.

10월 13일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내각은 이미 2년 전인 1948년 5월 30일 "전국적 선거"로 정부가 수립된 이상 남한에서의 재선거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엔의 '10·12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정부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한국정부는 북한지역에 대해 독자적으로 군정과 통치권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정부와 자신의 입장을 담은 항의전문을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전달했다. 맥아더에게 보낸 항의전문에서는 유엔을 포함한 어떤 국가일지라도 외부세력이 국내행정을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앞으로 한국정부는 전투가 끝나는 즉시 2년 전에 임명한 이북5도의 지사들을 파견해 일반행정을 맡게 할 예정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주민도 남한주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선거로 도지사를 선출하겠다고 선언했다.[75]

이 항의내용은 10월 15일 웨이크섬 회담에서 맥아더를 통해 맥아더 자신의 우려와 함께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트루먼에게 전달된 의미는 북한 점령지에 대해 한국정부가 행정권을 접수하는 문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유엔이 한국문제를 논의하면서 똑같은 기준에서 남·북한을 취급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

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였다. 즉 유엔의 그러한 처사가 한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이승만 정부에 대한 유엔의 반대로 만약 한국이 우리에게 대들거나 등을 돌린다면 그것은 아시아 최대의 참화를 빚게 될 큰일"이라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한국인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며, 쉽게 우리에게 반항할 수 있다"는 무초(John Joseph Muccio) 대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처럼 고난을 겪고도 견디어 낸 정부를 쫓아내고 북한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76] 환언하면 한국정부의 북한군정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맥아더가 전한 이승만 대통령의 항의각서에 대해 트루먼 대통령은 이승만이 반발한 것은 그가 유엔의 결의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미국정부는 한국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되어 한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통일된 정부를 수립한다는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지만 한국정부의 통치권을 북한에까지 자동적으로 확대해주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77] 그러면서도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정부를 계속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트루먼의 이 언급 역시 의미가 모호했다. 한국정부를 계속 지원한다고 했지만 군사적인 지원인지, 행정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이념적 또는 도덕적 지원인지가 불분명했다. 실제 현실로 나타난 것은 결국 미국과 유엔이 점령정치를 주도한다는 기존 입장의 지속이었다.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항의에 대해 미 행정부는 주한 미국대사 무초를 통해 미국정부의 입장을 통보했다. 즉 유엔소총회에서 결의된 '10·12결의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동안만 적용할 한시적인 것이니 한국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자제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 유엔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것은 유엔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하면 북한 행정에 대해 이승만과 협의할 것을 약속한 점이다.[78] 그러나 이승만은 유엔소총회의 결의가 잠정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정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법리상 논리적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맥아더에게 유엔결의안의 부당성과 함께 한국정부의 입장을 밝힌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결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유엔의 결정을 번복시키거나 무효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주 유엔 한국대표부와 워싱턴의 주미 한국대사 장면에게 북한해방지역 내에 미 군정체제가 수립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라고 훈령을 내렸다. 10월 17일,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임병직이 유엔회의에 참석해 북한지역에서의 선거실시는 환영하나 남한에서 새로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연설을 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언론매체에 전쟁종료 후 유엔이 남·북한 총선거를 시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항의한 바 있는데, "한국은 자동적으로 통일될 것이며, 유엔은 선거를 시행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역설했다.[79]

그러나 유엔은 명시적으로 한국정부를 무시했고, 총선을 치를 때까지는 당분간 북한지역에서의 권력은 자신들이 행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게는 평양 등 북한지역 주요 점령도시에 대한 행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북 통치권을 찾아오지 못한 것이다. 유엔군 당국의 금지로 한국정부(내무부) 행정관들의 북한점령지 취임이 여의치 않자 이승만 대통령은 두 가지 대응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내무부 행정관이 수복지역의 도, 시, 군에 파견될 때까지 한국군이 그 지방의 주민자치 기구를 임시 편성해 운용하도록 했다. 다른 하나는 북진소통로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내무부를 통해 모집한 경찰관을 임지로 보낸 것이다.[80] 이는 한국정부와 유엔이 제각기 북한 점령지역에 대한 전시정책을 시행하게 됐음을 의미했다. 한국군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 본격적인 군정 시행에 들어가기 전 먼저 한국정부의 행보는 크게 실제 전시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엔의 군정을 반대하는 국내여론을 조성해 맥아더와 미국을 압박하고자 일련의 행보를 보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민정감독 대행권을 맥아더에게 부여하던 10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 내무부장관을 북한행정 관련 실무책임자로 삼아 북한지역에 대한 시정방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방침은 정부 국무회의의 의결

을 거쳐 발표됐고, 다음날 조병옥 내무부장관이 내무부 담화를 통해 북한지역에 대한 전시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을 평정하면 그 지역에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가정하고, 군이 각 도의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면 지역별로 계엄군의 지휘 감독하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치안유지와 질서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내무부는 수복지역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을 임명할 계획하에 그 전에 먼저 군의 요청을 받아 각 시, 군 단위로 민정관 1명과 간부 약간 명, 경찰대장과 대원 상당수를 파견해 전시구호, 민정조사, 치안유지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복구 기반을 다진 후 시, 군 단위의 행정이 회복되면 도지사로 하여금 계엄사령부의 지휘하에 통일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방침이었다.[81]

이 계획에 의거해 한국정부의 내무부는 실제로 각 시, 군 단위로 민정관 1명과 간부 약간 명, 경찰대장 1명과 경찰관 100~150명씩을 파견해 전시구호, 민정조사 및 치안을 담당하게 했다. 이승만은 내무부가 모집한 경찰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애국청년단원들을 한국군 트럭에다 실어 평양에 투입했고, 이와 유사한 단체들이 "멸공구국대",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YMCM" 등 40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82]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아군의 순조로운 북진에 대한 경축과 지속적 진격을 위한 국민의 성원, 점령지 주민에 대한 위무, 유엔에 대해 한국정부의 북한통치 의지를 표현하는 몇 가지 복합적 의미와 동기가 내재된 통치행위를 행했다. 서울, 평양, 원산 등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요원들을 보내 각종 북진성공 경축 군중행사를 전개한 것이다. 10월 12일 이승만 대통령이 원산에 가서 한국군 제1군단을 표창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이 그 좋은 예다.

10월 16일, 국군은 북한지역에 계엄을 선포하고, 각 도의 계엄군에 민사부를 설치하고 도별 책임자를 임명했다. 정일권 육·해·공 3군 총사령관은 육군참모회의를 소집해 각 군단 및 사단에 있는 민사부로 하여금 북한의 수복지역마다 시, 군 단위로 자치 기구를 편성토록 지시했다.[83]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는 6개의 지구별 계엄민사부가 설치됐으며, 지구별 책임자도 임명됐다. 평남지구 계엄민사부장 장석륜 대령, 평북지구 계엄민사부장 유승열 대령, 함남지구 계엄민사부장

김완룡 대령, 함북지구 계엄민사부장 최경만 대령, 강원지구 계엄민사부장 이용문 대령, 황해지구 계엄민사부장 박승훈 대령 등이었다.[84] 국군은 각 군단 및 사단 민사부에게 수복지역에 시 군 단위의 자치기구를 조직하도록 지시했다. 평양시는 헌병대장 신분으로서 한국군 제2군단 계엄사 민사부장 겸 군정관으로 임명된 김종인 대령이 군정을 주관했다.

한편 전시정책권 부여를 반대한 미국과 유엔의 벽을 체험한 이승만은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의 기존 입장을 한 발 누그러뜨리는 행보를 보였다. 미국정부가 서울 주재 미국외교관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및 한국정부와의 이견과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라는 훈령을 내리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이승만은 10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10·12 결의'를 수락할 것이지만 유엔도 북한에서의 선거실시에 있어서 북한주민을 통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충고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이다.[85]

결국 이승만이 10월 20일 무초 대사와 장시간 가진 대담에서 유엔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로써 북한 점령지역 통치문제에 관한 한국과 유엔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은 봉합됐다. 유엔과의 타협은 이미 유엔 임시한국위원회와의 견해차이가 확인되고 난 뒤 군정의 단독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본 한국정부가 예상한 결과였다.[86] 그렇다고 이승만의 타협이 무조건적으로 유엔을 따르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다. 즉 군정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공산주의자나 공산정권 기구로 구성된 유엔의 군정은 절대 반대할 것이며, 유엔임시위원회의 결정에 완전 승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든 군사정부 수립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87]

미국 측도 한 발 물러나 한국정부가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북한지역의 군정요원으로 임용하기로 함으로써 한미 간의 갈등은 절충된 양상을 보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군정방침을 받아들인 결과 10월 24일 한국정부는 평양시 관리위원으로 한국인 12명을 선정해 유엔군 관할하에 취임시켰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행정요원들과 경찰관 명단을 전했고, 또 전문을 보내 이렇게 강조했다. "유엔군과 한국인이 고귀한 피를 흘려 공산주의자들을 패배시킨 후

에 다시 북한에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유엔의 의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적대행위가 종결되면 2년 전에 임명한 이북 5도 지사들을 파견, 민간행정기구를 접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북한민중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남한국민들이 누리는 것과 똑 같은 자유와 특권이 북한의 모든 민중들에게도 평등하게 부여될 것이다. 현재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남한적화 야욕을 분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민중들의 의지는 소련이나 그 밖의 다른 국외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때 행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88]

주한 미국대사 무초가 11월 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비밀회의에서 발언한 것에 따르면, 북한의 행정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경찰이 북한에 파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은 대구에서부터 유엔군을 따라 배속된 것일 뿐이며 공산군에 의해 혼란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으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다는 것이었다.[89] 그러나 한국정부가 북한지역에 경찰관을 보낸 것은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지역의 행정 및 정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90] 또한 구호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보건부를 주무기관으로 삼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즉 구영숙 보건장관은 2,000여 명의 의사, 간호사로 구성된 500개의 의료구호반을 편성하기로 하고 10월 15일 현재 이미 150여개의 의료구호반을 편성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이면적으로는 여러 차례 정부행정관을 평양, 원산 등지의 점령지로 보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유엔군 당국의 저지로 38도선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91] 결국 이승만 모색한 한국정부의 북한 내 수립은 유엔과의 갈등으로 차질을 빚었다. 자신의 시도가 저지당하자 이승만은 미국정부와 맥아더 측에게 불만을 전했다. 그는 11월 2일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의 임병직과 장면 대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양, 원산 등지의 북한사람들이 벌써 그곳에는 미국인들만 있고, 한국정부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92]

이승만의 북한 통치의지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사를 통해 계속 표출됐다. 내

무부 장관 조병옥 박사가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평양시청 김일성 광장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전승축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93] 국군이 평양 탈환 후 청천강 북방으로 진격하게 되자 10월 27일 서울에서도 정부환도 및 평양탈환 경축기념대회를 개최했다. 10월 30일, 이승만 대통령도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와 있으니 신변 안전상 가지 않는 게 좋다는 정일권 3군참모총장의 만류에도 개의치 않고 평양방문을 강행했다. 신성모 국방장관, 이선근 정훈국장, 김광섭 비서, 김장홍 총경 등이 78세의 노 대통령을 수행했고, 대통령의 안전은 한국군 수뇌부가 직접 책임졌다. 정일권 3군총사령관은 사전에 군 특별경호팀을 급편해 정보국 요원들과 함께 평양에 선발대로 보냈으며, 평양지구 한국군 헌병대장 김종원 대령에게도 비밀지령을 보내 경호를 맡도록 했다. 또한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장군이 여의도 비행장에서부터 직접 공군 무스탕 전투기 1개 편대로 경호비행의 선두에 섰다.[94] 평양은 이미 한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이 북진을 계속하기 위해 평양을 떠나면서 자신의 휘하 부사단장 최영희 준장에게 치안임무를 맡긴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었다. 최영희 준장이 평양에 대한 방호, 요인 경호 및 이와 관련된 제반 행정사항들의 처리를 맡았다.[95]

평양에 도착한 이승만 대통령은 검정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먼저 임시 평양시장 임정득을 접견한 후 평양시청 앞에서 거행된 “평양탈환 환영대회”에 참석해 40만 평양시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 45분부터 약 1시간 10분간에 걸친 연설을 했다. 연설내용은 평양시민들에게 민족의 단합을 호소하고, 이북 각 도지사를 각 도민들이 투표로 선출해 해당 도는 각기 도민의 민의에 따라 시행케 할 방침이라는 것이었다. 또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룰 예정인데, 이것이 곧 북한지역에 국가권력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96]

그런데 이 시점 평양은 한국정부가 대북점령지 시정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지역행정장관을 임지로 파견한 조치와 별개로 유엔군은 수복지역에 군정을 실시키로 결정하고, 북한 전역에 대한 유엔의 군정기구를 조직하기로 함에 따라 벌써 미군정하에 들어간 상태였다. 맥아더는 서부전선과 동부전선 두 지역으로 나누어 북진시켰던 작전계획에 준해 군정도 작전경계선에 따라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둘

로 나눠 전자에 대해선 미 제8군 사령관에게, 후자에 대해선 미 제10군단장에게 분담시켰다. 미 제8군은 161명의 장교로 편성된 '민정원조사령부'를 설치하면서 북한지역에 대한 군정준비에 착수했다.[97]

미군이 유엔의 대민사업(civil affairs)을 적용할 첫 번째 도시는 평양이었다. 앞서 언급된 임시 평양시장 임정득은 10월 19일 국군이 평양을 탈환하자 다음 날 유엔군 평양지구 사령관이 임명한 것이었다.[98] 임명은 임의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임정득은 노인이거나 중년 이상의 나이였다. 당시 평양의 현장을 밀착 취재한 프랑스 종군기자에 의하면, 미군 당국은 미군 소령 한 사람이 한국인 통역을 데리고 평양시가지를 돌아다니다가 행인들 가운데 행색이 지식인으로 보이는 한 노인을 평양의 운명을 이끌 임시 평양시장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소령은 이 노인에게 그의 친구 10여 명을 불러오게 해 절간에서 그들로 하여금 선거로 뽑게 한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이 노인은 시정을 맡아본 적도 없고 공무도 맡아본 적이 없던 교사였다고 한다.[99] 어쨌든 미군 당국은 군정에 필수적인 현지인의 행정수장을 정한 것이다. 이어서 미군은 10월 21일자로 평양에 있던 미 제1군단 소속 군정부를 설치했다. 10월 23일 미 제1기병사단 사령부는 평양시 군정관으로 엘모베스 대령을 임명했다.[100]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이 북진하면서 조직했던 주민자치기구는 유엔 군정당국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 지역에 파견된 한국정부의 경찰 및 행정요원들 중 유엔 군정기관에 편입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남한으로 되돌아왔다. 따라서 서울의 행정지침도 수복지구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자연히 행정의 공백이 생겨났다.[101]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의 상륙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이 임시로 군정임무를 담당했다. 국군 제1군단은 행정기구를 복구시키기 위해 도 내에 7개 시, 26개 군으로 편성하고 과도행정기구로서 각 시군단위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군단민사처의 지휘하에 함경도 자치위원회를 조직하고 오산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이구하를 지사로 선출함과 동시에 각 시군단위의 자치위원회도 조직했다. 함경도 지역의 군정은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의

지휘 하에 서부전선에 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102] 국군 제1군단은 북진이라는 군사업무가 주 임무였기 때문에 원산의 군정을 정상적으로 펼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상륙한 미 제10군단에게 군정업무를 인계했다.[103]

이는 한국정부의 탄생에 관여했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규정한 유엔결의에 위배되는 처사였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시책은 북한전역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행정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정체와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104] 실제로 한국군 전투부대는 상급부대로부터 점령한 북한지역들에 대한 군정을 시행할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없었다. 일선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소대나 중대에서 임의로 처리하는 예가 허다"했고, "이는 민폐의 소지가 없지 않았다"고 했다.[105]

10월 29일, 맥아더는 미국정부로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제 문제는 무초 주한 미 대사를 통해 한미정부간의 교섭 차원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106] 그러나 미국정부는 북한 군정업무에 필요한 요원을 채용함에 남한사람을 고용하는 것마저도 금지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11월 2일 맥아더에게 그 지시에 대해 다시 부연 설명했다. 즉 유엔군정기구가 고용한 한국의 관료나 경찰 그리고 군대나 다른 가용자원들은 모두 한국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기보다 유엔기구와 유엔군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107]

이중적 행보를 보인 이승만 대통령은 이즈음 자신의 입장을 굽히고 유엔의 대북군정권을 인정했다. 그는 10월 30일 내외신 기자들에게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 사실을 내외에 알렸다. 즉 한국정부는 10월 7일 조직된 유엔총회의 결의를 좇아 행동할 것이며, '유엔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유엔의 한국위원회의 임시결의에 대해서는 유엔의 여러 단체와 상의한 후 유엔군 사령부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문제에 관해 한국정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결정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한국정부는 유엔위원단을 환영하며 이들과 긴밀히 협조할 것입니다."[108]

이승만 대통령은 어쩌면 자신이 이 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공산 괴뢰의 완전한 소탕의 날도 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부흥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 마당에 얼마 남지 않은 북한점령 후의 통일까지 인내하기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담화에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장차 북한 점령 완수 후 북한에 대한 통치에 관한 남한정부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내외에 천명해놨다.

그가 행한 언급의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한 민족이었던 우리 민족이 "38선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들어선 이후 애국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월남하였는데, 이러한 선량한 동포들은 지금도 이북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북한에서 시행할 선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투표할 분위기가 마련되는 대로 시행될 것"이지만 과거 공산당에 가담하였던 자, 공산당에서 조직한 단체에 종사하였던 자들은 공직에서 모두 배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항간에서는 내가 이미 이북의 도지사를 임명하였고 인사 명단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남한의 각료를 임명할 때에 우리가 북한의 국민들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함께 임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북한 출신의 많은 단체의 협력 하에 그곳의 안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정보는 맥아더 장군 사령부와 유엔위원단에게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끝난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북한주민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미 국회 및 정부 각료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고 했다.[109]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 방문에 이어 11월 22일 함흥을 방문해 한국정부의 주권 행사를 강조한 주목할만한 연설을 했다. 즉 "우리 스스로의 힘과 열로써 훌륭히 정치해 나갈 수 있는 채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력했다. "우리가 자주 국민임을 온 세계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비록 유엔 각국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우리 국토에 대하여 남의 나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게 단결하여 우리의 권리를 올바르게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

다."[110] 이것은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이 압록강까지의 진격에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동향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북진 후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1월 25일 중공군의 기습 공격으로 아군이 청천강 이남으로 퇴각했고, 결국 평양까지 함락됨에 따라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들의 통일염원이 무산됐고,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정책과 그 의지도 무용화 되고 말았다. 평양 함락에 이어 아군이 퇴각함에 따라 모든 군정기관도 평양에서 철수했다.

북진 개시 후부터 시작된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약 두 달 가까운 군정은 북한주민의 입장에선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북한주민들은 입북 초기 아군과 남한에서 파견된 행정요원들 및 사회단체들을 열렬히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심이 이반됐다. 그것은 군정에 임한 일부 아군과 북한지역으로 들어온 남한의 정부 및 사회단체 소속 요원들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며 벌인 개인가옥의 불법점거, 타인의 귀중품 강탈, 소비조합 창고와 공공 창고의 물건과 화폐에 대한 무단 탈취 등의 각종 일탈행위 및 행패에서 비롯된 결과였다.[111]

제 2 절 중공군의 한반도 전개와 전략목표

1. 최초 전략목표, 도하, 북한집결지 이동과 배치

제2장에서 소상하게 밝혔듯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동기와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즉 패망일보 직전의 북한정권을 구원하고, 중국 둥베이 국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세계 공산주의운동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김일성 정권을 도와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목적은 뚜렷하게 내세우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공세적이었다고 하기보다 중국의 안보를 보장 받으려고 한 수세적 성격이 짙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전쟁개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수뇌부는 6·25전쟁 전 기간 동안 전쟁이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국지전화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군의 북진을 저지하면서도 가능한 한 미국이 중국에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하는 구실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그 후 1950년 말에서부터 이듬해 초에 가면 중국수뇌부는 한반도전쟁을 통한 타이완(臺灣)문제 해결과 중국의 유엔 가입을 전쟁수행의 목적에 추가했다.

그렇다면 참전 초기 중공군은 국가수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작전계획을 가지고, 어떤 경로로 한반도로 들어왔던가? 또 전쟁목적을 실현시킬 전술은 어떻게 운용하려고 했던가? 먼저 중국수뇌부는 전쟁을 한반도에 제한시켜 전쟁의 중국확산을 방지할 필요조건으로서 미국의 확전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대국"의 지도자답지 않은 눈가림 수법을 썼다는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국가정규군을 파병하면서도 중국인민들이 중국정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미국에 대항("抗美援朝, 保家衛國")하는 전쟁에 나선 "中國人

民志願軍"이라고 호도했다. 그래서 전쟁명칭도 소위 "抗美援朝戰爭"으로 부르며, 마치 참전자와 일반 중국국민들이 스스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이미지를 조작했다. 중국지도부가 이러한 기만책을 구사한 데는 두 가지 중층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국내 중국인들에게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전이라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전국민의 참전지지 유도와 사기진작 그리고 자발적인 물자동원을 유도하고, 바깥으로는 군사개입으로 인한 국제적 마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미국의 확전을 방지하고자 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초기부터 전쟁을 막후에서 총 지휘한 마오쩌둥은 미군을 한반도내에서 몰아내는데는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하면서도 가능한 한 단기에 승리를 쟁취하고자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초기에는 전략적 방어에 치중하다가 소련으로부터 무기 장비를 지원받아 점차 주도권을 잡은 후 공세로 전환시켜 가려고 구상했다.

그런데 실제 전황은 마오쩌둥이 구상한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예상을 뛰어 넘은 아군의 빠른 진격속도로 인해 중공군 주력이 북한에 진입하자 바로 공세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중공군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무수한 전투를 치렀다. 중국측은 이러한 전투들에 대해 한국측과 다른 중국 특유의 '戰役'(campaign)이라는 개념으로 파악, 기술하고 있다. 본서가 앞으로 계속해서 간행될 후속 저서들 중 중공군과의 전쟁을 서술하는 새로운 전쟁의 도입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서술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측이 파악하는 6·25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군사학에서 통상 '전역'이란 적대적인 쌍방이 일정한 방향 혹은 공간에서 각기 통일적인 지휘를 받는 부대가 전쟁의 국부적 또는 전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작전계획에 의거해 일정한 기간 내 진행하는 일련의 전투들을 모두 포괄하는 총칭이다.[112] 이에 비해 전투에 대해선 여타 국가들의 일반적인 개념정의와 유사하게 적대적인 쌍방의 군, 군단 및 그 이하의 부대가 단기간에 비교적 작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조직적이고 직접적인 무장충돌로서 전역 혹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본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전역은 전투에 비해 병력,

전장 공간, 전투기간, 기동범위 면에서 규모가 크고, 전투보다는 작전이 더 다양하고 독립적이며, 전쟁 전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전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이다.[113]

중국은 상기 개념을 적용해 6·25전쟁 전 기간 동안 참전 초기에 다섯 차례의 전역, 전쟁후기에 세 차례의 전역 및 주요 전투를 치룬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전투의 성격을 기준으로 "전략적 반격"단계와 "전략적 방어"단계 두 시기로 나눈다. 다섯 차례 전역의 각 시기는 제1차 전역 1950년 10월 25일~11월 5일까지, 제2차 전역 1950년 11월 25일~12월 24일까지, 제3차 전역 1950년 12월 31일~1951년 1월 8일까지, 제4차 전역 1951년 1월 27일~4월 21일까지, 제5차 전역 1951년 4월 22일~6월 10일까지였다.[114] 참전 후기의 전역 및 주요 전투로는 계웅산전투(1951년 6월 24일~6월 29일), 사기막 전투(1951년 7월 14일), 1951년 하계-추계 방어전역(1951년 8월 18일~11월 31일), 상간링(上甘嶺) 방어전역(1952년 10월 14일~11월 25일),[115] 금성전역(1953년 7월 13일~27일) 등을 들 수 있다.[116]

이 가운데 참전 초기의 "전략적 반격"은 기동전을 수행한 시기로서 1950년 10월 25일에서 1951년 6월 10일까지 약 7개월 반 사이에 발생하고 다섯 차례의 전역이 이에 해당된다. 특징은 북한으로 비밀리에 들어간 중공군이 압록강과 함경도 북부까지 진격한 한국군과 유엔군을 기습 공격해 38도선 이남까지 밀어낸 후 38도선을 두고 소강상태가 지속된 점이다. 북한 전역의 군사적 점령을 통한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을 목전에 두고 한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전쟁후기의 "전략적 방어"단계는 진지전을 수행한 시기로서 1951년 6월 11일에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조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약 26개월에 걸친 기간이다. 전투는 피아 쌍방이 38도선을 중심으로 기존 점령지를 두고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으로 전개됐고, 이 과정에서 중공군은 주로 진지전 위주의 방어에 치중했다고 중국측은 기술하고 있다.[117]

그렇다면 참전 초기 중공군이 취했다는 "전략적 반격"의 실제는 어땠는가? 먼저 베이징의 최고 권부인 중난하이(中南海)의 막후에서 중공군의 전략 배치를 총지휘한 마오쩌둥의 작전구상을 밝혀내고, 다음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중

공군의 한반도 전개경로를 쫓아가 보도록 하자.

마오쩌둥은 중공군을 압록강 건너 북한으로 들여보내기 이전까지는 방어에 치중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소련으로부터 제공받기로 된 무기 장비들을 수중에 넣지 못한 상태에서 중공군이 보유한 열악한 무기 장비로는 현대 무기 장비로 무장한 미군을 공격하기엔 참패당하기 십상이고, 그럴 경우 북한정권을 회생시켜주고자 한 참전의 1차적 목적을 그르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처음엔 2개 군단만 파병하기로 했었지만, 피아병력의 대비를 고려해 제13병단 4개 군단 모두를 도강시켜 병력규모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덩화(鄧華), 홍쉐즈 등 지휘관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118]

마오쩌둥은 아군이 평양을 탈환하기 1주일 전 시점인 10월 12일까지만 해도 둥베이 지역에서 참전명령을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 4개 군단 12개 사단을 10월 15일에 모두 입북시켜 대략 39도선 이남지역에서 방어전을 치르면서 평양을 지켜보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품어본 듯했다. 이 판단은 그가 이날 펑더화이 등 중공군 지휘부에게 통보한 "북한의 적당한 지역에서(꼭 38선까지 가지 않아도 됨) 38도선 이북지역을 공격해오는 적과 용감하게 전투를 벌일 것"이라는 구상에서 유추한 것이다. 마오쩌둥이 평양방어 의지를 얼마만큼 강하게 가졌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참전 초기엔 "방어전만 하면서 작은 적을 섬멸하고, 각 방면의 상황을 자세히 이해하는 동안 소련의 무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중공군이 "무장을 완비하면 북한 동지들과 함께 반격해 미군침략군을 섬멸"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다.[119] 즉 현 중국측에서 거론하고 있는 "전략적 반격"이 아니라 이 시점에는 당분간 방어에 치중하다가 조건이 될 때 반격을 취하겠다는 "전략적 방어"를 먼저 생각한 것이다.

이렇듯 마오쩌둥은 공세 혹은 전략적 반격을 가함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전략방어전"을 구상하고 있었지만, 전략방어전이 갖춰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인 방어요충지의 위치 선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았다.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로는 전면방어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중점방어를 취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소련의 무기로 무장을 완비할 때까지

공격을 자제하고 기다리겠다는 식으로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막연한 사태인식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때는 펑더화이가 아직 덕천 지역에 대한 답사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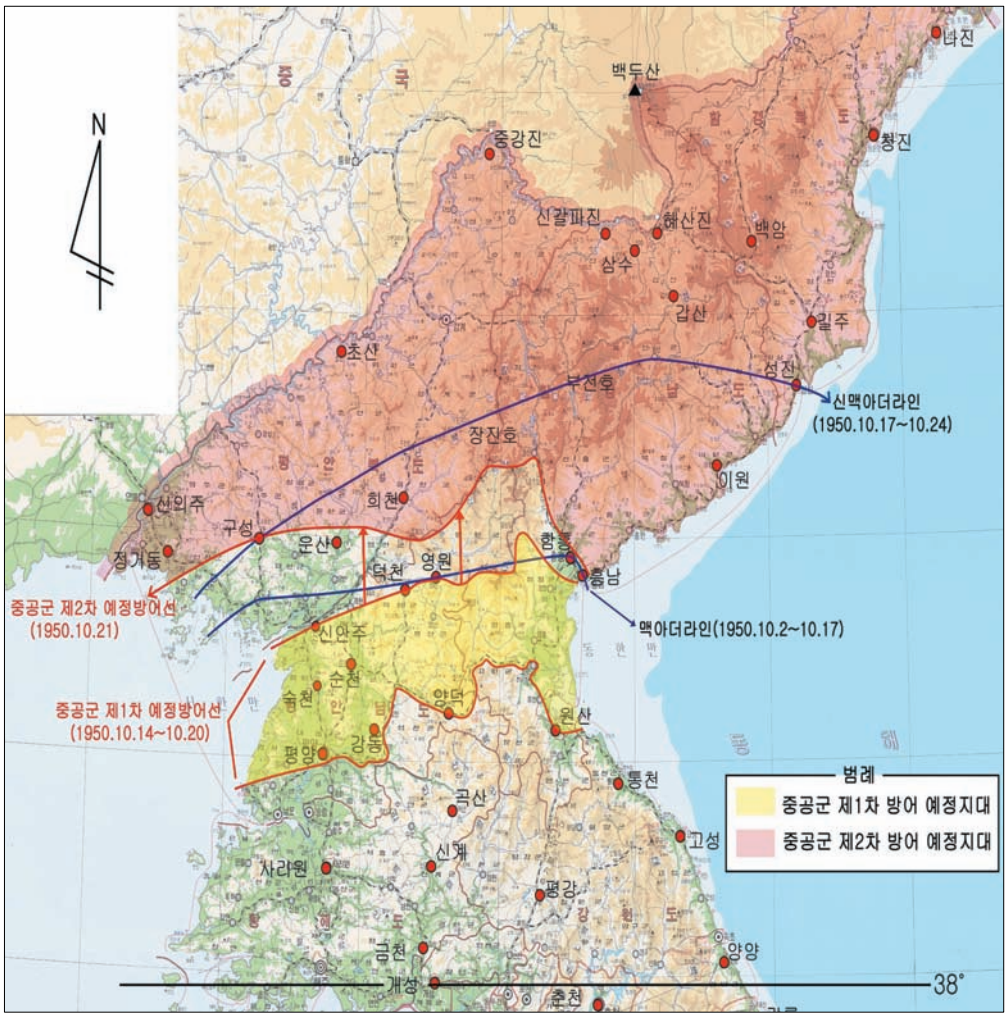
마오쩌둥이 전략방어지대를 구체적으로 거명하기 시작한 것은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0월 13일이었다. 그는 안둥에서 전황을 관찰한 펑더화이로부터 평양 북방 200㎞ 지점의 덕천 일대의 산악지역을 전략방어지대로 삼자고 한 건의를 접했다. 그리고 그는 이에 근거해 이 날 소련 방문 중인 저우언라이에게 전보로 "아군이 한국군을 대적하는 것은 자신이 있다"고 전했다.[120] 그가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도 참전하기로 결정한 데는 이처럼 펑더화이의 건의로부터 초전 승산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배경이 존재했다. 그의 전술론에서 초전의 승리는 바로 전쟁의 승리에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진입 후 서전 수행시 한국군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확신"으로 연결됐다.[121]

평양을 포위한 미군이 수일 후면 압록강까지 도달하게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당장 중공군의 주력을 한반도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자신과 펑더화이가 구상한 작전계획이 실행하기도 전에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컸다. 즉 더 이상 지체했다간 평양 이북 묘향산맥을 등지고 있는 덕천의 전략지대를 선점,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한 마오쩌둥은 10월 18일 밤 9시 펑더화이로 하여금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자신의 명의로 덩화, 홍쉐즈, 한셴추(韓先楚), 셰팡(解方), 허진넨(賀晉年) 등 현지에서 압록강 도강을 준비중이던 제13병단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예정대로 19일 밤에 입북작전을 개시하라는 특급비밀 전문을 하달케 했다.

그리고 바로 자정이 지난 10월 15일 새벽 1시 가오강, 덩화, 홍쉐즈 등에게 먼저 군량미와 군수품을 북한지역으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면서-후술하겠지만, 둥베이군구는 마오쩌둥의 지시대로 군수품을 운송했다-동시에 가오강, 덩화, 홍쉐즈, 한셴추, 셰팡 등에게 북한진입을 진두지휘할 중공군사령관인 펑더화이가 "오늘 혹은 내일" 안둥으로 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로부터 4시간이 경과된 10월 15일 새벽 5시 마오쩌둥은 이번에는 가오강, 펑더화이, 덩화에게 먼저 선두부대를 17일에 출발시켜 23일 덕천에 도착해 하루 휴식을 취하게 한 후 25일부터 방어선 진지구

축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대도 뒤따라 출동해 10일 이내에 도강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122] 주력의 출발시간을 또 다시 하루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10월 15일 베이징에서 선양으로 귀임한 펑더화이는 다음날 중공 둥베이국과 둥베이군구의 책임자들을 소집해 중공 수뇌부의 최후 결정사실을 전달한 후 가오강, 박일우와 함께 안둥으로 떠났다.

<상황도 3-1>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 이전 중국수뇌부의 전략배치 구상도(1950년 10월 14일)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건의에 따라 방어전을 수행할 지역으로 평양-원산 철도선 이북에서부터 평안남도 북방 산악지대의 덕천-영원 도로선 이남(북위 39도에서 39도 80분)에 이르는 공간을 선정했다.

이 두 지역을 잇는 선은 한반도 전체를 통틀어 동서횡단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이다. 먼저 덕천-영원 도로선 이남지역은 대략 북위 39도 8분의 청천강 하류-동해안선 상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서 동서 거리가 약 160㎞에 불과하다. 미군은 이 지역을 한반도의 허리라고 표현했고, 영국 합참은 "한반도의 목"(the neck of the country)으로 비유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중국 둥베이에 대한 폭격과 중국과의 주요 결전을 피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고, 소련 공군의 참전을 우려한 영국이 "한반도의 목"에 해당되는 정주-덕천 선에서 북진을 멈추고, 비무장지대화 할 것을 제안한 곳과 거의 일치한다. 또 평양-원산 철도선 이북지역 역시 "한반도의 목" 다음으로 동서거리가 짧은 곳이다.

마오쩌둥은 이 공간을 1차적으로 완충지대(buffer zone)로 설정하고, 이 지대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방어전을 치르려고 했었다. 이 공간은 북한의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고, 중국으로부터의 병참선도 길지 않아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마오쩌둥이 이 지역을 전략방어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이 선 이남에 위치한 평양은 자연히 방어선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는 10월 14일 새벽 3시 즉각 펑더화이에게 중공군이 한반도에 진입한 이후의 작전 배치와 방침을 전하면서 덕천에 가서 상황을 연구한 후 이 지대에 2~3개 선의 방어진지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123] 2~3개 선의 방어진지가 어디인지 명시해주지는 않았지만 덕천-영원, 숙천-순천, 중동부지역 고지대인 숙천-순천-맹산-함흥선이 그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중 숙천-순천 지역은 김일성에게 방어하라고 요청했지만 맥아더의 공수작전으로 방어에 실패했다.

마오쩌둥이 이러한 작전을 구상한 것은 펑더화이, 가오강과 북한진입 후의 작전계획을 입안한 10월 14일 시점에 내린 그의 적정판단에 근거했었다. 그는 미군이 38도선에 머물고 있으며, 그들이 평양까지 진격해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평양에서 덕천까지 북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미군과 한국군이 11월 안으로는 덕천을 공격해올 것으로 보고, 이 방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25만여 명 전원을 출동시킬 생각이었다. 또 미군이 평양에 도달한 뒤 덕천을 공격해온다고 하더라도 중공군 1개 군단을 덕천의 산악지역에 배치하고, 3개 군단과 3개 포병사단을 덕천 북쪽의 희천, 전천, 강계 지역에 배치해 놓으면 미군과 한국군의 전진을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필요한 병력으로 평양의 적을 견제한 후 주력을 집중시켜 원산방면으로 진군해오는 한국군을 섬멸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군 1~2개 혹은 2~3개 사단을 섬멸하기만 하면 전쟁수행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만약 미군이 덕천을 공격하지 않을 경우엔 원산의 한국군도 단독으로 공격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그러면 중공군은 이 시간을 이용해 북한으로 전개하고, 방어진지 공사를 끝낼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124]

이런 판단하에 마오쩌둥은 10월 19일부터 중공군 선두 군단을 행군으로 7일간 200㎞를 걸어 덕천에 도달, 1~2일 휴식케 한 후 28일부터 덕천-영원선 이남 지역에서 방어진지공사를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또 둥베이지역에 대기 중인 25만여 명 전병력이 모두 압록강을 건너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10일 정도로 봤고, 10월 19일에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하면 28일에는 도강을 완료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마오쩌둥은 미군과 원산의 한국군이 공격해오면 진지 전면에서 분할하여 격퇴하고, 만약 미군과 한국군이 각기 평양과 원산 두 갈래로 공격해오면 공격력이 약한 쪽을 고립시켜 섬멸할 생각이었다. 즉 먼저 한국군을 치고 나면 미군을 고립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립된 미군이 있다면 그 미군을 공격하기로 작정했던 것이다.[125] 그리고 만약 시간이 허락하면 진지공사를 계속 강화시키는 한편, 향후 6개월 동안 한국군과 유엔군이 원산을 벗어나지 않고, 평양에서 나오지 않으며, 중공군도 평양과 원산을 공격하지 않으려고 계획했다. 만일 방어진지를 완공한 후에도 "적이 평양, 원산을 고수하고, 공격해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공군의 절반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 훈련과 보급문제를 해결한 후 규모가 큰 전투에 내보내려고 계획했었다. 또한 중공군도 평양과 원산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장비와 훈련이 충족한 상태가 되고 공중과 지상이 모두 우세해지면 평양, 원산을 공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다.[126]

이는 마오쩌둥이 영국측을 통해 얻은 정보, 즉 미군은 이 선 이상 북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을 믿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중공군의 장비와 훈련이 완비되고, 공중과 지상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게 되면 평양과 원산 등지를 공격할 요량이었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 공격문제를 논할 생각이었다.

상기 마오쩌둥의 작전방침에 따라 10월 15일, 둥베이군구와 중공군 제13병단 지휘부는 각 군단과 예하 사단들에게 10월 20일 이전에 지안, 창톈하구, 안둥 일선에 비밀리에 집결하여 도강 명령을 기다리도록 했다. 최후 명령을 받은 각 주둔지의 부대들은 둥베이인민정부가 제공한 군용열차나 혹은 수송차량과 도보로 15일 밤부터 일제히 압록강의 도강지점으로 이동을 개시했다.[127] 모든 행군과 차량 이동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에만 하도록 시간이 엄격히 제한됐다.

도강 지점 이동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전투개시 후 북한에 진입해 있는 중공군에게 후방지원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10월 중순에서 12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내 기존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거나 새로 다리를 놓기도 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막힘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6m 폭의 왕복 2차선으로 개보수하고 노면은 평탄하게 했으며, 아주 높은 고개 길은 산을 깎아 내려 경사를 줄였다. 특히 압록강과 바다에 연한 지역 및 동부 산지의 도로를 2차에 걸쳐 긴급히 개·보수했는데, 그 길이는 총 1,847㎞나 달했고, 노반의 총면적은 15만 4,000㎡였다.[128]

부대집결과 북한으로의 철도수송을 조직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10월 중국 철도부와 둥베이국, 둥베이군구는 군 수송 지휘기구를 선양에 설립하기로 했다—이 기구는 '둥베이철도 선양임시지휘소'라는 이름으로 11월 11일 설립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정부 철도부의 위임을 받은 둥베이인민정부와 둥베이군구가 모든 군 수송업무를 조직하고 수행했다. 또한 안둥 철도분국을 둥베이특파원사무소 직속의 독립분국(分局)으로 개편해 전시 전방수송을 담당케 했다.[129] 따라서 부대이동에 필요한 철도차량도 둥베이인민정부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74열 1,979칸을 징발해 제공했다. 또한 선양에서 안둥으로 통하는 주요 간선 철도인 선양-안둥 구간 약 180㎞의 선안(瀋安)선과 랴오양(遼陽)에서 지안으로 들어오는 최단거리 철

도인 메이허커우(梅河口)-지안 간 약 170㎞의 메이지(梅輯)선에 대해 군사통제를 실시해 군용열차의 통행을 확보했다. 제13병단 지휘부는 병력수송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대의 승·하차와 장비의 적재 및 하역은 30분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비밀엄수, 방공위장과 은폐에 각별히 주의했다.[130]

압록강 도하와 관련해서는 도하하는데 필요한 지휘부 기구를 안둥에 두고 압록강 대안의 부대들을 지휘하라는 마오쩌둥의 지시[131]에 따라 둥베이인민정부와 둥베이군구가 창톈하구, 린장, 지안 등 세 지역에 도하사령부를 세워 여기에 공병부대를 배속시켜 부교를 가설하도록 했다. 동시에 안둥항만국 역시 병력 2,700여 명과 수척의 선박으로 '안둥전시 근무대대'를 편성해 도하사령부의 지도 아래 도하수송 임무를 맡게 했다.[132]

이처럼 치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첫날 도강 부대로 예정돼 있던 중공군 제39군단 제117사단, 제40군단, 제42군단, 포병 제1사단, 포병 제2사단이 안둥, 지안, 창톈하구 세 하구에 집결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인 도하명령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중공군 지휘부는 도강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각 군단별로 정찰대를 북한 현지로 보내 본대가 전개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량, 지형 및 지세, 적정, 북한 현지상황 등에 관한 정보들을 파악, 제공하도록 했다. 예컨대 제42군단 제124사단 부사단장 샤오졘페이(蕭劍飛)가 인솔한 제124사단 예하 제370연대는 16일 밤 지안 철교를 건너 17일 새벽에 북한 영내 만포의 30여㎞ 지점까지 진입한 상태였다.[133] 제38군단의 경우는 군단장 량싱추(梁興初)와 군단 정치위원 류시위안(劉西元)이 직접 지안에서 19일 저녁 제42군단의 뒤를 이어 북한의 평안북도 만포로 건너와 상황을 살피고 돌아갔다.[134]

마오쩌둥은 이와 같은 치밀한 보안유지와 도하시 엄수할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하달함과 동시에 중공 각 지역국과 대군구의 책임자들에게도 향후 몇 개월 동안 중공군의 북한파병 사실을 "발설하지 말고 일만 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보안유지를 특별히 강조했고, 신문에도 일체 알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135] 심지어 국외전쟁에 동원돼 나가게 됐는데도 북한 전개 완료 전까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친지, 친구들은 물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참전사실을 알리지 못

하도록 서신을 엄격히 통제했다.[136]

한반도 전개를 위한 중공군 제1제대의 압록강 도강은 마오쩌둥이 내린 도하시 지켜야 할 엄수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10월 19일 저녁부터 극비리에 개시됐다. 북한군 지휘부가 38도선 후방지역에 일부 병력을 내려 보내고, 김일성이 펑더화이와 함께 방어전을 상의한 뒤 덕천을 떠나 평안북도 희천으로 향하고 있던 때와 거의 같은 시점이었다. 먼저 경험을 얻기 위해 첫날은 2개에서 3개 사단을 도하시키고 도하부대를 늘릴 것인지 혹은 줄일 것인지는 지휘관이 그 다음날 상황을 보고 결정하도록 했다.[137]

도강은 제1차로 압록강 하류의 안둥과 창톈, 중류의 지안에서 부대별로 매일 일몰과 함께 개시해 익일 새벽 4시에 중지한 후 5시 이전까지 한 시간 이내로 은폐를 완료한 뒤 이동 및 은폐 정도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강시간은 모든 부대가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지킨 것은 아니었으며, 도하시간이 짧아 너무 이르게 도강을 마친 부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제40군단 제118사단의 선두부대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강을 건너기 시작했고, 이 부대가 신의주에 도달했을 때는 날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한다.[138]

또한 도하도 계획단계에서 입안된 몇 차례의 계획이나 최종 명령서에 지시된 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부대별로 도강지점과 도섭시간이 약간씩 다르게 이뤄졌다. 게다가 중국측의 현존 자료상에는 도강지점과 도섭시간이 분명하지 않는 부대도 없지 않다.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중공군의 도강과 도강 후 북한지역 내 이동로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펑더화이가 평양이 함락된 10월 19일 저녁 안둥의 제13병단 사령부로 자신을 찾아온 김일성의 특사 박일우와 함께 자신의 지프차로 안둥과 신의주를 잇는 1㎞에 가까운 압록강 다리를 건넜다.[139] 이어서 제13병단 사령관 덩화와 부사령관 홍쉐즈가 제40군단 일부 부대와 함께 그 뒤를 이었다.

군단별로는 첫날 19일 제39군단의 선발부대인 제117사단이 창톈에서 건넜고, 주력은 22일 안둥에서 도강했다. 제40군단은 19일과 20일에 걸쳐 안둥에서 도강했고, 제42군단은 제1차 도강부대중 가장 먼저 19일 전부대가 지안에서 건넜다.

포병은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창톈과 안둥에서 압록강을 넘었다. 제13병단의 예비대로 지정된 제38군단은 22일 주력부대인 제112사단과 제113사단이 안둥에서 건넜고, 나머지 제114사단은 25일 지안에서 도강했다.

중공군은 대부분이 도보로 강을 건넜고, 일부만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도강을 은폐하기 위해 행군 중 기도비닉을 최대한 유지했으며, 중공군 병력을 태운 차량은 밤인데도 등화관제를 위해 모두 헤드라이트를 끈 상태로 북한으로 들어갔다. 중공군은 중국정부가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한 게 아니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중공군 참전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다. 원래 북한 진입 후 북한군 복장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임하려고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북한군복 견본을 본떠 긴급히 군복을 제조했지만, 방어에서 공격으로 작전계획이 바뀌게 된 탓에 일부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나머지는 중공군임을 알 수 있는 "八一" 자 모표와 휘장들만 떼어내고 중공군 복장을 입은 채로 투입됐다. 발각시 중국정부의 정규군이 아니라 중국국민들이 자원한 민간인 부대임을 드러내고자 홍쉐즈와 같은 부사령관 급의 지휘관들과 병사들 중 일부는 북한군 복장으로 입북했다.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공군. 이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들이 한반도 침략 전쟁의 일원이 돼 전장에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다리를 건넘으로써 침략군이 됐다.

또한 중공군 지휘부는 둥베이군구와 둥베이인민정부가 징발한 최소 700여 명에서 최다 2,000여 명의 중국거주 조선족 청년들을 동원해 참전시켰다.[140] 이들은 대부분이 지린성 옌볜(延邊) 조선족자치구의 지방간부 출신으로서 중공 당원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북한지리와 민정에 밝다는 이유로 입북 시 향도로 활용됐을 뿐만 아니라 중공군과 북한군 및 북한주민들간에 존재한 언어문제를 해결하는 통역원으로, 혹은 연락원 직책을 맡아 숙영지 선정, 민정정찰임무, 군중공작을 수행했다. 여기에다 중공군 간부들에게 전투나 민사작전상 필요한 약간의 기본 한국어 회화능력을 습득케 한 한국어교사 역할까지 수행했다.[141] 중공군 장병들은 이들로부터 한국어를 배웠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작전하는데 커다란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어라고 억지로 외워대는 등 한국어 학습 붐이 일었다. 예를 들면 "방공이요! 방공! 비행기가 왔소, 비행기가 와! 빨리들 뛰시오!"라는 어귀를 이와 유사한 발음이 나는 한자로 적어 "팡쿵! 팡쿵! 피엔지와싸오, 파리파리카!"라고 읽히도록 하는 식이었다.[142] 그 외에 각 군단별로도 조선족 청년들을 통역 및 연락병으로 차출해 모든 중대에 2명씩 배치, 활용했다.[143]

주력부대의 도하와 전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4공병 연대와 제6공병 연대(나중에 각기 제14공병 연대와 제16공병 연대로 변경)를 각각 지안, 린장과 삭주에서 창성에 이르는 사이 지역으로 들여보내 부교 및 문교 가설, 지안, 린장, 삭주, 창성 등지의 도로와 교량을 보수했다. 공병 역할 이외에 중국수뇌부, 즉 중앙군사위원회는 전투에 필수불가결한 병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해 놓았다. 한반도 참전부대의 후방 병참선 확보를 목적으로 1950년 8월 31일 둥베이군구 후방병참부에 각 분부 당 2,600명, 총 3개의 트럭부대(약 700대의 차량)로 편성된 3개의 '출국 후방병참부 분부'를 조직했고, 이를 모두 북한의 요로에 배치했다. 제1분부는 10월 11일 지안에서 압록강을 건너 강계 지역에 배치됐고, 제2분부는 10월 24일 린장으로 출동해 그곳에서 장진 전선의 후방을 지원했다. 제3분부는 10월 25일 안둥 지역에 배치돼 주로 안둥-창톈하구-평안북도 구성 선까지의 후방 보급지원임무를 수행했다.[144]



압록강에 부교를 가설하고 있는 중공군 공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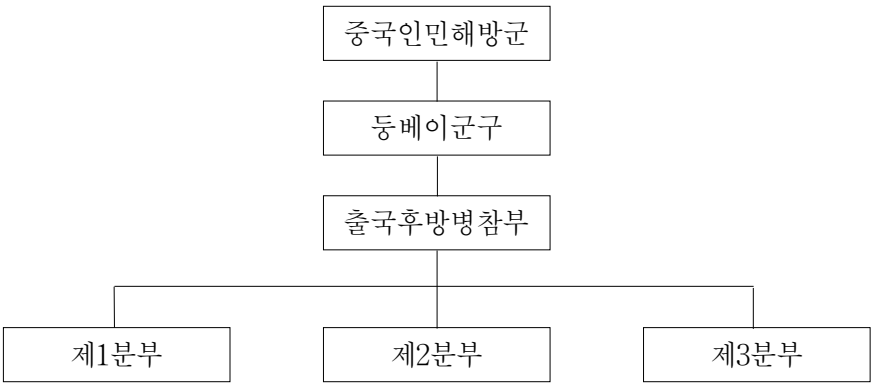


중공군이 북한으로 건너온 압록강상 부교의 흔적

상기 각 분부는 전투지역으로 통하는 수송로에 여러 개의 "기지병참"과 "야전병참"을 세웠고, 분부와 병참을 기반으로 3개의 보급로를 구축했다. 제1선은 창톈하구-신창-북진 일대로, 제3분부가 맡았고, 제2선은 지안에서 별하리-무평리에 이르는 일대로 제1분부가 맡았다. 제3선은 린장-주파-장진 일대로 제2분부가 책임졌다. 물자 비축은 전방에서 중국까지 세 노선으로 나누어 종심의 사다리꼴로 편성하고, 각 선마다 탄약 1기수(基數)[145]와 1개월 분량의 전투식량을 비축했다. 전

투지역을 지휘하는 병참업무와 둥베이 후방과의 연락을 위해 둥베이군구 후방병참부는 전방지휘소를 조직하고, 중공군 지도부를 따라 함께 강을 건너 임무를 수행했다.[146]

<표 3-2> 중공군 후방 병참 지휘계통도



중공군 지휘부는 부대의 집결 수송을 실시하기 전 이미 군수물자를 대량으로 조달하고 1950년 9월 말부터 이를 둥베이지역에 비축해놓고, 북한으로 수송하기 시작됐다. 둥베이 지역에 비축된 전투식량은 3,348만여 톤, 식용유 800만 톤, 식염 86만 톤, 각종 마른 채소 154만 톤, 노새와 말 2,000필, 말 사료 1,893만 톤, 말먹이 풀 783만여 톤이었다.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부대의 동계 방한을 위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총후방병참부는 둥베이, 화베이, 화둥, 중난 군구에서 제작한 솜옷 34만 벌, 솜을 넣은 가죽신발 36만 켤레, 솜외투, 솜조끼, 솜모자, 보온내의 바지 각각 40만 벌, 솜장갑과 양말 각각 70만 켤레, 행군 가마솥 5,000개, 트럭 물탱크 2,000개를 북한에 들여 놓았다. 또한 각 군구가 2차에 걸쳐 제공한 45종의 탄약 1,000여 톤, 탄약 22종 각 5기수 분, 포탄 28종 20기수 분, 총 2,616정, 화포 501문, 자동차 200대, 연료 1,000배럴과 기타 물자들을 북한으로 운반했다.[147]

상기 무기 장비와 전투물자들을 중공군에게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안둥에서 지안, 펑청(鳳城)에서 퉁화, 번시(本溪)에서 메이허커우(梅河口), 선양에서 스핑(四

平)까지의 '4선 8지점'(四線八點)에 각각 비축해 놓았다. 10월 11일부터 둥베이군구 후방병참부는 중공군 제1진이 전투시에 필요한 전투물자로서 탄약 9,200여 톤, 연료 5,300여 배럴, 식량 1,650만 톤, 식용유와 소금 50여만 톤, 각종 마른 채소 310여만 톤을 10월 25일 이전에 북한의 구성, 신창, 쌍분동, 별하리, 전천, 중성간 등의 전방지역에 수송해 놓았다.[148]

이로써 전투부대와 공병, 병참부대를 포함한 제1차 중공군의 압록강 도하는 일단락 됐다.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고 10월 23일부터 중국주둔지를 떠나 도강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던 제50군단과 제66군단은 곧 제2차로 도강을 하게 된다. 후자는 전병력이 26일 안동에 도달하고, 전자는 26일 저녁에 지안에서 압록강을 건너게 된다.

25만여 명 규모의 대군이었지만 이들이 북한 전개 도중에 한국군과 유엔군의 관측에 노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미 공군의 공중정찰에도 잡히지 않았다. 제42군단장 우루이린(吳瑞林)은 10월 19일 7시간에 걸쳐 "전 군단"병력이 압록강을 건너는 사이 미 정찰기가 하루에 3차례나 정찰했지만 발각되지 않았다고 했다.[149] 사실상 미 공군의 공중정찰은 중공군을 관찰하는데 그리 많은 기회가 없었다. 전선에서 활약한 모스키토 항공기 이외에 미 공군은 육안을 통한 정찰을 위해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11월 8일 이용 가능한 항공사진 정찰기는 압록강변 교량 폭격을 지원하는데 주로 사용됐다.

이러한 항공기들은 중공군 제13병단의 도하지점을 발견하는데 시기를 놓쳤고 또한 제9병단 소속 대부대의 도하지점을 잘못 예상했다. 압록강과 전선 사이에 있는 지역을 전면적으로 정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숫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정찰기로는 주 도로의 인접지대를 정찰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야간정찰이 극히 미미했고, 그 결과 공중정찰로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 징후를 파악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150] 또 이때까지는 중공군이 북한영내로 들어온 세 길목 중의 하나인 안둥 건너편의 신의주만 약간 파괴됐을 뿐, 나머지 창톈의 맞은 편 청수 및 삭주, 그리고 지안 대안의 만포 등은 미군기의 폭격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중공군의 입북이 발각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151]

중공군은 철저한 위장과 기도비닉, 등화관제, 무선통신 통제 등으로 자신들의 도하를 숨길 수 있었고, 조선족의 길안내로 커다란 시행착오 없이 도하를 완료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중대한 전술적 과오가 뒤따랐다. 즉 도하와 행군 속도가 늦어 중국 최고지도부 수준에서 예정한 시간보다 많이 지체됐고, 그로 인해 결국 예정 전략지대인 목적지까지 다다랄 수 없어 작전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결과를 낳은 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연쇄적인 이유가 있었다. 우선 차량부족으로 병사들이 직접 무기 장비, 탄약과 식량을 짊어지고 행군했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떨어졌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27군단의 경우 군관급이 휴대한 군장의 무게는 개인 화기와 전투용 보급품을 합쳐 어림잡아 20~25㎏ 정도였다.[152] 병사들은 군관들의 군장 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보통 총 한 자루에다 100여 발의 탄알, 수류탄 4개, 곡괭이 한 자루, 철모 한 개가 더 있어 전체 중량이 30~35㎏이나 되었다. 포병과 기관총 병의 배낭무게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갔다.[153]

이 같이 무거운 군장을 멘 장병들이 미군 정찰기의 정찰과 관측을 피하기 위해 간선도로를 택하지 않고 협소한 작은 길과 산길, 능선, 계곡을 오르내렸던 것도 지체의 원인이었다. 그들은 야간에만 좁은 도로와 산길을 따라 이동했고, 북한경내에 들어와서도 북으로 철수하는 북한군과 맞부딪쳐 작은 길이 더욱 혼잡해졌기 때문에 전개속도는 매우 느렸다. 그들은 밤에만 비좁은 북한의 산 능선을 타는 행군으로 하루 밤에 대략 16㎞ 남짓 밖에 나아가지 못했으며, 낮에는 개인호에서 취침하는 패턴을 반복했다.[154] 행군 도중 민가가 있으면 민가의 시설을 이용했고, 민가가 없는 곳에서는 야지에서 숙영했다.

제1차로 북한에 진입한 제38·제39·제40·제42군단 등 중공군 4개 군단, 3개 포병사단과 직할 부대 총 25만여 명은 6·25전쟁 사상 최초로 한반도에 들어온 중국의 정규군이었다. 역사적으로 청일전쟁에 참전한 淸國군대가 발을 들여 놓았다가 물러난 지 55년, 전후 국공내전 시기 중국공산당군이 잠시 북한에 출입을 한지 4년 만에 다시 한반도땅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각 군단의 편제는 모두 4만 5,000에서 5만 명 사이였다. 제2차로 입북한 제50군단과 제66군단은 인원이 비교적 적어 각각 3만 6,000명과 3만여 명이었다.[155] 중공군 25만여 명은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병력 44만 5,000명에 비해 약 20만 명 정도가 적은 수였다. 제1진으로 한반도에 진입한

중공군은 초기엔 지상군뿐이었고, 공군과 해군은 없었다.

해군은 1949년 말에 창건된 후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보유하고 있는 함정이라고는 국민당군의 해군으로부터 노획한 낡은 함정, 그리고 민간상선을 군용으로 개조한 함정 백 수십여 척이 전부여서 한반도 해상의 전투에 투입할 상황이 아니었다. 해군이 들어온 것은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 17명의 어뢰설치반이 청천강하구 일대에서 어뢰를 설치한 1953년 2월 말 전쟁후반기가 처음이었다.

제2장 제2절에서 밝혔듯이 중국공군은 이 시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던 관계로 참전할 상황이 아니었고, 소련에 지원을 요청한 소련 전투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중국공군이 정식으로 한반도전장에 나타나 소련공군기의 엄호 하에 전투비행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듬해 1월 21일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선 언급할 계제가 되지 못한다. 그 사이 중공군 작전을 지원한 소련공군은 1950년 11월 초부터 전장에 출현하게 되는데, 이에 관해선 후에 기술하겠다.

중공군 지상군도 무기장비가 제대로 갖춘 상태가 아니었다. 전차는 없었고, 보유한 무기 장비도 매우 낙후된 것이었다. 자동화 장비가 없었으며, 방공 및 대전차 무기도 매우 적었다. 중국내 "중국인민해방군"은 당시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다.[156] 그럼에도 참전시 중공군이 전차를 몰고 오지 않았던 이유는 성능이 낙후돼 산악지대인 북한의 전장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입북시 이동중의 소음으로 인해 미군에게 발각될 것을 피하고자 한 조치로 보인다.

해·공군의 함정과 전투기를 제외하고 지상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화포였다. 사실상 화포는 전차를 제외하면 육상전투에서 적을 제압하는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다. 화포가 가지고 있는 살상력과 파괴력은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하다. 6·25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5년 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화포로 인해 살상된 병력은 피아를 막론하고 전체 살상자의 60%나 됐었다.

입북 당시 화포를 비롯한 중공군의 주요 무기장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중공군의 화포는 중화민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의 구식 제품으로 혼재돼 있었다. 각 군단에 편제된 화포는 직사포 108문, 각종 박격포 333문, 로켓발사기 81대 등 잡다한 종류를 합쳐 총 520여 문—제50군단과 제66군단의 화포

편제는 이 보다 더 적었다—에 불과했으며, 155㎜포는 없었다. 이 가운데 구경 70㎜ 이상 화포는 190여 문이었다. 따라서 중공군 1개 군단의 화포는 수량에서 미군 1개 사단이 보유한 화포 장비의 54%에 불과했다. 화포 총수 면에서 6개 군단이 보유한 것에다 중공군 포병의 그것을 합쳐도 총 3,000문(곡사포 320문, 고사포 36문 포함)이 부족했고, 이는 미군 화포 총수의 4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157]

더군다나 성능면에서도 미군에게 크게 뒤떨어졌다. 중공군이 보유한 화포는 대부분이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때 일본군과 국민당군에게서 노획한 낡고 잡다한 것들로 구경이 통일되지 않았다. 즉 70여 종의 화포들이 20여 종의 구경들로 제각각이었다. 또 당시 본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구경이 가장 크고, 성능이 좋은 미제 155㎜ 대포는 들여오지 않았고, 대부분 소구경의 화포들만 가지고 들어왔다.[158] 이러한 화포는 사정거리도 짧고, 폭발력이 작았으며, 탄약도 부족했다. 그마저도 자주포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새나 말에 싣거나 혹은 병사들이 어깨에 둘러메고 운반했기 때문에 기동성도 좋지 않았다. 제38군단의 경우 이 같은 무기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중공 지도부가 입북 하기전 한 때 중공군 예비대로 삼아 압록강변의 지안 선에 주둔케 하면서 무기 장비를 바꾼 뒤 전투에 투입시킬 생각을 했을 정도였다.[159]

이처럼 중공군의 무기 장비는 너무 무거워 이동과 운용에 기후나 지형의 제약을 받게 돼 있었다. 중량이 큰 장비는 수송면에서 원래 도로 이용시에만 이점을 발휘할 수 있는데, 중공군은 이동시 도로를 피해 산길로 운반하다보니 기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중공군 제39군단 사령부에서 자체적으로 피아의 작전과 전력을 평가한 보고서에는 이 점을 “치명적 약점”이라고까지 인식했을 정도였다.[160]

기타 장비에서도 미군과 비교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병력이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결정짓는 수송 차량은 각 군단이 입북시 임시로 100대 가량 급히 마련해온 것이었다. 100여 대의 차량으로 25만여 명의 대병력을 수송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시점은 중국지도부가 병력 및 군수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할 수송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1만대의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계약해 놓았지만 차량이 중국에 도착하지 않을 때였다.[161] 따라서 당시로선 부족한 수송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참전개시 후부터 후방 제2선 병참기지 임무를 맡게 된 화베이 군구가 제공한 노새, 말, 운전병 등에 의존했다.[162]

또한 전투에서 인체의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무전기는 중공군 1개 군단이 겨우 69대를 보유한 상태였고, 유선전화기는 375대에 불과했다. 이는 각기 미군 1개 사단급 장비의 5%와 34%에 해당되는 수치였다.[163] 보병이 보유한 총기는 미제, 러시아제, 독일제, 일제와 구중국제 등이 잡다하게 섞여 있는 소위 '만국'표 무기로, 반 정도만 자동총이었다. 개인화기 등의 무기들은 비교적 가벼워 운송의 어려움이 없었지만 대신 중공제가 아니고 구식의 미제, 일제, 소련제 등으로 "뒤죽박죽 상태"(hodgepodge)였기 때문에 화기 사용법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탄약의 호환성이 떨어진 약점을 안고 있었다.[164]

수송능력이 원래 부족했던데다가 미 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봉쇄 상황에서 전투물자의 수송은 더욱 어려웠다. 특히 근접지원 능력이 약해 연대 이하 단위 작전시의 보급물자는 모두 병사들이 직접 휴대해야 했다. 모든 병사들은 대략 5일에서 1주일 정도 분의 식량을 직접 휴대하고 전투에 나섰다.[165] 그러나 실제는 미군기의 공습을 피하느라 밤에만 보급품을 수송하다보니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3일분을 휴대하고 전투에 임한 경우가 보통이었다.[166]

중공군은 열악한 무기 장비로 인한 전투력의 열세는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정권을 구한다는 이른바 "정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전쟁의 명분, 국내에서 일본군 및 국민당 군대와의 전쟁에서 장기간 쌓은 전투경험, 미군숫자를 앞지르는 풍부한 예비병력 등의 병력수와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말하자면 중국 수뇌부가 믿었던 것은 오로지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중공군의 소위 '인해전술'이 나온 배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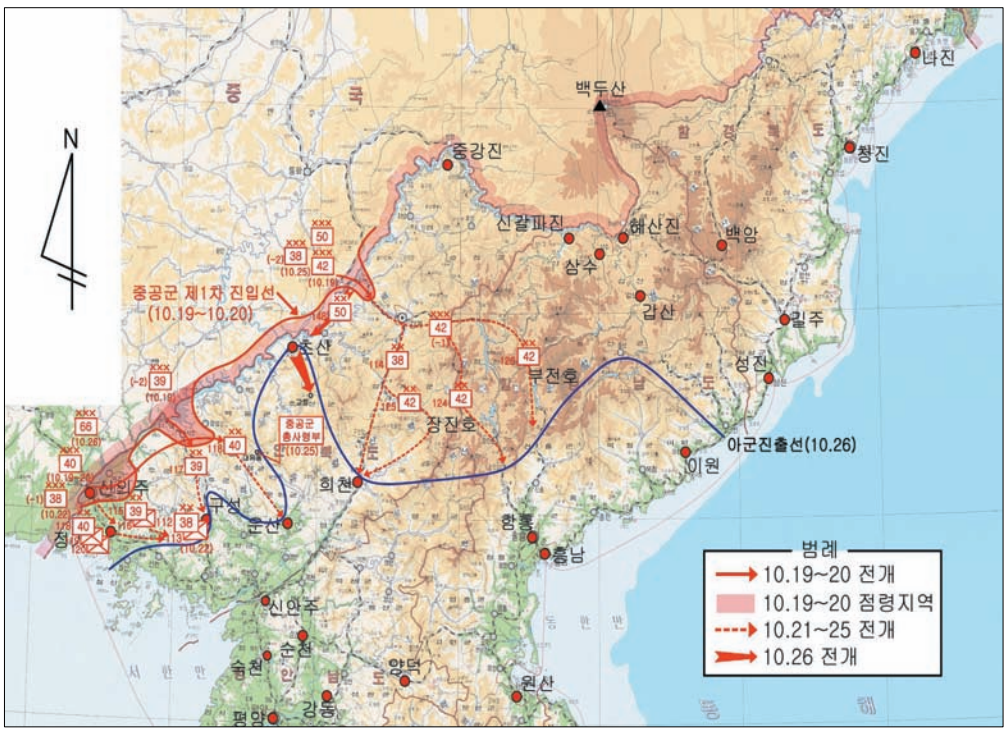
중공군은 제13병단 전체 차원에서 정치공작회의를 열어 정치사상 동원, 교육방침을 결정한 뒤 각 군단, 사단별로 참전에 즈음해 정치교육을 실시했고, 출국 당일인 10월 19일 오후부터는 "지원군 선서대회"를 개최해 사상교육과 정신무장을 강화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중국지휘부는 장병들에게 집단적으로 한반도 군사개입을 "미국에 저항하고, 가정과 나라를 지키는 전쟁"(抗美援朝 保家衛國)이라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교육했고, 북한을 구하고, 세계평화를 애호하며, 정의를 부르짖는 국가와 인민의 지지를 받는 전쟁이라는 가치판단을 주입했다.[167]

그런데 중공군 지도부가 주입한 만큼 정신교육의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중공군은 과거 국공내전 후반 중국 국민당군과의 싸움에서 연대, 사단, 군단을 통 채로 섬멸하는 것이 "반찬 한 그릇 먹어 치우듯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장병들은 습관적으로 적을 경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부대별로 편차가 존재했지만 대체로 그들은 마오쩌둥 "주석의 말씀만 듣고 미국은 '종이호랑이'(paper tiger)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 북한으로 들어왔다."[168]

중공군 각 부대는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정을 판단하면서 전개 도중이라도 언제든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전투태세를 갖추어 움직였다. <상황도 3-2>에서 나타나 있듯이 각 군단별 이동지역 을 보면 제40군단은 구장, 덕천, 영원으로, 제39

<상황도 3-2> 중공군 각 군단별 전개방향



군단은 구성, 태천으로, 제42군단은 동부전선의 사창리, 오로리(현 영광)로 향했다. 제13병단 예비로 나중에 들어온 제38군단은 강계로 향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대략 구성-태천-구장-덕천-영원-오로리 선 이북지역의 산악지대로서 이 읍면들을 잇는 교통로를 안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북한으로 극비리에 전개해 상기 목적지에 배치된 중공군은 10월 25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사이 그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숲속에서 철저한 위장과 은닉으로 야영을 하면서 밤에는 불도 피우지 않았다. 식사는 전투식량으로 만들어온 볶음면과 주먹밥으로 때웠다.[169] 또한 그들은 아군에게 감청되기 쉬운 무선사용을 피했고, 부대간의 연락과 명령하달은 주로 전령, 자전거 등의 보조 통신수단을 활용했다. 즉 모터사이클과 경자동차가 있었지만 군단과 사단 사이에는 전령이 직접 도보로 명령을 전달했고, 군단과 군 및 그 이상의 부대들 간에는 자전거를 이용했다.[170]

예비대로 지정된 제38군단과 제2제대로 선정된 제50군단, 제66군단들처럼 뒤에 출발한 부대들을 제외하고 기 진입한 중공군은 각 부대별로 주둔 예정지로 이동 중에 있었다. 그리고 이미 배치된 부대들은 각 주둔지에서 먼저 참호를 파면서 진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전투장비를 점검하고 부족한 전투식량을 마련하는 등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준비를 갖췄다. 가장 중요한 전투준비는 빠른 시간 안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술교범에 따라 산악지대의 능선에다 진지를 구축했다. 1950년 당시 중공군의 전술교범은 산지에서 진지를 구축할 경우 보통 은폐하기 쉽게 산허리에 위치를 잡아야 한다고 돼 있다. 산지는 적 공군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포병의 포격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력을 뿜어내 산기슭을 장악할 수 있어 적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 설명돼 있다.[171]

그렇다면 전투개시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이 부대들을 지휘할 중공군의 지휘부는 어떻게 조직돼 있었을까? 그 지휘관들의 면면은 어떠했을까? 이하는 이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다.

2. 중공군의 조직체계와 지휘부 구성

제1차로 입북한 중공군은 참전 준비단계인 1950년 7월 15일 편성된 둥베이변방군이 그대로 들어온 병력이었다. 제2장의 선행논의에서 밝힌 바 있듯이 둥베이변방군은 10월 8일에 이르러 "抗美援朝人民志願軍"으로 개칭했는데, 명칭만 변경했을 뿐 그 체제는 제13병단을 모체로 4개 군단 3개 포병 및 특과병 등으로 편성돼 이 편제와 완전히 동일했다. 따라서 중국국민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북한을 도우기 위해 "志願"한 게 아니라 국가의 정규군이 명칭만 바꿔 들어온 것에 불과했다.

마오쩌둥은 입북한 중공군의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 10월 21일 제13병단 사령부를 펑더화이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로 삼고, 희천이나 기타 적당한 곳을 골라 방공이 보장되는 굴을 신속히 파서 중공군 지휘부의 안전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먼저 들어온 펑더화이가 무전기 고장으로 3일 동안 마오쩌둥은 물론 가오강, 덩화 등의 나머지 지휘관 및 참모들과 연락이 두절되는 통에 마오쩌둥의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펑더화이는 이 기간에 평안북도 창성군의 대동에서 김일성을 만나고 있었다.

중공군의 당, 군 지휘부 재편은 제13병단 지휘부를 인솔해 북한으로 들어온 덩화가 10월 24일 낮 대동의 김일성 임시 거처지에서 펑더화이를 다시 만난 뒤 25일에야 이뤄졌다.[172] 펑더화이는 원래 제15병단 사령부(당시 제13병단 사령부)의 쓸 만한 인물 몇몇을 골라 새로운 중공군총사령부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촉급한 상태에서 마오쩌둥의 이 지시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제13병단 사령부를 그대로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로 바꿨다. 즉 입북 전에 미리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로 바꾸기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대유동에 도착한 뒤에 마오쩌둥과 펑더화이가 임시로 결정한 것을 마오쩌둥이 당 중앙의 명의로 승인함으로써 정식으로 중공군총사령부가 발족된 것이다.[173]

제13병단사령부가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로 개명됨에 따라 제13병단사령부의 정치부 및 기타 후근부 등의 종전 기구들도 자동적으로 각기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정치부 및 기타기구로 변경됐다. 중공군 총사령관은 펑더화이였으며,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은 덩화였다. 세 명의 부사령관 중 덩화 이외 나머지 2명의 부

사령관에는 홍쉐즈, 한센추가 임명됐으며, 참모장은 세팡이 임명됐다. 또한 펑더화이와 덩화가 각기 새로 창립한 중공군 당위원회의 서기와 부서기를 맡았다. 당시 1차 전역 중 북한으로 들어온 제50·제66군단을 포함해 중공군 주요 지휘관의 면면과 특징을 일별하면 다음 표 내용과 같았다.

<표 3-3> 제1차 입북한 중공군 군단급 이상 주요 지휘관 신상명세

소속	직위	성명	본적	연령	주요 군 경력	비고
중공군사령부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	후난(湖南) 상탄(湘潭)	52세	호남 陸軍軍官講武堂졸업. 홍군 제1방면군 사령관, 홍군 항일선봉군 사령관, 서방야전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 장정 참가, 제8로군 부총사령관, 제18집단군 부총사령관, 중공 북방국 대리서기, 중앙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 겸 총참모장, 서북야전군 사령관, 제1야전군 사령관 겸 정치위원,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사령관, 중공 서북국 제1서기 등 역임	본명이 펑더화(彭德華)로서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 특별한 취미는 없었고, 유일하게 즐긴 것은 장기였다.
	부사령관 겸 정치위원	덩화	후난 郴縣(천현)	40세	장정 참가. 홍군 제2사단 정치위원과 제8로군 여단정치위원, 제4야전군 제44군단장	모든 전역 참가, 정전회담 중국측 수석대표
	부사령관	홍쉐즈	안후이(安徽) 진자이(金寨)	37세	장정 참가. 홍군 정치부 주임, 신4군 부사단장. 제4야전군 제43군단장, 제15병단 부사령관 겸 참모장.	제1차~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방어전과 그 뒤의 모든 전역 참가
	부사령관	한센추	후베이(湖北) 황안[(黃安, 현 홍안(紅安)]	37세	장정 참가. 홍군사단장, 제8로군 여단장, 제4야전군 제12병단 부사령관 겸 제40군단장, 제13병단 부사령관.	제1차~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방어전, 1952년 추계반격전 참가
	참모장	세팡	지린 둥펑(東豊)	42세	제8로군 제120사단 제358여단 참모장, 랴오베이(遼北)군구 및 랴오닝 군구 부사령관, 제12병단 참모장	제1차~제5차 전역, 1953년 진지방어전, 1953년 춘계 방어작전, 정전회담 참가
	정치부 주임	두핑(杜平)	장시(江西) 완다이(萬載)	42세	장정 참가. 홍군 제30군단 정치위원 겸 정치부 주임, 제8로군 여단정치위원, 둥베이야전군 및 제4야전군 정치부 조직부장, 제13병단 정치부 주임.	중북쌍방고급간부연석회의 비서장 겸 주석단 비서장, 정전회담 중국측 대표

소속	직위	성명	본적	연령	주요 군 경력	비고
제38군단	군단장	량싱추	장시 지안(吉安)	37세	장정 참가. 홍군 제1군단 제2사단 제2연대장, 신4군 독립여단장, 둥베이 민주연군 제1사단장, 제10종대 사령관	분대장에서 군단장까지 오른 작전통으로서 제1차~제5차 전역, 1952년 진지전 및 추계반격전 참가
	정치위원	류시위안	장시 지안	33세	장정 참가, 제8로군 제115사단 부정치위원, 제4야전군 제47군단 부정치위원	제1차~제5차 전역, 1952년 추계반격전 참가
제39군단	군단장	우신촨(吳信泉)	후난 핑장(平江)	38세	장정 참가. 제8로군 제115사단 정치부주임, 제4야전군 제39군단 정치위원	제1차~제5차 전역, 1952년 추계반격전 참가
	정치위원	쉬빈저우(徐斌州)	후베이 황안(현 홍안)	38세	장정 참가. 제8로군 산둥종대 제23지대 정치부 주임, 둥베이 민주연군 제6종대 정치부주임, 제4야전군 제49군단 정치위원	제1차~제5차 전역, 1952년 진지방어전 참가
제40군단	군단장	원위청(溫玉成)	장시, 싱궈(興國)	35세	장정 참가. 홍군 제5군단 기병단 정치위원. 신4군 제16사단 제18여단장, 제4야전군 제41군단 부군단장	제1차~제5차 전역, 1952년 추계반격전 참가
	정치위원	위안성핑(袁升平)	장시 지안	38세	장정 참가. 랴오시(遼西)군구 정치부주임, 둥베이 야전군 제7종대 정치부 주임	제1차~제5차 전역, 1952년 추계반격전 참가
제42군단	군단장	우루이린	스촨(四川) 바중(巴中)	35세	장정 참가. 안둥군구사령관, 둥베이 야전군 제5종대 부사령관	제1차~제4차 전역, 1951년 하계 진지방어전 참가
	정치위원	저우뱌오(周彪)	장시 지안	40세	장정참가. 진차지(晋察冀) 야전군 제3종대 제7여단장, 지중(冀中)군구 부사령관 겸 제7종대 부사령관	제1차~제4차 전역, 1951년 하계 및 추계진지방어전, 1952년 진지전 참가
포병사령부	포병부사령관	쾅위민(匡裕民)	장시 완안(萬安)	43세	장정참가. 옌안(延安)포병학교 부교장, 둥베이 민주연군 포병종대 부사령관 겸 참모장, 제4야전군 특종병 부사령관, 중남군구 부사령관	제1차~제5차 전역, 1951년 진지방어전, 1952년 추계진지전 참가
	정치위원	추촹정(邱創成)	후난 핑장	38세	장정참가. 제8로군 전방총부 포병단 정치위원, 옌안포병학교 정치위원, 둥베이야전군 포병종대 정치위원	제1차~제5차 전역 참가

소속	직위	성명	본적	연령	주요 군 경력	비고
제50군단	군단장	쩡쩌성 (曾澤生)	윈난(雲南) 융산(永善)	48세	윈난 장우(講武)학당 수학. 중국국민당 제60군단장, 起義후 중공군 제50군단장	제1차~제4차 전역, 1951년 진지방어전 참가
	정치위원	쉬원례 (徐文烈)	윈난 이웨이(宜威)	41세	제8로군 제12사단 정치부장, 둥베이 군정대학 정치부 주임, 중국민주동맹군 제1군단 정치부 주임	제1차~제4차 전역 참가
제66군단	군단장	샤오신화이 (蕭新槐)	후난 이장(宜章)	43세	장정참가. 홍군 제32군단 제94사단장, 진차지 야전군 제66군단장	제1차~제4차 전역 참가
	정치위원	왕쯔펑 (王紫峰)	후난 라이양(來陽)	45세	장정참가. 화베이군구 제66군단 정치위원	제1차~제4차 전역 참가

중공군 총사령관을 포함해 지휘부의 주요 참모들과 군단장급 지휘관은 모두 20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많지 않았다. 이들 중 최고 연장자는 52세의 펑더화이였고, 최연소자는 33세의 류시위안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1세였고, 평균 51.8세의 한국군, 미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지휘관 10명(맥아더 원수, 미 제8군 사령관, 유엔군 해군사령관, 유엔군 공군사령관, 미 제10군단장, 미 제9군단장, 미 제1군단장, 한국군 제1군단장, 제2군단장, 제3군단장)과 비교해 약 12세 적은 편이었다. 당시 중공군은 소련으로부터 계급제도를 받아들이기 전이어서 모든 장병은 계급이 없었고, 단지 직위로 고하를 구분했다.[174] 또한 그들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정규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었고, 대신 일찍부터 중국공산혁명에 뛰어들어 1934년의 장정(長征), 항일전쟁, 국공내전을 거치면서 최소 평균 15년 이상 폭 넓게 실전경험을 쌓은 자들이었다.

적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를 안다는 것은 곧 "知彼知己, 百戰不殆"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맥아더는 중공군의 적장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전쟁을 지도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회고록을 쓸 때까지도 중공군의 지휘관이 린뱌오(林彪)라고 알고 있었다.[175] 그런 의미에서 맥아더와 비교되는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 부사령관 덩화와 홍쉐즈, 참모장인 셰팡 등이 주목된다. 펑더화이는 마오쩌

둥과 같은 후난의 상탄현 출신으로서 상군(湘軍)에서 대대장, 연대장을 지내다가 1920년대 중반 국민당의 북벌에 참가한 뒤 1928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혁명 원로급 인물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그가 맡은 중앙인민정부 혁명군사위원회 부주석, 시베이(西北)군정위원회 주석, 시베이군구 사령관, 중공 시베이국 제1서기,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사령관 등의 직책은 당내에서 차지한 그의 비중을 가늠케 해준다.

덩화는 펑더화이로부터 지식이 풍부하고, 두뇌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전술적 기지가 있었으며, 펑더화이를 제외하고 전쟁종료시까지 모든 전역을 지휘한 유일한 인물이었다.[176] 홍쉐즈는 원래 작전병과였었지만 입북 후부터 군수분야를 총괄하게 된다. 참모들 가운데 셰팡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다. 또 한 두 마디로 사물과 사태의 정곡을 찌르는 언어능력을 갖춘데다 두뇌회전이 빨라 펑더화이로부터 "장수"감이라고 신임을 받았다.



중공군 사령부 주요 지휘관 작전회의. 서 있는 사람이 펑더화이이고, 펑더화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중공군 참모장 셰팡

정식으로 발족된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는 평안북도 대유동의 황량산 계곡 안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펑더화이와의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있은 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와 덩화에게 서로 떨어지지 말고 늘 같이 움직이도록 했고, 펑더화이의 신변은 1개 중대병력이 보호했다.[177]

중공군 지휘부가 대유동을 중공군총사령부의 소재지로 선정한 이유는 미 공군기의 공습을 피하기 쉬운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유동은 적유령산맥과 강남산맥의 남쪽 자락이 남동쪽으로 연결되는 지점의 깊은 산 계곡에 위치해 있다. 평안북도 운산에서 서북쪽으로, 혹은 압록강 중하류 남안의 창성에서 남동쪽으로 들어가면 만나게 돼 있는 동창을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첩첩산중이다. 과거 한 때 대유동은 연간 30톤의 금을 생산하던 세계 굴지의 금광단지였기에 중공군사령부 건물은 옛날 광부들이 기거했던 목조건물이었다. 나중에 미 공군기의 공습으로 이 건물이 전소됨과 동시에 마오쩌둥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이 폭사한 후부터는 펑더화이의 안전을 위해 홍쉐즈가 펑더화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물 뒤편에 파놓았던 동굴로 지휘소를 옮기게 된다.

편제면에서 중공군은 3각 편제로 돼 있어 한국군 및 미군과 유사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포병사단이 군단급에는 없었고, 우리의 군에 해당하는 병단급에 편제돼 있었다는 점이다. 즉 당시 중공군 군단은 보병사단으로만 구성돼 있었고, 3개 사단으로 구성된 포병은 별도로 제13병단사령부에 군단급으로 배속돼 있었다.

제38군단은 중국홍군을 골간으로 발전한 둥베이야전군 제1종대가 전신이었다. 이 군단은 국공내전시 둥베이의 송화(松花)강에서 서남단의 홍허(紅河)에 이르기까지 대소 주요 170여 차례의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었다. 특히 1949년 베이핑(北平), 톈진(天津) 공격시 공략의 선봉에 섰던 역사를 지닌, 제4야전군 내에서 선봉군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 중 최고 정예부대였다.[178] 제38군단은 제4야전군의 주력군으로서 입북 후 제1차에서 제4차 전역까지 참가하게 되고, 제2차 전역에서 미군을 물리친 뒤 펑더화이가 부여한 "만세군단"으로 불리게 된다. 예하에 제112·제113·114사단이 있었다.

제39군단은 중국국민당군 제8로군 제2종대에서 발전된 둥베이야전군 제2종대가 전신이었다. 과거 한국인 좌권(左權)이 이 군단의 전신이었던 제8로군 제2종대 사령관을 지낸 바 있다.[179] 제39군단은 예하에 제115·제116·117사단으로 입북 전

둥베이의 랴오양, 하이청(海城) 지구를 방어하고 있다가 입북하게 된 것이다. 입북 후 제1차에서 제5차 전역까지 모두 참가하게 되고, 그중 제2차 전역시 평양 점령의 주역이 된다.

제40군단은 둥베이야전군 제5종대가 전신이었다. 중국 남방의 하이난다오(海南島) 공격에까지 동원됐다가 북상해 입북하게 된 군단으로서 제38군단과 마찬가지로 중공군의 정예군단 가운데 하나였다. 예하에 제118·제119·120사단이 있었으며, 입북 후 다섯 차례의 전역에 모두 참가하게 되고, 제38군단과 마찬가지로 평양 점령의 주역이 된다.[180] 별칭으로 "선풍종대"로 불렸다.

제42군단은 둥베이야전군 제5종대가 전신으로서 중공군 최초로 국외전쟁에 첫 발을 디딘 부대였다. 예하에 제124·제125·126사단이 있었고, 입북 후 제1차 전역에서 제4차 전역까지 참가하게 된다.

제50군단은 원래 중국국민당군 제60군단이었는데, 국공내전 시 1948년 10월 중순 중공군에 "起義", 즉 귀순한 뒤 중공군 제50군단으로 개편됐다가 이듬해 2월 제4야전군에 배속된 부대였다.[181] 예하에 제148·제149·150사단이 있었으며, 입북 후 제1차 전역에서 제4차 전역까지 참가하게 되고, 제3차 전역시 서울점령 역할을 맡게 된다.

제66군단은 화베이군구 제5종대가 전신으로서, 1949년 2월 현재의 전투서열이 되면서 제20병단에 속하게 됐다. 예하에 제196·제197·198사단이 있었으며, 입북 후 제1차 전역에서 제4차 전역까지 4차례 참가하게 된다.[182]

3개 사단 9개 연대가 들어온 포병은 보유한 화포가 대부분 국공내전시 노획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문수는 총 91문이었다. 그래서 화포가 구식이었음은 물론 종류도 다양했고, 사정거리도 짧았으며, 위력도 작았다. 포병은 제3차 전역 때까지는 자동포가 아니라 말이 끌었으며, 대공포가 없어 주간 이동에 곤란을 겪게 된다. 또한 병력증강과 자동화는 제5차 전역시인 1951년 중반에 가서야 이루어지는데, 9개 연대에서 19개 연대로 늘어남과 동시에 자동화된 신식 화포들이 늘어났다.[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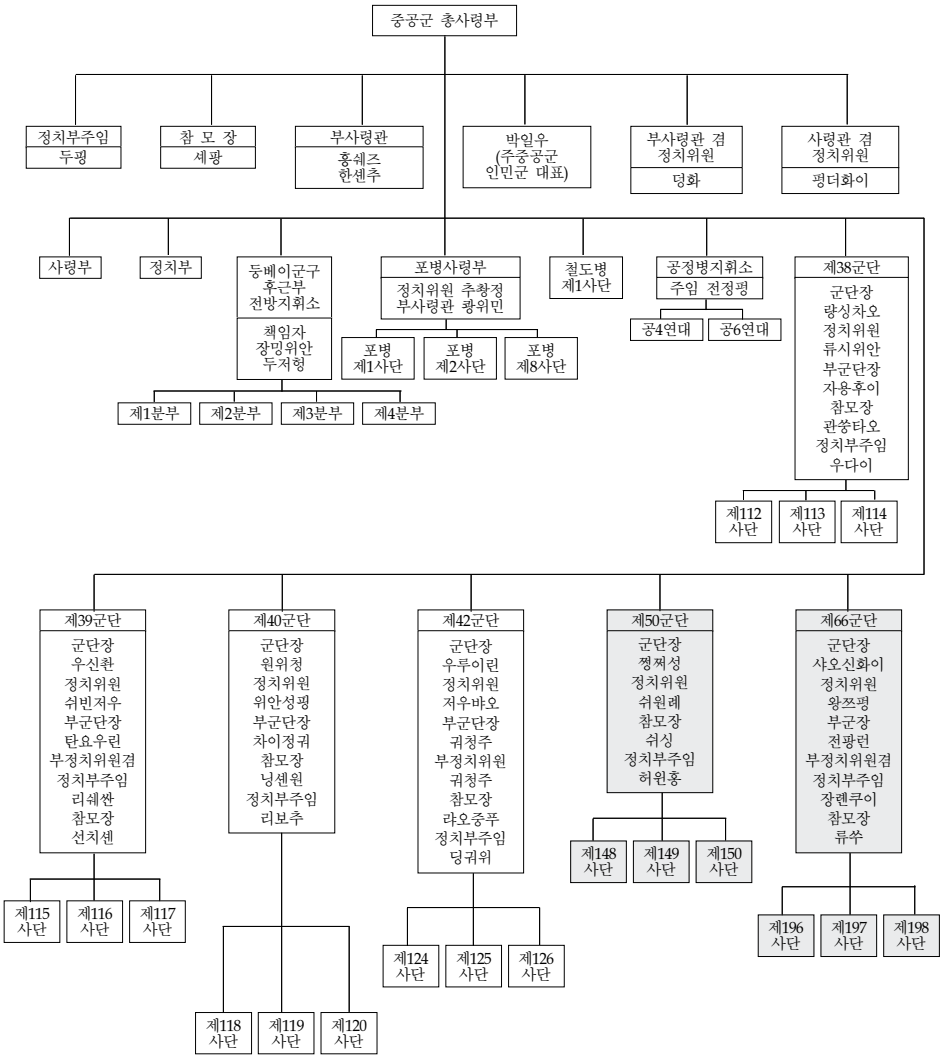
오늘날도 그렇지만 부대운용면에서 중공군은 군내 각급 당위원회와 정치부라는

특이한 제도에 의해 움직여지는 군대다.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공군 당위원회"란 한반도에 참전한 중공군 군대 내의 중국공산당 조직을 가리킨다. 중국은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정부나 군이 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이 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공군은 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 외양적으로 군의 최고 기관인 것처럼 보이는 중국 중앙정부정무원(현 국무원) 산하의 국방부는 단지 중국인민해방군의 총 통수권자로서 중국공산당의 지시를 전달하고 행정임무를 수행할 뿐이다.[184] 따라서 6·25전쟁 당시 중공군총사령부의 지휘와 작동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먼저 당과 군, 즉 당군관계의 파악부터 시작돼야 한다. 곧 군이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당 수뇌가 고려하는 정치, 외교, 국제관계, 경제 등의 국가 정책적 차원의 여러 복합적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하는 수단이자 도구라는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군은 절대적으로 당에 종속돼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당군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당군관계란 공산당이 국가를 전일적으로 통치하는 소련, 동구권 국가, 중국, 북한 등의 공산주의국가들이 갖는 공통 현상으로서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이 군을 통제하고, 나아가 국가까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도 당시 중공군의 군사전략, 전쟁지도, 전쟁수행뿐만 아니라 휴전 혹은 종전까지도 공산당이 주관하고 통제했다. 이는 군이 국가에 통제를 받는 문민통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른 독특한 시스템이다.

중국공산당은 군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내 당위원제도와 정치위원제도를 도입해 폭넓게 운용했고, 부대내에 정치기관을 설치해 정치적 문제를 전담해왔다. 중공군은 연대급 이상 단위부대는 모두 각급 지도기관으로서 당의 각급 대표대회를 열고 당위원회를 선출한다. 당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에 해당 단위부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대대급 부대 및 그에 상당하는 단위 부대에는 당의 기층위원회를 설립하고, 중대급 부대에는 당의 지부위원회를, 소대 및 분대급 부대에는 당소조를 설립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민주집중제"[185]를 원칙으로 부대지휘관이 당위원회의 집단지도 하에 책임을 나눠가지고 부대를 지휘한다.

<표 3-4> 제1차 전역시 중공군 전투서열표



위 도표 중 "□"로 배경색이 없는 단위들은 10월 19~25일 사이에 제1차로 입북한 부대들이고, "■"로 표시된 단위는 11월 초순 2차로 입북한 부대들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각급 단위부대의 모든 중대한 문제는 당위원회에서 토론하여 결정한다. 긴급상황 시에는 지휘관 등의 책임자가 임기응변으로 조치할

수 있지만, 사후에는 반드시 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둘째, 각 단위 부대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한다. 모든 중대한 문제는 필히 당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토론을 거쳐 집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당 위원회 서기와 위원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개인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없고, 당 위원회의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셋째, 당위원회의 결정 후 군계통의 지휘관이든, 당 계통의 정치위원이든 다 같이 일을 분담해 집행하고 목적을 관철하도록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즉 군사상의 일은 군사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정치상의 문제는 정치위원(commissar)이 책임지고 수행하게 돼 있다. 군정의 수장은 반드시 당위원회의 지도를 따라야 하고, 당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186]

각급 당위원회를 통어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당서기이지만 군부대를 통제하는 것은 정치위원이다. 한국군이나 유엔군과 다른 독특한 제도인 "정치위원"이란 원래 18세기 이탈리아 공화국에서 군대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한 정부의 군에 대한 전권대표에서 유래했고, 그 후 프랑스혁명과 1917년 러시아 2월혁명 및 10월혁명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온 제도였다. 중국국민당도 초기에는 이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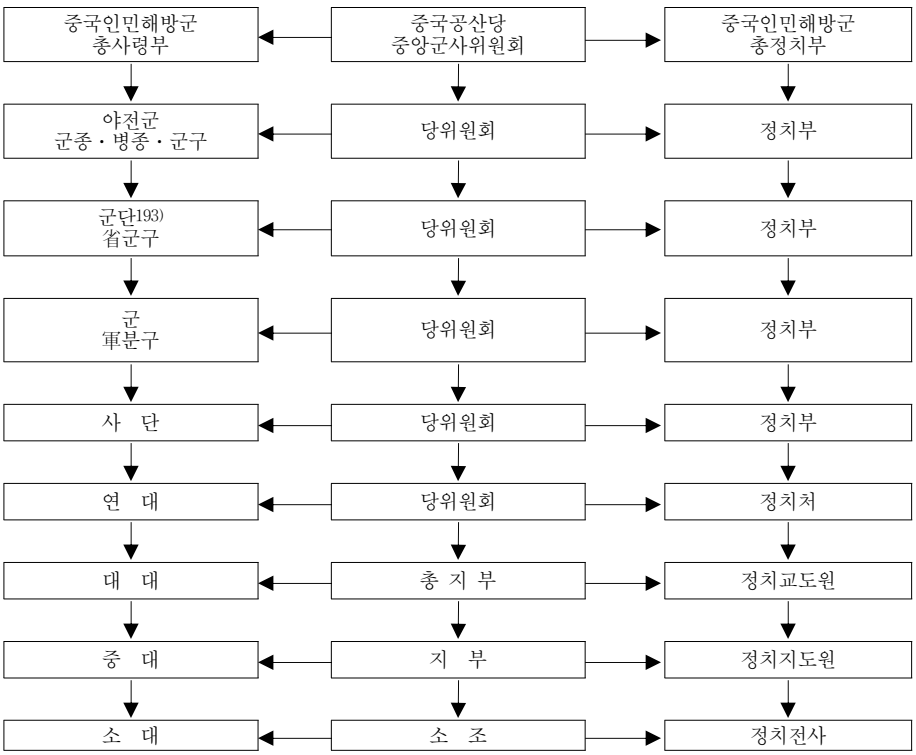
이러한 정치기관제도는 중공이 군대 내 당공작과 조직공작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중국공산당은 연대 1급 부대와 연대급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부대에는 정치처를 설치하고, 사단 이상 부대와 사단에 상당하는 이상의 부대에는 정치부를, 전군에는 총정치부를 설치했다. 정치기관은 통상 조직, 간부, 선전, 보위, 문화, 군중, 연락, 비서 등의 업무부처가 있었다. 총정치부, 군구, 해군, 공군, 성군구 등의 정치부에는 군사법원과 군사검찰원을 설치했다. 총정치부는 전군 최고 정치기관이었으며, 중공중앙,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 공작을 진행한다. 총정치부 이하의 각급 정치기관은 상급 정치기관, 동급 부대 당위원회와 정치위원회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했다. 각급 정치기관이 맡은 주요임무는 상급 조직의 결의, 명령, 지시와 동급 부대 당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다.[187]

중국공산당은 연대와 그 이상의 단위 부대, 혹은 경우에 따라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대대와 그 이상의 단위 부대에는 정치위원을 뒀고, 그 이하 일반 대대

급 단위 부대에는 정치교도원을, 중대급 단위의 부대에는 정치지도원을 두고 이들을 통해 관리했다. 정치위원의 자격은 반드시 5년 이상의 당 경력이 있는 중국공산당원이어야 하며, 동급 부대의 군사지휘관과 지위가 동일했다. 책임소재 면에서 동급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소속 부대의 각종 공작이나 임무에 대해 군사지휘관과 공동으로 책임을 졌으며, 동일계통의 차상급 부대의 수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정치위원은 정치공작면에선 상급 정치위원과 정치기관에게만 책임을 지고, 군사면에선 상급 군사지휘관과 군사기관에게 책임을 졌다. 여기서 정치공작이란 중국공산당과 중국국가의 전략방침, 작전원칙,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 지시를 집행하고 관철시키며, 작전의 목적과 의의를 선전하고 장병들의 전투 참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부대의 전투력 집중과 통일 및 엄격한 전장기율을 진작시키는 것이었다.[188]

중공군의 정치위원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국가의 헌법, 법률, 군대의 법령, 조례, 예규 및 상훈제도 그리고 상급조직의 결의, 명령, 지시를 집행한다. 또한 해당부대 지휘관과 작전지휘를 협의하고 각종 임무 중의 정치공작을 집행, 완수하는 것이 정치위원에게 주어진 역할이다.[189] 따라서 정치위원은 동급의 부대지휘관과 같이 각종 명령에 서명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졌다.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에서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당위원회에 회부해 결정하거나 혹은 상급 부대에 결정을 요청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군사에 해당하는 문제는 군사책임자가 결정하고, 정치공작에 해당하는 문제라면 정치위원이 결정한다. 단, 두 경우 모두 필히 당위원회와 상급 부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후에 보고하고 검사를 받게 돼 있다.[190] 정치위원은 정치위원의 서명이 없으면 어떠한 명령이라도 집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191] 한 마디로 정치위원은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로 이뤄져 있는 각급 중앙 지방할 것 없이 군 전체를 정치, 군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간접적으로 통제, 운영, 관리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보직인 것이다.[192] 지금까지의 설명에 의거해 북한에 들어온 중공군의 당군 관계를 도식화 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3-5> 중공군의 정치통제 계통도



위 설명과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펑더화이는 중공군 총사령관이자 동시에 동일한 급의 중공군 당위원회의 서기 겸 정치위원이었다. 이 사실은 통상 중국홍군(인민해방군의 최초 형태)이 창설된 1927년 8월 이래 각급 당 서기와 군 단위의 지휘관을 별개로 임명해온 관례와 달리 당군의 결정권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줬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전쟁수행에서 요구되는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였다. 지휘체계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또 의사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실기, 작전실패 등의 문제들을 최소화 하고자 한 마오쩌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이 중국공산당 주석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듯이 중공군 당위원회 정치위원이자 사령관이었으며, 마오쩌둥에 직속돼 있었다. 따라서

그는 오로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마오쩌둥에게만 군사적, 정치적 책임을 졌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지도에 관련된 범위를 넘지 못했다. 또한 그의 군사적 권한도 중공군 참전 초기부터 사단급 이상 부대전술은 모두 마오쩌둥의 지시 혹은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상 야전군 사령관이 가지는 전쟁수행상의 자율적 권한의 범위를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쟁지도를 책임져야 했던 펑더화이는 북한군에 대해선 운용할 권한이 있었을까? 맥아더가 한국군을 운용했듯이 그 역시 북한군을 통제 내지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지휘권은 북한진입 초기부터 획득한 것이 아니었다. 김일성과 수차례 회담을 거쳐, 심지어 스탈린의 개입으로 북중 양군의 관계가 정리되고 난 12월 초순 이후 제3차 전역 때부터 가능했다.

전쟁시 참전을 위해 어떤 국가에 외국군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재국과의 군사협조, 특히 전쟁지휘권을 어떤 식으로든 논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펑더화이와 김일성도 처음 대동에서 회동했을 때 중북 양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사람은 중공군과 북한군의 협조문제, 양군의 지휘계통의 통일문제, 중북연합사령부의 설립, 당분간 중공군 단독으로 전투에 나설 것 등을 협의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194]

당시 군사협조란 구체적으로 보급지원, 중국 둥베이로 건너가게 될 북한당국과 군의 안배 및 훈련 등의 시급한 안건들이 포함돼 있었다. 첫 번째 만남에서 중공군 단독으로 전투에 나서는 문제는 합의됐다. 북한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전력손실이 컸으며, 겨우 방호산이 지휘하는 제5군단만이 비교적 손실이 적다고 하면서 후퇴하고 있는 북한군의 병력이 수습돼 전력이 회복될 때까지 중공군만이 전투에 나서주길 바란 김일성의 요청을 펑더화이가 수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타 협조문제들, 특히 양군 지휘계통의 통일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중공군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은 박일우를 중공군사령부에 파견해 쌍방의 연락을 원활히 하며, 군사협조를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회합이 끝났다.



중공군 총사령부에서 펑더화이와의 대담 중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김일성. 펑더화이(오른쪽)

북중 양측이 군사지휘권 통합을 상징하는 중북연합사령부를 즉각 설립하지 못한 까닭은 북한이 합의하기 어려웠던 문제, 즉 북한의 주권을 일부 침해하는 권리의 이양 등과 같은 것들이 쉽게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김일성으로부터 중공군의 파병요청을 받은 마오쩌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중공군을 파병하기 전에 먼저 북한에서 전투를 하는 기간 동안 중공군의 우월적 특권을 요구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북한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전투수행상 필요한 철도, 항만, 비행장 등의 시설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중공군의 "법적 지위, 권한, 즉 행정협정 및 북한군과의 연합작전 문제 등 세부 협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는 것이다.[195]

이에 대해 김일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된 바 없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1차로 중북 양측의 지휘권통합 문제가 거론됐지만 양측이 군사지휘권 통일문제에 대해 합의하게 되기까지는 수차례 더 협의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최종적인 합의내용은 중공군이 작전지휘에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선 제3절 피아의 전쟁지도 부분에 가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3. 중국지도부의 작전계획 수정 : "전략방어"에서 유인공격으로

중공군이 북한에 잠입하고 있을 즈음 유엔군과 국군은 중공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사실도 모른 채 연대, 대대단위로 병력을 나누어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행군으로 도로를 따라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에서는 미 제8군이 5개 사단, 1개 여단을 전개시켰다. 미 제1군단이 지휘하는 영국군 제27여단, 미 제24사단, 한국군 제1·제7사단이 평양, 사리원 지구에서 경의선(서울-신의주)철도를 따라 신의주, 삭주, 창성, 벽동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국군 제2군단이 지휘하는 제6·제8사단은 성천, 파읍, 양덕 지구에서 만포선(만포-순천)을 따라 초산, 강계 방향으로 전진했고, 기타 미 제1기병사단 및 제187공수연대는 평양, 숙천 지구에 위치하여 군 예비대가 됐다.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의 4개 사단이 북진작전을 전개했다.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이 함흥에서 북진하여 북청, 신흥을 점령한 후 해안 도로를 따라 두만강으로 직행했다. 국군 제3사단 주력은 잠시 원산에 주둔하여 미 제10군단의 상륙과 호응한 후 장진 방향으로 전진했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연결해 압록강까지 진격하기로 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1해병사단 및 제7사단은 각각 원산, 이원에서 상륙한 후 함흥-강계 간의 험준한 산악로를 따라 장진, 강계, 혜산진 방향으로 전진했다.[196]

10월 20일 시점 서부전선에선 국군 제2군단 예하 제6·제7·제8사단이 순천-신창리-성천-파읍을 연하는 선까지 육박해 중공군의 방어예정 지역인 덕천-영원 지역과는 불과 90~13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게 됐다.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이 오로리와 동해안의 홍원 지역을 점령하여 벌써 중공군의 방어예정 지역에 도달한 상태였다. 빠른 속도로 전개된 아군의 진격은 하루 이틀 사이에 20~80㎞를 더 북진해 21~22일 경에는 마오쩌둥이 전략방어지대로 설정해놓은 묘향산, 덕천 남쪽 70여㎞ 지점까지 북상한 상태였다. 묘향산, 덕천까지는 그 때까지 아군의 북진속도로 줄 잡아 하루면 족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남

겨 둔 셈이었다.

그런데 아군은 진격속도는 빨랐지만 심각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북진방향에 따라 병력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서 양 전선의 미제8군과 제10군단의 부대들 간에는 낭림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대략 130㎞나 되는 공간이 열려 있었다. 각 사단과 연대 간에 점점 더 분산과 괴리 정도가 심해져 사단간의 협조도 긴밀하지 못했다. 특히 서부전선의 국군 제6·제7·제8사단은 서로 간에 약간의 북진 선두경쟁 심리가 작용해 전진속도가 더욱 빨라져 돌출 형태가 돼 미군과의 연락도 원활하지 못했다.[197]

한편 10월 21일 시점에 압록강 도하를 마친 중공군은 제39군단 제117사단의 선봉 연대, 제40군단의 제118·제120사단, 제42군단의 제124·제126사단 등 겨우 4개 사단 1개 연대뿐이었다. 이 부대들은 도강을 완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압록강에서 10㎞도 채 되지 않는 거리의 삭주, 만포 이남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부대의 방어예정 지역과는 120~270㎞나 떨어져 있던 상태였으며, 중공군 주력이 이곳까지 도달하려면 쉬지 않고 약 4~5일은 꼬박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다.[198] 이 사실은 예정한 전략방어지대까지의 거리와 이동속도로 볼 때 중공군은 아군보다 빨리 이곳에 도달할 수 없게 돼 있었다는 점을 의미했다.

이러한 상황은 마오쩌둥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10월 21일 시점 마오쩌둥은 한국군 수도사단의 움직임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을 뿐 대부분은 실제 상황에 거의 가깝게 파악했다. 그는 이렇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군 수도사단은 함흥에서 장진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고, 제3사단은 함흥에 거의 임박했다. 이 두 사단은 7일 쯤 후에야 장진에 도달할 것이고, 도달하면 강계로 향할 것이다. 제6사단은 파읍에서 진로를 바꿔 첫째 목적지인 덕천을 향해 북으로 진격하고 있는데, 덕천을 점령하면 다음 목적지는 희천이 될 것이다. 제7사단과 제8사단은 순천과 군우리(현 개천), 안주가 1차 목적지이고, 다음 행로는 태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보면서 상기 5개 사단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강계-신의주 선이 최종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199]

마오쩌둥은 덕천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 한국군 선두부대들을 공격하기로

했다. 그는 10월 21일 새벽 긴박하게 타전한 수차례의 긴급전문으로 펑더화이와 덩화에게 새로운 작전구상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먼저 3개 군단의 전 병력을 서부전선에 집중해 전진하는 한국군 몇 개 사단을 즉각 섬멸하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중공군 지휘부가 노린 공격대상은 압록강변을 기준으로 가장 돌출돼 있는 국군 제6·제7·제8사단이었다. 공격의 수준은 "섬멸"이었다. 현대 중국의 군사전술 개념으로 "섬멸"은 적의 무장해제, 저항력 박탈, 살상 또는 생포든 간에 적을 과반 수 이상 없애는 것을 뜻한다.[200]

마오쩌둥의 전술적 복안은 중공군이 가지고 있던 병력 우세의 장점을 살려 취약한 적을 목표로 삼아 빠른 속도로 공격, 섬멸하겠다는 것이었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모른 채 동서 두 전선으로 나눠 진격하고 있던 상황은 중공군으로 하여금 기동전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을 각개 섬멸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됐다. 마오쩌둥은 이 상황을 이용해 서부전선에 3개 군단 주력을 집중해 북진선봉에 선 국군의 진격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덕천을 아군이 점령하기 전에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하면서 덕천의 확보 여부가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안남도,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3개 도간의 경계지역인 묘향산, 소백산 등의 감제고지를 장악하고 동서 양 전선을 갈라 적이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했다.[201]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오쩌둥은 중공군 제42군단 예하 1개 사단을 동부전선의 장진으로 보내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 나머지 군단 주력으로는 "비교적 전력이 강한" 국군 제6사단이 진격해오고 있는 맹산 이남지구에서 평양-원산 간 철도를 단절시키기로 했다. 그런 후 여타 3개 주력 군단(제38·제39·제40군단)이 한국군 제6·제7·제8사단 등 3개 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 섬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을 감제하라고 했다.[202]

북한군에게는 일부 병력으로 하여금 파읍에서 덕천으로 향하고 있는 한국군 제6사단을 파읍-덕천 철도선에서 저지해 이 사단의 덕천-영원 지역 도착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만약 저지가 가능하면 제6사단은 10월 24일 혹은 25일에 이곳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중공군 제40군단 전부를 하루 전인 23일

에 도착시켜 제6사단 후방(동쪽에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철도 부근)으로 우회해 전투 정면을 제38군단이나 제39군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요컨대 중공군이 먼저 전략방어지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투는 적기의 공습을 피해 야간에만 수행하도록 제한했고, 이동은 차량이 부족한데다 차량소음으로 인해 미 공군정찰기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행군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덕천 지역을 선점하려고 한 상기 마오쩌둥의 구상은 질풍노도처럼 전개된 한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 뒤로도 작전계획은 부단히 변경된 나머지 결국 덕천-영원 지역에서 전략적 방어전을 치르려고 한 처음의 작전방침을 포기했다. 이 상황에서 적보다 먼저 방어예정지역에 중공군이 도달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신이 원래 정한 처음의 방어작전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마오쩌둥은 즉각 기동전으로 적을 각개 섬멸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작전을 계획했다. 지시를 받은 펑더화이도 "우선 발붙일 곳을 확보한다"(先站穩脚)는 작전계획을 "기동전으로 적을 섬멸"(運動中殲敵)하는 전술로 변경해야 한다는 덩화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전계획을 바꿨다.[203] 중국수뇌부 차원에서 논의된 최초의 작전방침, 즉 전략방어지에 진지를 구축해 반년 정도 방어전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바꿔 기동전을 구사하면서 공세를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공군의 "기동전"이란 우세한 병력을 보유한 정규 야전군 규모의 병단이 긴 전선과 넓은 전쟁구역 내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전투들로서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하는 전술을 가리킨다.[204]

중국 수뇌부가 애초의 작전방침을 포기한 이유는 세 가지 객관적 요인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먼저 북한군이 파읍-덕천 간 철도상의 어느 지점에서 국군 제6사단을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다. 중공군이 전략적 진지방어전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려면 북한군은 마오쩌둥이 바랐던 대로 어느 지역에서든 적의 진격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줬어야 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당시 북한군은 도처에 흩어져 있는 병력을 다 수습해봐야 가용한 병력이 3개 사단뿐이었는데, 이 병력으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다. 이

것은 마오쩌둥이 원래 구상한 계획, 즉 맹산 이남지역에 제42군단 주력을 배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만든 결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제42군단은 평원선 일부도 절단할 수 없었다. 마오쩌둥이 절단하라고 한 평원선은 그가 제42군단을 맹산 이남지역에 배치하려고 했던 의도와 그 일대 지형을 종합해보면 양덕-운곡-팔흥 지역의 철도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구간은 북대봉산맥의 주봉 가운데 하나인 백산(1,452m)과 북대봉(1,327m)의 남면을 따라 연결돼 있어 이 구간을 절단하면 마오쩌둥이 의도한대로 아군의 동서연계를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덕천-영원 방향으로 올라오는 아군까지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북한군이 국군에 대한 방어역할을 못함으로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파생된 시간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지휘부가 덕천의 전방 지역에서 저지하려고 했던 한국군 제6·제8사단은 10월 20일 시점에 이미 덕천을 지나 희천을 향하고 있었다. 10월 21일 김일성은 펑더화이에게 유엔군과 한국군이 아직도 덕천 남방 200㎞ 지점에 있다고 했지만, 한국군은 이미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있는 대유동 뒤쪽까지 도달한 상황이었다.[205] 실제로 서부전선에서 4개 노선, 동부전선에서 3개 노선으로 나눠 진격하고 있던 한국군과 유엔군은 대체로 압록강의 중공군 도강로와 중공군총사령부까지는 50~80㎞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군과 유엔군의 각 진격로별 진격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서부전선의 좌측방 노선에는 미 제24사단 제21연대가 선두에 섰고,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영국군 제27여단 병력을 합쳐 총 1만 명 정도가 안주에서 청천강과 대령강을 넘어 정주에 육박해 신의주의 압록강 다리와는 약 80㎞를 남겨두고 있었다. 그 우측에서 미 제24사단 제5연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한국군 제8사단도 안주에서 청천강을 도하해 구성, 태천까지 도달해 압록강까지 역시 80㎞를 남겨두고 있었다.

우측방 노선에는 국군 제6사단과 제7사단이 각기 선후 대열로 군우리에서 청천강을 건너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도달해 있었다. 우인접의 아군 주력인 미 제1기병사단(Robert R. Gay 소장) 제8연대와 제5연대가 선두에 섰고, 후위에 선 한국군 제1사단이 군우리에서 청천강을 넘어 운산까지 도달함으로써 중공군 총사령부

가 있는 대유동과는 불과 50㎞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이 각기 선두와 후위에 서서 마천령을 따라 서북으로 압록강을 향해 공격하고 있었다.[206]

중국 수뇌부가 최초의 작전방침을 포기한 마지막 원인으로는 지리적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즉 묘향산 남쪽의 덕천-영원 지역은 군단병력이 이동하기엔 너무 협소해서 전개가 불가능했고, 또 3개 군단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묘향산맥이 종으로 흘러내리는 통에 너무 협소해서 이 병력이 주둔하기엔 적합하지 않은 지형이었다. 현장을 답사한 뒤 그렇게 판단한 중공군총사령부 작전처, 그리고 이곳으로 이동해 포진하기로 예정돼 있던 제40군단 지휘부가 동시에 펑더화이에게 건의해 이곳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방어작전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최초 중공군총사령부 작전처 부처장 양디(楊迪)가 제기했고, 덩화, 홍쉐즈, 셰팡 등이 제40군단 지휘부의 의견을 펑더화이에게 보고하자 펑더화이가 계획을 변경했던 것이었다. 펑더화이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오쩌둥으로부터 덕천 선점구상을 통보받은 바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제40군단까지 투입해 제38·제42군단과 함께 3개 군단으로 측방 돌파를 시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207] 덩화 등이 펑더화이에게 건의한 내용은 평원선 이서의 덕천-영원 이북 지역은 3개 군단이 전개할 수 없으니 제40군단에게 가능하면 동으로 이동해 제38군단 우익 연변 철도 및 그 동쪽의 구장, 개천 방향으로 공격해 제38군단과 제42군단이 전진을 우회하여 뚫고 들어가는 것에 보조를 맞추자는 것이었다.[208]

펑더화이는 10월 21일 김일성과 만나 전황을 듣고 난 뒤 덕천-영원 지구를 중심으로 한 진지방어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동전으로 변경해 우선 압록강변으로 북진하는 한국군 3개 사단을 섬멸할 구상을 했다. 그리고 이를 그날 오후 4시 덩화에게 보낸 전보로 마오쩌둥과 가오강에게 보고했다. 펑더화이는 이 보고에서 희천을 전략핵심지대로 선정하고,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희천 전방의 고지대인 묘향산-행천동 선과 그 이남을 신속히 장악해 진지를 구축해주기를 요청했다. 동서의 적 연락로를 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펑더화이는 차량을 모아 급히 1개 사단을 희천 이남의 묘향산으로 수송해 1개 연대를 행천-오령 선에

서 먼저 진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다른 1개 사단을 장진 및 그 이남으로 보내 측면의 안전과 강계 후방의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덕실리-구진리 선에서 종심 깊은 진지를 구축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자신은 희천과 장진 양 요충지를 모두 장악할 수 있으니 주력을 자유로이 기동케 하고 모든 병력을 집중해 절대 우세의 병력으로 적의 동쪽과 서쪽의 적 가운데 한 쪽을 치자고 건의했다.[209]

중공군 지도부는 방어나 공격에 있어 덕천 다음으로 희천을 주요 진지로 설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가진 지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희천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동쪽에는 묘향산, 천쾌산(1,927m) 등 해발 2,000m 가까운 묘향산맥이 뻗어 내리고 있으며, 같은 주향으로 우현령(536m), 각대봉(1,164m) 등의 적유령산맥이 뻗어 내리고 있다. 북동쪽은 시루봉(972m), 온곡산(985m)을 경계로 동신군과 접하고 있었다. 또한 군 내에는 갑현령(1,010m)에서 발원한 청천강이 랴오시(遼西) 동계산맥 방향으로 흐르면서 희천시를 남동과 북서의 반씩으로 나누고 있다. 당시 이곳은 1월 평균 기온이 -11.5℃였을 정도로 추운 지역이었다.[210]

10월 21일 밤 9시, 덩화, 홍쉐즈, 한셴추, 세팡이 마오쩌둥과 펑더화이에게 전보를 보내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즉 장진방면으로 진격해가고 있던 적군과 원산, 평양에서 증원되는 적군을 감제하기 위해 3개 군단을 집중해 한국군 제6·제7·제8사단을 각개 격파하는데, 먼저 중공군 제42군단 예하 1개 사단에 포병 1개 연대를 배속시켜 장진을 방어한다. 나머지 제42군단 주력은 소백산 지역을 장악해 상황을 보고 맹산 이남 지역으로 전진한다. 제40군단은 전병력이 덕천-영원 지역까지 나아간다. 제38군단 전병력은 희천 지역으로 보낸다. 제39군단 전병력은 태천, 구성 지역으로 가서 적정을 살핀 뒤 적을 각개 격파한다. 그리고 제39군단이 이동함에 따라 틈이 생긴 신의주, 정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보급선을 지키고 적의 상륙에 대비해 1개 군단을 안둥지역으로 이동시켜줄 것을 건의했다.[211]

마오쩌둥은 10월 22일 오전 7시 펑더화이에게 전보를 보내 펑더화이와 덩화 등의 구상과 건의를 동의했다. 그가 내린 작전지시는 펑더화이의 보고에서 얻은 적정에 대한 대응이었다. 펑더화이의 전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보고돼 있었다.

미 제10군단장이 예하 한국군 수도사단에게 함흥에서 북청, 성진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고, 제3사단에게는 함흥 집결을 명령했으며, 미 제10군단은 한국군 제1군단의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함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득한 마오쩌둥은 아군이 얼마동안은 장진으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럴 경우 중공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펑더화이에게 신속히 중공군 1개 사단을 급파해 장진을 점령하도록 하고, 동시에 묘향산, 행천동과 소백산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주된 목적은 한국군과 유엔군의 동서 연계를 저지하고, 이들을 두 쪽으로 분리하기 위해 묘향산, 소백산 등 고산지역을 점령해 중공군이 서쪽에서 전투를 벌일 경우 한국군이 동쪽으로 밀고 올라와 서쪽의 아군을 지원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였다.[212]

마오쩌둥은 한국군 제6사단이 순천, 신창리에 집결하고 있으며, 제8사단이 성천, 순천에 집결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들의 차기 행선지로 제6사단은 신안주를 거쳐 박천 및 그 이서지역으로 갈 것이며, 제8사단은 군우리와 그 이북지역으로 진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상황이 긴급해지면 한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이 증원해올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비해 섬멸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213]

10월 22일 오전 9시,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와 가오강에게 자동차로든 행군이든 병력, 무기, 보급물자는 선천-정주-박주-군우리 선 및 구성-태천-구장 선에 보내지 말 것을 지시했다. 왜냐하면 며칠 후면 이 지역이 적에게 점령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이 선 북쪽도로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신의주, 철산, 선천 지역에 병력 일부를 보내고, 1개 군단을 안둥으로 보내는 문제는 좀더 두고 본 뒤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214]

같은 날, 마오쩌둥은 시베이군구 제1부사령관인 장종쑨(張宗遜)에게 제19병단 사령부와 예하 주력부대를 1개월 이내인 11월 24일 이전에 모든 출발준비를 끝내고 둥베이 지역으로의 이동 명령을 기다리도록 지시했다. 주력 군단 이외 다른 1개 군단은 12월 안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했다.[215]

10월 22일 밤 7~9시 사이 펑더화이는 김일성과 상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오쩌둥과 가오강에게 자신의 작전구상을 보고했다. 그것은 향후 반년 이내에 취할 중

공군의 기본 방침이었다. 즉 장진-희천-구성 이북지역과 창톈하구-지안-린장 선의 도강로를 확보, 유지하고 시간을 벌면서 반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또한 현재 중공군이 제공권이 없는데다 동서 해안지역의 모든 도시, 심지어 신의주까지 미군의 육·해·공군과 전차가 동원된 합동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지역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지역을 포기함으로써 적의 병력을 분산하고, 쓸데없는 곳에 군사력을 소모하지 않는다. 첫 번째 전역에서 1개 군단으로 적을 감제하면서 3개 군단을 집중시켜 우선 한국군 2~3개 사단을 섬멸한다. 그리고 전과와 점령지역을 원산-평양선 이북의 산악지역으로 확대한 후 남한 내 유격전선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216]

상기 펑더화이의 보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한 마오쩌둥은 정세를 분석한 후 23일 재차 펑더화이와 가오강에게 작전 지시를 하달했다. 중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현재의 배치로 과연 적이 모르게 순식간에 한국군 3~4개 사단을 섬멸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마오쩌둥은 이 과제를 향후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관건으로 봤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은 배치를 다시 할 것이고, 적어도 한동안은 신의주, 선천, 정주 등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한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함흥에서 원산지역으로 후퇴할 것이고, 장진을 지킬 수 있다. 신의주, 희천 두 지역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성천-양덕 철도를 지킬 병력이 없어 아군에게 커다란 빈틈을 열어 놓아준 셈인데, 현재 조건에선 적은 곧 피동적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만약 이번의 돌발 작전에서 크게 승리하지 못하고 한국군 제6·제7·제8사단 주력이 빠른 시간 내로 섬멸되지 않거나 혹은 탈출해 한국군 제1사단, 수도사단과 미군 일부가 증원돼 버리면 아군은 어쩔 수 없이 진지 앞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형세는 오히려 적이 유리하게 되고, 희천, 장진 두 곳을 지키는 것이 곤란해진다.[217]

둘째, 장진, 희천, 구성 이북 지역과 창톈하구-지안-린장 선의 도하선을 지키면서 시간을 벌어 반격할 수 있는 조건을 준비한다. 그러기 위해서 제공권을 확보

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적 공군의 폭격과 전차를 앞세운 육·해·공군의 합동공격을 막아내기 힘든 이상 아예 동서해안 연안의 도시들, 심지어 신의주까지 모두 미련없이 포기한다. 그리고 적을 분산시켜 자국군의 소모를 줄이고, 1개 군단으로 적을 감제하고, 3개 군단의 군사력을 집중해 한국군 2개 사단을 없앤다. 그럼으로써 원산-평양선 이북의 산악지역을 장악, 공고화하여 남한 적 후방에서 북한군의 유격전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었다.[218]

한마디로 이 시기 마오쩌둥의 구상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눈치 채지 못한 채 방심한 상태에서 북진하고 있을 때 갑작스런 기습공격으로 먼저 한중국경 방향으로 돌출돼 있는, 그럼으로써 구성-희천-장진 이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창톈하구, 지안, 린장 선의 도하선을 위협하는 한국군 2~3개 사단(제6·제7·제8사단)을 섬멸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마오쩌둥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국군 4개 사단은 희천과 회목동에 도달해 초산으로 향하려고 하는 제6사단, 영원, 덕천 이북에 도달해 희천을 거쳐 강계로 향하려고 하는 제8사단, 영변, 용산에 도달해 창성으로 가고자 하는 제1사단, 강동과 순천 사이에 있지만 곧 희천에 도달하면 예비대가 될 제7사단 등이었다. 영국군 제27여단은 안주에서 청천강을 넘어 신의주로 향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압록강의 중북진입로를 위협하고 있는데, 마오쩌둥은 이 4개 부대 중 최소한 3개 사단을 없애야만 기선을 잡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타 평양에 있는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사단, 제2·제24·제25사단)과 원산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2개 사단(제1해병사단, 제7사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위협적인 거리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 공격 대상이 아니었다.[219]

10월 25일 새벽 6시 시점, 마오쩌둥은 2~3일 후 제1차 전역을 개시해 먼저 서부전선에서 미구에 선천-정주-박주-군우리 선 및 구성-태천-구장 지역으로 들이닥칠 한국군 4개 사단과 영국군 제27여단을 공격할 생각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사전에 적에게 발각되거나 섣부르게 접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펑더화이와 가오강에게 자동차로든 행군이든 이 지역을 피해 이 선 북쪽도로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병력뿐만 아니라 무기, 보급물자까지 이 선 지역에

보내지 말도록 지시했다.[220]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참전결정 단계인 10월 9일에 구상했던 작전계획은 10월 19일 최종 작전계획 단계에서 몇 가지가 변경됐다. 즉 4개 군단을 모두 투입하려던 것을 바꿔 제38군단을 예비대로 나중에 입북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제38군단이 예비대가 됨으로 인해 원래 제38군단이 담당하기로 돼 있던 방어지역인 구장의 방어는 제40군단에게 맡겼다. 또한 덕천-영원 선을 맡기기로 한 제42군단을 동부전선의 교관리-오로리(현 영광)로 보냈으며, 제42군단이 동부전선으로 이동해 감으로 인해 공백이 된 덕천-영원 방면은 제40군단이 담당하게 됐다. 둘째, 중국수뇌부 수준에서 구상했었던 전략적 방어지대는 이전의 덕천-영원선에서 구성-희천-묘향산-소백산-장진-오로리선 이북 지역으로 북상 조정됐다.[221] 이 선에서 아군의 진격을 저지함과 동시에 시간을 벌면서 북한군의 철수와 재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셋째, 미군이 압록강의 한중 국경지대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미군과의 접전을 피하면서 먼저 한국군 2~3개 사단을 섬멸하겠다는 방침은 지속됐다.

제 3 절 피아의 전쟁지도

1. 서전 : 중공군의 제1차 공세와 아군의 반격

중공군이 자신에게 다가서는 아군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은밀하게 공격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전쟁종결 기대감으로 들뜬 분위기에 있던 아군은 전쟁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듯이 인식했다. 미 육군 군수참모 토마스 라킨(Thomas B. Lakin) 중장이 일본 토쿄의 극동군 사령부를 방문해 맥아더 원수와 군수문제를 협의한 뒤 "한국에서의 전투행위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이 9월말이었다.[222]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10월 하순인 이때는 이미 서부전선에선 미 제8군 주력이 청천강 도하에 나섰고,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원산상륙을 준비하고 있을 시점이었다.

미군 보다 한층 더 멀리 올라가 있던 한국군은 워커 중장과 알몬드 소장에게서 각기 임무를 부여 받고 기왕의 북진에 가속도가 붙은 상태였다. 미 제1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군단의 좌우 전방을 각기 예하 제6사단(사단장 김종오 준장)과 제8사단(사단장 이성가 준장)에게 맡겨 전자는 초산과 벽동을, 후자는 만포와 중강진을 탈환하게 했다. 제6사단은 압록강에서 불과 20㎞거리인 고장과 묘향산 북쪽 희천에 진출해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압록강 진격에는 제6사단 제2연대와 제7연대가 선봉에 섰다. 제8사단은 덕천과 구장에 진출하여 강계를 향하고 있었다.

10월 25일 중공군이 국군 제1사단 정면에 나타나기 직전, 제2연대의 수색중대 제3소대원 20여명은 모두 북한군 군관 복장을 입고, "치스"라는 소련제 소형트럭으로 초산을 향해 전진 중에 있었다. 제7연대(연대장 임부택 대령)는 21일 새벽 6시 정각에 하달된 사단 작전명령 제7호에 의거해 지근거리의 압록강 중류 초산

을 점령하기 위해 총공격을 개시한 후 초산 점령을 목전에 둔 상태였다.[223]

국군의 주력 제1사단도 신임 사단장 최영희 준장의 지휘하에 10월 23일 군우리를 출발해 청천강을 따라 안주에서 청천강을 건너 이틀 뒤인 25일 운산에 도착했고, 계속해서 운산에서 서북쪽으로 진출, 압록강변의 창성, 삭주, 수풍댐 방향으로 진격하게 될 즈음이었다. 미 제24사단은 박천에서 구성을 거쳐 의주방향으로 진출했고, 영국군 제27여단은 정주, 선천을 거쳐 신의주 쪽으로 진격하기로 됐다. 미 제1군단 예비로 편입된 미 제7사단(사단장 David Barr 소장)은 압록강 도달 직전 미 제24사단과 영국군 제27여단을 앞질러 공격하기로 돼 있었다.

동부전선에서는 한국군 제1군단(군단장 김백일 소장)이 북청과 이원까지 진출해 동해안을 따라 순조로이 진격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패도지한 북한군은 시간적으로나 병력면에서나 조직적으로 저항할 여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국군은 평양을 뒤로 한 이래 적의 공격이나 방어에 크게 부딪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 않고 "압록강, 압록강!"을 외치며 진격에만 몰두했다.[224]

후방의 평양에 잔류시켜 진남포까지 장악하도록 한 미 제1기병사단을 제외하고 아군의 모든 가용 병력이 청천강을 건넜거나 건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0월 25일 현재 서부전선에선 박천-운산-온정리-희천 선까지, 동부전선에선 북서부 방면으로 오로리(현 영광군), 북동부 방면으로는 단천까지 진출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한국군 모두에게 압록강이 손에 잡힐 듯했으며, 백두산과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고, 민족의 일대 과업인 한반도통일은 시간문제였다.

문제는 아군이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진격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도달하고자 한 목적지도 모두 공교롭게도 중국수뇌부가 보호하려는 북한진입 도강로의 입구였었던데다 그곳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운산에 도달한 제1사단이 노린 창성, 삭주, 수풍댐은 바로 압록강 대안의 창톈하구이며, 구장, 희천에 진입한 제6사단의 목적지인 초산은 중공군이 도하할 가능성이 있는 훈장커우를 마주보고 있는 곳이며, 벽동은 북한군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이었다. 실제로 중공군 지휘부는 도강 계획단계에서 제42군단을 훈장커우에서 도강시키기로 계획한 바 있다. 중공군이 도강하려다 계획이 바뀌어 도강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훈장커우는 도강이 가능한 곳 가운데 하나였던 모양이다. 덕천과 구장의 제8사단이 점령하고자 한 강계는 북한당국의 임시 수도였으며, 그 북쪽의 만포는 지안을 봉쇄할 수 있는 곳이었다. 또한 미 제24사단, 영국군 제27여단이 지향하는 의주, 신의주는 안둥을 차단할 수 있는 목진지였던 셈이다.

더군다나 돌발적인 변수만 없다면 가장 앞서 있는 제6사단이 1차 목적지인 초산을 점령할 것이었다. 실제로 제6사단은 중공군 배치 및 매복 지역을 지나면서도 중공군과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10월 26일 오후에 초산을 점령했다. 다음으로는 제1사단이 수풍댐을 손안에 넣을 수 있었고, 뒤이어 제8사단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아의 입장을 바꿔 보면, 적에게는 이 사단들이 가장 돌출돼 있었던 셈이었는데, 목적지까지는 대략 이틀이면 족히 다다랄 수 있는 거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도 목적지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국군의 이러한 진격은 마오쩌둥이 확보하려고 한 전략지대인 구성-희천-장진 북쪽지역과 창톈하구-지안-린장 선의 도강교통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보였다. 그는 뉴스로 속속 전황을 보도하는 미국 라디오 방송, 한국 및 타이완의 각종 언론매체들을 통해 아군의 이러한 전진경로와 목적지를 거의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중공군 지휘부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10월 26일이나 27일까지 기다렸다가 일거에 공격하려고 작정했던 계획을 이틀 혹은 최소한 하루를 앞당겨 제1차 전역에 돌입하기로 했다. 전투방침은 10월 25일 오전 중공군 제1차 작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펑더화이가 덩화, 홍쉐즈 등 지휘관 및 참모들과 협의한 끝에 정해졌다. 우선 가장 돌출된 사단들을 공격, 섬멸하기 위해선 진지방어전이 부적합하다고 보고 즉각 기동하면서 공격기회를 노리는 기동전으로 변경했다.[225] 일부 병력으로 동부전선의 적을 견제하고, 주력을 서부전선에 집중해 먼저 전투력이 비교적 강한 한국군 3개 사단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는데, 전부 섬멸하거나 반 이상을 섬멸하면 동서 양 전선에서 동시에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칙하에 우선 한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을 중공군에게 지형이 유리한 깊은 산중으로 유인해 괴멸시킨 뒤 다시 병력을 집중해 다른 1~2개 사단을 섬멸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임무수행 부대의 배치는 서부전선에선 제39군단이 운산 지역에서, 제40군단은 온정리와 그 이북 및 이서지역과 북진 동쪽지역에서 한국군 제6사단을 포위 섬멸하고, 이어서 제6사단을 증원하러 올 한국군 제1사단을 운산 부근에서 공격해 섬멸한다. 제39군단과 이 군단에 배속된 제42군단의 제125사단은 신속히 희천과 희천 북쪽지역에 집결한다. 서부전선 중공군 주력의 측면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제42군단의 나머지 2개 사단을 장진호 이남의 황초령, 부전령 지역에 배치시켜 방어에 임하도록 해 동부전선의 적을 견제케 한다. 동시에 제66군단에게는 안둥에서 도강해 철산방면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영국군 제27여단을 저지하도록 준비케 한다.[226]

상기 작전계획은 기존 마오쩌둥의 전략적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었다. 단지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세부만 약간 변경했을 뿐이다. 차이라면 마오쩌둥이 한꺼번에 1~2개 사단을 섬멸하려고 한데 반해 펑더화이는 사단을 통째로 없애지 않고 1~2개 연대 씩 여러 차례 섬멸해 누적적으로 1~2개 사단을 섬멸하려는 것이었다. 요컨대 공격의 규모와 시간이 달랐을 뿐이다. 둘의 두드러진 공통점은 병력의 집중이었다. 1개 사단을 없애는데, 무려 그 6배에 달하는 6개 사단을 집중해 연대 병력 단위로 각개 격파하려고 했다.

이 점은 중공군의 전술교리에 따른 것이자 마오쩌둥 전술의 전형적 형태였다. 즉 우세한 병력과 병기를 공격하는 정면의 결정적 방향에 집중하는데 미군에 대해서는 5배, 한국군에 대해선 3배의 병력 우세를 가져야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합동 포위로 감제고지와 요로를 장악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병력과 화력을 분산시켜 각개적으로 적 병력을 없애는 것이었다. 전체 병력 중 9분의 1을 예비대로 하고, 정면을 공격하는 병력은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통상 전체 공격병력의 약 3분의 1로 했다. 이 보다 많으면 측후 공격의 병력을 약하게 만들어 포위를 할 수 없거나 정면 압력이 크면 적이 도망하게 된다고 한다. 또 공격시점은 우회, 포위하는 병력이 예정지역에 도달하는 것에 맞췄는데, 도달한 측방의 병력과 협공해 적을 섬멸한다고 했다.[227] 마오쩌둥도 수년 전 적을 포위, 공격할 때는 2배에서 심지어 6배까지 많은 병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228]

한국군 제6사단 섬멸 임무를 부여 받은 중공군 제40군단 지휘부는 예하의 제118사단을 중공군총사령부가 있는 대유동의 황량산과 불과 10㎞ 남짓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온정리에 자루 모양의 대형으로 매복시켜 놓았다. 제40군단은 원래 예하 3개 사단 전 병력이 청천강 북안에 방어진지를 구축해 한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방어함과 동시에 북한군의 후퇴와 재편을 엄호해 중공군 후속부대의 전개와 집결을 보장하도록 하는 게 초기 임무였지만 작전계획이 바뀐 것이다.[229]

이날 온정리 지역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온정리 인근이 바로 압록강에서 불과 60㎞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운산이었다. 당시 평안남도 운산은 운산군의 군소재지로서 약 1,000호 남짓 밖에 없는 작은 촌락이었고, 동북쪽이 높고 서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형을 이루었다. 북쪽으로는 삼탄천이, 동으로는 온정천이, 서로는 용흥강이, 남으로는 구룡강이 흐르고 있었다. 또한 북진으로 통하는 운산선 철도가 통과하는 운산역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자동차 도로는 동북으로 운(산)-온(정) 도로가, 서북으로는 운(산)-향산-창(성) 도로가, 동남으로는 운(산)-영(변) 도로가, 서남으로는 운(산)-박(천) 도로와 함께 운산-조양간 등 각지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던 평안북도의 교통요지였다.[230]

그런데 이곳에서 이날 오전 8시 반경 중공군 지휘부가 개시하기로 한 것 보다 이른 시점에 피아가 모두 예상하지 못한 전투가 돌발적으로 벌어졌다. 예상하지 못하기는 국군도 마찬가지였다. 수풍댐을 향하던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와 제12연대가 운산으로 들어갔다가 이곳을 벗어나기 직전 북쪽 옥녀봉, 조양동 일대의 산기슭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 제40군단 제120사단 제360연대 제1·제3대대의 급습을 받았다. 자루 모양 대형의 중공군 매복에 걸려든 것이다. 제360연대는 그 전날 10월 24일 새벽 운산 북쪽의 하사동에 도착해 미군 군사고문 1명을 포획했다. 그리고 이날 밤 9시 연대 예하 각 대대는 운산 북쪽의 262.8고지-간동 남북산-조양동 동산-옥녀봉 선에서 진지를 구축했다.[231] 국군 수색대가 중공군의 눈앞으로 지나갔다고 한다. 이어서 다음날 제118사단 제354연대가 온정리 부근에 도달했고, 압록강 강변의 벽동으로 통하는 양수동 지역에 진지를 구축했다. 이곳은 온정리 북방의 두 길 중 서북으로 향하는 길 쪽에 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정북의 초산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국군 제15연대가 적의 박격포 탄막에 저지되자 제1사단장은 예비로 뒤따르던 제11연대를 투입해 운산 주위의 고지에 급편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적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훗날 백선엽 장군이 비유했듯이 제1사단 장병들은 "서부 활극에 등장하는 행군하던 포장마차 대열이 인디언의 기습을 받아 원형의 대형을 취하여 싸우는 모습과 흡사한 상황"과 같이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히게 된 것이다.[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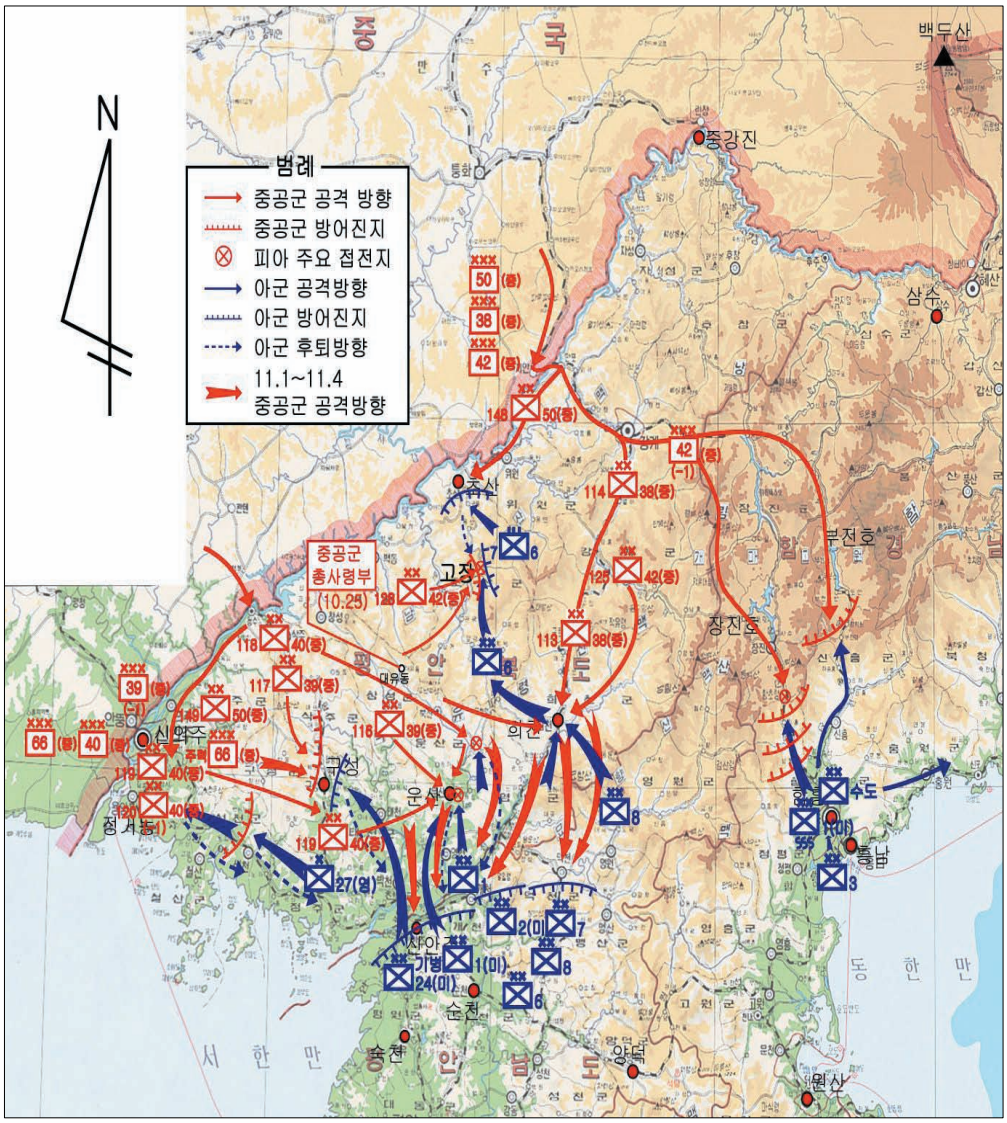
미 제1기병사단이 제1사단 구원 작전에 동원됐는데, 갑자기 한국군 제1사단을 구원하라는 출격명령을 받은 예하 제8연대 제3대대 병사들은 반납했던 실탄을 다시 지급 받아 청천강을 건너 운산의 서쪽 도로로 적진에 투입됐다.[233] 운산 동쪽 편에 있던 국군 제1사단은 미군 전차와 고사포의 화력지원과 함께 수송기로 탄약과 유류 등의 보급품을 지원받아 중공군의 공격이 중지될 때까지 2~3일간 악전고투를 벌이게 됐지만 결국은 전진이 저지되고 만다. 이것이 국군과 중공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전투였다.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통일을 저해한 중공군의 제1차 전역이 시작된 것이다.[234]

같은 날 국군 제6사단의 선봉 부대인 제2연대 제3대대도 중공군의 매복에 걸렸다. 제3대대는 차량으로 온정리를 떠나 벽동으로 나아가던 중 오전 10시 20분 경 북쪽의 양수동에서 중공군 제40군단 제118사단 정찰중대와 맞닥뜨렸고, 이어서 제118사단의 주력인 제353·제354연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뒤따르던 제2연대 주력도 제354연대의 공격을 받아 5시간 동안 격전을 치렀다. 그리고 그날 밤 12시 제118사단과 제120사단의 각 주력 4개 연대가 국군 제6사단을 공격했고, 2시간 뒤 온정리를 점령했다. 공격을 받은 한국군은 적지 않은 전력손실을 입고 각기 포위망을 벗어나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날 밤 동부전선에서도 상통리와 하통리 일대를 점령한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가 부전령산맥 남쪽에 위치한 황초령을 향해 진격하던 중 이 지역의 유리한 곳에서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 제42군단 제124사단의 선부부대인 제370연대 제2대대와 뒤따라 들어온 제370연대 주력의 공격을 받아 진격이 저지됐다. 중공군 제42군단이 황초령을 지키게 된 까닭은 아군이 강계와 만포에 도달하려면 필히 해발 1,208m의 황초령과 장진호를 거쳐야 했고, 혜산진으로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부전령산맥 북쪽에 위치한 평균 해발 2,000m가 넘는 부전령을 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사 지리적으로 황초령과 부전령은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그 남쪽에 위치한 오로리는 목진지에 해당됐다.

<상황도 3-3> 중공군 제1차 전역시 피아 접전도



그런데 제42군단은 북한군이 제공한 차량이 아니었으면 이곳을 선점하지 못했을 수 있었다. 그 내막은 이러했다. 제42군단장 우루이린은 먼저 아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인 황초령에 제124사단을 보내 점령케 하기로 하고, 자신은 군단 지휘소와 함께 제126사단을 인솔해 전진했다. 나머지 제125사단은 제38군단에게 배속된 상태였다. 제124사단은 수색대를 보내 함흥 이북지역의 황초령-부전령 일대의 지형과 적정을 살폈다. 이 때 이 지역방어를 맡고 있던 북한군 황초령전구 수비사령관 김영환과 북한군 부총사령관 최용건이 소련군사고문관 3명을 대동하고 중공군 제124사단을 찾아와 공동으로 작전을 협의한 끝에 중공군을 지체하지 않고 동부전선 방어에 긴요하게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최용건이 북한군 차량 18대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다.[235] 중공군은 북한군이 제공한 18대에다 본래 보유하고 있던 2대를 모두 동원해 황초령으로 수송했다. 차량 한 대당 대략 60명 정도 탈수 있었던 관계로 한 번에 대대병력을 실어 나를 수 있었다. 제124사단 제370·제376연대의 전 병력이 황초령에 이동 배치되는데는 꼬박 이틀이 소요됐다. 병력이 배치됨과 동시에 최용건은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도 중공군 제124사단에게 인계했다.[236]

황초령 방어는 중군군 제42군단 2개 사단이 맡았지만 공격해 온 적은 한국군 수도사단, 제3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 등 3개 사단이었다. 중공군에게 위협이 된 것은 미군이었다. 그런데 황초령에서 첫 공격에 나선 부대는 이 3개 사단 중 한국군 수도사단이었다. 피아간의 전투는 공중정찰 중 중공군 제42군단 제370연대 제2대대를 발견한 몇 대의 미 공군기가 그들이 점령한 연대봉, 송이동, 용수동 등의 고지에 대해 가한 기총 소사로부터 시작됐다. 전투는 이틀 동안 격렬하게 전개됐고, 11월 13일까지 총 13일이나 계속됐다.

한편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중공군과의 전투 첫날 제15연대가 생포한 포로 1명을 직접 심문한 결과 그 포로가 중공군 제39군단 소속이라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중공군이 군단 이상의 대규모로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237] 그는 이 진술을 토대로 즉각 미 제1군단장 프랭크 밀번(Frank W. Milburn) 소장에게 중공군 참전 사실과 함께 운산, 희천 북방에 2만 명의 중공군이 잠복, 대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 제8군 사령부는 10월 26일 국군 제1사단이 추가로 잡은 중공군 제42군단 소속 병사 3명을 인계 받아 평양의 전방사령부에서 심문했다. 심문결과는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워커 사령관과 그의 참모들은 모두 중공군 참전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미 제8군 사령부에서 토쿄의 유엔군사령부로 전송됐고, 정보참모 찰스 윌로비(Charles Willoughby) 소장을 통해 맥아더 사령관에게까지 보고됐다.

그러나 당시 전황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던 유엔군사령부는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했다. 기껏해야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한인 의용병 소수가 북한군에 가담한 것으로 인식했다.[238] 중공군 포로들이 붙잡혀 왔고, 또 그들을 취조한 심문에서도 중공군이 이미 대거 들어와 있다는 진술이 보고됐음에도 미군 지휘부는 중공군의 참전사실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포로로 잡힌 일개 병사들이 그만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중공군 정규군의 참전을 부정한 그러한 선입견과 의심은 아직 미군 사단과 정면 대결한 바가 없었으며, 동부전선에도 별 다른 이상 징후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됐다.[239] 하지만 이것은 작전에 임하기 전 지휘관과 참모는 물론 모든 병사들에게까지 작전계획을 고지시키는 당시 중공군의 전투수행방식을 몰랐었던데서 기인된 오인이었다.

이 같은 태도는 미 행정부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1월 1일 이 정보를 접한 미 중앙정보국장 월터 스미스(Walter B. Smith)도 중공군의 주력이 북한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1만 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중공군 부대가 특수부대 형식으로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주력은 중국 둥베이 지역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 한반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간섭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그들의 주요 동기는 압록강 남쪽에 한정적인 방어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240]

그런데 미군 수뇌부만 믿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우리는 곧 중공군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겠지만, 불과 하루 이틀 후 첩보 수준에서 회자돼 떠돌던 중공군이 눈앞에 출현했고, 아군의 진격은 그들의 계획된 강력한 힘에 맞닥뜨

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시점은 전쟁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분기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 역사적 회한의 중간에 맥아더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다. 직접 전쟁지도를 하지 않은 위치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 육·해·공군 3군총사령관 정일권 장군의 건의를 묵살한 것에 대해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맥아더 원수도 워커 사령관과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소장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과 얼마 전 유재흥 장군은 워커를 통해 아군을 청천강선에서 일단 정지시켜 잠시라도 부대정비와 휴식할 시간을 가지면서 전투태세 정비와 중공군 매복을 염두에 두고 정찰을 통해 적정탐색을 시도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241] 중공군의 존재를 직감한 워커 중장 역시 유재흥 소장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맥아더에게 동일한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러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신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워커 사령관도 북진을 지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맥아더는 물론 워커 사령관, 밀번 사단장 등 미군 최고위 지휘관들은 모두 곧 전쟁이 종결될 것 같은 "승승장구의 무드에 젖어 있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중공군 참전사실을 부정하고 "한결 같이 진격을 재촉했다."[242]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고 미 제8군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격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8군 예비로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기병사단을 불러 올려 한국군 제1사단을 앞질러 수풍댐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이미 10월 25일 중공군 제39군단과 서전이 벌어졌으며, 중공군이 전방에 잠복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북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전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쌍방이 서로 상대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운산에서의 이 전투에서 미 제1기병사단 제8연대가 포위되자 비로소 중공군의 파병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제39군단은 상대가 미군이 아니라 국군 제1사단인줄 알았고, 제1기병사단은 북한군을 공격하는 줄로 알았다. 교전이 그 만큼 돌발적으로 벌어졌음을 말해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이징에 앉아서 아군의 행로와 예상 진격로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작전개시를 앞당겼다. 10월 25일 오후 5시, 그는 펑더화이와 덩화에게 "적이 아군을 발견하기 시작"했으니 다음날 26일 혹은 27일까지 한국군 1~2개 부대를 포위해 도주를 못하게 하고 있으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증원군이 올 것이고, 그 때 다가오는 적 주력 2개 사단을 섬멸하는 게 어떨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243] 요컨대 아군 주력을 유인해 공격하라는 유인전술이었다. 그리고 10월 26일 새벽 4시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제66군단을 직접 지휘해 신의주-철산 지역을 지키고, 영국군 제27여단의 진격을 저지하라고 명령했다. 1시간 뒤 그는 재차 펑더화이에게 미 제24사단과 영국군 제27여단이 신안주에서 청천강을 넘었으니 중공군 제39군단에게 미군 및 영국군과 부딪치지 않도록 용산, 영변으로 가지 말고 태천에서 운산과 그 이북방향으로 나아가 제38·제40군단과 합동작전으로 한국군 제1·제6·제8사단을 공격하고, 공격이 성공하고 나면 영국군과 미군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244]

펑더화이는 적을 유인해 주력 2개 사단을 없애라는 지시에 대해 10월 25일 밤 7~9시 사이 마오쩌둥에게 답신을 보내 마오쩌둥이 상정한 불투명한 대규모 전과보다는 적은 규모의 적이라도 확실하게 섬멸하는 편을 선택했으며, 벌써 당일 밤에 전투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적이 부대마다 수 십대의 전차와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2~3개 사단을 섬멸하기란 심히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군단과 사단으로 나눠 먼저 1개 연대 혹은 2개 연대를 섬멸하여 적의 기선을 제압하고, 북한 측의 인심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적 1~2개 사단의 섬멸은 첫 번째 전역 기간 중에 여러 번 전투를 벌여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245]

10월 26일 오후 2시,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이 방안을 승인했다. 그는 펑더화이에게 보낸 답전에서 먼저 적군 몇 개 연대부터 섬멸한 뒤 점차 전과를 확대해 더 많은 적을 없애 인심을 안정시키고 중공군이 "발붙이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이 방침이 정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구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마오쩌둥은 작은 전투로 먼저 한국군 제1·제6·제8사단 등 3개 사단을 없

앤 후에 미군과 영국군을 공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과거 중국 국내의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 대규모 전역에서 한꺼번에 사단급 이상 대병력을 섬멸했던 경험을 살려보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제6·제8사단 포위 작전은 실패했다. 임무를 맡은 중공군 제38군단 제112사단이 우회지점에 늦게 도착한 탓이었다. 서전에서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희천의 한국군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한 과오를 범한 제38군단장은 펑더화이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는데, 그 내막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압록강변에서 약 200여 리 떨어진 희천지역에 집결하여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맡은 제38군단은 자동차가 준비돼 있지 않았고, 주간에는 미군의 공습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밤에만 행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하루 밤에 이동하는 거리라 해봤자 몇 십리에 불과해 산보 보다 더 느린 속도로 행군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38군단이 희천에 도달하기 전에 중공군총사령부에서 이미 한국군 제6사단의 일부와 제8사단이 각기 희천과 영원을 점령했다고 전보로 알려왔다. 이 상황에서 제40군단 만이 예정된 점령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고, 나머지 군단들은 예정된 점령지역까지 도달하려면 거리가 멀고 시간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중공군총사령부는 원래의 희천점령 작전계획을 바꿔 제38군단에게 제42군단 제125사단과 보조를 맞춰 희천 북쪽지역에 집결해 한국군 제8사단을 공격하도록 했다. 제38군단 군단장 량싱추는 군단작전회의에서 군단 예하 제113사단을 주공으로, 제112사단에게는 희천 동쪽으로 우회해 적을 측면에서 포위 공격하고, 적의 퇴로를 끊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제114사단에게는 예비대 임무를 맡겼다.



중공군 중 최정예 군단인 제38군단장 량싱추

그런데 작전개시 후 제38군단사령부는 갑자기 제112사단으로부터 이미 미군 1개 "흑인연대"가 희천을 점령했다는 전보를 받았다. 이 첩

보는 퇴각하는 북한군이 전해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첩보를 접한 량싱추는 중공군이 장비가 좋고 화력이 강한 미군을 상대로 섣불리 공격할 수 없고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에 신중히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정보를 중공군총사령부에 보고했다. 이 때 희천 공격을 담당하기로 된 제113사단 제338연대는 희천 외곽에서 아군과 마주쳤고, 제337연대도 희천 서북의 관대동에서 아군과 부딪쳐 그 일부를 물리쳤다. 이 두 연대는 바로 제113사단사령부에게 계속해서 희천을 공격할 것인지 지시를 요청했고, 사단사령부도 즉각 군단장에게 문의했다. 군단장은 제113사단에게 공격병력이 우세를 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희천을 공격하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제113사단은 제112사단이 희천 이동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뒤 제112사단이 10월 29일에 도착한 뒤 저녁 무렵에 희천을 공격했지만 한국군 제8사단은 이미 그날 새벽에 희천을 떠난 뒤였다. 그들은 단지 아군 낙오병 몇 명을 포획하는데 그쳤다. 제112사단이 늦은 이유는 사단장 양다이(楊大易)가 희천을 우회해 동쪽으로 가라는 군단장의 명령을 받았을 때 예하의 제334연대는 강계에 있지 않았고, 열차도 다니지 않아 행군으로 왔기 때문이었다. 제335연대도 압록강을 건넜지만 연대 병력 모두를 열차에 태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열차도 조명등을 사용할 수 없어 손전등으로 밤길을 더듬어 오느라 늦었다.[246]

한편 마오쩌둥이 소규모 적이라도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펑더화이의 방안을 승인한 같은 시각, 초산을 지나 계속해서 6㎞를 더 전진한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1대대 제1중대의 첨병소대가 압록강변까지 도달해 이곳에다 태극기를 꽂았다. 시각은 10월 26일 오후 2시 15분이었다.[247] 병사들이 압록강 물을 넣은 유리병에는 “압록수, 1950년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초산돌입 기념”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제7연대 제1대대는 압록강 최초 도달의 영광을 누린 부대였다. 장병들은 서로 얼싸안고 일제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가슴에 벅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풍찬노숙의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개가였다. 장병들은 병참보급이 여의치 않아 주로 주먹밥과 고추장에 단무지를 곁들인 것으로 때우는 등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뿐만 아니라 10월인데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날씨가 추

웠지만 민가를 피해 야지 위에 옥수수단을 풀어놓고 군장을 풀지 않은 채 모포 한 장만을 덮고 새우잠을 잤었다.[248] 그러면서도 사기를 잃지 않고 북진에 매진했던 장병들이었기에 그들이 흘린 눈물은 더욱 감격스러웠고, 값진 것이었다.

10월 26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가 초산에 당도한 같은 날 원산에 상륙한 미 제10군단 병력과 29일에서야 원산 북방 280㎞ 지점의 북청과 단천 사이에 위치한 이원에 상륙한 미 제7사단의 선두부대도 혜산진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해 장진호로 접근하고 있었다. 아군은 10월 말 시점엔 전체적으로 서부전선의 청천강 건너 정주-운산-초산-희천까지,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호-부전호-단천을 잇는 지역까지 육박했다. 최종 목표지점인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각기 대략 70~150㎞를 남겨둔 거리였다.

위기의식을 느낀 북한지도부는 9개 보병 사단(제32·제37·제67·제68·제69·제75사단, 특수부대, 보병학교, 정치학교, 전차연습부대 등) 15만여 명 규모의 북한군을 재편 또는 증설하기 위해 기존의 북한군 병력과 모든 참모들을 11월 3일까지 중국 둥베이의 콴뎬(寬甸), 하이룽(海龍), 옌지, 퉁화, 류허(柳河) 지역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했다. 이 계획을 10월 30일 북한주재 소련대사 쉬티코프(Terentii F. Shtykov)를 통해 스탈린에게 보고하면서 북한군의 사단교육과 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북한 주재 소련 군사고문관들을 유임시켜 주도록 요청했다.[249]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동서 양 전선에서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더 이상은 점령선을 북상시키지 못했다. 서부전선에선 국군 제1사단이 운산 주변 고지를 확보한 이후 밤마다 야간공격을 시도해오던 중공군 제40군단이 공격을 중지하자 국군 제1사단 정면에는 10월 28일까지 소강상태가 됐다. 마오쩌둥의 예상대로 10월 26일 국군 제1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제1기병사단의 주력부대들이 운산으로 속속 들어가자 워커 사령관은 제1사단에게 작전지역을 일부 변경해 원래 목적지였던 수풍댐 대신 온정리를 경유해 초산으로 진격하도록 하고, 미 제1기병사단에게는 삭주로 진격하라고 명령했다. 즉 목적지를 서로 맞바꾸게 한 것이다.[250] 하지만 미 제1기병사단은 11월 1일 밤부터 시작된 중공군 제

39군단의 포위공격에 밀려 패퇴하게 됐다. 중공군 가운데 최정예부대인 제39군단이 예하 8개 보병연대와 2개 포병연대를 투입한 이 전투에서 미군 중 최정예 사단인 미 제1기병사단을 패배시킨 것이다. 미 제1기병사단 역시 미국 건국시 창건된 부대였다.[251]

한국군을 공격하는 것으로 안 제39군단장 우신촨은 공격준비 후 오후 7시 30분에 공격을 개시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그런데 오후 5시경 전방에 수색을 마치고 돌아온 수색조의 보고를 받은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예정시간 보다 앞당겨 공격을 개시했다. 수색조가 목도한 후 보고한 것은 운산 외곽의 적 전차, 보병과 자동차들이 기동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252] 우신촨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자칫하면 적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공격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최정예 부대들 간의 대결"에서 제39군단이 미군 최정예부대를 물리친 이 승리는 중공군에게 미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크게 이바지했다.[253]

국군 제1사단은 미 제1기병사단이 움직이고 있던 10월 29일부터 30일에 걸쳐 탄막사격과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lose air support)을 받아 중공군 진지를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다. 같은 시기 제1사단의 우측방에서 온정리, 희천으로 나아가던 국군 제2군단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했고, 좌인접에서 박천을 공격하던 미 제24사단과 25㎞나 간격이 생겨나 사단 작전지역이 돌출됐다.[254] 또 서해안 축선으로 진격해 11월 1일 신의주 남동쪽 33㎞지점의 정거동까지 진격한 미 제2사단 제21연대 제1대대와 영국군 제27여단도 중공군 제66군단의 강력한 저지를 받아 퇴각했다.[255] 또 압록강변까지 도달했던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도 중공군에 퇴로가 차단당해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포위망을 뚫고 나왔지만 전력 손실이 많았다. 말하자면 북진하던 아군 부대들은 모두 중공군의 저지에 부딪혀 포위되어 고립되거나 혹은 공격을 당해 퇴각을 강요당함으로써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적전 와해됐고, 미 제1군단의 진격도 좌절됐다.

북진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워커 사령관은 맥아더 원수의 철수명령이 떨어지기 전 11월 1일 임의로 미 제1군단과 한국군 제2군단에게 북진정지명령을 내렸다. 미 제1군단에게는 일부 부대로 하여금 청천강 북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주력을 강 남안으로 철수하게 했고, 국군 제2군단에게는 우측방에서 방어대책을 세우게 만들었다.[256]

미군 중 최정예 사단인 미 제1기병사단이 패퇴하자 유엔군사령부는 다음날 11월 3일 모든 병력을 전 전선에 걸쳐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시켰다. 다행히 미군은 기계화 장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중공군에 비해 기동력이 뛰어나 하루 사이에 수 십리를 이동해 신속히 청천강 이남으로 퇴각한 후 방어선을 구축했다.

중공군은 연속 4일 간을 계속 공격했지만 퇴각하는 아군 일부를 사살했을 뿐 측방으로 우회, 아군을 분할해 3개 사단 규모의 병력을 없애라는 마오쩌둥의 지시는 달성하지 못했다. 미 공군 전투기의 빈번한 공습과 아군의 기동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사정 때문이었다. 이 즈음 11월초는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 소속의 YAK기가 안둥의 비행장에서 출격해 미 공군기에 대항하기 시작해 안주지역의 상공에서 미 공군의 B-29를 격추시키기도 했지만, 주로 압록강의 중북국경지대로부터 75㎞ 이내 지역 안의 수풍댐, 주요 교통선, 교량, 비행장 등을 보호하는데 치중했던 시기였다.[257] 따라서 소련공군은 청천강을 넘어 본격적으로 미 공군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시점이 아니었던 고로 중공군의 지상작전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오쩌둥의 계속 공격 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천강 유역의 한국군 3개 사단 섬멸이 불가능해지고 양식과 탄약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점을 고려한 펑더화이는 11월 4일 오후 3시 전문으로 마오쩌둥에게 평양부근까지 공격해 내려가라는 마오쩌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추격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즉 이번 전역은 적을 겨우 6~7개 연대밖에 없애지 못했지만 북한인민들의 민심을 안정시켰고, 중공군이 근거지를 가지게 됨으로써 계속 싸울 수 있게 된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적을 많이 없애지 못해 중공군의 전투력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적이 다시 반격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병사들이 극도로 지쳐 있었고, 탄약, 식량 수송도 곤란하지만 곧 닥쳐올 겨울의 혹한을 감안해 초전승리를 공고히 하고, 재차 싸울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했다.[258]

11월 5일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답전을 보내 그에게 평양부근까지 진격하라는 작전목표를 변경하고, 적을 청천강 이북지역으로 유인할 준비를 하라고 했다.[259] 이날 전보를 받자 펑더화이는 적으로 하여금 중공군이 약체라고 착각하도록 역량을 드러내지 않고 적을 깊이 유인하기 위해 즉각 중공군 전체에게 추격을 중지시켰다.

동부전선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국군뿐만 아니라 국군 제3사단과 임무를 교대한 후 11월 중순 함흥-강계 간의 험준한 산악로를 따라 장진호 방향으로 연속 7일을 전진하던 미 제1해병사단 제7연대도 장진호 남쪽의 황초령에서 중공군 제42군단 예하 제124사단과 제126사단 및 북한군 일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기습공격을 받았다. 미 해병과 중공군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전투였다. 기습공격을 가한 중공군 제124사단 예하 2개 연대는 즉각 북쪽으로 5㎞를 물러나 11월 4일 황초령 고개로 올라가는 도로가 내려다보이는 두 개의 고지에 진지를 구축했다.[260]

중공군 지휘부는 이로써 제1차 전역을 종결시켰다. 제1차 전역 시 펑더화이가 한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지 않은 것은 아군 주력이 그대로 온존해 있는데다 기동력이 빠른 기계화 부대들이 신속하게 후퇴해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기동력과 장비가 낙후된 중공군이 쫓아가 진지전을 벌이기엔 불리하고,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261]

제1차 전역이 끝나자 마오쩌둥은 이번 전투로 적에게 중공군의 참전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중공 당 기관지인 신화사(新華社)의 보도를 통해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모든 중국언론은 침묵해왔었다. 원래 펑더화이가 신문에 보도하되 중공군 부대는 언급하지 말고 북한군 총사령부가 공표하는 형식으로 참전사실을 밝힐 것을 건의한 바 있었지만, 마오쩌둥은 미국측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그에게 10월 27일 전보로 당분간 전투에 관해 보도하지 말고 일단락되고 난 뒤에 발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북중 쌍방의 협의하에 베이징의 신화사통신은 11월 7일 비로소 그간의 침묵을 깨고 북한 신의주 방송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중국의 참전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날 저우언라이는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정식으로 시인하였는데, “한국전선에 참가한 중공의 병사는 정규군이 아닌 의용군”이라고 강변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다. 이것은 그 전날 11월 6일 맥아더 원수가 중국의 참전을 유엔에 보고한 것에 대한 해명이었던 셈이다. 또 베이징방송도 처음으로 자국군 2,000명이 6·25전쟁에 참전하고 있다고 방송했다.[262] 중공군 선발부대가 10월 16일 압록강을 넘은 지 22일 만이었다.

언론이든, 정부든 그들은 모두 ‘중공군’이라는 단어는 일체 쓰지 않았다. 또한 “중국인민 항미원조 보가위국 지원부대”가 북한군총사령부의 지휘하에 참전했다고 강조했다. 이 점은 그들의 왜곡의도를 드러내준다. 의도는 물론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중국국내 군중의 정치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11월 18일 마오쩌둥은 중국정부 ‘신문총서’ 서장 후차오무(胡喬木)에게 모든 6·25전쟁 관련 보도는 반드시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을 같이 묶어 언급하라고 지시했다.[263] 중국과 북한의 신문들에 정식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의 명칭이 언급되고 작전상황이 보도된 것은 이보다 약 보름이 더 지난 1950년 12월 5일이었다.

2. 덫 : 아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유인작전

11월 5일 맥아더는 그동안 무시하고 부인해온 중공군 참전사실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했다. 한국 주재 미 대사관으로부터도 같은 사실이 워싱턴에 보고됐다. 다음날 유엔주재 미국대표는 유엔에 중국의 전쟁개입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했다. 미 행정부는 미 합참을 통해 맥아더에게 그 때까지 빠르게 진행돼오던 북진을 중국에까지 확전할 것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퇴각도 지시하지 않았다. 예컨대 11월 6일 미국은 행정부차원에서 한반도정세에 대해 긴급히 재검토했지만 맥아더에게는 영국과 협의 없이는 중국둥베이 지역에 관한 독단적인 행위를 취해선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그가 추진하고자 한 이 지역에 대한 폭격, 또한 압록강을 넘어 날아드는 적기에 대한 추격도 금지하면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

지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압록강을 넘어온 적기가 아군을 공격한 뒤 북중국경을 넘어가버리면 아군기는 작전제한에 묶여 추격이 어려웠다. 또한 맥아더는 압록강 철교를 폭격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쪽의 철교 부분만 폭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북한내 목표물에 대해서만 폭격하도록 제한했다.[264] 중공군이 2만명이 북한에 들어와 있다는 신문보도에 대해서도 워싱턴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265] 요컨대 미 행정부는 중공군이 개입한 사실이 분명해질 때까지 관망하자는 식으로 진퇴가 엉거주춤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맥아더는 오히려 11월 6일 공개적으로 "6·25전쟁은 평양 북방에서 포위한 적을 섬멸시키고, 동해안 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사실상 종결"됐다고 주장하면서 "북한군의 패배는 이제 결정적"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유엔군은 적절한 감시와 능숙한 기동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주장하면서 곧 재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266]

한편 미 행정부는 확전을 극구 반대한 영국정부와 입장을 조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은 홍콩문제에 이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더 이상 적대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1월 3일 급거 워싱턴으로 날아온 애틀리(Clement Attlee) 수상이 다음날부터 5일 연속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의 대외정책을 움직이는 딘 애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 마셜 국방장관 등의 정부 고위 인사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졌다. 여기서 조율돼 나온 결론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유럽에선 나토(NATO)를 강화하고, 한반도에선 유엔을 통해 휴전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유엔군을 한국에서 임의로 철수시키는 일은 고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267] 미국은 전쟁을 한국내로 제한하고, 38도선에서 휴전을 유도한다는데 동의했다. 양국 모두 중국에까지 지상전을 확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측은 중국에게 유엔의석을 부여하고, 타이완문제를 유엔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등의 양보를 통한 중소분리정책을 취하자는 영국의 의견에는 반대했다. 미국이 반대한 이유는 유화책을 선호한 영국과 다른 판단, 즉 양보는 단지 적의 공격을 합리화 시켜주고, 공산진영을 단결시켜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타이완을 공산중국으로부터 분리해 중립화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268]

유엔군이 압록강으로 접근하면 중국둥베이 지역에 대한 폭격과 중국과의 결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럴 경우 소련 공군이 참전하지 않을까 우려한 영국은 북진을 대략 북위 40도의 정주-덕천 선에서 멈추고, 이 선 북쪽을 비무장지대화 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중순 다시 한 번 워싱턴에 전달된 이 안은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비무장지대는 중국이 포함된 유엔위원회의 감시 하에 두자는 것이었다. 일견 이 안은 압록강 양쪽에 좁은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자는 미국의 안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유엔군이 이미 제안된 선 위쪽에 진출해있던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었다.[269]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원자탄이 즉각적으로 사용돼선 안 되고, 또 한반도를 넘어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애틀리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래서 영연방 소속 유엔 참전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타이완의 중국국민당군을 이용하겠다는 맥아더의 건의를 워싱턴이 보류한 터였다. 미국 군부에서는 원자탄의 적절한 목표지 선정이 어렵고, 미 공군기가 중국 둥베이 지역을 공격할 때 소련이나 중국 또는 두 나라가 합동으로 보복해올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 시기 전장에서 중공군이 제1차 전역 이후로 종적을 감춘 뒤 계속 발견되지 않았을 정도로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은 사실 때문에 유엔군 내에는 중공군과 싸우거나 협상하지 않고도 한국통일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었다. 사실상 중·서부 전선에서 중공군 제1차 기습공세에 부딪혀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해 방어선을 형성한 아군은 11월 6일부터 줄곧 청천강 이북에 대한 위력정찰을 실시했음에도 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시점 중공군은 운산전투 이후 모두 산악지대로 숨어 다가올 결전을 위해 부대를 재편성하고 전력을 가다듬고 있었다. 당연히 아군은 중공군이 제2차 공세를 준비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제1차 전역에서 유엔군 주력에 타격을 가하지 못한 마오쩌둥은 이번에는 적 7~8개 연대를 괴멸시키고 전선을 평양-원산간의 평원철도선 지역으로 넓히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펑더화이는 한국군과 유엔군이 아직 중공군의 실체나 전투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반격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11월 4일 오후 3시 마오쩌둥에게 병사들이 극도로 피로한데다 양식과 탄약도 부족하고 곧 추위가 다가오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로 하고, 특히 도로를 넓혀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270] 이에 마오쩌둥은 원산-순천 철도선 이북지역에 새로운 전장을 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여전히 덕천-구장-영변 이북 및 이서 지역을 확보해 장기전으로 가고자 한 의도에서였다. 또한 아군이 새로운 방어선을 조직적으로 형성하지 못하도록 제38군단에게 정면의 한국군 제7사단의 1~2개 연대를 없애라고 지시했다.[271] 11월 5일 밤 10시 강계, 장진 방면의 방어를 송스룬의 제9병단에게 전담시키고, 그 예하 1개 군단을 강계, 장진 지역으로 보내라고 하면서 "적을 깊이 유인하고 기회를 보아 적을 각개 격파"하라는 방침을 하달했다.[272]

그런데 청천강 이북지역에 대한 미군의 반격을 예상한 펑더화이도 중공군 부사령관 덩화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의로 적에게 전력을 약하게 보여 미리 준비해둔 유리한 지역으로 유인(示弱誘敵)해 각개 격파하는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273] 그는 이 구상을 제1차 전역이 끝난 직후인 11월 8일 오후 3시 마오쩌둥에게 보고해 다음날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이렇게 운용될 예정이었다. 제38군단 1개 사단을 청천강 남안을 따라 저항하는 척하면서 적을 묘향산 지역으로 유인해 요충지를 방어하게 하고, 나머지 군단 주력 2개 사단을 하행동, 구장 동쪽과 덕천 이동의 산악지대에 매복시켜 놓는다. 또 제42군단 주력에게는 엄호를 맡긴다. 그리고 제9병단이 도착하면 제125사단의 협조를 받아 덕천 동북쪽, 덕현, 행천동, 교관리 지역에 집결한다. 제9병단은 전투를 개시한 후 제38군단 주력과 협조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진격한다. 제39·제40·제66군단 주력은 온정리, 운산, 태천, 구성 지역에서 1주일을 휴식하면서 흩어진 병력을 수색하고, 양식과 탄약을 보충하고 도로를 보수한다. 이 상태에서 만약 적이 전진해오지 않으면 제9병단이 전투개시 후 적을 움직이도록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3개 군단을 덕천 및 그 이남지역에 집중시켜 적을 섬멸해 전장을 남쪽으로 약간 밀고 나가 장기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274]

유인작전과 관련해 부대 운용계획을 보고하면서 펑더화이는 희천-행천동-영원간 도로를 수리 및 확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오쩌둥에게 소련에 주문한 자동차는 언제 도착하느냐고 문의했다. 마오쩌둥은 소련에 요청한 자동차들은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덕천-영원-맹산 간 도로는 확장하되 하나가 아닌 여

러 길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뒤쪽의 각 도로들이 확장되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이내에 동서 양 전선에서 각기 1~2차례 전투를 치러 적 7~8개 연대를 격멸하고 전선을 평양-원산 철도선까지 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275]

이 시점에서 참전 전 덕천-영원선 이남과 평양-원산 이북 일대에서 방어전을 치르려고 한 마오쩌둥의 구상이 전황변화에 대응해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시키려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 구상은 11월 13일 그가 스탈린에게 전황을 통보한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는 중공군 제116사단이 서부전선에서 이미 1차 타격을 가해 근거지를 마련했으며, "다시 한 번 이 전선의 적 8개 사단에게 1~2차례 더 비교적 큰 타격을 입힐 수만 있다면 이 선에서의 방어 국면이 공격 국면으로 바뀔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276]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마오쩌둥은 서부전선에 중공군 주력을 투입한 지난 제1차 전역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동부전선에도 병력을 증강시켜 원산까지 밀어붙이기로 했다. 중국지도부는 병력증강을 위해 이 시기 일선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병력이 3개 군단 14개 사단 7만 5,000명 정도로 수습된 북한군을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김일성과 지휘권통일 문제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군은 제외됐다.[277] 중국수뇌부는 이 문제를 두고 김일성과 중북연합사령부 설립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2차 전역에는 북한군과의 합동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시기 여전히 패잔병 수습단계에 있던 북한군은 독자적인 전투를 치르기 보다는 후방의 게릴라전에 치중했다. 예컨대 11월 17일 김일성은 북한군 제2군단장에게 청천강에서 어랑천까지 1,000㎞가 넘게 아군의 병참선이 길어졌는데다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 사실을 아군의 약점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용해 반격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그는 황해도와 강원도의 광활한 지역을 장악해 이곳에서 적후 게릴라전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278] 김일성은 북한군의 주공 방향을 서부전선에 두고 전전선에 걸쳐 반격을 가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착수는 미지수였다.

북한군 대신 동부전선에 증강된 부대는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10월 31일 산

둥을 떠나 11월 7일에 입북한 화둥군구의 제9병단이었다. 송스룬과 타오융(陶勇)이 이끄는 제9병단은 예하에 제20군단(제58·제59·제60·제89사단)·제26군단(제76·제77·제78·제88사단)·제27군단(제79·제80·제81·제94사단) 12개 사단 총 병력 15만여 명으로 편제돼 있었다.[279] 이 병단은 원래 산둥에서 둥베이로 이동해 그 곳에서 2개월 정도 훈련한 뒤에 한반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마오쩌둥의 지시로 예정 보다 앞당겨 북한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로 인해 부대원 전체가 동계 피복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에 임하게 됐을 정도로 참전준비가 부실했다.

제9병단 예하 각 군단별 압록강 도강시간, 도강지점 및 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제27군단은 11월 4일 안둥에서 도강하여, 신의주를 향해 진격해간 영국군 제27여단을 공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제27군단은 11월 7일 안둥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12일 린장에서 한반도로 진입해 11월 17일부터 21일 전후까지 차례로 장진호 동서 지역과 그 북쪽의 예정된 공격지역에 배치됐다. 제20군단은 지안에서 강을 건너 강계, 운송동을 지나 17일 장진호 부근의 유담리 이서 지역과 서북쪽에 도달했다.[280] 제26군단은 제9병단 예비이자 중공군 전체의 예비부대로 지정돼 11월 21일 허후창장커우(厚昌江口) 지역에 도착, 집결을 완료했다.[281] 제9병단 주요 지휘관들의 군사경력은 아래 도표의 내용과 같았다.

<표 3-6> 중공군 제9병단 주요 지휘관 군사경력

소속		직위	성명	본적	연령	주요 군경력	비 고
제9병단	병단 사령부	사령관 겸 정치위원	송스룬	후난 리링(醴陵)	43세	장정참가. 홍군 제30군단장, 28군단장, 제8로군 제4종대 사령관	중공군 부사령관이 됨. 제2·제4·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전 참가
		부사령관	타오융	안후이 후어추(霍丘)	37세	장정참가. 홍군 신4군제1사단 부사단장, 화둥야전군 제4종대사령관, 제3야전군 제23군단장	제2·제4·제5차 전역, 1951년 진지방어전 참가
		참모장	탄젠(覃健)	광시(廣西) 둥란(東蘭)	39세	장정참가. 홍군 제15군단 작전과장, 제8로군 제115사단 제344여단장, 화둥야전군 제12종대 부사령관	제2·제4·제5차 전역, 1951년 진지방어전 참가

소속		직위	성명	본적	연령	주요 군경력	비 고
제9병단	제20군단	군단장 겸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후난 류양(瀏陽)	36세	장정참가. 신4군 제1종대 제3여단장, 제3야전군 제20군단 부군단장	사병에서 장군까지 진급한 입지전적인 인물, 제2·제5차 전역 참가
	제26군단	군단장	장런추(張仁初)	후베이 황안(현 홍안)	41세	장정참가. 홍군대학에서 수학, 루중(魯中)군구 참모장, 화둥 야전군 제8종대 부사령관 겸 참모장	제2·제4·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전, 1952년 춘하계 진지전 참가
		정치위원	리야오원(李耀文)	산둥 룽청(榮城)	34세	루중(魯中)군구 제9사단 정치위원, 화둥 야전군 제8종대 정치부 주임	제2·제4·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전 참가
	제27군단	군단장	펑더칭(彭德淸)	푸젠(福建) 퉁안(同安)	39세	신4군 종대 부사령관, 화둥야전군 제4종대 제12사단장, 제3야전군 제23군단 부군단장	제2·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전 참가
		정치위원	류하오톈(劉浩天)	장시 닝두(寧都)	38세	장정참가. 루중군구 정치부 부주임, 화둥 제9종대 정치부 주임 겸 제25사단 정치위원	제2·제5차 전역 1951년 하추계 진지전 참가

제9병단 예하 3개 군단 12개 사단 15만 여명이 증원됨으로써 제2차 전역 개시 하루 전인 11월 24일 중공군의 병력 수는 9개 군단(제20·제26·제27·제38·제39·제40·제42·제50·제66군단) 30개 사단 약 46만 명으로 늘어났다.[282] 이 중 전투부대는 38만 명이나 됐다. 피아 병력대비는 유엔군 55만 3,000여 명과 비교해 1.45 : 1로 유엔군이 우세했다.[283] 약 46만 명이라는 수치는 전투병력 38만 명에다 11월 중순 북한으로 들어와 후방방어에 투입된 중국인민해방군 공안 제18사단 등을 포함해 병참부대 등 비전투 병력을 포함한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 공안 제18사단의 임무는 후방방어에 그치지 않고 후방의 아군 수색, 경비, 포로압송, 대공경계, 보급물자 수송 등을 맡았다.[284]

전투병력 38만 명 중 제13병단 소속 6개 군단 18개 사단 23만여 명이 서부전선에 배치됐고, 제9병단 소속 3개 군단 12개 사단 15만여 명은 동부전선에 배치됐다. 11월 13일 중공군 지휘부는 당위원회확대회의를 소집해 제1차 전역을 총결산하면서 제2차 전역의 병력배치를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펑더화이는 중공군이 초전 승리 후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후퇴한 이유에 대해 중공군의 역량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의 착각을 증가시켜 적을 깊이 유인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1차 전역이 끝난 뒤인 11월 7일부터 중공군은 수세에 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한국군 및 유엔군과 조우하거나 혹은 전투 중 후퇴할 때면 연도에 파손된 구식 장비, 개인 화기 등의 무기와 배낭들을 버리기도 했다.[285]

심지어 11월 18일 밤부터는 포획한 미군과 한국군 포로 중 103명(미군 27명, 한국군 76명)을 풀어주기도 했다. 포로석방은 제2차 전역을 치루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사전에 마오쩌둥 등 중공군 수뇌부의 각본에 따라 취해진 다목적용 조치였다.[286]



적에게 포로가 된 미군 장병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날들을 보냈지만 뜻밖에 석방되기도 했다.

첫째, 미군 지도부로 하여금 중공군의 참전목적이 압록강 수풍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병력도 6~7만 명에 지나지 않고, 곧 중국으로 돌아갈 것처럼 판단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런 의도에서 중공군 지도부는 포로들을 풀어주기 전에 그들에게 짐짓 중공군은 식량이 부족해서 귀국하려고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고, 포로들로 하여금 미군 지도부에게 중공군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해주도록 교사했다. 중공군이 계획적으로 퍼트린 이 같은 거짓 정보는 유엔군에게 그대로 적정판단의 자료로 활용된 점으로 보아 상당히 먹혀들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전투 중 포획한 중공군 포로들로부터도 비슷한 진술을 들은 유엔군 지휘부는 중공군이 압록강의 수풍댐을 보호하기 위해 6만 명 정도만 북중국경을 넘어왔고, 대규모 주력은 압록강 북안에 주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287]

둘째, 모든 포로들에게 일정한 현금까지 제공해줬고, 포로 중 부상자에게는 치료까지 해준 뒤 도로상에 풀어줘 중공군이 포로를 우대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한국군 및 유엔군의 저항정신과 적개심을 묽게 만들 의도였다. 사실상 11월 18일 아군 포로가 풀려나자 바로 당일 미국의 신문매체에는 중국의 포로대우가 인도주의적이라고 보도됐다. 이에 고무된 마오쩌둥은 11월 24일 펑더화이, 덩화, 박일우, 홍쉐즈, 가오강, 허진넨 등 중북 양군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미군포로 석방이 국제적으로 대단한 선전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300~400명의 포로를 더 놓아줄 것을 지시했다.[288]

중공군 당위원회확대회의에서 펑더화이의 설명이 끝나고 중공군의 전투방침이 정해졌다. "공군, 포병, 전차가 아직 적당할 만큼 조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동전, 진지전, 유격전을 결합해 내선과 외선을 결합"시키기로 했다. 또한 "만약 적이 공격해오지 않으면, 우리가 공격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적군의 거점을 포위해 전투를 지원함으로써 적의 병력배치를 바꾸게 하기로 하고(圍點打援, 調動敵人), 제38군단과 제42군단에게 덕천에서 적 후방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도록 했다.[289]

이즈음 11월 중순을 거치면서 미 행정부는 중공군의 개입규모와 배치상황에 관한 정보들을 종합한 결과, 넓고 험준한 지역에 분산된 유엔군이 심각한 군사적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맥아더 원수로 하여금 즉

각 전선의 부대들을 안전한 후방지역 방어선으로 철수하게 만들 새로운 훈령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백악관에서 국방장관,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이 참석한 수차례의 대책회의가 소집됐지만 참석한 세 사람 중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결정적 조치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건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들은 11월말에 이르도록 맥아더의 군사적 모험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맥아더의 작전훈령을 규제해야 할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은 역설적이게도 맥아더가 작전을 계속 수행함에 따라 중공군의 대규모 기습을 받았을 때까지 미루어졌다.[290]

이 사이 중공군의 의도와 동향을 간파하지 못한 맥아더는 본국 행정부의 사태관망 의도를 무시한 채 중국과의 전면전을 역설하면서 중국둥베이 지역에 대한 폭격과 중국 본토의 봉쇄, 타이완의 중국국민당 군대의 전쟁참여, 그리고 원자탄을 사용할 것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재공격을 준비했다. 맥아더의 의중에 적극 호응한 워커의 지시로 11월 6일 새로운 공격작전계획을 세운 미 제8군사령부는 11월 15일을 기해 공격을 재개할 계획으로 공격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재공격 개시는 작전에 필요한 보급물자의 미확보로 연기됐다.[291]

청천강 전선까지 군수 보급품을 도달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로 서울-임진강-평양 철로를 보수하고, 진남포항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한편 유엔군의 전투력 보강작업의 일환으로 미 제2·제25사단, 터키여단(예비)으로 편성된 미 제9군단(군단장 John Coulter 소장)이 전선에 투입돼 전선재배치가 이뤄졌다. 미 제8군의 부대배치는 미 제1군단(미 제1기병사단, 미 제24사단, 한국군 제1사단, 영국군 제27여단-예비), 미 제9군단, 한국군 제2군단(제7사단, 제8사단, 제6사단-예비)이 좌측 서해안에서부터 중부지역의 낭림산맥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다. 초산을 향하도록 돼 있던 국군 제1사단은 중공군의 기습공격에 밀려 일시 후퇴했었다가 이 시기 청천강을 넘어 다시 박천에 집결해 공격개시 명령을 기다렸다. 이윽고 군수지원을 위한 각종 준비가 이루어지자 워커는 11월 24일을 공격일로 잡았다.[292]

이 사이 국군은 청천강 너머 좌측방의 정주에 도달했다. 크게 북중 국경지역인 압록강변의 혜산진과 두만강 방향 두 갈래로 진격이 이뤄진 동부전선에선 아군은

장진호→혜산진, 이원→혜산진, 길주→청진, 길주→합수 방향에서 간간히 시도된 북한군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전진했다. 진격 축선별로 보면 첫째, 황초령에서 중공군 제42군단 예하 2개 사단과의 첫 전투에서 희생을 치르면서도 중공군을 퇴치한 미 제1해병사단(사단장 Oliver P. Smith 소장) 제7연대가 미 해병항공대의 지원하에 진격을 계속해 11월 10일 고토리, 16일 장진호 남단 하갈우리를 거쳐 24일 시점에는 장진호 서쪽의 유담리를 점령한 상태였다.[293]

둘째, 국군 수도사단 대신 동해안의 이원에서 혜산진을 향해 전진을 시작한 미 제7사단 예하 3개 연대는 북청, 황수원리로 나아갔다. 이 중 제17연대가 갑산을 거쳐 11월 21일 오전 혜산진까지 도달해 유엔군 가운데는 처음이자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에 이은 두 번째로 이곳에 성조기를 꽂았다.

셋째, 미 제7사단에게 부전호-풍산지역 진격임무를 인계한 후 동해안의 성진으로 진격한 국군 수도사단(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예하 3개 연대(제1기갑·제1·제18연대)가 화대, 길주, 제덕, 명천, 어랑천, 경성을 거쳐 11월 21일 주을, 23일 경성을 점령한데 이어 24일 아침 나남에 진입함으로써 함경북도까지 진출한 상태였다.[294]

넷째, 국군 제3사단은 원산-함흥 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게 인계한 후 예하 3개 연대(제22·제23·제26연대)가 11월 8일까지 홍원, 신포, 신북청 지역에서 국군 제1군단 작전지역 내의 후방경계에 임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제26연대가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돼 홍원에서 지경리로 이동했다. 나머지 2개 연대는 19일부터 진격해 성진, 길주를 거쳐 22일 합수를 점령했고, 합수 전방 5㎞ 지점의 백암 탈환을 눈앞에 둔 상태였다.[295]

다섯째, 상기 한국군과 미군 각 부대들이 혜산진과 두만강 방향으로 전진함에 따라 공백이 된 원산-함흥 지역 후방은 전력 강화를 위해 미 제10군단에 배속돼 전선에 투입된 미 제3사단(사단장 Robert N. Soule 소장)이 미 제1해병사단으로부터 임무를 인계 받아 맡게 됐다. 미 제3사단 예하 3개 연대(제7·제15·제65연대)는 일본(제7·제15연대)과 부산(제65연대)을 출발해 11월 17일까지 모두 원산에 상륙을 완료한 뒤 원산-함흥간 해안지역을 방어하면서 지역내 주요 도로 통

제, 북한군의 우회 차단 및 후방 게릴라의 준동을 봉쇄하는 임무를 맡음으로써 미 제10군단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 도중 중공군의 계획된 후퇴로 인해 적의 큰 저항을 받지 않고 진격이 저지되지 않자 맥아더는 장진호에서 서진하려는 미 제10군단과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일제히 한중, 한소 국경선으로 진격하는 "끝장 공세"(end-the war offensive)를 펴면 적어도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이러한 판단에서 성탄절 이전에 전쟁을 종결짓겠다고 공언한 맥아더는 전쟁의 조기종결을 목표로 11월 24일 총공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당일 오전 10시를 기해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296]가 개시됐다.

전체적인 진격계획은 서부전선에서부터 미 제8군 예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각기 좌익과 중앙을 맡았고, 그 우익에 한국군 제2군단을 포진시켜 3개 군단으로 하여금 폭 100㎞의 전투정면을 가지게 됐다. 맥아더 원수로부터 진격재촉을 받은 워커 사령관은 미 제9군단이 그간 후방에서 맡아온 경계임무를 갓 신설된 국군 제3군단에게 인계하게 한 후 이 군단을 청천강 방어선에 투입했다. 미 제9군단은 운산-온정리 축선으로 진출해 초산으로 돌입하고, 국군 제2군단은 미 제9군단과 보조를 맞춰 희천-강계-만포 축선으로 공격한 뒤 계속해서 압록강 국경선으로 전진하기로 됐다.[297]

또한 미 제1군단을 안주-태천 축선을 향해 올라가 군우리(현 개천)-희천 지역으로 나아가게 했다.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게는 미 제8군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진진로를 바꿔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을 장진호 북서쪽의 유담리에서 무평리로 서진하게 해 국군 제2군단과 연계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격개시선은 서해안의 박천 부근에서부터 용산동 북쪽-입석 북쪽-구장동-덕천-영원을 잇는 선이었다.[298] 공격 개시 첫날 아군은 10~15㎞씩 전진했다.

이날 맥아더는 토쿄의 하네다 비행장을 출발해 신안주에 내려 워커와 밀번의 안내를 받아 정주의 미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미 제9군단, 미 제24사단 등의 전방부대를 시찰했다. 조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미 극동공

군사령관, 에드윈 라이트(Edwin K. Wright) 유엔군사령부 작전참모, 윌로비 정보참모, 참모장 대리 도일 힉키(Doyle Hickey), 커트니 휘트니(Courteny Whitney) 민정국장 등의 측근 참모들이 토쿄에서부터 맥아더를 수행했다. 전선시찰을 마친 그는 귀임 길에 갑자기 조종사에게 기수를 돌리게 해 곧장 압록강 남안을 따라 비행하면서 직접 중국 둥베이 지역까지 관찰하고 돌아갔다.[299]



전선 시찰차 최일선까지 날아온 맥아더 원수와 그의 참모들

토쿄로 돌아간 다음날 토요일 맥아더는 유엔군이 총공격을 개시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종군기자들은 "크리스마스 공세"작전에 참여한 유엔군의 병력 수, 부대 배치 상황을 신문지상에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아군의 작전계획이 전 세계에 공표된 것이다.[300] 軍司급 이상의 작전보도가 아무런 통제 없이 신문지상에 보도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실패요인이었다. 적에게 아군의 작전의도가 가늠되고 행로를 가르쳐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중공군 정보요원들과 종군기자들은 이러한 보도들을 수집해 중국수뇌부에 한 건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보고했다. 마오쩌둥이 적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작전을 짤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오만에서 비롯된 맥아더의 보안의식의 마비가 가져다 준 유리거울 "정보" 덕분이었다.

그런데다 맥아더의 부대배치와 진격은 전술상의 허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낭림산맥이 가로 놓인 지형관계로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사이에는 150㎞에 달하는 거대한 공백지대가 존재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였다. 특히 미 제10군단은 소속 예하 부대들이 과도하게 함경북도에만 산재돼 있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맥아더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즉 북진초기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제8군과 제10군단의 간격과 군수보급로의 신장은 중공군이 대규모로 참전했을 경우 분명 유엔군을 진퇴양난에 빠트리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난국은 중공군이 조직적인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전에 먼저 강력한 공격으로 북중국경선까지 진출해 전쟁을 조기에 종결지음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이 맥아더의 복안이었다.

미 국방부와 합참 역시 맥아더의 총공격계획에 내포된 군사적, 외교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의 군사작전이 가져올지도 모를 중국의 군사개입과 이를 우려한 유엔참전국들의 의견부조화를 고지했을 뿐 작전실행을 분명하게 제어하지는 않았다. 미 행정부 수준에서 결정한 "행동준칙"(a course of action)을 전한다고 하면서 유엔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하고 나서 취할 조치에 관해 맥아더의 견해를 묻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미 합참이 제시한 행동준칙상의 조치는 유엔군이 압록강 근처까지 도달하고 난 뒤 점령지로부터 대체로 미 제17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혜산진 일대를 잇는 선상의 고지대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그 전방지역에는 주로 한국군을 배치하라는 것이었다.[301]

맥아더는 다음날 11월 25일 즉각 미 합참에서 제시한 "그러한 처리방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나 소련의 참전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합참의 행동준칙을 받아들이길 단호히 거부했다. 또한 그는 애당초부터 중국의 군사개입을 계산에 넣었다고 하면서 현재 유엔군이 압록강 지대를 점령하고 있음에도 소련이나 중국은 어떤 군사적, 정치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압록강 남안까지 유엔군이 장악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302]

요컨대 트루먼대통령과의 웨이크섬 회담에서 맥아더가 언급한 전술적 원칙, 즉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자연방어선인 압록강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점령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의 군사개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맥아더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은 둥베이 지역에 주둔시킨 30만 명의 군대 가운데 5만 내지 6만 명을 압록강 너머 북한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공군력이 없는 그들로서는 한국에 공군기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한 미 공군기에 분쇄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그는 만일 중공군이 평양으로 밀고 내려올 경우 "아마도 전례 없는 대학살이 그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303]

겉으로 드러난 형세는 전반적으로 맥아더의 장담이 실현될 듯했다. 그러나 낭림산맥을 경계로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의 전황은 상반된 양상이었다. 서부 및 중부전선의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병력손실과 보급의 어려움으로 진격이 벽에 부딪친 반면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북진했다. 제10군단의 북진이 비교적 순조로웠던 이유는 중공군 지휘부가 아군을 유인하기 위해 1차 공격 후 바로 퇴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진호 방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공군과 비교적 간단한 초전을 치르게 됐을 뿐, 앞서 살펴봤듯이 한국군 수도사단은 청진까지, 국군 제3사단은 합수까지 진출해 두만강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또 미 제7사단은 백두산이 바라다 보이는 압록강 상류의 혜산진까지 돌입한 상태여서 일견 사단에 부여된 작전을 완료할 듯이 보인 형세였다.

3. 대역전 : 아군의 전략적 후퇴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그런데 하루 만에 맥아더의 확신이 오만이었음이 드러난 사태가 눈앞에 전개됐다. 첫날 아군의 공세는 순조로웠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중공군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공군 지휘부는 거대한 공백지대가 발생하게 된 맥아더의 북진작전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이용해 아군의 후방으로 깊숙이 공격해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공세'가 시작된 11월 24일 서부전선의 중공군 배치를 조정한 뒤 마오쩌둥의 재가를 받았고, 달빛을 이용한 야간전투를 감행하기 위해 그 이튿날 25일 밤에 총공격을 개시하기로 계획했다. 원래 마오쩌둥은 11월 25일 중공군이 하루 이틀 사이로 더욱 분명하게 한국군과 유엔군에 발각될 것으로 보고 예정보다 앞당겨 11월 26일이나 27일 경에 제2차 공세를 개시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중공군의 지역별 작전계획과 병력배치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중공군총사령부는 그대로 대유동에 두고, 서부전선에선 제50군단이 정주 동쪽 청천강 이북의 영군군 제27여단과 함께 미 제1군단을 공격하고, 제39·제40·제66군단이 미 제9군단을 협공한다. 제38·제42군단이 덕천 후방으로 공격해 들어가는데, 제38군단은 삼소리와 용원리로 들어가 미 제9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고, 제42군단은 신창리로 공격해 들어간다.

동부전선 중공군 제9병단의 작전목표는 김일성 정권의 임시 "수도" 소재지인 강계, 장진 방면에 대한 방어와 함께 장진호까지 들어온 적을 깊숙이 유인해 각개 격파하는 것이었다. 먼저 장진호 지역으로 진격해오는 미 제1해병사단의 주력인 제5연대와 제7연대(감편)를 섬멸한 후 전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 제1해병 사단 예하에는 3개 연대(제1·제5·제7), 포병연대 그리고 전차 및 공병지원 부대가 있었다. 이 중 제1연대가 전투력이 가장 강했다. 한국군 수도사단, 제3사단, 미 제7사단 및 미 제1해병사단 등 4개 사단을 각개적으로 격파하는 것이 중공군 지휘부가 노린 전과확대의 1차적 범위였다.

중공군 제9병단 사령관 송스룬의 작전계획에 따라 예하 제27군단은 장진호 양측에서 정면을 공격하는데, 예하 제79사단과 제94사단을 호수 서쪽에서 유담리의 미 제1해병사단의 2개 연대(제5·제7연대)를 포위하기로 했다. 또 제80·제81사단은 호수 동쪽에서 신흥리, 내동 고개의 미 제7사단과 제31연대와 제32연대 제1대대를 포위 공격하기로 했다. 제20군단은 장진호 서쪽에서 공격하는데, 예하 제58사단이 하갈우리로 들어가 장진호 동서 양측 미군의 연계를 차단한다. 또 제59사단은 사응령의 미군을 공격해 퇴로를 끊는다. 제60사단은 황초령, 고토리의 미 제

1해병사단 사령부를 공격해 보급로를 차단한다. 제89사단은 사창리의 미 제3사단 제7연대 제1대대를 공격해 동서 연계를 차단한다. 그리고 제26군단은 제9병단 예비대였다.[304] 3개 군단을 동시에 투입하지 못한 이유는 전선까지 군수물자를 공급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11월 25일 밤, 중공군은 먼저 서부전선에서 제2차 전역을 개시했다.[305] 이날 밤은 중공군이 기대한 대로 보름달이 떴다. 동부전선에선 준비부족으로 이틀을 늦춰 달라는 제9병단 사령부의 건의로 11월 27일 저녁 무렵에 공격이 개시됐다.[306] 중공군은 먼저 신흥동의 미 제2사단 주력을 공격하기 위해 포병의 엄호사격 하에 제40군단 소속 제369연대의 4개 돌격중대가 청천강을 건너 신흥동, 구장 사이의 아군 접선을 차단하려고 시도했다.

중공군의 제2차 전역이 개시되자 11월 5일 맥아더가 미 극동공군 사령관에게 향후 2주간 공습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한 이래 그 동안 삭주, 북진, 신의주, 청진 등지를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미 공군 B-29기의 대규모 공중폭격이 11월 24~26일, 29~30일 만포진 철교, 청성진 인도교, 남산리 철교 등에 집중됐다. 특히 29일부터는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지원에 나섰다.[307] 서부전선의 유엔군과 한국군이 공격 개시 첫날 순조롭게 6~12㎞ 정도 전진한 것도 매일 평균 100여 대의 전투기가 출동한 공중지원에 힘입은 바 컸다. 이 기간 공군작전의 일환으로 미 공군기는 중공군총사령부의 무선설비를 파괴할 목적으로 대유동 일대에 폭격을 퍼부었다. 이 폭격으로 마오쩌둥의 장남이자 그가 자식들 중 가장 총애한 28세의 마오안잉이 사망했다. 문서수발과 러시아어 통역을 맡은 그가 근무하던 중공군총사령부는 당시 방공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308]

중공군은 미군의 공습을 피해 야간의 달빛에 의지해 6개 군단이 200㎞나 되는 광활한 정면을 동시에 공격하는 대규모 야간전투로 대응했다. 과거 국공내전 시 중공군은 별빛이 있는 날 밤은 소규모 전투를, 보름달이 있는 날밤은 대규모 야간전투를 벌이곤 했듯이 이 날도 역시 그랬다. 어떤 전선에서든, 또 대적하는 상대가 누구이든 중공군 전술의 요체는 선택과 집중이었다. 즉 먼저 타격할 적을 선택하고, 가용한 병력을 적보다 최소 3배 이상 집중해 공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론가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가 장수는 평소에도 “자신의 병력을 집중시켜 놓아야 할”(keeping one's forces concentrate)뿐만 아니라 전투 발발 시에도 “결정적 지점에서 강력한 병력을 보유”(to be strong at the decisive point) 하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 주장을 상기시킨다.[309]

각개로는 군사력이 열세지만 병력을 집중하면 전투력이 증강되는 이치로서 특정한 소수의 적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섬멸하는 전법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공군의 전술교범에 의하면, 적군의 정면을 공격하는 부대는 우세한 병력과 무기를 결정적 방향에 집중하는데, 미군에 대해서는 5배, 한국군에 대해선 3배의 병력우세를 가져야만 공격을 결행하게 돼 있었다. 감제고지와 요로를 장악하는데는 합동으로 포위망을 형성하기로 돼 있었다.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병력, 화력을 분산시켜 각개적으로 섬멸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적의 군단, 사단에 대해선 통상 1개 제대로 공격하고, 전체 병력 중 9분의 1을 예비대로 삼는 것으로 돼 있었다.[310]

중공군 6개 군단은 제1차 공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사이에 위치한 한국군 제2군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국군 제2군단은 전력이 미군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약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제1차 전역 시에도 주요 공격타켓이 됐고, 실제로 수 개 연대가 집중공격을 받아 크게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국군 제1사단 정면의 중공군은 국군의 포격과 공습을 피하기 위해 산불을 질러 연막을 쳤다. 중공군의 전술은 신속한 야간행군으로 “우회→퇴로차단→포위공격”의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25~30㎞를 거뜬히 행군했다.[311] 또한 그들은 야간공격시 나팔, 호각, 북소리, 징소리에다 여러 사람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사람 죽이는 소리(喊殺聲), 구호소리 등 이상한 소리들을 동시에 내어 사방이 기괴한 괴성으로 진동하는 상황을 연출해 아군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아군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다.[312] 즉 국군이 이러한 괴상한 소리를 듣고 이에 놀라 사격을 하면 아군의 위치를 알게 된 중공군이 즉각 소화기와 수류탄으로 집중 공격하는 식이었다.



중공군은 공격시 적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자아내게 하고, 상대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각종 도구들로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돌진했다. 이 "소란전"은 인해전술과 한 짝을 이룬다. 사진은 중공군 병사가 공격과 함께 나팔을 부는 모습

심리전의 한 수단인 이 전술은 전투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심야에 중공군이 여기저기서 부는 피리소리와 꽹가리 소리는 적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포위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었다.[313] 또한 중공군은 마오쩌둥이 정립한 전술을 구사했다. "적이 공격하면 아군은 후퇴하고, 적이 멈추면 아군은 교란시키고, 적이 지치면 아군은 공격하고, 적이 후퇴하면 아군은 추격한다"(敵進我退, 敵駐我擾, 敵疲我打, 敵退我追)는 것이다. "16字 전술"이라고 불리는 이 전술은 마오쩌둥 전술의 기본 개념에 해당한다.

정면공격에 나선 중공군 제39군단과 제40군단은 미군의 집중된 화력에 부딪쳐 아군 병력의 분산에 실패한 나머지 미군에 약간의 타격을 입혔을 뿐이었다. 그러나 우측의 한국군 제2군단을 겨냥해 우회공격에 나선 중공군 제38군단과 제42군단은 덕천을 공격해 하룻밤 사이에 제2군단의 예하부대들을 분할해 2개 사단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다. 펑더화이는 계속해서 제38군단과 제42군단에게 각기 덕천 좌우 지역으로 우회 공격해 들어가도록 명령했다. 전자에게는 개천, 삼소리로 진격해 미 제9군단의 후방을 위협하고, 후자에게는 순천, 숙천 등지로 진격하도록 했다. 이 우회공격이 성공할 경우 미 제8군의 주력이 평양 이북지역에서 포

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제1차 전역 시 저지른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 저돌적으로 나온 제38군단장 량싱추는 예하 제113사단 전 병력을 11월 27일 밤 단독군장으로 덕천을 출발해 14시간 동안 72.5㎞를 행군시켜 11월 28일 오전 7시에 평양-개천 간 도로의 교차지인 삼소리에 도달케 함으로써 미 제9군단의 퇴로를 차단했다. 병사들이 밤길 도보로 14시간에 72.5㎞를 행군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당시 중공군은 매일 밤 50㎞를 행군했다는 중공군 참전병사의 증언도 있고,[314] 제113사단 병력이 행군도중에 아군 차량을 탈취해 이용했던 점으로 미뤄 보아 다소 과장이 됐을런지는 몰라도 14시간 만에 72.5㎞를 행군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315] 어쨌든 퇴로 차단은 제113사단 예하 제338연대가 한국군 보다 5분 빠르게 도달해 유리한 지역에 진지를 점령한 후 기습공격으로 한국군 1개 연대 및 미 제1기병사단 제5연대의 선발대 30여 명을 전원 섬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316]

중공군 제38군단이 삼소리 지역 우회에 성공하자 국군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다. 11월 28일, 제38군단과 제42군단은 이미 덕천지역에서 국군 제7·제8사단의 주력을 격파했고, 제40군단도 구장 부근에서 미 제2사단을 물리쳤다. 덕천 지역 전선이 중공군에게 돌파 당하자 터키군 제1여단이 군우리 북쪽지역에 투입됐다. 야지시(Tahsin Yazici) 준장이 지휘한 터키군 제1여단은 총 병력 중 15%, 105㎜ 곡사포를 포함해 중요 장비의 70%나 잃고도 중공군 제38군단의 공격에 맞섬으로써 청천강 이북의 국군 주력이 후퇴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317]

국군과 유엔군은 전면철수를 시작했다. 이에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즉각 중공군 제38·제39·제40 ·제42군단 등 4개 군단을 집중해 전전선에서 추격전을 개시해 미 제1기병사단 및 제2·제25사단 등 미군 3개 사단의 주력을 섬멸하라고 지시했다.[318] 한국군의 대규모 섬멸을 노렸던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전부대원들에게 휴식이라는 구호는 입 밖에도 내지 말도록 했으며, 휴식은 대규모 전역을 치른 후에 1개월 남짓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대정비도 일부러 특정 시간을 내어 하지 말고

전선의 적절한 곳에서 수시로 실시하라고 했다.[319] 말하자면 중단하거나 쉬지 말고 한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하라는 촉구였다.

이에 따라 펑더화이는 중공군 각 군단에게 또 다시 추격임무를 부여했고, 중공군 제39군단과 제66군단이 협력해 영원 지역의 한국군을 격퇴한 뒤 계속해서 군우리 부근에서 청천강을 도하하여 철로를 따라 안주 방향으로 아군을 추격했다. 동부전선에서는 11월 24일 유담리를 점령한 미 제1해병사단이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날 동부전선 전 지역에 큰 눈이 내렸고, 기온은 섭씨 영하 35도까지 내려갔다. 그런데 진격대열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던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 예하 일부 대대가 그날 밤 장진호 동서 양측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 제9병단 예하 제20·제27군단의 8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공격을 개시한 중공군 제27군단 제81사단 제242연대는 높은 봉우리에서부터 신흥리의 아군 퇴로를 횡으로 끊어 버렸다. 제80사단의 주력 연대는 동, 동북, 동남으로부터 신흥리, 내동의 아군을 공격했다. 날이 밝을 무렵까지 격전을 벌인 하루 밤 동안의 전투결과 신흥리의 아군은 1.5㎢의 좁은 지역 안에 포위됐지만 섬멸되지는 않았다. 제79사단은 지형과 적정에 대한 관찰이 부정확해 제236연대와 제237연대가 유담리의 아군을 우회, 분열시키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공군은 아군과 정면으로 전투를 벌이게 돼 적잖은 사상자가 났지만 유담리 이북의 고지는 그들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유담리 쪽을 점령한 아군도 제20군단 제59사단에게 사응령 일선에서부터 퇴로를 차단당했다.[320]

이 전투로 다섯 무리로 분할돼 포위된 미군은 즉각 200여 대의 전차를 앞세워 포위된 주요 세 지점에 방어진을 쳤고, 임시 비행장을 통해 신속히 부상자와 동상자들을 후송하고, 탄약, 방한장비들을 공수해왔다.[321] 비행장은 얼어붙은 동토를 불도저로 밀어붙여 가까스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중공군은 화력지원을 받아 야간에 미군 방어진지를 공격했으나 날이 밝기 전까지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 공군기의 공습을 염려해 후퇴했다. 이어서 중공군 제27군단이 병력을 집중해 미 제7사단을 공격해 1개 연대, 4개 대대를 섬멸하고, 약 300명의 미군을 포로로 잡았다.[322]

미군 1개 연대가 중공군 제27군단의 공격을 받아 괴멸된 후 포위된 여타 부대들은 12월 1일부터 미 공군기의 엄호를 받고, 전차를 앞세워 포위망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중공군 제20군단과 제27군단은 탄약이 부족했고, 군수물자가 공급되지 않은데다 기온마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져 수 천 명의 부대원들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혹한으로 대거 동상에 걸렸고 기아로 죽어나갔다. 제27군단은 아군 공군기의 공습으로 인한 사상자뿐만 아니라 동상으로 인한 인원감소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하 제80사단의 경우 갓 북한에 들어온 며칠 사이에 경험부족으로 매일 200~300명의 동상자가 발생해 3일 만에 1개 대대 병력이 손실을 입었다. 게다가 전투공격지점에 들어간 동상자까지 더하면 동상으로 인한 병력감소는 무려 군단 전체의 30%에 달했다. 전투 한 번 제대로 못해보고 4분의 1의 전투력을 잃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제27군단에 편입된 제94사단 내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 전선에서 이탈해버린 탈영병까지 발생했다.[323]

지원에 나선 후방예비대인 제26군단이 급히 전장에 도달했지만 공중 공격에 노출된 데다 동상에 걸린 병력으로는 미군의 퇴각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이 전투로 중공군 제9병단은 총 4만 명 이상이 감원되는 전투손실을 입었다. 이 중 전투로 인한 사망자는 4,000여 명이었고, 3만 명 이상이 동상으로 사망했다. 전역이 끝난 후 전체 병단은 거대한 병원으로 변했고, 대규모 동상환자들을 치유하는데 약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소모됐다고 한다.[324]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초 사단 전체가 하갈우리로 퇴각, 집결해 이곳에서 장진호 동쪽 방향으로 북상하다가 후퇴한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합류했다. 이 시점은 이 2개 사단이 곧 퇴로를 차단할 목적으로 후방 퇴로인 부성리-고토리선 계곡 양측으로 협공해온 중공군 제9병단 예하 2개 군단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 전야였다.

아군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맥아더는 11월 28일 오후 5시 경 중공군의 참전을 다시 한 번 인정하고 미 합참에 중공군이 출현한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전문에서 그는 6·25전쟁을 소수의 "상징적인" 중공군과 북한군과의 싸움으로 국한시켜 보려는 희망은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제 "전적으

로 새로운 전쟁"(entirely new war)과 마주치게 된 상황에서 "공세에서 방어로 바꾸겠다"고 했다.[325]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토리를 출발해 진흥리로 전진하는 미 해병사단 장병들(1950년 12월 8일)

한편 뜻밖에 중공군의 공격을 두 차례나 당하자 11월 28일 트루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미 수뇌부는 오후 3시부터 1시간 15분에 걸쳐 새로운 위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 개최 수 시간 전 맥아더는 워싱턴에다 현지 유엔군사령부가 타이완 중국국민당군을 투입시키는 문제를 직접 중화민국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요청했다.[326]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분명한 결론은 없었지만 회의는 대체로 소련의 개입을 불러일으킬 중국과의 확전을 피하고, 명예롭게 한반도전장에서 빠져나오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맥아더가 주장하고 있는 중국둥베이 지역에 대한 공중폭격과 중국국민당군의 투입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 대세였다. 즉 맥아더의 요청은 전쟁이 확전될 것을 우려한 트루먼 대통령과 미 군부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현재로선 맥아더에게 군사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그 곳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48~72시간 내에는 맥아더에게 새로운 훈령을 내릴 필요가 없고, 방어태세를 계속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두됐다.[327]

이어서 펜타곤이 원폭사용 가능성과 여부를 검토해오던 상황에서 11월 30일 트루먼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참전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트루먼의 발언은 중국에 대해 핵전쟁을 불사한다는 확고한 계획이나, 맥아더에게 핵사용 권한을 위임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었다. 핵사용 가능성을 밝힌 트루먼의 공표는 그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미국을 너무 몰아붙이지 못하도록 미리 "위장된 경고"(a veiled warning)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원자폭탄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은 유엔 참전국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와 중소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특히 핵사용에 대한 워싱턴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런던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11월 30일 영국 하원에서 열린 상하 양원회의에서는 중국과의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328] 미국 수뇌부가 한반도전쟁에 관한 기본방침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였다. 38도선 돌파로 기존의 북진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냉전의 기본 노선인 봉쇄정책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포기할 것인지 봉합과 철수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 결국 봉합을 선택했다. 휴전회담 관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였다.

한편 전략적 차원에서 맥아더의 수세전환 방침에 따라 서부전선에서는 워커의 지시로 11월 28일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하기 시작한 국군 및 유엔군이 모두 빠른 기동력으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미 제8군의 최종 엄호로 군우리에 남아 있던 미 제2사단은 마지막 제대로 철수하던 중 중공군 제42군단의 공격을 받아 참전 이래 최대의 타격을 입었다. 중공군은 기동력이 뛰어난 차량으로 후퇴하는 미군 주력을 따라 잡을 수가 없었다. 이어서 청천강 이남의 숙천-순천을 잇는 지역에 아군의 새로운 방어선이 형성됐다. 하지만 아군은 계속된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이 방어선에서도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

중공군 지휘부는 청천강 이남으로 후퇴하는 유엔군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러 후퇴해 유엔군 수뇌부로 하여금 중공군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판하게 만들려고 기도했다. 한국군과 유엔군 지휘부는 추격해오던 중공군이

청천강 북안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춘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마오쩌둥은 중공군이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이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군과 유엔군을 유인한 후 우회공격과 정면공격을 결합시킨 기동전으로 각개 격파하려고 했다. 기동전은 중공군이 자주 취하는 전술로서 화력이 열세에 있고, 적이 기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군의 장점으로 적의 단점을 공격할 때 구사하는 전술이었다.

11월 30일, 맥아더는 중공군의 군사목표가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내의 모든 유엔군에 대한 격퇴와 한반도 전역의 점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엔군의 단계적 후퇴를 미 합참에 건의했다. 그리고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재차 중국 둥베이 지역에 대한 폭격과 중국해안 봉쇄, 타이완으로 퇴각한 장제스의 중화민국 군대의 참전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329] 하지만 맥아더의 이 주장은 미 행정부가 방향을 휴전을 통한 봉합으로 가닥을 잡고 제한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뒤에 나온 의미 없는 것이었다. 훗날 이 당시 미 수뇌부의 전쟁정책에 관한 극비문서가 알려짐에 따라 밝혀졌지만, 미국정부는 이즈음 서울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철수할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동시에 맥아더는 토쿄의 유엔군사령부에서 긴급히 소집한 지휘관 및 참모들의 작전회의를 통해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중장에게 중공군의 포위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 후퇴하는 것을 허락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에게는 동부전선의 미군과 한국군을 함흥과 흥남일대로 후퇴, 집결시켜 전선을 함흥-원산 일대로 축소시키라고 지시했다.[330]

이러한 안팎의 위기 상황이 서울에 전해지지 않을 리 없었다. 적의 38도선 공격이 임박했으며, 서울이 다시 점령당할 것이라는 소문은 남쪽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적의 공세에 직면한 유엔군사령부도 퇴각준비에 착수한 시점이었다. 중공군의 공세로 서울이 또 다시 피탈될 위험에 처하자 미국은 미군철수를 고려했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 선회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이승만의 북진 정책이었다. 이승만은 군사적 수단은 미약했지만 한국군의 수장으로서 북진통일의지 만큼은 누구보다 결연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가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해

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중공군의 공격으로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면서 부산으로 도피할 것을 권유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격노하면서 이렇게 외쳤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커든 돌아 가시요! 우리는 당신네들 보고 와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또 남아 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는 여기 남아서 싸우겠소, 죽기 밖에 더 하리요!"[331]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듯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워싱턴의 장면 대사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미군 철수를 만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장면 대사는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을 한국에서 빼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보고했다는 소식을 듣자, 즉시 미 국무부를 찾아갔다. 그는 미 행정부에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한국 국민들은 모두 죽을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6·25전쟁을 포기하거나 군사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철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야 할 최악의 경우 한국의 망명정부 수립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그 가능성의 여운을 남겼다. 미국은 이 같은 최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내용이 알려질 경우 한국 국민과 한국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극비에 부치고 있었던 것이다.[332]

워커가 이승만에게 보고한 대로 전황은 실제로 심각했다. 서부전선에서는 11월 말 가까스로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난 국군과 유엔군의 전면 퇴각이 계속됐고, 영원지역의 국군을 격퇴한 중공군 제39군단이 용연리를 거쳐 계속 남진하여 12월 2일에는 전군이 용담리까지 도달한 상황이었다. 동부전선에서는 11월 말 혜산진, 청진과 나진 사이의 부령, 부거 등지까지 진격했다가 함흥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국군과 미군이 적군의 반격에 밀려나던 중이었다. 12월 1~2일 경, 특히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이 중공군 제9병단 예하 2개 군단(제20·제27군단)에게 포위당하기 시작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333]

동서 양 전선에서 후퇴를 강요당한 상황에서 전투력의 전면 와해를 피하기 위해 38도선까지 즉각적인 철수가 필요하다는 미 제8군 사령관의 건의를 받아들인 맥아더는 스스로도 전면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퇴각을 승인했다. 이 조

치는 워싱턴에서 트루먼과 애틀리 수상이 유엔군의 자의적인 철수는 없다고 공언한 것과 상반된 현실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전 병력이 38도선 남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다. 미 제8군은 이 때 청천강 교두보를 연한 방어선을 포기하고, 평양 북방 20㎞ 지점의 순안-성천 선으로 후퇴해 평양방어선을 만들었지만 아군은 다음날 평양에서도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3일과 4일 밤 평양을 거쳐 철수하는 마지막 국군부대로서 제6사단이 미 제25사단(사단장 William B. Kean 소장)의 철수엄호를 받으며 평양시 동북방 대동강에 가설한 부교를 통하여 평양을 빠져나왔다.[334]

12월 4일 밤, 아군의 후퇴경로와 지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에게 "적 주력이 평양과 38도선 중간 지역으로 후퇴했으니 평양을 점령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자정, 펑더화이는 두 전선의 중공군 작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했다. 순천, 숙천, 성천 이남 축선으로 각기 1개 사단씩 남진하게 해 평양을 위협하면서 적의 의도를 탐색한다. 만약 적이 평양을 지키려고 하면 중공군 1개 사단에다 북한군 1~2개 사단을 딸려 보내 평양에 대한 양동공격을 시도하는 한편 5개 군단을 집중해 성천, 강동, 삼등, 수안, 곡산, 신계 지역의 적을 공격케 한다. 목적이 달성되면 주력은 남진해 서울을 위협하고, 평양의 적을 남쪽으로 후퇴하게 만들어, 퇴각하면 기동전으로 적을 추격하거나 측방의 적을 공격하고, 만일 적이 평양-원산선을 포기하면 즉시 서울을 공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335]

12월 6일 오후 2시 중공군 제39군단의 주력 제116사단[사단장 왕양(汪洋)]이 평양을 점령함에 따라 아군의 평양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졌음이 입증됐다. 제116사단은 예하 제346연대가 평양에 입성함으로써 중공군 중 평양입성 선봉사단이 됐다. 평양입성 후 제116사단은 북한군에게 임무를 넘겨주기 전까지 평양위수임무를 맡았고, 이어서 7~8일 제116사단 예하 나머지 연대들이 들어왔다. 북한정권의 부수상 겸 외상인 박헌영, 내무상 박일우, 북한군 제1군단장 이권무가 나와 그들을 환영했다. 제39군단 주력은 평양과 용전리 지역에 집결해 휴식과 부대정비를 하면서 차기 전역을 위해 준비했다.[336] 평양점령 후 김일성과 북한의 각 정당들이 축하전보로 중공군의 평양입성을 치하했고, 중국지도부도 중국의 베이징 라디

오와 인민일보를 통해 중공군의 평양 "수복"을 축하했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받은 유엔군 지휘부는 12월 7일 평양-곡산-원산 선에서 적의 남진을 저지하려던 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천연요새인 임진강의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중도에 반격이나 방어 작전을 펼치지 않고 바로 38도선 이남으로 총 퇴각하기로 했다. 서울 북방 약 40㎞ 지점에 위치해 있는 임진강은 개성시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군 사이에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서 길이 272.4km, 하류의 강폭은 약 150m, 수심이 1m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서울방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천연방어선이었다. 또 강 중류부터는 그 지류인 한탄강이 남동쪽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 의정부, 포천 등 경기도 중북부지역의 방어에도 요긴한 지역이었다.[337]

한편 동부전선에선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이 2주 동안의 악전고투 끝에 12월 12일 중공군 포위망을 돌파해 흥남으로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중공군 제20군단과 제27군단이 도로 양측의 고지를 이용해 돌파구를 벗어나려는 미군을 공격함으로써 미군으로 하여금 퇴각 중 저항을 시도하도록 강요한 탓에 하루에 겨우 5~6㎞ 밖에 후퇴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공군의 공격을 2주간이나 지연시킨 이 전투는 함경도 방면으로 북진한 유엔군과 국군이 흥남으로 집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뒤이어 전개된 전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흥남철수 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었다.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장진호 전투에서 위험에 처하게 된 국군과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 지역의 미 제3사단이 투입됨에 따라 공백이 된 원산지역과 그 이남지역은 12월 9일 북한군에게 피탈됐다. 이로 인해 퇴로가 차단된 미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은 부득이 해상으로 철수하는 방법 외에 도리가 없었다. 숱한 사상자를 낸 미 제10군단은 미 공군기의 폭격과 해군의 함포사격 지원에 힘입어 함흥-흥남항으로 집결한 후 여기서 12월 24일 해상을 통해 남한으로 철수했다.[338]

맥아더에게 보낸 알몬드의 보고에 의하면, 미 제10군단은 적에게 아무 것도 남겨주지 않고 35만 톤의 보급물자를 모두 후송했으며, 국군을 포함해 10만 5,000명의 병력과 약 10만 명의 피난민들도 남한으로 후송됐다.[339] 중공군이 한국군과 미군

을 추격하지 못한 까닭은 혹한 속에 보충할 병력 부족과 보급품 문제 때문이었다. 거시적으로 보면 미 해병 제1사단이 장진호 부근에서 중공군의 매복에 걸려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은 것이 결국 미 제10군단의 진격작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이로써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언급한 바 있듯이 미군은 미군 전사상 가장 긴 300㎞ 이상을 퇴각했다. 퇴각 후 유엔군은 유엔, 유엔참전국, 미국 등이 휴전을 모색하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축차방어전략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12월 20일 유엔군사령부는 임진강 남안 지역-화천-양양을 잇는 방어선을 형성한 후 여기에 미 제1·제9군단, 국군 제3·제2군단을 서부에서 동부지역 순으로 배치했다. 총병력 수는 36만 5,000명이었고, 이 중 전투병력은 한국군 14만 명, 미군 10만 명, 기타 1만 명을 더해 도합 25만 명 정도였다.[340]

유엔군이 임진강선을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반격작전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12월 23일 전장을 누비며 최일선에서 전쟁을 지휘해온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이 자신이 탄 차량 전복사고로 전사했다. 미 제24사단에 근무하던 자신의 외아들 샘 심스 워커(Sam S. Walker) 대위가 비보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워커 장군은 이미 주검이 된 상태였고, 그의 가방에는 아들에게 수여하려던 표창장이 그대로 간직돼 있었다.[341] 12월 26일 워커 중장의 후임으로 매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이 임명됐다.

왼쪽 : 북진작전을 진두지휘한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 그는 6·25전쟁 중 "사수냐 죽음이냐?"(stand or die?)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장수였지만 안타깝게도 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비록 죽음으로 한국과의 인연이 끝났지만 6·25전쟁을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다.
오른쪽 : 워커의 후임으로 부임한 신임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중장. 그는 부임시부터 두 어깨에 수류탄을 부착한 전투복 차림으로 나타나 불퇴전의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12월 23일, 중공군은 전 전선에 걸쳐 38도선 상으로 접근했다. 서부전선에는 중공군이 금천, 구화리, 삭령, 연천, 철원, 화천 지역에 집결했고, 북한군 제1군단이 38도선을 넘어 연안반도와 옹진반도를 점령했다. 또한 국군과 유엔군의 후방에서 게릴라 활동을 해오던 북한군 제2·제5군단의 일부 부대들이 38도선을 넘어 춘천, 가평을 점령했다.[342] 후퇴하는 국군과 유엔군의 뒤를 쫓아 함흥, 흥남을 향해 공격해오던 중공군 제9병단 예하 3개 군단과 북한군이 12월 24일에 이르러 흥남과 그 이남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동·서부 전선에서 피아 쌍방이 달포간에 걸쳐 격렬하게 전투를 벌였던 중공군의 제2차 전역은 종결됐다.

펑더화이는 12월 중순 김일성, 쉬티코프와 만났을 때 쉬티코프로부터 서부전선에서 전투가 끝난 뒤 왜 공격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항의조의 질의를 받았지만 이를 묵살하고 취한 조치였다. 그는 더 이상 공격을 지속할 의도가 없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하겠다.

중공군 제2차 전역의 결과 아군이 38도선까지 물러남으로써 김일성 정권이 기사회생함과 동시에 북한 전역이 또 다시 적화됐고, 상황은 북한의 남침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됐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2차 전역은 붕괴직전의 김일성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켰고, 미군의 북진저지에 성공함으로써 중국 둥베이지역의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최초의 참전목표를 달성했던 셈이다.

북한이나 북한정권을 기사회생시켜 놓았다는 사실에 스탈린도 극도로 고무됐다. 그는 평양이 점령되기도 전에 상기된 어조로 12월 1일 마오쩌둥에게 승리를 축하하는 전보를 보낸 바 있다.[343] 또한 김일성 정권에게는 평양을 "탈환"했으며, 적의 퇴각을 강요한 결과 북한지역을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는 등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의미 있는 전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다 김일성과 자신을 따르는 북한조선노동당 계열의 추종자들의 권력기반도 붕괴되지 않게 됐다.

이외에 중공군은 세계 최강의 미군을 이길 수 없다는 그간의 신화를 깨트림으로써 향후 미군과의 전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 부수적 성과를 거뒀다. 당시 중공군은 미군 1개 사단의 전투력이 중공군 1개 군단의 그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다. 여기에는 미군 중 전투력이 가장 강했고 중국진출 역사가 있는 미 제1해병사단을 격퇴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미 제1해병사단은 객관적으로 질과 양에서 중공군 사단의 무기 장비를 훨씬 능가한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전투력의 또 다른 중요한 부대의 역사적 전통이나 부대원들의 사기 면에서도 뛰어났다. 이 사단은 1846년에 창립된 뒤 1900년 '의화단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서방 8개국이 공동으로 베이징으로 출병한 이른바 "8개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으로 진출한 바 있는 역사 깊은 부대였던데다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해 명성을 떨쳤던 전력이 있었다.

마오쩌둥 역시 제2차 전역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미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미군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군은 어떤 경우 "장제스 군 가운데 잘 싸우는 부대보다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로 이어졌다.[344] 이것은 중공군이 참전하기 전 마오쩌둥이 우려했던 문제, 즉 과연 중공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물리칠 수 있을까 하면서 미군을 두려워 한 "恐美사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파병 전 마오쩌둥은 미군을 "종이호랑이"라고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내심으로는 최신 장비와 무기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군의 전투력에 대해 신경을 썼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마오쩌둥의 의도된 태연자약과 별개로 중공군 장병 대부분은 자신들이 미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 진입 전 마오쩌둥이 파병부대 전체에 미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신무장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같은 미군 공포증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저해한 대가로 중공군은 적지 않은 전투력 손실을 입었다. 전사 3만 700명, 동상환자 5만여 명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대략 1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줄어들었다.[345] 반면 유엔군과 한국군측 사상자 가운데 미군측 전투손실은 1만 7,000명이었다.[346] 현재 중국측은 제2차 전역으로 유엔군과 한국군 3만 6,000여 명을 섬멸했다고 주장한다.[347]

4. 공세지속 여부를 둘러싼 공산권 내 입장조율

제2차 전역이 끝났지만 마오쩌둥과 펑더화이는 공세를 지속할 것인가, 하게 되면 어느 선까지 밀어 부칠 것인가 하는 점을 신속히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 이 문제는 이미 제2차 전역이 끝나기 전에 대두됐고, 그 내용은 중공군이 적 추격을 계속해 38도선을 공격하고 서울을 점령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표출됐다. 또 이것은 군사적 문제이기 전에 정치적 차원의 전략문제였다. 게다가 중국수뇌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김일성, 스탈린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외교적 사안이기도 했다.

중국수뇌부는 12월 5일 모스크바 주재 중국대사 왕자상(王稼祥)을 통해 여세를 몰아 38도선을 넘어야 할지 스탈린의 의향을 타진했다. 왕자상으로부터 이 질의를 받은 소련 외무성 부상 그로미코(Andrei Gromiko)는 그에게 "달구어 졌을 때 철을 두들기라"는 속담을 예로 들면서 전력으로 미군을 추격하는 것이 좋다는 스탈린의 의중이 담긴 의사를 전했다.[348]

마오쩌둥 역시 38도선을 넘어 한반도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적이 후퇴하고 있는 이 기회에 계속해서 밀고 내려갈 생각이었다. 중공군 지도부는 2차에 걸친 공세로 북한정권의 회생, 평양"수복", 38도선 이남으로 적의 퇴각 강요 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는 했지만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지 못한 이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자 한 점에서 의중이 일치했다. 따라서 스탈린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한반도 남단까지 밀고 내려갈 것을 희망했고, 마오쩌둥도 계속 공격을 원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번에 한반도 남단까지 밀고 내려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서울 이남까지는 점령해 차기 작전을 노리거나 혹은 휴전담판 시 유리한 입지에 서고자 했던 것은 분명했다.

그런데 전장에서 전쟁을 총지휘한 펑더화이는 즉각적 추격을 반대했다. 미군을 추격할만한 여력이 없었던 현지 중공군의 여건을 고려해 즉각적인 추격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는 평양을 점령한 뒤인 12월 8일

오후 6시 마오쩌둥과 가오강에게 전문으로 12월 18일이나 19일 쯤에 차기 전역을 개시해서 월말 경에 종료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추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즉 만약 추격을 해서 한국군 제1·제6사단과 미 제24·제1기병사단 등을 섬멸할 수 있거나 적어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경우라면 38도선을 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설령 38도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서울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349] 당시 중공군이 전투근무지원, 병력충원, 부대원들의 사기저하 및 극도의 피로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던 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현지 최고 사령관으로서 펑더화이가 이 시기 극도로 저하된 중공군 병사들의 사기와 전투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지휘관이라면 인식하게 될 혹한의 날씨, 미군기의 공습과 부실한 보급품 공급 등의 문제들과 밀접히 관련된 심각한 문제였다. 문제의 근원은 수송,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던데 있었다. 동부전선 중공군 제27군단의 경우 처음 지급된 52대의 자동차가 마지막에는 3대 밖에 남지 않아 양식과 탄약 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당시 중공군은 통상 제1제대 보병사단의 경우 제2제대 보다 준비량이 많아 주식과 부식을 35~50일분을 준비했었다. 이 중 사단과 연대급의 부대는 각 10~15일분, 중대급 부대는 15~20일분(건조 식량 포함)을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350] 탄약은 방어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소모할 경우 보통 5~10일에 1회 보충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보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차량과 화포용 유류는 보통 1개월에 1회 보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351]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현상들은 중공군이 처한 보급문제가 심각했었다는 점을 드러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당시 대부분이 부대들은 "영하 38도에 이르는 혹한의 날씨, 두께 40cm의 적설에 매일 한 끼니의 감자밖에 못 먹는 열악한 조건"이었으며, 전투로 사상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동상으로 인한 인원감소도 많이 나타났다.[352] 중국 둥베이정부는 제2차 전역이 시작된 11월 하순 전후부터 대량의 미숫가루를 전선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 미숫가루는 밀가루 70%와 콩, 옥수수 혹은 수수 30%의 원료를 섞은 것을 볶아서 가루로 낸 다음 여기에 0.5%의 소금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것은 운송이나 저장 및 휴대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전투 중 언제 어디

서든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었다. 배가 고프면 미숫가루를 그냥 한 입 집어넣고 눈을 몇 입 먹으면 요기가 됐다. 그러나 미숫가루는 영양성분이 너무 간단해서 인체에 여러 종류의 비타민이 결핍되기 십상이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식용하면 몸속에 열이 나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며 배가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해 병사들의 체력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 장기적으로 전투식량으로서는 주식이 될 수 없었다.[353]

부식 중 수요량이 비교적 많았던 채소, 말 먹이 풀, 연료, 땔감, 목탄, 야채 등 부피가 큰 물건들은 태부족이어서, 또 수송력을 절약하기 위해 통상 북한 현지의 물자를 이용했다. 통상 연대별로 구역을 나눠 해당 지역의 북한정부기관과 협의해 통일적으로 구매하거나 생산해서 해결했다.[354] 그들은 식량을 차용할 경우 당지 북한의 지방정부와 교섭할 전담 간부를 지정해놓고, 그를 통해 먼저 정부관공서의 식량을 차용하고, 그것이 부족할 때 민간인에게서 식량을 차용한다는 등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시행했다. 그리고 중공군 자체적으로 식량이 부족하지 않을 경우엔 누구로부터도 빌리지 않고, 후에 보급품이 보충되면 차용분을 모두 갚기로 했다.[355]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제대들에겐 현지에서 보급품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다. 북한군부의 물자제공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십만으로 늘어난 중공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무기와 탄약은 제1제대의 대대급 부대의 경우 3~5일 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해야 했다. 무기 소모율이 비교적 커서 보충해야 할 경우 군단이 통일적으로 소총, 자동총, 60㎜박격포, 82㎜박격포 등과 같은 경화기를 기준치 보다 2~5% 더 많이 예비로 준비하게 돼 있었다.[356] 그런데 무기는 필요한 양만큼 준비돼 있다고 치더라도 당시 중국은 탄약, 특히 소총과 기관총의 탄약은 극히 소량 밖에 전장의 중공군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한반도전쟁에 참전한 전체 중공군 12개 군단 36개 사단이 보유하고 있던 소총, 기관총은 불과 6개 사단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투 수행에 큰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장 차기 작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1월 7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대량의 무기와 탄약 지원을 요청해 놓았던 것이다.[357]

셋째, 부상자 후송이나 치료를 위한 도구인 들것과 구호사업도 형편이 좋지 못했다. 처음 제27군단에는 린장에서 부상자용 들것 353개와 민간노무자 2,618명을 배정받았는데, 제2차 전역 후 들것은 99개, 노무자는 748명 밖에 남지 않았다. 더구나 제2차로 린장에서 데려온 들것 노무자들은 중도에서 전부 달아나 버렸다. 이로 인해 부상자에 대한 구호와 후송이 늦어져 부상자 사망률이 38.4%에 달했으며, 전체 부상자 중 겨우 4.5%만이 입원했는데, 이는 중공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358]

넷째, 중공군 장병들의 사기는 더욱 심각했다. 소수 간부들이 전투 중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공격하지 않거나 임의로 직무유기를 저질렀는가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 규율을 위반하는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제27군단 제94사단에서는 중대와 소대 간부들이 아예 도주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2차 전역에서 이로 인해 제27군단 소대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 188명이었고, 그중 면직된 사람은 67명이었다.[359]

다섯째, 제2차 전역에서 입은 병력 감소를 메우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중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 중공군은 제1차 전역에서 총 1만 700여 명이 사망, 부상, 실종되었다고 한다.[360] 제2차 전역시에는 제27군단에서만 사망 및 실종수가 7,737명이었으며, 동상으로 인한 병력 감소가 1만 588명이었다.[361] 제2차 전역 후 동서 양 전선에 총 6만 5,000명의 중공군 병력이 보충돼야 할 형편이었다.[362] 게다가 중국 내 제2선에 있던 중공군 병단이 각종 준비를 완료하고 한반도로 들어와 전투에 투입되려면 두 달은 있어야 했던 상황이었다.[363]

상기 다섯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중공군의 전투력 상실이 10만 명이나 되는데다 군수물자도 필요한 량의 4분의 1밖에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처지에 있던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38도선을 공격하지 말고 전군을 휴식과 부대정비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건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월 중순 38도선 일대에서 유엔군과 대치하게 된 중공군과 북한군은 연속된 작전으로 인해 부대정비와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주장이었다.

12월 13일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자신의 구상을 이렇게 밝혔다. "38도선 이

북 수 십리에서 작전을 멈춘 후 적에게 38도선을 점령케 할 생각이다. 내년 봄 3월 초순경에 새로 싸울 때 적의 주력을 섬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반드시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 등 2개 군단을 남진시켜 전략적으로 퇴각로를 끊게 만들어야 한다."[364] 요컨대 그는 군수물자를 확보함과 동시에 2~3개 월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부대정비를 통해 전력을 가다듬은 뒤 이듬 해 봄쯤에 38도선을 돌파하고 서울을 점령할 생각이었다. 중공군의 전투력을 감안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였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가 언급한 현지 중공군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순전히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면 펑더화이의 주장이 옳다고도 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강공주장을 무시할 수 없던 입장이기도 했지만 이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향후 미국과의 휴전협상을 염두에 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12월 13일 펑더화이에게 휴식 없이 계속해서 서울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부대정비와 휴식은 먼저 서울을 공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라고 했다.[365] 그 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중북 양군의 군사지휘권 통일문제를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타결을 보아 중북연합사령부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북한군을 작전에 동원할 수 있게 된 것도 마오쩌둥으로 하여금 강공을 주장하게 만든 배경이 됐다.



중조연합사령부의 주요 지휘관, 박일우(좌2), 김일성(좌3), 펑더화이(우3). 이들은 남한침략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해 겉으로는 웃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투쟁의 관계에 있었다. 사진 속의 인물들은 제각기 중국과 북한 지도부 간의 미묘한 관계와 북한 지도부 내 김일성과 박일우의 관계를 묵시적으로 드러내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중공군 입북 후 시급했던 북한군과의 연합작전 문제는 제2차 전역에서 승리한 후 스탈린이 쉬티코프를 경질하고, "중국동지가 통일적으로 지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해결됐다. 스탈린도 겉으로 드러내놓고 종용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공격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펑더화이에게 추격을 종용한 쉬티코프를 경질함으로써 펑더화이를 지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스탈린의 중재 겸 개입으로 중북연합사령부는 12월 9일 경 정식으로 창설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그들 사이에서 "聯司"라고 간략히 불려지게 됐다.[366] 중조연합사령관 겸 정치위원에는 펑더화이, 중국측 부사령관에는 덩화가 맡았다. 북한측에서는 김웅이 부사령관을, 박일우가 부정치위원을 맡았다. 중공군은 "한반도 국경 안의 모든 작전과 이에 관계되는 업무를 통일 지휘"하고, 이 시점 이후부터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와 중공군은 중북연합지휘부의 통일된 지휘를 받게 됐다.[367]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한을 중공군에게 이양한 김일성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의 군사지휘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 후 김일성의 북한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직위는 순전히 명목상의 지위에 지나지 않았다.[368]

당시 마오쩌둥은 미군과 영국군이 부대정비 후 재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중공군이 38도선에서 공격을 멈춰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는 펑더화이 등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를 미국과 영국이 요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상황에서 마오쩌둥은 중공군이 38도선 이북지역에서 공격을 멈출 경우 적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꼴이 되어 정치적으로 크게 불리하게 되고, 38도선도 고착화 될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제2차 공세로 승기를 잡은 이때에 공격을 멈추지 말고 38도선까지 밀고 내려가 서울을 점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격을 하되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개성쯤에서 기회를 노려 아군 부대 몇 개를 섬멸한 뒤 아군이 만약 강력하게 서울을 방어하면 중공군 주력을 개성선과 그 이북지역에 후퇴시켜 부대정비와 휴식을 취하면서 서울을 재공격할 조건을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수 개 사단으로 한강 중류의 북안을 압박해 북한군이 한강을 넘어 한국군을 공격하도록 지원하고, 만약 아군이 서울을 쉽게 포기하면 서부전선의 중공군 6개 군단은 평양과 서울 사이에서 얼마간 휴식과 부대정비를 한다는 복안이었다.[369]

마오쩌둥의 상기 지시를 받은 펑더화이는 내키지 않았지만 38도선까지 계속 공

격하기로 하고 공격을 준비했지만 공격하고자 한 시기가 마오쩌둥과 달랐다.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에게 38도선 남쪽까지 공격해 내려가 서울-원주-평창 선 이북 지역의 미군과 한국군 일부를 섬멸한다는 방침하에 이듬해 1월 8일 오후 1시에 중공군 각 부대병력이 집결을 개시하고, 이틀 동안 부대를 정비하고 휴식을 취한 뒤 10일부터 공격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첫 단계 공격목표는 시변리-연천까지로 잡고 시변리에서 적이 없으면 연천의 적을 공격하겠다고 했다.[370]

그러나 휴전을 모색하기 시작한 유엔군측의 동향을 파악한 마오쩌둥은 12월 21일 펑더화이에게 전문을 보내 휴식과 부대정비는 38도선을 넘어 다시 한 번 공격을 가한 후에 취하고, 영·미군이 서울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불리하니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군 전부를 없애거나 적어도 대부분을 섬멸하기만 하면 미군은 필시 고립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반도에 장기간 체류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에 따른 지시였다. 마오쩌둥은 이 전문에서 만약 미군 수개 사단만 섬멸하면 한반도 문제는 한층 해결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371]

마오쩌둥의 생각은 중국이 유엔측의 휴전제의에 대해 유리한 조건에서 응하려면 전쟁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계속적인 공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전쟁국면이 유리하게 조성되기 전까지는 유엔의 휴전회담 제의를 거부할 생각이었다. 그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와 중국외교부장 저우언라이를 통해 서방세계에 휴전회담 개최를 거부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즉 12월 17일, 인민일보 사설에 중국정부는 유엔의 휴전제의를 거부한다는 기사가 게재됐으며,[372] 22일에는 저우언라이가 직접 성명을 발표해 유엔의 휴전제의를 거절했다. 저우언라이는 휴전을 거론한 유엔의 '한국휴전3인위원회'의 결의는 중국을 배제하고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측이 휴전을 찬성한 것은 재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숨 돌릴 시간을 얻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373]

이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의사를 받아들인 펑더화이는 12월 28일 마오쩌둥에게 이번 전역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공군 제66군단이나 제42군단에게 춘천, 홍천을 점령하게 하고, 북한군 일부로 하여금 양양, 강릉을 점령케 하여 북사현의 산

지를 장악한 뒤 춘계공세를 준비할 생각이라고 보고했다. 한반도 지형상 고지대로서 요새와 같은 동부 산지를 점령한 뒤 그곳에서 봄에 서울을 공격할 생각이었다. 펑더화이는 마오쩌둥의 지시대로 따를 경우, 즉 38도선을 점령한 뒤 전략상 서울의 한국군과 유엔군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다시 적에게 점령한 38도선을 내주면 그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보다는 38도선을 점령하고 서울을 위협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공군 대신 북한군 제1군단에게 서울을 점령하게 하고 중공군에게는 38도선 이북에서 부대정비와 휴식을 취하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374]

마오쩌둥은 12월 29일 펑더화이, 가오강 등에게 동부 산악지역을 장악해 춘계공세를 준비하더라도 그 전에 먼저 38도선을 넘어 단기간의 공세를 치러 약간의 전과를 거둔 뒤에 하라고 지시했다. 이유는 펑더화이의 생각처럼 겨울 전기간 동안 부대휴식을 취하면 자본주의국가들의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공산권 국가들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1950년 1월 초순에 공세를 개시해 한국군 수 개 사단과 미군 일부를 섬멸한 뒤에 춘계공세를 준비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었다.[375]

마오쩌둥의 지시를 받은 펑더화이는 동계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방어전을 치르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 바로 제3차 전역을 개시하기로 했다. 목표는 유엔군의 주력을 파괴하기보다 서울을 점령한 후 계속 밀고 내려가 37도선까지 점령하는 것에 두었다. 작전계획은 이미 중공군총사령부가 마오쩌둥의 전략적 의도를 토대로 12월 15일 작성해 놓았었다. 병력은 중공군 6개 군단(제38·제39·제40·제42·제50·제66군단) 23만여 명과 북한군 3개 군단(제1·제2·제5군단) 7만여 명 등 총 9개 군단 30만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제9병단은 제2차 전역에서 당한 심한 전투력 손실로 인한 후유증 때문에 전투에 투입되지 못했다. 5개 군단(북한군 1개 군단 포함)을 주공으로 삼아 서부전선의 임진강, 한탄강 일대에서 서울을 목표로 공격케 하고, 4개 군단(북한군 2개 군단 포함)을 조공으로 삼아 동부전선에서 공격하게 한다는 계획이었다.[376] 중북 양군은 12월 27일 이전부터 38도선 이북의 지정된 지역에 집결해 있었다.

부대배치와 공격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20만 명이 투입된 서부전선에서는 서쪽

에서부터 차례로 북한군 제1군단이 개성방향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로 향하고, 그 옆에 중공군 제50군단이 주공으로 서울을 공격하며, 중공군 제39·제40·제38군단이 조공으로 의정부를 공격하기로 됐다. 10여만 명이 투입된 중부 및 동부전선에서는 제42군단과 제66군단의 일부 병력이 가평 방향으로, 제66군단의 나머지 병력이 춘천으로, 북한군 제2·제5군단이 춘천 동부와 횡성 방향으로 공격하기로 돼 있었다. 전술면에서는 병력을 집중해 적의 병력에 비해 절대적인 우세를 유지하며, 화력을 집중해 공격의 돌파구를 연 후 적을 분리 포위하고, 적의 종심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전투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377]

중공군총사령부는 급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군 진지와 불과 150~3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임진강 중하류 일대에 자연 도랑과 측벽을 이용해 316개의 엄폐소와 그리고 한꺼번에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참호를 만들었다. 임진강 중하류의 남안에는 대략 5~10m 정도 높이의 둑이 연이어져 있어 병사들이 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접근이 어려웠던 강 지형을 이용한 것이었다.[378] 중공군 지휘부는 여기에 기습공격의 선봉부대로 지정된 제39군단 제116사단의 사단사령부, 연대 및 대대본부 등의 각급 지휘소와 70여문의 화포를 지하에 숨겨 놓았다.[379]

중공군의 참호공사가 완료되자 공격개시 하루 전인 12월 30일 밤 12시 기습공격의 선두공격 임무를 맡은 제39군단 제116사단이 전원 공격선상에 집결했다. 12월 31일 오후 16시 40분, 적군의 총공격이 개시됐다. 맨 처음 공격에 나선 것은 동부전선에서 38도선을 넘어 측면으로 침투해 내려온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 등 2개 군단이었다. 다음 해 1월 8일까지 9일간 계속된 이른바 제3차 공세의 시작이자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북한군과 공동으로 벌인 연합작전이었다. 38도선을 넘기 시작한 서부전선의 적군 주공은 임진강 북안에 숨겨둔 화포를 동원했고, 중공군 참전 후 처음으로 106여 문이나 되는 대규모 화포를 사용해 서울 북방 문산 우측의 한국군 제1사단과 동두천의 한국군 제6사단 등 한국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380]

한편 미 제8군사령관으로 새로 부임한 리지웨이 중장은 부산으로 철수할 것을 주장한 워커와 달리 유엔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전열을

가다듬어 재차 공세를 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 점을 약속했다.[381] 실제로 리지웨이는 자신의 의지를 담은 미 제8군의 작전방침을 정했다. 즉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축차적인 지연전을 펼쳐 적의 출혈을 강요한 후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임진강 중하류를 연해 38도선 이남에 설정한 다음과 같은 6개의 축차적 방어선을 설정했다.

제1통제선은 38도선 진지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양양에 이르는 주저항선이었다. 제2통제선은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으로, 평택-삼척선의 방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이었다. 제3통제선은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선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제4통제선은 금강선으로서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이었다. 제5통제선은 소백산맥 선으로, 이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6통제선은 낙동강 방어선으로, 유엔군이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할 진지였다. 이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한국군은 연안 도서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382]

상기 축차방어선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물러나기 위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라 아군이 기회를 보아 반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별로 중공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기 위해 설정된 선이었다. 리지웨이는 최악의 경우라도 평택-안성-충주-단양-울진의 37도선 아래로는 후퇴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어지역은 제1차 통제선이었으며, 전방 부대들이 서울 남쪽으로 후퇴해올 경우를 대비해 이 선과 서울 사이인 서울북쪽지역에 혼란방지와 엄호를 위해 별도로 중간통제선을 설정해놓았다.

중공군의 움직임을 파악한 맥아더는 중공군 제3차 전역 개시 하루 전인 12월 30일 다시 한 번 미 합참에 중국본토 폭격을 건의했다.[383] 이 날 리지웨이 장군은 직접 임진강 상공에서 전투상황을 살피기 위해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는 미 제8군 사령관으로 취임한 후 최초로 맞게 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충격 : 유엔군의 적정오판과 전쟁주도권 상실

국군은 사단급 수준에서 이미 10월 22일 쯤엔 중공군의 북한 내 존재와 관련된 첩보를 획득했지만 미 제8군의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한 탓에 독자적으로 정보화하지 못했다. 제6사단장 김종오 준장이 인근 주민들에게서 제보를 받은 중공군의 전방 출현 사실은 즉각 군단장 유재흥 소장을 통해 육군본부에까지 전해졌지만 육군 지도부가 "미 제8군에 알아봤더니 그럴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일축해버린 경우가 좋은 예다.[384]

중공군 참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그에 대한 군사적 대비가 없었기는 미군도 마찬가지였다.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가 지적한대로 중공군 참전에 대한 대비는 유엔군의 북진에서 날씨와 지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과 함께 승패의 관건이었다.[385] 피아에 모두 적용되는 날씨는 논외로 치더라도 맥아더는 전장의 지세파악과 그 이용 면에서 패했으며, 중공군 격파를 위한 대비에서도 졌다. 인천상륙 후 북진이 결정됐을 때 그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서부전선으로 밀고 올라갔었어야 했다. 북진에 즈음해 그가 전장을 동서 두 지역으로 나눈 것은 바로 북한의 험준한 지형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그런데다 중공군 참전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몰랐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그가 모색한 대비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단지 공군력으로 중공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한 자신감만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런데 맥아더는 소련 공군기가 전장에 출현해 중공군의 작전을 지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련 공군기의 출현은 전쟁의 판도에 영향을 미친 최대의

복병으로서 전장에서 그 때까지 미 공군이 누려온 한반도 전역의 제공권 장악 상황을 마감시켰다. 또한 소련 공군기가 전장에 투입되기 전에는 미 공군 폭격기들은 저공비행으로 지상 300m까지 높이로 내려와 폭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공군기가 출현된 뒤로는 상당한 견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 대공포 사격 때문에 6,000m에서 7,000m의 고도에서 폭격할 수밖에 없어 결국 폭격의 명중률이 크게 떨어졌다.[386]

이에 비해 마오쩌둥은 입북 전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무관, 외교관, 화교, 중공군정찰대가 전해준 보고내용을 통해 북한의 지형을 파악하고 연구한 결과 지세를 나름대로 활용했다. 중국 수뇌부는 대통령 트루먼, 국무장관 애치슨, 국방장관 마셜, 합참의장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ley),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 중 미국의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주도적 인물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387]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마오쩌둥은 미군에 대해서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쟁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맥아더에 대해서만큼은 과거 그가 수행한 전사까지 소상히 파악했다. 그래서 그는 맥아더가 상륙전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1950년 7월 초에 벌써 인천상륙을 예측하고 김일성에게 이에 대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388] 맥아더가 중공군의 적장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사실과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서 적에 대한 정보는 전쟁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정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맥아더가 작전개시 전에 아군 작전에 관한 속살을 모두 언론에 공개한 것이 결국 유엔군의 북진실패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아군의 전황을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고 이를 추구하는 민주국가의 특성이자 장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 작게는 작전에 관계된 보안이나 정보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전시에는 장점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이거나 과오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한 단점 혹은 과오는 왕왕 치명적이다. 보기에 따라서 대단히 호방하게 보인 맥아더의 성격은 승리를 과신한 나머지 언론을 통제하기는커녕 아군의 작전계획이나 진격상황까지 속속 언론에 공개했을 정도로 지나치게 “호방”했다. 지휘관의

성격, 정치적 성향, 성정, 통찰력 등이 전쟁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좋은 실례다.

6·25전쟁시 한반도에서 적 후방지역에 대한 전술적 수준의 첩보수집 임무를 수행한 것은 미 제8군 정보참모부였으며, 그 예하에는 제1군단의 전술정보연락소(TILO), KLO부대 등이 적정파악 임무를 수행했다.[389] 여기에서 수집된 중국 관련 정보 수집, 분석과 평가는 이 보다 상급기관인 유엔군사령부 참모부 민간첩보국과 제2부(FEC G-2)의 전술정보과와 군사정보과에서 담당했다.[390] 그런데 미 제8군 정보참모부는 중공군이 대거 공세를 개시할 무렵 북한지역에 활동하고 있던 적의 총 병력이 약 42만여 명에 달했음에도 약 8만 여명 정도로 과소평가하여 보고하는 실책을 범했다.[391] 무엇보다 중국관련 정보를 최종적으로 평가한 유엔군사령부의 FEC G-2참모들이 1950년 8월에서 9월까지는 중공군의 참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가 맥아더가 중공군개입을 최초로 인정한 11월 4일 전날에 이르러선 오히려 중공군 참전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것이 최대의 과오였다.[392]

이처럼 미군 정보당국이 중공군 참전을 예측, 판단하지 못했거나 또는 판단하고도 맥아더의 구미에 맞는 정보보고를 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실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당시 맥아더가 유엔군이 제공권과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실을 근거로 중공군 격멸과 전쟁의 조기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과도하게 주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공군의 능력을 경시함으로써 적정판단에 오류를 범한 자만심에 다름 아니었다. 이 점에서 정보의 오판과 적정에 대한 과소평가 및 대비는 북진실패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오쩌둥은 모든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그는 제1차 전역이 끝나고 나서야 중공군 참전 사실을 밝혔지만 그 작전계획이나 동향에 관해선 일체 함구하고 중국"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게다가 자국군의 군사정보는 철저하게 감추었지만, 적의 정보는 적측의 언론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청천강 선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아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자 워커 사령관이 유엔군 작전계획과 관련된 정보가 워싱턴 쪽을 통해 사전에 적에게 알려

지고 있다고 맥아더에게 불평했던 것[393]도 사실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었다. 이 점이 중공군에게 북진이 저지당한 주요 요인이었다. 다른 한편에선 중공군 지도부는 전쟁목적 뿐만 아니라 군단급 작전계획까지도 제한된 고위 지휘관 및 참모는 물론 모든 병사들에게까지 고지한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 결과 아군에게 포로로 잡힌 중공군사병의 입을 통해 중공군 작전의도가 노출된 과오를 범하게 됐다.

국군 및 유엔군의 북진이 좌절당하게 된 일차적인 요인은 당연히 중공군 참전 자체였다. 그런데 아군은 그 다음 단계에서도 다시 한 번 전술적 과오를 범함으로써 중공군 참전이라는 북진좌절의 일차적 요인을 극복하지 못했다. 즉 아군은 북진 초기 청천강까지 도달한 전쟁주도권을 유지해 전과를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승세를 굳힐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던 것이다. 맥아더는 1950년 10월 하순에 도달한 청천강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혹 있을지도 모를 중공군 출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었어야 했다.[394] 이 점에서 그는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의 교훈을 상기 했어야 했다. 나폴레옹은 작전을 짤 때 둘도 없는 겁쟁이가 된다고 했다. 그는 공격에 즈음해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하고, "천천히 계획하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했다.[395] 맥아더도 나폴레옹처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불리한 조건을 과장"해 중공군의 참전을 그 "상상"의 범주에 넣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청천강 선에서 "천천히 계획하고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았었다.

2. 중미의 전략목표 변경과 전쟁의 성격변화

6·25전쟁 참전 고위 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재미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혹자는 중공군이 참전하기 전 중공지도부가 자신들의 참전목표를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규정했는지 알 수 없고, 그 목표들이 우선순위가 존재했는지는 더욱 확

실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396] 그러나 그것은 당시 상황을 경험한 참전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추체험의 결과일 뿐, 사실상 중국수뇌부는 참전목표를 뚜렷하게 의식했으며, 전황에 따라 단계별로 설정하고 변경했다. 그들의 목적과 동기에 대해선 이미 본서 제2장에서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참전 목표가 뚜렷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참전의 목적까지 달성했다. 중국의 파병으로 패망일보 직전의 급전직하 상황에서 북한정권의 생명이 연장됐지만 반대로 한국은 통일의 꿈이 깨어졌다는 점에서 전쟁의 승패는 "제로섬"(zero sum)개념이었다. 승자가 전쟁목표를 달성하거나 득을 본다면 패자는 승자가 취한 만큼 손실을 당하게 된다. 즉 중공군이 아군을 38도선까지 밀어내 전쟁 전 상황으로 회복시킨 만큼 퇴각한 아군의 북진통일 목표는 더 멀어졌다. 그러나 중공군은 미군의 대량살상과 한국군의 대규모 섬멸이라는 초기 전투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마오쩌둥은 줄곧 미군을 대규모로 없애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전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취한 결과 펑더화이의 건의에 따라 한국군을 위주로 공격하게 됐기 때문이다.

중공군의 참전은 대한민국의 한반도통일을 가로 막았음과 동시에 패망 일보직전의 북한정권을 기사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성격까지도 변화시켰다. 6·25전쟁은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사전에 수차례에 걸쳐 도발을 모의했고, 승인한 결과 발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국제전전 성격이 짙은 것이다. 다시 말해 원래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사전에 전쟁도발 논의에 깊숙이 관여했고, 군사적으로도 무기 장비와 병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국제전으로 출발했지만 당시에는 그 형태와 의미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여기에 중공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은 국군 및 유엔과 북한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군과 중국간의 완전히 드러난 국제전으로 바뀌었다. 또 소련공군 뿐만 아니라 포병까지 참전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중미 사이만의 전쟁이 아니라 공산권과 자유진영이 대결한 명실상부한 국제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수뇌부는 북한정권을 구출하고 미군을 38도선까지 격퇴시킴에 따라 1차 참전목표를 달성한 후 즉각 중공의 유엔가입문제와 타이완 통일문제를 전쟁

목표에 새로 추가했다. 앞에서 언급된 참전자이자 재미 학자가 적확하게 지적했듯이 195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의 두 차례에 걸친 승리는 중국수뇌부의 전쟁목표를 질적으로 변질시켰던 것이다.[397] 그 실제내용은 11월 27일 중국이 건국 후 처음으로 등장한 국제무대인 유엔정치위원회에 대표를 출석시키면서 입안한 새로운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전쟁을 자국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으로 삼고, 초기공세로 인한 유리한 전황을 목적달성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당시 중국은 유엔회원국이자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였던 타이완의 중화민국에 대해 외교적 지위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기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확전여부를 둘러싸고 영국과의 갈등과 조율을 거쳐 더 이상 전쟁을 확대하지 않고 38도선 쯤에서 휴전하는 것으로 전쟁을 매듭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구한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통일이라는 북진 초기의 목적은 용도폐기 됐다. 전쟁이 1951년 이후부터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현 상태에서 전쟁판도에 큰 변화 없이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계속된 소강국면에 빠지게 된 배경이자 근본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거시적으로 보면 두 차례에 걸친 중공군 1, 2차 전역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었다.

3. 전쟁지도의 주체 및 형식

유엔의 이름으로 진행된 북진, 즉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응징은 국제사회가 명분없는 전쟁을 도발한 침략세력에 가한 정의의 전쟁이었다. 그런데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누가 어떤 방식과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전쟁을 지도하느냐에 따라 전쟁목표의 성과와 한계가 달라진다.

아군의 북진과 전쟁지도는 유엔군의 이름으로 실행됐지만 실제 지휘는 미국이 수행한 셈이었다. 미국이 북진이나 전쟁지도 관련 의사를 결정하면, 유엔의 이름으로 지시를 받아 미 합참과 맥아더의 유엔극동군 사령부가 집행하는 형식이었다.

미국은 유엔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한 참전여부의 심의, 결정에서부터 전쟁정책의 입안, 심의, 전쟁지도 및 수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총괄하고 주도했다. 따라서 유엔회원국 가운데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원하는 국가는 먼저 미 국무부에 참전 신청을 하면 미 국무부가 미 국방부와 맥아더 원수의 유엔극동군사령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국가별 전투력과 근무지원 능력, 그리고 전장에서 유엔군 전체의 전투 효율성과 군수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유엔참전국들이 미국에게 자국군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해결사항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때문이었다.[398]

전반적인 전쟁지침도 미국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입안된 후 유엔안보리 및 유엔총회의 결의에서 조정되고, 통합됐다. 미국이 유엔군 통합사령부를 운용하게 됨으로써 전쟁지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6·25전쟁과 관련된 군사전략적 판단은 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미 합참이 수행했다.[399] 트루먼 대통령은 유엔의 결의를 대행하도록 선임된 국가의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유엔결의안을 미 합참에 보내 해당 결의안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군사적 고려사항을 심층 분석하도록 했다. 미 합참의장은 미 대통령에게 전황에 대한 수시보고 뿐만 아니라 합참이 분석한 특정사안에 대한 정보를 생산했을 때와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시로 보고했다. 따라서 유엔이 유엔결의안을 통해 한국에서 유엔군이 수행해야 할 전쟁목표나 정책을 마련했다면, 세부적인 군사작전을 위한 전쟁지도는 미 합참이 주도했다. 맥아더에게 보낼 전쟁지도와 관련된 지시전문은 관계기관 간에 협조가 되면 최종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만들었다.[400]

그런데 맥아더는 미 합참의 지시를 받고 전쟁지도를 수행했지만 중공군 참전 후 미 행정부는 그를 견제하는데 실패했다. 이로 인해 중공군 제1차 공세와 제2차 공세 사이 후퇴든, 계속 진격이든 유엔군의 진퇴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지체하게 됐다. 국무부가 됐든, 국방부가 됐든 워싱턴의 고위 인사들이 아무도 그의 명령을 철회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이라는 신화의 무게에 눌려 있던 결과였다. 미 행정부와 맥아더 간의 갈등은 중공군 참전에 대

한 대응을 둘러싸고 표출된 영미 간의 마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은 북진 전후부터 영국정부에 맥아더를 "중국이나 심지어 소련과도 대결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고한 바 있고, 실제로 중국공격을 통한 확전을 시도하고자 한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401] 영국은 중국과의 대결을 추구한 맥아더를 믿지 않았던 만큼 중국과의 확전을 원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정부와 유엔 및 미국 사이에도 초기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에서 정책수행의 주체, 범위, 시기 등에 관한 현격한 견해차로 인해 갈등을 겪었다. 요컨대 아군 측은 전쟁지도의 일원성이 떨어졌으며, 그 실행상의 집약도도 이완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공산권에선 전쟁지도를 통일적으로 총괄하는 국가 수준의 집단기구가 형성돼 있지 않았다. 단지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사이에 지원요청은 물론 서로 전쟁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략, 전술적 조언을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시기 이들 간에는 미군 구축과 38도선 남진공격이라는 전쟁목표가 일치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분란이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북한, 소련, 중국 지도부간의 갈등은 아군만큼 크거나 많지 않았다. 이들 사이의 분열상황은 중북 양군의 지휘권 통일문제에서 표출됐다. 그러나 이 갈등은 스탈린의 개입으로 북중 쌍방이 바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갈등이 다시 불거져 나올 문제소지를 안은 상태였긴 했지만 이내 봉합되고 말았다.

펑더화이가 북한군에 대한 직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은 이 시점 이후부터였다. 맥아더가 한국군을 운용했듯이 그 역시 북한군을 통제 내지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진입 초기부터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김일성과 수차례 회담을 거쳤으며, 심지어 스탈린의 개입으로 북한군과 중공군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게다가 중공군 제2차 전역 직후 마오쩌둥의 38도선 공격계속 지시에 대해 중공군의 휴식과 부대정비를 주장하면서 한 때 주저했던 펑더화이도 결국 마오쩌둥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맥아더와 미 합참 혹은 트루먼 대통령 사이에 존재했던 견해 차이로 인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남침도발 당사자로서 북한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중국에 넘겨준 뒤로 이렇다 할만한 전쟁지도를 하지 못한 김일성은 단지 후방 게릴라전을 강조하고 모색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초기 아군의 반격을 가능케 한 유엔공군의 제공권 장악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공기 격추조”를 편성해 병사들에게 “적기”를 격추하면 그에 따른 포상을 준다고 하면서 미 공군의 전투기를 격추하려는 특이한 시도를 보였다.[402] 이승만 역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전쟁지도에 관여할 입장이 아닌 이상 단지 전황변화에 일희일비하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은 유엔군의 작전계획 속에 운용됐지만 실제 전투는 자체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한국군과 유엔군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정부와 유엔군 내지 미국정부 사이에 누가 북한점령지역에 대한 전시정책 시행의 주체가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약간의 마찰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정부는 대북행정권 시행의 주체가 되지 못했지만 북한지역을 점령한 60여 일 동안 어떻게 하면 점령지 통치권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데 치중했다. 당시 “대민 선무정책”의 준비 혹은 시행에 부실할 수밖에 없던 배경이었다. 이 점은 민사작전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대전의 추세에서 볼 때 되새겨야 할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전쟁승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4. 피아 전략 전술 운용의 특징

마오쩌둥은 자국안보를 위협하는 미군에 대해 전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른바 “적극방어”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전략적 측면에서 그는 아군의 빠른 진격속도와 중공군의 지체된 북한전개 속도로 인한 전황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결과 즉각 공격전략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그의 “적극방어”라는 개념은 전황에 따라 즉각 공격으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미래 중국의 한반도 전략의 전형이 될 수 있다. 마오쩌둥의 전략방어개념에

대한 적실성은 오늘날 중국군부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는 주제다. 원래 마오쩌둥의 "적극방어"란 전략 반격을 준비하기 위한 선행 단계에서 취하는 전술이었지만 논리적으로 애초부터 공격적 속성이 내장돼 있는 전술개념이었다. 이와 달리 소극방어는 결전을 추구하지 않고 단지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만을 바라며 시간을 벌면서, 적의 전력 소모에 주력하는 개념이었다.[403]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중국본토에까지 공격을 가해 적 전투력의 진원지를 봉쇄하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맥아더와 그의 추종자들이 추구하고자 한 확전개념, 즉 최대의 공격이 곧 최대의 방어가 된다는 단기전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공군은 적정을 실제상황과 거의 정확하게 파악한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 아군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고 대응했기 때문에 방어와 공격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적정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맥아더의 전쟁지도에 따라 움직인 아군은 적의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적군에 대한 살상 보다 막연히 공간점령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즉 적의 움직임을 몰랐으니 적에 대한 대응책도 미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술측면에서도 중공군은 몇 가지 커다란 특징을 보였다. 첫째, 가장 두르러진 특징은 전략적 방어지대를 선점해 아군의 동서 양 병력이 연계, 접선, 협조돼 전투력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자 한 중국수뇌부의 의지였다.

둘째, 대응의 주안점으로 마오쩌둥이 구사한 것은 미군과의 접전을 피하고, 병력을 집중해 먼저 한국군을 각개 격파하면서 미군을 고립시키는 전술이었다.

셋째, 두 차례 전역 동안 일관되게 중공군은 아군을 분산→유인→포위→증원하도록 유도→공격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그러나 포위와 우회작전이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제1차 전역시 중공군 제38군단이 우회, 포위공격에 실패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의 의도대로 이 우회 포위작전이 성공했더라면 아군은 실제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다.

넷째, 중공군은 진지전을 지양하고 기동전으로 아군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당시 아군에게는 낯설었던 중공군의 "소란전"과 접근전 같은 전술을 구사했다. 인간의 육성에다 각종 소리기구들의 소리를 가미

한 “소란전”은 2000년 이상 전해져 내려온 중국고래의 전술이었다. 그것은 제트전투기가 출현한 현대의 6·25전쟁에서도 상당 부분 전술적 효과가 있었다.

근접전과 관련해 중공군은 아군이 화력을 사용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아군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해 화력진지 및 그 지휘소를 근접 공격으로 파괴함으로써 아군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던 화력의 유용성을 저하시켰다. 한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 장군은 이에 대해 중공군이 “소총이나 수류탄을, 장거리포보다 작은 박격포를 메고 다니며 쏘아대는 통에” 아군 화력이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통한을 피력한 바 있다.[404] 또한 중공군은 우회하여 아군의 후방퇴로를 차단하고, 연대 혹은 대대급 부대 단위로 각개 격파하면서 후방보급로를 위협하는데 치중한 특징을 보였다.

접근전, 우회, 차단, 포위 등의 전술이 가능하게 된 것은 풍부한 예비병력이 뒷받침된 이른바 “인해전술” 때문이었다. 인명을 무기로 내세운 심각한 “인명경시” 사상이 내재돼 있는 “인해전술”은 싸우지 않고, 즉 인명 살상 없이 승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친 손자(병법)의 교의[405]와 배치된다. 오늘날 현대 정치가, 군사전략가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전투지원 측면에서 볼 때 피아는 공통적으로 병참지원 면에서 다 같이 성공하지 못했다. 동서 양 전선에서 모두, 특히 동부전선에서 병참선이 길어 아군은 전투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중공군도 보급선이 길어 졌고, 보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점은 그들이 초기 기습공격으로 기선을 잡았음에도 공세를 지속할 수 없었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중공군 자체의 군수문제는 물론, 북한현지에서의 보급품 조달이 여의치 못했던 점은 전쟁의 전체적인 판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집필 : 서상문)

주(註)

1)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216.

2)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p.407~408 ; James F. Schnabel, *ibid,* p.196.

3) 러 國防部編,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서울 : 오비기획, 2002년), 339쪽.

4) James F. Schnabel, *op. cit.,* p.216.

5)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년 수정판), 381쪽.

6) 위 책 383쪽.

7)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서울 :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89년), 114쪽.

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조선전사』(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제26권, 93쪽.

9) 鄭文翰主編,『軍事大辭典』(上海 : 辭書出版社, 1992年), 45쪽.

10) 김일성이 평양을 탈출한 시간에 대해선 현재 정설이 없다. 10월 12일, 10월 13일, 10월 16일 새벽 2시경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이 중 10월 16일 새벽 2시경 설은 희천에서 한국군 제7연대에 투항한 김일성 호위군관이 김일성의 도주행각을 털어놓은 것에 따른 설인데, 이 설도 시간적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경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1) 중국 측 문헌들에는 이 시기 베이징 방문자가 박헌영이라고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406쪽을 보라. 그러나 박헌영은 10월 15일 평양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박일우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12) 彭德懷,「在中國人民志願軍師以上幹部動員大會上的講話」(1950年10月14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324쪽.

13) 毛澤東,「關於志願軍入朝作戰的方針和部署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4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560쪽. (이하『建國以來毛澤東文稿』로 표기함.)

14) 金日成,「充分作好進行新的反攻的準備」(1950年10月30日),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年), 第6卷, 141~142쪽.

15) 金日成,「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命令」(1950년 10월 14일), 高麗書林편,『美國國立公文書館所藏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1945年 8月~1951年 6月)』(서울 : 편자출판, 1980년), 제5책, 65~66쪽.

16) 國史編纂委員會,『大韓民國史資料集』(과천 : 편자출판, 1996년), 제29집, 365쪽.

17) 金日成,「用鮮血保衛祖國的每一寸土地—1950年10月11日對全體朝鮮人民的廣播講話」(1950年10月11日),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 第6卷, 125쪽.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 선인, 2001년), 414~415쪽.

19) 러 國防部編,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339쪽. 국내학계의 어떤 연구서에서는 북한

군은 앞뒤로 포위된 채 10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벌어진 격전 끝에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383~384쪽) 북한군 제239연대가 "소멸"됐다는 이 주장은 이 책의 381쪽에서 북한군 수뇌부 요원들은 한 사람도 잡지 못했고, 겨우 적군 사살 5명, 포로 42명에 그쳤다고 주장한 점과 앞뒤가 맞지 않다. 미 공수부대가 거둔 이러한 미미한 전과를 볼 때 북한군은 전투를 피해 후퇴했다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20) 북한군은 후퇴하면서 원산 앞바다에 30명의 소련기술자들을 불러 들여 약 2,000기의 고성능 기뢰를 설치했는데, 이 기뢰들을 제거하기 위해 미 해군 함정 10척, 일본함정 8척, 한국해군 함정 1척 등 총 21척의 함정들을 투입해 해군사상 최대의 소해작전을 전개했다.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년), 63쪽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 386~387쪽.

21)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2卷, 7쪽.

22)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9), p.40.

23) 이 10만 3,500여 명에다 서부 및 중부전선의 지상군 24만 1,000여 명을 합하면 약 34만 5,000명이 되는데, 이 숫자는 앞 단락에서 소개한 아군 지상군 총 병력 수 34만 9,331명과 대략 4,000여 명이 적은 것이다. 이는 이 시기 피아를 막론하고 오차 범위가 백 단위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병력숫자를 산출해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자료 마다 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향후 좀더 가다듬어야 할 사안이다.

24) Roy E. Appleman,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 (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8), p.37.

25) 방어 자체는 과거 연구서가 기술한 대로 "미미한 저항"이었지만 당시 북한군의 입장에서 최대의 저항이었다는 의미다.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서울 : 저자출판, 1995년), 상권, 544쪽.

26)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서울 : 동아일보사, 1986년), 206쪽.

27) Joseph H. Alexader, "Fleet Operations in a Mobile War, September 1950-June 1951", Ed. by Edward J. Marolda, *The U. 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Press, 2007), pp.175~178 ;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 63쪽.

28) James F. Schnabel, *op. cit.,* p.218.

29) James F. Schnabel, *op. cit.,* p.222. ; Roy E. Appleman,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 p.37.

30) "The Secretary of Defence (Marshal) to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September 29, 19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1950Vol.Ⅶ, p.826. (이하 이 책은 'FRUS'로 약함.)

31) 원래 한반도로 보내기로 했던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와 그리고 한반도에 있던 필리핀 등의 부대들을 더 이상 한반도로 오지 않도록 하거나 도중에 귀국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또한 한반도에 오기로 돼 있던 캐나다 여단과 그리스 여단은 참전규모를 줄여 각각 1개 대대면 족하고, 영국군은 2개 여단을 1개 여단으로 줄이고, 한반도에는 단지 5,000명의 기타 국가의 군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James F. Schnabel, *op. cit.,* pp.227~228.

32) 평안북도 운산은 운산군의 동쪽 구룡강 연안에 위치해 있었고, 온정리는 이 군의 27개 리 가운데 하나였다. 운산은 온정리 남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온정리는 운산에서 출발해 희천으로 가는

길의 약 5분의 2지점에 있었다. 1952년 군, 면, 리가 통폐합되면서 운산은 운산면의 읍내리, 용포리, 송현리를 병합하여 운산군으로 신설되면서 읍으로 됐는데, 군 소재지 명칭을 군 지명으로 명명하는 원칙에 따라 운산읍이라고 불렸다. 그 뒤 운산은 1954년 구 읍리로 강등되고 온정리가 운산읍으로 승격됐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제6권(평안북도Ⅱ), 181쪽.] 그런데 6·25전쟁 당시는 중국수뇌부도 이 두 지역을 각기 다른 지역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작전지시를 내렸다. 이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두 지역으로 진입한 중공군 부대들도 달랐으며, 전투도 달랐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이 훗날 운산으로 통합됐다고 해서 하나로 통일해 취급할 경우 이 두 지역에 관련된 전투나 작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운산과 온정리의 과거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각기 다른 지역으로 취급하겠다.

33) 호수 둘레는 124km, 남북의 길이는 24.6㎞, 너비는 1.2㎞, 면적은 46.08㎢였다.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139쪽.

34)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3년), 제12권(함경남도Ⅰ), 642쪽 ; 사회과학출판사,『조선지명편람(함경남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269쪽.

35) 楚云,『朝鮮朝戰內幕全公開』(北京 : 時事出版社, 2005年), 149쪽.

36) 이로 인해 펑더화이는 훗날 "나와 김은 운 좋게도 포로를 면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37) 毛澤東,「志願軍打好出國第一仗」(1950年10月21日),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編,『毛澤東軍事文集』(北京 : 編者出版, 1993年), 第6卷, 129쪽. (이하『毛澤東軍事文集』으로 표기함.)

38) 毛澤東,「在穩當可靠的基礎上爭取一切可能的勝利」(1950年10月23日),軍事科學出版社, 中央文獻出版社編,『毛澤東軍事文集』(北京 : 編者出版, 1993年), 第6卷, 142쪽.

39) 毛澤東, 위 자료 140~141쪽.

40) 김일성의 승용차는 소련제 고급승용차 "SHC"였다고 한다. 어떤 기록에는 소련제 "볼가"였다는 설도 있다. 그런데 한국군 상승군, 즉 제7사단 제8126부대가 노획한 것은 SHC였고, 10월 21일 묘향산전투에서였다고 한다. 김일성은 SHC승용차로 희천에 이르렀을 때 차 길이 막혔고, 이 때 그곳의 반공주민들이 봉기했는데, 그는 이를 피해 적유령산맥으로 숨어들었다고 한다. 제7사단 제8126부대가 이 차를 노획한 것이 이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는 이 승용차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승기념품으로 증정했다.「金日成의 乘用車鹵獲, 大統領께 咸군將증呈」,『朝鮮日報』(1950년 11월 10일).

41) 이 가운데는 정인보, 이광수, 백관수, 명제세, 최린, 현상윤, 김용하, 김규식, 조소앙, 안재홍, 김용무, 백상규 등을 비롯한 정계와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42) 이광수도 폐결핵이 악화돼 경비병들의 들것에 얹혀 잦은 공습을 피해 어렵사리 강계군 만포면에 이르렀지만, 10월 25일 지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만포면 고개동 마루턱에서 운명하고 말았다. 쇠잔 할대로 쇠잔해진 몸으로 끌려오다시피 강계에 도착한 정인보도 곧 11월 하순에 눈을 감고 말았다.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 다섯수레, 1991년), 36~38쪽.

43) 백선엽,「내가 겪은 6·25전쟁 60년」『중앙일보』(2010년 5월 3일), 제10면.

44)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 그루터기, 1996년), 280~281쪽, 287, 294쪽.

4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9쪽.

46) 지역별로는 제6군단 소속 제18・제36・제66사단과 1개 전차연대가 중국 둥베이 지역 콴뎬(寬甸)에서 훈련중에 있었다. 그리고 제7군단 소속 제32・제37・제38사단이 화뎬(樺甸), 후이난(輝南)에, 제8군단 소속 제42・제45・제76사단이 옌지(延吉)에 있었다. 그 밖에 군관학교 1개가 퉁화(通化)에 있었고, 항공학교 1개와 항공기 200여 대가 옌지에 주둔하고 있었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9~10쪽.

47) 위 책, 10쪽.

48)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第2版), 101쪽.

49) 위 책, 45쪽.

5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서울 : 역자출판, 2001년), 제1권, 406쪽.

5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조선전사』, 제26권, 81쪽.

52) 이 전투서열표는 중국측 자료에 근거한 것인데 완벽한 것이 아니고 몇 개 사단이 빠져 있다. 향후 이 시기 북한군의 재편과정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53) 제46・제47사단(이 두 사단은 모두 신편 부대로 각 1만 명), 제105전차사단, 제17전차여단과 1개 독립연대(모두 기존 부대)였다.

54) 제1사단(이 중 기존 부대는 5,000명), 제3사단(이 중 기존 부대는 3,000명), 제8사단(새로 편성된 1만 명), 제12사단(1만 명, 이 중 기존 부대는 2,000명), 제13사단(신설된 1만 명), 제15사단(1만 명, 이 중 기존 부대는 3,000명)이었다.

55) 제41사단(새로 편성된 1만 명), 해안방어 제1여단(새로 편성된 6,000명), 제71독립연대(새로 편성된 3,000명), 전차연대 등이었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9쪽.

56)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 212쪽.

57)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162쪽.

58) 民族問題硏究會編,『朝鮮戰爭史 : 現代史の再發掘』(東京 : コリア評論社, 1967年), 123쪽.

59) 백선엽,「내가 겪은 6・25전쟁 60년」『중앙일보』, 2010년 5월 3일, 제10면.

60) 박명림,『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 나남출판사, 1996년), 제1권, 280쪽.

61)「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1950년 12월 21일), 朝鮮中央通信社,『朝鮮中央年鑑』(平壤 : 편자출판, 1952년), 國內篇(1951~1952年), 27쪽 ; 金日成,「關於在充人民軍中建立勞動黨的組織」(1950年10月21日),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 第6卷, 128쪽.

62) 이종석,「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軍史』, 제44호, 68쪽.

63)「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1950년 12월 21일),『朝鮮中央年鑑』, 國內篇, 27~31쪽.

64)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一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2년), C106~C110쪽.

6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서울 : 편자 출판, 1972년), 제4권(總反擊作戰期), 808쪽.

66)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서울 : 저자출판, 1995년), 중권, 159~160쪽.

67) 위 책, 160~161쪽.

68)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106~107쪽.

69) 위 책, 110쪽.

70) James F. Schnabel, *op. cit.,* p.219.

71) James F. Schnabel, *op. cit.,* pp.219~220.

72)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 198~199쪽.

73)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 중권, 162쪽.

74) James F. Schnabel, *op. cit.,* p.220.

75)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서울 : 저자출판, 1995년), 중권, 163~164쪽.

76) "Substance of Statements Made at Wake Island Conference on 15 October 1950", FRUS, 1950Vol.Ⅶ, pp.959~960.

77) James F. Schnabel, *op. cit.,* p.220.

78)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1992년), 제4권(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483쪽.

79)「이大統領 外誌에, '援助만을 懇望, 殘賊掃蕩은 問題外'」,『朝鮮日報』(1950년 10월 25일)

80)「以北行政을 早速히 復舊」,『東亞日報』(1950년 10월 14일)

81)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 제4권, 476쪽.

82)「프랑스 종군기자가 본 6·25」『경향신문』(2010년 4월 30일), 제9면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인민무력부 전쟁경험연구실 저,『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사』(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년), 135쪽.

83)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 199쪽.

84) 위 책, 202쪽.

85)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 중권, 165쪽.

86) 조병옥,『나의 회고록』(서울 : 해동, 1986년), 270쪽.

87)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October 21, 1950, FRUS, 1950Vol.Ⅶ, pp.990~991.

88)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 107~108쪽.

89)「統一復興과 秩序維持, 무쵸大使 유엔軍政策에 言及」,『朝鮮日報』(1950년 11월 4일)

90) 國史編纂委員會,『大韓民國史資料集』, 제29집, 364쪽.

91) 위 책, 365쪽.

92) 위 책, 364~365쪽.

93)「平壤서 戰勝大會」,『朝鮮日報』(1950년 10월 27일)

94)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 193~194쪽.

95) 백선엽,「내가 겪은 6·25전쟁 60년」『중앙일보』(2010년 5월 3일), 제10면.

96) 韓徹永,『自由世界의 巨星 : 李承晩大統領』(서울 : 文化春秋社, 1953년), 149~150쪽 ;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 133쪽.

9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1쪽.

98)「平壤서 戰勝大會」,『朝鮮日報』(1950년 10월 27일)

99)「프랑스 종군기자가 본 6·25」『경향신문』(2010년 4월 30일), 제9면.

100) 평양까지 종군해 미군이 임시 시장을 선정하는 현장까지 직접 취재했던 프랑스 종군기자는 미군 당국이 평양의 대민사업을 책임질 장교로 소령 한 사람을 선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현재로선 그가 엘모베스 대령을 소령으로 착오했는지 아니면 엘모베스 대령 아래에 소령급의 다른 민사장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프랑스 종군기자가 본 6·25」『경향신문』위 자료.

101)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 199쪽.

102)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 제4권, 488쪽.

103) 國史編纂委員會,『大韓民國史資料集』, 제29집, 365쪽.

10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서울 : 편자 출판, 1972년), 제5권(中共軍 侵略과 再反擊作戰期), 26쪽.

105)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 289쪽.

106) James F. Schnabel, *op. cit.,* pp.220~221.

107) James F. Schnabel, *op. cit.,* p.221.

108)「共産黨員은 除外, 北韓同胞의 意思尊重, 李大統領 統一問題를 闡明」,『朝鮮日報』(1950년 10월 31일)

109) 위 자료.

110)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 196~197쪽.

111) 여타 북한주민에 대한 일탈행위에 관해선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 제4권, 482~494쪽을 참조하라.

112) 陳章華、榮肇隆主編,『中國軍事史辭典』(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93年), 2~3쪽.

113) 張玉良主編,『戰役學』(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2006年), 17~21쪽.

114)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北京 : 編者出版, 1956年), 第1卷(戰爭簡史—內部文件), 11~43쪽.

115) 한국에서 말하는 우리의 '단장의 저격능선 전투'에 해당한다.

116) 이러한 전역들을 보면 마치 전역과 전역 사이에 전투가 없는 휴지기가 존재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전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전역 사이에도 작은 전투들이 발생했다.

117)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 第1卷, 7~9쪽.

118) 張東岳,「抗美援朝戰爭中的鄧華將軍」,『百年潮』, 2001年第9期, 40쪽.

119) 毛澤東,「志願軍入朝參戰及參戰後的戰略方針問題」(1950年10月12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07쪽.

120) 毛澤東,「我軍應當和必須入朝參戰」(1950年10月13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17쪽.

121) 서전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마오쩌둥의 전술론에 대해선 陳培雄,『毛澤東戰爭藝術』(臺北 : 新高地出版社, 1996年), 131~132쪽을 참조하라.

122) 毛澤東,「關於志願軍先頭部隊出動時間問題的電報」(1950年10月15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64쪽.

123) 毛澤東,「關於志願軍入朝作戰的方針和部署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4日), 위 책, 560쪽.

124) 毛澤東,「關於朝鮮情況和我軍入朝參戰意見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4日), 위 책, 559쪽.

125) 毛澤東,「關於志願軍入朝作戰的方針和部署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4日), 위 책, 560쪽.

126) 毛澤東, 위 자료, 560~561쪽.

127) 이동 전 제13병단이 둥베이변방군으로서 둥베이 각 지역에 부대별로 분산 주둔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서상문,「6·25전쟁 초기 중국의 군사적 대응 : 군대이동과 배치를 중심으로」, 육군본부 군사연구실,『軍事硏究』, 제122집, 152쪽을 보라.

128) 遼寧公路交通史編委會編,『遼寧公路交通史』(瀋陽 : 瀋陽出版社 1998年), 第2冊, 27~28쪽.

129) 總後勤部軍事交通部編著,『中國人民解放軍軍事交通史(1927-1987)』(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0年, 內部參考), 197쪽.

13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著,『抗美援朝戰爭史』, 第1卷, 201쪽.

131) 毛澤東,「關於十三兵團部改組爲志願軍司令部的電報」(1950年10月21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77쪽.

132) 總後勤部軍事交通部編著,『中國人民解放軍軍事交通史(1927-1987)』, 197쪽.

133) 吳瑞林,『抗美援朝中的第42軍』(北京 : 金城出版社, 1995年), 38쪽,

134)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瀋陽 : 遼寧人民出版社, 1988年), 36~37쪽.

135) 毛澤東,「關於志願軍出動目前只做不說的電報」(1950年10月19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71쪽.

136)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33쪽.

137) 毛澤東,「關於志願軍按豫定計劃入朝作戰給鄧華等的電報」(1950年10月18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68쪽.

138) 王樹和,『四十軍征戰紀實』(瀋陽 : 白山出版社, 1997年), 315쪽.

139) 이 다리는 왕복 2차선으로 길이가 944m 남짓했다. Chares R. Shrade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Lond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p.170.

140) 제38군단 측의 주장에 의하면, 중공군 사령부는 군무과 간부들을 직접 둥베이 지역 조선족 거주지로 보내 570여명을 선발해왔고, 둥베이군구가 선발해준 조선족을 합쳐 735명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하고, 중공군 사령부의 한 간부는 그 수를 2,000여명이었다고 한다.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31쪽 ;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年), 29~30쪽. 이처럼 한반도 전장으로 동원된 조선족 청년들의 숫자가 일정하지 않은 까닭은 각 부대별로 차출한 수가 달랐기 때문이다.

141)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31쪽.

142)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서울 : 살림출판사, 1996년), 44, 57쪽.

143) 杜平,『在志願軍總部』, 29~30쪽.

144) 總後勤部軍事交通部編著,『中國人民解放軍軍事交通史(1927-1987)』, 196~197쪽.

145) 전투를 1회 치르는데 필요한 분량을 말한다.

146) 總後勤部軍事交通部編著,『中國人民解放軍軍事交通史(1927-1987)』, 197쪽.

147) 위 책, 200쪽.

148) 위 책, 200쪽.

149) 吳瑞林,『抗美援朝中的第42軍』, 38쪽.

150)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55.

151) 王樹和,『四十軍征戰紀實』, 315쪽 ;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36쪽.

152) 보통 보급품은 두 어깨로 메고 다니는 솜이불로 묶은 배낭 속에 넣어 다녔는데, 그 내용물과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이 속에는 솜포대기 한 채, 입고 깔 수 있는 비옷 한 벌, 침대보 하나, 홑겹 신발 한 켤레, 군복,와이셔츠, 반바지, 양말, 수건 등을 넣은 보따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배낭 위쪽에는 수시로 입거나 사용할 수 있는 솜외투가 매달려 있고, 배낭 양쪽에는 익은 것과 생것을 분리해 놓은 비상식량 자루를 달아 놓았다. 왼쪽 어깨에는 권총 한 자루와 찬물이 가득 찬 쇠주전자가 메어져 있었고, 오른쪽 어깨에는 사무용품을 넣은 군용잡낭이 메어 있었다. 그리고 잡낭 끈에는 반찬을 담거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기 그릇을 걸어 놓았다.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52~53쪽.

153)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 위 책, 53쪽.

154) 民族問題硏究會編,『朝鮮戰爭史 : 現代史の再發掘』, 126쪽.

155)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90쪽.

156)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시 중국인민해방군은 낙후되고 성능이 떨어지긴 했어도 410대의 전차와 367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林長盛,『解放軍的武器裝備』(香港 : 明鏡出版社, 1996年), 3쪽, 37쪽.

15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0쪽.

158) 당시 중국 국내의 중국인민해방군은 155㎜대포 35문을 보유하고 있었다. 林長盛,『解放軍的武器裝備』, 9쪽.

159)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第2卷, 31쪽.

160)「雲山戰鬪 : 對美機一師作戰經驗總結(39軍司令部)」(1950年12月),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1949~1953. 3)』(춘천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0년), 제1권, 12쪽.

161) 중국정부가 소련정부와 구매 계약한 자동차는 1951년 초에 가서야 중국에 도달했다. 현대 통신장비, 소송차량, 화포 등의 무기 장비의 부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1951년 말에 가서 소련이 중국에 전해준 뒤부터였다. Charles R. Shrader, *op. cit.,* p.172, p.188.

162) 北京軍區後勤部軍事運輸部編,『中國人民解放軍北京軍區車船勤務史1937-1985』, 123쪽.

163)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0쪽.

164) Charles R. Shrader, *op. cit.,* p.172.

165) Samuel B. Griffith,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p.138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0쪽.

166)「關於借糧原則、組織、手續(39軍政治部)」(1950年10月31日),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1949~1953. 3)』(춘천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0년), 제2권, 391쪽.

167) 杜平,『在志願軍總部』, 24~25쪽.

168)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87쪽.

169) 楚云,『朝鮮朝戰內幕全公開』, 155쪽.

170) 러 國防部編,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 445쪽.

171)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 第2卷 앞 책, 67쪽.

172)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49쪽.

173) 위 책, 49쪽.

174) 중국이 군대에서 계급을 사용한 것은 소련군 계급제도를 받아들인 1955년부터였다.

175)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p.425~426.

176) 譚趙,『中國人民志願軍人物錄』(北京 : 中共黨史出版社, 1992年), 73쪽.

177) 胡海波編,『云山大碰撞—第一次戰役戰事報告』(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7年), 82쪽.

178) 瞿唯佳、曹宏編著,『中國雄師第四野戰軍』(北京 : 中共黨史出版社, 1996年), 179~180쪽.

179) 趙功德、張明金編著,『中國人民共解放軍歷史上的七十個軍』(天津 : 人民出版社, 1993年), 198~201쪽.

180) 위 책, 202~205쪽.

181) 瞿唯佳、曹宏編著,『中國雄師第四野戰軍』, 318~321쪽.

182) 趙功德、張明金編著,『中國人民共解放軍歷史上的七十個軍』, 253~255쪽.

183) 劉利民、張廣蘇、黃進,「試論抗美援朝戰爭中炮兵的運用」,『軍事歷史』, 2000年第3期, 39쪽.

184)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지음, 박상수 옮김,『중국현대사 :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서울 : 심산, 2009년), 41쪽.

185) "민주집중제"란 개인은 전체에 복종하고, 하급단위는 상급단위에 복종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86) 당위원회의는 전체 위원회의와 상임위원회의 두 종류가 있었다. 부대의 일상적인 업무는 당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처리하지만, 특수한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 필요에 따라 매년 1~2회 정도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했다. 浦興祖主編,『中華人民共和國政治制度』(上海 : 人民出版社, 1999年), 568쪽.

187) 위 책, 570쪽.

188) 鄭文翰主編,『軍事大辭典』, 197쪽.

189) 위 책, 179쪽.

190) 浦興祖主編『中華人民共和國政治制度』, 569~570쪽.

191) 中國人民解放軍戰士出版社編,『蘇聯軍事百科全書』(北京 : 編譯者出版, 1982), 第2卷, 939~940쪽.

192) Harvey W. Nelsen, *The Chinese Military System : An Organizational Study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 London : Thornton Cox Publishers, 1977), p.6.

193) 야전군과 군 사이에 존재하는 "군단"은 한국군의 군단급 보다는 규모가 크고 軍司 보다는 작은 단위인데, 매 시기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라 1950년대 이전에 잠시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때가 있었다.

194)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47쪽.

195) 民族問題研究會編,『朝鮮戰爭史 : 現代史の再發掘』, 122쪽.

196)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著,『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2쪽.

197) 위 책, 12쪽.

198) 위 책, 12쪽 ;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38쪽.

199) 毛澤東,「關於打好志願軍出國第一仗給彭德懷等的電報」(1950年10月21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75쪽.

200) 적을 공격해 적의 병력을 90% 이상을 없앴을 때를 '전멸', 80~90%를 없앴을 때를 '기본섬멸', 60~70%를 없앴을 때를 '대부분 섬멸'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반 혹은 소속단위가 부분적으로 없어졌거나 건제가 파괴되어 원기가 크게 상했을 경우 '섬멸성 타격'이라고 정의한다. "中國軍事辭典"編審委員會編,『中國軍事辭典』(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0年), 417쪽.

201) 毛澤東,「控制妙香山小白山隔斷東西兩路」(1950年10月21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32쪽.

202) 毛澤東,「志願軍打好出國第一仗」(1950年10月21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28쪽.

203) 張東岳,「抗美援朝戰爭中的鄧華將軍」,『百年潮』, 2001年第9期, 41쪽.

204) 기동전의 주요 특징은 유동성, 공격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기동전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동전방어, 진지공격, 진지방어가 포함된다. 鄭文翰主編,『軍事大辭典』, 30쪽.

205) 이로 인해 펑더화이는 훗날 "나와 김은 운 좋게도 포로를 면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206) 楚云,『朝鮮朝戰內幕全公開』, 152쪽.

207) 楊迪,『在志願軍司令部的歲月里—鮮爲人知的眞情實況』, (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8年), 61쪽.

208) 위 책, 61쪽.

209) 毛澤東,「在博川軍隅里及其以北地區圍殲僞第六第八兩師」(1950年10月22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35~136쪽.

210)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94쪽.

211) 毛澤東,「立卽占領妙香山杏川洞」(1950年10月22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38쪽.

212) 毛澤東,「關於速定圍殲僞六八兩師的部署給彭德懷、鄧華的電報」(1950年10月22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82~583쪽.

213) 毛澤東,「關於速定圍殲僞六八兩師的部署給彭德懷、鄧華的電報」(1950年10月22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83쪽.

214) 毛澤東,「立卽占領妙香山杏川洞」(1950年10月22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37쪽.

215) 毛澤東,「十九兵團待命開立東北」(1950年10月22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39쪽.

216) 毛澤東,「關於朝鮮戰局問題給彭德懷、高崗的電報」(1950年10月23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590쪽.

217) 毛澤東,「在穩當可靠的基礎上爭取一切可能的勝利」(1950年10月23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40쪽.

218) 毛澤東, 위 자료, 142쪽.

219) 毛澤東,「關於向鴨綠江進攻的敵軍動向和我軍任務的電報」(1950年10月25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01쪽.

220) 毛澤東,「立卽占領妙香山杏川洞」(1950年10月22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37쪽.

221) 과거 중공군사과학원에서 발행된 저서에는 이 시기 중공 지도부가 방어하고자 한 방어선은 구성-태천-구장-덕천-영원-오로리를 잇는 이북지역이었다고 기술돼 있다. 韓國戰略問題研究所譯,『中共軍의 韓國戰爭史』(서울 : 世經社, 1991년), 19쪽. 그러나 이 시점에 덕천은 이미 제8사단이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덕천-영원지역은 제외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2) James F. Schnabel, *op. cit.,* p.228.

223)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 309~310쪽.

224)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 115쪽.

225) 胡海波編,『云山大碰撞—第一次戰役戰事報告』, 82~83쪽.

226) 위 책, 85쪽.

227)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北京 : 編者出版, 1956年), 第2卷(戰術經驗總結—內部文件), 35쪽.

228) 毛澤東,「目前形勢和我們的任務」(1947年12月25日),『毛澤東軍事文集』, 第4卷, 353쪽.

229) 王樹和,『四十軍征戰紀實』, 311쪽.

230) 위 책, 181쪽.

231) 魏白編著,『志願軍十大虎將傳奇』(濟南 : 黃河出版社, 2000年), 211쪽.

232)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 116쪽.

233) 데이비드 핼버스탬 지음, 정윤미, 이은진 옮김,『The Condest Winter :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서울 : 살림출판사, 2009년), 24~27쪽.

234) 나중에 1951년 8월 18일 중공군 총정치부는 마오쩌둥 등 중국지도부에게 한국군과 첫 전투를 벌여 승전한 이 날을 '항미원조전쟁기념일'로 정하자고 건의했고, 8월 27일 마오쩌둥이 이를 승인한 결과 '항미원조기념일'이 됐다.

235) 魏白編著,『志願軍十大虎將傳奇』, 255~257쪽.

236) 위 책, 255~257쪽.

237)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 116~117쪽.

238) 위 책, 117쪽, 121쪽.

239)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 67쪽.

240) "Memorandum by Director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Smith) to the President", 1 November 1950, FRUS, 1950, Vol.Ⅶ, p.1025.

241) 劉載興,『激動의 歲月』(서울 : 乙酉文化社, 1994년), 221쪽.

242)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 123쪽.

243) 毛澤東,「先孤住一兩部敵軍圍攻吸引敵主力增援」(1950年10月25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58쪽.

244) 毛澤東,「先殲僞第一第六第八師後打美英軍」(1950年10月26日), 위 책, 161쪽.

245) 毛澤東,「同意彭德懷提出的敵對作戰方針」(1950年10月26日), 위 책, 164쪽.

246) 魏白編著,『志願軍十大虎將傳奇』, 120쪽.

247)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 309~310쪽.

248) 위 책, 289, 297쪽.

249)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東京 : 草思社, 2001年), 180~181쪽.

25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서울 : 편자출판, 1972년), 제5권(中共軍侵略과 再反擊作戰期), 85쪽.

251) 미국 독립전쟁 시기 조지 워싱턴 시대를 여는데 공을 세운 사단으로서 창설 초기에는 말 그대

로 기병 위주였지만 나중에는 기계화 장비로 무장됐다. 그러나 그 뒤로도 전통에 따라 창설 이래 160년간 그대로 사단의 명칭을 바꾸지 않고 사용해온 최정예부대였다.

252) 魏白編著,『志願軍十大虎將傳奇』, 159~160쪽.

253) 미군 약 1,800명 전사, 전차 28대와 화포 190문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한다.

254)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서울 : 저자출판, 1995년), 중권, 105쪽.

255)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서울 : 저자출판, 1995년), 상권, 561쪽,

256) 劉載興,『激動의 歲月』, 221~222쪽.

257) 沈志華,「抗美援朝戰爭中的蘇聯空軍」『中共黨史硏究』, 2000年第2期, 70쪽.

258) 毛澤東,「爭取在元山順天鐵路線以北創造戰場」(1950年11月5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94~195쪽.

259) 毛澤東,「關於爭取在元山順川鐵路線以北創造戰場的電報」(1950年11月5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47쪽.

260) 마틴 러스 저, 임상균 역,『브레이크 아웃 :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서울 : 나남출판사, 2004년), 82쪽.

261) "彭德懷自述"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年), 259쪽.

262) 崔鍾泰 編著,『韓國戰爭日誌』(서울 : 軍事問題硏究所, 1991년), 155쪽.

263) 毛澤東,「關於朝鮮主力戰場的新聞報道問題給胡喬木的信」(1950年11月17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71쪽.

264)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MacArthur)", 6 November 1950, FRUS, 1950Vol.Ⅶ, p.1076.

265)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 65~66쪽.

266)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 op. cit.,* p.418.

267) James F. Schnabel, op. cit., p.292.

268) 전후 미국은 타이완 중립화 의도를 숨기고 있었는데, 6·25전쟁이 발발한 뒤로는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의도를 드러낸 발언을 해왔고, 또한 이와 관련된 일련의 시도도 해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상문,「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論析」『軍史』, 제54호, 234~239쪽을 참조하라.

269)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軍史』, 제59호, 283~284쪽.

270) 毛澤東,「爭取在元山順天鐵路線以北創造戰場」(1950年11月5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95쪽.

271) 毛澤東, 위 자료, 194쪽 ; 毛澤東,「三十八軍應盡可能爭取殲滅僞七師一兩個團」(1950年11月5日), 위 책, 196쪽.

272) 毛澤東,「關於九兵團的作戰任務和指揮問題的電報」(1950年11月5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50쪽.

273) 張東岳,「抗美援朝戰爭中的鄧華將軍」『百年潮』, 2001年第9期, 41쪽.

274) 毛澤東,「同意志願軍下一步的作戰方針和部署」(1950年11月9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199쪽.

275) 毛澤東,「關於爭取在一個月內東西兩線各打一兩個仗的電報」(1950年11月9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53쪽.

276) 毛澤東,「朝鮮戰局是可以轉變的」(1950年11月13日), 위 책, 658쪽.

277) 姜廷玉,「中朝聯合司令部成立始末」『縱橫』, 總第130期(2000年10月), 35쪽,

278) 金日成,「關於加强敵後鬪爭」(1950年11月17日),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 第6卷, 146~147쪽.

279) 穆俊杰,「消滅美軍一個建制團 : 宋時輪抗美援朝戰爭片段」『湘籍將帥』, 2007年第2期, 24쪽, 제9병단의 총병력이 14만 명이었다는 기록도 있다.

280) 위 논문, 24쪽, 중국군사과학원의 저서에 제20군단이 도강한 곳은 린장이었다고 하는데, 11월 12일 제27군단과 같이 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83쪽.

281)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위 책, 83쪽.

282) 제2차 전역에 투입된 중공군 병력수에 대해세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 가장 적은 수로 38만 여명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90쪽. 또 40여만 명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鄧禮峰,『建國後軍事行動全錄』(太原 : 山西人民出版社, 1992年), 265쪽.

283)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90쪽.

284) 姜思毅主編,『中國人民解放軍大事典』(天津 : 人民出版社, 1992年), 1110쪽.

285) 吳瑞林,『抗美援朝中的第42軍』, 65쪽,

286) 11월 17일 펑더화이, 덩화, 두핑은 연명으로 중공군사위원회와 총정치부에 미군 및 한국군 포로 100명(미군 30명, 한국군 70명)을 놓아 주겠다고 보고 했고, 18일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었다. 毛澤東,「關於釋放俘虜等問題給彭德懷等的電報」(1950年11月18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72쪽.

287)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 427~429쪽.

288) 毛澤東,「關於準備隨時撲滅空降敵人給彭德懷等的電報」(1950年11月24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85쪽.

289) 彭德懷,「入朝作戰第一次戰役的基本總結及第二步作戰方針」(1950年11月13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 337쪽.

290) 맥아더의 군사작전을 제어할 대안을 두고 미국의 국방부, 합참, 국무부 3자간에 드러난 책임회피 태도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 425~426쪽을 참조하라.

291) Billy C. Mossman, *op. cit.,* p.43.

292) Billy C. Mossman, *op. cit.,* pp.43~44.

293) 國防軍史硏究所,『韓國戰爭』(서울 : 저자출판, 1995년), 상권, 576~577쪽.

294) 위 책, 577~586쪽.

295) 위 책, 586~588쪽.

296) "크리스마스 공세"라는 명칭은 정식 작전명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의 유래는 맥아더 원수가 사석에서 밀번 소장에게 농담 삼아 "잘 되면 크리스마스까지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home by Christmas)고 한 말이 크게 전해져 이 공세의 명칭이 돼 버렸다. 여기서도 편의상 그대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97)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 429쪽.

298) 陸戰史硏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東京 : 原書房, 1971年), 206쪽.

299) George E. Stratemeyer,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Edited by

William T. Y. Blood, pp.298~299 ;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 op. cit.,* p.424.

300) 陸戰史研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 207~208쪽.

301) "The Chief of Staff, United States Army (Collins), to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MacArthur)" 24 November 1950, FRUS, 1950Vol.Ⅶ, pp.1223~1224.

302)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25 November 1950, FRUS, 1950Vol.Ⅶ, pp.1231~1233.

303) "Substance of Statements Made at Wake Island Conference on 15 October 1950", FRUS, 1950Vol.Ⅶ, p.953.

304) 穆俊杰,「消滅美軍一個建制團 : 宋時輪抗美援朝戰爭片段」앞 책, 24~25쪽 ; 마틴 러스 저, 임상균 역,『브레이크 아웃 :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 363쪽.

305) 서부전선에서의 중공군 제2차 전역 개시 시간은 자료 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즉 "황혼"〔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93쪽〕, "오후 5시"〔李慶山,『志願軍援朝紀實』(北京 : 中共黨史出版社, 2008年), 86쪽〕, "밤 11시"(吳瑞林,『抗美援朝中的第42軍』, 67쪽) 등 일정하지 않다,

306) 楊迪,『在志願軍司令部的歲月里—鮮爲人知的眞情實況』, 61~62쪽.

307) Robert R. Futrell, *The Unite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pp.223~226 ; Conrad C. Crane,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pp.46~49.

308)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79~80쪽.

309) Carl Von Clausewitz,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204.

310)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 第2卷, 35쪽.

311)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 132쪽.

312) 魏白編著,『志願軍十大虎將傳奇』, 165쪽.

313) 劉載興,『激動의 歲月』, 238쪽.

314)「두 개의 중국」, YTN특별기획,『한국전쟁을 말한다』, 2010년 6월 23일 방영.

315) 제38군단 부군단장이 남긴 회고록에는 행군 중 일부 병사들이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으며, 병사 8명은 쇼크로 졸도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들이 전력으로 행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 171쪽.

316) 위 책, 169~171쪽.

317)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서울 : 편자 출판, 1980년), 제11권(UN軍參戰篇), 295~308쪽을 참조하라.

318) 毛澤東,「集中四個軍殲滅美軍三個師的電報」(1950年11月28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217쪽.

319) 毛澤東,「利用兩個戰役之間作必要的休息整訓」(1950年11月30日), 위 책, 219쪽.

320)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93쪽.

321) 미군의 유담리 전투 관련 상세한 내용은 Eric M. Hammel, *Chosin : Heroic Ordeal of Korean War*,(CA Novato : Presidio Press, 1990), Part Three를 참조하라.

322)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2卷, 132~133쪽.

323)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83쪽.

324) 徐焰,『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正確而輝煌的運籌帷幄』(北京 : 解放軍出版社, 2003年), 164쪽.

325) "The Commander in Chief, Far East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28 November 1950, FRUS, 1950Vol.Ⅶ, pp.1237~1238.

326) Douglas MacArthur, *op. cit.,* p.427.

327) "Memorandum of Conversation, by the Ambassador at Large (Jessup)", 28 November 1950, FRUS, 1950, Vol.Ⅶ, pp.1242~1249.

328)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 285쪽.

329) Harry S. Truman, *Memoirs :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Inc., 1956), Vol.Ⅱ, p.415.

330)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MacArthu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30 November 1950, FRUS, 1950Vol.Ⅶ, p.1260.

331) 大韓民國公報處,『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서울 : 편자출판, 1953년), 287쪽.

332) 이춘근,「공산 세력의 남침과 자유 세력의 대응」, 이주영 외 8명 공저,『한국현대사 이해』(서울 : 경덕출판사, 2007년), 85쪽.

333) 李慶山,『志願軍援朝紀實』, 184쪽.

334)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년), 209쪽.

335) 毛澤東,「同意東西兩線作戰部署」(1950年12月5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238쪽.

336) 王樹和,『三十九軍征戰紀實』, 460~461쪽.

337)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제11권(강원도), 35쪽.

338) Eric M. Hammel, *op. cit.,* p.500.

339) Douglas MacArthur, *op. cit.,* p.429.

340)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 444쪽.

341) 서울新聞社 編著,『駐韓美軍 30年』(서울 : 杏林出版社, 1979년), 217쪽.

342)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31쪽.

343)「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내는 전문」(1950년 12월 1일),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년), 224~225쪽.

344) 毛澤東,「軍委關於加强同美國軍隊作戰的思想敎育的電報」(1950年11月22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678쪽.

345) 徐焰,『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正確而輝煌的運籌帷幄』, 164쪽,

346) 중국과 북한 측은 유엔군과 한국군 사상자가 3만 6,000명이었고, 그 중 미군이 2만 4,000명이었다고 주장했다. 徐焰,『毛澤東與抗美援朝戰爭—正確而輝煌的運籌帷幄』(北京 : 解放軍出版社, 2003年), 164, 166쪽.

34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 編著,『中國人民解放軍八十年大事記1927-2007』(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7年), 293쪽.

348) 「소련 외무성 부상이 쓴 일지에서 발췌 : 세계의 군사 정치 정세 및 조선에서의 전선상황 협의를 위한 소련 주재 중국대사의 면담에 대하여」(1950년 12월 5일),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228쪽.

349) 毛澤東,「我志願軍必須越過三八線作戰」(1950年12月13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240쪽.

350)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 105~108쪽.

351) 위 책, 108쪽.

352)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서울 : 살림출판사, 1996년), 95쪽.

353) 위 책, 128~129쪽.

354)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 第2卷, 108쪽.

355)「關於借糧原則、組織、手續(39軍政治部)」(1950年10月31日),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1949~1953. 3)』, 제2권, 391쪽.

356)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 第2卷, 105쪽.

357)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 183~184쪽.

358)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104쪽.

359) 위 책, 104쪽.

36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44쪽.

361)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105쪽.

362)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年), 454쪽.

363) 軍事科學院軍事歷史硏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63쪽.

364) 毛澤東,「我志願軍必須越過三八線作戰」(1950年12月13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240쪽

365) 毛澤東, 위 자료, 239쪽.

366) 창설된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지만, 세부 합의문이 도출된 당일 12월 8일이었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9일 또는 10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홍쉐즈는 12월 4일 중공군 지휘부가 중조연합사령부의 설립사실을 전체 각 부대에 통보했다고 했다.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 101쪽.

367) 周恩來,「中朝兩方關於成立中朝聯合指揮部的協議」(1950年12月8日), 中共中央文獻硏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周恩來軍事文選』(北京 : 人民出版社, 1997年), 第4卷, 122쪽.

368)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한국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년), 203쪽.

369) 毛澤東,「關於我軍必須超越三八線作戰給彭德懷等的電報」(1950年12月13日),『建國以來毛澤東文稿』, 第1冊, 722쪽.

370) 彭德懷,「一九五〇年十二月十五日二十二時給各軍並報軍委、東司的電報」, 中共中央文獻硏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355~356쪽.

371) 毛澤東,「關於朝鮮戰場形勢和作戰部署」(1950年12月21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245쪽.

372)「社論」『人民日報』, 1950年12月17日.

373) 周恩來,「外交部周恩來部長關於聯合國大會非法通過成立'朝鮮停戰三人委員會'決議一事的聲明」(1950年12月22日),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偉大的抗美援朝運動』, (北京 : 人民出版社, 1954年), 82~83쪽.

374) 彭德懷,「一九五○年十二月十八日二十時給毛主席幷高崗的電報」,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 359~360쪽.

375) 毛澤東,「打一個勝仗後休整準備春季攻勢」(1950年12月29日),『毛澤東軍事文集』, 第6卷, 252쪽.

376)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 第2卷, 173~174쪽.

377) 위 책, 174쪽.

378)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 제11권, 35쪽.

379) 王樹和,『三十九軍征戰紀實』, 471쪽.

380) 劉利民、張廣蘇、黃進,「試論抗美援朝戰爭中炮兵的運用」『軍事歷史』, 2000年第3期, 39쪽.

381)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 101쪽.

382) Billy C. Mossman, *op. cit.,* p.159.

383) 이충환,『미국비밀 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서울 : 삼인, 2003년), 207쪽.

384) 劉載興,『激動의 歲月』, 216쪽.

385)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 61쪽.

386) 沈志華,「抗美援朝戰爭中的蘇聯空軍」『中共黨史研究』, 2000年第2期, 71쪽.

387)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년), 369쪽.

388) 徐相文,「關於"毛澤東預言美軍仁川登陸"的時間考」『中共黨史資料』, 第73輯(北京 : 2000年3月), 190~192쪽.

38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서울 : 저자 출판, 2007년), 124쪽.

390) 李種判, 小柳順一,「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미 극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軍史』, 제67호, 63~64쪽.

39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 109~110쪽.

392) 李種判, 小柳順一,「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미 극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軍史』, 제67호, 92~96쪽.

393) Douglas MacArthur, *op. cit.,* p.426.

394) 이와 관련해 윌리엄 스툭은 유엔군이 평양-원산 선에서 북진을 멈췄더라면 중국과의 대규모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New Jerse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120. 그러나 이 주장은 중국수뇌부가 설정한 최후의 전략방어선이 청천강-덕천-영원선이었다는 사실을 아군이 알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다소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95) 김경준,『CEO, 역사에게 묻다』(서울 : 위즈덤하우스, 2009년), 201쪽.

396)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년), 210쪽.

397) 위 책, 210쪽.

398) James F. Schnabel, *op. cit.,* pp.115~116.

399)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軍史』, 제59호, 250쪽.

400) 남정옥,「6·25전쟁 초기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쟁지도」『軍史』, 제59호, 74~76쪽.

401)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 367쪽.

402) 金日成,「關於組織獵機組」(1950年12月29日), 外國文出版社編,『金日成著作集』, 第6卷, 203~204쪽.

403) 陳培雄,『毛澤東戰爭藝術』(臺北 : 新高地出版社, 1996年), 130쪽.

404) 劉載興,『激動의 歲月』, 238쪽.

405) 이는 손자병법 제3편 '謀功'에 나오는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제 4 장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작전 계획
제 3 절	유엔군의 진격과 중공군의 반격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는 평양을 점령한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淸川江) 선으로 진출하여 1950년 10월 24일 한·중 국경선을 향한 총공격을 개시하자, 압록강을 도하하여 적유령산맥 남단에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10월 25일 공세를 단행함으로써 1950년 11월 5일까지 피아간에 전개된 공방전 및 철수작전을 일컫는다.

청천강 선에 도달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전력상 북진 당시에 설정한 군사적인 목표의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1950년 10월 24일 총공세를 개시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청천강을 도하하여 박천-운산-온정리-희천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함흥과 흥남을 점령한 후 장진호와 청진 방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제1차로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 제13병단은 예하 6개 군단 중 5개 군단을 적유령산맥 남단에, 다른 1개 군단은 장진호 북쪽에 각각 전개하고 있었다.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은 제42군단이 동부전선에서 국군 및 유엔군의 전진을 저지 및 견제하는 동안 서부전선의 제39군단을 비롯한 5개 군단이 운산-희천방향으로 공격을 감행하였다.

국경을 향한 진격작전을 전개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의 기습으로 전선의 균형이 와해되자, 11월 1일 공격을 중단하고 청천강 선으로 철수하여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청천강 연변까지 남하한 중공군은 11월 5일 공격을 중단하고 적유령산맥 남단으로 이동함으로써 전선에는 일시적인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한편 미 제8군의 작전지역인 청천강 이북의 서북부지역은 북으로 적유령산맥(狄踰嶺山脈)에 가로막혀 압록강에 이르는 통로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동으로는

묘향산맥(妙香山脈)과 낭림산맥(娘林山脈)이 해발고도 1,000m 내외의 준령으로 이어지며 이 지역을 동서로 갈라놓아 기동에 제한을 주는 지형이었다.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청천강(淸川江)은 관서의 준령인 적유령에서 발원해 희천(熙川), 영변(寧邊), 박천(博川), 안주(安州), 정주(定州) 등지의 지류를 모으면서 남서향으로 약 200㎞를 흘러 서해에 이르고 있다.[1)]

그리고 미 제10군단 작전지역인 함흥-장진호 일대의 지형은 해발 2,000m의 준봉으로 이어진 낭림산맥과 그 중간의 함경산맥에서 이어지는 부전령산맥이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으며, 황초령 이북은 개마고원으로서 함남지방에서 가장 광대하고 평탄한 지대이다. 지역 내에는 인공호수인 장진호와 부전호가 있으며, 장진호는 함흥 북쪽에서 강계로 향하는 통행에 제한을 주고 있다. 작전지역의 기상조건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특징을 보이며, 겨울철의 최저기온은 영하 30도 내외로 강설량과 강우량은 적은 편이나 기온관계로 적설기가 길다.

작전기간 동안 중공군 및 북한군은 연합체제 하에서 군단급의 대부대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선을 서부와 동부로 구분하여 지역작전 개념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에 비해 공군력과 전차 등이 열세하였으므로 재래식 전술에 입각하여 포위와 침투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적은 대부대의 포위 기동과 우회작전을 비롯해 적극적인 침투작전을 주로 사용하였고, 기만 유인과 침투, 매복전술 등을 혼용하였다. 특히 제2전선부대가 수행한 게릴라전은 작전수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적은 제1차 공세를 통해 서부전선에서는 정주 남쪽-박천-구장-덕천 북쪽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고, 동부전선에서는 장진-혜산진-청진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하면서 지연전을 수행하였다. 중공군이 참전하여 최초로 수행한 제1차 작전의 주요 성과는 작전기간에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는 한편 동부지역에서의 방어 지연전으로 유엔군을 고착 견제함으로써 서부전선에서의 상대적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작전의 성격은 압록강을 향해 진격하던 미 제8군 등 유엔군의 북진을 청천강 선에서 저지한 점과 7개 군단 규모의 대부대 작전을 수행한 점이다.

제 2 절 작전 계획

1. 유엔군의 작전계획

1) 작전 배경

국군과 유엔군이 동부와 서부 전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한 후 1950년 10월 중순에 작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자, 유엔군사령관 맥아더(Douglas A. McArthur) 원수는 북진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기존 계획은 제1차 목표를 평원선 확보에 두고 정주-군우리-영원-함흥-흥남을 잇는 선을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 제8군은 평양을 정면에서 공격하는 한편 원산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이 측면에서 평양을 협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에 앞서 미 제8군이 평양점령을 목전에 두자, 맥아더 사령관은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 선으로 연장하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2] 아울러 10월 20일 12:00부로 미 제10군단을 독립 운영하는 결정을 내려 동부와 서부전선의 작전을 각각 분리시키고, 미 제8군에 평양공격을 전담하도록 지시하였다.[3]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Walton H. Walker) 중장은 국군 제1군단의 작전지휘권을 미 제10군단장에 인계하고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군단으로 평양을 탈환하였다.

한편 10월 15일 웨이크 섬에서 열린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과의 회담 당시 맥아더 사령관은 “북한군의 조직적인 저항은 북한과 남한 전 지역에서 추수감사절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믿는다. 평양이 점령되면 나머지 적은 포위되고 전쟁은 끝날 것이다. 크리스마스까지 미 제8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중공군의 개

입 시기는 이미 지났고, 그 가능성도 희박하다. 만일 그들이 전쟁에 참전하여 평양으로의 진격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막강한 공군력으로 최대의 살육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4]

맥아더 사령관은 평양을 점령한 후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에게 "휘하의 전 병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진격전을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한·중 국경선까지엔 조직적인 저항력을 상실한 북한군만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남아있어 외부의 군사적 개입만 배제된다면 무난히 국경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인 11월 23일까지는 전쟁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총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서부지역 정면을 담당한 미 제8군과 육군본부의 적정 분석이 크게 작용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

① 적은 단축된 보급로와 새로운 병력의 동원으로 저항능력을 형성할 것이며, 동시에 게릴라에 의한 유격활동을 획책할 것이다.

② 적은 만포진을 중심으로 주변에 방위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희천과 무평리(武坪里)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지역은 양호한 도로가 있는 동시에 산악이 병립하여 유격활동에 유리한 차폐물과 은폐물을 제공할 것이다.

③ 적은 만포진을 결전장으로 택할 것이며, 아군의 진격에 극력 저항할 것이 예상된다.

④ 아직 소련군이나 중공군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희천-무평리-만포진 축선의 방어는 중공군에 소속한 한인이 가담하리라는 예상을 완전 배제할 수 없으며, 중국이나 소련의 지원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이다.

⑤ 적은 사령부를 희천으로 옮기고, 다음과 같은 축차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1차 방어선(청천강 방어선) : 안주-개천-덕천 선
- 제2차 방어선(희천 방어선) : 북진-희천-유원진(柔院鎭) 선
- 제3차 방어선(최종 방어선) : 강계-만포진 일대의 방어선

⑥ 적은 철의 삼각지대에서 집결한 20,000여 명의 병력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리산지구의 20,000명은 압록강 진격작전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이다.



평양을 점령한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을 개시하자 북한 수뇌부가 피신했던 압록강변의 국경도시 만포진

⑦ 10월 20일 현재, 국군 제2군단 지역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병력은 접적 중 또는 전선에 연해 대기중인 병력 6,400명, 전진 지역의 부대 병력 15,000명, 예비 병력 33,000명으로 추산된다.

2) 작전계획

북한의 수도 평양을 탈환한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1950년 10월 24일 미군 부대의 전진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했던 전진한계선을 철폐하며,[6]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에 북한 전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상군의 운용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전 병력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진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였다.[7]

또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도 이러한 명령에 따라 북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10월 24일을 기해 일제히 총공격을 개시할 것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미 제8군의 예비로 있던 국군 제7사단을 미 제1군단에 배속시켜 가능한 한 국경선지대의 작전을 국군 제1사단과 제7사단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대신에 평양에 주둔중인 미 제1기병사단을 군 예비로 전환하였다.[8]

이에 따라 미 제8군의 우전방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장 유재흥(劉載興) 소장은

국경선을 향한 진격작전에서 군단의 좌전방으로 제6사단을, 우전방으로 제8사단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사단에 부여된 목표지점은 제6사단이 초산과 벽동이었고, 제8사단은 만포진과 중강진이었다. 또한 미 제8군의 좌전방인 미 제1군단장은 군단의 우익인 국군 제1사단에 안주-운산 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고, 군단 좌익으로서 영국군 제27여단을 배속한 미 제24사단에 대해 청천강을 도하하여 선천을 경유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배속된 국군 제7사단을 군단 예비로 운용하였다.



국군 제1사단의 진격목표인 수풍댐

한편 낭림산맥 이동(以東)의 동북부지역의 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제3사단이 미 제10군단의 원산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함흥-흥남 일대에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고, 수도사단은 10월 24일의 총공격 명령에 따라 한·중 국경선을 향해 북진중에 있었다. 그리고 미 제10군단 주력부대는 기뢰소해작전으로 인해 해상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미 제10군단장은 기뢰소해작전이 최종단계로 접어들자, 작전지역을 조정하는 작전계획을 예하에 하달하였다.[9]

『① 한국군 제1군단은 해안선과 무산 가도를 따라 북으로 계속 전진하여 백두산 이동(以東)의 국경선을 점령한 후, 지구 내를 평정한다. 단, 미 제7사단과 제1해병사단이 진출할 때까지는 일부병력을 장진호, 부전호, 풍산 방면으로 지향시켜 적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며, 원산지구를 경비하는 국군 제3사단은 임무를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한 후 수도사단을 후속하라.

②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선에 진출하여 강계를 목표로 공격준비를 하며, 미 제3사단이 원산에 도착할 때까지 일부병력으로 원산-함흥지구를 경비한다.

③ 미 제7사단은 이원에 상륙하는 즉시 풍산과 부전호를 거쳐 백두산 남쪽으로 진출한다.

④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지구의 경비를 맡아 후방의 적 유격대를 소탕함과 동시에 군단의 보급로를 방호한다.』

이와 같이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소장은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을 백두산-성진을 연하는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전선을 조정하고, 미 제10군단은 산맥의 서쪽인 함경남도 지역을, 국군 제1군단은 동쪽지역인 함경북도 지역을 담당토록 지시하였다.

2. 공산군의 작전계획

1) 작전기도 및 방침

중공군 지휘부가 수립한 작전방침은 유엔군을 한반도내에서 축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기초 위에서 현재의 작전여건에 따라 가능한 한 모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국(戰局)의 군사적 결정요인을 첫째, 현재 계획된 전역(戰域)은 적이 전혀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국군 2~4개 사단을 전멸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둘째, 적 항공기에 의한 피해와 활동방해를 숙달된 야간행군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 셋째, 미국의 증원병력이 한반도

에 투입되기 이전에 기동전이나 고립거점 타격작전으로 유엔군 일부 병력(수개 사단)을 섬멸할 수 있는가의 여부로 평가하였다.[10]

이에 따라 중공군은 「선 국군 타격, 후 유엔군 타격」이라는 제1차 공세 기본 작전원칙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국군 2~3개 사단을 섬멸하는 것을 목표로 재편한 북한군과 연합하여 "제2전선의 유격활동을 적극화하고 적 후방을 타격하며,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 이북에서 완강한 반격을 전개하는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완강한 방어로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유리한 여건을 형성한 후 반격작전을 실시한다"는 작전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공군의 참전에 따른 전황 변화에 따라 전국(戰局)의 전환을 위한 전쟁 3단계의 전략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1] "제3단계는 중국인민지원군 부대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적의 유생역량을 대량적으로 섬멸하면서 적을 38선 이남까지 구축(驅逐)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우리의 역량을 정비강화하는 한편 적의 역량을 부단히 소멸하는 전투를 진행하여 적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쟁취할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북한군은 중공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한 후 국군과 유엔군을 38선 이남으로 구축하고, 부단한 소모전으로 유엔군의 전력을 약화시킨다는 작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제2전선부대들의 활동을 적극화하여 적을 후방으로부터 공격하는 동시에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 이북에서 강력한 반격을 가해 적에 극심한 타격을 주며, 동부전선에서는 완강한 방어로 적의 공격을 저지시킴으로써 차후의 결정적인 반격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12]

2) 작전계획

이와 같은 작전기도 및 방침에 따라 중공군과 북한군의 연합부대는 주력을 서부전선에서 운용하는 한편 선천과 구성 지역으로 유엔군을 유인 견제하면서 미 제8군의 돌출부인 온정-희천 지구에서 박천-개천 방향으로 주공을 지향하여 청천강 이북의 유엔군 부대를 섬멸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13]

『제42군단 주력은 동부전선 황초령(黃草嶺)과 부전령(赴戰嶺)지역에서 강계 방향으로 전진하는 적을 저지하여 동부전선의 적을 견제하면서 서부전선 주력의 측후방을 엄호한다. 제38군단과 제39군단, 제40군단과 제42군단 제125사단은 서부전선의 운산과 온정, 희천 지역에서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 그리고 제8사단을 각개 섬멸한다.』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살펴보면, 제40군단은 온정 북쪽과 북진 동쪽지역에 집결하여 온정과 그 서쪽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을 섬멸하고, 제39군단은 신속히 운산 서쪽지역으로 집결, 국군 제6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이동하는 국군 제1사단을 운산부근에서 섬멸하며, 제38군단(제125사단 배속)은 희천 북쪽 명문동(明文洞)-창동(倉洞)지역에 집결하여 국군 제8사단을 희천 일대에서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청천강 선을 조기에 돌파할 목적아래 비교적 협소한 서부지역에 중공군 제13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을 집중 운용하며, 국군 제2군단의 돌출부인 초산과 온정 지역에서 대병력으로 인해전술과 포위기동을 구사한다는 작전이었다. 그리고 희천-운산-개천 방향으로 우회 기동하여 청천강 북안을 압박하는 한편 서해안 일대의 양호한 기동공간지대를 개방함으로써 그들의 주공방향을 기만하고, 미 제1군단을 선천, 구성 방면으로 유인 견제하여 미 제1군단과 국군 제2군단을 분리시키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적은 희천, 개천, 덕천 일대의 고지대와 청천강 상류지대에서 주력을 운용함으로써 고지대에서 저지대로의 기동을 기도하며, 동시에 유엔군을 서부와 동부로 분단하여 청천강 선 일대에서 미 제8군 주력에 대한 포위 섬멸을 계획하였다.

한편 서부지역의 포위기동에 호응해 중공군 제42군단(-)은 북한 제3, 제4, 제5군단과 함께 동부 산악지역과 동북 해안지대에서 유엔군을 최대한 저지 견제함으로써 청천강선 돌파와 평양의 조기 점령에 기여하고, 동북부 산악지대로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을 깊숙이 유인 고착하여 전력을 소모시킨다는 계획이었다.[14]

제 3 절 유엔군의 진격과 중공군의 반격

1. 양측의 상황

1) 적 상황

(1) 전투편성

1950년 10월 24일 국경선을 향해 총공격을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의 정면에는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6개 군단 18개 사단, 포병사령부 예하 3개 포병사단과 고사포연대 및 공병연대, 그리고 북한군 4개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적은 작전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분할하여 서부지역은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제38군단, 제39군단, 제40군단, 제50군단, 제66군단의 5개 군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동부지역은 중공군 제42군단과 북한군 제3군단 및 제5군단 그리고 청진 등 동북해안지대의 제4군단이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예비병력으로는 신편 및 재편중에 있던 제6군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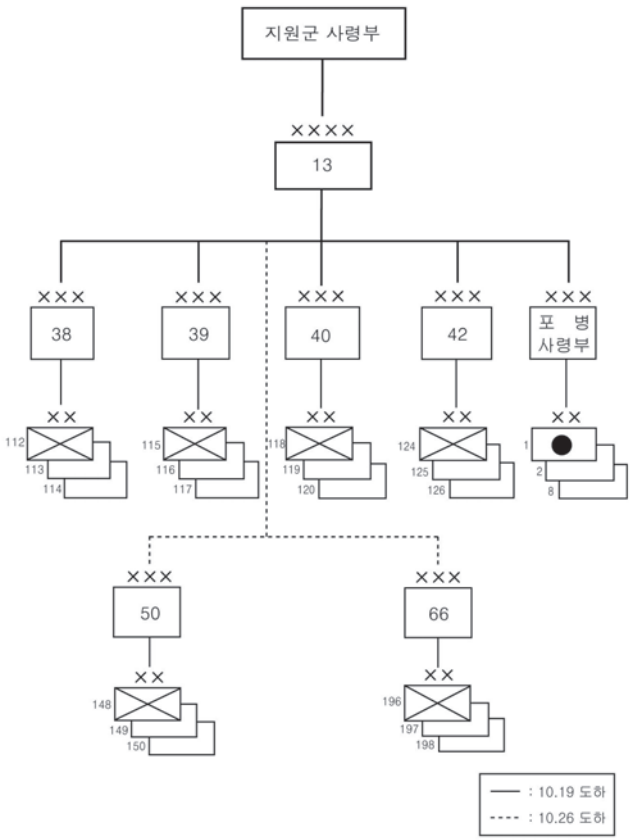
<표 4-1> 제1차 공세시 중공군 및 북한군의 전투편성

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서부전선	중공군	제38군단, 제39군단, 제40군단, 제66군단	
	북한군	제1군단	혼성병력
동부전선	중공군	제42군단	
	북한군	제3군단, 제4군단, 제5군단	혼성병력
예 비 대	중공군	제20군단, 제26군단, 제27군단	
	북한군	제6군단, 제7군단, 제8군단(신편중)	
제2전선	북한군	제2군단	유격부대

제7군단, 제8군단과 국군 및 유엔군의 후방에서 활동하던 유격부대인 제2전선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15]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란 명칭으로 한반도에 진입한 중공군은 제13병단사령부를 근간으로 창설된 지원군사령부 예하에 6개 군단(18개 사단)과 3개 포병사단, 고사포연대 및 공병연대, 기타 지원부대를 편성하였고, 군과 당(黨)간의 지휘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군사위원회도 조직하였다. 반면에 국경지역으로 물러난 북한군의 전투편성은 재편성이 완료되기 이전인 1950년 11월 중순까지는 전선사령부 예하에 제1군단을 비롯한 3개 군단이 편성되어 있었다. 사실상 군사력이

<표 4-2> 중국인민지원군 지휘체계



와해상태였던 북한군은 해체 후 재편성을 통해 4개의 정규군단과 3개의 예비군단으로 새롭게 편성되었다.[16]

작전기간 중의 지휘체계에 있어, 중공군과 북한군은 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제1선에 투입된 전투부대를 통합 지휘하였으나, 국경지대 및 만주지역에서 신편 또는 재편중인 부대와 해안 방어부대는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지휘하였다. 따라서 제1차 공세에 참가한 북한군 중 제1군단과 제3군단, 그리고 제5군단은 연합사령부, 동북 해안지구의 제4군단은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직할군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17]

한편 중공군은 3각 개념에 따라 3개 사단으로 편성된 군단급 부대인 군(軍)이 작전의 기본단위이고, 전투단위는 3개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로 편성된 연대급 부대인 단(團)이었다.[18] 일반적으로, 보병사단은 3개 보병연대와 포병대대, 박격포대대, 공병중대, 수색중대, 경비중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구성되었으며, 장교 1,500여 명을 포함한 10,000~12,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또한 주로 병단에 배속되어 운용된 포병사단은 3개 포병연대와 고사포대대, 공병대대, 경비대대, 본부중대, 통신반과 후방근무대로 편성되었고, 1,100여 명의 장교를 포함한 9,000여 명의 병력과 함께 57~155㎜ 곡사포 108문과 37㎜ 고사포 12문을 편제하고 있었다.[19]

이에 따른 지원군사령부 예하 각 군의 편성을 보면, 제38군단은 제112·제113·114사단, 제39군단은 제115·제116·제117사단, 제40군단은 제118·제119·제120사단, 제42군단은 제124·제125·제126사단, 그리고 제50군단은 제148·제149·제150사단, 제66군단은 제196·제197·제198사단을 예하에 두었다. 마찬가지로, 사단 또한 예하에 3개의 보병연대를 편성하고 있었는데, 각 사단의 연대편성은 다음의 <표 4-3>과 같다.

북한군의 전투편성 역시 3각 편제 개념에 따라 3개 보병연대와 포병연대, 그리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정찰중대, 정보소대로 이루어졌고, 대대와 중대 또한 각각 3개 중대와 3개 소대로 편성되었다.[20] 그러나 이와 달리, 작전기간 초기의 북한군 편성은 사실상 전투

<표 4-3> 중공군 각 제대별 전투서열

구 분	사 단	연 대	구 분	사 단	연 대
제38 군단	제112사단	제334, 335, 336연대	제39 군단	제115사단	제343, 344, 345연대
	제113사단	제337, 338, 339연대		제116사단	제346, 347, 348연대
	제114사단	제340, 341, 342연대		제117사단	제349, 350, 351연대
제40 군단	제118사단	제352, 353, 354연대	제42 군단	제124사단	제370, 371, 372연대
	제119사단	제355, 356, 357연대		제125사단	제373, 374, 375연대
	제120사단	제358, 359, 360연대		제126사단	제376, 377, 378연대
제50 군단	제148사단	제442, 443, 444연대	제66 군단	제196사단	제586, 587, 588연대
	제149사단	제445, 446, 447연대		제197사단	제589, 590, 591연대
	제150사단	제448, 449, 450연대		제198사단	제592, 593, 594연대
포병 사령부	제1사단	제25, 26, 27연대			
	제2사단	제28, 29, 30연대			
	제8사단	제46, 47, 48연대			

능력을 상실한 각 전투부대로 혼성 편제된 4개 군단으로 이루어졌고, 각 군단별 편성은 다음의 <표 4-4>와 같다.

<표 4-4> 북한군 군단별 전투서열

군 단	편 성 부 대	비고
제1군단	제46사단, 제47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17기계화여단	구성
제3군단	제1사단, 제3사단, 제8사단, 제13사단, 제15사단	강계
제4군단	제41사단, 해방 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	청진
제5군단	제6사단, 제12사단, 제24사단, 제38사단	강계

한편 중공군 지휘부는 작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彭德懷), 간부관리와 정치공작을 담당한 제1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 사령부 총무 및 특과병 그리고 후방보급을 담당한 제2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 최전선의 작전 독려를 맡은 제3부사령관 한셴추(韓先楚), 그리고 참모장인 셰팡(解方)과 정치부주임인 두핑(杜平)으로 구성되었다.[21] 그리고 중공군과 북한군간의 원활한 전투협조를 담당한 박일우(朴一禹)가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이었다.

또한 제15병단사령부 요원을 근간으로 편성된 제13병단 지휘부는 사령관 덩화(鄧華)를 비롯해 정치위원 뇌전주(賴傳珠),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와 한셴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정치부주임 두핑(杜平)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38군단장 량싱차오(梁興初), 제39군단장 우신촨(吳信泉), 제40군단장 원위청(溫玉成), 제42군단장 우루이린(吳瑞林), 제50군단장 쩡쩌성(曾澤生), 제66군단장 샤오신화이(蕭新槐)이며, 각 군의 지휘부는 다음의 <표 4-5>와 같다.[22]

<표 4-5> 중공군 제13병단 지휘부

구 분	제38군단	제39군단	제40군단	제42군단	제50군단	제66군단
군단장	량싱차오 (梁興初)	우신촨 (吳信泉)	원위청 (溫玉成)	우루이린 (吳瑞林)	쩡쩌성 (曾澤生)	샤오신화이 (蕭新槐)
부군단장	장용후이 (江擁輝)	탄요우린 (譚友林)	차이정궈 (蔡正國)	후지청 (胡繼成)	?	전펑런 (陳坊仁)
참모장	관쑹타오 (管松濤)	선치셴 (沈啓賢)	닝셴원 (寧賢文)	랴오중푸 (廖仲符)	쉬 싱 (舒 行)	류 쑤 (劉 蘇)
정치위원	류시위안 (劉西元)	쉬빈저우 (徐斌州)	위안성핑 (袁升平)	저우뱌오 (周 彪)	쉬원례 (徐文烈)	왕쯔펑 (王紫峰)
부정치위원	?	리쉐싼 (李雪三)	?	궈청주 (郭成柱)	?	장롄쿠이 (張連奎)
정치부주임	우다이 (吳 岱)	리쉐싼 (李雪三)	리보추 (李伯秋)	딩궈위 (丁國鈺)	허윈훙 (何運洪)	장롄쿠이 (張連奎)

반면 작전기간 초기의 북한군 전투서열은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해 전선사령관 김책(金策) 그리고 예하에 제1군단장 김웅(金雄)과 제2군단장 김무정

(金武亭)으로 편성되었다. 이후 유엔군의 북진기간 중 와해된 북한군은 1950년 11월 중순을 기해 7개 군단으로 재편하였는데, 각 군단별 지휘관과 예배속 부대는 다음의 <표 4-6>과 같다.

<표 4-6> 북한군 전투서열(1950. 11. 17 현재)

소속	계급	성 명	편 성 부 대	비고
제1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46, 제47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17기계화여단, 독립연대	구성
제2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북한군 주력 9개 사단 잔여부대	제2전선
제3군단장	상장	유경수(柳京洙)	제1, 제3, 제8, 제12, 제13, 제15사단	강계
제4군단장	상장	박종덕(朴鍾德)	제41사단, 해방 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	풍산
제5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6군단장	상장	최용진(崔勇鎭)	제18, 제36, 제66사단, 전차연대	관전
제7군단장	상장	이영호(李永鎬)	제32, 제37, 제38사단	화전
제8군단장	상장	김창덕(金昌德)	제42, 제45, 제76사단	연길

(2) 전투준비태세

중공군 지휘부는 유엔군의 전술 및 장비의 우세함과 한반도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진지전(지역방어)과 기동전(기동방어)의 배합작전을 통한 역습과 기습, 매복으로 적의 유생역량을 소멸시킨다"는 작전방침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방어에 유리하고 공격중인 유엔군에게는 불리한 산악지형, 즉 구성-태천-구장-덕천-영원-오로리(五老里)를 연하는 선을 기본방어진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선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전장의 국면을 전환시킴으로써 시간을 획득하여 북한군의 철수와 재편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23]

그러나 유엔군의 진출속도는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라 예정대로 방어선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였다. 예상 밖의 상황에 직면한 중공군 지휘부는 유엔군

이 중공군의 참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유엔군의 전투지경선에 공간이 생긴 취약점을 간파하고 기습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작전방침을 변경하여 진격해오는 국군과 유엔군을 기동하면서 각개 격파하도록 지시하였다.[24] 그리고 3개 군을 서부전선에 집중시켜 국군 3개 사단을 섬멸시킬 것을 결심하고 부대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

제39군단은 구성과 태천으로, 제38군단은 희천으로, 제40군단은 덕천과 영원으로 진출시켜 국군과 유엔군을 섬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42군단의 1개 사단은 장진호로 진출시켜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을 저지하고, 주력은 유엔군의 전선을 양단할 수 있는 소백산을 점령한 후, 명령에 따라 맹산 이남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주-박천-군우리 선 북쪽 20㎞ 이내로 중공군의 진출을 제한함으로써, 자신들의 노출을 방지하였다.[25]

부대배치의 조정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의 총공세가 개시된 1950년 10월 25일 현재 각 군은 지정된 위치에 진출하여 반격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다. 제40군단은 예하 제118사단이 북진(北鎭) 동쪽에, 제120사단이 운산 북쪽에 위치하였고, 선두사단인 제119사단은 작전지역과 20~50㎞가 떨어진 태천(泰川) 북쪽에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선두인 제117사단이 태천지역에 도달한 제39군단은 주력이 구성-서북 신음동(新音洞)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38군단은 제113사단이 선두로 전천(前川) 지역에 그리고 주력은 별하리(別河里)-강계-만포 일대에 머물고 있었으며, 제42군단의 선두인 제124사단은 고토리(古土里) 북쪽에, 제125사단은 소백산 서쪽과 유원진(柔院鎭)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다.[26]

⑶ 전투력 수준

한·중 국경을 향해 총공세를 단행한 국군과 유엔군의 정면에는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진입한 중공군 제13병단 예하 4개 군단(제38, 제39, 제40, 제42군단) 12개 사단과 제1차 공세가 시작된 후 들어온 2개 군단(제50, 제66군단)이 위치하고 있었다. 각 군단은 3개 보병사단으로 편성되고 병력 수는 군단당 약 3만 명으로서, 총 병력수는 약 20만 명에 달하였다.[27] 이들은 포병사령부 예하 3개 포병사단

(제1, 제2, 제8포병사단)과 1개 고사포연대, 1개 공병연대 및 기타 지원부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총 병력은 약 29만 명에 달하였다.[28]

해군과 공군의 창설이 일천한 중공군은 지상 전력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차나 자동화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는 등 무기체계가 낙후되어 있었다. 각 군에 편제된 각종 화포는 직사포 108문과 각종 박격포 333문, 로켓발사기 81대 등 520여 문이었으나, 유탄포와 고사포는 편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화포 중 70㎜ 이상의 화포는 미군 1개 사단이 보유한 화포의 54%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한반도에 진입한 6개 군단의 화포 총수는 미군의 45%에 불과하였다.

성능면에서도 중공군의 화포는 항일전쟁과 국공내전 시기에 일본군과 국부군으로부터 노획한 장비가 대부분으로서 소련제와 일제, 미제 등 각양각색이었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았다.[29] 따라서 화포는 낡고 잡다한 형태로 구경이 작고 사정거리가 짧아 위력이 작을 뿐 아니라 탄약마저도 부족하였다. 화포의 견인 역시 대부분 노새나 말이 끌거나 지고, 때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야 했으므로 기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30]

중공군 1개 군단이 장비한 통신장비는 무전기가 69대, 유선전화기가 375대에 지나지 않았고, 수송차량도 100대에 불과하였다. 수송능력이 약한 중공군은 근접지원 능력마저 약해 연대 이하 단위로 작전을 펼쳐야 했고, 생활물자도 모두 보병이 휴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전능력 측면에서 중공군은 양호한 전투자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일반병사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전투수행에 있어 인내력이 강해 야전생활의 모든 궁핍과 고통을 끈기 있게 견딜 수 있었다. 또한 각 부대는 산악지형에서도 능숙하게 작전을 수행하며, 야간과 악천후를 이용한 전투에 잘 적응하였다. 이러한 탁월한 전투자질 및 높은 사기는 중공군 중에서도 영광스런 전통을 지닌 부대로서 매우 강력한 정치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일본군 및 국민당 군대와의 오랜 전쟁에서 단련된 경험과 함께 열세한 무기로 우세한 장비를 지닌 적과 싸워 이긴 강인한 전투기풍과 의지가 막강하였다.[31]

한편 유엔군의 북진에 밀려 조직적인 저항력을 상실한 북한군은 4개 보병사단

과 1개 전차사단, 1개 기계화사단 등이 축차적인 방어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병력은 약 3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북한군 보병사단의 인원수는 2,000~5,000명 수준으로 편제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32] 작전기간 초기의 북한군 전력은 76㎜ 야포 35문, 무반동포 20문, 81㎜ 박격포 60문, 그리고 전차와 자주포 4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33]

중공군과 북한군의 전투력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유엔군에 비해 다소 유리했으나, 포병 및 전차 그리고 항공 등 전투장비의 질적, 양적인 면에서 유엔군에 열세한 상황이었다.

한편 제1차 작전기간 중 중공군의 대표적인 전술은 대부대의 포위기동과 우회전술을 위시하여 적극적인 침투작전을 수행하였고, 기만 유인과 침투, 매복전술 등을 배합하며 제2전선에서의 적극적인 게릴라전을 혼용하였다. 특히 동부지역에서는 방어작전 중 진공법으로 지연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34]

<표 4-7> 중공군 제1차 공세시 전투력(1950년 10월말 현재)

구 분	중공군	북한군	합 계
사 단	21개	4개	22개
병 력	290,000명	32,840명	236,480명
야포(76㎜ 이상)	835문	35문	870문
무반동포(45~75㎜)	81문	20문	101문
37㎜ 고사포	42문	5문	47문
60㎜ 박격포	1,512문		1,512문
81㎜ 박격포	702문	60문	762문
전차 및 자주포		41대	41대

2) 아군 상황

(1) 배치 현황

1950년 10월 24일을 기해 단행된 유엔군의 총공격에 앞서 맥아더 사령관은 작전

관할권을 동서로 양분하였다. 즉, 낭림산맥(양덕-희천)을 기준으로 서쪽은 미 제8군이 그리고 동쪽은 미 제10군단이 담당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전선의 서북부인 서해안-희천지역을 담당한 미 제8군사령관은 우일선(동쪽)에 국군 제2군단을, 그리고 좌일선(서쪽)에 미 제1군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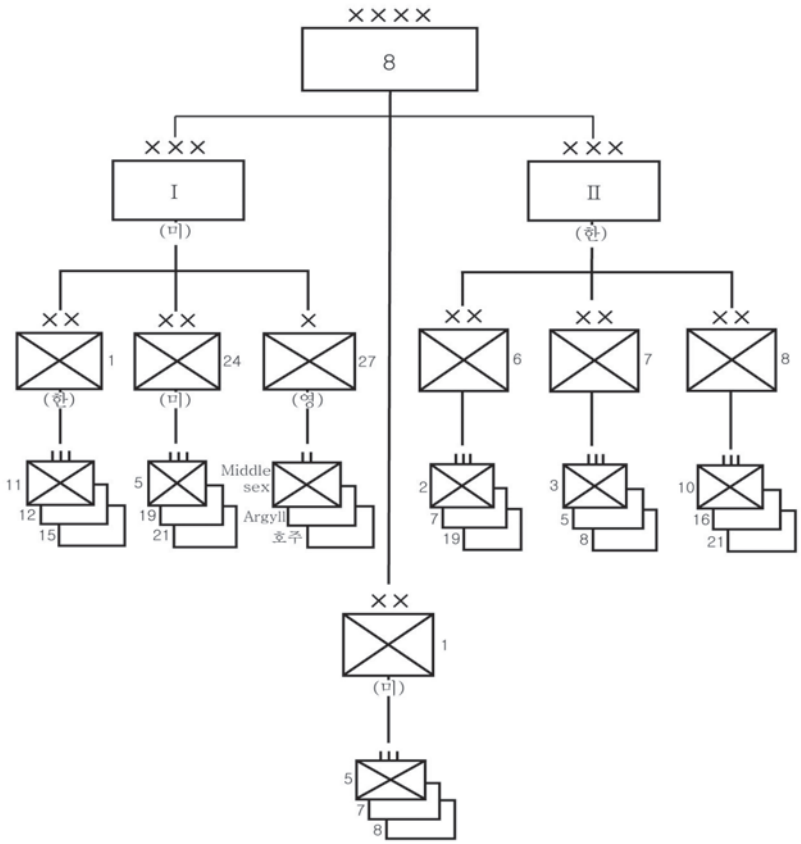
미 제8군의 우일선인 국군 제2군단장은 군단의 우전방에 제8사단을 배치하여 만포진과 중강진으로, 그리고 좌전방에 제6사단을 두어 초산과 벽동으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또한 좌일선인 미 제1군단장은 우전방에 국군 제1사단을 두어 수풍호로, 좌전방에 미 제24사단을 배치하여 신의주를 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7사단을 배속하여 예비로 운용하였다.

한편 낭림산맥 동쪽의 동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장은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은 미 제10군단을, 동쪽은 국군 제1군단을 배치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우일선인 수도사단은 동해안 도로를 따라 한·소 국경으로, 좌일선인 제3사단은 백암으로의 진격을 위해 배치되었다. 또한 좌일선인 미 제10군단은 북청-혜산진간 진격을 위해 미 제7사단을, 장진-강계간 공격을 위해 미 제1해병사단을 각각 배치하였다.[35]

서북부지역의 미 제8군의 우일선(동쪽)인 국군 제2군단은 제6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제8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당시 각 사단은 3개 보병연대로 편성되었는데, 제6사단은 제2·제7·제19연대, 제7사단은 제3·제5·제8연대 그리고 제8사단은 제10·제16·제21연대를 각각 예하에 두고 있었다. 국군 제2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유재흥 소장과 부군단장 이한림 대령, 참모장 강영훈 대령이었고, 제6사단장은 김종오 준장, 제7사단장은 신상철 준장, 제8사단장은 이성가 준장이었다.

반면에 서북부지역의 좌일선(서쪽)인 미 제1군단은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1사단, 그리고 영국군 제27여단으로 편성된 혼합병력이었다. 미 제24사단은 제5·제19·제21연대, 국군 제1사단은 제11·제12·제15연대, 그리고 영국군 제27여단은 제1·제2대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밀번 소장과 참모장 브런트(Rinaldo V. Brunt) 준장이었고, 미 제24사단장은 처치(John H.

<표 4-8> 미 제8군 지휘체계(1950. 10. 24 현재)



Church) 준장, 국군 제1사단장 백선엽 준장, 그리고 영국군 제27여단장은 코드(Basil A. Coad) 준장이었다.

한편 동북부지역 미 제10군단의 우일선인 국군 제1군단은 수도사단과 제3사단으로 편성되었다. 수도사단은 예하에 제1·제18·제1기갑연대를, 그리고 제3사단은 제22·제23·제26연대를 두었다. 국군 제1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김백일 소장을 비롯해 부군단장 이준식 준장과 참모장 김종갑 대령이었고,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 제3사단장 이종찬 준장 및 후임인 최석 준장이었다.

<표 4-9> 유엔군 전투서열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 제8군	지휘부	사령관	중장	Walton H. Walker	
		부사령관	중장	John B. Coulter	
		참모장	대령	Eugene M. Landrum, Jr.	
미 제1군단	지휘부	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부군단장	소장	Terrell G. Holliday	
		참모장	준장	Rinaldo Van Brunt	
	국군 제1사단	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미 제24사단	사단장	준장	John H. Church	
	영 제27여단	여단장	준장	Basil A. Coad	
국군 제2군단	지휘부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부군단장	대령	이한림(李翰林)	
		참모장	대령	강영훈(姜英勳)	
	제6사단	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鍾五)	
	제7사단	사단장	준장	신상철(申尙徹)	
	제8사단	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미 제10군단	지휘부	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참모장	준장	John S. Guthrie	
	미 제7사단	사단장	소장	David G. Barr	
	미 제1해병사단	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국군 제1군단	지휘부	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부군단장	준장	이준식(李俊植)	
		참모장	대령	김종갑(金鍾甲)	
	수도사단	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3사단	사단장	준장	이종찬(李鍾贊)	
				최 석(崔 錫)	50.11.12부
예비대	미 제1기병사단	사단장	소장	Hobart R. Gay	

좌일선인 미 제10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으로 편성되었다. 미 제1해병사단은 예하에 제1해병·제5해병·제7해병연대를 두었고, 미 제7사단은 제17·제31·제32연대로 편성되었다. 미 제10군단의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알몬드 소장과 참모장 거스리(John S. Guthrie) 준장이며, 미 제1해병사단장은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 미 제7사단장은 바르(David G. Barr) 소장이었다.

⑵ 전투준비태세

전쟁종결을 위한 전 병력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동부 및 서부전선에서 6개 축선으로 진격을 단행하였다. 맥아더 사령관의 총공격명령에 따라 청천강 선에 편성된 각 군단과 예하 사단의 정면은 대체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공격작전에 유리한 지형지물이 적었고, 공격축선 사이에 있는 험준한 지형으로 인해 동서로 연결된 교통로가 거의 없었다. 이로 인해 이들 사단의 병력전개는 연대 또는 대대 단위의 부대가 국경을 향한 축선별 진격 및 주요 도시를 점령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아 측면이 노출되었고, 인접부대와의 작전 협조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36]

⑶ 전투력 수준

청천강 선에서 국경선을 향해 총공격을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 특히 미 지상군의 병력은 기존 편제의 약 30% 미달되는 수준이었다. 이는 북한군의 패배를 가정한 미 육군성의 병력감축계획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병력을 재전개하였고, 부족한 미 지상군의 병력 보충 및 교대요원인 카튜사(KATUSA)의 원대복귀 등의 결과였다.[37] 이 무렵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현황은 미군 6개 사단 123,000명과 국군 6개 사단 88,000명으로 총 211,000명이었고, 이는 중공군과 북한군의 합계인 236,000명과 유사한 수준이었다.[38]

미군은 고도로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추수감사절 공세에 참여한 미군은 각종 화포 6,050문을 보유하였는데, 이 중에는 유탄포 570문과 고사포 780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병사단은 각종 전차 150대와 장갑차 35대, 각종 화포 960문을 보유하였고, 이중에는 유탄포 72문과 각종 직사포 120문 그리고 박격포 160문, 고사포 60여 문, 로켓발사기 540여 기를 포함하였는데, 구경 70㎜ 이상의 화포 330여 문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미군의 보유 화포는 구경이 크고, 사정거리가 길어 화력이 우세하였다. 반면에 국군의 무기체계는 미군이나 영국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특히 전차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미군은 무기와 장비면에서 절대적인 우세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전의 경험을 지니고 있어 전투력이 비교적 강한 편이었다. 더욱이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장교들은 각급 군사학교 훈련을 이수하였고, 사병들도 정규교육을 마쳐 군사기술이 비교적 숙련되어 있었다. 미군작전의 특징은 육·해·공군간의 합동작전과 전방위입체작전, 그리고 각 군 및 병과별 협동작전이 숙련되어 있었다.[39]

2. 작전지역의 특징

1) 서부지역

한반도 북부지형은 역사다리형으로 평양-원산 정면의 폭은 270㎞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은 765㎞로 국경으로 갈수록 정면이 3배로 확대되는 한편 전형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북부지역의 천연적 지형지물인 청천강은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100㎞ 정도 떨어져 있으며, 개마고원으로부터 거의 평행으로 흘러 서해로 이어진다. 지류인 구룡강(九龍江)과 박천 부근부터 남으로 흐르는 대령강(大寧江)과 더불어 하구평야를 이루는 청천강은 하구의 폭이 약 6㎞이고, 신안주 북동 12㎞ 지점의 구룡강과의 합류점 상류에는 주요 지점에 도섭장이 마련되어 있다. 교량은 신안주에 철교와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고, 안주에 목교가 가설되어 있다.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에는 개마고원에서 뻗은 강남산맥과 적유령산맥이 있고, 청천강 남안을 연해 묘향산맥이 병풍처럼 가로놓여 있어 압록강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계와 만포진 지역은 밀림으로 덮인 산악지대로서 과거 항일유격대가 거점으로 사용한 천연적인 요새이다. 이러한 지형은 방자(防者)에게 유리하고 공자(攻者)에게는 불리하였다.

압록강 중류에 건설된 수풍호는 신의주 상류 6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다. 발전량은 전쟁 당시 북한 수요의

대부분과 만주의 중공업용 전력의 30%를 제공함으로써 전략적인 목표물이 되었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초반에는 대체로 쾌청하였으나 조석으로 짙은 안개가 활동에 지장을 주었고, 계절적으로 동기(冬期)로 전환된 후반에는 비와 눈이 잦았다. 특히 제6사단이 한중국경으로 진격하던 무렵의 북부지역은 강설이 심하였다.

한편 작전지역의 도로망은 청천강 하류지역을 기점으로 압록강을 향해 부채꼴로 발달되어 있으나, 동해안과 연결되는 도로는 강계에서 장진호에 이르는 것이 유일하였다.[40] 주요 도로는 청천강변의 신안주로부터 서해안의 저지대를 따라 압록강변 신의주를 연결하는 1번 국도가 있고, 또 다른 도로는 신안주에서 청천강 상류를 따라 안주-군우리-희천-강계를 거쳐 국경인 만포진으로 연결되는 65번 도로였다. 나머지 도로는 두 도로 사이에 있는 산맥의 회랑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정주-구성-삭주-청성진간 61번 도로와 박천-온정간 63번 도로, 온정-초산간 3번 도로 등이 있었으며, 초산을 기점으로 동서로 뻗은 도로가 있었다.[41]

2) 동부지역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인 한반도의 동부, 특히 함흥-장진호간의 지형은 해발 2,000m의 준봉으로 이어진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중간에 함경산맥에서 이어지는 부전령산맥이 동서로 가로질러 황초령에서 낭림산맥과 연결된다. 또한 황초령 이북은 우리나라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蓋馬高原)이 펼쳐져 있고, 이남은 함남지방에서 가장 광대하고 평탄한 지대이다. 태백산맥과 지류인 함경산맥이 해안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동해쪽에는 큰 강이 없고, 개마고원에서 발원하는 수원(水源)은 북쪽으로 하천을 이루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합류한다.

지역 내에는 발전을 위해 인공으로 만들어진 장진호와 부전호가 있으며, 장진호는 함흥 북쪽 60㎞ 지점에 위치해 강계로 통하는 도로를 제한하며, 부전호는 그 동쪽 30㎞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42]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지역 내에 개마고원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동절기

가 길고 하절기가 짧은 특징을 보여준다. 동절기의 최저기온은 영하 30도 내외이며, 강설량과 강우량은 적은 편이나 기온관계로 적설기간이 긴 편이다. 전쟁당시 예년에 비해 겨울이 일찍 닥쳐 영하 45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작전지역 내의 도로망은 지형적 특성상 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한 도로가 함흥을 기점으로 황초령을 넘어 장진호 및 유담리를 거쳐 강계와 자성에 이르는 2등도로가 있으며, 이원으로부터 풍산을 거쳐 혜산진에 이르는 산간도로가 있다. 철도는 함흥에서 장진호로 연결된 함남선이 있다.[43]

3. 서부지역 작전

1) 운산 전투(1950. 10. 26~11. 3)

(1) 전투 개요

운산[44] 전투는 유엔군의 총공격에 따라 청천강을 건너 한·중 국경의 수풍호를 목표로 진격하던 국군 제1사단이 1950년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구룡강 연안의 운산 지역 일대에서 압록강을 건너 최초로 전선에 출현한 중공군 제39군단과 조우하여 8일에 걸쳐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6사단이 온정리(溫井里)와 초산(楚山) 지역에서 중공 제40군단과 교전하고 있을 무렵, 국군 제1사단은 운산(雲山)지역에서 중공 제39군단과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유엔군의 한·중 국경을 향한 총진격에 있어 미 제1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1사단은 안주(安州)를 출발하여 수풍호를 목표로 전진하던 중 운산지역에서 중공군 제39군단의 저지를 받았다.

중공군 제39군단은 1950년 10월 중순경 신의주를 거쳐 운산지역으로 잠입하여 운산 북쪽의 백벽산(白碧山)과 오봉산(五峯山)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10월 25일 제1차 공세를 개시한 중공군은 온정리 정면의 제40군단이 국군 제6사

단 제2연대를 공격함과 동시에 운산지역의 제39군단도 공격을 개시하였다.

10월 25일 10:30, 운산으로 진출한 국군 제1사단은 수풍호로 진격하기 위한 중간목표인 청산장시(青山場市)로 북진하던 중 운산 북쪽 3㎞ 지점의 상동(上洞)과 간동(間洞), 용포동(龍浦洞) 일대에서 중공군의 저지를 받고 공방전을 전개한 끝에 후방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에 미 제1기병사단이 국군 제1사단을 구출하기 위해 출동하여 국군 제1사단과 함께 중공군의 침공을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압도적인 병력으로 삼면을 포위한 채 압력을 가하는 적을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철수작전을 단행하였고, 특히 미 제8기병연대는 병력의 절반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전투로 국군 제1사단은 안주-운산 축선을 따라 수풍호로 진격하려던 작전이 좌절되었고, 미 제1기병사단은 청천강 선으로 물러나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한편 운산 부근의 지형은 청천강과 병행하여 적유령산맥의 고산준봉이 이어지고, 북쪽에는 강남산맥이 압록강까지 뻗어있어 청천강 계곡으로부터의 진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산악전투에 능숙한 적에게 유리한 지대였다. 또한 압록강으로 연결되는 주요 통로는 영변(寧邊)과 박천의 중간 지점인 용산동(龍山洞)에서 운산을 거쳐 창성(昌城)에 이르는 산간도로와 태천-구성-대령강을 거쳐 삭주(朔州)에 이르는 도로가 있었다.

운산 일대에 배치된 중공군은 제13병단 예하의 제39군단으로서 압록강에서 구룡강에 이르는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영산과 구성 그리고 태천 일대를 주방어지대로 통제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예하에 제115사단, 제116사단, 제117사단을 둔 제39군단은 약 30,0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되었고, 장비는 미군 1개 사단 장비의 54% 수준일 뿐 아니라 성능도 낙후되어 있었다.[45] 양측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은 <표 4-10>과 같다.

⑵ 전투 경과

유엔군의 북진이 전개되는 동안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은 유엔군을 저지하기 위해 적유령산맥 남록에 제13병단 예하의 5개 군단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이 중 운산 정면에 배치된 제39군단은 일부 병력으로 국군 제1사단의 진격을 저지한

<표 4-10>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	미군	제1군단장	소장	Frank W. Milburn	
		제1기병사단장	소장	Hobert R. Gay	
		제5기병연대장	대령	Marcel G. Crombez	
		제8기병연대장	대령	Raymond D. Palmer	
		제1대대장	소령	John J. Millikin	
		제2대대장	중령	William Walton	
		제3대대장	소령	Robert J. Ormond	
		제10고사포단장	대령	William H. Henning	지원부대
		제6전차대대장	중령	John S. Growden	지원부대
	한국군	제1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제11연대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제1대대장	중령	유중수(柳重秀)	
		제2대대장	중령	차갑준(車甲俊)	
		제3대대장	중령	정영홍(鄭永洪)	
		제12연대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대대장	중령	한순화(韓順華)	
		제2대대장	중령	조성래(趙成來)	
		제3대대장	중령	김기용(金基容)	
		제15연대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제1대대장	중령	유재성(劉載成)	
		제2대대장	중령	김진위(金振暐)	
		제3대대장	중령	안병건(安秉健)	
		포병제17대대장	소령	박영식(朴永湜)	배속부대
공산군	중공군	제39군단장		우신촨(吳信天)	
		제115사단장		장제청(張竭誠)	
		제116사단장		왕 양(汪 洋)	
		제117사단장		징톈윈(晶天允)	

<상황도 4-1> 운산지구 전투



후 주력이 도달하면 구룡강(九龍江)에 연해 이들을 포위 공격할 계획이었다.[46]

군단 우익인 국군 제1사단은 청천강을 건너 영변-운산으로 북진한 후 산간도로를 따라 작전목표인 수풍호로 진격할 계획이었으나, 운산에서 중공군과 만남으로써 우선 이들을 격퇴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사단장은 운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운산 동북쪽의 삼탄천(三灘川) 건너편 간동-상동 일대의 고지에서 저항하는 적을 격퇴하도록 우일선인 제15연대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좌일선의 제12연대는 운산 서북쪽 일대의 고지를 점령하여 적의 남하를 저지하도록 하면서 제11연대는 운산 남쪽에 예비로 두었다.

이에 따라 제15연대장 조재미 대령은 간동 일대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제2대대를 우일선으로 조양동(朝陽洞) 동쪽 고지를 공격토록 명령하는 한편 좌일선인 제1대대에게는 간동으로 전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제12연대장 김점곤 대령은 제2대대를 우일선, 제3대대를 좌일선으로 운산 서쪽으로 진출시키고, 제1대대(-)는 운산의 연대지휘소에 대기시켰다.[47]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 주력은 10월 26일 삼탄천을 건너 고지의 적을 공격하였다. 우일선인 제2대대는 2개 중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나, 이를 물리치고 조양동 동쪽의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적의 반격으로 고지 하단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좌일선의 제1대대는 간동을 우회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병력이 분산되었다.[48]

이런 상황에 직면한 연대장은 정면공격을 단념하는 대신 우측방으로의 우회공격을 계획하고 제3대대와 제2대대의 병진공격을 지시하였다. 이들 대대는 조양동 동남쪽의 225고지를 공격하였고, 결국 강력히 저항하던 적을 격퇴하고 고지를 점령하였다.

한편 제12연대장은 제2대대를 우일선으로 운산 서북쪽의 용포동(龍浦洞) 고지로, 제3대대를 운산 서남쪽의 송현동(松峴洞) 서쪽 고지로 진출시켜 방어진지를 구축하도록 명령하였다. 포병과 전차의 지원을 받은 각 대대는 07:00에 운산을 출발하여 목표로 한 고지를 점령하고 10:00무렵에는 병력 배치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이른 시간부터 남하한 연대규모의 적이 운산 북쪽 10㎞ 내외의 남산하동



운산지역의 국군 제1사단에 대한 공중보급장면 (출처 :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678)

(南山下洞)과 송정동(松亭洞), 응봉동(鷹峰洞) 일대에 병력을 배치하여 진지를 구축하는 한편 일부는 속칭 "낙타머리 하구"라 일컫는 남면천(南面川) 하구로 진출하여 운산-용산동간 사단 주보급로를 차단하였다.[49] 위기를 직감한 사단장은 전방 증원을 위해 운산으로 북상하던 중 입석하동(立石下洞)에서 잠시 대기하던 사단 예비대인 제11연대를 투입하여 적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연대본부는 입석하동에서 화옹동(花翁洞)으로 이동하였다.[50]

이러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차 1개 소대가 긴급출동하여 남쪽 통로를 봉쇄하고 입석하동에 위치한 미 제10고사포대대가 운산 방면으로 약간 후퇴하여 지원작전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연료와 탄약이 바닥나고 보급이 두절된 상태에서 적의 압력은 더욱 가중되었다.

탄약과 연료 부족으로 작전에 차질을 빚던 사단과 미 제6전차대대 등 지원부대는 10월 27일 11:00경 일본의 아시야(芦屋) 미 공군기지로부터 출격한 10대의 C-119 수송기로부터 긴급 보급을 받고 공격을 계속할 수 있었다.[51] 제15연대 예하의 각 대대는 간동 일대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부흥동(富興洞) 213고지와 삼

거리(三巨里) 서쪽 199고지, 263고지 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1연대는 2개 대대를 투입해 오후 늦은 시간에 차단되었던 사단의 주보급로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52]



동절기 복장을 갖춰 입은 중공군포로 (출처 :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743)

사단이 운산 주변의 고지를 확보한 후 야간공격을 가해오던 적이 공격을 중단함으로써 다음 날까지 사단 정면은 소강상태가 유지되었다. 지역 내의 적정파악을 위해 수색전을 전개하던 중 제12연대 수색대는 10월 28일 18:00무렵에 백벽산 부근에서 2명의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였다. 이들에 대한 심문결과 앞서 획득한 포로와 동일하게 중공 정규군의 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미 제8군 수뇌부는 중공 정규군의 개입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공군 포로들의 거듭된 진술과 국군 제6사단이 중공군 제40군단에 패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전면개입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들은 중공군의 참전은 인정하면서도 정규편제의 부대가 아닌 단지 개인적인 의용병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다.[53]

이러한 판단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운산 정면의 전국을 타개하고 본래의 계획대로 진격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군 예비로 평양을 경비중인 미 제1기병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1사단을 초월하여 목표지점인 수풍호까지 진격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제1기병사단장 게이(Hobart R. Gay) 소장은 예하의 각 연대에 상부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다음날 선두부대인 미 제8기병연대는

<상황도 4-2> 운산-영변 후퇴 상황(1)



평양을 출발하여 저녁 무렵 용산동에 진출하였다.[54]

한편 국군 제1사단은 지난 이틀간의 공격작전에서 별다른 전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우인접의 국군 제6사단이 온정리에서 철수함에 따라 동측방이 노출되고, 태천을 탈환한 좌측의 미 제24사단과도 24㎞의 간격이 생겨나 북쪽으로 돌출된 사단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30일 오전에 미 제5기병연대가 용산동에 진출하였고, 오후에 제8기병연대 제1대대가 운산에 도달한데 이어 본대가 합류하였다.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기병사단의 주력이 운산에 집결하자 작전지역을 변경하여 국군 제1사단은 온정을 경유하여 초산으로, 미 제1기병연대는 삭주로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55]

다음날 오전 국군 제1사단은 적과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진지교대를 시작하였다. 좌전방의 제12연대와 미 제8기병연대가 진지교대에 들어가자, 이를 간파한 중공군이 병력을 증원하여 연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56] 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원활한 교대를 위해 공병대대를 투입하는 한편 미 제10고사포단의 지원사격을 요청하였다.

이 무렵 운산 일대의 하늘은 며칠 전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한 연기로 뒤덮여 있었다. 이는 유엔공군의 항공관측으로부터 자신들의 부대이동을 차장하기 위해 중공군이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었다. 중공군 제39군단은 연막차장을 실시하며 운산 일대를 향해 대대적인 병력이동을 시작하였다.[57]

연막차장이 절정에 달했던 10월 31일 오후 국군 제12연대장 김점곤 대령과 미 제8기병연대장 팔머(Raymond D. Palmer) 대령은 운산에서 부대교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양 연대는 11월 1일 16:00에 진지를 상호 교대하였고, 제12연대는 입석리(立石里)로 이동하여 부대 재편에 돌입하였다.

양 연대간의 진지교대를 완료함으로써 아군의 배치는 운산을 두고 좌측은 미 제1기병사단이, 우측은 국군 제1사단이 등을 맞대고 있는 형국이었다. 다시 말해, 운산을 중심으로 좌전방 용포동과 제인상동(諸仁上洞) 일대에 미 제8기병연대가, 우전방 조양동과 부흥동 일대에 국군 제15연대가 각각 배치되었다. 그리고 후방지역은 구룡강을 경계로 국군 제11연대가 동쪽을, 미 제5기병연대가 서쪽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예비대인 국군 제12연대는 운산 남쪽의 입석에 집결하였고, 미 제7기병연대는 청천강 남안의 개천에서 국군 제2군단지역의 작전에 대비해 측방엄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1기병사단장은 국군 제2군단과 연결을 도모하라는 군단의 지시에 따라 11월 1일 14:00에 미 제5기병연대 제3대대를 구룡강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이들은 구장동 서쪽의 운흥리(雲興里) 계곡에서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와 합류함으로써 양 군단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58]

그러나 이날 오후 전개를 완료한 중공군 제39군단은 예하의 제115사단과 제116사단을 투입하여 운산을 압박함으로써 사태가 심각하게 급변하였다.[59] 17:00경 조양동의 국군 제15연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2㎞ 후방에서 저지진지를 급편중이었고, 용포동의 미 제8기병연대 또한 제1대대 진지가 돌파되어 1㎞ 후방으로 물러난 상태였으며, 동쪽의 국군 제11연대도 측방으로 침투해오는 적과 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쪽에서 침투한 연대규모의 적이 오봉산 남쪽의 하초동(下草洞) 고개를 점령하여 운산-용산동간 도로를 차단함으로써 일선의 2개 연대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 제5기병연대 제1대대가 하초동의 적 진지를 공격했으나 실패하면서 모든 지원부대들은 운산 주변으로 집결하여 철수를 준비하였다. 특히 미 제10고사포대대와 제78고사포대대는 군단의 지시에 따라 최우선으로 철수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게이 사단장은 청천강 남안의 미 제7기병연대와 군단 우측의 제5기병연대 제3대대의 사용을, 그리고 제8기병연대를 하초동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군단 동쪽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거절되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운산 지역의 전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19:00부터 적은 전면공격을 가해왔고, 이로 인해 국군 제15연대는 구룡강 동쪽의 상장동(上長洞)으로 물러났고, 좌일선의 미 제8기병연대는 송현동과 입석하동에서 적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또한 미 제5기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거북머리 하구인 하초동 계곡에서 퇴로 타개를 위한 재공격에 실패하고 물러남으로써 후방통로가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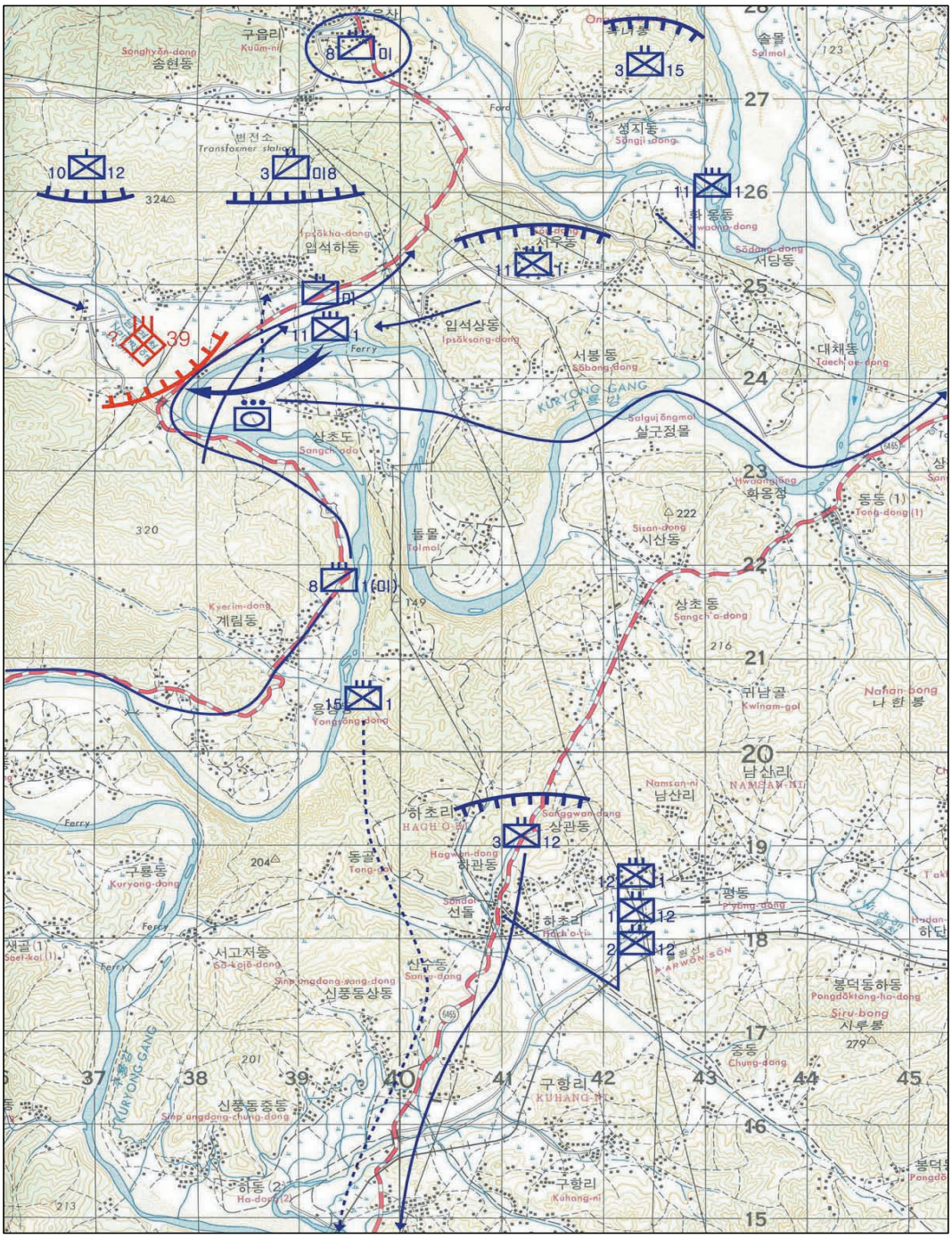
차단되었다. 운산-용산동간 도로를 장악한 중공군이 거북머리 하구에서 낙타머리 하구로 북상하여 미 제8기병연대 제3대대를 위협하면서 미 제8기병연대는 삼면이 포위되는 상황에 처하였다.[60]

한편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중공군 제38군단과 제40군단 병력이 청천강 계곡을 통해 쇄도하자, 운산지역 부대들의 철수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인접 국군 제2군단의 철수상황을 확인한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은 11월 1일 20:00에 예하 사단장과 주요 참모들을 참석시킨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군단장은 각 사단장에게 진격을 즉각 중지하고 방어태세로 전환할 것과 국군 제15연대와 미 제8기병연대를 용산동-영변 선으로 철수하도록 지시하였다.[61] 이 명령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진을 개시한 이래 최초로 하달된 방어명령이었고, 이로써 한·미 연합의 방어작전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군단회의가 끝나고 게이 소장과 백선엽 준장은 국군 제15연대를 잔류시켜 접적을 유지하면서 미 제8기병연대를 우선적으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철수명령이 일선 부대에 하달되기도 전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였다. 11월 1일 23:00경 미 제8기병연대장 팔머 대령은 구룡강 동쪽의 입석으로 철수하라는 사단의 철수명령을 예하 각 대대와 연대보급부대에 하달하였다. 그러나 우측에서 연대를 엄호하던 국군 제15연대가 적의 집중공격을 받았다. 포병과 전차의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운산 동쪽의 상장동 진지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 제15연대는 22:00부터 밀려오는 중공군 제116사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1시간여에 걸친 격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끝내 진지가 돌파된 연대는 중화기와 통신장비까지 유기한 채 분산하여 철수하였다.[62]

한편 미 제8기병연대가 철수명령을 받은 무렵의 퇴로는 운산-용산동간 후방도로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이미 중공군이 차단하고 있어 남동쪽의 소로와 구룡강 도섭장을 이용해 입석으로 통하는 길이 유일하였다. 연대장은 이 통로의 확보를 지시하고, 일선의 3개 대대를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연대는 운산 남쪽 2㎞ 지점의 용산동과 입석의 분기점을 철수 통제지점으로 선정하고 6대의 전차를 통제지점과 도하지점에 배치하였다.

<상황도 4-3> 운산-영변 후퇴 상황(2)



연대의 철수는 제1대대를 선두로 시작되었으나, 제1대대는 철수명령이 예하부대에 전달되기 전에 중공군의 집중공격으로 진지가 돌파되는 등 혼란상태에 빠졌다. 중공군은 국군 제15연대가 철수하자, 삼탄천으로 몰려와 미 제1대대를 삼면에서 포위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제1대대의 엄호를 받으며 비교적 용이하게 운산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운산 읍내는 국군 제15연대가 철수한 동측방을 통해 침투한 중공군이 선점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서측방으로 우회하여 운산 남쪽의 통제지점으로 향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제1대대는 운산으로 철수하던 중 적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63]

제1대대는 낙오된 국군 제15연대 병사들과 함께 통제지점으로 철수를 시작하였으나, 통제지점마저 적의 공격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었다. 11월 2일 02:30에 부연대장 에드슨 중령이 전차를 앞세우고 퇴로 타개를 시도했으나 실패함으로써 연대의 유일한 철수로인 측후방 통로가 차단되었다. 따라서 운산에서 남하해 통제지점에 집결한 제8기병연대 예하의 철수병력은 산등성이를 타고 입석으로 향하였다.

제3대대 또한 마지막으로 운산지역을 탈출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퇴로가 차단됨으로써 적중에 고립되었다. 퇴로차단 사실을 파악한 대대장은 계획된 철수로를 단념하는 대신 구룡강을 건너 입석으로 철수하기 위한 새로운 기동로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03:00경 은밀하게 침투한 적이 대대지휘소를 공격함으로써 철수준비에 전념하던 제3대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날이 밝은 후 재편성을 실시한 결과, 대대는 부상병 170명을 포함한 370명과 전차 3대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미 제5기병연대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04:00에 거북머리 하구 건너편의 중공군 진지인 나팔고지(Bugle Hill)를 공격하였다.[64] 제1차 공격이 실패하자, 미 제7기병연대 제1대대의 증원을 받아 재공격을 실시했으나 끝내 퇴로타개에 실패하였으며, 35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군단장 밀번 소장은 11월 2일 15:00를 기해 구출작전을 포기하고 청천강 남안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제1기병사단장에게 하달하였다.[65] 이러한 배경에는 국군 제2군단 전선을 와해시킨 중공군 제38군단과 제40군단이 개천 정면으로 남하함에 따라 청천강 방어선의 형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구출작전에만 집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후 적중에 고립된 제8기병연대 제3대대는 우군과의 연결이 완전 두절된 채 6차에 걸친 적의 공격을 견뎌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는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했으나, 대대주력은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등 편성부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청천강 남안에 집결한 제3대대 병력은 장교 10명과 병사 200여 명에 불과하였다. 운산철수전에서 국군 제15연대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미 제8기병연대는 1,500명 이상이 실종되고 대부분의 장비를 상실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제3대대가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단장으로 작전을 지휘했던 백선엽 준장은 "운산전투는 피를 말리는 전투였다. 미 언론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8기병연대가 전멸했다고 보도할 정도였다"라고 전투를 회고하였다.[66]

11월 3일 알렌특수임무부대의 엄호를 받으며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청천강 남안으로 철수하였다. 군단예비가 된 국군 제1사단은 연대별로 청천강을 도하하여 안주에서, 미 제1기병사단은 신안주에서 각각 부대 재편성에 주력하였다.

⑶ 전투 결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운산지역에서 1주일 동안 중공군의 압력을 극복하며 상당한 타격을 가하였으나, 결국에는 방어에 실패하고 대부분의 보유장비를 잃은 채 영변과 용산동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특히, 국군 제1사단을 증원하기 위해 출동했던 미 제1기병사단 예하 제8기병연대는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과반수의 병력을 손실하였다.

이 전투로 그동안 의혹이 증폭되었던 중공군의 참전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미 제8군은 진격작전을 중지하고 청천강 연안으로 병력을 철수시켜 방어태세로 전환하였으며, 중공군은 전과를 확대하여 구장동-영변-용산동 선으로 진출하였다. 이 전투에서 아군은 중공군의 개입을 오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기습을 받아 많은 인적 및 물적 손실을 초래하였고, 청천강 선까지 30~50마일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각 부대들이 낙동강방어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자부심과 이후 평양까지의 북진작전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고, 북한군의 조

직적인 저항이 상실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에 한·중 국경으로의 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접부대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간격이 생겼으며, 이 간격을 통해 중공군이 침투공격을 가함으로써 아군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습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

운산 전투에서의 전과 및 피해를 살펴보면, 아군은 적 사살 332명과 포로 11명을 획득하였으며, 로켓포 및 박격포 각 1문, 중기관총 및 경기관총 각 1정, 기관단총 11정, 소총 86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군은 전사 66명과 부상 267명, 실종 471명의 인명피해와 81㎜ 및 60㎜ 박격포 각 4문, 중기관총 3정 및 경기관총 11정, M1소총 460정, CAR소총 40정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2) 구성-정거동 진격작전(1950. 10. 29~11. 1)

(1) 전투 개요

구성-정거동 진격작전은 미 제1군단의 좌일선을 담당한 미 제24사단과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과 호주군 제3대대가 선천을 경유하여 신의주로 진격하던 과정에서 구성 및 정거동 일대에서 1950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완강하게 저항하는 북한군 제1군단과 전개한 공격전투이다.

평양에서 철수를 개시한 북한군은 지연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주력은 청천강을 넘어 보병부대는 강계지역으로, 그리고 기계화부대는 정주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따라서 신의주 정면으로 전진한 영국군 제27여단은 정주지역에서 북한군 제17기계화여단 소속의 보·전 협동부대와 조우함으로써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영국군 제27여단 소속의 호주군 제3대대는 대대장을 비롯해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군 아길대대와 함께 적을 공격하여 정주를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

이 작전에 참가한 유엔군은 미 제24사단과 영국군 제27여단, 호주군 제3대대 등 약 2,300명의 병력이고, 주요 지휘관은 미 제24사단장 처치(J. H. Church) 소장과 영국군 제27여단장 코드(B. A. Coad) 준장 등 앞의 <표 4-11>과 같다. 반면

<표 4-11>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유엔군	미군	제24사단장	소장	John H. Church	
		포병사령관	준장	George B. Barth	
		제21연대장	대령	Richard W. Stephens	
		제1대대장	중령	Charles B. Smith	
		제2대대장	중령	Gines Perez	
		제3대대장	중령	John A. McConnell	
		제5연대전투단장	중령	John L. Throckmorton	배속부대
		제1대대장	중령	J. B. Boelofs	
	영국군	제27여단장	준장	Basil A. Coad	배속부대
		제1대대장	중령	A. M. Man	
		제2대대장	중령	G. L. Neilson	
	호주군	제3대대장	중령	Charles H. Green	배속부대
				I. B. Ferguson	'50.11.1부
		A중대장	대위	B. S. O'Dowd	
		B중대장	대위	D. Laughlin	
		C중대장	대위	R. W. Saunders	
		D중대장	대위	W. N. Gravener	
공산군	북한군	제1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46사단장	소장	최 원(?)	
		제47사단장	소장	백낙천(?)	
		제105기계화사단장	소장	송영실(?)	
		제17기계화여단장	?	?	

에 북한군은 제17기계화사단으로서 1개 전차연대와 1개 76㎜ 자주포대대, 1개 포병대대와 5개 보병대대로 편성되었다.[67] 병력은 약 5,000명으로 추산되었고,[68] T-34 전차 44대와 76㎜ 자주포 12문, 76㎜포 4문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휘관은 미상이다.

⑵ 전투 경과

영연방 제27여단은 1950년 10월 25일 박천(博川) 인근에서 대령강을 도하하였

으나, 대령강 서쪽 5㎞ 지점에서 적과 조우하였다. 당시 북한군 제17기계화여단은 태천강과 황해 남부해안을 따라 갈현동(정주 서남쪽 12㎞)과 박천 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였으며, 이중 제1보병대대는 대령강을 따라, 제2보병대대는 장흥동(박천 북쪽 15㎞)에서 대령강철교(태천 남동쪽 4㎞)까지, 그리고 제3보병대대는 태천강을 따라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69]

여단의 선두 공격제대인 제1대대가 적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가운데, 공중공격과 포병사격으로 적 전차 10대와 자주포 2대를 격파하였다. 여단장 코드 준장은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판단과 함께 10월 28일 28㎞ 북쪽에 위치한 지점까지 진출하였다.[70]

한편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미 제5연대전투단은 영연방 제27여단에 이어 청천강을 도하하였다. 그리고 1950년 10월 28일 다시 박천 북쪽에서 대령강을 건넌 후 영 제27여단의 우측에서 태천(泰川)을 향해 전진을 계속하였다.

다음날 미 제5연대전투단은 태천 인근에서 적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적은 태천 사수를 위해 전차와 자주포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전투과정에서 공중폭격의 필요성을 느낀 전투단은 공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적 전차 9대와 자주포 4대를 격파하였다. 공군의 지원 아래 태천을 점령한 전투단은 89명의 적을 생포하였는데, 이중에는 2명의 중공군이 포함되어 있었다.[71] 태천을 점령한 후 서북쪽으로 진격한 미 제5연대전투단은 이틀 후인 1950년 10월 31일 자정 무렵 구성(龜城)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 다음날 구성 북쪽 약 8~9㎞ 지점의 교차로까지 확보하였다. 전투단은 진격 도중 전차와 자주포를 비롯해 야포와 박격포 등의 지원을 받는 5,000~6,000명의 적과 전투를 벌였으며, 미 전술공군의 지원에 힘입어 적을 격퇴할 수 있었다. 미 제5연대전투단은 구성 진격작전을 실시하여 300~400명의 적을 사살하고, 자주포 2대와 76㎜ 곡사포 8문, 대전차포 6문, 기관총 5정을 파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72]

이후 미 제5연대전투단의 선두부대는 구성 북쪽 16㎞ 지점을 지나 북진을 계속하던 중 미군 연락기로부터 전진을 중지하고 현지에 머물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73]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강 선으로의 철수를 개시하였다.

<상황도 4-4> 구성-정거동 진격작전



한편 정주(定州)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던 호주군 제3대대장은 10월 29일 아침에 보병을 수반한 4대 이상의 적 전차가 산간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는 항공관측 내용을 연락받았다. 곧이어 출현한 미 전투기가 네이팜탄과 로켓탄으로 적 전차 4대를 격파하자, 호주군 대대는 도로와 그 부근의 능선을 점령하였다.[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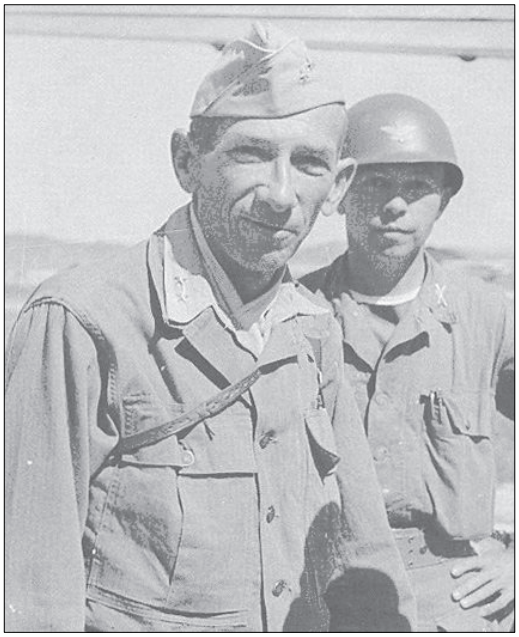
이 무렵 북한군 제17기계화여단은 신의주지역으로 후퇴하여 1개 치안대대와 제583저격연대 예하 1개 대대, 대공포대대, 제47전차연대(전차 10대), 신의주 위수부대 등과 협동으로 신의주 남쪽의 남시와 비현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력하게 저항하였다.[75] 이날 밤 적은 전차와 자주포의 지원을 받으며 반격을 가해와 쌍방간에 전투가 전개되었다. 호주군은 로켓포를 이용해 3대의 적 전차를 파괴한 후 미군 전차의 지원 아래 정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호주군은 정주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9명이 전사하고 30명이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주를 빼앗기고 물러났던 적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호주군에 포격을 가하였다. 10월 30일 저녁 무렵 적의 직사포탄이 정주에 집중되었고, 이 중 6발이 호주군 제3대대 본부 주변에 작렬하였다. 특히 1발이 대대장 그린(Charles H. Green) 중령의 천막 주변에 폭발하여 포탄 파편이 취침중이던 대대장의 복부를 관통해 그는 중상을 입고 후송되었으나, 결국 3일 만에 전사하였다.

한편 미 제24사단장 처지 준장은 영 제27여단장으로부터 미 제24사단의 1개 연대를 초월 전진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하의 제21연대에 전진명령을 하달하였다.[76] 이에 따라 저녁 무렵에 제21연대 제2대대가 영국 여단의 부대를 초월해 정주시가지를 통과하면서 북진을 계속하였다. 자정을 지나 02:00경에 연대는 미군의 기동종대를 공격하기 위해 7대의 전차와 500여 명의 적이 고지대에 잠복하고 있던 곽산동(郭山洞) 서쪽 4㎞ 지점에 도달하였다.

가깝게는 270m 전방에 마주하고 있던 적 전차는 지원포병의 사격과 동시에 포격을 개시하였다. 일부의 포탄이 미군 전차에 명중하였으나, 큰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이어 정렬해 있던 적 전차들이 합세해 미군 전차를 공격하였고, 이로써 적 전차의 위치를 알게 된 미군 전차가 즉각 대응사격을 개시함으로써 양측간에 치열한 전차전이 전개되었다. 제21연대장과 제2대대장은 무전 짚차 위에서 전차

화력전을 지휘하여 새벽녘에 적을 격퇴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에서 연대는 전차 7대와 자주포 1대, 대전차포 7문을 격파하였고, 5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77]



미 제24보병사단장 처치(John H. Church) 소장 (출처 :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p.41)

북진을 계속한 제21연대 제1대대는 11월 1일 정오 무렵 신의주 남쪽 33㎞ 지점에 위치한 정거동(停車洞)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연대장은 제1대대장 스미스 중령에게 정지명령을 하달하고 종심방어진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다.[78] 이날 밤 제1대대는 적 전차 7대와 함께 500여 명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미 제6전차대대는 이에 대응하여 약 30분간에 걸친 전차전을 전개하였고, 결국 보·전·포의 협동작전 끝에 적의 전차를 완전히 격파하였다. 이 전투 이후 제21연대는 동측방 운산지역의 전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사단장의 명령으로 청천강 선으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⑶ 전투 결과

청천강을 도하하여 신의주와 수풍호를 목표로 진격작전을 전개하던 미 제1군단 예하 미 제24사단은 배속된 영국군 제27여단과 호주군 제3대대와 함께 정주를 성공적으로 탈환하였다. 이어 북진을 계속한 끝에 신의주 남쪽 33㎞ 지점의 정거동에 도달하였으나, 인접부대의 상황악화로 청천강 선으로 철수하였다. 미 제8군의 좌일선으로 신의주를 목표로 진격하던 미 제1군단은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로 국경선 진출이 좌절되었다.

3) 개천-비호산 전투(1950. 11. 1~11. 7)

(1) 전투 개요

개천-비호산 전투는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이 온정리와 운산에서 초전에 승리한 후 청천강 선까지 진출하자, 군우리로 집결한 국군 제7사단이 군우리 동측방의 비호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38군단과 1950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전투를 전개하여 격퇴시킨 방어전투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중 국경선을 향해 진격하던 1950년 10월 29일 미 제1군단의 후속부대인 국군 제7사단은 후방지역에서 잔적소탕 임무를 수행하며 영변지역으로 북진하였다. 당시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이 순조롭게 진격중이었고, 미 제8군의 서부전선에서는 국군 제2군단이 초산-만포진(滿浦鎭)으로, 미 제1군단이 신의주-벽동(碧潼)으로 각각 진격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중공군 제13병단 예하의 제39군단과 제40군단이 신의주로, 제38군단과 제42군단이 만포진으로 각각 진입함으로써 서북부지역의 전황은 새롭게 전개되고 있었다.[79]

서북부지역으로 잠입한 중공군은 10월 25일과 26일 북한군을 추격하는 국군과 유엔군에 대해 공격을 가함으로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작전계획은 기동에 유리한 서부지역을 개방해 기계화 및 강력한 화력을 지닌 미 제1군단을 구성(龜城)-선천(宣川) 지역으로 유인견제하고, 국군 제2군단과 분리시켜 역이용하여 주력방향을 기만하고 고원지대에서 저지대로 강습기동, 즉 강계(江界)-희천(熙川)-구장동(球場洞)-개천(价川)으로 남하하여 서북부지역의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80]

이에 따라 초산까지 진격한 국군 제6사단을 압박하며 남진한 중공군 제40군단은 온정리 지역에서 국군 제6사단 및 제8사단과 격전을 전개하였고, 중공군 제38군단은 강계에서 희천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후 이들은 온정리에서 국군을 포위하는 한편 청천강 북쪽으로 진격한 아군의 후방을 차단할 목적으로 구장동-개천을 향해 남진하였다.

한편 미 제8군의 우전방인 국군 제2군단 지역의 전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초산에서 철수한 국군 제6사단 제2연대가 온정리에서 패배한 후 희천의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를 투입해 온정리 탈환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제8사단은 2개 연대를 집중시켰으나 중공군의 침입을 저지하지 못하고 구장동-운흥리 선으로 후퇴하였다.

이와 같이 전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군 제2군단은 2개 사단의 6개 연대병력 중 4개 연대병력이 분산된 상태였고, 나머지 2개 연대병력으로 구장동 정면에 저지진지를 급편하고 있어 군단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비대는 전혀 보유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차는 물론 포병화력도 전무한 상태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와 같은 전황의 급변으로 미 제8군의 동쪽 지역인 낭림산맥과 개마고원 일대의 공백지대가 80㎞에 달할 정도로 노출되었다.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0월 29일 희천에서 침공하는 적에 대처하기 위해 국군 제7사단을 개천-희천간의 진로를 경계토록 지시하는 한편 군단의 전선 보강을 위해 국군 제7사단을 국군 제2군단으로 배속 변경하였다. 이 무렵 국군 제7사단은 영변지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제3연대와 제8연대는 구장동 부근의 신흥리(新興里)와 용등동(龍登洞)을 각각 점령하였고, 제5연대는 개천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제2군단의 작전지휘하에 놓인 국군 제7사단은 10월 31일 도로 경계임무를 미 제2사단에 인계하고 차기 작전을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작전에 참여한 국군 제2군단 예하 제7사단은 약 1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장비는 사단 T/E의 90%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요 지휘관으로 사단장은 신상철 준장이었고, 예하 각 연대장은 <표 4-12>와 같다. 반면에 중공군은 제13병단 예하의 제38군단으로서 예하에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을 둔 약 30,000명의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장비는 125㎜ 및 160㎜ 곡사포, 82㎜ 및 120㎜ 박격포, 그리고 기관총과 소총 등을 보유하였으나, 미군 1개 사단 장비의 54%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성능도 낙후되어 있었다.[81]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량싱차오(梁興初)이고 각 사단장은 <표 4-12>와 같다.

<상황도 4-5> 개천-비호산 전투



<표 4-12>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7사단	사단장	준장	신상철(申尙澈)	
		제3연대장	대령	이기건(李奇建)	
		제1대대장	소령	박준호(朴俊鎬)	1950.11.4부, 진급
		제2대대장	소령	이재기(李再起)	1950.11.4부, 진급
		제3대대장	소령	최창환(崔昌煥)	1950.11.2까지
				임춘발(林春勃)	1950.11.4부, 진급
		제5연대장	대령	박승일(朴昇日)	
		제1대대장	소령	정육지(鄭陸地)	
		제2대대장	소령	신건선(申健善)	
		제3대대장	소령	김상봉(金相峯)	
		제8연대장	대령	김용주(金龍周)	
		제1대대장	소령	양인석(梁麟錫)	
		제2대대장	소령	고한조(高漢祚)	
		제3대대장	소령	박관영(朴寬榮)	
		포병제18대대장	중령	박정호(朴廷鎬)	배속부대
중공군	제38군단	군단장		량싱차오(梁興初)	
		제112사단장		장용후이(江擁揮)	
		제113사단장		탕칭산(唐靑山)	
		제114사단장		쥬오중루(翟仲儒)	

(2) 전투 경과

국군 제2군단은 당면한 임무수행을 위해 덕천(德川)-구장동-운산을 연하는 군단 주저항선에서 적을 포착 섬멸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고, 주저항선 방어를 위해 청천강을 중심으로 남북을 제8사단과 제7사단이 분담하며, 온정리의 제6사단은 지연전을 통해 방어진지 점령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획득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82] 군단장 유재흥 소장은 제7사단장 신상철 준장에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덕천-구장동간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여 산악지대로 침투하는 적을 저지, 격멸하는 동시에 군단의 동측방을 방호하라"는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단장은 임무를 분석한 결과 적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부여된 전투정면이 30㎞에 달하는 광정면이므로 예하의 3개 연대 전부를 배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83]

『① 사단은 11월 1일 08:00에 행동을 개시하여 덕천-구장동간을 점령하고 이 선에서 침공하는 적을 저지 격멸한 다음 반격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구장동지역을 점령하라.
③ 제5연대는 덕천을 목표로 진격하여 그곳을 점령하라.
④ 제8연대는 용문산(龍門山)을 점령하고, 특히 묘향산맥을 따라 침공하는 적을 격멸하라.
⑤ 포병 제18대대는 명에 따라 구장동 또는 덕천으로 진격하여 지원할 준비를 하라.』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 제3연대는 제2대대를 우일선, 제1대대를 좌일선으로 하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하여 전투진지를 편성하였고, 제5연대는 건제순으로 덕천에 진격한 후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전선대대로 하고 제3대대는 예비대로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가 평양에 파견된 제8연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전부 전선대대로 하고 각각 예비대를 보유토록 하였다.

사단장은 최초 공격작전을 실시하여 목표를 점령한 후 방어태세로 전환하기로 결심하고 11월 1일 08:00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좌일선의 제3연대는 구장동 북쪽의 백령천(百嶺川)을, 중앙의 제8연대는 용문산(1190고지)을, 우일선인 제5연대는 덕천을 목표로 3개 연대 병진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진출목표인 덕천-구장동간의 산악지대는 압록강을 건너 희천지역으로 남하한 중공군 제38군단이 개천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단은 목표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적과 격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덕천을 목표로 전진하던 우일선의 제5연대는 월봉산(月峯山)에서 연대규모의 적과 교전을 벌여 방어태세로 전환하였고, 중앙의 제8연대는 목표인 용문산을 점

령했으나 일몰 후 실시된 적의 역습에 밀려 원리(院里)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좌일선의 제3연대도 목표인 백령천까지 진출했으나, 2개 연대 규모의 적과 교전 끝에 영변으로 철수하였다. 제3연대는 좌인접부대인 국군 제8사단 지역으로부터 중공군 제40군단이 공격을 가함으로써 배후가 위협을 받게 되어 제8사단과 함께 철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천의 국군 제2군단사령부를 방문한 밀번 미 제1군단장과 유재흥 군단장은 개천 정면의 군우리(軍隅里) 방어에 합의하는 한편 방어작전을 위해 미 제1군단의 155㎜ 포병대대와 미 제7기병연대를 동원하였다. 그리고 미 제8군의 동측방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 제24사단에 배속된 미 제5연대전투단을 개천으로 이동시켜 개천-덕천간 통로를 봉쇄하도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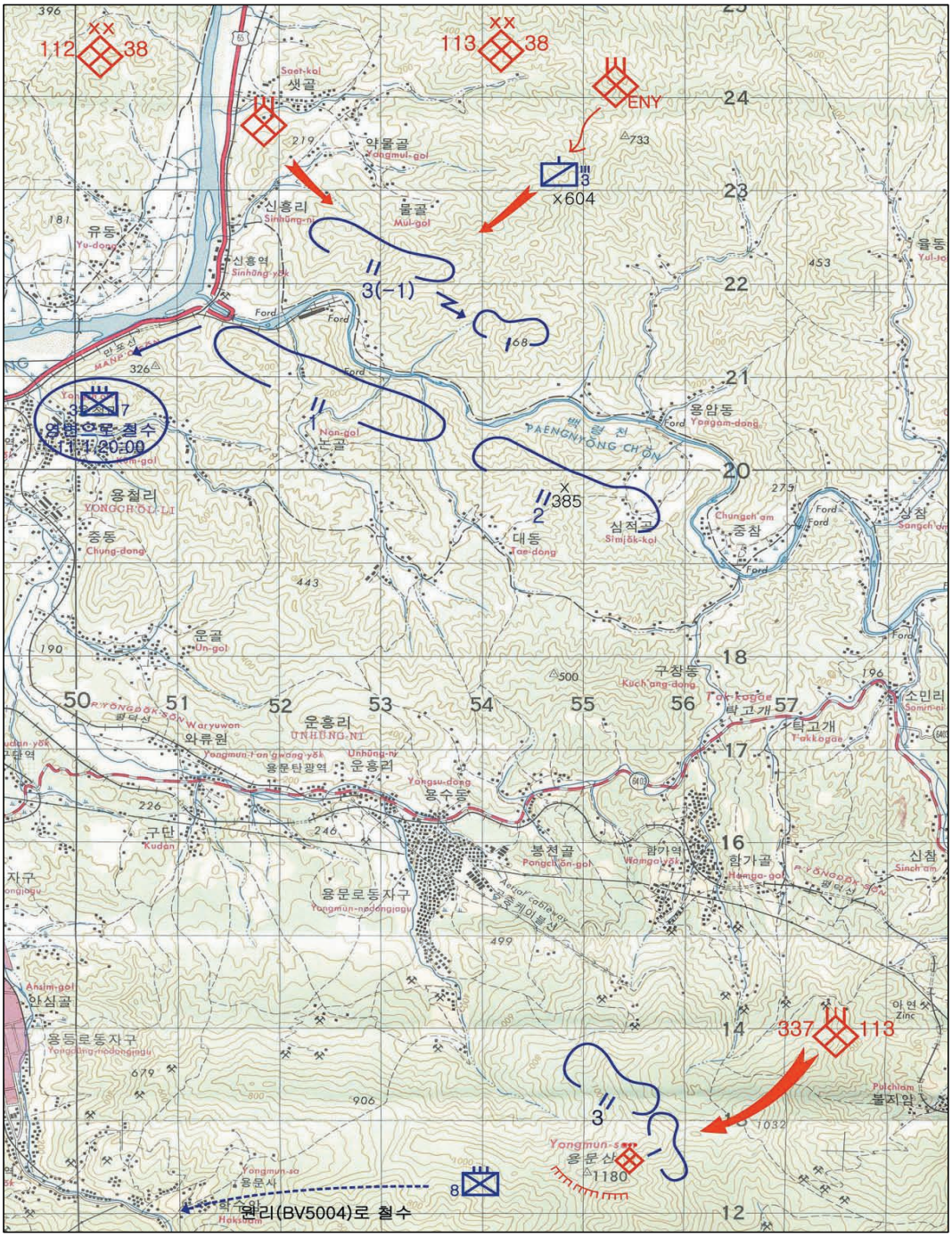
한편 제7사단장으로부터 부대가 건재하다는 보고를 받은 군단장은 작전계획을 수정하여 개천 동쪽의 비호산(飛虎山) 방어임무를 제7사단에 지시하였다.[84] 그리고 청천강 계곡으로 침투하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 1개 연대를 군우리 북쪽에 배치해 미 제7기병연대와 함께 대비할 것을 명령하였다. 사단은 즉시 연대를 이동시켜 11월 2일 오후에 진지편성을 완료하였다.[85]

각 연대의 배치상황을 보면, 우일선인 제5연대는 비호산 동쪽의 760고지 일대에, 좌일선인 제3연대는 비호산 주봉을 비롯한 인흥리(仁興里) 상참과 하참 일대에 각각 진지를 편성하였다. 제5연대는 전날 밤 개천-덕천간 도로를 봉쇄하기 위해 이동한 미 제5연대전투단과 연결하였고, 제8연대는 사단 예비로 군우리 남쪽의 용현리(龍峴里)에 집결하였다.

고지의 중요성은 물론 군단의 명예회복을 다짐하며 비호산 방어작전에 돌입한 국군 제7사단은 11월 3일 03:00에 중공군 제38군단의 공격을 받았다. 사단규모의 병력으로 추정된 적이 좌일선의 제3연대를 목표로 공격을 감행해옴에 따라 새벽까지 혈전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공으로 판단되는 대대 규모의 적이 우전방의 제5연대를 공격했으나, 연대는 30여분 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제3연대는 희천-군우리 도로를 따라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대 화력과 사단의 포병화력으로 봉천리(鳳泉里) 일대의 적 밀집지대를 집중적으로 포격

<상황도 4-6> 개천-비호산 전투(1)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적의 파상공격에 전초대대인 제2대대는 30여 분만에 적중 고립되었다. 다행히도 적이 비호산 주봉으로 주력을 지향함에 따라 제2대대는 서쪽 통로를 이용해 간참(間站)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주진지에서는 중공군의 파상공격으로 유무선통신이 모두 두절된 상태에서 3시간에 걸쳐 격전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비호산 정상은 3차례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 고지를 세 번째로 적에 넘겨준 연대는 새벽녘에 결사대를 조직하여 육탄공격을 펼쳐 적을 몰아내고 고지를 확보하였다. 결국 제3연대는 중공군의 주공을 격퇴함으로써 제1차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다음날 아침 사단장은 제3연대와 예비대인 제8연대를 교대시켰다. 격전을 치른 제3연대는 개천의 조양국민학교에 집결해 부대를 재편성하였다. 그리고 제8연대는 비호산 주봉에서 청천강 남안으로 연결된 북쪽 능선 일대에 편성된 진지를 강화하고 수색대를 파견해 적정 수집활동을 전개하였다. 제5연대는 비호산 남쪽의 535고지-760고지간의 진지를 강화하고 적과 대치하였다.[86]

쌍방간에 수색전이 전개되던 11월 5일 03:00에 적은 제2차 공격을 감행해왔다.[87] 중공군 제38군단은 개천을 탈취하기 위해 사단 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비호산 동쪽의 제5연대를 공격하였다. 덕천-개천간 측방도로를 장악한 적은 비호산 동남쪽 2㎞ 지점에 위치한 535고지의 제5연대 제2대대 진지 정면에 병력을 투입해 공격하였다. 파상적인 적의 공격으로 제2대대의 진지에서는 육박전이 전개되었고, 결국 적의 인해전술에 밀려 제2대대 진지가 돌파되었다. 이는 아군의 방어진지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었다. 방어진지가 와해된 제5연대는 2㎞ 후방지역으로, 동쪽의 미 제5연대전투단은 1㎞ 후방지역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고 비호산 주봉의 국군 제8연대 제2대대도 협상참(挾相站) 계곡으로 밀려 비호산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개천마저 위기에 처하였다.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조양국민학교에서 대기하던 제3연대가 사단장의 지시로 긴급 출동하였고, 비호산 남쪽의 중참과 운동지역의 저지진지를 점령한 후 제5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그리고 개천 일원에 위치하고 있던 포병들은 화력을 총동원하여 일제히 제압사격을 가하였다.[88]

포병화력으로 적의 진지편성을 방해한 제3연대는 우일선의 미 제9연대와 합동으로 역습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비호산 정상 1㎞ 남쪽의 227고지에서 적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실패하고 대치하였다. 이 사이 새로운 공격을 위해 제5연대와 제8연대는 병력을 수습하였고, 준비완료와 함께 사단장의 구두명령에 따라 11월 6일 08:00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였다.[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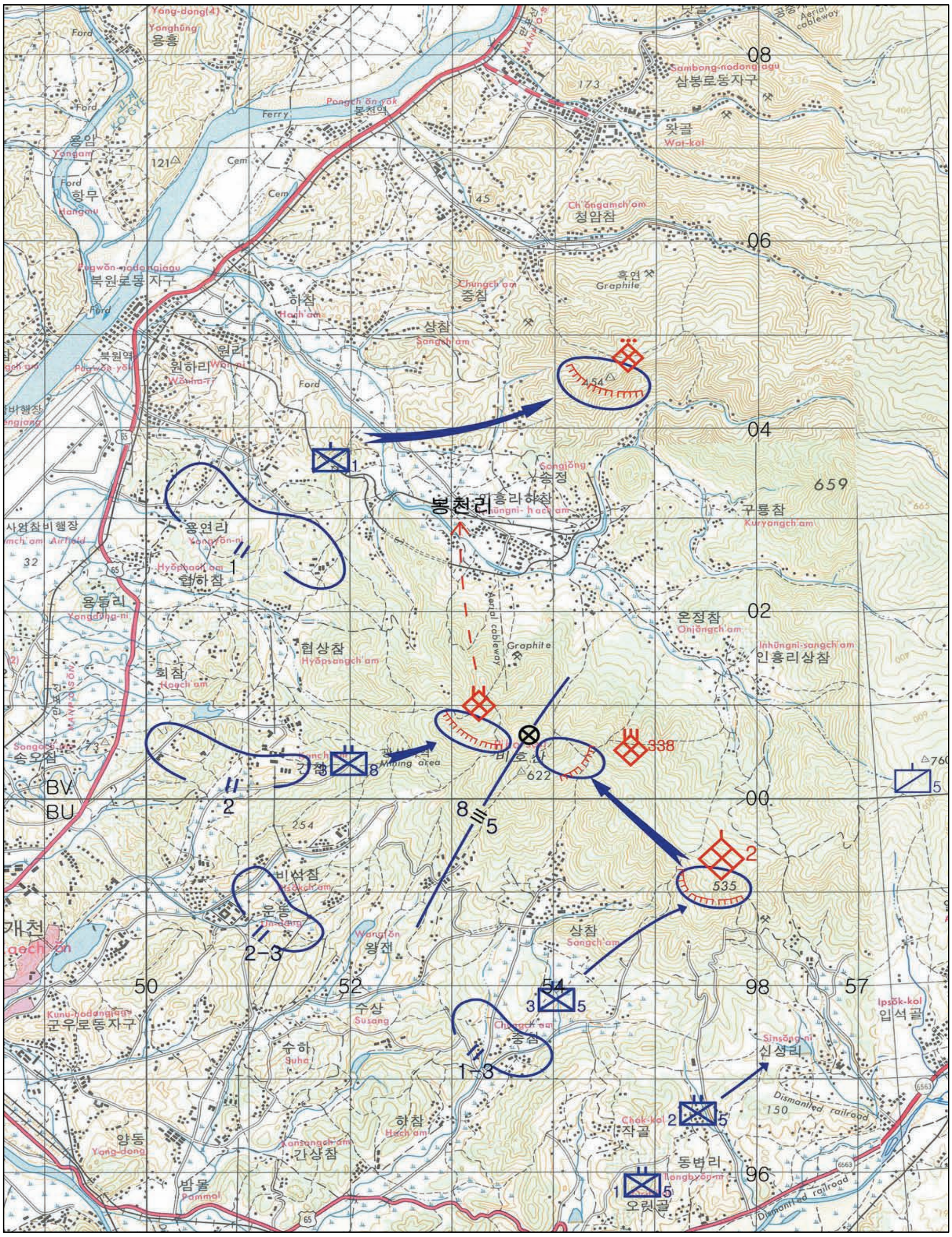
30분간의 공격준비사격으로 적의 진지를 초토화시킨 후 제5연대와 제8연대는 고지 남북에서 협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남쪽의 제5연대는 신성리(新成里)에서 미 제5연대 진지를 초월하여 535고지를 공격하여 완강히 저항하는 적을 격퇴시키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또한 북쪽에서 비호산 주봉을 공격한 제8연대는 3시간의 격전 끝에 적을 물리치고 목표를 탈취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7사단은 비호산 일대의 진지를 완전히 회복하고 미 제8군의 동측방 방호에 성공하였다.

⑶ 전투 결과

개천지역을 장악한 후 서북부지역의 아군 후방을 차단하려던 중공군 제38군단의 작전기도는 비호산 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2차에 걸친 비호산 공방전에서 참패한 중공군 제38군단은 이후 서서히 전선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좌인접에서 공세를 가하던 제39군단과 제40군단도 이 전투를 기점으로 공격을 중지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제1차 공세를 종료하였다.

한편 국군 제7사단은 비호산을 중심으로 방어진지를 더욱 강화한 후, 11월 9일과 10일의 이틀간에 걸쳐 미 제1기병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개천에서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중공군을 격퇴한 국군 제7사단의 승리는 중요한 의미를 안고 있었다.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최초의 승리라는 의미 외에도, 그간의 연패로 인해 국군 장병들이 느끼고 있던 중공군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을 떨쳐 버릴 수 있었다.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군 장병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상황도 4-7> 개천-비호산 전투(2)



4) 온정리 전투(1950. 10. 24~10. 30)

(1) 전투 개요

온정리[90] 전투는 국군과 유엔군이 한·중 국경을 향해 진격작전을 전개할 무렵,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던 제6사단 제2연대가 온정리 북쪽의 동림산 일대에서 중공군 제40군단의 반격으로 1950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약 1주일간 전개한 방어전투이다.

국군 제6사단 예하의 제2연대는 온정리를 점령한 후 온정 북쪽 17㎞ 지점의 북진(北鎭)을 향해 진격중에 있었고, 제7연대는 초산 남쪽 32㎞ 지점의 고장(古場)과 초산 부근에 병력을 전개해 지역방어를 강화하며 대기중에 있었으며, 제19연대는 사단지휘부와 함께 희천에 위치하며 전방연대를 후속할 준비중에 있었다.

그러나 10월 중순 이후 압록강을 통해 잠입한 중공군은 전 전선을 위협하면서 동시에 평양을 탈취하려 하였다. 중공군은 전략적 주요 거점인 희천-운산-정주를 연하는 선을 확보하기 위해 주공을 중서부전선으로 지향함으로써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하였다.

1950년 10월말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6사단은 최선봉사단으로 개천-구장동을 공격한 후 일선연대를 한·중 국경까지 북진시키고, 사단 지휘부는 10월 24일 희천에 이르렀다. 특히 제7연대는 지휘체계가 마비되고 전투력을 상실한 북한군 제8사단의 잔여 혼성부대를 격퇴하며 10월 26일 한·중 국경인 초산에 도달하였다. 반면에 각 지역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던 북한군은 만포진을 중심으로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으나 거의 쇠진한 상태였다.

국군 제6사단의 전투정면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한 중공군은 온정리 북쪽 3~12㎞ 지점의 대소 능선상에 잠복시켜 벽동을 향해 진격하는 제2연대를 포위공격하는 한편 초월공격한 제7연대의 후방을 차단하고 포위망을 압축하였다. 대규모의 중공군과 맞서게 된 제6사단장 김종오(金鐘五) 준장은 적을 격퇴하고 진격을 계속하려 했으나, 오히려 적은 제2연대를 포위 공격함과 동시에 병력을 증강하여

제7연대를 위협하였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사단장은 적의 측후방 공격을 통해 제2연대를 지원하도록 예비대인 제19연대에 지시하였다.[91]

그러나 제19연대 또한 빠른 속도로 남하한 중공군으로 인해 진출이 여의치 못하자 제7연대를 온정 북쪽 38㎞ 지점의 회목동(檜木洞)으로 선회시켜 적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고장은 80여 ㎞의 원거리였고, 중공군이 온정 북쪽 20㎞ 지점의 송평동 부근의 724고지까지 진출함으로써 군단장은 제8사단 제10연대를 즉시 출동시켜 제6사단을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당시 중공군의 전술은 피아의 전투능력을 비교 검토한 후 승산이 있으면 공격하고 불리할 경우 일단 후퇴하여 다른 전술로 전환하는 칭퇴아진법(称退我進法)과 자신들이 원하는 유리한 지형으로 유도한 후 결전을 감행하는 유도전술(誘導戰術), 그리고 상대편 배치선 외의 약점을 찾아 침공하는 침투전술(浸透戰術) 및 우회전술(迂廻戰術), 인해전술을 병행한 야간전술(夜間戰術)을 주로 사용하였다. 중공군은 대부분이 농촌출신으로 학력이 낮으나 인내심과 복종심이 강하고 전투경험을 쌓은 중공군과 국부군 및 팔로군 출신이 많고, 산악전투와 야간전투에도 능숙하였다. 또한 안전지대인 만주로부터 보급이 원활하게 조달되어 사기도 양호한 편이었다.

중공군은 제13병단 예하의 제40군단으로서 병력은 약 40,000명을 유지하였고, 주요 장비는 62㎜ 및 82㎜ 박격포와 2.36인치 및 3.5인치 로켓포 그리고 120㎜ 유탄포 정도였다. 각 개인은 산악전에 편리한 경장비로 무장하는 대신 다량의 수류탄을 휴대하였다. 그리고 전투중에 나팔과 북, 꽹과리를 이용하는 심리전을 펼치기도 하였다.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윈위청(溫玉成)이고, 각 사단장은 <표 4-13>과 같다.

반면에 국군 제6사단은 약 10,000명에 달하는 편제상의 완편 인원과 장비를 보유하면서 포병 제16대대를 배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급상태가 원활하여 장거리 진격작전을 전개하던 장병들의 사기 또한 극히 양호하였다.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유재흥 소장과 사단장 김종오 준장이었고, 예하 각 연대장은 <표 4-13>과 같다.

한편 사단의 전투정면은 적유령산맥과 묘향산맥이 초산-벽동-운산 지역까지 뻗

어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급경사의 단애와 협곡은 울창한 삼림과 함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어 기동에 많은 제한은 물론 인접 및 후속부대와의 연락에 어려움을 주었다. 또한 한풍과 강설은 시계의 제한을 가져와 항공 및 화력 지원에 제한요소로 작용하였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7연대가 점령한 초산은 진격로상의 요지이고, 제2연대가 진출한 온정리는 희천-초산-벽동과 운산-개천 등 주요 도로가 연결된 주보급로상의 거점이자 교통요충지였으므로 피아간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표 4-13>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2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6사단장		준장	김종오(金鐘五)	
	제2연대	연 대 장	대령	함병선(咸炳善)	
		제1대대장	소령	석순천(石順天)	
		제2대대장	대위	이성훈(李聖勳)	대리
		제3대대장	소령	송대후(宋大厚)	
	제7연대	연 대 장	대령	임부택(林富澤)	
		제1대대장	중령	김용배(金龍培)	
		제2대대장	중령	김종수(金鍾洙)	
		제3대대장	중령	인성관(印聖琯)	
	제19연대	연 대 장	대령	박광혁(朴光赫)	
		제1대대장	소령	김준교(金俊敎)	
		제2대대장	소령	김욱전(金旭篆)	
		제3대대장	소령	박 철(朴 徹)	
	제16포병대대장		소령	김 성(金 聖)	배속부대
중공군	제40군단	군 단 장		원위청(溫玉成)	
		제118사단장		덩 웨(鄧 岳)	
		제119사단장		남센원(?)	
		제120사단장		쉬궈푸(徐國夫)	

(2) 전투 경과

가) 온정리 부근 전투(1950. 10. 24~10. 30)

미 제8군의 선봉부대로 제일 먼저 청천강을 도하한 국군 제2군단은 희천을 목표로 패주하는 적에 대한 추격작전에 돌입하였다. 좌인접의 미 제1군단이 청천강을 도하한 10월 23일경 군단의 좌전방인 제6사단 제7연대는 희천에 도달하였고, 후속한 제2연대는 군우리 북쪽의 자작(自作)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우전방의 제8사단은 험준한 산악을 따라 기동하여 제16연대가 개천(价川)에, 그리고 제10연대는 맹산(孟山)에서 영원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국경을 향한 총 진격명령이 하달되자, 국군 제2군단은 10월 24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좌전방인 제6사단은 초산과 벽동을, 우전방인 제8사단은 만포진과 중강진을 목표로 하였다. 제6사단의 우일선인 제7연대는 희천에서 극성령을 넘어 초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좌일선인 제2연대는 자작에서 온정리를 경유하여 벽동을 목표로 진격하였으며, 예비인 제19연대는 후속하여 온정리로 전진하기 위해 희천에서 대기하였다.[92]

공격을 개시한 제7연대는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당일인 10월 24일에 극성령을 넘어 중간목표인 회목동을 점령하였고, 계속 전진하여 25일에 고장을 점령한 후 다음날 최종 목표인 초산을 점령함으로써 아군부대 중 제일 먼저 국경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좌전방의 제2연대는 온정리를 점령한 후 벽동을 목표로 북상하던 중 중공군과 조우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10월 24일 18:00경 온정리를 점령하여 숙영에 들어갔던 제2연대는 다음날 09:00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여 북진(北鎭)으로 향하던 중 동림산(東林山) 일대에서 중공군의 저지를 받았다.

제2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온정리를 출발하여 북진을 향해 전진을 시작하였다. 도보부대인 제2대대가 3㎞ 정도 앞서 전진하면서 제1대대가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전 병력을 차량화한 제3대대가 11:00에 온정리를 출발하였다.[93] 정오 무렵 야포와 대전차포로 증강된 기동대대인 제3대대가 선두로 온정리 북쪽 약 13㎞ 지점의 양수동(兩水洞) 인근에 이르렀을 때, 제2대대는 4㎞ 후방의 중흥동(中

<상황도 4-8> 온정리(운산) 전투



興洞)을 지나고 있었고 후미인 제1대대는 온정리를 막 벗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압록강을 건너 남진한 중공군 제40군단 예하 제118사단의 선두부대인 제354연대는 25일 01:00 부흥동까지 진출한 후, 지형조사와 함께 전투준비에 착수하여 각종 화기의 발사진지 및 참호와 엄폐물을 완성하였다. 적은 도로 동쪽의 감제고지인 동림산(1165고지)과 서쪽의 도리산(道理山, 841고지)으로부터 구룡강(九龍江) 계곡으로 뻗어 내린 능선 위에 매복진지를 구축하고 종대로 행군하던 아군 선두부대의 측면을 기습 공격하여 분할 포위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94] 유리한 지형을 선점한 채 아군이 접근하길 기다리던 중공군은 연대의 행군대열이 사정권내로 들어오자 일제사격을 가하였다. 중공군 제354연대와 제353연대 일부는 계곡 양쪽에 V자형으로 병력을 배치해놓고 대기하다 제3대대 대열이 들어서자 집중사격을 가하였으며, 또한 피리와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는 등 심리전으로 공포심을 유발시켰다.

불리한 위치에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받은 연대는 사상자가 속출하였고, 특히 전방과 좌, 우측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제3대대는 순식간에 지휘체계가 마비되어 온정리 방면으로 분산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밤 온정리로 철수한 대대병력은 750명 중 400여 명에 불과하였고, 배속된 105㎜ 야포와 대전차포는 물론 차량까지도 모두 유기한 채 가까스로 병력만 빠져나왔다.[95]

다행히 도보로 후속하던 제2대대는 선두부대의 4㎞ 후방에서 전진하던 중, 중공군의 출현통보를 받고 중흥동 북쪽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제3대대의 철수를 엄호할 수 있었다. 중흥동 뒷산에서 전면방어태세를 취하며 적의 동태를 파악하던 제2대대는 대대정찰대가 획득한 중공군 포로 2명의 진술을 통해 대규모의 병력이 온정리로 집결중인 것을 간파하였다. 따라서 온정리로의 퇴로가 적에 의해 차단된 것으로 판단한 제2대대는 어둠을 타고 남쪽의 오현동 계곡을 통해 제1사단이 작전중인 운산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발했던 제1대대는 즉시 온정리로 복귀하여 사주경계태세를 갖추고 철수부대의 엄호와 제3대대의 재편성을 위한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무렵 제2대대와의 교신 실패로 철수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연대본부는 제2대대가 중공군

에 포위된 것으로 판단하고 구출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사단에 증원을 요청하였다.[96]

한편 제2연대 정면에 사단규모의 중공군이 출현했다는 보고에도 계속 전진만을 명령했던 사단장은 제2연대가 분산철수하는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자,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것에 대비해 제19연대의 1개 대대를 회목동으로 진출시켜 온정리와 초산간 기동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제19연대의 잔여 2개 대대에도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연대장은 희천에 대기중인 제1대대를 즉시 회목동으로 진출시키고, 제2대대는 희천에서 출동태세로 대기시켰으며, 잔적을 소탕하던 제3대대를 희천으로 복귀시켰다.[97]

중공군의 공격중단으로 잠시 주춤하던 전선은 10월 26일 03:30을 기해 재개된 적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긴박해졌다. 중공군은 제118사단과 제120사단을 온정리 주변의 주요 도로와 고지 등 요소요소에 배치해놓고 심야에 기습공격을 가해왔다.[98] 적은 피리와 나팔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시키며 제파공격을 가하였고, 국군의 포격이나 사격에도 아랑곳없이 전진만을 강요하는 인해전술을 구사하였다.[99]

국군 제2연대 장병들은 적의 이러한 공격에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교전한 지 30분도 안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 결국 분산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쪽의 운산으로 연결된 도로에는 중공군이 길목마다 화기를 거치해놓고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연대 주력은 동쪽의 희천으로 통하는 소로를 이용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100]

연대장 함병선(咸炳善) 대령은 온정리 동쪽 5㎞ 지점의 구두령(龜頭嶺)에서 일부 병력을 수습하여 저지진지를 급편하고, 제3대대장은 양지동(陽地洞) 계곡에서 병력의 수습을 시도하였으나, 1시간도 안되어 이 진지마저 돌파되었다. 이후 장병들은 각개분산하여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였고, 이 과정에서 포로가 되거나 전사 또는 부상당한 병력이 1,000여 명에 달하였다. 연대장이 태평(泰平)의 향교동(鄕校洞) 삼차로에서 이틀간 병력을 수습한 결과, 제1대대 병력을 주축으로 약 400명을 집결시켰으나, 제3대대 병력은 대부분 희천으로 그리고 제2대대는 운산

남쪽의 용전리(龍田里)로 철수함으로써 제2연대는 마침내 와해되고 말았다.

이에 사단장은 10월 26일 아침 희천에서 대기중인 제19연대(-)를 온정리로 급파해 제2연대를 구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초산으로 진출한 제7연대의 철수를 군단장에 건의하였다. 군단장은 제6사단장의 건의를 승인하고 14:00에 제8사단의 진격작전도 전면 중지시키면서 다음날 희천의 제8사단 제10연대를 온정리로 보내 제2연대를 구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온정리를 조속히 탈환해 제2연대가 유기한 각종 야포와 차량을 회수하도록 명령하였다.[101]

그러나 중공군 제120사단은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가 온정리가 바라보이는 북동쪽 고개까지 진출해 공격준비를 하던 10월 27일 밤에 역공을 가해옴으로써 온정리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격전이 전개되었다. 제19연대(-)와 제10연대는 10월 29일까지 3일간 총력전을 펼쳤으나, 중공군 제40군단 예하의 3개 사단과 희천 방면으로 남하한 제38군단 예하의 1개 사단 등 4개 사단의 인해전술에 압도되어 공격이 좌절되고 퇴로마저 차단되었다.[102]

이 전투에서 국군이 예상 밖으로 패배하자, 미 제8군은 사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군 예비대를 투입하여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초산지역에 고립된 국군 제7연대의 구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초산 전투(1950. 10. 27~10. 30)

육군본부의 명령[103]에 따라 회목동을 점령한 제2군단은 한·중 국경으로 진출하기 위해 제6사단과 제8사단에게 희천과 온정리를 경유해 압록강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공격제대를 편성한 제6사단장은 우일선의 제7연대는 풍장(豊場)과 고장을 경유하여 초산으로 진격하고, 좌일선인 제2연대는 온정과 북진을 경유해 벽동(碧潼)을 점령하며, 제19연대는 예비로 잔적을 격멸하며 후속토록 조치하였다.

제7연대는 10월 26일 고장과 초산을 점령한 후 명령에 따라 대기하였고, 제1대대는 한·중 국경에 도달해 경비임무에 돌입하였다. 반면 제2연대는 전날 정오무렵에 온정리 서북쪽 7㎞ 지점인 장동(長洞) 부근에서 중공군과 만나 교전을 벌

였으나 26일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제7연대마저 위협받았다. 이에 사단장은 제2연대를 구원하고 제7연대에 대한 적의 배후차단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예비대인 제19연대를 급파하려 했으나, 중공군의 계속된 병력증강과 대대적인 공격 징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명령을 제7연대장에게 하달하였다.[104]

『① 사단은 동림산(東林山) 일대에 출현한 적을 저지 격멸한 다음 이미 계획된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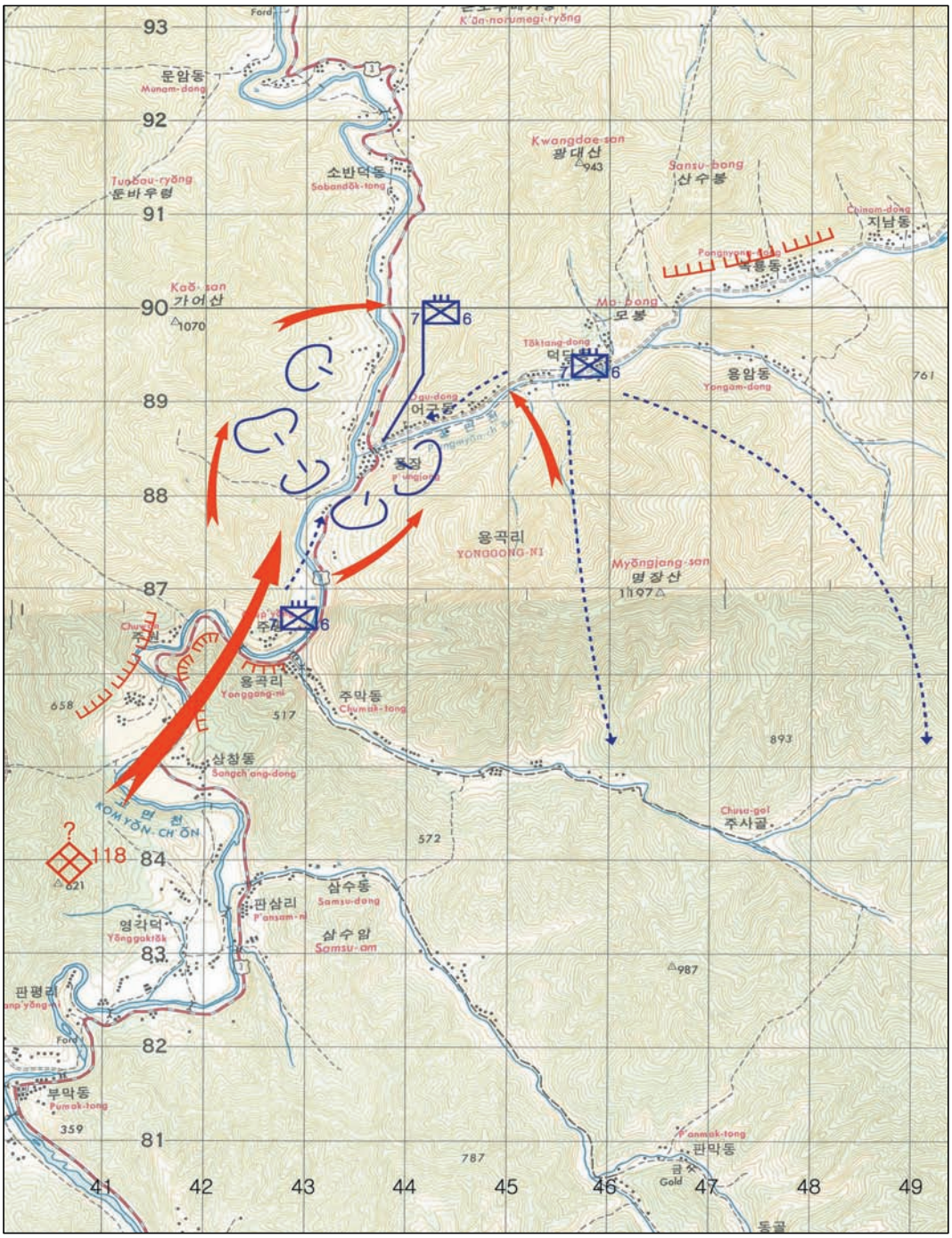
② 제7연대는 신속히 부대를 집결하여 회목동으로 이동하라.』



중공군지휘소가 설치된 평안북도 대유동에서 펑더화이와 김일성 간의 전쟁논의 장면 (출처 : 소장자 류은규/유로크레온)

명령을 접한 제7연대장은 임무를 확인하는 즉시 각 대의 이동에 따른 인원과 장비를 수습하도록 준비명령을 하달하고 임무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105] 검토결과에 따라 연대장은 부대를 신속히 차량 이동하기로 결심하고 유류 및 탄약의 긴급지원을 사단에 요청하는 한편 행군계획을 수립하였다. 주 기동로

<상황도 4-9> 초산진격 · 철수작전



는 고장을 출발해 풍장-판하동(板下洞)-양강동(兩江洞)을 경유한 후 회목동으로 향하는 차량행군로를 택하였고, 전투보다는 이동에 우선을 두었다. 그리고 적을 견제하고 주력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화력의 중점을 제2대대에 두었다. 주 통로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풍장과 창동(倉洞)을 거쳐 1677고지인 주사산(朱砂山)을 우회하는 산길을 예비 통로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한편 제6사단 제7연대는 10월 27일 12:00에 하달된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이동 준비를 완료한 후 18:00까지로 통보된 공수보급이 자정까지도 추진되지 않자 고장 일대에서 야영에 들어갔다. 다음날 13:00경 4대의 C-119 수송기가 45드럼의 휘발유와 200발의 포탄과 각종 탄약 등을 투하하자 연대는 초산의 제1대대에 연료를 직송해 고장으로 신속하게 철수하도록 명령하였다.[106]

온정리의 급박한 전황으로 인해 10월 29일 아침을 기해 철수를 결정한 연대는 초산의 제1대대와 관대동(寬大洞)의 연대보급소 병력을 고장으로 집결시켜 철수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연대 수색대에 기동로상의 적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28일 18:00에 고장을 출발한 연대 수색대는 고면천(古面川)을 따라 남하하던 중 풍장 남쪽 2㎞ 지점에서 중공군 제118사단 선두부대와 조우해 격퇴하였으나, 연대의 명령에 따라 풍장 남쪽의 주막거리를 확보하였다.



만주에서 바라본 초산지역의 모습

제7연대는 다음날 07:00를 기해 철수작전을 단행해 제2대대와 제3대대, 연대본부와 제1대대 순의 차량행군 대형으로 이동을 개시하였다. 연대의 철수를 보고받은 사단장은 군단에 항공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제7연대의 이동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제19연대에 적의 배후를 공격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미 제19연대가 적에게 포위되고 중공군 제118사단이 고장 남쪽 26㎞의 판하동과 판명동까지 진출하고 있었다.[107] 이에 사단장은 08:00에 "귀 연대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음. 전술공군의 엄호사격이 실시될 예정임. 최선을 다해 철수작전에 성공하기 바람."이라는 전문을 하달하였다.

온정리의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됨을 인식한 연대장은 측방경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철수 기동하였다. 선두인 제2대대가 연대 수색대와 합류해 고장-회목동의 중간에 위치한 주원리(朱院里) 계곡을 막 통과하려는 순간 중공군 제118사단 제353연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적은 계곡 양편의 병풍처럼 깎아지른 가파르고 험준한 능선상에 연대규모의 병력을 매복시켜 놓고 대기중에 있었고, 연대가 계곡으로 접어들자 일제히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적의 기습에 동요된 장병들은 차량도 버린 채 북쪽으로 뛰어나갔으나, 중공군의 포위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20여 분에 걸친 적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을 때, 유엔공군의 F-51 전폭기 1개 편대가 출현해 중공군 진지를 공격하였다. 제2대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신속하게 병력을 수습하였고, 이어 계곡 양쪽의 능선으로 병력을 전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2대대는 유일한 통로인 이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을 격퇴해야만 하였다. 공방전 속에 중공군 포로 5명을 획득하고 풍장 남쪽 8㎞ 지점까지 진출한 연대는 전폭기의 근접지원이 일몰로 중단되자 더욱 가중된 중공군의 압력을 받게 되었다.[108]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귀 연대는 휴대할 수 있는 전투장비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파괴하거나 소각하고 최선의 수단을 다해 회목동으로 집결하라"는 철수명령을 전문으로 하달하였다.[109]

온정리의 제2연대가 와해되고, 제19연대와 제8사단 제10연대도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사단은 연대의 퇴로를 타개할 어떠한 대책도 강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7연대의 철수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제7연대장은 제3대대를 주사산으로 우회시켜 중공군 제118사단의 배후를 공격하여 진로를 타개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선두대대인 제2대대에게 전방의 적을 견제하도록 지시한 후 풍장의 제3대대장에게 주사골 골짜기를 돌아 적의 배후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제3대대는 제2대대의 엄호하에 진로개척에 나섰으나 명장산(名場山) 남쪽에서 또 다른 중공군에 저지되는 등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야간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풍장을 중심으로 남쪽에 제2대대가 상창동 일대의 진지를 점령하고, 북쪽은 제3대대와 제1대대가 도로 양편에 길게 병력을 배치해 경계태세를 취하였다.

한편 중공군 포로를 심문한 연대본부는 이날 자정을 기해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감행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으나, 밤이 깊어 방어진지의 조정이나 병력의 재배치를 할 수 없었다. 예상대로 10월 30일 자정이 되자 중공군은 대규모의 공격을 가해왔다. 제2대대 진지는 혈전의 장으로 바뀌었고, 두 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풍장의 제3대대 진지가 무너진데 이어 03:00 무렵에는 제1대대 진지가 돌파되어 연대의 방어선이 와해되었다.[110]

이런 상황에서 연대장은 “연대의 전 장병은 적진을 각개돌파하여 구장동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연대 장병들은 명령에 따라 이중삼중의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100㎞가 넘는 구장동으로의 긴 행군을 시작하였다. 아군의 선봉부대로 압록강변까지 진출해 사기가 충천했던 연대는 중공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전의가 저하됨은 물론 삼삼오오 소규모 인원으로 분산되어 적진을 돌파하게 되었다. 분산 철수하는 과정에서 장병들은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추위, 그리고 배고픔을 극복하고 무작정 남하하여 구장동에 도달했으나, 이미 구장동이 적의 집결장소로 변해 다시 묘향산을 넘어 청천강 남쪽으로 행군을 계속하였다.

11월 6일 청천강 남안의 개천에 집결한 연대병력은 총 3,552명 중 875명에 불과하였고, 대대장 1명을 포함한 많은 장병들이 전사 및 실종되거나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다. 연대는 개천에서 군단예비로 전환되어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던 사단 주력과 합류하였고, 인원과 장비를 보충하여 부대의 재편성에 돌입하였다.[111]

(3) 전투 결과

1950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개된 초산 및 온정리 부근 전투에서 국군 제6사단은 약 4배에 달하는 적의 대병력과 맞섰으나,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부득이 물러서야 하였다.

반격전을 개시한 중공군은 10월 26일 온정리를 탈환한데 이어 제7연대가 초산 및 고장에서 물러나자 계속하여 501고지에서 제19연대 제3대대의 방어진을 돌파하여 희천으로 향하는 한편 주력은 요충인 청천강 선으로 남진을 계속하였다. 즉, 중공군 제40군단의 주력은 온정리와 태평을 침공한 후 우익 제8사단의 정면으로 침입한 중공군 제38군단과 희천에서 합류하여 국군 제7사단 및 제8사단이 형성하고 있는 청천강 방어선을 공격하여 계속 남하를 기도하였다. 아울러 좌익의 제1사단 정면으로 침공한 중공군 제39군단은 운산을 거쳐 영변과 개천으로 남진을 계속하였다. 이때 중공군은 산악지대에서 준동하던 북한군 패잔병과 합세하여 인해전술을 감행하며 평양에 이르는 요충인 청천강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한편 제6사단은 목표인 한·중 국경으로의 진출이 저지되자 청천강선의 방어계획에 의거하여 제7연대는 풍장에서 험준한 산로를 따라 130여㎞의 원거리를 각대별로 남하하여 개천에 집결하였고, 제2연대와 제19연대는 온정리 부근에서 개천으로 이동하였다. 각 연대는 대부분의 주요 장비와 보급품은 상실하였으며, 개천에 집결한 사단은 군단의 예비가 되어 부대의 재편성과 차후 작전준비에 임하였다.

4. 동부지역 작전

1) 장진호 진격작전(1950. 10. 29~11. 24)

(1) 전투 개요

장진호 진격작전은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이 미 제10군단장

의 장진호 진격명령에 따라 원산상륙 직후인 1950년 10월 29일부터 장진호 서안의 유담리를 점령 완료한 11월 24일까지 전개한 진격작전이다.

10월 1일 국군 제1군단이 38도선을 돌파해 원산으로 진격할 무렵, 알몬드 소장과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중장은 극동군사령부에서 원산상륙에 관한 준비명령을 받았다. 즉, 제7연합기동함대는 미 제10군단을 해로로 원산에 수송하고 엄호지원하라는 것과, 청진 이남의 해안선을 봉쇄하고 상륙전에 필요한 해군작전을 수행하며 수륙양면으로 원산공격을 수행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함포사격 및 항공지원, 그리고 군수지원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 제10군단은 인천에서 승선하여 원산에 상륙하라는 내용이었고, 상륙예정일은 10월 15일이었다. 이어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10월 4일 미 제1해병사단은 원산의 상륙기지를 확보하고 미 제7보병사단은 원산에 상륙한 다음 미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서쪽으로 공격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Almond) 소장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USGPO, 1990. p.18)

그러나 이미 국군 제1군단에 의해 10월 10일 원산이 점령되고, 10월 16일 미 제1해병사단이 인천에서 승선해 원산으로 항진했지만 원산입구인 영흥만의 소해작전이 지연되어 10월 26일에야 상륙하게 되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동해안을 따라 북동 국경지대로 진격하고, 미 제1해병사단은 군단 후방의 병참선과 후방지역을 경계하는 한편 함흥에서 장진호를 향해 진격하며, 미 제7사단은 이원에 상륙하여 북청-혜산진을 공격하고,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지역을 경계하라.』

<표 4-14>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미군	제7기동함대사령관	중장	Arthur D. Struble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1해병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제1연대장	대령	Lewis B. Puller
	제5연대장	중령	Raymond Murray
	제7연대장	대령	Homer L. Litzanberg
	90공격함대장	소장	James H. Doyle
	95선발함대장	소장	Allan E. Smith
	95.2엄호 및 지원단장	소장	Charles C. Hartman
	95.6소해단장	대령	Richard T. Spofford
	96.2정차 및 수색단장	소장	George R. Henderson
	96.8호위항모단장	소장	Richard W. Ruble
	77쾌속항모단장	소장	Edward C. Ewen
	70.1기함단함장	대령	Irving T. Duke
	79군수지원단장	대령	Bernard L. Austin
중공군	제42군단장		우루이린(吳瑞林)
	제124사단장		우거임(?)
	제370연대장		?
	제371연대장		?
	제372연대장		?

한편 작전에 참여한 미 제1해병사단은 사단장 스미스(O. P. Smith) 소장 예하에 예배속부대를 포함하여 약 24,000명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은 사창리와 오로리 일대를 주방어지역으로 부여받은 제42군단 예하의 제124사단으로서 병력은 약 10,000명 이었다.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우루이린(吳瑞林)이고, 사단장은 미상이다.

⑵ 전투 경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맥아더 사령관의 작전계획을 기초로 10월 4일 『미 제1해병사단은 원산에 상륙과 동시에 원산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 제7사단

은 원산에 상륙한 후 미 제8군과 연결하기 위해 서측방으로 공격한다』는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은 경인지구작전을 10월 7일까지 미 제8군에 인계하였고, 미 제1해병사단은 인천항에서 승선하여 원산을 향해 10월 16일 인천항을 출항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LST 등 36척에 병력과 장비를 탑재하였으나, 인천항이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병력승선에 20시간, 보급품과 장비탑재에 8일이 소요되었다.

미 제7사단은 부산에 집결하여 10월 16일과 17일에 승선을 완료했으나, 북한군이 영흥만에 기뢰를 부설함으로써 원산상륙에 차질을 가져왔다. 해군은 상륙 5일 전까지 소해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영흥만의 악천후와 기타 이유로 예정보다 늦어진 10월 10일부터 소해작업을 개시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이 승선한 미 제7기동함대의 수송선단은 원산 동남쪽 48㎞ 해상에 진입했으나, 소해작업이 지연되어 10월 26일까지 해상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국군 제1군단은 미 제1해병사단이 상륙하기 16일전인 10월 10일에 원산을 점령하고 북진중이었고, 10월 20일 국군 제1사단이 평양을 점령함으로써 미 제10군단의 서진계획은 백지화되었다.

10월 20일 정오 미 제10군단장은 원산비행장에서 북위 39도 10분 이북과 낭림산맥 이동(以東)의 한반도 동북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인수하였다. 알몬드 소장은 군단사령부를 원산에 설치하였고, 미 제8군 및 미 제2군수사령부와는 텔레타이프 통신망을 연결해 도쿄의 극동군사령부와 무선통신을 유지하였다. 휘하에는 10명의 참모장교와 30명의 사병으로 편성된 군단지휘부와 약 25,000명의 국군 제1군단 및 원산비행장에 이미 배치된 미 제1해병항공대대가 있었고, 해상에 있는 군단병력과 합치면 94,000명이 있었다. 또한 주요 전술부대는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 미 제1해병사단, 그리고 미 제7보병사단 등이었다.

한편 미 제10군단장은 10월 24일 유엔군의 진출제한선을 철폐한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전 속력과 가용부대의 전 역량을 투입하여 전진을 가속화하라』는 명령과 함께 『국군 제1군단을 통합 지휘하여 태백산맥 이동(以東)의 적을 격파하고 지체 없이 한·중 국경으로 전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장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112]

『① 군단은 원산상륙과 동시에 지대내의 적을 격파하고 한·중 국경선으로 진격하려 한다.
② 국군 제1군단은 계속 북동해안을 따라 두만강지역으로 공격한다.
③ 미 제7보병사단(10월 29일 이원상륙예정)은 이원(利原)-풍산(豊山)-혜산(惠山)으로 공격한다.
④ 미 제1해병사단은 원산상륙과 동시에 군단후방지역을 경계하면서 일부 병력으로 장진호(長津湖)로 공격하고, 별도명령에 의해 미 제3보병사단(11월 10~17일간에 원산으로 상륙예정)과 군단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교대한다.』

당시 군단 정면의 적은 함흥 북쪽과 흥남 동북쪽에 있었고, 국군 수도사단이 10월 20일 현재 함흥 북쪽의 오노리(五老里)와 흥남 동북쪽의 흥원을 점령하고 북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군단장의 작전구상은 미 제3사단과 제7사단이 원산에 상륙한 후 전열을 정비할 때까지 국군 제1군단을 동해안으로 북상시키고, 미 제1해병사단은 노출된 군단의 좌측과 배후를 방호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때 군단 후방지역에는 북한군의 패잔병들이 조직적으로 활발하게 준동하면서 주보급로를 위협하고 있었다.

한편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마운트 맥킨리(Mt. Mckinley)호 함상에서 작전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명령을 예하 각 연대에 하달하였다.[113]

『① 사단은 군단의 후방지역을 경계하면서 장진호로 공격하려 한다.
② 제1연대는 원산, 고저(庫底), 마전리(馬轉里)에 진출하여 지대내의 적을 소탕한다.
③ 제5연대는 영흥(永興)-문천(文川)간의 주보급로를 확보 유지한다.
④ 제7연대는 장진호로 공격하여 국군부대와 교대하고 명에 의해 한·중 국경선으로 공격할 준비를 한다.
⑤ 제11포병연대는 함흥에 위치하여 각 연대에 화력지원할 준비를 한다.』

<상황도 4-10> 장진호 진격작전



이에 따르면, 제1해병연대는 원산 남쪽 및 서쪽의 고저와 마전리에서 국군 제1군단 부대와 교대하여 경계임무와 작전을 수행하고, 제5해병연대는 원산과 흥남 남쪽 연포비행장 및 군단의 서측방을 경비하며, 제7해병연대는 함흥에서 장진호에 이르는 계곡에서 국군 제3사단과 교대해 장진 및 부전발전소를 경비한 다음 계속하여 진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단의 각종 장비가 아직 양륙되지 않아 즉각적인 작전임무를 이행할 수 없어 그 동안 부대정비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스트러블 중장과 참모들이 10월 24일 미주리호 함상에서 소해와 상륙에 대한 회의를 열어 상륙시점을 결정한 대로, 1주일간 함상에서 대기하던 미 제1해병사단은 10월 26일 07:30 원산항에 닻이 내려진 미 제7기동함대 수송선단에서 상륙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어 사단지휘소도 다음날 10:00에 맥킨리호에서 원산농과대학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제7해병연대 수색대는 수동(水洞) 서쪽 2㎞ 지점에서 중공군 포로 2명을 획득하였다.



장진호 부근에서 미 제1해병사단 병사에게 생포된 중공군 (출처 : 소장자 류은규/유로크레온)

원산상륙을 완료한 미 제1해병사단은 10월 29일 하달된 명령에 따라 임무수행에 착수하였다. 미 제1해병연대는 저고에서 원산을 경유하여 마전리로 이동하여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방어에 돌입하였고, 제5해병연대는 원산과 흥남간의 연포비행장을 중심으로 군단 서측방의 경계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7해병연대는 수동 부근에서 국군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함흥을 향해 행군을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국군 제26연대는 중공군 포로에 대한 심문을 통해 중공군 제42군단 예하 제124사단 병력이 하갈우리(下碣隅里)를 비롯한 장진호 부근에 집결해 있고, 북한군 전차가 중공군을 지원하고 있는 적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첩보를 보고받은 미 제10군단장은 중공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미 제7해병연대를 투입하는 한편 함흥의 국군 제1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중공군 포로에 대해 직접 심문을 실시하였다. 심문 결과, 중공군 제124사단 제370연대는 10월 23~24일 수동 부근에 투입되어 10월 25일 처음으로 국군과 교전을 벌였고, 나머지 2개 연대도 장진호 부근에 집결한 사실을 파악하였다. 알몬드 장군은 이런 첩보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명령에 따라 이동을 시작한 미 제1해병연대는 함흥 북쪽에 집결중이었고, 미 제5해병연대 또한 원산을 출발하여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11월 1일 미명에 미 제7해병연대는 함흥 북쪽 집결지에서, 그리고 미 제1해병연대 제2대대는 배속된 포병대와 함께 제3발전소를 방어하기 위해 42㎞를 이동하였다. 제7해병연대와 제1해병연대가 수동 부근에 진출하여 국군 제26연대와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다음날 10:30에 수동 부근에서 국군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미 제7해병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였고, 전투과정에서 중공군 3명을 포로로 획득하였다. 이어 제1대대는 수동 남쪽 1.5㎞ 지점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제2대대는 연대봉(煙台峰)에서 전투를 계속하였으며, 예비대인 제3대대는 마전동(麻田洞)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였다.[114]

11월 3일 00시가 조금 지나자, 중공군 제124사단 제370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 제1대대와 제2대대 진지에 야간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야간기습을 받은 수동

부근의 제2대대는 연대본부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등 격심한 피해를 입었다. 제1대대와 제2대대 사이를 차단한 적은 근접전을 전개하였고, 쌍방간의 육박전은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 날이 밝고 미 해군함재기가 출격해 적진을 계속하여 강타한 후, 모래주머니로 방탄장치를 한 미 해병연대의 트럭은 적의 소화기사격을 무릅쓰고 66명의 부상자를 적진에서 후송하였다. 전투는 야간까지 계속되었고, 유기적인 공지협동작전으로 예봉이 꺾인 적은 끝내 저항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하였다.[115] 수동 부근과 연대봉 일대에서 적을 격퇴한 미 제7해병연대는 11월 4일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수동을 경유하여 진흥리 고지대로 진출하였다. 이어 진흥리 북쪽 1.5㎞의 삼거리역에서 북한군 전차 4대를 격파하였다.

예비대인 미 제7해병연대 제3대대는 11월 5일을 기해 공격제대에 가담하였다. 진흥리 북쪽 삼거리 일대에서 제1대대를 초월공격한 제3대대는 삼거리 동북쪽 2㎞의 무명고지에 있는 중공군 엄호부대인 제124사단 제372연대를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였다. 미 해병대는 고토리(古土里)로 진격하기 위해서는 이 무명고지를 격파해야만 하였다.

미 제7해병연대 제3대대의 공격은 다음날에도 이어졌고, 4차례의 강력한 공격에도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일몰과 함께 후방으로 이동한 제3대대는 밤새 적 진지에 맹렬한 포격을 가하였다. 적은 많은 시체와 부상자를 남겨둔 채 고토리 방면으로 물러났으며, 제3대대는 삼거리 북쪽 2㎞ 지점인 보압동(堡壓洞)과 제1발전소까지 진출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 포로의 진술을 통해 제125사단과 제126사단 등 2개 사단병력의 적이 장진호 부근에 집결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전개된 전투에서 중공군 제124사단은 유엔군의 공지협동작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미 제7해병연대도 46명의 전사자와 262명의 부상자 그리고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미 제7해병연대는 11월 9일 보압동과 제1발전소 부근에서 황초령(黃草嶺)의 문고개를 넘어 고토리를 향해 진격하였다. 그리고 미 제7해병연대의 서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가 지경리(地境里)-이수리(里水里)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제3사단장은 예하 제26연대를 11월 9일 09:00부터 미 제1해병사

단에 배속시키고 동 연대를 지경리로 집결시키라』는 명령에 따라 국군 제26연대는 12:30에 홍원(洪原)에서 지경리로 이동한 후 용상리(龍上里)에 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제1대대는 중촌(中村)에, 제2대대와 제3대대는 중창령(中倉嶺)에 각각 진지를 점령하였다.[116]

고토리로 진격한 미 제7해병연대의 선두부대는 11월 10일 계속하여 하갈우리 남쪽 11㎞까지 전진하였고, 적은 장진호 부근으로 퇴각하였다. 이날 오후부터 기온이 급강하하여 밤에는 영하 20~25도를 기록하였으며, 혹한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 장병들에게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였다.

장진호 남단의 하갈우리로 진격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군을 시작한 미 제7해병연대는 많은 적설로 차량기동 및 도보행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11월 13일 별다른 적의 저항 없이 하갈우리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 무렵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미 제10군단장에게 『사단의 전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하였다.

한편 미 제7해병연대가 장진호를 향해 진격하고 있던 11월 14일 미 제10군단의 우일선인 미 제7보병사단 제17연대와 제31연대는 혹한을 무릅쓰고 한중국경으로부터 48㎞ 지점인 풍산(豊山) 북쪽 웅이천(熊耳川) 부근까지 진격한 후, 다시 웅이천에서 갑산(甲山)으로 통하는 도로상의 요지를 확보하기 위해 북진을 계속하였다.

하갈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행군을 계속한 미 제7해병연대는 적의 주력이 장진 방면으로 물러남으로써 거의 접적 없이 11월 15일 16:00에 하갈우리를 확보하였다. 계속하여 장진호 서남안을 따라 북진한 미 제7해병연대는 진격 도중 수 미상의 중공군 후퇴엄호부대를 만나 이를 격퇴시키고 유담리(柳潭里)에 육박하였다.

한편 부산에 상륙해 있던 미 제3보병사단은 미 제10군단을 증원하기 위해 부족한 병력을 한국군인(KATUSA)으로 보충하였다.[117] 미 제3보병사단 제65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11월 5일과 6일에 원산으로 상륙해 미 제10군단의 작전지휘를 받았고, 11월 초 사단 주력이 일본에서 출항준비가 끝날 무렵 사단 전술지휘소는 이미 원산에 설치되어 있었다. 11월 17일 미 제3사단이 제15연대를 마지막으로

원산에 상륙을 완료할 무렵, 미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고토리 고원을 경유해 장진호 남단의 하갈우리를 점령하고, 계속 유담리를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원산에 상륙한 미 제3사단의 임무는 미 제1해병사단의 일부가 담당하던 원산 부근의 미 제10군단 후방지역 경계와 병참선을 경비하고 적의 유격활동을 봉쇄하는 것과 원산-함흥간의 해안선을 경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 제3사단의 전술책임지역은 144×56㎞로 너무나 광대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사단장 소울(Soule) 소장은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를 포함한 4개 연대를 모두 전투단으로 편성해 임무를 부여하였다. 즉, 제15연대는 원산과 그 남부 및 서부지역을 담당해 주로 원산-마전리-동양리(東陽里)간의 보급로를 경비하고, 제65연대는 사단 북쪽지역인 함흥-영흥 부근을 경비하며, 국군 제26연대는 미 제1해병사단의 서측방인 사창리(社倉里) 일대를 경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7연대와 전차중대는 원산 북쪽에서 사단 예비대로 있었다. 그러나 미 제3사단 예하 각 연대는 특별한 적정 및 교전 없이 담당지역을 경계하다 11월 30일 미 제10군단의 이동계획에 따라 다시 원산으로 집결하였다.

⑶ 전투 결과

미 제1해병사단 제7해병연대는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하여 11월 2일 함흥 북방 마전곡에서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미 제7해병연대는 수동 부근에서 중공군 제124사단 제370연대와 최초로 격전을 전개하였고, 장진호 서남단의 하갈우리-유담리로 진격하기까지 2주일간 중공군 제124사단을 격퇴하였다. 중공군은 장진호 북쪽으로 물러나 부대를 재편중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11월 16일 하갈우리를 점령한 미 제7해병연대는 11월 24일 장진호 서안의 유담리를 점령 완료한 후 진격전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미 제10군단 G-2는『근간 적은 북쪽으로 철수하였다』라고 낙관적인 보고를 군단에 하였으며, 군단장 알몬드 소장도 적이 방어작전으로 아군에 대항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11월 22일 유담리 부근에서 획득한 2명의 중공군 포로는 중공군 제89사단 제267연대 소속으로, 10여일 전에 압록강을 도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써 또 다른 중공군 사단이 한반도에 투입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미 제10군단의 판단은 새로운 적의 증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 제7해병연대가 유담리 부근에 집결할 당시,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이 혜산진 일대까지 진격하였고, 국군 제1군단은 동북 최전방의 회령까지 육박하였다. 그러나 유담리 부근에 집결해 차후 작전을 대기하고 있던 미 제7해병연대는 모든 전선이 악화됨에 따라 12월 2일 전면 철수를 단행하게 되었다.

2) 혜산진 진격작전(1950. 10. 27~11. 28)

(1) 전투 개요

혜산진 진격작전은 중공군이 참전하여 서부전선에서 미 제8군과 대치할 무렵인 1950년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진격을 계속하여 갑산과 혜산진에서 북한군 제42사단과 제126사단 소속의 패잔병을 격퇴하고 혜산진을 탈환한 작전이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부여된 임무를 미 제8군에 인계한 미 제7보병사단은 1950년 10월 2일 “미 제7보병사단은 원산에 상륙하여 평양을 우회 공격하라”는 명령에 따라 전 병력을 이천과 수원으로 이동 집결하였다.[118] 사단은 승선지인 부산항을 향해 10월 5일 03:50에 제31연대 제3대대를 선두로, 그리고 제32연대가 후속하여 이천을 출발하였으나 임무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던 제17연대는 10월 8일에 이동을 시작하였다. 사단은 장거리의 이동과정 중 10월 6일과 9일 문경 부근의 이화령 등지에서 적의 기습을 받았다.

10월 12일까지 이동을 완료한 사단은 인원과 장비의 탑재를 끝내고 10월 19일 부산항을 출발하여 북쪽을 향하였다. 항해 중이던 사단은 미 제7기동함대사령관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중장으로부터 “영흥만의 소해작업이 지연되어 상륙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항진을 멈추고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10일 동안 해상에 머물렀다. 영흥만의 소해작업이 완료되고 미 제1해병사단의

원산상륙이 개시될 무렵, 사단은 미 제10군단으로부터 “미 제7사단은 원산 동북 240㎞ 지점의 이원에 상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 제7사단은 예하의 제17연대를 선두로 이원을 목표로 항진을 계속하였다.

한편 작전에 참여한 미 제7사단의 병력은 약 11,000명이었고, 장비는 60㎜ 박격포 52문, 81㎜ 박격포 34문, 3.5인치 로켓포 23문, 57㎜ 대전차포 11문, 105㎜ 곡사포 12문 등을 보유하였다. 사단장은 바르(D. G. Barr) 소장이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패잔병과 내무서 요원, 지방노동자, 당원 및 학생 등으로 혼합 편성된 부대병력으로, 합수독립대대 950명, 백암독립연대 250명, 무산사단 10,000명, 원흥독립중대 200명, 송경독립여단 5,000명, 원흥독립사단 7,000명, 청낙산독립중대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북한군의 장비는 대체로 다발총, 소총, 경기관총 등이었다.

<표 4-15>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군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제7사단장	소장	David G. Barr	
	제17연대장	대령	Herbert B. Powell	
	제31연대장	대령	Richard P. Ovenshine	
	제32연대장	대령	Charles E. Beauchamp	
중공군	제42군단장		우루이린(吳瑞林)	
	제126사단장		?	
	제376연대장		?	
북한군	제4군단장	소장	박종덕(朴鍾德)	혼성병력

⑵ 전투 경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원산에 설치된 군단사령부에서 동북지역의 적정과 전황을 추이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산-함흥 서쪽의 산악지대에 존재하는 강력한 적의 유격대가 빈번하게 원산-함흥 지역으로 침투를 기도하

고, 함흥지역에서 북진을 준비중인 국군 수도사단의 전면은 미약한 북한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의 정규부대는 이미 격파되어 현 상황은 추격의 최종단계로서 큰 저항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용가능한 도로는 모두 이용하여 신속하게 국경선으로 진출하면 자연스레 이 지역의 평정은 완료되며, 동시에 전쟁도 종결될 것이다. 그러나 후방지역의 적 유격대의 침투는 날로 격화될 것이므로 후방의 경비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 알몬드 소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119]

『① 국군 제1군단은 해안선과 무산가도(茂山街道)를 따라 북으로 계속 전진하며, 백두산 이동(以東)의 국경선을 점령한 후, 지역내의 적을 평정한다. 단, 미 제7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이 진출할 때까지는 일부병력을 장진호, 부전호(赴戰湖), 풍산 방면으로 지향시켜 적에게 최대한의 압박을 가할 것이며, 원산지역을 경비하는 국군 제3사단은 그 임무를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한 후 수도사단을 따른다.

②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로 진출하여 강계(江界)를 목표로 공격준비를 할 것이나, 미 제3사단이 원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일부 병력으로 원산-함흥 지역을 경비한다.

③ 미 제7사단은 이원(利原)에 상륙하는 즉시 풍산과 부전호를 거쳐 백두산 남쪽으로 진출한다.

④ 미 제3사단은 원산-함흥 지역의 경비를 맡아 후방의 적 유격대를 소탕함과 동시에 군단의 보급로를 방호한다.』

이런 작전계획에 따라 알몬드 소장은 전진 축선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 제7사단의 상륙을 이원으로 지정하였다. 군단의 작전계획을 간파한 미 제7사단장은 "첫째, 제17연대를 이원으로 상륙시켜 북청(北靑)-풍산-혜산진으로 전진시키고, 둘째, 제31연대는 이원에 상륙하는 즉시 북청-함흥-오노리(五老里)-신흥(新興) 축선을 따라 부전호-신갈파진(新乭波鎭)으로 진격시키며, 셋째, 제32연대는 사단 예비대로 후방 경계에 임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120]

한편 미 제1해병사단의 원산상륙이 종료된 10월 26일 부산항을 출발한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항진을 계속한 끝에 방어진 동북해상에서 체류중인 사단 주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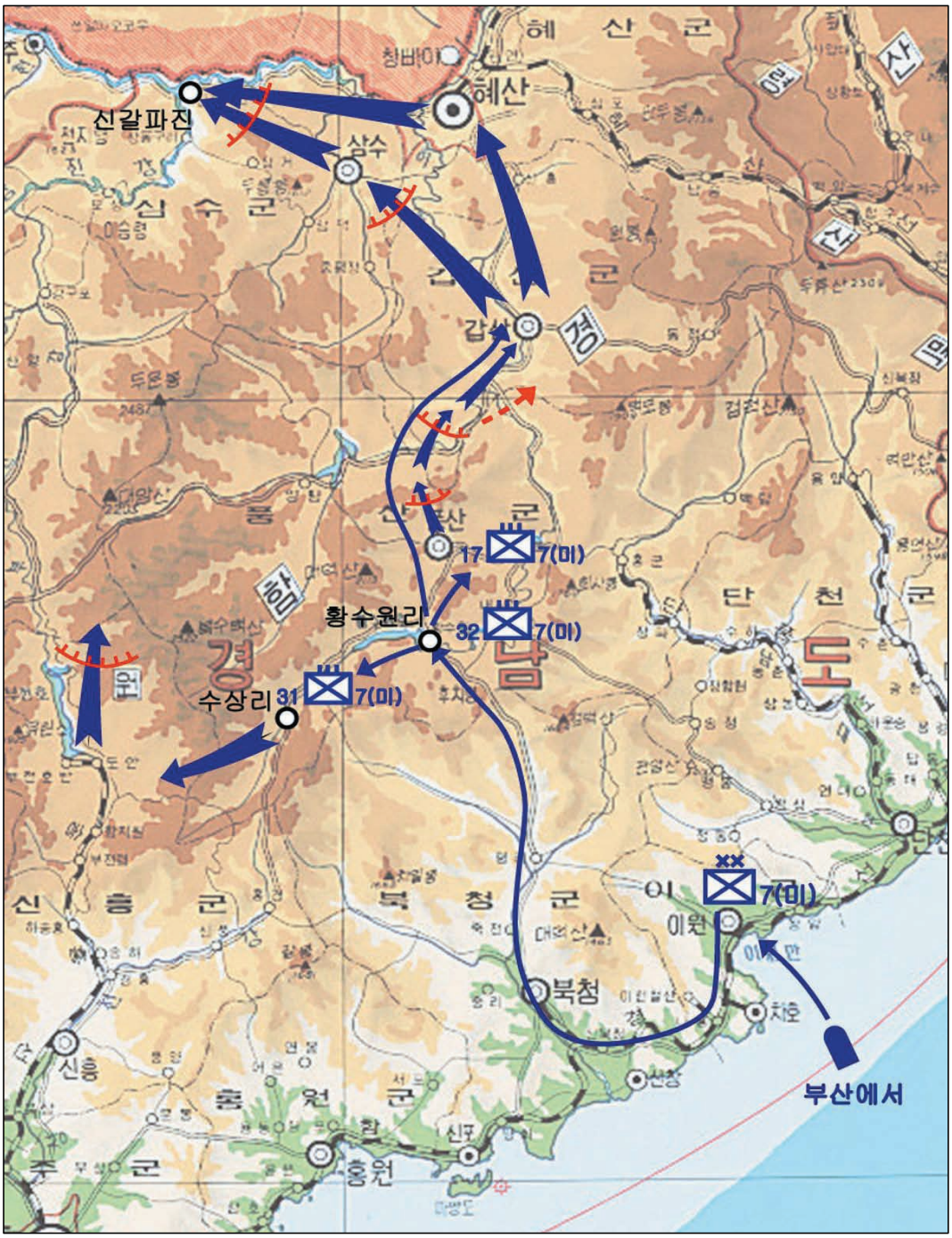
합류한 후 다음날 목표를 향해 항진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동북지역의 상황은 원산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해 온 국군 제3사단이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에 임무를 인계하고 함흥지역 경비임무를 위해 이동 중에 있었다. 그리고 수도사단은 제1기갑연대가 성진을, 그리고 제1연대가 풍산을 점령한 가운데 제18연대는 부전호 일대에서 잔적을 격퇴하고 백암산을 공격하고 있었다.

항진을 계속한 미 제7사단 제17연대는 10월 29일 적의 저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원에 상륙하였다. 선두로 상륙한 제17연대본부와 제1대대는 연대주력이 상륙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신북청-북청-장흥리(獐興里)를 거쳐 초리(初里)로 진출하였고, 다음날 작전계획에 명시된 대로 풍산을 향해 이동을 개시하였다. 초리에서 풍산에 이르는 도로는 해발 1,335m의 후치령(厚峙嶺)을 비롯한 험난한 산악도로였고, 이 도로를 따라 이동을 시작한 제17연대본부와 제1대대, 제49포병대대와 제13포병대대 A중대는 일몰이 되어서야 풍산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함경산맥 서단과 개마고원 남단에 위치한 산간지대인 풍산은 이원-혜산진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제17연대 선두부대는 이곳에서 적을 공격하고 있던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와 합류하였다.

11월 1일 국군 수도사단 제1연대는 풍산 북쪽에서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하던 북한군을 공격하였으나, 후방으로부터 병력증원을 받은 적의 반격으로 고전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제17연대장 포월(H. B. Powell) 대령은 측면을 공격해 온 적을 격퇴하기 위해 예하의 제1대대에 국군 제1연대와 협공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협공으로 적을 격퇴한 후 국군 제1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받은 미 제17연대장은 11월 2일 08:00를 기해 전면의 적에 대한 공격명령을 제1대대장에게 하달하였다.

미 제17연대 제1대대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던 07:00경 2개 연대 규모의 적이 풍산 전방 3㎞ 지점의 직리(直里)-설학리(雪鶴里)-신원하리(新元下里) 일대에서 강력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병력에서 열세인 미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때 이원에서 상륙한 연대의 주력이 축차적으로 도착하여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상황도 4-11> 혜산진 진격작전



후퇴하는 적을 추격에 나선 미 제17연대는 응덕령(鷹德嶺)에서 적과 치열한 전투 끝에 주력부대를 격파하고 풍산 전방 20㎞ 지점의 웅이천(熊耳川) 남안까지 진출하였다.

한편 미 제31연대는 11월 4일 오전에 병력의 상륙과 각종 장비의 양륙작업을 완료하고 이원-풍산 가도를 따라 이동하였다. 다음날 풍산에 도착한 미 제31연대는 황수원강(黃水院江) 상의 수상리(水上里)와 백산(白山) 일대에 전개한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그리고 미 제31연대에 임무를 인계한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는 서양리(西陽里)로 집결한 후 명천(明川)을 목표로 이동을 시작하였다.[121]

수상리-백산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 미 제31연대는 11월 8일 오후 백산의 동쪽 기슭에서 1개 대대규모의 적과 조우전을 전개한 끝에 5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적은 중공군 제42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파견된 제126사단 제376연대의 일부 병력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중공군이 미 제10군단지역 중 장진호 일대뿐 아니라 부전호 부근까지 전개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제17연대를 웅이천선에, 그리고 제31연대를 부전호 동쪽에, 사단정찰중대를 슬령발전소에 각각 진출시킨 미 제7사단장은 부전호 동쪽에 출현한 중공군으로 인해 정면의 적이 중공군일 것이라 확신하고 작전에 보다 신중을 기하였다. 그러나 11월 12일 풍산에 도착한 미 제10군단장은 서부 및 동부전선의 종합적정보고를 기초로 하여 북진할 것을 미 제7사단장에 지시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제17연대는 갑산을 거쳐 혜산진으로 진격하고, 제31연대는 부전강을 따라 북진하여 신갈파진으로 진출하며, 제32연대는 이원-풍산 등 후방 보급로의 유지와 경비임무를 담당하라"는 명령을 예하 각 연대에 하달하였다.[122]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웅이천 도하를 준비하던 제17연대는 적이 파괴한 웅이천 교량을 대신해 국군 공병대가 도보교를 가설하자 도하를 개시하였다.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11월 15일 무사히 도하를 완료한 연대는 관평리(館坪里)에서 우가리(禹哥里)-평인령(坪麟嶺)을 통과하여 갑산도로와 삼수도로의 교차로인 상리(上里)까지 진출한 후 다음날에는 갑산 남쪽 16㎞ 지점의 석우리(石隅里) 부근에

도달하였다.

석우리에서 다시 진격을 개시한 미 제17연대는 갑산 남쪽 6㎞ 지점의 송우리(送友里)-장평리(長坪里) 일대로 진출하여 11월 19일 10:30을 기해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갑산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판장리(板章里)로 진출하였다. 적설과 빙판으로 인한 기동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혜산진을 향해 진격을 시작한 미 제17연대는 11월 21일 10:00경 동해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해군함재기에 의해 시가의 85%가 파괴된 혜산진과 압록강 연안 일대를 점령하였다.

미 제7사단 제17연대가 혜산진을 점령했다는 보고를 받은 맥아더 원수는 알몬드 소장에게 "Ned여!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르(Barr) 소장에게도 미 제7사단이 정곡을 찔렀다고 전해주시오."라는 축전을 보냈다. 그리고 알몬드 소장은 "불과 20일 전에 이원에 상륙해 320㎞ 이상의 심산유곡을 적설과 영하의 혹한을 무릅쓰고 집요하게 저항을 반복하는 적을 무찌르고 귀하가 거둔성과는 청사에 길이 빛날 것입니다."라고 바르(Barr) 소장에게 찬사를 보냈다.[123]



1950년 11월 21일 아침 혜산진에 입성하는 미 제7사단 제17연대 제1대대 병사들 (출처 :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USGPO, 1961, p.734)

한편 갑산에 집결한 미 제32연대는 “삼수를 거쳐 신갈파진으로 진출하여 미 제17연대의 서측에 배치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이동을 시작하였다.[124] 삼수에서 신갈파진을 향해 진격을 개시한 제32연대의 우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제17연대 또한 일부 병력을 신갈파진으로 우회시켰다. 그러나 제17연대는 신갈파진으로 전진하던 중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혈전 끝에 11월 28일 신갈파진을 점령하였다.

(3) 전투 결과

예하의 제17연대를 선두로 10월 29일 이원에 상륙한 미 제7사단은 혹한과 강설을 무릅쓰고, 그리고 집요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320㎞에 달하는 산악지대를 거쳐 11월 21일 혜산진을 점령하였다. 이로써 미 제17연대는 국군 제7연대에 이어 두 번째로 압록강에 진출한 부대가 되었다.

이후 제17연대는 11월 30일 혜산진을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에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북한 동북지역에서의 작전은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새롭게 전개되었고, 장기적이고 불리한 새로운 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전선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미 제7사단은 기온의 급강하로 인한 142명의 동상자가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3) 길주-청진 진격작전(1950. 11. 1~11. 30)

(1) 전투 개요

길주-청진 진격작전은 미 제10군단의 우일선으로 동북해안도로를 따라 한·소 국경으로 진격임무를 부여받은 국군 수도사단이 1950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길주, 봉강, 청진 등에서 북한군 패잔부대인 제41사단 등 혼성병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전개한 공격작전이다.

1950년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단독으로 함흥-흥남을 점령한 수도사단은 제18

연대가 장진 북쪽 장진호-부전호 남단과 수상리 북쪽까지 진출한 후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에 인계하고 차기 작전에 대비하였다. 제1연대는 홍원-북청을 경유하여 풍산과 홍군을 점령하고 있던 중 미 제7사단 제17연대에 인계하고 동해안 도로로 우회하여 단천을 거쳐 성진에 도착하였고, 제1기갑연대는 10월말 성진에서 길주 방면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 장진-풍산 선에는 중공군 제42군단이 진출하여 있었고,[125] 성진에는 북한군 제41사단 및 제507여단이 길주와 명천, 어랑천 등지에서 축차적으로 북쪽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저항태세를 갖추었다. 길주는 성진 북쪽 30㎞에 위치한 군

<표 4-16>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	연대장	중령	한 신(韓 信)	
			대령		'50.10.20부
		제1대대장	대위	함용익(咸溶翼)	
		제2대대장	소령	신언국(申彦國)	
		제3대대장	대위	이성봉(李聖鳳)	
	제1기갑연대	연대장	대령	백남권(白南權)	
			중령	김동수(金東洙)	'50.10.24부
		제1대대장	소령	박경호(朴京虎)	
		제2대대장	소령	박익균(朴益均)	
		제3대대장	소령	임관묵(林觀默)	
	제18연대	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1대대장	소령	이길영(李吉泳)	
				이병형(李秉衡)	'50.11.10부
		제2대대장	소령	김봉상(金鳳翔)	
		제3대대장	소령	안민일(安旼一)	
	제10포병대대장		중령	이규삼(李奎三)	배속부대
	공병대대장			?	배속부대
북한군	제41사단장			?	
	제507연대장			?	
	원산경비여단장			?	

사적 요지로서 북쪽으로는 명천-어랑천-주을-나남-청진으로 통하고, 서쪽으로는 함수-백암-혜산진에 이르는 분기점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한·중 및 한·소 국경까지 진격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이었다.

한편 작전에 참가한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은 약 12,000명의 병력을 유지하였고, 주요 장비는 105㎜ 곡사포 18문, 57㎜ 대전차포 14문, 81㎜ 박격포 20문, 60㎜ 박격포 25문, 3.5인치 로켓포 30문 등을 보유하였다. 그리고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김백일 소장과 사단장 송요찬 준장이었으며, 각 연대장은 <표 4-16>과 같다.

⑵ 전투 경과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추수감사절 공세를 시작할 무렵 동부전선의 국군 제1군단의 주공부대인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부전호로, 제1연대가 풍산으로, 제1기갑연대가 북청-단천-성진으로 적을 추격하고 있었다. 이처럼 10월말까지 예하 각 연대가 단독으로 진격하던 사단은 10월 30일 성진을 점령한 후 합동으로 길주-명천 이북을 공격하기 위해 각 연대의 전력을 집결하였다.

길주는 함경선과 혜산선의 철로와 간선도로의 분기점으로 두만강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요지였다. 이에 사단장은 간선도로를 통한 정면공격은 선두부대인 제1기갑연대에, 임명동-와현동(瓦峴洞)-허의동(許儀洞) 축선의 우일선 공격은 풍산에서 우회하여 성진에 도달한 제1연대에 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단장은 불리한 지형과 적의 완강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유엔공군의 공중폭격을 요청한 후 양개 축선으로 공격하여 목표를 점령하려 하였다.

작전계획에 의거 남대천을 따라 정면공격하는 제1기갑연대는 11월 1일 일신동을 향해 전진하였고, 제1연대는 동북해안도로를 따라 화대동-와현동으로 진격하였다. 이 무렵 적은 성진에서 물러난 제507여단과 길주경비 1개 대대, 어랑천 방면에서 동원된 병력 등이 1개 대대의 포병지원 아래 길주 동북쪽 268고지-552고지 등과 신탑동-금천동 일대 야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길주 동남쪽 4~8㎞ 외곽까지 진격한 제1기갑연대는 미 해병사단 제1비행단 전

폭기의 공중폭격지원을 받으며 11월 4일 길주 공격에 나섰다. 제1기갑연대 제1대대는 길주 서쪽의 168고지와 남쪽의 118고지를 공격해 차례로 점령하고 개활지를 통해 길주 시내로 접근하였다. 제2대대는 지상포화 및 항공지원 아래 길주 남쪽 281고지를 점령하고 급편방어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제2대대와 합동공격을 펼치던 제3대대는 길주 동쪽의 552고지를 공격하여 확보하였다.

길주 방어에 필사적이던 적 제507여단은 길주 외곽의 방어선이 와해되자 명천방면으로 퇴각을 시작하였다. 이에 연대는 시내로 돌입한 후 잔적을 소탕하며 다음날 10:00경에 길주를 완전 점령하였으며, 이어 재덕-성덕 방향의 합수에 이르는 도로의 수색과 잔적소탕 임무를 수행하였다.[126] 길주지역 전투를 수행한 제1기갑연대의 전과는 적 사살 530명, 포로 17명을 획득하였고, 소총 138정, 다발총 15정, 중기관총 3정, 경기관총 10정, 45㎜ 직사포 9문, 82㎜ 박격포 8문과 수류탄 13상자를 노획하였으나, 전사 20명과 부상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명천방면으로 후퇴한 패잔병과 증원 병력을 공격하기 위해 제1연대는 황곡동 일대로 진출하였다. 이 무렵 청진 및 나남 방면에서 적이 해안선을 따라 남하중인 것을 항공정찰을 통해 보고받은 사단장은 적이 어랑천 일대에서 결전을 벌일 것으로 판단하고 함흥 북쪽에 집결해있던 제18연대를 명천 방면으로 이동시켰다.

길주점령에 성공한 군단과 사단은 11월 8일 정오경 지휘소를 이동하여 한·중 및 한·소 국경으로 진출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8연대는 명령에 따라 철도편으로 명천으로 진출해 어랑청 및 봉강 일대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127]

성진과 길주, 명천방어에 실패한 적은 청진을 사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연적인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어랑천에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적은 제507여단 패잔병과 청진 및 어랑천 등에서 증원된 해안경비부대, 그리고 전차대 등이 합류하여 반격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반면 봉강 일대의 주요 고지에서 진지를 강화하며 적의 반격에 대비하던 수도사단 제18연대는 강 북안의 적을 공격하는가 하면 미 해병전폭기는 적진을 맹폭하였다. 그러나 봉강 일대의 유리한 지형을 확보한 적은 전차의 지원을 받는 6~7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제18연대의 공격을 완강

<상황도 4-12> 길주-청진 진격작전



하게 저지하고 있었다.

제18연대 정면의 전황이 여의치 못함에 따라 연대장 임충식 대령은 작전의 융통성을 위해 진지를 후방인 명간천 남안으로 이동시켰다. 이어 명천 동북쪽 연대봉과 명간천에 접한 175고지 일대에 진지를 편성한 연대는 11월 14일 새벽에 기습공격을 가해온 적과 교전을 펼쳐 격퇴시키는 등 반복적인 전투를 실시하였는데, 이 고지는 명간천 중류 남안에 위치한 돌출부로서 영안과 극동을 감제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다.

제18연대가 명간천 일대에서 교전을 전개하는 동안 보전(堡田) 부근에서 부대를 정비한 제1기갑연대는 11월 15일 재덕을 경유 춘흥동(春興洞)으로 진출하여 진지를 편성하였다. 적의 반격에 대비하던 연대는 이날 16:00에 다음과 같은 군단 작전명령을 수령하였다.[128]

『군단 일부병력을 이동하려 한다. 제3사단장은 사령부 및 제23연대를 이동시켜 임명동-길주간에 이어 합수를 향해 공격한 다음 이곳을 점령하라. 수도사단장은 제1기갑연대를 제3사단과 임무교대시킨 후, 이동하여 제 병력을 통합 지휘하여 작전지시 제81호의 목표를 공격하라.』

제18연대는 명간천과 접한 175고지 및 연대봉 일대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끝내고 명간천을 도하하여 적 주저항선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제1연대는 영안 북쪽의 어랑천 남안 일대에서 교전 끝에 주요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처럼 제18연대와 제1연대가 어랑천 남안 일대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명천-영안에서 봉강에 이르는 명간천 부근의 치열한 공방전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제18연대 제1대대가 선두로 11월 19일 04:00를 기해 공격을 개시하자 제1연대도 적을 공격하여 격퇴하였으며, 제1기갑연대도 봉강으로 진출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사단이 명간천과 어랑천을 확보하고 봉강 일대를 점령하자, 적은 회문을 경유하여 주을 방면으로 축차 철수하면서 사단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18연대를 정면과 동측의 양개 축선으로 공격시키고, 제

1연대는 주남천 상류로 북진하여 적의 서측방으로 퇴로를 차단토록 하였다.

11월 21일 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10여 일간의 어랑천 전투에서 집요한 적의 저항을 물리친 후 청진탈환을 위한 작전을 구상하였다. 제18연대는 주을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하였고, 제1연대는 좌일선 공격제대로 주을-나남 방면으로 후퇴중인 적 제41사단과 제509여단을 격파하기 위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다음날 주을을 점령한 제18연대 선두부대는 경성-나남을 향해 진격을 실시하여 주요 고지를 점령한 후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제1연대는 주을-경성간 도로 좌측의 고지에서 진격전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주을로 진격하여 병력을 배치하고 적정을 수색하였다.

제18연대는 청진을 공격하기 위해 나남-수성간 능선 일대에 대한 점령을 준비하였다. 11월 24일 접적 없이 나남에 진입한 제1대대는 서북쪽에서 청진을 감제하고 있는 303고지를 공격하였다. 청진 방어의 요지인 이 고지를 고수하기 위해 적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수용부대를 배치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였다. 이날 11:00에 공격을 개시한 대대는 20:00에 야간공격을 재개하여 1시간 만에 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청진 서남부 외곽의 방어진지가 와해된 적은 회령과 웅기 방면으로 후퇴하면서 엄호부대를 배치해 사단의 신속한 추격을 저지하려 하였다.

한편 청진 서북쪽의 적을 추격하여 공격을 시작한 사단은 11월 27일 군단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명령을 하달받았다.[129]

『1. 미 제10군단은 계속하여 한·중 국경을 향해 전진하고 있음. 제26연대는 함흥-단천-혜산진으로 전진할 것이고, 미 해군 및 공군은 요청에 의해 아 군단을 지원할 것임.

2. 군단은 계속 북진하여 담당지역 내의 한·중 국경-한·소 국경에 전진하려 한다.

3. ① 수도사단은 2개 연대로서 회령을, 1개 연대로서 웅기를 점령 확보하라. 그리고 예하 제1연대의 특공대를 무주에 주둔시켜 백두산남지구전투부대에 배속하라.

② 제3사단은 최단시간 내에 1개 연대로서 무산을 점령 확보할 것이며, 1개 연대를 예비대로 보유하라.』

이에 따라 사단장은 청진 점령이후 선두로 진출한 제18연대와 제1연대를 각각

회령방면으로 진출시키고, 제1기갑연대는 청진에서 웅기로 진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라서 제18연대는 우선 부령을 공격하기 위해 청진-부령간 도로 좌우측 고지들을 공격하며 북진을 계속하였고, 사단 좌일선 공격제대인 제1연대가 차기작전을 준비중인 가운데 제1기갑연대는 부거-웅기 방면의 공격을 위해 11월 28일 07:00에 토막동(土幕洞)을 점령하였다.

사단은 계속하여 제18연대를 부령방면으로, 제1기갑연대를 부거방면으로 진출토록 하고, 제1연대는 청진 서측방을 경계하면서 각 전선에서 점점 강력하게 저항을 시도하는 적을 격멸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11월 30일 군단장으로부터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사단을 흥남으로 완전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3) 전투 결과

길주를 점령한 수도사단이 진격작전 이래 가장 치열했던 어랑천 일대의 전투를 완료하고 11월 25일 청진을 점령함으로써 한·중 및 한·소 국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11월 30일 사단 예하 제18연대가 부령 부근에, 제1기갑연대가 부거 부근에 진지를 점령한 이후 군단의 철수명령이 하달되자, 수도사단의 진격작전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전투능력을 극도로 제한시켰던 혹한과 강설을 극복하고 어랑천 전투와 청진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당시의 적정은 연속적인 패배와 후퇴로 사기가 저하된 상태였다. 적은 회령과 웅기 방면으로 퇴각하면서 국경선을 최후 방어하면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부대를 재편하고 있었다.

4) 합수-백암 진격작전(1950. 10. 27~11. 30)

(1) 전투 개요

국군 수도사단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을 통해 1950년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한 국군 제3사단은 5일 만에 송전반도-영흥-고원-신창리-마전리-안변을 연결하는

원산 서북방의 외곽선을 확보하고 10월 16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역 평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는 “제1군단은 미 제10군단이 도착할 때까지 원산항을 확보하기 위해 안변-용포리-용탄리-용탄강 하구에 걸친 선을 주저항선으로 하고 영흥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문천-영흥-정평(定平)-함흥 및 파춘장(播春場)-흥남 축선을 따라 진격하여 적을 섬멸하라”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130]

<표 4-17>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제3사단장	준장	이종찬(李鍾贊)	
			최 석(崔 錫)	’50.11.12부
	제22연대장	대령	김응조(金應祚)	
	제1대대장	대위	이창운(李昌運)	
			김상균(金相均)	’50.10.28부
	제2대대장	소령	오정록(吳廷錄)	
	제3대대장	소령	정순민(鄭淳珉)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1대대장	소령	김우영(金尤榮)	
	제2대대장	소령	문태준(文泰俊)	
	제3대대장	소령	허형순(許亨淳)	
	제26연대장	대령	이치업(李致業)	
		중령	서정철(徐廷哲)	’50.11.6부
	제1대대장	소령	권용성(權用性)	
	제2대대장	소령	한주홍(韓周弘)	
	제3대대장	소령	은석표(殷碩杓)	
			박철수(朴徹洙)	’50.11.19부
	제11포병대대장	중령	송찬호(宋贊鎬)	배속부대
	제3공병대대장		?	
	사단수송중대장	소령	홍두호(洪斗鎬)	
북한군	제42사단장		?	
	제5사단장	소장	이동원	
	원산경비 제2여단장		?	

한편 맥아더 사령관으로부터 북위 39도 10분 이북 태백산맥 동북부 전 지역에서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국군 제3사단은 미 제1해병사단과 임무를 교대하고 동해안선을 따라 동북쪽 국경지대로 진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따라서 10월 26일 원산에 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에 원산지역의 방어임무를 인계한 제3사단은 함흥으로 주력을 이동시켜 연포비행장-흥남-흥원-신포 일대까지 병력을 분산 배치해 해안선 일대의 방호에 나섰다.

이 무렵 원산을 방어하던 북한군 제5사단과 제42사단, 원산경비 제2여단 등의 주력은 정평(定平)-지경리 등지에서 아군의 진격을 완강하게 저지하며 함흥에서 병력 수습을 모색하였고, 일부는 평원가도(平元街道)로 후퇴하며 마식령(馬息嶺)-양덕 사이에서 아군의 평원선 진격을 저지하였다. 그리고 아군의 총반격작전시 후퇴하지 못한 유격대와 패잔집단은 대관령-단발령-마식령을 잇는 태백산맥과 마식령산맥 등 산악지대를 근거로 아군의 주요 후방지역에 침투해 후방교란과 병참선 차단을 시도하였다.

한편 작전에 참가한 국군 제1군단 제3사단은 약 11,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장비는 60㎜ 박격포 52문, 81㎜ 박격포 34문, 3.5인치 로켓포 23문, 57㎜ 대전차포 11문, 105㎜ 곡사포 12문을 보유하였다. 주요 지휘관은 군단장 김백일 소장과 사단장 최석 준장이었다.

⑵ 전투 경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미 제1해병사단이 원산에 행정 상륙을 완료하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31]

『① 제1해병연대는 원산 서남쪽의 고저와 마전리에서 국군 제3사단과 임무를 교대하라.
② 제5해병연대는 원산과 흥남의 연포비행장 및 미 제10군단의 서측방을 방어하라.
③ 제7해병연대는 함흥-장진호 계곡에서 국군 제3사단과 교대하여 장진 및 부전발전소를 경비하라.』

<상황도 4-13> 합수-백암 진격작전



이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의 원산상륙을 위해 원산 일대에서 10여일간 북한군 패잔병에 대한 평정작전을 전개한 국군 제3사단은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고 패잔병을 소탕한 후 연대별로 작전지역을 미 제1해병사단에 인계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9일 임무인계를 완료한 제3사단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함흥에 집결 중에 있었다.

한편 10월 26일 적이 점령중인 연대봉(煙臺峰)을 공격하기 시작한 제26연대는 다음날에도 제1대대와 제3대대를 투입하여 좌우에서 협공을 가하였다. 마전리 북쪽 4㎞ 지점에 위치한 연대봉은 장진 제3발전소의 감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상통리-마전리-수동-진흥리-황초령-고토리-하갈우리-장진을 연결하는 신흥선의 철로와 도로를 차단할 수 있는 거점이었다. 연대봉을 거점으로 마전곡 일대를 장악하고, 후방에서 4,000여 명의 축차적인 증원을 받고 있던 대대규모의 적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제26연대는 연대봉의 적을 추격해 수동(水洞)에서 저항하는 북한군 제14사단 4,000여 명의 병력과 치열한 접전을 전개한데 이어 다음날에도 제2발전소 부근에서 포병의 지원 아래 치열한 근접전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연대는 16명의 중공군 포로를 획득하였고, 이들이 중공군 제42군단 제124사단 예하 제370연대 소속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대는 군단의 지시에 따라 수동 일대의 진지를 미 제7해병연대에 인계하고 오노리로 이동해 부대 재편을 실시한 후 11월 3일 함흥으로 이동하여 집결하였다.

한편 11월 4일 제3사단은 수도사단과 미 제10군단과의 전선 연결을 위해 예하의 각 연대를 흥남으로부터 홍원-신포-북청-이원-단천 지역으로 이동시켰다.[132] 이에 따라 제22연대는 이원으로 이동 집결하였고, 제23연대와 제26연대는 각각 신포와 홍원으로의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날 제22연대가 다시 신북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제23연대는 신포로 이동하였고, 제26연대 역시 함흥에서 홍원으로 이동해 서북쪽 일대의 경계를 담당함으로써 제3사단의 함흥지역 평정작전은 완전히 미군에 인계되었다.

원산탈환작전 이래 축차적으로 원산-함흥 지역으로 이동하며 미 제10군단의 상

륙과 수도사단의 진격 엄호임무를 완수한 국군 제3사단은 모든 병력을 홍원-신포-신북청으로 전진시켜 군단작전지역 내의 후방경계에 돌입하였다. 11월 9일 제3사단장은 제1군단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작전을 지시받았다.[133]

『① 제3사단장은 예하 제26연대를 11월 9일 09:00부터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시키고, 동 연대를 지경리에 집결시켜라.
② 제23연대는 1개 대대를 홍원으로 이동시켜 군단사령부의 경비를 담당토록 하라.』

이에 따라 제26연대는 11월 9일 12:30에 홍원에서 지경리로 이동한 후 제1대대를 중림(中林)에,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중창령(中倉嶺)에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신포의 제23연대도 제3대대를 홍원으로 이동시켜 군단사령부의 경비에 임하였다. 이처럼 제3사단은 군단예비대로서 군단작전지역에 침투하는 적의 섬멸과 적정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군단의 주력부대인 수도사단이 성진을 점령하고 길주로 진격하자, 군단사령부와 제3사단은 11월 13일 다시 성진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길주와 명천을 탈환하며 승승장구하던 수도사단이 어랑천에서 적 제41사단의 증원부대와 제507여단 병력과 만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군단장은 수도사단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군단 예비로 차기작전을 준비하던 제3사단에게 11월 16일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한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134]

『① 사단사령부 및 예하 제23연대를 이동시켜, 임명동(臨溟洞)-함수 가도와 길주-함수 가도의 2개 종대로서 함수를 공격하여 점령하라.
② 예하 대전차공격대대를 단천에 주둔시키고 1개 중대로서 슬령발전소를 점령하여 확보하라.
③ 군단직할 제22연대장은 성진에 1개 대대를 주둔시키고 주력은 길주로 이동하여 원대에 복귀하라(이동시일은 별도로 명함).
④ 수도사단장은 함수방면의 기갑연대병력을 제3사단 병력과 교대한 후 철수하여 제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작전지시 제81호의 목표를 공격하여 점령하라.』

이 명령에 의거 사단장은 군단 예비에서 복귀한 제22연대는 길주-합수로, 제23연대는 성진-임명동-합수로의 공격준비를 명령하였다.[135] 이로써 제3사단은 좌인접 미 제7사단, 우인접 수도사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중 국경선을 향해 진출하게 되었다. 이때 사단의 제26연대는 장진호를 공격중인 미 제7해병연대의 우측방 엄호를 위해 미 제1해병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사단이 작전할 길주-합수-혜산진 축선은 백두산에서 뻗어 내린 마천령산맥을 종주하는 통로로서 내륙산악에서 동해안으로 최단 시간내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길주에서 수도사단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북한군의 일부가 이 통로를 따라 철수함으로써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가 이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당시 합수에는 수도사단의 공격을 받고 철수한 1,000여 명의 병력이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 북쪽의 백암에도 신편한 노동여단 병력으로 추측되는 약 4,500명이 집결중이며, 후방지역에서도 별동대 및 유격대 등이 공격부대의 보급로 차단과 부대주둔지 기습을 기도하고 있었다.

제3사단장은 합수를 공격하기에 앞서 11월 20일 전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136]

『① 제23연대장은 즉시 예하 1개 대대를 현 집결지로부터 대신리에 급진시켜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교대하고 11월 20일 18:00까지 합수를 공격하여 점령하라. 그리고 동 연대는 11월 21일 미명에 행동을 개시하여 연대본부와 잔여 주력을 현지로부터 대신리로 이동시켜 차후 연대본부를 백암으로 진출시킬 준비를 하라. 기타 지원포병중대는 현지(鶴城洞)에 두고 포병은 길주로 원대복귀토록 하라. 대전차포중대는 길주에 진출하여 사단 작전참모의 지시를 받게 하라.

② 제22연대장은 즉시 재덕에 있는 대대를 급진시켜 11월 20일 18:00까지 합수를 공격 점령하라. 그리고 즉시 연대본부 및 잔여 1개 대대를 재덕에 이동, 차후 연대본부가 합수에 진출할 준비를 하라. 기타 대전차포중대 및 지원포병중대는 현지(吉州)에 두고 포병은 원대복귀시켜라.

③ 포병대대장은 예하 3개 중대를 길주에 집결시켜 진출로가 정비 완료될 때까지 부대정비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별명을 대기하라.

④ 공병대대장은 성진-임명동-합수, 길주-합수간 도로를 정찰하여 정찰결과와 정비에 관한 상황을 서면보고하라.』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제23연대 제1대대는 학성-임명동간에서 출동해 대신리에서 수도사단 기갑연대와 교대하였고, 제22연대는 합수 공격을 위해 제덕에 집결하고 있었다.

한편 합수-백암에 육박하고 있던 제3사단의 주력부대는 11월 21일 합수 동남쪽에서 적과 치열한 접전을 거듭한 후 합수에 돌입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23연대 제1대대는 대신리를 경유해 합수 인근에서 공중지원 아래 적을 격퇴하고 합수 일각에 돌입하였고, 후속중인 제2대대와 제3대대도 합수를 향해 진격하였다. 또한 제22연대 제2대대는 백무선 철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제1대대는 재덕에서 합수를 향해 진격하고 제3대대는 성진에 집결하여 군단사령부 경계를 담당하였다.

제23연대 제1대대는 축차적인 병력증원을 받으며 적을 공격해 11월 22일 11:00에 합수를 완전 점령한 후 백암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고, 연대 주력은 제1대대를 후속하였다. 그러나 제22연대 제2대대는 2개 대대 규모의 적이 중간지점인 양곡동(暘谷洞) 부근에서 완강히 저항하고 있어 23일 여명공격으로 적을 격퇴하고 아침 무렵에 합수로 돌입해 제23연대와 연결하였다. 백암을 공격한 제23연대 제1대대는 11월 25일 정오 무렵 접적 없이 백암을 점령하여 적이 유기한 기관차 4량을 노획하였다.

한편 백암을 점령한 제3사단은 군단장 김백일 소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산(茂山) 및 혜산진에 대한 공격명령을 받았다.[137]

『① 수도사단은 2개 연대로서 회령을, 1개 연대로서 웅기를 점령 확보하라. 그리고 예하 제1연대의 장병 특공대대를 길주에 주둔시켜 백두산남지구전투부대에 배속하라(이동은 별명).

② 제3사단은 최단시간 내에 1개 연대로서 나남-무산 가도를 따라 무산을 점령 확보하

며, 1개 연대의 예비대를 나남에 보유하라. 이 예비대 사용은 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동은 별명한다.

③ 제26연대(미 제7사단 배속)는 1주일 이내로 함흥-단천-혜산진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러한 명령은 현 진출선에서 좌측의 미 제10군단과 전선을 유지하며, 담당지구내의 한·중 및 한·소 국경선까지 북진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제3사단장은 다음과 같은 세부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예하에 하달하였다.[138]

『① 제23연대장은 주력으로 나남-무산 가도를 북진하여 D+3일 24:00까지 LD선에 진출하고, D+4일 06:00를 기해 무산을 공격 점령하라. 그리고 일부병력으로 능곡방면으로 우회하여 D+3일 24:00까지 LD선에 진출하고, D+4일 06:00를 기해 주력과 호응 무산을 공격 점령하라.

② 제22연대장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며, 별명이 있을 때는 나남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성진 주둔 1개 대대도 별명시(D+3일로 예정) 나남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

③ 제26연대장은 혜산진에 도착함과 동시에 백두산남지구전투부대장의 지휘를 받을 것.

④ 포병대대장은 제22연대에 직접 지원중인 포병 1개 중대를 원대복귀시키고, 제23연대에 포병 2개 중대(75㎜ 및 105㎜ 각각 1개 중대)를 직접 지원토록 할 것이며, 제26연대가 혜산진에 도착하면 포병 1개 중대(75㎜)를 직접 지원토록 하라.

⑤ 공병대대장은 각 연대에 배속중인 지뢰탐지소대의 현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고, 제23연대에 공병 1개 중대와 불도저 1대를 배속하여 직접 지원토록 하라.

⑥ 전차공격대장은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되 별명이 있을 때, 백두산남지구전투부대장의 지휘를 받을 것.』

무산 공격을 위해 백암지구의 작전임무를 제22연대에 인계한 제23연대는 나남에서의 집결을 위해 이동을 시작해 11월 30일 제1대대를 마지막으로 집결을 완료하였다. 한편 제22연대는 연대본부와 제1대대(-1)가 백암에 위치한 가운데 제3중대가 11월 27일 혜산진을 목표로 북진을 단행하였고, 11월 30일 13:00경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시민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며 혜산진에 돌입하였다.

⑶ 전투 결과

원산-함흥 지역의 평정작전에 이은 제3사단의 길주-백암-혜산진 진격작전은 좌측의 미 제10군단과 전선을 유지하며, 담당지역내의 한·중 및 한·소 국경선까지 북진하려는 국군 제1군단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작전은 험준한 산악고원지대의 혹한과 폭설을 무릅쓰고 전개되어 적을 한·중 국경지대로 축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중서부전선의 제2군단 정면에 가해진 중공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인해 중서부전선은 극도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사단 좌인접인 미 제7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도 대대적인 중공군의 포위작전으로 작전상의 전환이 불가피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인접의 수도사단 정면에도 북한군 제41사단과 제507여단 및 해안경비대 병력 10,000여 명이 청진 북쪽 30㎞ 지점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공세이전을 준비 중이었고, 신편된 북한군 제8군단 예하의 3개 사단이 회령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이에 미 제10군단장은 전 전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11월 30일을 기해 동계작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부전선의 모든 병력에 대해 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리고 제3사단 또한 이 명령에 따라 북진작전을 중단하고 공세방어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와 중공군의 제1차 공세는 북진을 개시하여 평양을 점령한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선으로 진출하여 1950년 10월 24일 한·중 국경선을 향한 총공격을 개시하자, 압록강을 도하하여 적유령산맥 남단에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1950년 10월 25일 공세를 단행함으로써 1950년 11월 5일까지 피아간에 전개된 공방전 및 철수작전이다.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과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이 조직적인 공세를 감행하기 이전에 한·중 국경으로 진격하여 조기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총공세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과 북한군은 "제2전선의 유격활동을 적극화하고 적 후방을 타격하여 서부전선에서는 청천강 이북에서 강력한 반격을 전개하는 한편 동부전선에서는 완강한 방어로 막대한 손실을 가하고 유리한 여건을 형성한 후 반격작전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공격을 실시하였다.

적은 주력을 서부전선에서 운용하며 선천과 구성 지역으로 유엔군을 유인 견제하면서, 미 제8군의 돌출부인 온정과 희천에서 박천과 개천 방향으로 주공을 지향하여 청천강 이북의 유엔군 부대를 섬멸하는 작전계획에 따라 공격을 개시하였다. 작전기간 중 적은 대규모의 포위기동과 우회전술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침투작전을 수행하였고, 기만 유인과 침투, 매복전술 등을 혼용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방어작전 중 지연전을 수행하였으며, 제2전선부대의 적극적인 게릴라전을 함께 사용하였다.

적의 제1차 공세에 대한 공과를 평가한다면, 적은 서해안 저지대와 기동에 유리한 지역을 개방함으로써 주공방향을 기만하여 미 제1군단을 유인하였고, 묘향

산맥과 청천강 상류지대의 지형적 특징 및 개천과 덕천 일대의 교통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공을 이 지역으로 지향하였다. 그리고 동계 혹한기를 이용하여 계절과 지형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의 제1차 공세는 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해 압록강으로 진격하던 미 제8군을 7개 군단 규모의 적이 대부대 작전을 통해 청천강 선에서 저지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공군과 북한군이 최초로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제1차 공세를 주도한 중공군 지도부는 이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참전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긴급하게 전장에 투입됨으로써 무기나 장비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다. 공군의 엄호는 물론 전차의 지원도 없었고, 고사포와 대전차포 같은 대포도 부족하였다. 둘째, 무기와 식량을 비롯한 물자의 보급수송이 매우 저조하였다. 제공권의 상실과 유엔공군에 의한 도로 및 교량에 대한 폭격은 물자의 전장반입을 제한하는 요인이었다. 셋째, 북한지역의 지형 및 민심에 대한 적응이 결여되어 있었고, 산악지대에서의 방어편성계획도 수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작전을 완료함으로써 파급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전국(戰局)을 첫 단계에서 안정시켰고, 북한군의 후퇴와 재편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획득하였다는 점과, 둘째, 국군 및 미군과의 작전경험을 통해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제고함으로써 차후작전에서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중공군 지도부는 제1차 공세의 전과 및 손실을 다음의 <표 4-18>과 같이

<표 4-18> 중공군 제1차 공세시 국군 및 유엔군의 인명피해

구 분	살 상	포 로	계
국 군	7,584	4,741	12,325
미 군	2,991	527	3,518
기 타	147		147
계	10,722	5,268	15,990

제시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중공군은 국군 및 유엔군 15,000여 명을 살상 및 포로로 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국가별 분류는 미군 3,500여 명, 국군 12,000여 명, 그리고 영국군을 비롯한 기타 국가병사 140여 명이었다.

또한 무기 및 물자에 대한 전과는 전차 12대와 장갑차 3대, 차량 650대를 노획하고, 전차 20대와 장갑차 2대, 차량 115대를 파괴하였다. 그리고 각종 화포 529문과 기관총 300여 정을 비롯하여 다량의 각종 군용물자를 노획하였다.[139] 반면에 이번 작전에서 중공군의 인명손실은 17,00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실종되었다.

<표 4-19> 중공군 제1차 공세시 중공군의 전과

전차		장갑차		차량		각종포	기관총	소총
노획	파괴	노획	파괴	노획	파괴			
12	20	3	2	650	115	529	317	4213

2. 중공군의 제1차 공세 분석

1) 중공군의 작전분석

중공군 제1차 공세에서 드러난 중공군의 작전기도는 “화력이 미약한 국군부대를 선정하여 돌파한 후, 유엔군의 후방으로 진출하여 중요한 지역(목)을 차단한 후 철수해 오는 유엔군을 격멸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중공군은 장기인 야간전투와 근접전투를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유엔군의 공군과 포병의 위협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중공군의 작전기도는 자체적인 보급능력의 부족과 국군 및 유엔군 부대들의 선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제1차 공세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의 진출을 저지하고 후속부대

인 제9병단의 전개를 위한 시간을 획득하였으며, 유엔군과의 전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국군과 유엔군은 연대단위 각개약진으로 북한군을 쫓아가는 부대이동 수준의 추격작전으로 중공군의 기습을 자초하였다. 또한 국군 제2군단은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전선에는 대규모 중공군이 투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 제8군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는 전투에 실패한 국군이 변명을 위해 중공군을 과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사실을 무시함으로써 후일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2) 중공군과 미군의 상호평가

중공군의 제1차 공세는 미군과 중공군의 특징과 결함을 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미군과 중공군은 이번 작전의 경험을 통해 상대를 평가하였는데, 먼저 중공군은 운산전투의 경험을 기초로 "제66군"에서 발간한 '운산전투 경험의 기초적 결론'이라는 전훈속보 팸플릿에서 미군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미군의 장점으로는, 포병과 전차의 협동작전은 공격력의 주체로서 경이적이며, 화포류는 강력하고 기동력이 좋다. 공군의 대지 공격력은 강력하며, 공군에 의한 수송력도 상당한 수준이다. 또한 보병의 화력장비와 장거리포의 위력은 우수하다. 그러나 미군의 단점은 보병이 약해 과감한 공격 및 사수 의지가 부족하고, 오로지 공군과 전차, 그리고 포병에 의지하는 반면 우리의 화력을 오히려 겁내고 있다. 그러므로 전진 중에도 총성이나 포성을 들으면 정지하고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며, 주간에만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야간전투와 근접전투에 약하고 전투에 패하면 질서를 갖추기가 극히 어려우며, 보급이 두절되면 전의를 상실한다."

이와 같이 미군의 장단점을 분석한 중공군은 차후 미군과의 작전에 적용할 수 있는 착안사항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는데, 이는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전술로 평가되었다.

"각 부대는 신속히 적을 우회하여 후방 및 병참선을 차단하고, 전차와 포병과의

전투를 회피하기 위해 도로 및 평지를 피하며, 산악지대에서의 야간전투는 확실한 계획에 의해 각 부대가 서로 협동하여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소부대를 선봉으로 나팔을 불며 공격한다. 부대 주력은 종대형으로 후속하다 적의 배치상태가 폭로되고 난 후 측후방에서 공격한다. 야간 및 산악 전투를 위주로 하며 소부대간의 연락을 긴밀히 유지한다."

한편 미군의 중공군에 대한 평가는 "화력은 빈약하나 보병이 공격력의 골간으로서 잘 훈련되어 전투에 익숙하고, 특히 야간전투에 능숙하였다. 위장술은 탁월했고, 그리고 수색에서의 탐지능력 또한 뛰어났다. 전술은 화력의 열세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격전술은 퇴로를 차단한 후 측방 및 후방과 정면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고 또 '팔자(八字)전법'에 익숙해 있었다. 이 전법은 미리 적의 증원을 저지하는 수단을 강구한 후, 적을 V자형의 매복지점으로 유인하여 양측에서 포위, 공격하는 방법으로 온정·운산·초산 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전법이었다. 방어전술은 완강하게 고수하며, 천부적인 축성과 위장술을 발휘하고 산악행군에 능숙하며 박격포 운용이 뛰어났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는 정신력과 기만전술이 능숙하나 원시적인 군대로서 취약점이 많다"라고 평가하였다.

3. 전훈 요소 도출

1) 선입관이나 직관력에 의한 적정판단

중공군의 대규모 침공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는 시종 중공군의 침공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본래 전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적의 동향에 관한 정보는 이를 수집하고 평가함에 있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이를 자신의 직관력에 의해 판단함으로써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직후에도 중공군의 참전을 붕괴직전 상태인 북한군을 증원하기 위해 잠입한

소수의 중공군 출신 지원병 정도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맥아더 사령관의 참모들도 중공군 제1차 공세 이후 참전 중공군의 병력을 27,000명 정도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잠입한 중공군 실제 총병력의 1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그릇된 정보판단의 결과는 최후의 승리를 목전에 둔 유엔군의 북한철수에 이어 한반도에서의 철수까지 거론하게 하는 위기를 초래하였다.

2) 정보 산출의 객관성 유지

1950년 10월 25일 운산전투에서 최초로 중공군 포로를 획득한 이래 계속 증가된 중공군 포로와 제6사단의 온정리 전투 패배 및 미 제8기병연대와 국군 제15연대의 운산전투 패배 등에서도 미 제8군사령관과 참모들은 중공군을 중공의용군이 북한군과 혼성된 부대로 과소평가하였다. 이후에도 중공군의 위장전술에 말려 실제 투입병력 150,000명을 27,000명으로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중공군의 제1차 공세의 진의도 판단하지 못한 채 11월 24일의 총공세를 단행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판단이 잘못된 이유는 첫째, 극동군사령부의 오판이 야전군과 군단 그리고 사단급 제대의 군사활동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둘째, 유엔군의 공중정찰 실태와 포로 심문 과정에서 중공군의 위장된 부대호칭 사용, 셋째, 포로의 진술과 현지 민간인 및 한국군이 제공하는 첩보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과소평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3) 항공력의 한계성과 기동로의 확보

맥아더 원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무력개입을 시도한다면, 유엔공군이 이를 포착하여 섬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모든 작전계획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산악작전에 능숙한 중공군은 북한지역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기동함으로써 유엔공군은 이를 포착하는데 실패하였고, 또한 근접항공지원에도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차량기동에 주로 의존하였던 아군은 기동로 확보가 무엇보다 긴요하였다. 이러한 아군의 약점을 이용한 적은 V자 전법으로 운산전투에서 미 제8기병연대를, 그리고 군우리전투에서 미 제2사단을 유린할 수 있었다. 차량으로 기동하며 산악지대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요 도로망의 확보와 이에 대한 경계대책의 강구는 승리와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4) 적 전술의 숙지와 대비책의 강구

중공군의 전술에 대한 무지는 국군과 유엔군 병사들의 전의를 크게 위축시켰다. 미군은 중공군을 한낱 아시아의 보잘 것 없는 농민군 정도로 과소평가하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말 중공군의 제1차 공세에서 중공군은 화력과 기동력이 우세한 유엔군과의 공개적 대결은 승산이 없으므로 유엔군을 깊은 산 속으로 유인하여 퇴로를 차단하고 양 측방에서 압력을 가하는 소위 'V자 전법'을 사용하여 유엔군을 격퇴시켰다. 이 전법은 매우 단순한 전술로서 청천강 일대의 지형에서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하였고, 유엔군은 중공군의 이런 전술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해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적의 전투력과 전술을 사전에 탐지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은 시대와 전쟁양상의 변화에 관계없이 강조되는 사항이다.

5) 피아 식별대책 강구

국군과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은 같은 동양인으로서 피부색이나 외모만으로는 서로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를 간파한 북한군과 중공군은 국군으로 가장하여 유엔군에 접근하여 기습을 실시하였다. 1950년 11월 2일 운산 남서쪽 4㎞ 지점인 구룡강변 상초동에서 주보급로상의 중요한 교량을 경계하던 미 제8기병연대 소속의 전차소대는 국군을 가장한 중대규모의 중공군을 국군으로 오인하고 통과시킴으로써 동 연대 제3대대가 이들의 기습을 받고 거의 전멸당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6) 신속한 작전평가와 전훈 전파

중공군은 운선전투를 수행한 지 3주도 안된 1950년 11월 20일 “운산전투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중공군은 여기에서 미군과의 전투경험을 토대로 미군의 강점과 약점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대응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장차 작전에 대비하였다. 만일 유엔군 및 국군도 중공군과의 전투경험을 바탕으로 적 전술상의 특징을 분석 및 평가하여 일선 장병에게 전훈으로 제시하였더라면 작전수행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전투』(서울 : 삼화인쇄, 1985), 1, 3쪽.

2) GHQ, UNC, 「Operations Order No. 4」 Oct. 17, 1950.

3)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20.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울까지 전과를 확대한 미 제10군단을 해상으로 이동시켜 동부전선에 투입함으로써 양덕-희천선을 기준으로 작전지역을 양분하였다. 즉, 낭림산맥 이서(以西) 지역은 미 제8군이 그리고 이동(以東) 지역은 미 제10군단이 각각 분담하였다.

4) James F. Schnabel, Robert J. Watson, The History of the Joint Chiefs of Staff(Joint Chiefs Staff: 197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역), 미합동참모본부사 한국전쟁(상), 1990, 201쪽, 203~204쪽.

5)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21호」(1950. 10. 20. 13:00); 미 제8군사령부, 정기작전보고.

6) 맥아더 사령관은 제1차 목표인 평원선 확보를 위해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정주-군우리-영원-함흥-흥남을 잇는 선으로 설정했으나, 미 제8군의 평양입성이 예상 밖의 호조를 보임에 따라 1950년 10월 17일 작전명령 제4호를 통해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 선으로 유엔군의 진출한계선을 수정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서울 : 삼화인쇄, 1985), 5쪽.

7)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OCMH, U.S. Department of Army, 1972; 육군본부(역), 정책과 지도, 1974, 286쪽.

8) 앞의 책, 201쪽.

9) HQS, I US Corps, 「Operations Order No. 111」 Oct. 26, 1950.

10)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2~23쪽.

1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6 :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2』(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144쪽.

12) 위의 책, 148쪽.

13)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2쪽.

14) 육본정보참모부, 『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 271쪽.

15) 당시 북한군 패잔병 및 유격대 병력 수는 약 40,000명에 달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위해 국군 및 유엔군은 6개 사단병력을 투입하고 있었다. 소련군 총참모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161쪽.

16) 이 외에도 새로 창설된 3개 군단(9개 사단과 1개 전차연대)이 중국 동부지구에서 훈련중에 있었다. 주둔지별로는 제6군단(제18사단, 제36사단, 제66사단과 1개 전차연대)이 콴톈(寬甸)에, 제7군단(제32사단, 제37사단, 제38사단)이 화톈(樺甸)과 후이난(輝南)에, 그리고 제8군단(제42사단, 제45사단, 제76사단)이 옌지(延吉)에 있었다. 그리고 군관학교가 퉁화(通化)에, 항공학교가 옌지(延吉)에 위치하고 있었다.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4~15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서울 : 군인공제

회 제1문화사업소, 2001), 244~245쪽.

17) 육본정보참모부, 앞의 책, 266쪽.

18) 연대급인 단(團) 예하에는 영(대대), 연(중대), 배(소대), 반(분대), 조(3인)로 편성되었으며, 모든 부대가 이와 같은 호칭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8쪽.

19) GHQ, Far East Command,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General Staff, Intelligence Division, Order of Battle Information, Chinese Communist Forces in Korea(1951. 12. 9)

2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1~32쪽.

2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5쪽, 553~554쪽; 홍학지 지음, 홍인표 옮김, 『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고려원, 1992), 70쪽.

22)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5쪽, 553~554쪽.

23)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소 편저,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전사(북경: 군사과학출판사, 1988),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역), 『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 19쪽.

24) 위의 책, 20쪽.

25)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상)』, 1996, 94쪽.

26)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1쪽.

27) Billy C. Mossman, *op. cit.,* p.53.

2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5쪽.

29)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1989), p.17.

30)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5~16쪽.

3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23쪽.

32)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21호」(1950. 10. 20. 13:00)

33) 러시아 국방부(편), 김종국(역), 『러시아가 본 한국전쟁』(대전 : 오비기획, 2002), 87쪽.

34) 육본정보참모부, 앞의 책, 272쪽.

35) Billy C. Mossman, *op. cit.,* p.43.

36) *Ibid.,* p.20.

37) *Ibid.,* p.23.

38) 러시아 국방부(편), 김종국(역), 앞의 책, 87쪽.

3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3~14쪽.

40)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이원복(역), 『한국전쟁 4 :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서울 : 명성출판사, 1991), 331~332쪽.

41) Billy C. Mossman, *op. cit.,* p.45.

4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권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2009, 472쪽.

4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6쪽.

44) 북한은 1954년 10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북진군(北鎭郡)을 운산군(雲山郡)에 편입하고 운산읍을 구읍리(舊邑里)로, 온정리(溫井里)를 운산읍으로 조정하였다. 박명훈, 『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 639~640쪽.

4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6쪽.

46) 앞의 책, 33쪽.

4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1사단 전투상보』

48) 위의 책

4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8~39쪽.

50) 육군본부, 앞의 책

51) Roy E. Appleman, *op. cit.,* p.677.

52) 육군본부, 앞의 책

53) HQS, EUSAK,「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106」, 26 Oct. 1950; HQS, I US Corps,「Operation Direction No. 15」, 26 Oct. 1950.

54) HQS, EUSAK,,「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25」, 28 Oct. 1950.

55) 미 제1기병사단, 작전명령

56)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3~34쪽.

57) 앞의 책, 33쪽.

58) Roy E. Appleman, *op. cit.,* pp.680~681.

5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9쪽.

60) 미 제1기병사단 전투일지

61) Roy E. Appleman, *op. cit.,* p.694.

62) 육군본부, 앞의 책

63) 미 제1기병사단, 전투일지

64) 미 제1기병사단, 작전명령

65) 미 제1군단, 작전명령

66) 백선엽, 『군과 나』(서울 : 대륙출판사, 1989), 127쪽.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6쪽.

68)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21호」(1950. 10. 20. 13:00).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6쪽.

70) Roy E. Appleman, *op. cit.,* p.681.

71) *Ibid.,* p. 683.이들은 6·25전쟁 개전 이래 미군이 최초로 생포한 중공군 포로였으나, 전투단과 접전한 중공군부대 병사가 아닌 다른 부대의 낙오병이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4권 : 총반격작전기(1950. 9. 15~11. 30)』(서울 : 보진재, 1971), 687쪽.

72) 위 책, 687쪽.

73) Roy E. Appleman, *op. cit.,* p.683.

74) *Ibid.,* p.681.

7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37쪽.

76) Roy E. Appleman, *op. cit.,* p.682.

77) *Ibid.,* p.682.

78) *Ibid.,* pp.682~683.

7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4쪽.

80) 육본정보참모부, 앞의 책, 271쪽.

8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6쪽.

82) 국방부, 앞의 책, 91쪽.

8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7사단 전투상보』

84) 비호산을 고수하려는 전술적 요인은 첫째, 전날까지 불명확했던 중공군이 덕천-구장동간 험준한 묘향산맥을 타고 남하하는 것은 개천을 주목표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개천지역은 서북부지역의 전황, 동쪽 산악지대와 서쪽 평야지대와의 분기점, 서쪽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술적 주요 목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는 비호산은 북쪽으로 청천강, 남쪽으로 개천-덕천간 주기동로가 산능선에 연결됨으로써 자연적인 지세를 점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국방부, 앞의 책, 93쪽.

8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7사단 전투상보』

86) 위의 책

87)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62쪽.

88)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7사단 전투상보』

89) 보병 제7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3호」(1950. 11. 6).

90) 북한은 1954년 10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북진군(北鎭郡)을 운산군(雲山郡)에 편입하고 운산읍을 구읍리(舊邑里)로, 온정리(溫井里)를 운산읍으로 조정하였다. 박명훈, 『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639~640쪽.

9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92) 위의 책

93) 위의 책

94)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 군사연구소, 2009, 14~15쪽.

9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4~35쪽. 중공군측 자료에 의하면, 이날 중공군 제354연대는 양수동 및 풍하동 지역에서 국군 324명을 살상하고 160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 19쪽.

9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97) 위의 책

98)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하), 17쪽.

9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8쪽.

10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101) 위의 책

102)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39쪽.

103)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21호」(1950. 10. 20, 13:00), 육군본부가 각 군단에 하달한 진격명령에는 국군 제2군단은 "(1) 담당지구 내에서 적을 섬멸하며 전진하여 담당지구내 목표 A선을 점령 확보하라. (2) 목표 A선을 점령하면 북방에 대한 차후작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4)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105) 검토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적은 제2연대뿐 아니라 제19연대마저 위협하는 대병력으로서 이동로상의 중요 거점인 판하동(고장 남쪽 25㎞)까지 진출하고 있다. ②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는 연대에 연료가 고갈되고 탄약이 부족하다. ③ 회목동으로 통하는 기동로가 하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폭이 좁고 기복이 심해 기동제한이 많다. ④ 인접부대가 없고, 지원 및 우군부대가 멀리 있어 단독으로 고립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앞의 책, 64쪽.

10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107)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42쪽.

108) 위의 책, 43쪽.

109) 국방부, 앞의 책, 67쪽.

11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111) 위의 책

112)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13호」(1950. 10. 25)

113)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8-50호」(1950. 10. 25)

11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67쪽.

115) 위의 책, 69쪽.

116)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78호」(1950. 11. 9)

117) 당시 미 제3보병사단의 병력은 제65연대를 제외하면 7,494명에 불과하였으므로 10월 중에 일본에서 8,500명의 카튜사를 배속받았다. 사단내 분대 구성은 미군 2명에 한국군 8명이었다. 국방부, 앞의 책, 595쪽.

118)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1950. 10. 2)

119) 국방부, 앞의 책, 598~599쪽.

120) 위의 책, 599쪽.

121) 수도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10호」(1950. 11. 5)

122) 미 제7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7호」(1950. 11. 12)

123) 국방부, 앞의 책, 608~609쪽.

124) 미 제7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9호」(1950. 11. 20)

12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64쪽. 중공 제13병단장은 제42군 주력으로 하여 신속하게 동부전선 장진과 이남의 덕실리, 구진리 선에 도착해 동부전선의 적을 저지하고 서부전선의 주력작전을 보장하는 임무를 하달하였다.

126) 수도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6호」(1950. 11. 6)

127) 수도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10호」(1950. 11. 8)

128)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0호」(1950. 11. 15. 16:00)

129)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1호」(1950. 11. 27. 17:00)

13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12호 훈령 제1호」(1950. 10. 8. 20:00)

131)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32호」(1950. 10. 26)

132) 제3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2호」(1950. 11. 4)

133)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143호」(1950. 11. 9)

134)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0호」(1950. 11. 16. 16:00)

135) 국군 제3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5호」(1950. 11. 16. 20:00)

136) 국군 제3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6호」(1950. 11. 20. 10:00)

137)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1호」(1950. 11. 27. 17:00)

138) 제3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45호」(1950. 11. 27)

13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69~70쪽;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硏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爭史』(북경 : 군사과학출판사, 198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395쪽. 항공기의 격파 및 파손 수는 병참선을 엄호했던 소련공군의 전과도 포함한 것임.



제 5 장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작전 계획
제 3 절	유엔군의 공세와 중공군의 반격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이후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950년 11월 24일 총공격을 단행하자, 적유령산맥 남단과 장진호 일대에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11월 25일 야간을 기해 반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부전선의 청천강 일대와 동부전선의 장진호-함흥 일대에서 12월 3일까지 피아간에 전개된 공방전 및 철수작전을 지칭한다.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이후 소강상태가 지속되자, 중공군이 조직적인 공격을 실시하기 이전에 전쟁을 종결한다는 계획에 따라 서부전선에 미 제9군단을 증강시키고 동부전선에 미 제10군단을 상륙시켰다. 그리고 1950년 11월 24일을 기해 총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른바 '크리스마스 공세'로 불린 이 공격에서, 서부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을 도하하여 북진을 계속하였고, 동부에서는 일부 선두부대가 압록강 선에 도달하거나 국경선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제1차로 북한에 진입한 제13병단 예하 18개 사단이 적유령산맥 남단에, 제2차로 진입한 제9병단 예하 12개 사단이 장진호 및 개마고원 일대에서 전투대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군과 유엔군을 동서로 양분하여 서부에서는 청천강 선에서, 동부에서는 장진호-함흥 선에서 포위 격멸한 후 남진한다는 계획에 따라 11월 25일 야간을 기해 대반격을 개시하였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인 이 공세는 적의 의도대로 전개되었다.

적은 청천강 지역과 장진호 지역의 국군과 유엔군 주력을 포위함으로써 서부전선의 제13병단은 청천강 선을 돌파하고 청천강 이남으로 전과를 확대하여 평양-사리원-개성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동부전선의 제9병단과 북한군은 유엔군의 흥남교두보를 압박하는 한편 제2전선부대와의 합동으로 원산을 점령함으로

써 유엔군의 지상퇴로를 차단하였다. 반면에 국군과 유엔군은 적의 대반격에 밀려 후퇴작전으로 전환, 서부전선에서는 12월 중순에 38도선까지 후퇴하였고, 동부전선에서는 흥남에 집결하여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해상을 통한 철수작전을 실시하였다.

한편 작전지역 중 서북부인 청천강 이북지역은 북으로 적유령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압록강으로의 진출에 제한을 받으며, 동으로는 묘향산맥과 낭림산맥 등 1,000m 내외의 준령이 이어지며 지역을 동서로 양분하여 기동에 제한을 주고 있다. 또한 지역을 가로지르는 청천강은 희천-영변-박천-안주-정주 등지에서 지류를 모으며 남서향으로 흘러 서해로 접어든다. 반면에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관통하여 천연적인 분수령을 이루는 동북부지역은 마천령산맥과 부전령산맥 등 평균 해발고도 2,000m가 넘는 개마고원이 자리하고 있어 삼림이 울창하다. 따라서 도로의 발달이 제한되어 교통이 불편하고, 인적도 드물었다. 제2차 공세의 주요 전장인 장진호 지역은 장진발전소의 저수호를 해발 1,300m의 고산준령이 둘러싸고 있어 지세가 험한 지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진호 지역의 기후는 10월 하순에 강설이 시작되고 기온이 급강하해 11월 하순경의 기온은 섭씨 영하 27도까지 내려가고 사방은 백설로 덮인다. 따라서 높고 좁은 지역의 도로상태는 적설과 빙판으로 변하여 매우 열악한 작전환경을 만들었다.[1] 작전지역 내의 도로망은 청천강변 신안주로부터 신의주를 연결하는 1번 국도와 신안주에서 군우리-희천-강계를 거쳐 만포진으로 연결되는 65번 도로가 서부지역의 주요 도로이고, 동부지역은 함흥을 기점으로 장진호를 거쳐 강계와 자성을 잇는 도로와 이원에서 풍산을 거쳐 혜산진에 이르는 산간도로가 있다.

작전기간 동안 적은 대규모의 포위와 적극적인 우회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한편 인해전술에 의한 돌파전술도 적용하였다. 그리고 주간행동의 제한으로 야간기습과 침투 및 매복전술도 혼용하였으며, 파상공격과 침투전술로서 아군의 정면을 견제 돌파하고, 포위와 우회전술로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상의 특징을 보였다. 특히 제2전선부대가 수행한 게릴라전은 작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적은 제2차 공세를 통해 청천강 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점령함으로써 미 제8군

과 미 제10군단을 완전히 양분하였다. 이후 적은 서부지역에서 개성, 금천까지 진출하였고, 동부지역에서는 유엔군의 지상퇴로를 차단하여 미 제10군단의 해상철수를 강요하였으며, 제2전선부대는 유격지대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론적으로, 이 작전은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공세작전으로 전환한 적이 전장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미 제8군의 청천강 선을 돌파하고 제2전선부대와의 연계하에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여 재차 남침을 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 2 절 작전 계획

1. 유엔군의 작전계획

유엔군의 제1차 작전인 추수감사절 공세가 완료된 1950년 11월 6일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중공군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더불어 향후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전쟁이 끝나려는 시기에 중공군이 한국전선에 침입하여 대학살을 꾀함으로써 인류사상 다시없는 죄악을 범하였다. 그러나 유엔군은 적절한 감시와 능숙한 기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사히 위기를 모면하였다. 나의 임무는 북한지역에서 공산군을 격멸해 한국의 통일과 평화를 회복하려는 유엔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재공격을 실시할 것이다.』[2)]

이날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또한 청천강 교두보에서의 소극적인 방어전 대신 노출된 우측방이 보전되고 보급품이 확보되는 대로 공세로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공격재개를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을 관계참모에게 지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작전개념을 강조하였다.

『미 제9군단을 포함한 3개 군단으로 공격작전을 실시한다. 미 제1군단은 서측, 미 제9군단은 중앙, 국군 제2군단은 동측을 담당하여 상호 협조된 공격으로 한·중 국경선까지 진출한다. 공격개시일은 준비 완료되는 시점이다.』[3)]

이에 따라 명령을 받은 미 제9군단장은 후방에서 작전중이던 예하의 미 제2사

단을 북상시켜 순천-개천간 간선도로를 확보하도록 조치한 후, 11월 2일 현 작전임무를 새로 편성된 국군 제3군단에 인계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순천으로 북상시켜 도착과 동시에 미 제1군단에 일시 배속되었던 미 제2사단의 작전지휘권을 인수하는 한편 평강과 장단 지역에서 임무를 교대한 미 제25사단을 이동시켰다. 이로써 미 제9군단은 11월 15일까지 차후작전에 대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4]

그러나 대체로 1주일 이내에 공격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한 미 제8군은 11월 15일을 기해 공격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으나 보급물자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공격개시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작전에 필요한 3개 군단의 1일 소요 보급량은 4,000톤에 달했으나, 철도와 공중수송을 포함한 미 제8군의 수송역량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5]

그러나 보급문제의 해결을 위해 평양에 이르는 철도교량의 보수와 해상수송을 위한 진남포항의 기뢰제거 등에 주력한 결과, 군수지원 능력은 눈에 띌 정도로 향상되었다. 11월 17일경에는 매일 열차편으로 2,000톤의 보급품이 평양으로 수송되는가 하면 1,500톤이 진남포항으로 해상수송되었다.[6] 또한 미 극동공군의 대대적인 보급추진작전이 이날부터 전개되어 보급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자, 미 제8군사령관은 공격개시일을 11월 24일로 확정하였다.

한편 군수지원 능력의 결여는 공격개시일의 연기뿐 아니라 공격개시선의 수정마저 초래하였다. 미 제8군은 가산-장정동-용산동-영변-용문산-사동-영원을 잇는 선을 공격개시선으로 선정하고, 각 군단의 공격축선도 이 선을 기점으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좌전방의 미 제1군단은 가산과 장정동에서 신의주-평양 도로를 중심으로 서해안을 따라 수풍호-신의주 축선으로, 중앙의 미 제9군단은 영변과 용산동에서 군우리-희천간 도로 좌측을 통해 초산-벽동 축선으로 진격토록 하였다. 그리고 우전방의 국군 제2군단은 사동과 영원에서 강계-만포진 축선으로 진격하되, 군우리-희천간 도로 동쪽의 산악지대에서 우인접의 미 제10군단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진출하도록 계획하였다.[7]

미 제8군사령관은 작전지역을 횡단하는 강남산맥과 묘향산맥으로 인해 기동로가 한정되어 협조된 공격이 제한될 수 있고, 병참선에 얽매어 공격이 지연될 가

능성을 우려하였다. 또한 적의 매복에 의한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인접부대와 협조된 공격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목표였던 희천 지역을 미 제9군단에 인계하는 한편 20일부터 23일까지 전선조정을 통해 제7사단과 제8사단이 덕천과 영원 지역을 각각 확보하였다. 미 제9군단 역시 미 제2사단을 구장동으로 진출시키고, 미 제25사단을 영변 지역으로 북상시켜 국군 제2군단과의 병행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미 제1군단은 이에 앞서 전개를 완료해 국군 제1사단이 용산동과 박천 지역에서, 미 제24사단이 대령강 서쪽의 서해안 통로에서 각각 진격태세를 갖추었다. 이로써 미 제8군 예하의 3개 군단은 공격준비를 모두 완료하게 되었다.

한편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서부전선과는 달리 중공군과의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한·중 국경선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다. 군단의 좌전방인 미 제1해병사단은 예하의 제7해병연대가 고토리(古土里)에서 장진호 남단의 하갈우리(下碣隅里)로 진격해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제5해병연대가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해 고토리로 기동하였다. 그리고 군단 중앙의 미 제7사단은 압록강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여 11월 21일 제17연대가 압록강변의 혜산진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1군단은 산발적인 북한군 패잔병의 저항을 물리치며 진격을 계속하였다. 군단의 우전방인 수도사단은 동해안을 따라 11월 25일 청진까지 진격하였고, 좌전방인 제3사단은 험준한 산악협로로 진격하여 같은 날 백암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장 알몬드(Edward M. Almond) 중장에게 공격계획을 수정해 장진으로 진출한 후 서쪽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적 후방의 전략 및 전술적 요충인 강계를 공격함으로써 미 제8군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병참선이 신장됨은 물론 적의 위협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미 제10군단장은 유담리(柳潭里)에서 곧바로 서쪽으로 선회하여 강계 남쪽의 무평리(武坪里)를 공격하는 안을 제의해 승인받았다. 이로써 미 제1해병사단은 좌인접의 국군 제2군단의 공격을 지원함과 동시에 적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공산군의 작전계획

1) 작전기도 및 방침

제1차 공세를 통해 청천강 북안으로 진출한 중공군과 북한군의 작전 기도는 결정적인 반격으로 전환하여 청천강과 장진호 그리고 청진 지역에서 유엔군을 각각 섬멸한 후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제2전선부대와의 연계하에 38도선 이북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8] 이에 따라 중공군은 원산-순천간 이북지역을 확보하여 적의 병력을 이 지역에서 소모시키는 한편 공격의 중심을 원산-평양선 정면에 두고 덕천-구장-영변 서북지역을 후방으로 하여 장기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침을 수립하였다.[9]

이러한 작전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중공군과 북한군은 유엔군의 주력인 서부전선의 미 제8군에 주공을 지향하고 동부전선에서는 보조공격을 통해 미 제10군단을 격파토록 하는 한편 주력은 제2전선부대와 협조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안주-평양-개성 축선에 주공을, 동부전선의 장진호-함흥-원산 축선 및 혜산-북청 축선 그리고 청진-함흥 축선에 보조공격을 지향하였다.[10]

2) 작전계획

중공군 지휘부는 미군의 재공격기도를 분쇄하기 위해 동부전선과 서부전선 모두에서 적을 깊숙이 유인하고, 먼저 한쪽을 섬멸한 후 전과확대하는 제2차 작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부전선의 제9병단은 적을 유인하는 임무를 제42군단 일부에 지시하였고, 또 다른 1개 군단에는 구진리 이남에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적이 구진리-장진선에 도착하면 먼저 미 제1해병사단을 섬멸한 후 동남 또는 남쪽으로 전과확대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서부전선에서는 제38군단과 제42군단이 적을 하행동(下杏洞)으로 유인해 덕천-맹산-북창 방향에서 기습공격하고, 제40군단이 영변에서 제38군단과 함께

적을 공격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제39군단은 태천에서 적에 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제66군단은 구성과 정주에 집결하는 한편 제50군단은 해안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1]

(1) 서부전선 작전계획

중공군 지휘부는 우선적으로 청천강 동안(東岸)의 국군 제2군단을 섬멸하여 공세를 위한 돌파구를 확보함으로써 모든 전역에서 전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38군단이 덕천지역의 국군 제7사단을, 그리고 제42군단이 영원지역의 국군 제8사단을 섬멸하는 제2차 공세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제40군단은 동쪽 소민동과 신흥동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1개 사단이 제38군단 제112사단의 방어임무를 인수하고, 주력은 제38군단 및 제42군단과 합동으로 용문산과 두일령 방면의 적을 공격한 후 덕천 서쪽의 서창에서 미군의 동쪽 및 북쪽 증원을 저지토록 하였다. 또한 제39군단과 제66군단, 제50군단도 축차 이동으로 방어임무를 인수하여 전선을 유지하고, 공격개시와 동시에 정면의 적을 견제하고 섬멸토록 하였다.

중공군 지휘부는 보다 구체적인 임무를 각 군단에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즉, 제40군단은 소민동-두일령-구정리 이남으로 진출하여 국군 제7사단 및 제8사단과 미군의 연결을 차단한다. 제38군단은 예하 제112사단을 신흥동으로 남하시켜 운송리를, 제114사단은 사평을 경유 덕천을, 고성강 등에서 도강한 제113사단은 덕천 이남으로 우회하여 국군 제7사단을 포위 섬멸한다. 또한 제42군단의 8개 연대는 영원의 국군 제8사단을 포위 섬멸하고, 이외에 증강된 1개 연대는 인덕리(仁德里)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증원에 대비하는 것이었다.[12]

(2) 동부전선 작전계획

제2차 공세 방침에 따라 중공군 지휘부는 다음과 같이 동부전선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적을 구진리-장진선까지 유인해 1차적으로 미 제1해병사단의 2개

연대를 섬멸하고, 1개 군단은 강계-전천-운송동-남흥동을 경유하여 유담리에서 집결하는 한편 선두 사단은 신속히 구진리 일대에 종심방어진지를 구축하며, 다른 1개 군단은 임강과 자성강구로 도하하여 운산리에 집결한다. 또한 이들 2개 군단 예하의 각 1개 사단은 정면을 담당하고, 7개 사단은 적의 측후방을 공격한다. 제42군단은 오로리(五老里)로 진출하여 증원부대를 견제하고 적의 퇴로를 공격한다.』



임강 - 중간진간 철교.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3개 군단의 입한 경로이다.

이에 따라 중공군사령부는 제27군단과 제20군단 1개 사단 등 4개 사단이 미 제7사단 2개 연대를 포위 섬멸하고, 제20군단 3개 사단과 제42군단 제126사단이 유담리 서쪽에 도달한 미 제1해병사단의 2개 연대를 포위 섬멸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13]

제 3 절 유엔군의 공세와 중공군의 반격

1. 양측의 상황

1) 적 상황

(1) 전투편성

국군과 유엔군이 1950년 11월 24일을 기해 총공세를 개시하자, 중공군과 북한군은 동부와 서부 지역으로 분할하여 서부는 청천강지역, 동부는 장진호 일대에서 연합집단을 형성하였다. 즉, 서부지역은 중공군 제13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동부지역은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3・제4・제5군단이 공격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예비로 중공군 제12・제15・제60군단을, 그리고 북한군 제6・제7・제8군단을 두었다.[14]

<표 5-1>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전투편성

구 분		편 성 부 대	비 고
서부전선	중공군	제38・제39・제40・제42・제50・제66군단	
	북한군	제1군단	혼성병력
동부전선	중공군	제20・제26・제27군단	
	북한군	제3・제4・제5군단	혼성병력
예 비 대	중공군	제12・제15・제60군단	
	북한군	제6・제7・제8군단(신편중)	
제2전선	북한군	제2군단(제2, 4, 9, 10, 15, 27, 31사단)	유격부대

서부전선을 담당한 미 제8군의 정면에는 중공군 제13병단 예하의 제38·제39·제40·제42·제50·제66군단과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 제1군단이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정면에는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제20·제26·제27군단과 북한군 제3·제4·제5군단이 있었다.

<표 5-2> 중공군 제9병단 전투서열

구 분	사 단	연 대	비 고
제20군단	제58사단	제334, 335, 336연대	
	제59사단	제337, 338, 339연대	
	제60사단	제340, 341, 342연대	
	제89사단	제265, 266, 267연대	제30군단에서 배속
제26군단	제76사단	제226, 227, 228연대	
	제77사단	제229, 230, 231연대	
	제78사단	제232, 233, 234연대	
	제88사단	제262, 263, 264연대	제30군단에서 배속
제27군단	제79사단	제235, 236, 237연대	
	제80사단	제238, 239, 240연대	
	제81사단	제241, 242, 243연대	
	제90사단	제268, 269, 270연대	제30군단에서 배속

한편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 펑더화이(彭德懷)와 부사령관 겸 부정치위원 덩화(鄧華) 그리고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와 한셴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정치부 주임 두핑(杜平)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서북부전선을 담당한 제13병단은 사령관 덩화(鄧華)를 비롯해 정치위원 뇌전주(賴傳珠), 부사령관 홍쉐즈(洪學智)와 한셴추(韓先楚), 참모장 셰팡(解方), 정치부주임 두핑(杜平)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38군단장 량싱차오(梁興初), 제39군단장 우신촨(吳信泉), 제40군단장 원위청(溫玉成), 제42군단장 우루이린(吳瑞林), 제50군단장 쩡쩌성(曾澤生), 제66군단장 샤오신화이(蕭新槐)이었다.

한편 동부전선을 담당한 제9병단 사령부는 사령관 겸 정치위원 쑹스룬(宋時輪), 부사령관 타오융(陶勇), 참모장 탄젠(覃健), 정치부주임 셰요우파(謝有法), 부참모

장 왕빈(王彬)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예하의 각 군단장은 제20군단장 겸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제26군단장 장런추(張仁初), 제27군단장 펑더칭(彭德淸)이며, 각 군단의 참모 및 예하 사단장은 다음의 <표 5-3>과 같다.[15]

<표 5-3>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 편성

구 분	제20군단	제26군단	제27군단
군 단 장	장이샹(張翼翔)	장런추(張仁初)	펑더칭(彭德淸)
부군단장	랴오정궈(廖政國)	장즈슈(張銓秀)	잔다난(담大南)
참 모 장	위빙후이(兪炳輝)	펑딘싼(馮鼎三)	리위안(李 元)
정치위원	장이샹(張翼翔)	리야오원(李耀文)	류하오톈(劉浩天)
부정치위원	탄요우밍(譚右銘)	?	쩡루칭(曾如淸)
정치부주임	추샹톈(邱相田)	?	장원비(張文碧)

한편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의 전투 편성은 총사령관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하여 부사령관 최용건(崔庸健)과 참모장 이상조(李相朝)이며, 총사령부 예하의 각 군단장은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 5-4> 북한군 전투서열

소 속	계급	성 명	편 성 부 대	비 고
총사령관	원수	김일성(金日成)		
부사령관	대장	최용건(崔庸健)		
참모장	상장	이상조(李相朝)		
제1군단장	상장	이권무(李權武)	제46, 제47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17기계화여단, 독립연대	구성
제2군단장	상장	최 현(崔 賢)	제4, 제7사단 등 9개 사단	제2전선
제3군단장	상장	유경수(柳京洙)	제1, 제3, 제8, 제12, 제13, 제15사단	강계
제4군단장	상장	박종덕(朴鍾德)	제41, 해방제1여단, 제71독립연대, 전차연대	풍산
제5군단장	상장	방호산(方虎山)	제6, 제12사단	
제6군단장	상장	최용진(崔勇鎭)	제18, 제36, 제66사단, 전차연대	관전
제7군단장	상장	이영호(李永鎬)	제32, 제37, 제38사단	화전
제8군단장	상장	김창덕(金昌德)	제42, 제45, 제76사단	연길

한편 중국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은 작전의 통합과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통일된 지휘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통일된 지휘체제의 미비는 연합작전은 물론 물자공급과 교통수송 등의 분야에서 혼란을 야기하였다.[16] 이에 따라 김일성과 펑더화이는 회합을 갖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작전을 통합하기 위해 양국의 장교들로 편성된 연합사령부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2월 초순에 설치된 연합사령부는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와 북한군 참모부의 2개 기구로 양분하였다. 그리고 연합사령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은 중공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 부사령관과 부정치위원은 북한의 김웅(金雄)과 박일우(朴一禹)가 각각 임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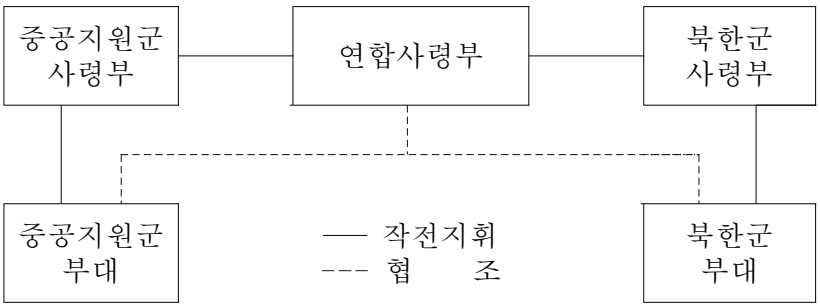


전선을 시찰중인 펑더화이와 지휘부 (출처 : 소장자 류은규/유로크레온)

연합사령부는 한반도 내의 모든 작전 범위와 전선활동을 통일 지휘함에 따라 북한군 및 모든 유격부대, 그리고 중공군에 대해 지휘통제가 가능하였다. 연합사령부의 모든 명령은 북한군 총사령부와 중공지원군사령부를 경유하여 예하 부대에 하달되었다. 연합사령부가 작전과 관련된 모든 교통수단(도로, 철도, 하구, 비

행장, 유무선 통신 등)과 식량조달, 인적 및 물적 동원 등의 업무를 지휘하는 반면에 북한정부는 후방에서 전방지원을 위한 동원, 보충훈련, 지방행정 회복 등의 업무를 관할하였다.[17]

<표 5-5> 공산군(연합사령부) 지휘체계



(2) 공격준비태세

1950년 11월 13일 지원군 당위 확대회의에서 제2차 공세방침을 채택한 중공군은 제1차 공세의 경험 분석과 제2차 공세의 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장은 물론 중국내에서 제2차 공세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제38군단, 제30군단, 제40군단 주력과 제50군단 및 제60군단을 후방으로 철수시켜 부대정비를 완료하는 한편 제1차 공세의 경험을 통한 국군과 미군의 작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또한 정면의 적정은 물론 지형 및 도로 상황의 이해를 위해 정찰대 운용을 강화하였고, 제1차 공세에서 노출된 작전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와 동북군구 등은 지원군에 대한 병참물자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보급역량을 강화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와 지원군사령부는 12개 사단 150,000명으로 편성된 제9병단을 한반도 동부전선에 배치하는 한편 전장의 방공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내 각 고사포연대에서 구경 37㎜ 고사포 5개 대대를 차출하여 전장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지원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심리전 운용을 위해 전쟁포로를 석방하였다.[18]

한편 38도선을 돌파한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한·중 국경을 향해 북진을 계속함에 따라 북한군총사령관 김일성은 철수병력과 후방 부대들을 신의주와 강계로 집결시켰다. 그러나 북한군은 철수과정에서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고, 이들을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 김일성은 신속히 재편성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군 지휘부는 부대 재편에 착수하여 1950년 11월 17일 <표 5-6>과 같은 전투편성을 완료하였고, 이와 동시에 병력 및 무기의 보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전투력 강화에 주력하였다.[19]

<표 5-6> 북한군 전투서열

구 분	편 성 부 대	주둔지
제1군단	제8, 제46, 제47보병사단, 제17기계화여단	신의주, 구성
제2군단	제4, 제7보병사단 등	제2전선
제3군단	제1, 제3, 제5, 제15보병사단, 제105기계화사단, 제26육전여단, 제63포병연대	강계, 만포진
제4군단	제41보병사단, 제23육전여단, 제71독립보병연대, 독립전차연대	나남, 청진
제5군단	제6, 제12, 제24, 제38보병사단	강계, 영원
제6군단	제18, 제19, 제36보병사단	관전
제7군단	제13, 제32, 제37보병사단	화전
제8군단	제42, 제45, 제76보병사단	연길

(3) 전투력 수준

제2차 공세를 위하여 예정된 집결지에 도착한 중공군의 총 병력은 9개 군단 30개 사단이었고, 병력은 총 380,000여 명이었다. 이 중 서부전선에 6개 군단 18개 사단의 230,000여 명이, 그리고 동부전선에 3개 군단 12개 사단의 150,0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20] 이 작전기간 중 중공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 현황은 다음의 <표 5-7>과 같다.

<표 5-7> 중공군 및 북한군 보유장비

구분	대 포			박격포		전차/자주포	항공기
	76㎜ 이상	45~75㎜	37㎜	60㎜	81㎜ 이상		
중공군	1,097	141	128	2,487	1,048		120
북한군	117	67	27		230	67	30
합계	1,244	208	155	2,487	1,278	67	150

동부지역의 작전임무를 담당한 제9병단은 동부전선의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동북지역에서 일련의 훈련을 실시한 후 한반도로 진출한다는 원래의 계획을 바꿔 곧장 한반도 작전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각종 장비가 불충분하였다. 그리고 미 공군의 폭격과 험준한 지형으로 인한 보급의 차질은 식량과 피복은 물론 탄약마저 부족하게 만들었다. 또한 전장 기후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방한준비가 부족하여 얇은 홑옷만을 입고 있었다.[21]

북한군의 경우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1950년 10월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작전으로 인해 막대한 병력, 특히 군관과 하사관의 손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포위망에서 벗어난 부대들은 대체로 독자적인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리고 총기조차 보유하지 못한 분산된 소규모 단위였다.[22] 또한 포병물자와 통신기재, 기타 군사장비는 수송수단의 붕괴로 대다수가 방치되었으며, 주요 철도 등 전체 병참선에 대한 유엔공군의 지속적인 압박은 탄약과 식량은 물론 기타 군수품의 보급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켜 중간계선을 방어하는 군의 저항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고, 청천강-덕천-함흥을 연하는 선 이북에서는 유엔군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23]

이에 따라 북한군 지도부는 부대 재편에 착수하여 새로운 편성에 따른 정원표를 마련하는 한편 총참모부와 각 군단의 지휘부를 20~40% 감축하고 면직된 군관들을 각급 부대의 보충요원으로 전환하였다.[24]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군은 8개 군단 25개 보병사단과 3개 보병여단, 전차사단 및 기계화사단, 2개 육전여단, 2개

독립보병연대, 독립전차연대, 군관학교 등으로 전력을 확장하였다. 또한 병력 및 장비의 강화에도 주력하여 작전기간 동안 병력은 103,000여 명을 보유하였고, 전차 및 자주포 67대를 비롯한 각종 야포 1,600여 문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북한군의 주요 화기 보유현황은 앞의 <표 5-7>과 같다.[25]

2) 아군 상황

(1) 배치 현황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재공격 방침에 부응하여 3개 방면에서 동시 공격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서쪽에 미 제24사단과 국군 제1사단, 영연방 제27여단으로 편성된 미 제1군단을, 중앙에 미 제25사단과 제2사단 그리고 터키군 여단으로 편성된 미 제9군단을, 동쪽에 국군 제6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제8사단으로 편성된 국군 제2군단을 각각 배치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과 영연방 제29여단은 군의 예비대로 운용하면서, 미 제1기병사단에게는 군우리와 숙천에 위치한 보급소의 경비임무를 부여하고 또한 영연방 제29여단은 개성에 집결시키고 있었다.[26]

한편 미 제8군의 작전계획에 따라 우전방의 국군 제2군단은 인처리(仁處里)-국화참(菊花站)-원참간을, 중앙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은 희천-온정리-용연동간을, 그리고 좌전방인 미 제1군단은 태천-납청정간의 중간목표를 담당하고 병진공격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때 각 군단이 담당한 전투정면은 120㎞에 달해 군단 당 약 40㎞의 전투정면을 담당하였다.[27] 1950년 11월 22일부로 최종 확정된 각 군단의 전투편성과 각 사단의 공격축선은 다음의 <표 5-8>과 같다.

한편 동부지역의 공격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은 마천령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은 미 제10군단에, 그리고 동쪽은 국군 제1군단에 공격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으로 편성된 미 제10군단을 좌측에, 그리고 국군 수도사단과 국군 제3사단으로 편성된 국군 제1군단을 우측으로 하여 병진공격을 지시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우측인 수도사단은 동해안 도로

<표 5-8> 미 제8군의 군단별 공격축선

군 단	사 단	공격축선
국군 제2군단(동쪽)	제8사단(우측)	영원-국화참
	제7사단(좌측)	덕천-원참
	제6사단(예비)	
미 제9군단(중앙)	미 제2사단(우측)	구장동-희천
	미 제25사단(좌측)	영변-온정리-운산
	터키여단(예비)	
미 제1군단(서쪽)	국군 제1사단(우측)	용산동-태천
	미 제24사단(좌측)	박천-납청정
	영연방 제27여단(예비)	

를 따라 한·소 국경으로, 좌측인 제3사단은 백암으로의 공격축선을 부여받았다. 또한 미 제10군단의 우측인 미 제7사단은 북청-혜산진간, 좌측인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강계 축선을 통해 압록강으로 진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28]

<표 5-9> 미 제10군단의 공격축선

군 단	사 단	공격축선
국군 제1군단(우측)	수도사단(우측)	성진-청진
	제3사단(좌측)	길주-백암
미 제10군단(좌측)	미 제7사단(우측)	북청-혜산진
	미 제1해병사단(좌측)	장진-강계
	미 제3사단(예비)	함흥-원산

(2) 전투준비태세

국군과 유엔군은 청천강 지역과 장진호 선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그 일대의 적을 포위 섬멸한 후 신속하게 압록강 연안으로 진출하는 한편 동부전선에

서도 여러 개의 방향에서 두만강 연안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주공격방향인 서부전선에 미 제8군 예하의 3개 군단(미 제1, 제9군단과 국군 제2군단)을 투입하여 신의주, 삭주, 벽동, 강계 방면으로, 보조공격방향인 동부전선에서는 미 제10군단이 함흥-장진과 북청-혜산진 방면으로 그리고 국군 제1군단이 길주-백암과 성진-청진 방면으로의 진격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은 1950년 11월 6일에 수립된 새로운 공격계획을 공격부대와 보급품의 보강을 위해 11월 15일을 기해 총공격을 단행하기로 변경하였다.[29] 공격개시일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작전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당시 군수지원 상황 때문이었다. 미 제8군은 김포비행장에서 평양으로 매일 1,000톤의 물자를 공중지원 받아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유류제품과 탄약은 1일 사용량에 불과하였고 겨울로 접어들며 동계피복과 난방 유류의 소요가 급증하여 수송능력의 개선이 시급하였다. 미 제8군 군수참모는 3개 군단의 작전에 매일 4,000톤의 보급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로의 보수와 진남포항의 운영을 고려하였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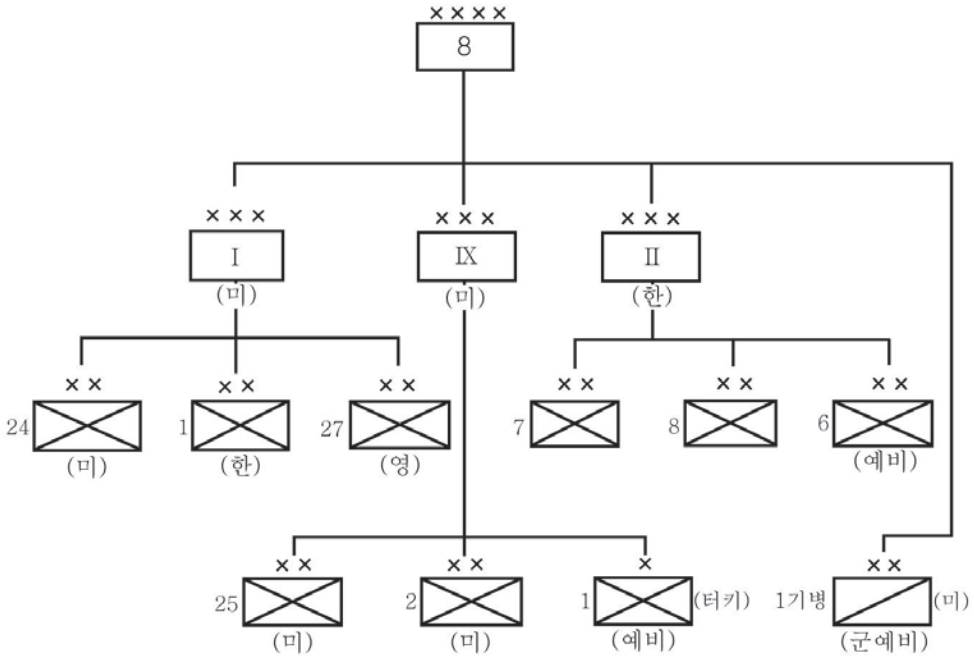
철도교량을 보수하고 진남포항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등 군수지원 능력향상에 주력한 결과, 17일경에는 매일 열차편으로 2,000톤의 보급품이 평양에, 그리고 1,500톤이 진남포항에 양륙할 수 있었다.[31]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은 11월 24일을 전면공세 개시일로 확정하였다.

(3) 전투력 수준

국군과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전개될 무렵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병력은 국군 553,000명과 13개 회원국의 유엔 지상군 423,300여 명, 주일 공군 55,000명, 해군 75,000명이었다. 지상전투부대는 국군 224,000명과 미군 178,500명이고, 육군 153,500명과 해병대 25,000명이었다.[32]

지상군 전체에 대한 지휘 및 작전통제는 미 제8군사령관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11월 23일을 기해 미 제8군사령관은 미 제10군단에 대한 군수지원만을 책임질뿐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은 각각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고, 한국 내에서의 지상군 통제와 작전권한은 도쿄의 극동군사령부 또는 유엔군사령부에서 행사하였다.

<표 5-10> 미 제8군 지휘체계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지상전투 병력은 미 제8군사령부, 한국 육군본부, 6개 군단, 17개 보병사단(미 해병사단 1개 포함), 3개 독립보병여단과 2개 독립보병연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미 제8군의 전투편성은 2개 군단(미 제1군단, 제9군단), 4개 사단(제1기병사단, 제2보병사단, 제24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공정연대(제187공정연대전투단)와 특공중대로 이루어졌고, 기타 유엔군은 3개 보병여단(터키여단, 영연방 제27여단, 제29여단)과 3개 독립보병연대(필리핀 제10대대전투단, 타일랜드 제22원정부대, 네덜란드파견대)가 지휘통제하에 있었다. 그리고 미 제8군의 작전통제하에 있는 국군은 2개 군단(제2군단, 제3군단)과 8개 사단(제1사단, 제2사단, 제5사단, 제6사단, 제7사단, 제8사단, 제9사단, 제11사단)으로 편성되었다.[33] 동북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미군 3개 사단(제3사단, 제7사단,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1군단(수도사단, 제3사단), 국군 해병연대, 영연방 특공중대(제41해병독립특공대),

미 특수작전부대로 편성되었다.

한편 영연방군을 제외한 유엔군사령부 예하의 각 지상부대는 수정된 미군 편성표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편성표와 장비를 수정한 결과, 보병사단의 병력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4,000명이나 많은 18,850명으로 증강되었고, 장비면에서도 야포와 전차를 증가시키고 대공포와 중박격포 등 기존 사단편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기를 보강하였다. 그러나 작전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무기와 같은 종류였다.[34]

보병사단의 기본화기는 30구경인 M-1소총과 브라우닝 자동소총 그리고 기관총이었고, 또한 45구경 콜트권총, 카빈소총, 45구경 M-3기관총, 60㎜ 및 81㎜ 그리고 4.2인치 박격포는 계속 사용되었다. 로켓발사기는 2.36인치 대신 보다 강력한 3.5인치로 대체되었고, 57㎜ 및 75㎜ 무반동총이 새로 보급되었다. 사단에 배치된 전차는 M-24 샤피와 M4A3 셔먼, M-26 퍼싱과 M-46 패튼이 주류를 이루었다.

사단의 편제된 야포는 105㎜와 155㎜ 곡사포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2문이 증가된 6문으로 편성함으로써 사단 포병은 54문의 105㎜와 18문의 155㎜ 곡사포를 보유하였다. 또한 대공포대대는 쌍열 40㎜ 기관포와 4정의 50㎜ 기관총으로 장비되었고, 일부 대공포대대는 이외에도 90㎜포를 장비하기도 하였다.

미 제8군의 군수지원은 제2군수지원사령부와 제3군수지원사령부가 담당하였다. 11월 23일부로 부산에 설치된 제2군수지원사령부는 항만운영과 보급 및 수송임무를 수행하였고, 제3군수지원사령부는 인천-서울과 진남포-평양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보급지원은 미군의 보급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영연방군은 식량과 석유제품을 제외하고는 자체의 보급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국군의 보급로는 미제 물자가 유통되었던 제3의 보급로가 거의 이용되었고, 식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산 물자의 조달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과 낙후된 기술력으로 인해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35]

2. 작전지역의 특징

1) 서부지역

한반도 북부는 평양-원산 정면의 폭은 270㎞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선은 765㎞로 국경으로 갈수록 정면이 3배로 확대되는 한편 전형적인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지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북부지역의 천연적 지형지물인 청천강은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100㎞ 정도 떨어져 있으며, 개마고원으로부터 거의 평행으로 흘러 서해로 유입된다. 지류인 구룡강(九龍江)과 박천 부근부터 남으로 흐르는 대령강(大寧江)과 더불어 하구평야를 이루는 청천강은 하구의 폭이 약 6㎞이고, 신안주 북동 12㎞ 지점의 구룡강과의 합류점 상류에는 주요 지점에 도섭장이 마련되어 있다. 교량은 신안주에 철교와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고, 안주에 목교가 가설되어 있다.

청천강과 압록강 사이에는 개마고원에서 뻗은 강남산맥과 적유령산맥이 있고, 청천강 남안을 연해 묘향산맥이 병풍처럼 가로놓여 있어 압록강으로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강계와 만포진 지역은 밀림으로 덮인 산악지대로서 과거 항일 유격대가 거점으로 사용한 천연적인 요새이다. 이러한 지형은 방자(防者)에게 유리하고 공자(攻者)에게는 불리하였다.

압록강 중류에 건설된 수풍호는 신의주 상류 6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를 형성하고 있다. 발전량은 전쟁 당시 북한 수요의 대부분과 만주의 중공업용 전력의 30%를 충당함으로써 전략적인 목표물이 되었다.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초반에는 대체로 쾌청하였으나 조석으로 짙은 안개가 활동에 지장을 주었고, 동기(冬期)로 전환된 후반에는 비와 눈이 잦았다. 특히 제6사단이 한·중 국경으로 진격하던 무렵의 북부지역은 강설이 심하였다.

한편 작전지역의 도로망은 청천강 하류지역을 기점으로 압록강을 향해 부채꼴로 발달되어 있으나, 동해안과 연결되는 도로는 강계에서 장진호에 이르는 것이 유일하였다.[36] 주요 도로는 청천강변의 신안주로부터 서해안의 저지대를 따라 압

록강변 신의주를 연결하는 1번 국도가 있고, 또 다른 도로는 신안주에서 청천강 상류를 따라 안주-군우리-희천-강계를 거쳐 국경인 만포진으로 연결되는 65번 도로였다. 나머지 도로는 두 도로 사이에 있는 산맥의 회랑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정주-구성-삭주-청성진간 61번 도로와 박천-온정간 63번 도로, 온정-초산간 3번 도로 등이 있었으며, 초산을 기점으로 동서로 뻗은 도로가 있었다.[37]

2) 동부지역

미 제10군단의 작전지역인 한반도의 동부, 특히 함흥-장진호간의 지형은 해발 2,000m의 준봉으로 이어진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중간에 함경산맥에서 이어지는 부전령산맥이 동서로 가로질러 황초령에서 낭림산맥과 연결된다. 또한 황초령 이북은 우리나라의 지붕이라 불리는 개마고원(蓋馬高原)이 펼쳐져 있고, 이남은 함남지방에서 가장 광대하고 평탄한 지대이다. 태백산맥과 지류인 함경산맥이 해안을 향해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동해쪽에는 큰 강이 없고, 개마고원에서 발원하는 수원(水源)은 북쪽으로 하천을 이루어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합류한다.

지역 내에는 발전을 위해 인공으로 만들어진 장진호와 부전호가 있으며, 장진호는 함흥 북쪽 60㎞ 지점에 위치해 강계로 통하는 도로를 제한하며, 부전호는 그 동쪽 30㎞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38]

작전기간 중의 기상조건은 지역 내에 개마고원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동기가 길고 하기가 짧은 특징을 보여준다. 동절기의 최저기온은 영하 30도 내외이며, 강설량과 강우량은 적은 편이나 기온관계로 적설기가 긴 편이다. 전쟁당시 예년에 비해 겨울이 일찍 닥쳐 영하 45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작전지역 내의 도로망은 지형적 특성상 군사적으로 이용가능한 도로가 함흥을 기점으로 황초령을 넘어 장진호 및 유담리를 거쳐 강계와 자성에 이르는 2등 도로가 있으며, 이원으로부터 풍산을 거쳐 혜산진에 이르는 산간도로가 있다. 철도는 함흥에서 장진호로 연결된 함남선이 있다.[39]

3. 서부지역 작전

1) 덕천 전투(1950. 11. 22~11. 26)

(1) 전투 개요

덕천 전투는 압록강을 도하하여 남하한 중공군과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한 미 제8군이 청천강 일대에서 결전을 전개할 당시 덕천 지역 정면을 담당한 국군 제7사단이 중공군 제39군단과 맞서 1950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개천-비호산전투를 수행한 국군 제7사단은 1950년 11월 14일 군단 작전계획에 따라 월봉산을 점령한 후 덕천지역으로 진격하여 차후 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이 무렵의 전황은 동부전선에서 국군 제1군단이 길주에서 청진과 혜산진으로, 미 제10군단이 갑산-삼수로 진격하고 있었고,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에 대항하여 미 제9군단을 투입함으로써 총 3개 군단이 전선을 담당하였다. 이때 국군 제2군단은 영원-덕천지역, 미 제9군단은 구장동-운산-영변간, 미 제1군단은 박천-청천강을 연한 선상에서 각각 중공군을 격퇴하고 소강상태의 전선을 유지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다.

한편 중공군은 서부지역의 제13병단(제38, 제39, 제40, 제42군단)이 1차 공세와 함께 제50군단과 제66군단, 그리고 재편성한 북한군 제1군단으로 증강되었고, 동부지역에서는 중공군 제9병단이 만포진-강계로 진입한 후 예하의 제20군단과 제26군단 그리고 제27군단의 3개 군단과 북한군 제5군단 선두부대가 장진호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양측은 병력을 증강하며 공세를 준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군은 평양-양덕-원산선으로 공격하기 위해 대병력을 전선에 증강하는 한편 유격대를 침투시켜 제2전선의 형성을 기도하였다. 유격부대는 희천지역에서 험준한 산맥을 따라 평강-김화-철원 지역으로 침투한 후 북쪽으로는 영원 동쪽의 산악에서 남쪽으로 뻗은 언진산맥의 남단인 덕양 지역과 남쪽으로는

태백산맥까지 진출하였다.

이들은 전선부대와 함께 대규모의 포위기동과 후방 교란작전으로 38도선 이북의 국군 및 유엔군을 격퇴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북창지역에서 퇴각한 중공군 제42군단 예하의 제124사단, 제125사단, 제126사단과 포병부대는 묘향산-가마봉-백애산(白崖山)을 통한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공세를 준비하는 한편 일부는 괘봉(掛峯)-풍덕산(豊德山)-항곡산(項谷山)을 연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다. 또한 비호산과 덕천 전투에서 피해를 입은 중공군 제38군단 예하의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은 희천지역에서 부대를 재편성 중에 있었으며, 중공군 제40군단은 구장동-운산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투지역 내의 중공군은 각 사단별로 약 1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고, 무기체계는 소련제 소총과 수류탄 등 기본장비와 중기관총, 152㎜ 및 160㎜ 곡사포, 82㎜ 및 120㎜ 박격포 등을 보유하였다. 중공군의 전투편성 및 주요 지휘관은 <표 5-11>과 같다.

한편 서부전선 미 제8군의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은 영원-덕천 지역의 전선을 정비하고 있었다. 우전방인 제8사단은 영원지역을, 좌전방인 제7사단은 덕천지역을 각각 확보하고 있었으며, 예비인 제6사단은 군단사령부와 같이 북창에 있었다.

덕천지역을 점령한 제7사단의 전투정면은 영원 좌측의 대동강안-용문산(龍門山) 우측간의 약 35㎞의 광정면이었다. 사단의 우일선인 제8연대는 풍전리(豊田里)-546고지-신덕리(新德里)를, 좌일선인 제3연대는 안상리(安上里)-장하리(長下里)를 각각 점령하고 있었고, 제5연대는 예비로 서창(西倉)에 위치하였다. 또한 제18포병대대는 사단사령부와 함께 덕천에 위치해 전방연대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때 사단은 차후작전을 위해 영원에서 우현(牛峴)-구장동으로 연하는 도로와 우현에서 신흥리(新興里)로 흐르는 백령천(百嶺川) 선으로 진격을 준비하였다. 이때 좌인접인 미 제2사단도 구장동에서 이 선까지 협동작전으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국군 제7사단은 약 10,000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보유장비는 사단 T/E의 약 90% 수준이었다. 그리고 전투서열 및 지휘관은 다음의 <표 5-11>과 같다.

<표 5-11>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2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7사단장		준장	신상철(申尙澈)	
	제3연대	연 대 장	중령	정 진(鄭 震)	대리
		제1대대장	소령	박준호(朴俊鎬)	
		제2대대장	소령	이재기(李再起)	
		제3대대장	소령	이영길(李永吉)	
	제5연대	연 대 장	대령	박승일(朴昇日)	
		제1대대장	중령	윤천봉(尹千奉)	
		제2대대장	소령	신건선(申健善)	
		제3대대장	소령	김상봉(金相峯)	
	제8연대	연 대 장	대령	김용주(金龍周)	
		제1대대장	소령	양인석(梁麟錫)	
		제2대대장	소령	고한조(高漢祚)	
		제3대대장	소령	박관영(朴寬榮)	
	제18포병대대장		중령	박정호(朴廷鎬)	배속부대
중공군	제38군단	군 단 장		량싱차오(梁興初)	
		제112사단장		장용후이(江擁揮)	
		제113사단장		탕칭산(唐靑山)	
		제114사단장		쥬오중루(翟仲儒)	
	제42군단	군 단 장		우루이린(吳瑞林)	
		제124사단장		쑤커즈(蘇克之)	
		제125사단장		왕파이위안(王排淵)	
		제126사단장		?	

⑵ 전투 경과

유엔군과 국군은 1950년 11월 24일을 기해 일제히 현 접촉선을 돌파해 한·중 국경선을 목표로 진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40]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은 공격개시선을 영원 북쪽의 대동강 상류에서 삼월강거리(三越江巨里)-신흥리간 도로

<상황도 5-1> 덕천전투



및 백령천으로 이동시키고, 삼월강거리를 중심으로 동쪽은 제8사단이 대동강 상류선으로, 서쪽은 제7사단이 백령천으로 진격하며, 공격개시선으로 진출 즉시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명령에 따라 희천지역으로 진격한다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41]

이와 같은 군단의 작전계획에 따라 국군 제7사단장 신상철 준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42]

『① 사단은 1950년 11월 22일 08:00에 2개 연대 병진으로 접촉선에서 북쪽으로 공격을 개시해 군단의 공격개시선(LD)인 삼월강거리-우현-백령천을 연한 선까지 진출한 다음 의명 묘향산-희천을 공격 탈환하려 한다.

② 제3연대는 우현동(덕천 북쪽 17㎞)-용연동간을 점령한다.

③ 제8연대는 하령곡산-사항동(영원 서북쪽 15㎞) 간을 점령한다.

④ 제5연대는 서창에서 덕천으로 이동한 다음 사단 예비대가 되어 전선에 투입할 준비를 갖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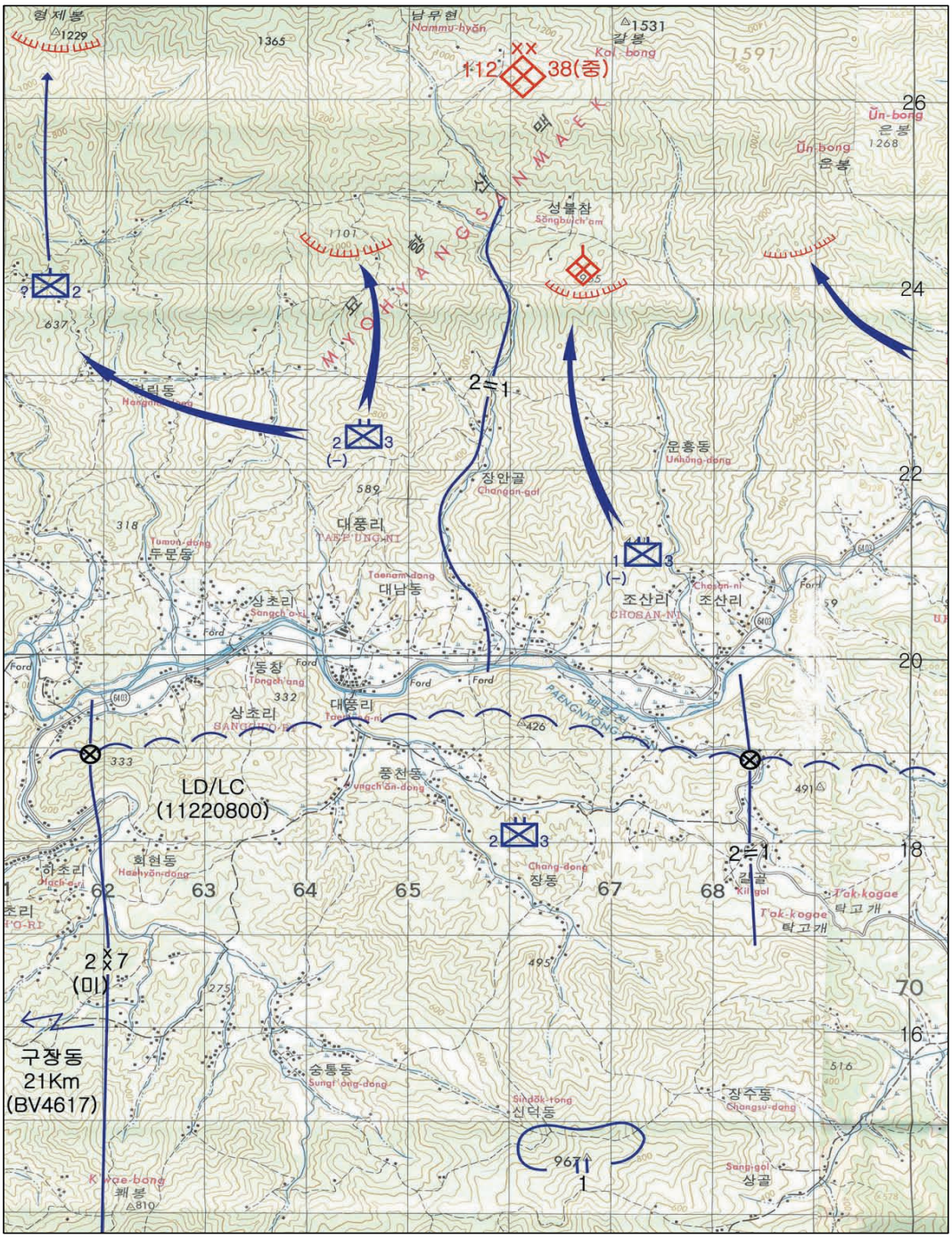
⑤ 제18포병대대는 양개 공격연대를 직접 지원하라.

⑥ 양개 공격연대는 목표를 점령하는 즉시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하라.』

이상과 같은 명령에 따라 공격을 담당한 제3연대는 풍덕산과 괘봉-967고지를, 제8연대는 항곡산(項谷山)을 점령하는 기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단은 작전명령에 따라 11월 22일 08:00에 제8연대를 우일선으로, 제3연대를 좌일선으로 전개하여 일제히 접촉선인 풍전리-신덕리-장하리 선을 돌파한 후 대대규모의 적을 격퇴하고 사단이 지정한 공격개시선으로 진출하였다. 즉, 제8연대는 풍전리-546고지-신덕리를 연한 선에서 공격을 개시해 항곡산을 거쳐 하령곡산-사항산간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3연대는 신덕리-장하리 간에서 공격을 개시해 목표인 우현동(牛賢洞)-용연동(龍淵洞)간의 백령천 남쪽 능선상의 고지점령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사단 예비인 제5연대는 서창에서 사단사령부가 위치한 덕천으로 이동하여 차기작전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제18포병대대는 제8연대와 제3연대 지역에 1개 포대씩을 추진시켜 각 연대를 직접지원하도록 조치하고, 1개 포대는 덕천에서 일반지원 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상황도 5-2> 덕천전투(1)


형제봉
1229
남무현
Nammu-hyŏn
1365
1531
갈봉
Kal-bong
1591
1112
38(중)
26
Ŭn-bong
은봉
1268
Ŭn-bong
은봉
MYOHYANG SAN MAEK
묘향산맥
성불참
Sŏngbuch'am
1101
637
24
2≒1
운흥동
Unhŭng-dong
장안골
Changan-gol
589
22
대풍리
TAEP'UNG-NI
318
Tumun-dong
두문동
Taenam-dong
대남동
삼초리
Sangch'o-ri
조산리
CHOSAN-NI
조산리
Ford
동창
Tongch'ang
332
20
대풍리
삼초리
SANGCHO-RI
426
PAENGNYONG-SAN
333
LD/LC
(11220800)
풍천동
Pungch'ŏn-dong
491
2≒1
18
하초리
Hach'o-ri
회현동
Hoehyŏn-dong
62
63
64
65
67
68
Chang-dong
장동
길골
Kil-gol
Tak-kogae
탁고개
Tak-kogae
탁고개
2X7
(미)
495
70
16
구장동
21Km
(BV4617)
275
숭통동
Sungt'ong-dong
516
Sindŏk-tong
신덕동
장주동
Changju-dong
967
1
Kwae-bong
쾌봉
△810
Sang-gol
상골

한편 이와 같이 상황이 전개되자, 사단은 다음날 적정파악을 위한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적정을 확인해 본 결과, 사단의 제1단계 목표인 묘향산 일대에 대규모의 중공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에 사단은 11월 24일 10:00를 기해 묘향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43] 사단은 최초 목표인 가마봉(加馬峯)-묘향산 선을 점령한 후 진격을 계속하여 중간목표인 강선봉(降仙峯)-향로봉을 돌파하고 군단의 목표인 희천지역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좌일선의 제3연대는 묘향산 서쪽 능선의 1531고지를 목표로 전진하였고, 우일선의 제8연대는 묘향산 남쪽의 가마봉과 동쪽의 백애산을 향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사단은 깊은 계곡과 가파른 능선으로 이어진 묘향산 일대의 험준한 지세로 인해 공격을 개시한 지 2시간이 경과한 정오 무렵까지도 불과 3㎞ 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3연대와 제8연대가 목표지점에 근접하기도 전에 우현고개를 경계하던 제8연대 수색중대가 중공군 위력수색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사항산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수색중대는 연대 공격축선상의 요지인 우현고개를 선점하기 위해 아침에 진출하였고, 증강된 중대규모의 중공군 위력수색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단의 제1차 공격목표인 1531고지와 가마봉 및 백애산 일대가 중공군이 진지를 편성한 지대로 전방에 중공군 수색대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었다.

13:00경 1531고지 전방으로 진출한 제3연대는 성불참(聖佛站) 계곡에서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좌우로 전개하여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공격이 중단된 상태였다. 약 1시간 후 내창천 계곡으로 진출한 제8연대는 제2대대와 제3대대가 백애산과 가마봉을 목표로 각각 공격에 나섰으나, 목표 탈취에 실패하였다. 계속된 교전에서 목표를 점령하지 못한 사단은 일몰과 함께 도처에서 출몰한 중공군의 반격에 대비하였다.

성불참의 제3연대는 1531고지 남쪽 3㎞의 1101고지와 965고지를 점령하였고, 제8연대는 우현고개와 818고지로 물러나 사주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그리고 사단 예비인 제5연대의 2개 대대는 백령천 남쪽의 탁고개에 추진 배치되어 제3연대와 제8연대간의 공백지대를 경계하라는 사단의 지시를 받았다. 또한 사단 수색중대

는 우인접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지대인 하령곡산 북쪽 계곡에 배치되어 동측방의 방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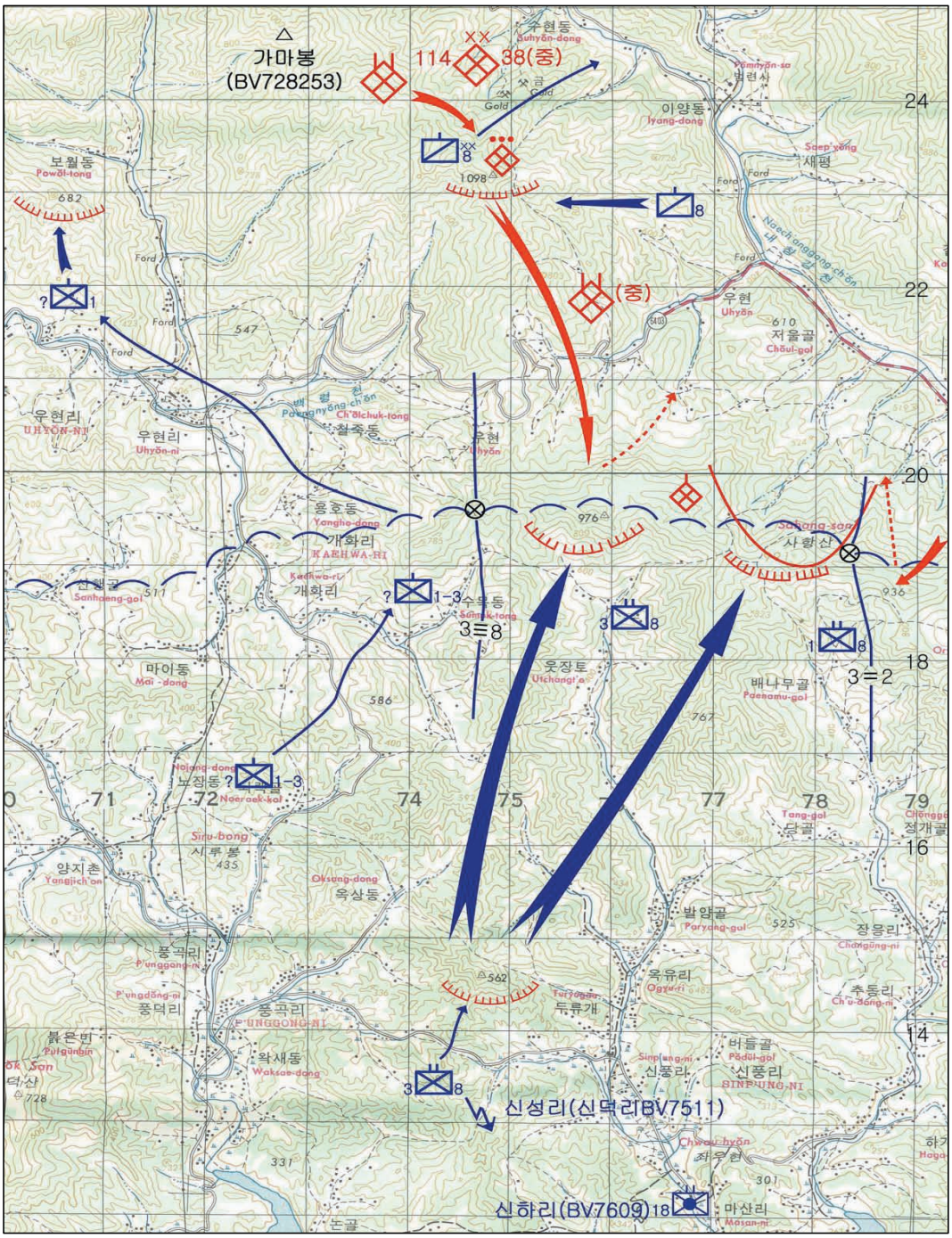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가 16:00에 덕천을 출발하여 탁고개로 진출하고, 사단 수색중대는 차량으로 신평리(新坪里)로 이동한 후 하령곡산 계곡으로 진출하였다. 이때 수색중대는 하령곡산 계곡에서 소대규모의 중공군을 격퇴하고 하령곡산 북서쪽의 금곡령으로 진출하여 측방경계에 임하였다.

11월 25일 제7사단은 2일째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묘향산을 방어중인 중공군 제38군단과 제42군단은 완강하게 저항하였고, 08:00에 개시된 공격이 15:00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전개되고 있었다. 사단 좌우에서 묘향산을 함께 공격한 다른 인접부대들도 유사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형제봉을 공격한 좌인접의 미 제38연대도 목표고지의 7부 능선에서 사격전을 전개하고 있었고, 1139고지를 공격한 우인접의 국군 제8사단 제10연대 또한 고지 중간에 머물고 있었다. 이날 공격에서 더 이상의 전진도 없이 날이 저물자, 제3연대와 제8연대는 공격을 중단하고 야간경계태세로 돌입하였다.

이 무렵 적의 공격징후를 예감한 사단장은 지대내의 유리한 진지를 점령하여 방어태세로 전환할 것을 각 연대장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탁고개에 배치된 제5연대의 2개 대대를 우현동으로 진출시켜 가마봉-덕천간의 접근로를 봉쇄하도록 제5연대장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3연대는 덕천 북서쪽의 장안골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제8연대는 덕천 북동쪽의 사항산을 점령하였으며,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양 연대간의 중간지점인 우현동에 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제5연대 제3대대는 사단 예비로 덕천에서 대기하였고, 사단 수색중대는 금곡령에서 동측방 경계임무를 수행하였다.[44]

한편 사항산 동쪽 능선에서 야간경계태세로 돌입한 제8연대 제2대대장은 전방 709고지에 배치된 경계분대로부터 정면에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출현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창천을 따라 남하하는 적을 확인한 대대는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의 진출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적은 병력이 증강되었고, 포병의 화력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제18포병대대는 내창천 계곡의

<상황도 5-3> 덕천전투(2)


△
가마봉
(BV728253)
114
38(중)
(중)
3≡8
3≡2
신성리(신덕리BV7511)
신하리(BV7609)
우현동
이양동
보월동
우현리
개화리
수월동
사황산
마아동
노정동
양지촌
풍곡리
풍덕리
옥상동
옥유리
두류개
신풍리
마산리
저울골
배나무골
밭양골
장을리
추동리
정개골
왁새동
버들골
682
547
976
1098
562
586
767
936
610
525
435
728
331
301
24
22
20
18
16
14
71
72
74
75
77
78
79

중공군 밀집지대에 대한 제압사격을 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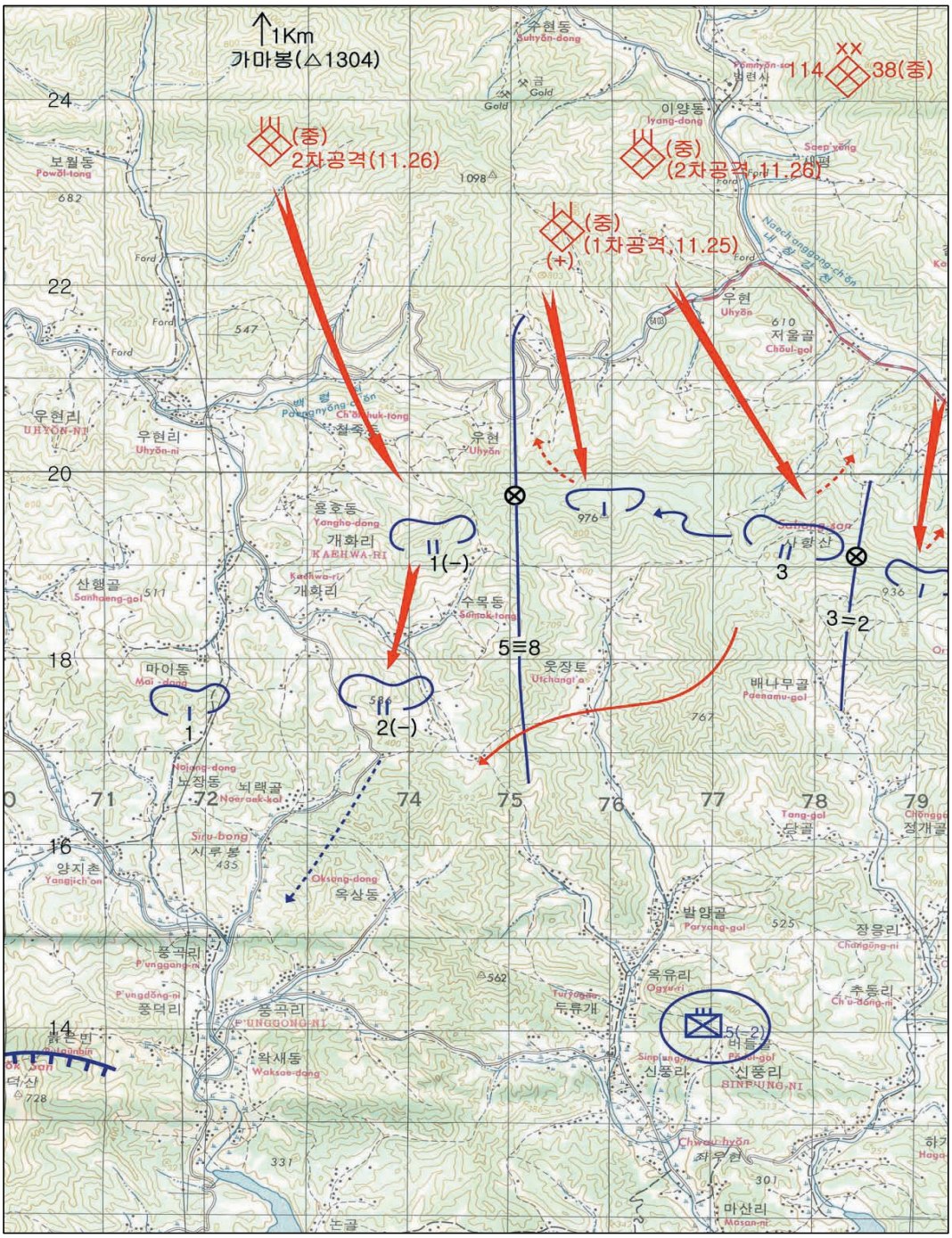
이와 같이 전황이 전개되는 동안 우현고개 일대에 또 다른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21:00경 우현고개에 대대규모의 중공군이 출현하여 제8연대 제3대대와 교전이 전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사단의 우일선인 제8연대 지역에서 사격전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하령곡산 북서쪽의 금곡령 일대에 배치되어 있던 사단 수색중대가 22:00경 연대규모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지대인 하령곡산 계곡은 전황이 격화되며 공백지대로 변하였고, 이를 간파한 중공군 제42군단이 이 지역을 이용해 사단의 배후로 침투를 기도함으로써 수적으로 열세인 수색중대가 밀릴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군단은 국군 제7사단의 예비대가 1개 대대인 점을 감안해 군단 예비대로 북창(北倉)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6사단 제2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출동명령을 받은 제6사단 제2연대는 군단장의 지시대로 하령곡산 남쪽의 풍전리(豊田里)를 봉쇄하기 위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2연대가 풍전리에 도착하기 전에 중공군 선두부대가 먼저 풍전리를 통과해 풍상리로 전진하고 있었고, 제8연대는 전방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격퇴하기 위해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여 다음날인 11월 26일 02:00에 이르자 중공군은 대규모의 병력으로 반격을 개시하였다. 묘향산 일대에 대기하고 있던 중공군 제38군단과 제42군단은 구장동 정면의 미 제2사단과 덕천지역의 국군 제7사단을 공격하였다. 특히 국군 제7사단 정면의 중공군 제42군단은 사단 우일선인 제8연대 진지 정면에 집중공격을 가하는 동시에 우측의 국군 제8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지대를 돌파한 후 후방으로 침투함으로써 덕천 동측방이 위기에 처하였다.[45]

사항산에서 격전을 전개하던 제8연대는 중공군 2개 연대의 집중공격으로 제2대대 진지가 돌파되었고 분산된 병력은 대나무골까지 후퇴하였으나, 다시 배후로부터 적의 기습을 받아 혼란이 야기되었다. 피아가 혼재된 채 육박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제3대대의 진지가 와해되어 분산병력이 대나무골로 밀어닥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지휘체계가 마비된 제8연대는 각개약진으로 사항산 계곡

<상황도 5-4> 덕천전투(3)


1Km
가마봉(△1304)
(종)
2차공격(11.26)
(중)
(2차공격,11.26)
(중)
(1차공격,11.25)
(+)
114
38(중)
1(-)
2(-)
5≡8
3
3=2
5(-2)
우현동
보월동
이양동
우현리
개화리
수목동
웃장토
마아동
노정동
뇌랙골
시루봉
양지촌
옥상동
풍덕리
풍곡리
왁새동
덕산
옥유리
두류개
신풍리
마산리
우현
저울골
배나무골
밤양골
장등리
추동리
당골
정개골
산행골
논골

을 탈출하여 4㎞ 후방의 추동리(秋洞里)로 후퇴하였다.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병력을 집결시키던 제8연대는 다시 배후로 침투한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이는 사단 동측방의 하령곡산 계곡에서 수색중대 진지를 유린한 적이 배후로 침투해 하가동 고개를 점령한 후 추동리에서 집결중인 연대를 기습한 것이었다. 전방과 후방으로부터 동시공격을 받고 퇴로가 차단된 제8연대는 부득이 산길을 따라 서쪽의 신풍리(新豊里) 방면으로 철수하였다.

사항산의 제8연대 진지가 돌파된 후, 연대 좌측의 제5연대(-)는 우현과 976고지에서 쇄도한 중공군의 측면공격을 받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04:00경 덕천 북쪽 10㎞ 지점의 풍덕리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풍덕산 북쪽 능선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방어전을 전개했으나, 적의 인해전술에 밀려 덕천 방면으로 분산 철수하였다.

이 무렵 대대규모의 중공군은 사단 수색중대의 방어선을 돌파한 후 중대의 후미를 따라 대동강안으로 침투하여 덕천의 사단사령부를 기습하는 한편 덕천 후방의 주요 도로를 차단하였다. 사단장은 긴급조치로 사령부를 덕천 북쪽의 고지로 이동시킨 후 사령부의 경비임무를 사단 예비대인 제5연대 제3대대에 지시하였다. 긴급출동한 제3대대가 1시간여의 교전 끝에 사령부 주변으로 침투한 중공군을 격퇴하고 경계를 강화하였으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였다.

일선 연대와의 통신두절로 전방의 상황파악이 불가능한 가운데, 덕천읍은 물론 사면의 통로와 고지마다 중공군의 신호탄만이 교차하였다. 잠시 후, 병력과 화력의 보강을 완료한 적은 덕천 시가지에 박격포격을 집중하며 주변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후방통로가 차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사령부를 포함한 덕천지역의 부대들을 북창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심하고 제5연대 제3대대장에게 퇴로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

제3대대가 돌파작전을 개시해 덕천 남쪽 2㎞ 지점의 제남리(濟南里)에서 중공군의 차단진지를 격파하고 퇴로를 확보하자, 사단사령부를 비롯한 직할중대와 제18포병대대 B포대가 덕천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제3대대가 철수한 후 중공군이 다시 덕천 일원의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전방에서 철수중인 부대들의 퇴로가 차단

<상황도 5-5> 덕천전투(4)


113 38(중)
341 114(중)
(2차공격,11.26)
(중)
(1차공격,11.25)
(중)
(2차공격,11.26)
후방차단
덕천으로 철수
덕천으로 철수(11.26)
영창리
대현동
내창리
송산리
거문동
송하리
장선동
금곡덕산
오룡동
송창
송하리
장응리
하가동
풍전리
운룡동
이봉동
숭례동
남석골
재고개
거문령
삼소개령
장후령
백애산
고성산
신리산

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하하여 덕천으로 집결하려던 제5연대(-)와 제8연대는 다시 중공군의 기습공격으로 분산되었고, 이후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일부는 북창으로, 나머지는 개천 방면으로 분산탈출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제5연대와 제8연대가 덕천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무렵, 사단의 좌일선인 제3연대는 백령천 북쪽의 방어진지를 유지하고 있었다.[46] 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되고 덕천으로의 퇴로가 차단된 11월 26일 오후에 사단의 상황을 판단한 연대장은 철수를 결정하고 퇴로가 차단된 덕천 대신 우군부대 지역인 구장동을 택하였다. 연대장의 진두지휘로 백령천 계곡을 따라 철수를 개시한 연대는 일몰을 앞둔 시점에 형제봉(兄弟峰) 남쪽에서 미 제38연대와 합류하였고, 미 제2사단장의 승인을 얻어 구장동 전투에 참가하였다.

한편 이런 상황을 파악한 국군 제2군단장은 전투력이 온전한 제3연대는 미 제2사단과의 합동작전을 실시하고, 국군 제7사단은 순천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 제7사단장은 군단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47]

『① 사단은 순천으로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한다.
② 사단 예비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덕천지역에 있는 사단의 기동로를 확보하면서 북창을 경유하여 순천으로 이동하라.
③ 제5연대와 제8연대, 제18포병대대 및 기타 직할부대는 예비대의 후미를 따라 순천으로 이동하라.』

명령에 따라 제5연대 제3대대는 정상적인 공격대형으로 전개한 후 강력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북창-순천 방면으로 향하였고, 덕천에서 지원하던 1개 포대도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아울러 제5연대 및 제8연대의 일부 집결 병력과 전방에 추진된 2개 포대 및 기타 병력도 무질서하게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때 사단을 포위하고 있던 중공군이 이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전방으로부터 추격하는 적과 합세함으로써 병력은 분산된 채 순천으로 철수하였다.

(3) 전투 결과

사단 정면에서 공격을 저지하던 중공군 제42군단은 전투가 종료된 후 희천지역으로 복귀하여 부대 재편에 착수하였다. 또한 천연적인 지형과 밀림을 이용해 공격하던 중공군 제38군단은 인해전술과 침투전술로 덕천지역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서부전선의 유엔군과 국군을 포위할 목적으로 덕천에서 개천으로 공격방향을 전환함과 동시에 일부 병력은 북창을 경유 순천으로 남진하였다. 이후 중공군은 덕천지역에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 11월 하순 무렵에는 순천-맹산 선까지 진출한 후 계속하여 남진을 도모하였다.

반면에 국군 제7사단은 순천에서 부대를 정비한 후, 적의 계속적인 압력에 따른 불리한 전황으로 인해 축차적인 지연작전을 전개하면서 12월 2일 승호리(勝湖里)에 집결하였다. 또한 미 제2사단에 배속된 제3연대는 미 제38연대와 합동으로 11월 28일부터 구장동에서 지연작전을 전개하며 개천-순천-평양-승호리로 철수하였다. 이후 국군 제7사단은 평양 대동강선 방어작전을 위해 사령부를 승호리에 설치하는 한편 제5연대와 제8연대는 화천리(貨泉里)에, 제3연대와 제18포병대대는 승호리 부근에서 차기작전을 준비하였다.

2) 영원-맹산 전투(1950. 11. 23~11. 27)

(1) 전투 개요

영원-맹산 전투는 압록강을 도하하여 남하한 중공군과 크리스마스 공세를 시작한 미 제8군이 청천강 일대에서 결전을 벌일 당시 미 제8군의 우익을 담당한 국군 제8사단이 묘향산 동측방의 영원과 맹산 지역에서 중공군 제42군단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방어전투이다.

국군과 유엔군이 한·중 국경을 향해 총공격을 단행할 때, 국군 제2군단의 우일선인 제8사단은 전방지휘소를 원리(院里)에 개설하고 만포진을 향해 북진하였다. 10월말 사단의 선봉인 제10연대가 희천에 진출하고 주력이 구장동(球場洞)에

도달할 무렵, 전황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급변하였다. 군단 좌일선인 제6사단이 온정리와 초산에서 중공군 제40군단의 공격을 받고 철수한 것이었다. 사단은 주력을 구장동 부근에 전개하고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10연대를 급파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11월 1일 원리로 집결하였다.

북진을 재개하기 위해 미 제8군은 국군 제1군단에 배속된 제7사단을 국군 제2군단으로 복귀시켜 제8사단과 함께 영원(寧遠)-덕천-개천을 연한 선에서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전력을 재정비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2군단은 11월초부터 중순까지 비호산-월봉산(月峯山)-덕천 일대에서 적의 공세를 꺾고 11월 22일에 제8사단은 영원에서, 제7사단은 덕천에서 각각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48]

한편 제1차 공세를 통해 유엔군의 공세를 저지한 적은 원산-평양 선으로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준비에 착수하였다. 제9병단은 미 제10군단 정면인 장진호 부근으로 진출하기 위해 강계지역에서 공격집단을 형성하고 있었고, 제13병단은 예하의 6개 군단을 미 제8군 정면에 집결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군은 새로 편성된 제2전선부대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의 전투지경선인 산악지대를 따라 양덕부근까지 진출하여 전선교란과 보급로 차단 등을 획책하고 있었다.[49]

한편 전투지역 내의 적은 낭림산맥과 묘향산맥을 따라 잠입한 중공군 제42군단으로 예하에 제124, 제125, 제126사단의 3개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포병부대의 지원을 받고 있던 적은 대체로 편제상의 인원인 약 30,000명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였고, 산악에서의 유격전과 심리전에 능숙하였다. 제42군단장은 우루이린(吳瑞林)이고 예하의 각 사단장은 미상이다.

중공군 제42군단은 11월초 지휘소를 황처령(黃處嶺)에 개설하고 예하의 제125사단은 신읍(新邑) 방면, 제126사단은 영원과 덕천 북쪽의 대동강 상류 일대, 그리고 예비인 제124사단은 구창리(舊倉里)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야간을 이용한 산악기동으로 기도비닉하고 공격을 준비하던 적은 11월 20일 백암산(1,105고지)-소쾌산(1,543고지)-백애산(1,524고지)을 연하는 주요 거점에 주력을 분산 전개하는 한편 경계부대는 강을 건너 덕인봉(德仁峯)-신기봉(神奇峯)-송평리(松坪里) 선에 배치하였다.

한편 영원 북쪽의 산악지대로 진격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국군 제8사단은 덕천 지역을 담당한 국군 제7사단이 비호산 전투로 진출이 지연되자, 제8사단 예비인 제10연대를 맹산(孟山)으로 진출시켰다. 그리고 맹산-영원간 기동로는 물론 산악 거점에 대한 수색을 통해 적정을 파악한 후 영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예하의 제16연대와 제21연대는 덕천에서 적의 좌측을 견제하는 한편 제7사단이 진출하는 즉시 제21연대는 영원으로, 제16연대는 진지교대 후 맹산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맹산으로 이동한 제10연대는 영원까지 수색전을 전개하던 중, 11월 20일과 21일 영원 남쪽의 두류령(頭留嶺)과 석모리(石慕里) 일대에서 적을 격퇴하고 영원으로 진출하였다.[50] 그리고 제21연대는 11월 20일 제7사단 선두부대와 진지교대 후 영원까지 수색을 실시한 끝에 문곡리(文谷里)에 도달하였으며, 제16연대는 마지막으로 제7사단 제3연대와 진지를 교대하고 맹산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총공격 개시일을 앞둔 국군 제2군단은 현재 예하부대의 진출선이 지형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군단의 최초 공격개시선을 덕인봉-신기봉-삼월강거리-백령천 선으로 설정해 일선 사단에 23일까지 군단 공격개시선(LD)를 점령하도록 명령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전방지휘소를 맹산에 개설하고 제21연대를 우일선에, 제10연대를 좌일선에 각각 배치하는 한편 제16연대를 예비로 보유하여 군단의 공격개시선으로 진출시키기로 계획하였다.

당시 사단은 예속 및 배속부대를 포함해 10,000명에 달하는 병력과 함께 대체로 T/E상의 장비를 갖추었으며, 제50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하였다. 사단의 전투서열 및 지휘관은 다음의 <표 5-12>와 같다.

(2) 전투 경과

청천강 선에서 전력을 정비하고 있던 국군 제2군단은 육군본부로부터 1950년 11월 24일을 기해 한·중 국경을 향해 총공격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훈령을 접수하였다.[51] 이에 따라 군단은 영원으로 진출한 국군 제8사단을 우전방, 덕천에 위치한 국군 제7사단을 좌전방 그리고 국군 제6사단을 예비로 편성하고, 영원-덕천

<표 5-1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2군단	군단장		소장	유재흥(劉載興)	
	제8사단장		준장	이성가(李成佳)	
	제10연대	연대장	대령	고근홍(高根弘)	
		제1대대장	소령	박치옥(朴致玉)	
		제2대대장	대위	김동회(金同會)	
		제3대대장	소령	김순기(金淳基)	
	제16연대	연대장	중령	유의준(兪義濬)	
		제1대대장	중령	최우근(崔宇根)	
		제2대대장	소령	이관희(李寬熙)	
		제3대대장	대위	최창환(崔昌煥)	
	제21연대	연대장	중령	김영로(金永魯)	
		제1대대장	소령	김형근(金亨根)	
		제2대대장	소령	박서권(朴瑞權)	
		제3대대장	소령	원병한(元秉漢)	
	제50포병대대장		소령	박병주(朴秉柱)	배속부대

간의 현 전선을 덕인봉-신기봉-삼월강거리-백령천을 연한 전진거점까지 진출시키기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 제9군단과 함께 진격하여 유원진(柔院鎭)-희천 선을 확보한 후 국경선으로 진격하기로 하였다.

국군 제2군단은 예하 제8사단의 공격축선을 영원 북쪽 5~10㎞의 덕인봉-신기봉-삼월강거리 선에서 최초에 공격을 개시한 후 묘향산맥을 넘어 유원진으로 진격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축선은 지형이 험준하고 수림이 울창해 적정파악이 미진하였고, 미 제10군단과의 전투지경선이었다. 이런 여건을 고려한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공격개시선으로 부대를 진출시켜 백암산(白岩山)과 소쾌산(小快山)을 점령한 후 유원진으로 진격하기 위한 작전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52]

『① 사단은 현 전선을 덕인봉-신기산-삼월강거리 선까지 진출시켜 공격준비를 갖춘 다음 계속 유원진을 목표로 진격한다.

② 제21연대는 우일선으로 전개하여 덕인봉-신기산간의 양감령(兩坎嶺)을 점령한 다음 계속 백암산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라.

<상황도 5-6> 영원전투



125 42
373
374
808
1
(11.24)
1 10 (11.26)
칠담이 Chiltami
한대동 Handae-dong
대흥동 Taehung-dong
남석골 Namsok-kol
군단 통제선
85
당골 Tang-gol
하령곡산 Haryonggok-san
87
88
89
90
92
93
삼월강거리 Samwol-kanggori
TAEDONG GANG 대동강
1 10 (11.24)
7 8
숭례동
하령곡고개 Haryonggok-kogae
이봉동
운룡동 Ullyong-dong
직동 Chik-tong
풍전리 P'UNGJON-NI
거문동 Komun-dong
1 10
화순리 Hwasun-ni
마남골 Manam-gol
도평리 Top'yong-ni
도평리 TOP'YONG-NI
2 10
3 10
송평리 Songp'yong-ni
관평 Kwanp'yong
송월덕산 Songwoltok-san
3 10
374 125
신리산 Sili-san
10 8
21 8
Yongwon 영원
2 10
50 (-1)
문곡리 MUNGONG-NI
풍상리 P'ungsang-ni
1 10
삼참
하참
산리 Sil-li
지전고개 Chijon-kogae
두별우 Tubyoru
포탄
문흥리 Munhung-ni
문곡리 Mun'gong-ni
송항리 Songhang-ni
독장고개 Tokchang-kogae
용흥 Yonghung
용석리 YONGSONG-NI
금산 Kum-san
성와 Songwa
장산리 CHANGSAN-NI
대양리 Taeyang-ni
신덕리 Sindong-ni
남로봉 Namno-bong
산대리 SINDAE-RI
새골령 Saegol-lyong
기대리 KIDAE-RI
대상리
18
16
14
12
10

③ 제10연대는 좌일선으로 전개하여 대동강(상류) 연안을 수색한 다음 도평리(都坪里)와 하령곡산(下嶺谷山) 일대를 점령하고 계속 소쾌산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라.

④ 제16연대는 맹산으로 이동해 1개 대대 병력으로 맹산을 경비토록 하고, 주력(-)은 형제봉과 소가래봉(邵加來峯)간의 진지를 점령하여 사단의 동측방을 경계하라.

⑤ 제50포병대대는 영원에 진지를 점령하고 제1선의 양개 연대를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제10연대에 두라.

⑥ 각 연대는 목표를 점령하면 진지를 구축하고 담당정면에 대한 수색전을 전개하라.』

주력을 영원 부근으로 집결시켜 전투준비를 완료한 국군 제8사단은 작전명령에 따라 11월 23일 08:00를 기해 군단이 지정한 덕인봉-신기봉-삼월강거리 선을 목표로 전 전선에서 진격을 개시하였다. 문곡리(文谷里) 부근에서 진격을 개시한 제21연대는 덕인봉과 신기산 사이의 양감령 일대를 점령하였고, 영원에서 대동강 연안을 따라 진격한 제10연대는 하령곡산 일대의 적을 물리치고 삼월강거리~하령곡산 간의 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16연대는 덕천에서 맹산으로 이동 집결하여 차후작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서부전선의 국군 및 유엔군은 11월 24일 10:00를 기해 전면공격을 단행하였다. 유원진-희천 축선의 국군 제2군단의 우익을 담당한 제8사단은 백암산과 소쾌산의 적을 격퇴하고 낭림산(2014m)과 향라봉(香羅峯, 1724m) 선을 점령한 후 유원진으로 진격할 계획이었다.[53] 사단의 우일선인 제21연대는 백암산을, 제10연대는 소쾌산을 목표로 각각 진격하였다. 양개 연대는 양감령을 넘어 대동강 상류를 건너면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었다.

제21연대가 소양감령에서 공격을 개시하여 2㎞ 전방의 대양감령을 오르던 중대대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저지를 받고 교전에 들어갔다. 덕인봉과 신기산간의 소로로 이어진 고개를 넘으면 백암산이 목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대는 신속하게 대양감령을 넘으려했으나, 중공군이 고지 주변에 진지를 구축한 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었다. 우일선의 제1대대가 대양감령 부근을 점령할 무렵 2개 중대 규모의 중공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이 고개는 덕인봉과 신기봉 간에 있는 유

일한 기동로로서, 지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정면공격을 시도한 제1대대는 정오 무렵까지 적의 진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제1대대의 정면공격을 유지시킨 채, 좌일선인 제3대대의 1개 중대를 신기봉 우측으로 우회시키고 포병대대의 포격지원을 받아 15:00경 대양감령을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계속하여 삼거리 부근까지 진격한 연대는 943고지-902고지 선에서 대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던 중 일몰이 되자, 병력을 대양감령 부근에 집결시켜 제1대대는 덕인봉 뒷면에, 제3대대는 신기산에 방어진지를 편성토록 하고 제2대대는 소양감령 부근에 예비로 대기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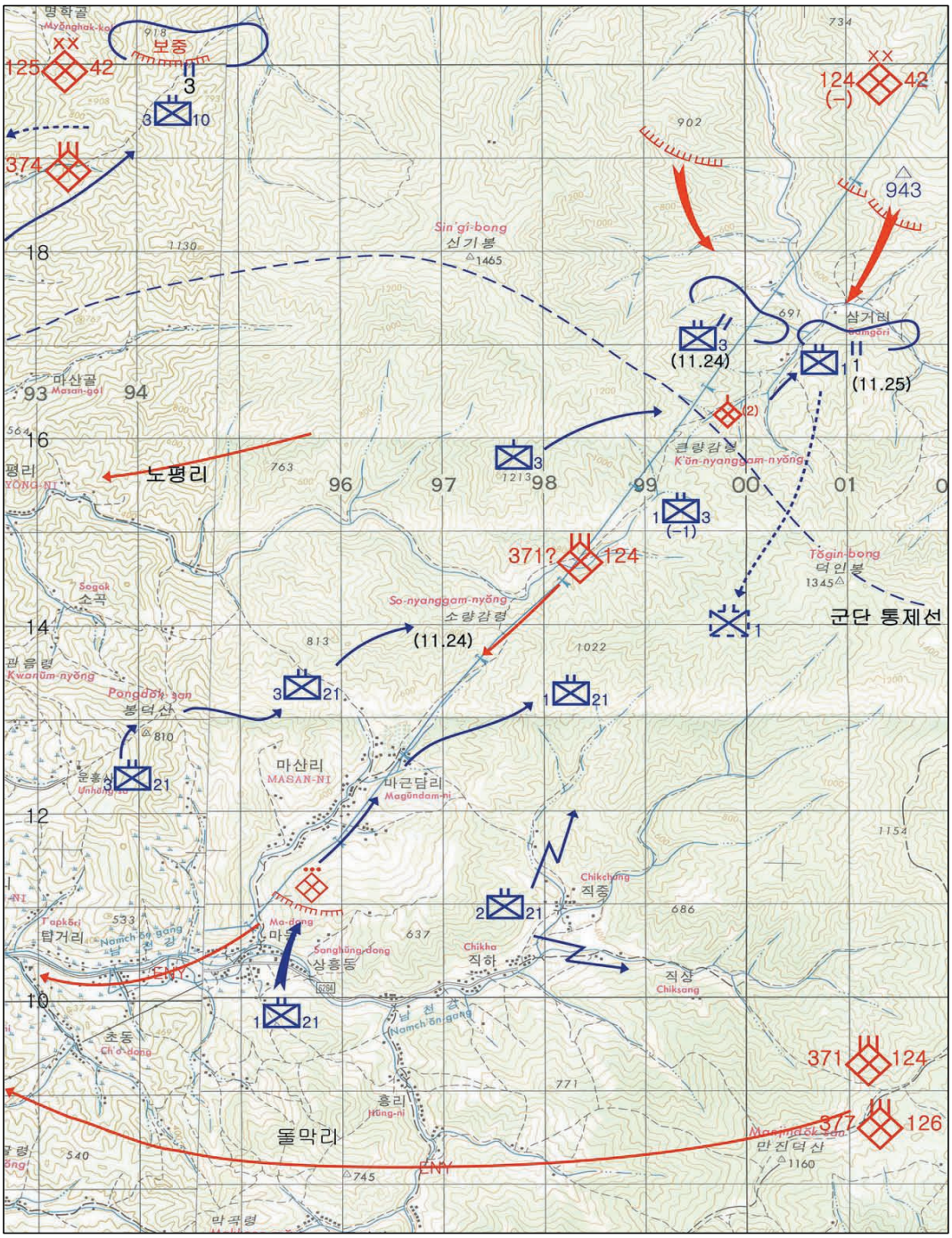
한편 좌일선의 제10연대는 대동강 상류의 연안을 따라 소쾌산을 목표로 진격하였다. 연대의 우일선인 제3대대는 도평리 부근의 진지를 출발해 송평리 동북쪽의 918고지를 과감한 돌격을 반복한 끝에 점령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강된 적이 포격을 강화하여 전방의 845고지를 점령하였으나, 좌일선의 제1대대는 진출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대장은 방어태세로 전환하여 918고지와 생천(生泉) 간에 진지를 확보하고 적의 역습에 대비하였다.

당시 제1대대는 고성산(姑城山) 동남쪽의 1139고지 일대에서 제50포병대대의 포격지원을 받으며 적과 치열한 격전을 반복했으나, 날이 저물어 808고지 일대의 능선으로 후퇴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예비대인 제2대대는 제일선의 전황이 급변하자, 영원 시가지에 대한 경계임무를 사단 수색중대에 인계하고 전투참가를 위해 도평리로 이동하였다.

한편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영원초등학교에서 좌우 일선연대들의 진격상황을 보고받은 후 맹산에 위치한 제16연대의 상황도 확인하였다. 전날 측방경계를 위해 용덕리(龍德里)까지 진출한 연대는 형제봉-초평리-성제리(成齊里)-943고지 선의 점령을 제1대대와 제2대대에 지시하였다. 이 지역은 적의 집결지인 신읍에서 맹산으로 우회가 가능한 산간 소로상의 거점으로 피아가 중요시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사단은 이 지역을 선점하여 적의 우회를 저지하려 하였으나, 중공군 제125사단의 일부가 횡천령(橫川嶺)을 넘어 성제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제1대대는 애창천(藹倉川) 동쪽으로 진출해 형제봉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적을

<상황도 5-7> 영원전투(1)


보중
125 42
374
3
3 10
124 (-) 42
902
943
Sin'gi-bong
신기봉
1465
18
1130
3 (11.24)
삼거리
1 1 (11.25)
마산골
Masan-gol
93 94
16
노평리
763
96 97 98 99 00 01
3 1213
1 3 (-1)
371? 124
큰량감령
K'ŭn-nyanggam-nyŏng
Tŏgin-bong
덕인봉
1345
So-nyanggam-nyŏng
소량감령
(11.24)
14
813
1022
군단 통제선
Kwanŭm-nyŏng
관음령
3 21
1 21
Pongdŏk-san
봉덕산
810
운흥동
Unhŭng-dong
마산리
MASAN-NI
마근담리
Magŭndam-ni
12
1154
Chikchung
직중
2 21
686
Tapkŏri
탑거리
533
Namch'ŏn-gang
637
Ma-dong
Sanghŭng-dong
상흥동
Chikha
직하
직상
Chiksang
ENY
10
1 21
초동
Ch'o-dong
Namch'ŏn-gang
371 124
771
흥리
Hŭng-ni
377 126
돌막리
Maejindŏk-san
만진덕산
1160
540
745
ENY
막곡령

2시간에 걸친 공격 끝에 격퇴하고 형제봉을 점령하였다. 이 사이 애창천 서쪽으로 진출한 제2대대는 성제리 부근의 좌우 능선을 선점한 대규모의 적을 만나 포위될 상황에 이르렀다. 대대장은 즉시 병력을 광리(廣里) 부근의 728고지로 후퇴시킨 후 제1대대와 연계한 진지를 점령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총공세 이틀째인 11월 25일 사단은 좌일선의 제10연대와 우일선의 제21연대가 각각 소쾌산과 백암산을 목표로 전진하였다. 백암산을 향해 진격을 시작한 제21연대는 전날 격전을 치른 943고지-902고지 선에서 대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적은 병력을 증강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때 좌일선의 제10연대 또한 대규모의 적을 맞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사단장은 각 연대에 현 위치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토록 지시하였다. 이후 일몰과 더불어 공세로 이전한 적은 삼거리(三巨里)로부터 대양감령을 넘기 위해 파상적인 공격을 반복하였으나, 연대의 완강한 저항에 막혀 실패하였다.

제10연대는 적을 배후에서 기습하기 위해 제1대대를 1139고지 동쪽으로 우회시켰다. 진격을 개시한 제1대대는 낙포리(樂浦里) 서남쪽 2㎞의 866고지 일대에서 연대규모의 적과 치열한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적은 제7사단과의 전투지경선인 대동강 상류 연안에 대병력을 집결시켜 연대의 공격제일선에 역습을 가함으로써 일대 격전이 전개되었다.

연대장은 송평리(松坪里) 부근의 제3대대에 측면공격을 그리고 제50포병대대에 집중포격을 지시하였으나, 적은 병력을 증강하여 반격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제1대대 진지의 일부가 와해되었다. 상황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제10연대장에게 공격을 중지할 것과 대동강 유역에 대한 점령을 명령하였다. 지형의 불리함과 병력의 열세를 감안한 연대장은 마산골-삼월강거리간 대동강 남안으로 부대를 철수시켜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와 같이 제10연대의 공격이 실패한 원인은 연대의 역부족 이외에도 인달산-백애산-고성산-1139고지로 이어진 험준한 산악지역에 적이 사단규모의 병력과 대규모의 포병화력을 배치해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고 완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사단의 전방연대가 공격을 전개하는 동안 중공군 제42군단은 주력으로 이

를 저지하고, 1개 사단을 동부 산악지대로 우회시켜 20㎞ 후방의 맹산지역을 위협하였다. 11월 25일 13:00경 중공군이 맹산 북동쪽의 애창천 계곡에 출현하여 사단의 배후로 침투하였다. 이때 형제봉-광리 선에서 측면방어에 임하고 있던 제16연대는 망경대령(望京臺嶺, 1166고지)을 우회하여 서림사(西林寺) 부근까지 진출한 대규모의 적과 마주하였다. 적은 맹산을 공격하기 위해 영원 동북쪽의 신읍(新邑)에서 횡천령을 넘은 중공군 제125사단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사단장은 제16연대장에게 현진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군단에 병력과 화력지원, 그리고 전술공군의 근접지원을 긴급 요청하였다. 동시에 제50포병대대장에게 1개 포대를 맹산으로 이동시켜 연대를 지원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단의 미고문관도 이러한 긴급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였다.

제16연대는 서림사-형제봉-광리 선에서 전날에 이어 공방전을 전개하였다. 형제봉-광리 선을 방어하던 제2대대는 애창천을 따라 접근해온 연대규모의 적으로부터, 서림사-형제봉간을 방어하던 연대 주력은 망경대령을 넘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제2대대는 사정권내로 접근한 적을 향해 대대의 모든 화력을 집중하였으나, 적의 계속된 파상공격으로 진지의 일부가 돌파되고 역포위되었다. 이 순간 유엔공군의 전폭기편대가 애창천 계곡을 선회하며 공중공격을 가하자 이 틈을 이용해 대대는 소가래봉(邵加來峰)으로 탈출하였다. 이후 제2대대는 광리 정면에 저지진지를 급편하고 형제봉의 제1대대와 연결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다.

망경대령 계곡에 출현한 중공군은 연대의 애창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맹산에 대한 공격을 기도하였다. 연대장은 제1대대(-1)를 서림사 남쪽의 두미산(頭尾山)으로 이동시켜 적을 저지하도록 명령하였다. 두미산을 향해 초항령(草項嶺)을 넘은 대대(-1)는 17:00경 풍림리(豊林里)에서 적과 교전하였다. 대대는 교전 30분 만에 일부 병력이 분산되면서 초항령으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일몰과 함께 형제봉을 유린한 적은 소가래봉의 제2대대 진지를 공격하였다.

중공군은 송암리의 연대지휘소를 기습하여 혼란을 야기시킨 후 상화리에 설치된 저지진지를 공격하였다. 연대가 교전 중 후방의 연대본부가 피습되고 맹산이 위협을 받자, 사단장은 맹산강과 애창천이 합류되는 소요동(消遙洞)으로 제16연대

<상황도 5-8> 영원전투(2)


횡천령(BV0913)
376
126
372
124
유승리
YUSŬNG-NI
성재리
Sŏngjae-ri
청담골
Ch'ŏngdam-gol
372
124
2
16
소가래봉(BV945004)
으로 탈출
Aech'ang-ch'ŏn
애창천
Chŏmch'ŏn-ni
점천리
Pindwi
빈뒤
Kwangsang
광상
Pangha
방하
683
Pangsang
방상
Manggyŏngdae-ryŏng
망경대령
940
1176
은프리
UNP'O-RI
Aech'ang
애창
506
2
16
Ch'anggang-ni
창리
형제봉
Hyŏngjebong
△837
2
16
(11.25)
초황령
Ch'ohang-nyŏng
초항
Ch'ohang
두미산
Tumisan
927
(11.25)
378
126
풍림리
P'UNGNIM-NI
평풍
P'yŏngp'ung
863
△1029
필봉동
P'ilbong-dong
중흥리
CHUNGHŬNG-NI
Pyŏngp'ung-dong
병풍동
Tangmok-dong
당목동
692
Sansŏng-ni
산성리
Subang-dong
수방동
Kŏmun-dong
거문동
Unhŭng-ni
운흥리
632
평동
P'yŏng-dong
02
00
98
96
94
92
04
126
(-1)
Kami'u-bong
감투봉
△1311
1124

를 철수시켜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에 긴급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54] 이는 사단 주력을 영원 지역에서 모두 철수시켜 동측방에서 침투하는 중공군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사단장은 맹산의 사단지휘소를 맹산과 북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신석리(新石里)로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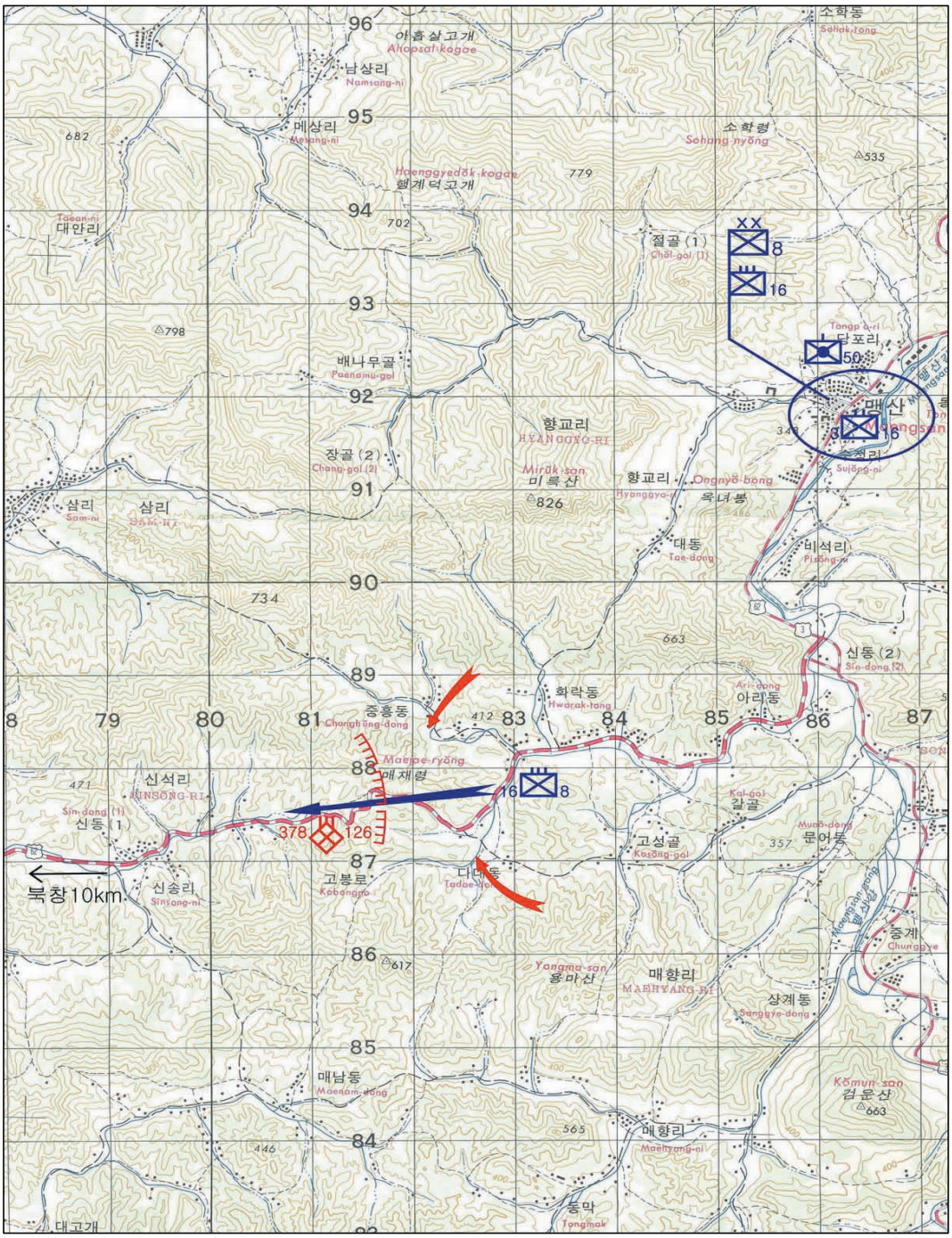
그러나 제7사단과의 전투지경선 일대를 통해 침투한 중공군은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들을 공격하였다. 05:00경 대양감령에서 영원으로 철수를 시작한 제21연대는 마동 삼거리에서 적의 기습을 받고 돌파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규모로 분산 철수하였다. 제10연대도 1시간 전에 분산된 채 적지를 탈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 규모의 적은 영원지역의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사단 주력을 포위공격하고 있었다. 제21연대장은 08:00경 두류령(頭留嶺)에서 병력 수습에 나섰으나, 도중에 다시 적의 기습을 받자 장병들은 맹산 방면으로 무조건 달려 나갔다. 이로써 영원-맹산간 동측방 통로를 확보하려던 사단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한편 중공군 제42군단은 청천강 남쪽으로 전과를 확대하기 위해 맹산-북창(北倉)간 측방도로를 따라 침투하였고, 사단은 11월 26일 정오 무렵에서야 적이 북창을 향해 62번 도로를 따라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단장은 맹산 남쪽 4㎞ 지점의 송계리(松界里)에 나타난 연대규모의 적이 북창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통보를 군단장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사단장은 제16연대에 신속히 매재령(梅載嶺)으로 철수해 후속부대를 엄호하도록 지시하였다. 명령에 따라 맹산 남쪽 3㎞ 지점의 화리(花里) 부근에서 병력을 수습한 제16연대장은 매재령으로 기동하여 일대를 점령하고 후속부대를 엄호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개를 선점한 적이 고개를 오르던 연대를 공격함으로써 연대는 맹산 방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군단장은 제6사단 제7연대와 제19연대를 북창 주변에 배치해 전방 철수부대의 엄호를 지시하는 한편 11월 27일 01:00에 제7사단은 순천으로, 제8사단은 가창으로 각각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55] 이에 제8사단은 04:00를 기해 지휘소를 가창 서남쪽 5㎞ 지점의 월포리(月浦里)로 이동시키는 동시에

<상황도 5-9> 영원전투(3)


북창10km
대고개
신송리
신동(1)
신석리
삼리
대안리
남상리
메상리
배나무골
장골(2)
중흥동
고봉로
매재령
다대동
화락동
향교리
미륵산
826
절골(1)
당포리
맹산
비석리
대동
신동(2)
아리동
문어동
고성골
갈골
매향리
상계동
중계
검운산
663
용마산
617
동막
8
16
50
126
378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56]

『① 사단은 가창으로 철수한 다음 전력을 정비한다.
② 제16연대는 맹산과 북창간의 기동로를 확보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후속부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에 제21연대의 후미를 따라 가창으로 집결하라.
③ 제21연대는 신속히 가창으로 집결하라.
④ 제10연대는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가능한 모든 기동로를 이용하여 가창으로 집결하라.』

11월 27일 08:00 맹산 남쪽 3㎞ 지점의 화리(花里)에서 매재령(梅載嶺)을 향해 다시 공격을 개시한 제16연대는 적의 차단진지를 돌파한 후 북창을 경유해 오후 무렵 가창으로 철수하였고, 제10연대와 제21연대의 병력을 분산하여 산길로 북창과 가창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⑶ 전투 결과

사단을 공격한 중공군 제42군단은 영원-맹산지역 전투의 종료와 함께 부대 정비에 착수해 예하 제125사단은 맹산에서, 제126사단은 영원에서 각각 재편성하였다. 11월 말의 공세 당시 제125사단은 곡산(谷山) 부근의 대각산(大角山)까지 진출하였고, 일부 병력은 덕천으로 공격한 중공군 제38군단과 합세하여 북창과 가창을 공격하였다. 국군 제8사단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인명 및 장비의 피해를 입은 중공군은 예비병력을 투입하여 서부지역으로 전선확장을 도모하였다. 이는 미제1군단과 제9군단을 배후에서 포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평양을 탈환하려는 계획이었다.

한편 언진산맥에 거점을 둔 북한군 제2전선부대도 이에 호응해 양덕-곡산 일대에서 보급로를 파괴하고 전선교란을 획책하였고, 일부는 마식령산맥을 넘어 평강(平康)-김화 지역까지 침투하고 있었다. 적의 이러한 기도는 국군 및 유엔군의 지연전으로 인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 12월초 청천강을 도하

한 중공군 제13병단의 주력과 합류하여 신창-순천(順川) 선까지 진출한 후 평양-원산 선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영원-맹산지역 전투를 수행한 국군 제8사단은 제6사단과의 임무를 교대하고 군단 예비로 가창에서 부대수습에 착수하였다. 북창까지 침입한 중공군은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와 북창 서남쪽에서 공방전을 전개하였고, 맹산에서 평창리(平昌里)로 남하한 적의 일부가 성천-평양 선에 대한 공격을 기도함에 따라 사단은 평양-원산선 방어계획의 일환으로 11월 30일 지휘소를 강동(江東)으로 이전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사단교육대를 제10연대에 편입시켜 재편성한 후 강동과 삼등(三登)간의 흑령(黑嶺) 일대를 점령하였고, 제16연대는 강동 서북쪽의 지석리(芝石里) 부근에서 방어태세에 돌입하였으며, 강동에 위치한 제21연대도 예비대로 차기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57] 적의 공세에 방어로 전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이 무렵 38도선에서의 방어작전을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사단은 삼등-율리-수안-신계-시변리를 거쳐 12월 5일 토산까지 철수하여 부대를 정비하였다.

3) 구장동 전투(1950. 11. 24~11. 28)

(1) 전투 개요

구장동 전투는 크리스마스 공세 당시 미 제8군의 중앙을 담당한 미 제9군단의 우익인 미 제2사단이 목표로 부여된 희천을 점령하기 위해 진격을 개시하자, 태평지역 일대에 집결해 있던 중공군 제40군단이 반격을 가함으로써 1950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에 걸쳐 전개된 전투이다.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한·중 국경선까지 진출하여 전쟁을 종결하려던 미 제8군의 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1월 15일로 계획된 크리스마스 반격작전의 일환으로 군의 전선정비와 함께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방의 미 제9군단을 전선으로 조기 북상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미 제8군은 북한군 제2전선부대의 후방지역 교란으로 인한 군수지원의

부진과 이들의 섬멸작전에 따른 미 제9군단의 이동이 지연됨에 따라 예정된 공격 개시일을 전 병력의 전선투입이 가능한 11월 24일로 연기하였다. 11월 22일 군수 지원이 다소 원활해지고 미 제9군단의 병력 전개가 완료되면서 미 제8군은 11월 23일에 미 제1군단과 제9군단, 국군 제2군단에 반격을 위한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공격명령을 대기하도록 하였다.

한편 압록강을 도하한 중공군 제39군단과 제40군단 그리고 제66군단은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 제1군단과 함께 10월 25일을 기해 제1차 공세를 단행하여 청천강 북쪽의 교두보를 공략한 후 남침을 계속하여 11월 5일 정주-박천-영변까지 진출하였다. 이후 전 전선을 압박한 적은 11월 5일 24:00를 기해 작전을 일단 중단하고 후속부대의 증강과 손실된 전력을 보강하였다.

이때 유엔군 지휘부는 중공군의 전세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나, 중공군은 11월 중순에 제39군단과 제50군단이 전선에 도착하고 기존 군단의 정비가 완료되면서 제2차 공세를 위한 다음과 같은 계획에 착수하였다.[58)]

『① 공격개시일을 11월 25일로 정하며, 제66군단으로 정주-구성으로부터 박천-신안주를 향해 진격한다.

② 청천강 북안에 잔류한 유엔군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유엔군의 주방어선이 될 청천강 연안을 공격목표로 하여 이를 점령하고 전선을 남으로 확대하여 제2전선부대와의 연계하에 38도선 이북을 확보한다.

③ 제1차 공세 당시의 유엔군의 항공력을 비롯한 모든 화력이 우세함에 대응하여 공격집단을 편성하고 전 전선의 정찰과 대공방어를 강화한다.

④ 인해전술과 산악작전을 병행하고 주간공격보다 야간공격을 중시한다.

⑤ 적에 대해서는 병력을 우선 우회시켜 배후를 차단하는 동시에 잠복과 기습을 병행하여 정면에서는 인해전술로서 반복되는 공격을 가하여 포위로서 섬멸토록 한다.』

작전계획에 따라 적은 정주-태천-운산-영원 북쪽에 공격집단을 편성하고, 제2전선의 게릴라의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부를 맹산-양덕 방면으로 잠입시켰다.

한편 전선 최남단에서 북한군 패잔병에 대한 섬멸작전을 전개한 미 제9군단은

10월 23일 전선으로의 북상명령을 받았다. 군단은 예하 사단에 명령을 하달하여 현 임무를 신편된 국군 제3군단에 인계한 후 북상하여 사령부를 순천에 개설하는 한편 미 제2사단을 군우리(軍隅里)로 진출시켰다. 그러나 미 제25사단은 유엔군의 주보급로인 평강지역에 대한 대게릴라전이 지연되자, 11월 19일 배속된 터키여단과 함께 장단으로 이동한 후 북상하여 11월 22일 청천강에 도착하였다.

<표 5-13>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군	제9군단장		소장	John B. Coulter	
	제2사단	사 단 장	소장	Lawrence B. Keiser	
		제9연대장	대령	Charles C. Sloane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터키군	터키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배속부대
중공군	제40군단	군 단 장		원위청(溫玉成)	
		제118사단장		덩 웨(鄧 岳)	
		제119사단장		남센원(?)	
		제120사단장		쉬궈푸(徐國夫)	

⑵ 전투 경과

중공군과 재편성을 완료한 북한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맥아더 원수는 적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한·중 국경선으로 진격하여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미 제8군에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950년 11월 14일 각 군단에 다음과 같은 작전계획을 하달하였다.[59]

『① 반격을 단행하여 적을 한·중 국경선 밖으로 축출하고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한다. 이를 위한 첩경으로 작전에 참가한 모든 전투부대가 언제나 상호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적과 대치함에 있어서도 부단한 주의력과 공격력을 포장(包藏)할 것이다.

② 공격개시선은 인처리(仁處里)-희천-온정-운산-태천을 거쳐 서해안에 연한 납청정(納淸亭)에 이르는 선으로 한다.

③ 전선배치 및 기동계획은 국군 제2군단(제6, 제7, 제8사단)은 우측에 위치하여 희천-영변-덕천 선을 경유한 후 만포진과 강계를 목표로, 미 제9군단(제2, 제25사단)을 중앙에서 운산-온정을 경유한 다음 초산-벽동의 압록강 연변으로, 그리고 미 제1군단(국군 제1사단, 미 제24사단)은 좌측에 위치하여 태천-안주를 거쳐 압록강 하류 일대를 각각 탈환 확보한다. 또한 미 제1기병사단과 새로 도착한 터키여단은 당초 예비로 후방경계를 수행하다가 전황에 따라 전선부대를 지원한다. D-Day까지 전선투입부대는 공격준비의 일환으로 위력수색과 지형정찰을 병행한다.』

명령을 받은 미 제9군단은 11월 19일 미 제2사단은 우측에서 온정을 목표로 진격하여 소백두산 동측을 거쳐 초산을 점령하고, 미 제25사단은 좌측에서 소백두산 서측을 경유하여 벽동을 점령하는 기동계획을 하달하였다.

11월 24일 10:00 미 제9군단은 우전방의 미 제2사단이 희천을, 좌전방의 미 제25사단이 운산을 목표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를 우일선에, 제23연대를 중앙에, 그리고 제9연대를 좌일선에 전개하는 동시에 제38연대의 1개 중대를 사단의 예비로 두면서 구장동-온정을 목표로 진격하였다.[60] 제38연대는 백령천(百嶺川)을 넘어 묘향산 서쪽 능선상의 형제봉을 공격하였고, 제9연대는 청천강 연안을 따라 65번 도로 축선으로 진격하였다.

전차와 포병 등 지원부대는 대부분 기동로가 양호한 제9연대를 후속하여 구장동-희천간 도로를 따라 진출하였고, 사단 예비인 제23연대는 15㎞ 후방의 원리(院里)에서 대기하였다. 또한 11월 23일 미 제17포병대대가 미 제1기병사단에서 미 제2사단으로 배속 전환됨으로써 사단은 기본편제상의 4개 포병대대 외에 1개 중포대대를 보강하였으며, 그 중 A포대가 구장동으로 진출해 제9연대를 직접 지원하였다.

미 제8군 예하 부대들의 전면공격과 함께 미 제2사단 제9연대는 구장동 정면의 청천강 연안에서 3개 대대 병진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65번 도로를 포함한 청천강 우측은 제1대대를, 청천강 서쪽을 포함한 연대 중앙은 제2대대를, 그리고 상

흥리(上興里)-양지동(陽地洞)간 좌측 끝에는 제3대대(-)를 각각 전개시켜 희천을 향해 진출하였다.

광활한 작전지역을 담당한 미 제9연대는 첫날의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10㎞를 전진한 끝에 차후 공격의 발판이 되는 백령천 하구에서 이산(耳山) 북쪽의 계곡으로 이어진 구장동 북쪽 지역을 확보하였다. 우일선의 제38연대 또한 적의 경미한 저항을 물리치고 백령천 북쪽 3㎞ 지점으로 진출해 형제봉 공격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61]

11월 25일 09:00에 사단은 어제와 같이 적의 저항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격을 재개했으나, 백령천 북쪽 도로변의 감제고지인 일명 '중공군의 모자고지'라 불리는 219고지에서 저지되었다. 미 제9연대의 선두인 B중대가 65번 도로를 따라 신흥역을 통과해 219고지로 향하던 중, 적의 기관총 사격을 받았다. 즉각 응사에 나서 1시간 동안 교전을 벌였으나 고지 탈취에 실패한 중대는 적의 기관총을 제압하기 위해 M4 중전차포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시계의 제한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적의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으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연대는 4대의 전차와 2대의 장갑차를 동원하여 7시간 동안 고지점령을 시도하였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과 집중적인 박격포 사격으로 실패하였다. 이는 65번 도로를 통해 전진하려던 연대의 진격을 중단시켰고, 우측방 미 제38연대의 형제봉 공격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리고 일몰과 함께 중공군의 국부적인 공격이 시작됨으로써 사단은 방어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 다음날 02:00를 기해 중공군은 반격을 개시하였다. 청천강변의 예광탄을 신호로 남동쪽의 미 제38연대 지역에서 요란한 포성이 울려 퍼졌고, 도처에서 교전이 전개되었다. 30분이 경과할 무렵 B중대는 배후로부터 기습공격을 받고 수류탄전을 전개하였다. 적으로부터 파상공격을 받은 중대는 무수한 사생자가 발생하였으나, 09:30경 유엔공군의 전폭기편대가 출현해 고지 일대의 적을 공격하였다. 중대는 이 틈을 이용해 진지를 보강하는 한편 연대와의 연락을 통해 철수명령을 받고 11월 27일 정오 무렵에 철수하였다.

한편 219고지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미 제2사단은 작전지역의 전후

방 모두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묘향산과 청천강 계곡 그리고 태평지역 일대에 은거하였던 중공군 제40군단이 11월 26일 새벽을 기해 일제히 반격을 가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을 후방으로 침투시켜 중대 및 대대지휘소를 기습함으로써 사단은 혼란상황에 빠져들었다.

미 제9연대 좌측의 제3대대는 각 중대가 배후 기습을 받아 절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중앙의 제2대대는 적에게 완전 포위되어 있었으며, 청천강 동쪽의 제1대대도 대대본부와 A중대가 기습을 받고 지휘체제가 마비되어 219고지의 B중대를 지원할 수 없었다. 사단의 우전방 제38연대 또한 구장동 동측방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연대규모의 중공군과 격전을 치르고 있었다. 이처럼 사단은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공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다.[62]

상황을 보고받은 미 제9군단장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은 구장동을 중심으로 저지진지를 급편하여 청천강 통로를 봉쇄하라고 미 제2사단장에게 명령하였다. 사단장은 11월 26일 05:00에 제9연대를 청천강 좌측에, 제38연대를 우측에 배치하고 정면에는 예비인 제23연대의 2개 대대를 배치해 구장동 방어선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구장동 북쪽 3㎞ 지점에 위치한 미 제61포병대대(105㎜)와 미 제17포병대대 A포대(8인치)를 구장동 남쪽의 원참(院站) 부근으로 이동시켜 구장동 방어전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06:00경부터 사단의 병력과 차량은 영하의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청천강 계곡을 분주히 움직였으며, 특히 유일한 기동로인 65번 도로상에는 포차와 구급 및 보급차량, 그리고 전차 등으로 혼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부대기동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좌전방 제9연대는 청천강 서안의 제2대대 지역으로 연대 주력을 집결시키려 했으나, 전날 저녁부터 적의 포위공격을 받아 제1대대와 제3대대가 분산 철수함으로써 방어진지 구축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때 기선을 장악한 중공군이 증강된 대대규모로 제2대대를 집중 공격하였다. 요성동(耀城洞) 뒷산에서 사주경계 중이던 제2대대는 중공군의 기습적인 배후 공격에 당황하였다. 긴급히 사격요청을 받은 미 제17포병대대 A포대는 제압사격을 개시하였고, 제2대대도 최후저지사격으로 2시간 동안 격전을 벌였다. 주간공격을

실시한 중공군은 포격과 사격에 의해 과반수의 병력피해를 입고 후퇴하였다.

이후 연대는 전 병력을 집결시켜 재편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실제 증강된 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았고, 차후작전을 위해서 병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진지마저 구장동과 영변간 64번 도로 북쪽에 위치해 배후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에 연대장은 이런 상황을 사단에 보고해 승인을 받고 도로 남쪽 3㎞ 지점으로 이동해 새로운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한편 일몰이 다가올 무렵 덕천지역에서 중공군에게 유린된 국군 제7사단 예하의 제3연대가 제38연대 지역으로 철수하였다. 제3연대장으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미 제38연대장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하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받았다. 이후 국군 제3연대는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12월 2일 승호리(勝湖里)에서 본대와 합류할 때까지 함께 행동하였다.

미 제9군단장은 덕천지역이 중공군에 피탈되자, 11월 26일 14:00부로 군단 예비인 터키 여단을 덕천으로 진출시켜 군단의 우측방을 엄호하도록 명령하였다.[63] 터키 여단은 16:00에 군우리(軍隅里)를 출발해 차량기동으로 덕천으로 향하던 중 군우리 동쪽 18㎞ 지점의 와원(瓦院)에 이르러 일몰을 맞자 적의 야습에 대비한 급편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대기하였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중공군 제40군단은 구장동을 방어중인 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병력이 구장동 정면의 미 제23연대(-) 진지를 강타하였고, 순식간에 연대지휘소와 본부중대가 격파되었다. 미 제61포병대대 진지도 유린되어 포를 유기한 채 후퇴하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사단장은 미 제17포병대대 A포대에 원참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청천강 서쪽의 미 제9연대 제2대대도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진지가 돌파되었고, 적의 포격으로 통신마저 두절되었다. 가까스로 위급상황을 보고받은 연대장은 청천강을 건너 구장동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하였다. 대대의 철수가 시작되자, 이를 간파한 중공군이 포격을 가하며 추격하였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 청천강을 건넌 대대원들은 간단하게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65번 도로를 통해 남으로 향하였다.

11월 27일 제2대대는 원참 북쪽 1㎞ 지점의 미 제23연대 방어진지에 도달하였다. 제2대대는 원참에 도착해 이미 집결해 부대재편을 실시하고 있던 미 제9연대 병력과 합류하였고, 청천강 서안으로 진출해 미 제23연대 진지와 연결된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미 제25사단과 연결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다시 청천강을 건넌 연대는 연결을 시도하기 위해 미 제24연대를 찾았으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자, 미 제2사단장의 승인하에 원대로 복귀하였다.

한편 미 제38연대와 국군 제3연대는 구장동 전선이 와해될 무렵 동쪽으로 12~15㎞ 떨어진 백령천 부근에서 새로운 중공군과 교전에 들어갔다. 이들은 밤새 중공군의 공격을 받고 네 차례의 돌파위기를 극복한 후,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장하리(長下里)와 양지리(陽地里)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3:00를 기해 용문산(龍門山)을 점령 방어하고, 여일령(麗日嶺)으로 진출한 터키 여단과 접촉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따라 용문산으로 향하던 중 중공군의 배후 기습을 받았다.

낮에 소강상태를 보이던 중공군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서서히 기동을 시작하였다. 중공군 제38군단과 제40군단은 미 제2사단의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후방으로 침투하고 있었으나,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주요도로 주변에만 배치된 미군들은 험한 산길로 우회하는 중공군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음날 01:00경 미 제23연대 제1대대는 진지 후방으로부터 적의 기습을 받고 대대본부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때 원참 북쪽의 제2대대와 제3대대 진지도 돌파되었다.

청천강 계곡으로 주공을 지향한 중공군 제40군단이 전방과 후방에서 협공을 가함으로써 미 제23연대 진지는 또다시 중공군에 유린되었다. 장병들은 남쪽으로 탈출을 시도하였고, 연대장은 원리(院里)에서 병력을 수습하여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한편 청천강 서쪽의 미 제9연대도 이 무렵 중공군의 배후 공격을 받고 20여 분간의 교전 끝에 청천강변으로 후퇴하였다. 이들은 청천강을 도하해 자작(自作)으로 후퇴한 후 다시 원리에서 미 제23연대 병력과 합류하여 미 제23연대장의 통제하에 동쪽 고지에 배치되었으며, 이후 미 제23연대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64] 이 무렵 우일선의 제38연대는 하운곡참에서 철수하여 비호산을 점령하고 있었다.

(3) 전투 결과

1950년 12월 1일과 2일 양일간 유엔군이 양덕-성천-순천-숙천을 연하는 평양방어선을 형성하자, 중공군은 계속적으로 전개하던 강력한 공세를 일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월 3일 중공군은 중부 산악지대를 비롯한 성천-순천지구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 후 평양 점령을 기도하였다. 서부전선의 이와 같은 움직임과 함께 동부전선의 중공군 제9병단도 함흥-원산 일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장진호 부근에서 미 제1해병사단에 대한 포위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양방어선을 고수하려던 유엔군은 전 전선에 걸친 부대간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많은 부대가 장시일에 걸친 계속된 전투에서 전력이 급감하여 재정비가 요구되었으며, 항공지원도 기상조건의 악화로 기대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38도선으로 철수를 단행하였다.

이 무렵 미 제25사단은 상팔리-숙천간에서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중 연속된 전투로 인해 피로한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부대정비를 위해 순천 남쪽의 어중리로 철수하였다. 12월 4일 미 제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평양철수가 단행되자, 사단은 어중리 일대의 방어진지를 정리하고 12월 5일부터 국군 제1사단 및 영국군 제29여단과 연계하여 평양 북쪽에서 철수부대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엔군 주력의 평양철수가 완료되자, 사단은 계속 후위부대로서 엄호임무를 전담하여 12월 8일 적의 신속한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중화(中和)를 고수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의 주저항선은 신계-곡산-수안-중화-겸이포를 연하는 선이었다. 이후 사단은 38도선을 경유하여 김포반도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한 후 터키여단과 함께 안성으로 이동하여 차후의 작전에 대비하였다.

4) 와원 전투(1950. 11. 27~11. 30)

(1) 전투 개요

와원 전투는 터키 제1여단이 6·25전쟁에 참전한 후 중공군과 교전을 전개한

최초의 전투이며, 미 제9군단이 청천강 계곡에서 결전을 벌일 때 군단의 예비로 있던 터키 제1여단이 1950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군우리 동쪽의 와원과 신립리, 봉명리 일대에서 미 제8군의 동측방을 방어하며 지연전을 전개한 전투이다.

유엔군의 일부로 1950년 10월 17일 한국에 도착한 터키여단은 도착 직후 미군 편제상의 신장비를 수령하여 사격술 훈련을 완료하였다. 미 제9군단에 배속되어 대전-대구간 보급로 경비와 장단(長湍)지역 게릴라 소탕전 등 후방에서 한국의 지형을 익히며 실전훈련을 겸한 작전임무를 수행한 터키여단은 미 제8군의 계획에 따라 11월 22일 군우리로 북상하여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터키여단은 3개의 보병대대와 1개 포병대대, 기타 지원부대 등으로 편성되었고, 장교 259명과 부사관 395명, 사병 4,419명 등 총 5,073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65] 군우리에 도착한 여단은 군단의 예비로 대기하라는 미 제9군단의 명령에 따라 포병대대만 미 제25사단 지역으로 진출시켜 화력을 증원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부대 정비에 착수하였다.[66]

<표 5-14>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군	제9군단장		소장	John B. Coulter	
터키군	제1여단	여 단 장	준장	Tahsin Yazici	
		부여단장	대령	Celal Dora	
		참 모 장	중령	Selahattin Tokay	
		제1대대장	소령	Imadetin Kuranel	
		제2대대장	소령	Mithat Ulunnlu	전사
		제3대대장	소령	Lutfu Bilgin	전사
		포병대대장	소령	Tahsin Kurtay	
중공군	제40군단	군 단 장		원위청(溫玉成)	
		제118사단장		덩 웨(鄧 岳)	
		제119사단장		남센원(?)	
		제120사단장		쉬궈푸(徐國夫)	

한편 작전지역 중 진출 목표지점인 와원(瓦院)은 개천-덕천간 가장 험준하고 높은 여일령(麗日嶺)의 남쪽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의 월봉산(月峰山)과 남쪽의 백탑산(白塔山) 사이에 위치한 산촌이다. 개천 동쪽 20㎞ 지점에 위치한 와원 동쪽의 여일령을 넘어서면 덕천 평야를 한 눈에 조망이 가능한 천연적인 지형지물이다.

⑵ 전투 경과

가) 와원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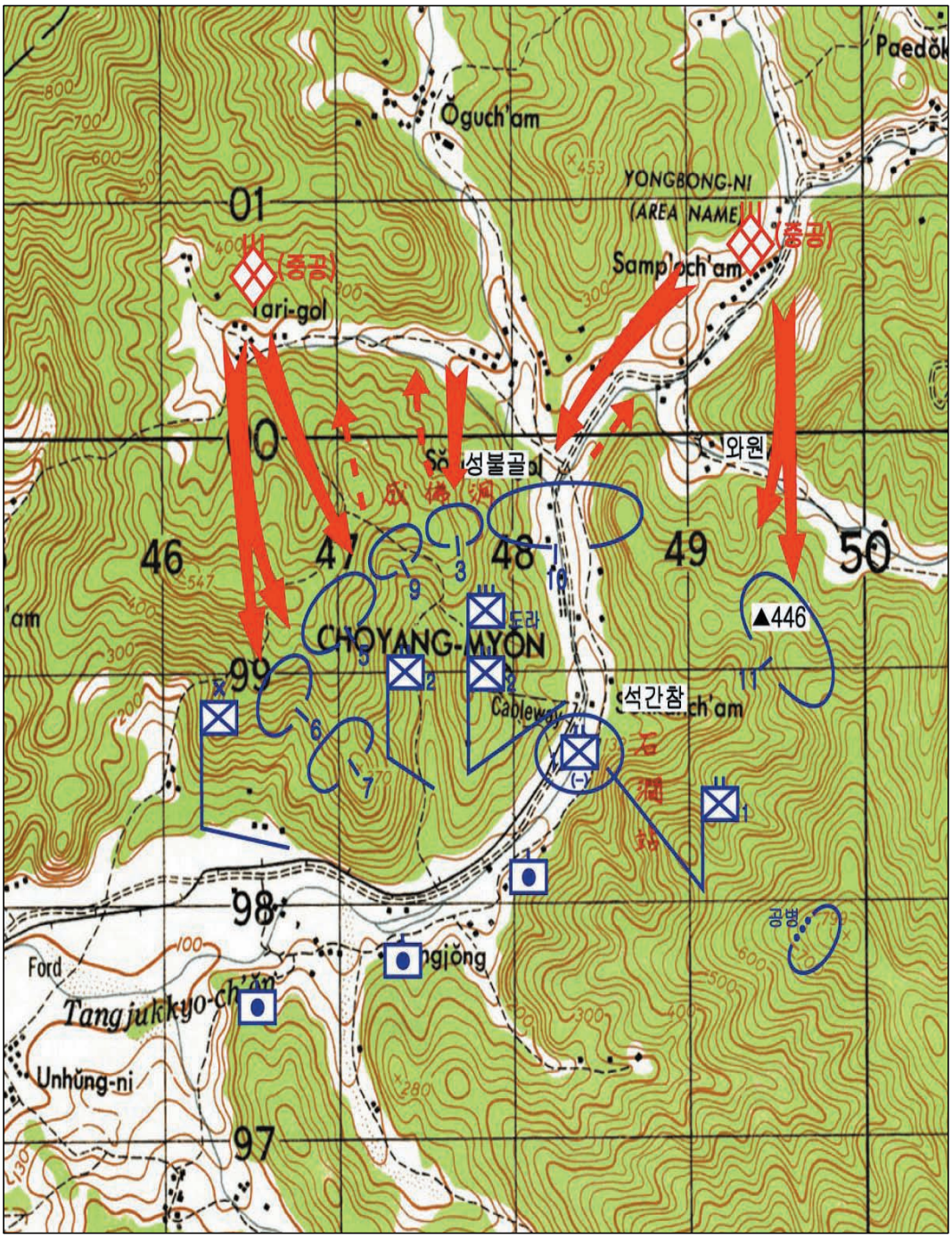
미 제8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1950년 11월 24일 10:00에 단행된 후 중공군의 반격으로 11월 26일 국군 제2군단의 전선이 와해되는 혼란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출동명령을 받은 터키여단장은 14:40에 미 제9군단사령부에 도착하였다.

군단장 콜터(John B. Coulter) 소장은 덕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군 제2군단과 중공군의 전황을 여단장 야치시(Tahsin Yazici) 준장에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곧장 덕천으로 진출해 덕천을 탈환한 후 덕천 북서쪽의 미 제2사단 제38연대와 연결하여 덕천-장상리(長上里)간 도로를 확보하도록 명령하였다.[67] 또한 터키여단 포병대대의 원대 복귀와 덕천 진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여단장은 신속한 이동을 위한 차량 지원과 함께 공격작전을 위한 전차의 지원을 건의하여 미 전차 1개 소대와 차량 50대의 지원을 군단장으로부터 약속받은 후 덕천 지역으로의 진출을 예하 부대에 지시하였다.

사령부로 복귀한 여단장은 군단의 지원차량이 20:00에 도착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여단이 보유한 차량을 최대한 가동하도록 명령하고, 공격작전을 위한 도라 특수임무부대의 편성을 지시하였다. 도라특수임무부대는 부여단장 도라(Celal Dora) 대령의 지휘 아래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주축으로 중박격포중대와 대공포중대의 각 1개 소대 및 공병 1개 소대를 증강하고 정찰소대를 통합하여 편성하였다.

부대 편성을 완료한 여단은 18:00에 정찰대와 제1대대 및 박격포중대로 편성된 제1진이 25대의 차량으로 군우리를 출발하고, 제2대대는 도보행군으로 후속하였다.

<상황도 5-10> 와원전투


Ŏguch'am
YONGBONG-NI
(AREA NAME)
(중공)
(중공)
ari-gol
Samp'och'am
와원
성불골
CHOYANG-MYON
도라
▲446
석간참
Cableway
Ford
Tangjukkyo-ch'ŏn
Unhŭng-ni
01
10
46
47
48
49
50
99
98
97

이때 여단장은 금일 내로 와원(瓦院)에 진출하여 다음날 공격을 준비하도록 도라 대령에게 지시하는 한편 포병대대와 제3대대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공격준비를 위한 집결지로 여일령(麗日嶺)을 선정한 여단은 신속히 이동을 시작하였다. 도보 기동하던 제2대대와 제3대대가 군단지원 차량으로 기동하고, 마지막으로 포병대대와 전차소대가 11월 27일 03:00무렵에 도착함으로써 일부 지원부대를 제외한 여단의 야간행군이 완료되었다.

11월 27일 06:00에 여단은 정찰대와 전차소대를 선두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30분 후에 와원을 출발한 제1대대는 월봉산의 산허리를 깎아 개척해놓은 도로를 따라 14:00경 여일령 정상에 도달하였다. 뒤이어 제3대대와 포병대대가 고갯마루를 넘고 있었다. 이때 군단은 새로운 명령, 즉 덕천 북서쪽 장상리(長上里) 부근에 연대규모의 중공군이 출현하였으므로, 터키여단은 덕천 진출을 중지하고 여일령에 저지진지를 구축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68]

여단장은 즉시 진지선정에 착수하여 여일령 남쪽의 백탑산과 547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기로 결심하고 부대의 철수를 지시하였다. 곧이어 여일령을 넘은 부대들이 철수를 개시하였고, 아직 고개를 넘지 않은 일부는 와원 서쪽의 성불곡 좌측과 우측 능선에 엄호진지를 점령하였다. 여단의 철수는 험준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상황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가장 멀리 진출했던 제1대대의 경우는 집결지인 석간참(石間站)에 11월 28일 01:30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때 먼저 철수한 제2대대와 제3대대는 446고지-성불골-547고지 일대에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한편 제1대대를 후속하여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정찰대는 여일령 서쪽 계곡의 당죽교 부근에서 중공군의 기습을 받았다. 전방고지에 갑자기 나타난 중공군은 기관총과 박격포 사격을 가해왔고, 당황한 정찰대원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상자가 속출하였다. 03:30경 구원요청을 받은 여단은 제11중대를 긴급 출동시켜 1시간 후 성불골 남쪽의 제10중대 진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적이 진출하여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므로, 제11중대는 446고지에 저지진지를 급편하였다. 이후 여단이 전면적으로 적의 위협에 놓이자, 도라 대령은 제3대대의

예비중대를 서쪽 능선으로 배치해 서측방 진지를 강화하고 증강된 공병소대를 백탑산 부근의 799고지에 추진 배치해 남동쪽으로부터의 적 침투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정찰대를 기습한 중공군이 도로를 따라 제10중대 진지 정면으로 밀려들었고, 20분 후에는 주진지로 접근하였다. 이에 제10중대는 포병대대의 탄막사격과 함께 일제사격으로 적을 격퇴하였다. 06:00경 물러났던 적이 대대규모로 증강되어 3면에서 공격을 개시함으로써 여단의 전 진지가 위협을 받았다. 중공군의 파상공격에도 불구하고 터키 장병들이 사격과 수류탄 투척으로 완강히 저항하자,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후퇴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11월 28일 14:00를 기해 좌단의 제2대대 진지에 대한 제3차 공격을 감행하였다. 날이 밝을 무렵까지 전개된 이 전투에서 외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여단은 고전 끝에 547고지를 상실하고 500m 남쪽으로 물러나 저지진지를 점령하였다. 30분 후 상황을 지켜본 도라 대령은 적의 후방침투와 현 지형의 불리를 언급하며 유리한 지역으로 후퇴할 것을 여단장에 건의하였다. 이에 좌측에 위치한 미 제2사단과의 공백지역을 통해 적이 침투하고 있다고 판단한 여단장은 5㎞ 후방의 신립리(新立里)로 철수하여 새로운 저지진지의 편성을 결정하였다.

여단장은 15:00에 철수명령을 하달하면서, 여단의 철수엄호를 위해 군우리의 교육중대에 출동을 지시하였다. 명령에 따라 철수를 준비하고 있던 여단은 30분 후 군단장의 구두명령을 받았다. 군단장의 명령은 여단은 철수중인 미 제2사단과 연락을 유지하며 998고지와 백탑산을 연하는 저지선을 확보하라는 내용으로서, 현 위치에서의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퇴로가 차단될 위기에 처한 여단장은 신립리까지 독자적으로 철수하게 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립리 일대에 엄호진지를 점령한 교육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17:30에 여단의 철수작전이 개시되었다. 제2포대를 제외한 포병대대가 선두로 출발하였고, 이어 제2대대가 뒤를 따르며 계획된 순서로 와원을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제2대대가 진지를 이탈할 무렵 이를 간파한 중공군이 박격포 사격을 가하며 추격을 시작하자, 잔류접촉분견대인 제1중대가 상당한 손실을 입으며 접촉을 유지한 끝에 여단의 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나) 신립리 및 봉명리 전투

신립리로 철수한 여단은 11월 28일 23:30경 제1대대를 개천-덕천간 도로 남쪽의 용복참 일대에, 제2대대를 용복참 북쪽의 760고지능선 하단부에 배치하고, 그리고 예비인 제3대대를 입석골에 집결시켰다. 또한 포병대대를 당죽교천 개울가에, 박격포중대를 주진지로부터 500m 후방에 위치시키는 한편 여단지휘소는 봉명리(鳳鳴里)에 개설하였다.

이와 같이 진지편성을 완료한 여단은 이날 자정을 기해 중공군의 기습공격을 받았다. 여단진지 후방으로 침투한 적은 피난민으로 가장해 침투한 북한군과 합세하여 여단의 취약지역을 공격하였다. 터키 병사들은 포차 등 차량에 올라타 봉명리 방향으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약 1시간 후, 적의 신립리 기습상황을 포병대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여단장은 주진지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유무선 통화를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에 여단장은 일부의 철수 건의를 무시하고 봉명리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해 전방대대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차기작전을 계획하기로 결정하였다. 여단장의 명령에 따라 집결된 150명의 병력은 중대를 편성해 봉명리 동쪽 야산에 새로운 저지진지를 편성하였다. 여단장은 계속 병력을 수습해 제3대대를 주축으로 봉명리의 저지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신립리에 고립된 여단 주력을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1월 29일 06:00경 여단장은 여단 주력이 현재까지 격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적이 여단의 증원을 막기 위해 입석골에 차단진지를 점령하고 있다는 정찰대의 보고를 받았다. 2시간 후 제1대대(-1)가 계곡을 따라 철수해 봉명리에 도착하자, 여단장은 신속히 재편성을 지시하였다. 이때 여단이 미 제2사단에 배속되어 예하 제38연대 1개 대대와 전차 1개 중대가 여단을 증원하기 위해 봉명리로 출발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10:00경 미 제38연대 제3대대가 전차중대와 함께 봉명리에 도착하자, 부대정비를 마친 제3대대와 제2교육중대는 미 전차중대의 지원하에 신립리를 탈환하기 위

해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500m 전방에서 차단진지를 점령한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이때 신립리에 남아 적의 진출을 저지하던 제1대대 제2중대와 제2대대가 우측계곡으로 철수함으로써 터키여단의 신립리 철수는 완료되었다.

제2대대가 마지막으로 철수하고 30분이 경과할 무렵 적의 선두부대가 봉명리 진지로 접근하였다. 또한 도로 북쪽의 미 제38연대 제3대대 진지와 남쪽의 터키여단 제1대대 진지도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16:30부터 전개된 강력한 저지사격에도 중공군의 파상공격은 계속되었다. 이때 2㎞ 후방의 용복리(龍伏里) 계곡에도 다른 중공군이 출현해 여단의 퇴로 차단을 기도하였다. 전후방으로부터 협공을 받은 미 제38연대 제3대대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군우리 방면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방어진지의 한 축이 무너지자, 초마봉(超馬峰) 계곡으로 쇄도한 적이 제1대대를 삼면에서 집중 공격하였다.

전황을 지켜본 여단장은 군우리로 철수하도록 각 대대에 지시하였고, 17:30에 제2대대를 선두로 포병대대(-)와 제3대대가 뒤를 따랐다. 1시간 후 제3대대가 용복리 계곡에 진입하자 도로 양편에서 적의 집중사격이 개시되었고, 대대는 소규모로 나누어 계곡을 빠져나왔다. 21:00경 미군 전차중대와 계곡에 도착한 제1대대는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적의 진지인 132고지를 공격하여 탈취하였다.

그러나 퇴로를 타개하지 못한 제1대대는 점점 증강되는 중공군의 압력에 놓였으나, 군우리에 위치한 미 포병대대의 포격지원과 유엔공군 전폭기 편대의 공중폭격에 힘입어 계곡을 빠져 나와 군우리 외곽에 집결하였다. 이후 여단장은 군우리에서 철수하기 위해 각 대대에 준비를 지시하였다.

(3) 전투 결과

'평양방어선'을 고수하려던 유엔군의 계획은 전 전선에 걸친 부대간의 연계가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오랜 시일에 걸친 격전에서 전력이 격감해 부대의 재정비가 요구되었다. 또한 공중지원에 의한 폭격도 기상의 악조건으로 제한되면서 38도선으로의 철수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미 제2사단은 부대정비를 위해 터키여단 및 미 제1기병사단과 함께 자산을 경유해 일단 평양으로 철수한 후 다시 남하해 같은 달 중순에 미 제2사단 주력은 영등포에, 그리고 터키여단은 소사에 각각 집결하여 부대를 재정비하였다. 이후 터키여단은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김포반도를 방어하였다.

유엔군 주력의 평양철수가 완료되자, 사단은 계속 후위로서의 엄호임무를 전담해 8일에는 적의 신속한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중화를 고수하였다. 이때 유엔군의 주저항선은 신계-곡산-수안-중화-겸이포를 연하는 선이었다. 이후 사단은 전황의 전환에 따라 38도선을 경유하여 김포반도에서 방어임무를 수행하다 배속된 터키여단과 함께 안성으로 이동해 차기의 반격을 준비하였다.

5) 군우리 전투(1950. 11. 29~12. 1)

(1) 전투 개요

군우리[69] 전투는 크리스마스 공세를 개시한 미 제8군이 중공군에 밀려 철수작전을 전개할 당시 군우리에 남아 철수병력을 엄호하던 미 제2사단이 최종적으로 철수하던 중 군우리-순천간 협곡지대, 일명 '태형의 계곡'[70]에서 중공군 제42군단의 집중공격을 받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1950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철수작전이다.

중공군의 제1차 공세로 한·중 국경선까지 진출하여 전쟁을 종결하려던 미 제8군의 계획은 일단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1월 15일로 계획된 크리스마스 공세의 일환으로 군의 전선정비와 함께 청천강 교두보를 확보하고, 후방의 미 제9군단을 전선으로 조기 북상시키도록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미 제9군단은 11월 19일 미 제2사단은 우익으로 온정을 목표로 진격하여 소백두산 동측을 거쳐 초산을 점령하고, 미 제25사단은 좌익으로 소백두산 서측을 경유하여 벽동을 점령하는 기동계획을 하달하였다. 11월 24일 10:00를 기해 반격작전을 전개한 미 제9군단은 압록강을 향해 진격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우익인 미 제2사단은 제38연대를 우일선, 제23연대를 중앙, 그리고 제9연대를 좌일선으로 전개하고, 제38연대의 1개 중대를 사단의 예비로 두면서 구장동-온정을 목표로 진격하였다.[71] 또한 군단의 좌일선인 제25사단은 예하의 제35연대와 제27연대, 그리고 제24연대를 일선으로 전개시켜 입암을 거쳐 운산을 향해 진격하였다.

모든 전선에서 접적 없이 진격한 후 야영을 실시한 미 제2사단과 제25사단은 다음날 아침 진격을 재개하였다. 군단 우인접인 국군 제2군단이 묘향산맥 일대에서 중공군과 격전을 전개할 무렵 군단의 선두부대들도 적의 포위망에 갇혀 좌우 협격을 받고 있었다. 적은 미리 마련한 참호를 이용해 설치해 놓은 기관총격을 가하면서 역습까지 감행하였다. 아군은 집요한 적의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포병부대를 급히 전방으로 추진시키는 한편 예비대까지 투입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전황이 급반전하였다.

지금까지 전개된 적정을 분석한 미 제8군은 전선의 정리와 불리한 전황의 극복 및 새로운 적의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숙의를 거듭하였다. 전황의 급변을 실감한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청천강 연안으로의 철수를 결심하고 주요 지휘관간의 회동을 위해 도쿄로 향하였다.

11월 28일 맥아더 원수가 주관한 도쿄회동에서 맥아더는 중공군 정예부대의 대규모 참전을 확인하고, 이를 워싱턴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유엔군은 평양-원산을 연하는 선을 방어선으로 설정, 전열을 정비한 후 재반격을 마련한다』는 회동결론을 발표한 후, 미 제8군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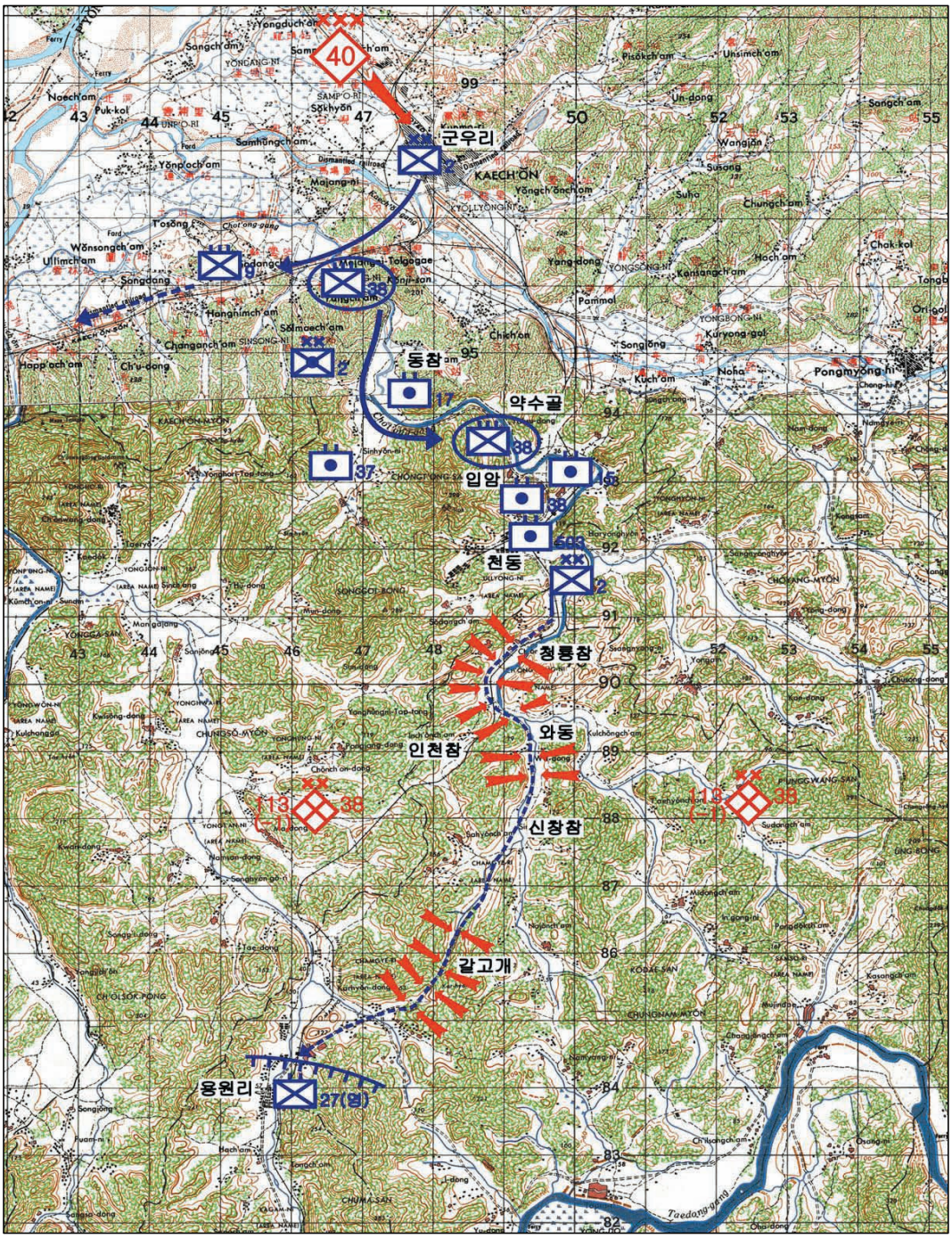
『① 당면의 적은 중공군 제4야전군의 주력이며, 26일 야간 이래 군의 우익인 국군 제2군단 지역에 집중적으로 쇄도하여 전황의 진전은 예측을 불허한다.

② 군은 청천강 연안으로 철수하여 후일을 도모한다.

③ 제1군단은 신속히 신안주 부근으로 이동하여 다음공격을 준비하거나 또는 긴급한 정면으로의 전진을 준비하라.

④ 제9군단은 군의 우익을 엄호하면서 군우리-안주 선으로 이동하여 차기의 공격을 준비하며 터키여단을 계속 통제하라.

<상황도 5-11> 군우리 철수작전



⑤ 제1기병사단은 북창-순천선을 확보해 군의 우익을 엄호하라. 영연방 여단을 배속한다.
⑥ 국군 제3군단은 의명 북상하여 전선에 참가하라.』

이에 따라 미 제8군은 1950년 11월 28일을 기해 철수작전을 개시하였고, 미 제8군의 우익을 담당한 제9군단 예하의 제2사단은 터키여단 및 국군 제7사단 제3연대와 함께 군우리 지역에서 지연전을 전개하여 청천강 북쪽의 철수병력에 대한 엄호를 실시하였다.

<표 5-15>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군	제9군단장		소장	John B. Coulter	
	제2사단	사 단 장	소장	Lawrence B. Keiser	
		제9연대장	대령	Charles C. Sloane	
		제23연대장	대령	Paul L. Freeman	
		제38연대장	대령	George B. Peploe	
터키군	터키여단장		준장	Tahsin Yazici	배속부대
영국군	제27여단장		준장	Basil A. Coad	
	제29여단장		준장	Thomas Brodie	
중공군	제38군단	군 단 장		량싱차오(梁興初)	
		제112사단장		장용후이(江擁揮)	
		제113사단장		탕칭산(唐靑山)	
		제114사단장		쥬오중루(翟仲儒)	
	제40군단	군 단 장		원위청(溫玉成)	
		제118사단장		덩 웨(鄧 岳)	
		제119사단장		남센원(?)	
		제120사단장		쉬궈푸(徐國夫)	

이때 미 제8군은 서부전선의 철수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과 미 제1군단의 예비인 영연방 제27여단을 순천과 성천의 동쪽에 투입해 국군 제2군단 지역에서 남하하는 중공군을 저지하도록 조치하였다.[73]

⑵ 전투 경과

예정대로 철수작전에 돌입한 미 제1군단은 청천강을 도하하여 숙천과 성천지역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서부전선의 철수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미 제9군단장 콜터 소장은 다음날 아침에 미 제2사단의 철수를 승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군우리에서 순천까지의 철수 기동로와 철수시간은 사단장 임의로 실시하도록 일임하였다.

이 무렵 미 제2사단은 원리에서 저지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제23연대가 중공군의 압력으로 군우리 북쪽 2㎞ 지점까지 물러나 있었고, 와원에서 동측방을 엄호하던 터키여단도 신립리-봉명리로 축차 철수하며 격렬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단이 순천으로 철수하는데 최단 기동로인 군우리-순천간 남행통로를 중공군이 차단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들은 덕천지구 전투에서 측후방의 우회임무를 담당한 중공군 제38군단 예하의 제113사단(-)이었다. 미 제9군단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덕천지구에서 안산동(安山洞)과 선가리(船街里), 용소리(龍沼里)의 산간 소로를 따라 신속하게 전진한 제113사단의 전위부대인 제338연대는 11월 28일 07시경에 삼소리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제337연대는 삼소리에서 서쪽으로 전진하여 용원리를 점령함으로써 미군이 삼소리에서 퇴로가 차단될 경우 다른 길을 선택할 것에 대비하였다.[74]

이런 상황에서 11월 29일 아침 청천강 남안으로의 철수를 단행한 유엔군은 도중에 이를 저지하려는 적과 여러 차례에 걸친 격전 끝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일몰 무렵에 주력은 대체로 청천강 도하에 성공하여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영덕-성천-순천-숙천 선을 확보하고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미 제9군단장은 우익의 제2사단을 일단 군우리로 이동시켜 순천으로 후퇴토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25사단을 비롯한 터키여단 본부와 비전투차량 및 부상병을 안주로 후송토록 하는 한편 제2사단 제9연대와 터키보병부대는 군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에 제2사단의 후위로서 순천으로 후퇴하도록 명령하였다.

밤낮 없이 공격을 계속하던 미 제2사단 정면의 적은 일출 무렵부터 다시 사단

정면에 대한 압박을 시작하였다. 사단은 수일에 걸친 격전으로 전력이 반감된 상태였고, 특히 보병대대는 단지 200~2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장의 후퇴명령을 받은 사단장 카이저 소장은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여 축차적인 철수를 결심하고 정면의 적을 견제할 수 있는 저지진지의 확보와 퇴로에 대한 정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사단장은 순천으로 통하는 도로를 적이 차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07:30경 중상을 입은 터키 병사가 사단사령부로 달려와 순천-개천간 도로를 통해 북상하던 보급중대가 이른 아침 청룡참(靑龍站)에서 적의 기습으로 전원 전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75] 군우리-순천간 퇴로는 삼소리(三所里)를 경유하는 순천도로와 숙천-안주-순천간 본도가 있으나, 본도는 제1군단과 좌익의 제2사단의 철수로이기 때문에 사단은 군우리-순천간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철수로를 결정한 사단장은 적정파악을 위해 헌병 1개 분대를 청룡참으로 즉시 보냈으나, 이후 어떠한 사항도 보고되지 않았다.

전황이 더욱 긴박해지고 있던 18:00경 사단장은 군우리-순천간 대신 본도를 이용하라는 미 제1군단장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군단의 우익엄호를 책임진 사단장은 임무완수에 대한 생각과 철수로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야기될 혼잡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전차 1개 소대를 순천간 도로로 보내 적 상황을 정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들은 갈현(葛峴)을 통과하기 직전 어떠한 적의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는 무선보고를 한 후 소식이 두절되었다.

사단은 다시 정찰중대를 파견했으나, 이들도 청룡참 남쪽고지에 잠복해 있던 적의 기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또한 정찰중대를 지원하기 위해 급파한 제9연대 C중대와 전차소대도 강력한 적의 저항으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룡참 일대의 적을 대대규모로 판단한 사단장은 다음날 아침을 기해 공격할 것을 계획하고 청룡참에 파견된 부대에 진지 복귀명령을 하달하였다.

한 낮의 긴박한 전황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던 초저녁 무렵, 사단은 조통강(槽桶江) 남쪽의 동참(東站)으로 후퇴하여 다음과 같은 전면적인 철수계획을 예하대에 하달하였다.[76]

『① 국군 제3연대와 터키여단 및 미 제9연대는 우선 청룡참 남쪽의 적을 격파하고 사단의 철수로를 개척하라.

② 위의 철수로를 개척하면 우선 순천으로 집결하고 이어서 제38연대를 선두로 제2정찰대, 사단사령부, 통신중대, 사단 포병대대 그리고 공병 제2대대 순으로 남하하라.

③ 제23연대는 사단의 후위를 전담하고 후속하라.』

사단의 명령에 이어 사단의 퇴로엄호를 위해 영연방 제29여단의 1개 대대를 순천으로 북상시킨다는 미 제8군의 명령을 받고 사단은 즉시 청룡참 방향으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다음날 아침 무렵 청룡참 부근에서 적과 조우할 것으로 판단한 제9연대는 목표를 향해 야간 진격에 나서 남진을 계속하였다. 목표지점 2㎞ 전방까지 진출한 연대는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 잠시 혼란을 겪었으나, 다시 반격태세로 전환하여 야간의 정적을 깨우는 총격전을 전개하였다.

미 제9연대는 국군 제7사단 제3연대 및 터키 보병부대, 그리고 제38연대 1개 대대와 협동으로 병력을 전개한 후 도로 전면의 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다. 중공군은 예상과 달리 연대규모 이상의 정예 병력으로서 고지 점령에 많은 시간과 인명손실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적정파악에 실패했던 사단은 이 전투를 통해 퇴로를 개척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에도 적은 전 전선에 대해 압박을 계속하였고, 덕천-북창리-안주선을 돌파하고 개천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 북안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적의 남진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그리고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기 위해 사단의 잔류부대는 격전을 반복하였다. 이런 가운데 미 제9군단 주력은 신안주 비행장을 철수하였고, 미 제1기병사단은 순천 남쪽 25㎞ 선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으며, 미 제1군단은 신안주-숙천-평양을 잇는 경의 간선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미 제2사단 제9연대는 전차 1개 소대를 청룡참으로 보내 군우리-순천간 도로에 대한 위력수색을 지시하였다. 새벽녘에 군우리를 출발한 전차소대는 청룡참을 지나 10:00경 갈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상황은 이상이 없다”라고 무전 보고를 한 후 계속 남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중공군의 계략에 의한 것이었다. 중공

군은 청룡참을 중심으로 1㎞ 내외의 구릉지대에 대대규모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아군의 진입을 노리고 있었다. 이날 오후 도로수색에 나섰던 사단 수색중대는 적의 기습공격에 생존자가 35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77]

한편 접적 없이 북상한 영연방 제29여단은 갈현 남쪽의 3차로를 우회하는 순간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 제113사단 제337연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았다. 적은 철수 병력과 증원 병력간의 합류를 저지하기 위해 박격포와 기관총을 동반해 강력한 공격을 가해왔고, 여단은 이로 인해 일시에 공격력을 상실하였다.[78] 전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는 동안 사방에서 몰려든 적은 사단 주력을 압박하였고, 급기야 사단사령부마저 공격을 받았다.


미 제2보병사단장 카이저(Laurence B. Keiser) 소장

긴박한 전황에 직면한 사단장 카이저(Laurence B. Keiser) 소장은 수집된 적정판단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철수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제9연대가 청룡참의 중공군 진지를 공격하여 도로폐쇄를 제거하면 미 제38연대를 선두로 국군 제3연대, 터키여단, 제2수색중대, 사단사령부, 통신중대, 포병부대, 공병대대, 미 제72전차대대, 의무대대 순으로 철수한다. 미 제23연대는 군우리에서 사단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 후위부대로서 최종적으로 철수한다. 근무중대와 보급차량은 개천에서 철수하는 야전병원과 함께 안주-숙천간 도로로 우회하여 순천에 집결한다"는 내용이었다.[79]

11월 30일 이른 새벽 미 제9연대 제2대대와 제3대대는 미 제72전차대대 소속의 1개 전차소대와 함께 동참을 출발해 3.5㎞ 남쪽의 도로폐쇄지점으로 향하였다. 미

제9연대는 지난 6일간의 격전으로 2개 대대의 병력이 500여 명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였다. 07:00경 선두부대인 제2대대가 도로 폐쇄지점 1㎞ 전방에 도착하자, 중공군의 기관총 공격이 시작되었다. 연대장은 제2대대를 도로 서쪽 능선에, 제3대대를 동쪽 능선에 각각 전개시킨 후 공격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전차소대는 도로를 따라 남진하며 아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연대(-)는 계곡 양쪽에서 발사하는 적의 기관총 화력을 제압하지 못한 채 사격전으로 응수할 뿐 공격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조해진 연대장은 포병의 화력지원과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면서 공격을 독려하였다. 잠시 후 연대(-)는 미 제17포병대대의 포격과 유엔공군의 근접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재개한 끝에 제3대대가 청룡참의 동쪽 능선을 점령하였으나, 중공군의 역습에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09:00경 사단장은 미 제38연대 제2대대를 제9연대에 배속시키는 한편 국군 제3연대와 터키여단의 잔류부대를 급파하였다.[80] 그러나 이들 증원부대의 병력은 국군 제3연대가 약 1,000명, 터키군 잔류부대가 2개 중대규모, 제38연대 제2대대도 5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명령에 따라 군우리로 집결한 이들 부대 중 10:30에 국군 제3연대가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다. 공군의 근접지원과 전차중대의 지원 아래 운용리 남쪽의 중공군 진지를 차례로 제압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를 따라 남진하던 미 제72전차대대 소속의 선두 전차가 국군 제3연대를 중공군으로 오인하고 전차포와 중기관총으로 공격하였다. 연속적으로 공격을 받은 국군 제3연대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중단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국군이 철수하자, 적은 도로상의 미 전차부대에 박격포 공격을 집중하였다.

이 무렵 현지에 도착한 사단장은 후방 군우리 지역의 미 제23연대가 중공군의 압력으로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곡을 신속하게 벗어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보·전 협동으로 차단된 도로를 돌파할 것을 미 제38연대 제2대대에 명령하였다.[81] 제38연대 제2대대는 제9연대를 초월하여 남쪽으로 전진하였고, 동시에 터키군 2개 중대도 청룡참 남쪽 능선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제38연대 제2대대의 일부 병력이 선두전차 3대에 분승하여 양쪽의 중공군 진지에 사격을

가하면서 전진하였고, 대대주력은 후속전차에 분승해 전진하였다.

대대의 선두부대가 계곡으로 접어들자, 계곡 양 능선에 잠복했던 중공군이 강력한 기관총 및 박격포 공격을 개시하였다. 선두부대인 보·전협동부대는 이에 대응하며 계속 전진했으나, 후속하던 대대주력은 전진이 중단된 채 적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이는 대대의 좌전방에서 능선을 따라 공격하던 터키군 2개 중대가 적의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고, 이때 노출된 공간으로 적이 침투해 집중포격으로 대대의 통로를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국군 제7사단 제3연대와 터키군의 공격은 물론 미 제38연대 제2대대의 퇴로타개도 좌절되었다. 그러나 사단장은 날이 저물기 전에 계곡을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단 주력의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 항공근접지원을 요청하였다.[82]



중국 단동시 항미원조전쟁기념관에 소장 전시되고 있는 군우리전투 디오라마 중 일부

14:00에 철수대열은 일명 '태형의 계곡'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계곡 양편의 능선을 완전 장악한 중공군은 맹렬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의 철수대열은 중공군이 잠복하고 있는 청룡참에서 갈고개까지 10㎞에 이르는 계곡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

유엔공군의 전폭기편대가 출격하여 폭격을 시작할 때 2~3㎞를 전진하고, 폭격이 끝나면 진격을 중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상자는 늘어갔다. 철수대열 중 기계화부대는 그런대로 계곡을 돌파할 수 있었으나, 보병부대는 대부분 산길로 들어가 남쪽으로 탈출하였다. 부대지휘가 불가능해진 사단장도 15:15에 짚차를 포기하고 산길을 따라 갈고개 서쪽으로 우회하여 갈현리로 철수하였다.

선두에서 진로를 개척하던 미 제38연대의 보·전 협동부대는 일몰 무렵에 맨 먼저 갈고개를 통과하였고, 21:30에 미 제17포병대대가 두 번째로 갈고개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 포병대대가 통과한 이후 갈고개는 다시 차단되어 사단포병은 대부분의 장비를 유기한 채 산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처절한 전투 끝에 사단이 순천 남쪽에 도달했을 때, 생존 장병은 겨우 20%에 불과하였다.

한편 군우리에 잔류한 엄호부대인 미 제23연대는 사단의 후위를 담당하였으나, 전투과정에서 사단과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혼선 끝에 안주방면의 서해안 도로를 통해 철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단 주력의 마지막 철수부대가 동참 집결지를 출발하자, 작전을 개시한 미 제23연대는 진지를 떠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3,206발의 포탄을 모두 발사하여 중공군의 공격부대를 고착시켰다. 이와 같이 양동작전에 성공한 연대는 11월 30일 자정에 마지막 철수병력이 군우리를 벗어날 때까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⑶ 전투 결과

이 전투에서 일부 예하부대가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부대가 와해상태에 직면한 미 제2사단은 부대정비를 위해 터키여단 및 미 제1기병사단과 함께 자산을 경유해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3연대는 승호리에서 대동강선 방어작전에 임하고 있던 국군 제7사단으로 원대복귀하였다. 미 제2사단은 12월 중순경 주력을 영등포에, 그리고 터키여단은 소사에 각각 집결시켜 부대를 재정비하였으며, 이후 터키여단은 미 제25사단에 배속되어 김포반도를 방어하였다.

미 제2사단은 청천강과 군우리 전투가 종료되었을 때 절반 정도로 병력이 감소되었다. 예하 부대별 인명손실은 제2공병대대가 사단 부대별 병력 비율면에서 가장

높았고, 제23연대는 제38연대 사상자의 절반 미만을 그리고 제9연대의 1/3을 약간 상회하였다. 각 부대별 병력현황과 인명손실은 다음의 <표 5-16> 및 <표 5-17>과 같다.[83]

미 제2사단이 군우리 전투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가장 신뢰성 있는 평가는 미 제8군 작전참모부 랜케스터(A. E. Lancaster) 중령이 12월 5일 미 제8군 작전참모 댑니(Dabney) 대령에게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각 부대의 피해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5-16> 미 제2사단 병력현황(1950. 11. 30 현재)

단위 : 명

부대별	인가	보유
제9연대	3,793	1,406
제23연대	3,793	2,244
제38연대	3,793	1,762
사단포병부대	3,695	1,970
제2공병대대	977	266
사단 본부중대	190	166
기타 부대	2,690	2,455
총계	18,931	10,269

<표 5-17> 미 제2사단 인명손실(1950. 11. 30 현재)

단위 : 명

부대별	전투손실	비전투손실	계
제9연대	1,267	207	1,474
제23연대	485	60	545
제38연대	1,075	103	1,178
사단포병부대	1,461	68	1,529
제2공병대대	568	8	576

"제2공병대대는 300명의 장병이 6대의 차량으로 탈출하였으나 모든 영관급 장교의 손실이 있었다. 사단 포병부대는 155㎜ 곡사포 모두를 손실하였고, 105㎜ 곡사포는 8문을 제외하고 모두 손실하였으며, 미 제38야포대대 생존자는 사병 65명뿐이다. 제9연대는 1개 대대병력을 약간 상회하는 1,400명의 장병이 생존하였다. 제23연대는 2,200명의 장병이 생존하였다. 제38연대는 1,600명의 장병이 생존하였으나, 생존자 수가 1,801명으로 늘었고 51명의 한국군이 배속되어 있다. 제72전차대대는 33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제38연대 제2대대는 모든 중대장을 잃었다. 제38연대 제3대대는 모든 대대참모를 잃었고, 대대장은 중상으로 후송되었다. 터키여단은 4,118명의 장병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사 68명과 부상 238명 그리고 630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84]

한편 미 제2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6·25전쟁에 참가한 이래 가장 많은 야포를 손실하였는데, 포병부대별 손실현황은 다음의 <표 5-18>과 같다. 또한 군우리 전투에서 발생한 미 제2사단의 장비 및 화기의 손실은 개인화기 45%, 차량 30%, 기타 장비 및 화기 40%에 달하였다. 그리고 터키여단은 야포 50%와 모든 장비 및 화기 90%, 차량 90%를 손실하였다. 군우리 전투가 종료된 후 미 제8군과 미 제2사단은 전사 및 부상, 실종자 수를 총 4,037명으로 최종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미 제2사단은 1개 연대전투단 수준으로 전투력이 감소되어 있었다.[85]

<표 5-18> 군우리 전투시 미 제2사단 포병부대의 손실

부대별	무기	규모	손실
제15대대	105㎜ 곡사포	18문, 3개 포대	18문
제37대대	105㎜ 곡사포	18문, 3개 포대	10문
제38대대	105㎜ 곡사포	18문, 3개 포대	18문
제503대대	155㎜ 곡사포	18문, 3개 포대	18문
제17대대	8인치 곡사포	12문, 3개 포대	1문
제82방공포대대	M19(듀얼40장갑차량)	-	23대
	M16(쿼드50장갑차량)	-	26대
계			114

4. 동부지역 작전

1) 장진호 전투(1950. 11. 27~12. 11)

(1) 전투 개요

장진호 전투는 미 제8군이 서부전선에서 중공군 제13병단과 격전을 전개하고 있을 무렵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이 서부전선 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제9병단 예하 7개 사단 규모가 포위망을 형성한 장진호 계곡을 벗어나기 위해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개한 철수작전이다.

중공군의 한반도 진입 목적과 병력규모를 11월초까지도 경시했던 맥아더 원수가 선제공격을 단행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동부지역을 담당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국경선을 목표로 한 북진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1일 미 제10군단장은 국군 제1군단을 우측, 미 제7사단을 중앙, 미 제1해병사단을 좌측으로 하여 국경선으로 진격하는 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신갈파진-후창강구 간의 압록강까지 진격임무를 부여받은 미 제1해병사단은 군단의 좌익을 엄호하기 위해 제1연대전투단을 흑수리(黑水里)에 배치하는 한편 주력은 하갈우리를 목표로 전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제5연대 및 제7연대전투단은 장진호 동쪽과 서쪽을 각각 담당하여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 무렵 중공군은 서부지역의 미 제8군 정면에 제13병단을, 동부지역의 미 제10군단 정면에 제42군단을 대신하여 제9병단을 장진호 부근에 투입하고 있었다. 제9병단의 주요 임무는 병단 주력을 집중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진출을 하갈우리, 신흥리, 유담리 지역에서 섬멸한 후 상황에 따라 계속하여 적의 지원부대를 섬멸하며 함흥-흥남지역으로 추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9병단은 예하의 제20군단과 제27군단을 제1제대로, 그리고 제26군단을 예비로 투입하였다.[86]

<표 5-19>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미군	제1해병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제1연대전투단장		준장	Lewis B. Puller	
	제5연대전투단장		중령	Raymond L. Murray	
	제7연대전투단장		소령	Homer L. Litzenberg, Jr	
	제11포병연대장		소령	James H. Brower	
			소령	Carl A. Youngdale	'50.11.31부
	제1공병대대장		대령	John H. Partridge	
	제1전차대대장		중령	Harry T. Miline	
영국군	제41해병특공대장		소령	Douglas B. Drysdale	배속부대
미군	제1해병항공사단장		소령	Field Harris	지원부대
중공군	제9병단장			쑹스룬(宋時輪)	
	제20군단	군 단 장		장이샹(張翼翔)	
		제58사단장		왕쪼우링	
		제59사단장		차이거린	
		제60사단장		서방	
		제89사단장		?	제30군배속
	제26군단	군 단 장		장런추(張仁初)	
		제76사단장		손계현	
		제77사단장		심평	
	제27군단	군 단 장		펑더칭(彭德淸)	
		제79사단장		숙임해	
		제80사단장		오란정	
		제81사단장		라기	
		제94사단장		?	

이 무렵 미 제10군단과 미 제8군의 전선간에 80마일의 공백지대가 발생하자, 맥아더 원수는 이를 보전함은 물론 미 제8군의 동측방을 엄호하도록 미 제10군단에 지시하였다. 따라서 알몬드 군단장은 최초의 진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하달하였다.[87]

『① 해병사단은 장진호의 서쪽으로 전진하여 만포진-강계-희천을 연하는 중공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미 제8군의 진격을 지원하면서 계속 만포진을 목표로 진격하라.

② 제7사단은 일부를 장진호의 동측에 투입하여 최초 해병사단의 진격로를 따라 전진하라.

③ 11월 18일에 원산에 상륙을 완료한 제3사단은 군단의 좌익을 엄호하고, 후방지역을 방호하는 동시에 제8군과 연결을 유지하라.

④ 이 작전은 제8군 전선과 연계하기 위해 11월 24일 제8군이 총공격을 개시한 다음인 11월 27일에 진격을 개시하기로 한다.』

명령에 따라 기동에 착수한 미 제1해병사단은 제1연대전투단이 흑수리에서 지경-진흥리(眞興里)-고토리-하갈우리를 따라 북상 중이었고, 제5연대전투단도 장진호 동쪽에서 유담리(柳潭里)로 향하였으며, 제7연대 전투단은 이미 유담리로 이동하였다. 또한 미 제7사단의 1개 혼성연대는 장진호 동쪽에서 전진하여 제5연대전투단과 임무를 교대하였다.

⑵ 전투 경과

가) 유담리 전투(1950. 11. 27~12. 4)

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은 최초 목표를 유담리 서쪽의 용림동(龍林洞)으로 정하고 고개동(古价洞)-무평동(武坪洞)으로 기동하여 중공군의 보급로를 차단한 후 만포진을 점령하는 공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어 예하 연대의 기동 위치를 고려한 작전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88]

『① 제5연대는 11월 27일 08:00까지 제7연대를 초월한 후 남쪽으로 진격하여 용림동을 점령하고, 계속 서진할 준비를 갖추라.

② 제7연대는 지체 없이 유담리를 점령 확보하고, 제5연대의 초월에 호응하여 유담리-신흥리간의 보급로를 방호하라.

③ 제1연대는 사단의 예비로서 진흥리-고토리-하갈우리에 위치해 사단의 후방지역과 주보급로를 방호하라.

④ 제11포병연대는 유담리에 진지를 점령하고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⑤ 사단 수색중대는 유담리로 이동하여 제7연대와 협조한 다음 북쪽 지역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라.

⑥ 영 제41해병특공대는 유담리로 이동해 사단의 좌익을 엄호하기 위한 작전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작전명령에 따라 제5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가 유담리에서 공격준비에 돌입하였고, 제3대대가 장진호 동쪽에서 유담리로 이동하고 있었다. 또한 제7연대는 제1대대와 제3대대, 그리고 제2대대(-1)가 유담리에, 제2대대(-2)가 하갈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사단 본부대대와 영 제41해병특공대 및 기타 지원부대는 고토리에서 하갈우리로 북상준비 중이었으며, 일부 지원부대는 하갈우리에 집결하고 있었다.

유담리는 장진호 서북단 계곡에 위치해 있고, 이 계곡으로부터 5개의 능선이 사방으로 이어져 있다. 공격직전 유담리를 중심으로 편성된 사단의 방어배치는 북쪽 능선의 제7연대 제2대대(-1)와 북서쪽 능선의 제5연대 제2대대 및 제7연대 제3대대(-2), 그리고 남서쪽 능선의 제7연대 제3대대(-1)와 남쪽 능선의 제7연대 제1대대(-1)가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방어선 안에는 제5연대 제1대대, 제11연대(-), 제5연대 및 제7연대 CP가 있었고, 남쪽 보급로에는 제7연대 제1대대(-2)가 배치되어 있었다.

유담리 방어를 위해 종심을 확장한 제7연대는 11월 27일 08:15 제5연대의 공격지원을 위해 제3대대에 공격을 지시하였다. 30분이 경과하고 제3대대는 서쪽 도로를 감제하는 남서쪽의 1426고지와 북서쪽의 1403고지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제5연대는 제2대대를 선두로 서쪽 도로를 따라 공격을 개시했으나, 중공군의 집요한 저항에 14:30경 능선의 하반부를 점령한 채 야간전투에 대비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정오 무렵 장진호 동쪽에서 유담리로 진출해 북쪽 능선 기슭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하갈우리를 출발한 제7연대 제2대대(-2)도 유담리-하갈우리간 덕동 통로를 확보하였다.

일몰과 함께 기온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18:30경 대규모의 중공군이 유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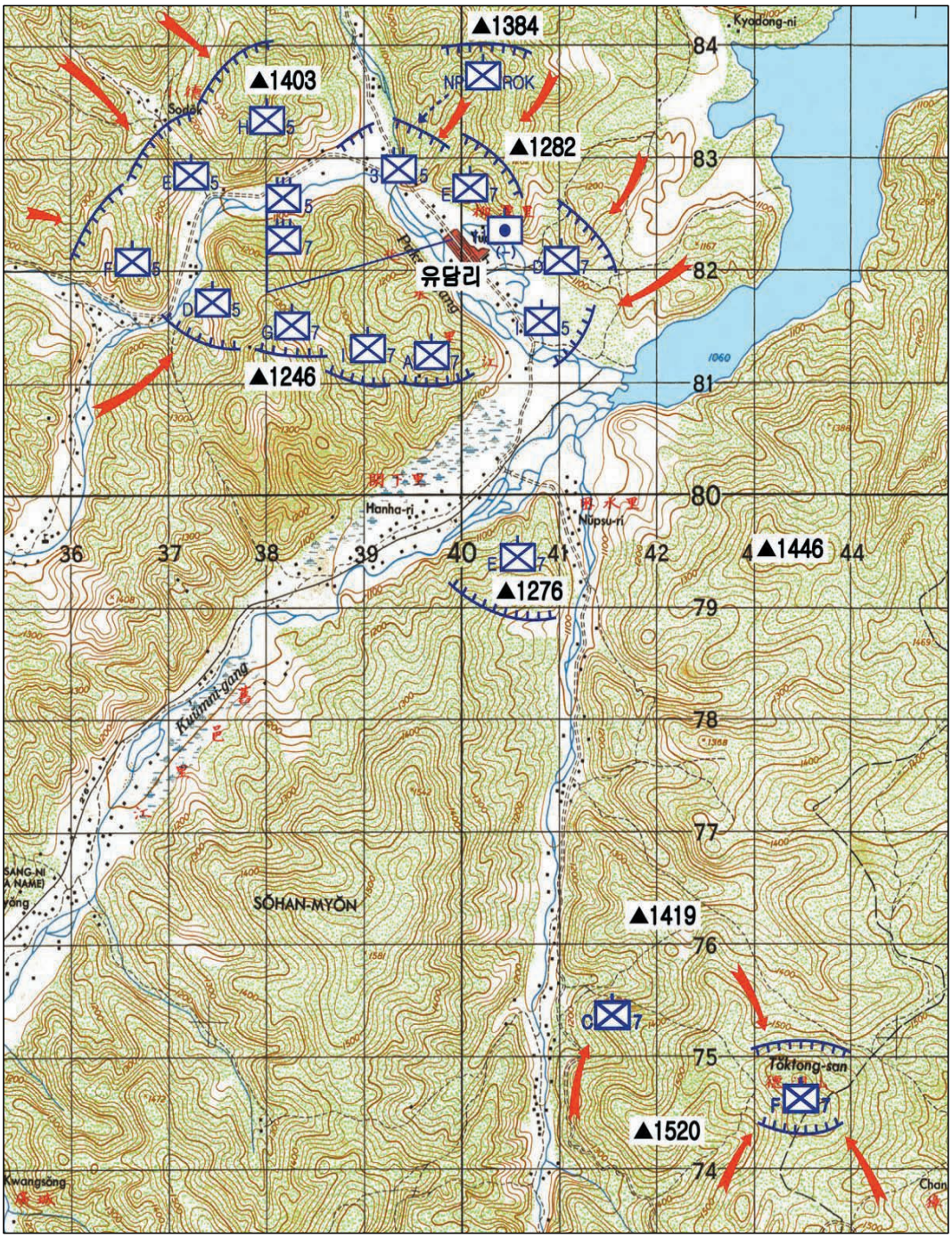
의 방어진지를 공격해왔다. 이들은 신흥리와 유담리, 하갈우리 지역에서 적을 포위 섬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중공군 제20군단과 제27군단이었다. 이중 제27군단의 임무는 1개 사단(+1)으로 신흥리 지역에서, 1개 사단으로 유담리 지역에서 각각 적을 포위 섬멸하고, 나머지 1개 사단(-1)으로 미 제7사단을 저지하여 군단 좌측의 안전과 주력의 적 섬멸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 하갈우리로 공격을 확대, 제20군단과 협조하여 이 지역의 적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제27군단장은 제242연대가 배속된 제80사단과 제79사단을 제1제대로 하고, 제81사단을 제2제대로 군단 좌측에서 엄호하도록 하며, 제94사단을 군단 예비로 두었다.[89]

중공군 제79사단은 북쪽 능선을, 제89사단은 서북쪽 능선을, 그리고 제59사단은 남쪽으로 우회하여 덕동 통로-유담리간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중공군 제89사단의 공격목표인 서북쪽 능선은 제5연대 제2대대가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고, 제7연대 제3대대(-2)는 대대 우측의 1403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21:25경 대대는 인해전술을 앞세운 중공군의 공격에 우측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모든 화력을 집중한 대대의 완강한 저항에 22:30부터 적은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대대 우측의 제7연대 제3대대(-2)도 적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21:35경 방어를 담당한 중대장이 전사하는 고전 속에 대대는 진지를 사수하였다.

자정 무렵부터 공세를 늦추었던 적은 11월 28일 03:00를 기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1시간에 걸쳐 중공군 제79사단 제237연대의 집요한 공격을 저지하던 제7연대 제3대대장은 1403고지의 확보를 단념하고 철수명령을 하달하였고, 이로써 서북쪽 능선의 주요 고지인 1403고지는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다.[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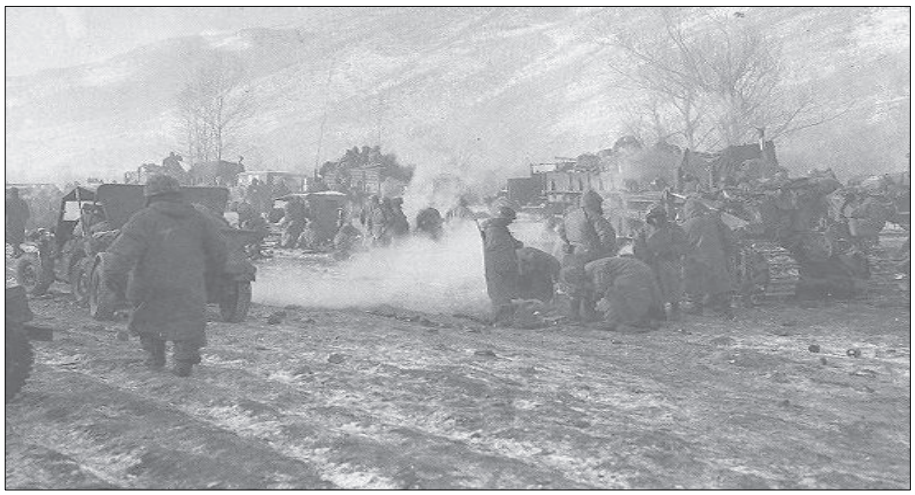
한편 1282고지와 1240고지를 아우르고 있는 북쪽 능선은 중공군 제79사단의 공격목표로서 제7연대 제2대대(-1)가 진지를 편성하고 있었다. 중공군 제79사단 예하 제235연대는 22:00에 1282고지를 공격하기 시작하여 자정부터 2시간 동안 제파공격을 계속하였다. 대대는 치열한 격전 끝에 20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격퇴시켰으나, 03:00부터 새로운 병력을 투입해 공격을 계속한 적에 의해 05:00 무렵부터 방어진지의 일부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대는 고지 아래의 기슭으로 물

<상황도 5-12> 유담리방어전



러나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다.[91]

1240고지 또한 중공군 제236연대의 공격을 받고 격전을 전개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11월 28일 03:00경 고지 하단부로 물러나 방어에 임하였다. 이때 고지 아래 기슭의 제5연대 제3대대와 제1대대는 전방의 방어진이 무너지자, 03:00에 역습을 감행하여 제3대대는 1384고지를 다시 점령하였다. 제7연대 제2대대 병력과 합세하여 1282고지를 공격한 제1대대는 중공군 제285연대와의 치열한 육박전 끝에 고지를 재점령하는데 성공하였다.



유담리로부터 철수를 개시한 미 해병대원들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1990. p.136)

제7연대 제2대대(-)는 유담리 남쪽의 보급로인 덕동통로를 점령하고 있었고, 동쪽의 1419고지는 제7연대 제1대대(-)가 방어하고 있었다. 11월 28일 02:30경 중공군 제20군단 예하의 제59사단은 우세한 병력으로 제7연대 병력을 포위하고 집중공격을 개시하였다. 1419고지의 제1대대(-)는 교전과정에서 통신기가 파괴되어 고립되었으나 날이 밝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덕동통로를 방어하던 제2대대(-)도 야간의 격전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중공군의 대대적인 공세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은 기존의 작전계획을 변경하였

다. 이에 따라 제5연대는 서진을 중지한 후 11월 28일 11:00를 기해 제3대대와 제7연대 제3대대를 좌우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진지를 점령하도록 제2대대를 서남쪽 능선에 배치하였다.

한편 전반적인 전황 검토를 통해 사단의 진격을 중단하기로 결심한 사단장은 16:50에 제5연대에 유담리 고수를 명령하면서 제7연대와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양개 연대장은 유담리 방어선의 서쪽과 북쪽은 제5연대가, 동쪽과 남쪽은 제7연대가 각각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제7연대장은 하갈우리까지의 보급로를 개통하라는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제1대대에 남쪽의 C중대를 구출한 후 덕동통로의 보급로를 재확보하도록 지시하였다. 10:15에 제1대대는 공격을 개시하여 5시간의 격전 끝에 C중대와의 연결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적의 포위시도를 간파하고 즉시 유담리 방어선으로 복귀할 것을 대대에 지시하였고, 21:00에 대대는 C중대와 부상자 40명만을 구출한 후 유담리로 복귀하였다.

유담리로 복귀한 제1대대는 F중대의 구출과 보급로 개통을 위해 혼성부대인 모리스(Morris) 특공대를 편성하고 11월 29일 08:00에 덕동통로를 향해 전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출발 직후부터 적의 집요한 저항을 받은 모리스 특공대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전방에 집결중이라는 적정을 보고받은 연대장으로부터 유담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92] 이때 모리스 특공대는 이미 대규모의 적과 격전을 개시한 후였고, 전황마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대대는 위기를 직감한 연대장의 즉각적인 복귀명령에 따라 F중대의 구출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지원부대를 기다리던 F중대는 11월 30일 02:00부터 개시된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한편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장진호 지역의 전황이 급전하자 미 제10군단장은 11월 30일 하갈우리에 위치한 미 제1해병사단 지휘소에서 작전회의를 열고 기존의 북진계획을 재검토하였다. 회의에서 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장진호 부근의 모든 부대를 함흥-흥남 지역으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한 후 총력을 다해 적과 접촉을 유지하며 함흥-흥남의 작전기지로 이동한다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93]

군단의 작전명령에 따른 미 제1해병사단의 임무는 하갈우리-수동(水洞)을 연결하는 보급로를 확보하면서 함흥지역으로 후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제5연대와 제7연대를 유담리에서 하갈우리로 철수시킨 후 하갈우리와 고토리에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철수계획을 수립하였다.



장진호 계곡에서 철수하여 흥남항에서 승선중인 미 제1해병사단 병사들 (출처 : 소장자 David D. Duncan / 유로크레온)

사단장의 철수명령에 앞서 제5연대와 제7연대는 유담리의 모든 부대를 남쪽의 새로운 차단진지에 배치해 적의 침공을 저지하고 보급로를 개통한다는 작전명령을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단에 건의하였다.[94] 사단장은 19:00에 이를 승인하면서 제5연대와 제7연대에 합동으로 하갈우리로 철수하여 남쪽으로의 이동준비와 함께 운반에 지장을 주는 장비는 파괴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95]

명령에 따라 포위망 돌파준비에 착수한 양개 연대는 『일부 부대는 산악을 따라 공격하여 덕동통로의 제7연대 제2대대 F중대를 구출한 후 주력이 통과하기 전에 이 지역을 확보하며, 부상자를 포함한 차량제대는 도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다음과 같은 기본계획을 세워 사단장의 승인을 득한 후 12월 1일 아침에 하달하였다.[96]

『① 제7연대 제1대대는 12월 1일 야간에 진격로의 동측고지를 따라 공격하여 덕동통로의 F중대와 교대한 후 이 지역을 확보하라.

② 제5연대 제3대대는 진격로 양측의 감제고지를 점령하면서 남으로 전진하여 후속부대를 엄호하라.

③ 제5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 및 제7연대 제3대대는 장진호 서남단-1542고지간의 수용진지를 점령해 부대의 철수를 후방에서 수용한 후 단계적으로 철수하라.

④ 제11포병연대 제4포병대대는 155㎜ 포탄을 이동전에 전부 소진하고, 후속제대로 이동하라.

⑤ 모든 잔여병력은 9개의 임시소대로 편성해 2개 소대는 제7연대, 3개 소대는 제5연대를 증원하고 잔여 4개 소대는 맥레이놀드(McReynold) 소령의 지휘 아래 차량제대의 측방을 경계하라.

⑥ 차량제대는 제5연대 제3대대를 후속하며 중상자만을 수용하고, 전사자는 유품을 보관한 후 현지 매장하라.』

모든 부대는 명령에 따라 즉시 준비에 착수하여 12월 1일 11:00에 전장 5.1㎞에 달하는 수용진지를 형성하였다. 15:00경 제5연대 제3대대가 감제고지를 따라 공격을 개시한 후 제7연대 제1대대는 다음날 02:00에 1520고지까지 남진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적의 저항에 막혀 방어로 전환하고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적은 더욱 강력하게 화력을 집중해 대대의 전진을 저지함으로써 양측은 밤새 격전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대의 전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제5연대장은 혼성부대를 급파했으나 대대진지까지 진출하는데 실패하였다. 다음날 공격을 재개한 제7연대 제1대대는 11:25경 5일 동안 혈전을 전개한 덕동통로의 F중대와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후방 차단진지의 제5연대 제3대대는 계획대로 돌파작전을 단행하였다. 오후 들어 대대는 차량제대의 이동을 개시하여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02:00경에는 덕동통로 전방 1㎞까지 진출하여 방어태세로 전환하였다. 날이 밝자마자 공격을 재개한 대대는 10:30경 중공군 제59사단의 차단부대를 격파하였고, 동측의 제7연대 제1대대마저 덕동통로를 돌파함으로써 이 일대를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97] 그러나 작전과정에서 제5연대 제3대대는 437명의 병력이 194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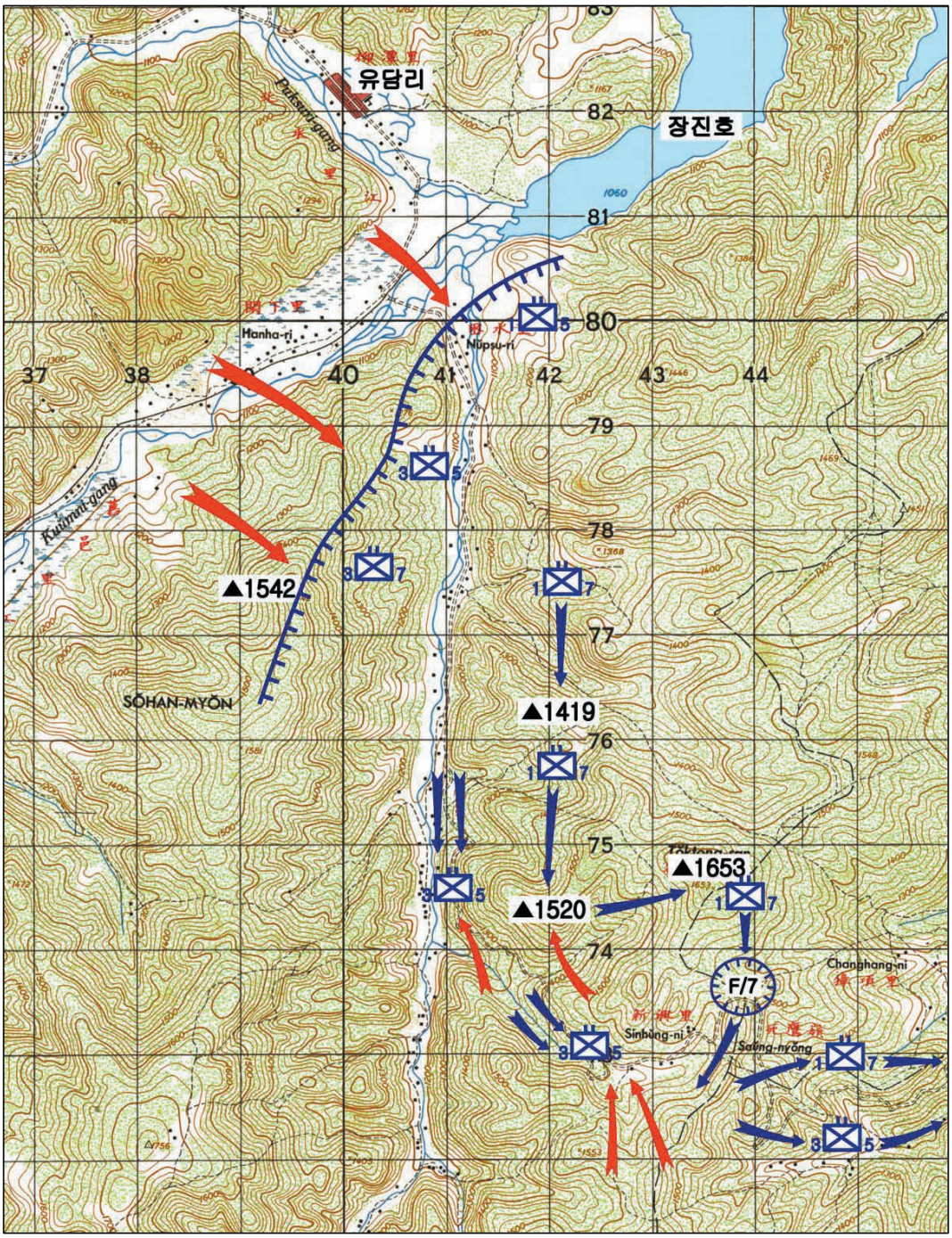
유담리의 아군 전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영 해병 제41특공대가 16:30경 하갈우리로 출동하여 북쪽의 도로를 점령한 후 철수부대를 엄호하였고, 마침내 19:00에 유담리에서 철수한 대열의 선두가 하갈우리에 진입하였다. 그리고 덕동통로를 돌파한 이후의 부대이동은 12월 4일 14:00무렵에 후방 수용부대인 제7연대 제3대대 마지막 부대가 하갈우리에 진입함으로써 21㎞에 걸친 유담리 포위망 돌파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 작전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전사 164명과 실종 55명, 부상 921명 등 1,140명의 인명손실이 있었으며, 이 중 동상에 의한 비전투손실은 1,194명이었다.[98]

나) 하갈우리 전투(1950. 11. 27~12. 7)

장진호 남단의 분기점에 위치한 하갈우리는 간이활주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작전의 중심지였으나, 단지 제7연대 제2대대(-2)가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11월 26일 야간에 제1연대 제3대대(-)는 제7연대 제2대대(-2)와 임무를 교대하였다. 제7연대 제2대대는 임무의 인수인계가 지연되어 다음날까지 하갈우리를 방어하고 있던 중, 12:00에 F중대를 덕동통로에 배치하였다. 대대는 야간에 F중대를 지원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에 따라 덕동통로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중공군의 강력한 저지로 실패하고 11월 28일 15:00경 하갈우리로 복귀하였다.

한편 사단이 하갈우리에 지휘소를 개설한 11:00경, 적의 주력은 전방 5마일 지점까지 접근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갈우리 방어선에는 제1연대 제3대대(-1)와 병력이 부족한 전투지원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22:30경 중공군 제58사단이 주축이 되어 하갈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남쪽의 제1연대 제3대대(-1)는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나, 적이 증원병력을 투입하여 공격함으로써 다음날

<상황도 5-13> 유담리-하갈우리 철수전



03:00경 방어선이 와해되었다. 그러나 제3대대(-1)는 50여 명의 증원병력과 함께 반격을 단행하여 06:30경 중공군 제172연대를 몰아내고 잃었던 진지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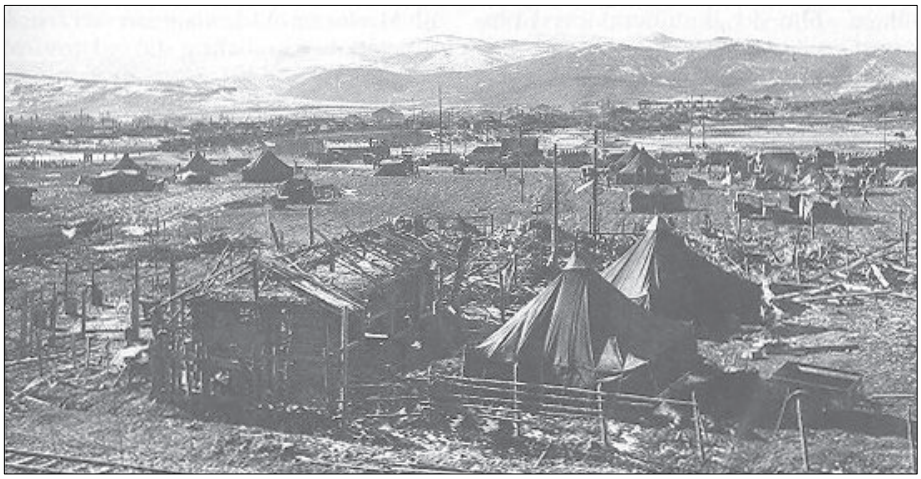
한편 동쪽 고지를 점령한 제10전투공병대는 적의 공격을 받고 11월 29일 01:30에 고지정상을 적에게 빼앗겼다. 하갈우리의 방어에 매우 중요한 이 고지가 피탈됨으로써 하갈우리의 방어선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대장은 즉시 혼성부대를 편성해 05:30에 역습을 단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이어스(Myers) 소령이 지휘하는 특공대는 도보약진과 집중화력으로 집요한 중공군의 저지를 물리치며 동쪽 고지의 중간지점까지 진출한 후 야간방어에 대비하였다. 이런 가운데 19:15경 고토리의 제1연대 제3대대 G중대와 영 해병 제41특공대가 하갈우리로 진입하자, 대대장은 G중대를 동쪽고지 공격에 투입하고 영 해병 제41특공대는 예비로 보유하였다.

마이어스 특공대와 합동으로 동쪽고지를 공격한 G중대는 고지의 중간지점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 채 야간전투에 대비하였다. 자정 무렵 적은 남쪽 및 동쪽 고지를 다시 포위공격했으나, 남쪽고지에서는 아군의 강력한 화력에 포위를 풀고 북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동쪽 고지는 유리한 지형에서 가해오는 적의 파상공격에 아군의 진지가 일부 와해되었고, 다음날 01:00경에는 주력의 방어진지도 와해되어 1개 분대규모의 병력만 남아있었다. 이때 대대장은 예비인 영 해병 제41특공대를 즉시 투입하여 역습을 준비하였다.

날이 밝자, 아군은 역습을 감행하여 전날 밤에 피탈당한 진지를 탈환하였고, 09:00경부터 전개된 공중공격에 중공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제1연대 제3대대는 전사 43명과 실종 2명, 부상 270명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전투 및 지원 부대의 손실도 이와 비슷하게 집계되었다.

한편 장진호 동쪽에서 고립된 미 제7사단은 구출이 지연되자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해 제31연대 제1대대장이 부대를 지휘하여 하갈우리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격전 끝에 대대장은 부상을 입었고, 부대는 소규모로 분산된 채 생존자들은 이날 밤부터 하갈우리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12월 2일 새벽까지 미 제7사단의 생존자 중 670명이 하갈우리에 복귀하였다. 아침 일찍 생존자 구출에 나선 수색부대는 저녁까지 장진호 부근의 전투에 투입된 3개 대대 2,500명 중 1,050명을 구출하였는데, 전투 가능한 병사는 385명뿐이었다. 또한 전사자는 300명만이 확인되었을 뿐 나머지는 실종되었다.



하갈우리. 뒤에 보이는 고지가 동쪽 고지(East Hill)이다.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1990. p.87)

한편 제5연대와 제7연대의 하갈우리 돌파에 앞서, 미 제10군단장은 12월 3일 16:00를 기해 부상자 후송준비 완료와 동시에, 하갈우리-함흥 축선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미 제1해병사단에 하달하였다.[100]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하갈우리 돌파계획에 착수하면서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부대의 휴식과 재편성을 위해 돌파개시일을 12월 6일로 결정하였다.

철수작업의 일환으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312명의 부상자는 물론 병기와 대량의 병참물자가 후송되었다. 또한 전력강화를 위해 공중보급을 실시하는 한편 후송이 불가한 시설과 물자에 대한 파기가 이루어져 철수준비가 완료되었다. 12월 5일 08:00를 기해 사단은 하갈우리의 포위망 돌파작전명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였다.[101]

『① 사단은 고토리-진흥리-함흥 축선을 따라 함흥, 흥남 부근으로 철수한다.

② 제5연대(제1연대 제3대대 배속)는 12월 5일 12:00까지 하갈우리의 방어임무를 인수하고, 제7연대의 이동을 엄호한 후 후속하여 함흥, 흥남 부근으로 철수하라. 단, 고토리-함흥 간에서는 사단 예비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라.

③ 제7연대(제7사단 제31대대 배속)는 12월 6일 고토리-진흥리-마전동 축선을 따라 철수하라.

④ 제1연대는 고토리와 진흥리를 계속 확보하고, 사단 주력의 고토리 진입을 엄호하라. 고토리-함흥간에서는 사단의 후방을 엄호하라.

⑤ 제7사단의 잔여부대는 제31대대(임시)로 편성하여 제7연대에 배속한다.

⑥ 잔여본부와 근무부대는 차량제대를 따라 도보로 철수하며 직접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12월 5일 정오를 기해 제5연대는 예하의 3개 대대와 제7연대 제3대대를 투입하여 하갈우리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597명의 증원병력을 공수받아 전력을 증강하였다. 이날 밤 중공군은 하갈우리-고토리간 보급로를 따라 7개 사단을 전개하고, 2개 사단을 후방에 증원부대로 집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돌파작전 개시일인 12월 6일 새벽, 제7연대장 리젠버그(Litzenberg) 대령은 『제2대대는 기동로를 따라 공격하여 후속부대의 철수로를 개척하고, 지휘 및 차량제대를 중심으로 우측은 제1대대, 좌측은 제7사단 제31대대, 후방은 제3대대가 각각 엄호하면서 남진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2] 공격임무를 부여받은 제2대대가 04:30에 공격을 개시하여 불과 1.2㎞ 전진했을 때부터 강력한 적의 저지를 받았고, 이를 돌파해 22:00경 하갈우리 남쪽 5㎞ 지점의 일명, “불지옥의 계곡”으로 돌진했을 때 적의 공격은 더욱 강화되어 더 이상의 전진이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동로 양쪽의 제1대대와 제31대대도 적의 공격을 무릅쓰고 “불지옥의 계곡”에 도달하였으나, 연대장은 제31대대의 피해가 과중하다고 판단해 후방을 엄호하던 제3대대에 제31대대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02:00 무렵 절정에 달했던 적의 공격은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연대지휘부와 차량제대는 부연대장이 부상을 입고 제3대대장이 전사하는 등 위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제2대대는 적의 공격이 절정에 달했던 02:00경에 적을 돌파

해 12월 7일 새벽 선두부대가 고토리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07:00경 제7연대 제3대대가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불지옥의 계곡을 통과해 고토리로 진입한 이래 17:00까지 제7연대의 모든 부대가 고토리로 집결하였다.

고토리를 향해 16:00에 기동을 시작한 차량 제1제대는 2㎞를 경과한 지점부터 중공군의 강력한 공격에 직면하였고, 야간으로 접어들며 전투는 더욱 치열하였다. 적의 공세는 점점 강화되었고, 12월 7일 01:30경에는 차량제대가 불길에 휩싸였으나 결국 부대는 새벽녘에 "불지옥의 계곡"을 통과할 수 있었다.

한편 제5연대 제2대대는 07:00에 동쪽 고지를 공격해 점령하였으나, 일몰과 함께 개시된 중공군의 대대적인 역습에 시달렸다. 대대는 220명의 중공군을 포로로 획득하며 분전했으나, 계속된 적의 공격에 다음날 03:00경 고지를 내어주고 하단부로 후퇴하였다. 그리고 이 무렵 제1대대와 제2대대도 제1연대 제3대대와 함께 정면으로 침투한 적의 공격을 날이 밝을 때까지 저지하며, 1,000여 명의 적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하갈우리에서 후방을 차단하던 제5연대는 아침 일찍 이동을 시작하였고, 공병이 마지막 폭파작업을 종료하고 하갈우리를 떠나자 하갈우리는 불길에 휩싸였다. 이후 소규모의 접적을 유지한 연대의 마지막 엄호부대가 고토리에 도착함으로써 10,000명의 병력과 1,000대의 차량이 이동한 하갈우리 포위망 돌파작전은 종료되었다. 이 작전기간 중 사단은 전사 103명과 실종 7명, 그리고 부상 506명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고토리 전투(1950. 11. 28~12. 11)

제1연대는 고토리에 연대지휘소를 설치하고 진흥리-하갈우리간 보급로를 방호중에 있었다. 이 무렵 중공군 제60사단은 이미 고토리까지 남하하여 하갈우리에 이르는 보급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11월 28일 11:00 사단장은 일부 병력으로 하갈우리의 보급로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제1연대장 풀러(Puller) 대령에게 하달하였다. 명령에 따라 연대장은 13:30경 일부 병력을 진출시켰으나, 중공군 제60사단 제179연대의 기습을 받고 교전 끝에 고토리로 복귀하였다.

저녁 무렵에 연대장은 보급로 확보를 위해 강력한 기동화부대를 편성하여 다음 날에 전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영 해병 제41특공대와 제3대대 G중대, 그리고 제7사단 제31연대 제1대대 B중대 등으로 혼성 편성된 기동부대는 영 해병 제41특공대장인 드라이스데일(Drysdale) 중령이 직접 지휘를 담당하였다. 다음날 09:45에 드라이스데일 기동부대는 하갈우리를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시시각각으로 병력을 증강하던 적이 화력을 집중하여 공격함으로써 드라이스데일 기동부대는 전진이 쉽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한 연대장은 13:00에 2개 전차중대를 급파해 기동부대를 지원하였다.

16:15경 고토리 북쪽 6㎞ 지점에 도달한 기동부대는 동쪽에서 보포협동으로 가해오는 중공군의 공격에 전진이 중단되었고, 피아간의 교전은 일몰과 함께 더욱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행군제대는 각 단위대로 분산되어 보급로 양측에서 야간 방어태세를 갖추었다. 다음날 04:30경 중공군은 공격개시선까지 포위망을 압축한 후 아군 포로를 이용해 제31연대 B중대 위주로 편성된 맥로린(McLaughlin) 부대의 항복을 권유하였다. 더 이상의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식한 맥로린 소령은 중상자는 후송한다는 조건으로 항복에 동의함으로써 “불지옥의 계곡” 전투는 종료되었다.

한편 행군제대의 전위인 전차대대 D중대와 제1연대 제3대대 G중대 및 영 해병 제41특공대는 후위와의 연결이 끊어진 채 전진하여 하갈우리 전방까지 진출했으나, 다시 이어진 적의 기습에 드라이스데일 중령이 부상을 입는 고전 끝에 19:15경 가까스로 하갈우리에 진입하였다. 이날 드라이스데일 기동부대는 전사 및 실종 162명과 부상 159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이들이 하갈우리 진입에 성공함으로써 11월 29일과 30일 야간에 단행된 중공군의 대공세를 막아낼 수 있었다.

12월 7일 미 제1해병사단은 진흥리에 배치된 제1연대 제1대대를 제외하고 모든 병력을 고토리로 집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고토리 돌파계획에 착수하였다. 이때의 상황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제20군단과 제26군단이 고토리 일대를 점령하고 고토리-진흥리간 보급로 차단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단이 추진중인 이번 작전의 성공여부는 고토리-진흥리간 도로 중간에 있는

1081고지의 확보에 달려 있었다. 이에 따라 사단장은 1081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진흥리의 제1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임무를 미 제3사단에 인계할 수 있도록 군단장에게 건의하여 승인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작전수행의 장애요인으로 우려되던 고토리 남쪽 3.5마일 지점의 파괴된 교량은 부품을 공수받아 수리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작전준비를 완료한 사단장은 12월 7일 18:50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3]

『① 제7연대(제31대대 배속)는 12월 8일 08:00를 기해 남쪽으로 공격하여 목표 A, B, C를 점령하라. 제1연대가 후속한 후 목표를 인계하고 함흥지역으로 계속 남진하라.

② 제5연대는 제7연대가 목표 B를 점령하는 즉시 이를 초월해 목표 D를 공격, 점령하라. 제1연대가 후속한 후 목표를 인계하고 함흥지역으로 계속 남진하라.

③ 제1연대 제1대대는 12월 8일 08:00를 기해 진흥리로부터 공격을 개시하여 목표 E(1081고지)를 점령하고, 사단의 주력이 통과할 때까지 이를 확보하라.

④ 제1연대(제1대대, 제31연대 제2대대 배속)는 사단의 주력이 고토리를 떠날 때까지 고토리를 확보한 후 목표 A, B, C, D로 전진해 제5연대 및 제7연대와 교대하라. 사단의 주력이 통과한 후 제5연대를 후속하면서 사단 후방을 엄호하라.

⑤ 사단본부 및 차량제대는 제5연대 및 제7연대를 후속하여 함흥지역으로 이동하라.』

명령에 따라 제7연대는 12월 8일 08:00에 제3대대를 우일선, 제31대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목표 A와 B를 각각 공격하였다. 또한 제1대대는 좌우 대대와 병진하며 후속 차량제대의 통로를 개척하는 동안 제2대대는 연대 후방을 엄호하면서 전진하였다. 이로써 제31대대는 목표 B를 무난히 점령하고 목표 D의 서쪽까지 진출하였으나, 제3대대는 목표 A에서 강력한 적의 공격으로 진출이 중단되고 있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대장은 제2대대를 투입하였고, 18:00 무렵 마침내 제31대대와 제3대대가 목표 A를 점령하고 연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사단의 선두부대인 제7연대 제1대대는 12월 9일 02:45에 진흥리를 통과하였다. 전날 목표 고지를 성공적으로 점령한 제7연대는 남진을 계속하였고, 이를 후속한 공병대는 15:30경 고토리 남쪽 3.5마일 지점의 교량복구를 완료하였다. 교량의 복

구를 기다리던 사단의 차량제대는 이동을 개시해 18:00에 다리를 통과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2:00에 공격을 개시한 제5연대는 제1대대가 목표 D인 1457고지를 점령하고 서쪽의 제31대대와 연결하였다. 그러나 08:00에 공격을 단행한 진흥리의 제1연대 제1대대는 목표 E인 1081고지의 전방까지 진출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지원의 중단과 목표 고지에 위치한 적의 공격으로 고지 중간지점에서 야간전투태세로 전환하였다.



경무장으로 남진중인 중공군 행렬 (출처 : 소장자 류은규 / 유로크레온)

다음날인 12월 9일 아침에 제1연대 제1대대는 목표 고지의 중간지점에서 정상을 향해 공격을 재개하였으나, 완강한 적의 저항으로 교전을 계속하였다. 대대는 공지협동을 통해 강력한 공격을 단행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친 돌격전을 감행하여 15:00경 고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사단의 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차량제대의 선두가 12월 10일 08:30에 진흥리를 통과하였고, 사단장과 사단

지휘부는 10:30에 흥남으로 향하였다. 제1연대는 오후부터 고토리에서 철수를 개시해 산발적인 적의 저항을 물리치며 순조롭게 남진을 계속하였다.

진흥리를 통과한 후 미 제3사단의 엄호를 받으며 함흥으로 이동을 시작한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11일 21:00에 함흥지역에 모두 진입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고토리 포위망 돌파작전에서 전사 75명과 실종 16명, 부상 256명의 인명손실이 발생하였다.

⑶ 전투 결과

함흥으로 후퇴한 미 제1해병사단은 미 제10군단의 방어계획에 따라 연포비행장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전개하였고, 군단의 재배치계획으로 인해 12월 15일 흥남항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전투는 여러 측면에서 전선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중공군은 제9병단 예하 3개 군단 12개 사단 중 7개 사단이 투입되어 미 제1해병사단을 포위 공격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을 섬멸한 후 함흥지역을 쟁취하려던 적의 기도는 상당한 지장을 가져왔다. 중공군은 장진호 부근 전투에서 전투손실뿐 아니라 비전투손실도 막대하였는데, 제24군단의 경우 90%가 동상 환자였고, 제27군단은 10,000명의 비전투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 제1해병사단과 접촉하지 않은 잔류부대도 아군의 강력한 공중폭격과 혹한에 시달렸다.

이에 따라 더 이상의 군사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중공군 제9병단 지휘부는 3개월에 걸쳐 부대를 재편성하고 병력 및 물자를 보충한 후 1951년 3월 중순에 전선 투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첫째, 수송능력 부족으로 인한 보급지원과 부대기동의 제한과 둘째, 그들 자신의 전술적 결함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번 전투에서 중공군은 지상전투에서 전사 15,000~37,500명과 부상 7,500명, 항공폭격으로 전사 10,000명과 부상 5,000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에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의 강력한 포위망을 돌파하여 함흥지역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공군 제9병단이 서부전선의 제13병단을 증

원할 수 있는 역량을 소멸시킴으로써 미 제8군이 위기를 모면하는데 일조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 부근 전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 제1해병사단은 전술적으로 공지협동작전을 전개하여 모든 부상자와 전투장비를 후송하는데 성공하였다. 둘째, 적이 기선을 제압한 가운데 불리한 지형과 기후조건에서 사단은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혹한은 사단의 작전에 큰 지장을 주었지만 적에게는 더욱 심하고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셋째, 적의 주력을 장진호 부근 전투에 고착시킴으로써 동북전선에서 다른 부대들의 철수를 용이하게 하였다. 넷째, 중공군 제9병단의 약화로 인해 미 제10군단은 함흥지역에서의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었다.

한편 미 제1해병사단의 작전성공 요인은 첫째, 철수로상에 일련의 거점을 편성하였다. 유담리에서 진흥리간 철수로상의 덕동고개와 하갈우리, 고토리와 진흥리 등지에 일련의 거점을 편성하여 철수로상의 주요 고지를 사전에 통제하였으며, 특히 덕동고개를 제7연대 F중대가 5일에 걸쳐 사수함으로써 제5연대와 제7연대가 하갈우리에 진입할 수 있었다. 둘째, 절대적인 공중우세권을 확보하여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공중우세권의 확보로 근접항공지원과 공중보급, 그리고 공중수송을 실시하였고, 철수시에는 24대의 항공기가 본대를 엄호하였다. 셋째, 화력 및 군수지원의 우세로서 항공화력 및 포병은 중공군의 박격포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고, 포병은 제단식으로 이동하여 철수간에도 간단없이 사격이 가능하였다. 특히, 장간조립교를 공중 투하하여 파괴된 교량을 복구한 후에 철수한 것은 중공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혹한에도 불구하고 공중철수를 거부하고 포위망을 타개한 미 해병대의 왕성한 사기와 강력한 단결심은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밑바탕이 되었다.

반면에 중공군의 실패요인을 보면, 중공군은 병력을 분산 운용하여 7개 사단병력을 각각 상이한 목표로 공격토록 하였고, 공격실패 시에도 계속 동일한 방향으로 공격토록 하는 등 융통성이 없었다. 통신수단의 결핍으로 연대급 이상에서만 무전기가 장비되어 있어 호기를 간파하더라도 보고하고 조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또한 수송력이 부족하여 식량

등 기타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했으며, 박격포만 장비한 상태에다가 보유한 포탄까지 충분하지 못해 미군에 비해 화력면에서 열세가 요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혹한이었다.

장진호 부근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의 손실은 전투손실 전사 463명, 후송 후의 사망자 98명, 실종 182명, 부상 2,872명이었고, 비전투손실은 3,659명으로 대부분이 동상에 의한 것이었다.

2) 함수·청진-흥남 철수전(1950. 12. 1~12. 16)

(1) 작전 개요

함수·청진-흥남 철수작전은 함수 및 청진 북쪽까지 진출한 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 제9병단의 제2차 반격으로 인해 공격을 중단하고 1950년 12월 1일 철수로 전환한 후 흥남항을 출항하기 직전인 12월 16일까지 성진을 경유하여 흥남으로 기동한 철수작전이다. 이 작전은 초기, 즉 1950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국군 제1군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함수·청진-흥남간 철수작전이었으나, 이후부터는 미 제10군단이 주도한 흥남 동북 외곽의 교두보확보 작전이었다.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국경을 향해 진격할 무렵,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3개 군단은 낭림산맥을 타고 남하한 후 장진호를 중심으로 서쪽에 제20군단, 동쪽에 제26군단, 북쪽에 제27군단이 위치해 미 제1해병사단을 위협하였다. 이에 앞서 중공군은 제13병단 예하의 제42군단을 만포진과 강계를 경유하여 장진호 남쪽으로 잠입시켜 미 제1해병사단의 압록강 진격과 인접한 미 제8군과의 연결작전을 차단하고 있었다.

한편 국군 제1군단이 진격작전을 통해 청진 북쪽과 함수에 주력을 두면서 일부가 혜산진에 도달했을 무렵, 군단 정면의 적정은 북한군 제4군단 예하의 제41사단과 제507여단, 단대호 미상의 해안경비대가 주력을 회령과 무산 일대에 집결시켜 재편성 중에 있었다. 그리고 회령 부근에는 10월말에 편성된 북한군 제8군단

예하의 제5사단과 제6사단, 제7사단이 전열을 강화하면서 남침을 준비하는 한편 일부가 적 제41사단과 함께 부령과 부거 일대에서 국군 수도사단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국군 제3사단 정면의 상황은 미 제7사단의 혜산진 점령 당시 적의 주력이 국경을 넘어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백암 동북쪽에 미처 후퇴하지 못한 상당수의 병력이 머물고 있었다. 이로 인한 일대의 적 병력은 패잔병을 비롯해 내무서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합수독립대대와 백암독립대대, 무산사단, 원흥독립중대, 송경독립여단 등으로 추정되었다. 후퇴를 거듭한 군단 정면의 적은 전의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장비도 개인화기에 불과할 정도로 사기나 장비면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장진호 부근의 중공군은 편제상의 병력과 중장비를 보유한 충분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함께 미 제10군단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수도사단이 청진에서 회령-웅기 방면으로, 제3사단이 길주-합수-무산 방면으로 진격하는 한편 미 제7사단은 풍산-혜산진 방면으로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에서 압록강 상류로 진격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진은 중공군이 이미 북한 내에 잠입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11월 27일 유담리 전투를 감행한 미 제1해병사단은 전투개시와 동시에 장진호 부근에 배치된 중공군 제9병단으로부터 포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미 제10군단 철수작전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반면 국군 제1군단은 대규모의 접적이 없는 상태에서 급속한 진격이 이루어져 전면적인 철수명령이 하달되기 전까지 부거-부령-혜산진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이 무렵 아군의 사기는 연승과 통일에 대한 갈망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⑵ 작전 경과

1950년 11월 27일 저녁 무렵 중공군은 제2차 공세의 일환으로 장진호 부근의 제1해병사단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104] 유엔군의 총공세에 따라 압록강을 향해 북진하던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의 3개 군단의 반격을 받고

장진호 계곡에서 포위되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급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1월 28일 밤 맥아더 원수는 미 제8군사령관과 미 제10군단장을 동경으로 불러 전략회의를 열고, 전선의 모든 부대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였다. 철수명령을 받고 전선으로 복귀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11월 30일 오후 예하의 전 부대에 접적 유지 및 함흥-흥남으로의 철수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105] 그리고 명령을 받은 국군 제1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예하의 각 사단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106]

<표 5-20>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제1군단	군 단 장		소장	김백일(金白一)	
	수도사단	사 단 장	준장	송요찬(宋堯讚)	
		제1연대장	대령	한 신(韓 信)	
		제18연대장	대령	임충식(任忠植)	
		제1기갑연대장	대령	김동수(金東洙)	
		야공대대장	?	?	배속부대
		제10포병대대장	중령	이규삼(李奎三)	배속부대
	제3사단	사 단 장	준장	최 석(崔 錫)	
		제22연대장	대령	김응조(金應祚)	
		제23연대장	대령	김종순(金淙舜)	
		제26연대장	중령	서정철(徐廷哲)	
		야공대대장	?	?	배속부대
		제11포병대대장	?	?	배속부대
북한군	제4군단	군 단 장	상장	박종덕(朴鍾德)	
		제41사단장	소장	?	
		제507여단장	소장	?	
	제8군단	군 단 장	상장	김창덕(金昌德)	신 편
		제5사단장	소장	?	
		제6사단장	소장	?	
		제7사단장	소장	?	

『① 수도사단장은 현진지에서 12월 1일 철수를 시작해 북청과 이원을 목표로 전진하라.
② 제3사단은 함수-길주 선에서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공세방어를 실시한 후 축차적으로 부대를 성진으로 전진하라.』

명령에 따라 엄호임무를 담당한 제3사단장 최석 준장은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예하 연대에 하달하였다.[107]

『① 제22연대는 현 임무를 계속하면서 우측 제23연대와 연계하여 공세적 방어를 실시하라.
② 제23연대는 즉시 현 위치로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주력을 길주로 이동하고 1개 대대는 고참동(古站洞)을 거점으로 명천 방면에 대한 경계를 할 것이며, 좌측 제22연대와 연계하여 수도사단의 전진을 엄호하는 동시에 공세적 방어를 실시하라.』

가) 혜산진·길주-성진 철수전(1950. 12. 1~12. 6)

철수명령이 하달될 무렵 군단의 좌일선인 제3사단은 선두부대가 미 제7사단에 이어 혜산진까지 진격하였고, 일부는 수도사단의 후방인 나남으로 진출해 청진 서북쪽 지역에 대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제23연대는 나남(羅南)-경성(鏡城)에서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길주로 철수할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주력을 함수 일대에 두고 있던 제22연대는 혜산진에 진출한 제1대대 제3중대를 백암으로 복귀시키고 길주 부근으로 철수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제3사단은 지휘소를 나남에서 길주로 이동하였고, 사단 주력은 함수-길주 선에서 공세적인 방어를 실시하면서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한편 부령(富寧) 및 부거(富居) 남쪽 4㎞ 지점까지 진격한 수도사단은 제18연대가 부령 남쪽 장흥동(章興洞)에서, 제1기갑연대가 부거 남쪽 토막동(土幕洞)에서, 제1연대가 청진시 농포동(農浦洞)에서 제3사단의 엄호를 받으며 주을(朱乙)로 철수하였다. 이때 미 제10군단도 예하의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이 장진호 및 혜산진-신갈파진(新乭波鎭)에서 함흥을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반면에 중공군은 3개 사단이 장진으로 남하한 후 장진호 서쪽 및 동쪽의 공백 지역을 통해 하갈우리 남쪽까지 진출하여 미 제10군단 주력을 후방에서 차단하고 있었다. 또한 청진 북쪽에서는 북한군 제41사단과 제507여단이 재편을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남하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성진을 목표로 철수를 개시한 수도사단 주력은 12월 2일 제3사단 제22연대의 엄호 아래 길주를 향해 이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함께 제23연대도 다음날 10:00까지 길주에 도착하기 위해 경성에서 축차적으로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22연대는 혜산진까지 진출한 제3중대의 복귀와 동시에 길주를 향해 이동을 시작하였다.

다음날인 12월 3일 길주 부근의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과 제3사단은 좌측방의 미 제1해병사단과는 달리 계획대로 철수작전을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제22연대가 혜산진-백암-합수-재덕-송덕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을 길주로 이동시킨데 이어 제23연대도 수도사단의 주력을 엄호하면서 길주로 후퇴하여 엄호작전에 임하였다.

삼수에서 풍산으로 철수하려던 제26연대 제3대대는 철수를 간파한 약 300명의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았다. 이에 대대는 삼수 서북쪽 고지의 적에 대해 즉각적인 돌격을 감행하여 195명을 사살하고 1명을 포로로 획득하였으며, 81㎜ 박격포 1문 등 많은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수도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던 제3사단 주력은 12월 4일 길주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제23연대는 사단의 작전지시에 따라 대전차포중대를 성진으로 이동시켰고, 주력은 17:00경 학성동(鶴城洞)에 집결해 성진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22연대는 재덕의 2개 중대가 집결하지 않아 출발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무렵 군단장 김백일 소장은 급변하는 전황에 대처하기 위해 동북해안의 2개 사단을 급히 길주로 집결시킨 후 일부 병력을 계속 성진으로 이동시켜 중공군을 동북에서 견제하였다. 그리고 인마와 차량의 통행이 심한 함흥 방면 및 동북쪽 마전리(麻田里) 도로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해 오열의 색출을 시도하는 한편 흥남부두에 헌병대를 배치해 제반 출입을 통제하였다.

한편 12월 3일 제3사단의 엄호 아래 명천-길주로 축차적으로 이동한 수도사단 주력은 다음날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가 성진에 집결하였다. 그리고 길주에서 이동한 제18연대가 12월 5일 15:00에 성진에 도달함으로써 수도사단은 성진에 집결을 완료하였다. 이후 제1기갑연대는 이원을 향해 육로행군을 개시하였다.

군단의 명령에 따라 철수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12월 5일까지도 청진 및 혜산진 방면의 적의 동향은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다만, 명천과 청진 사이에서 집결을 시작한 적이 점차 대규모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방지휘소를 길주에서 성진으로 옮긴 제3사단은 사단 주력의 작전지도에 임하였다. 이때 제22연대 제1대대와 제2대대는 사단 전방지휘소의 철수를 엄호하였고, 이미 성진으로 철수한 제3대대는 경비임무에 돌입하였다. 제23연대는 길주 북쪽에 급편진지를 구축하고 제2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였다.

당시 군단의 요청을 받은 미 공군은 군단 정면을 수시로 폭격하였고, 미 해군 또한 함포사격으로 지원하였다. 그리고 서호진(西湖津)의 군단지휘소는 각 지역에 무질서하게 운집한 피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교통통제선을 설치하였고,[108] 흥남 및 서호리 유지 120명을 선발해 흥남조선소에서 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선무활동 및 보도방송을 실시하였다.[109]

한편 성진항에 집결한 수도사단 지휘부 및 참모부와 2개 중대는 12월 6일 08:30 미 해군 LST에 승선하여 서호진으로 출항하였고, 전날 육로행군을 개시한 제1기갑연대는 이원을 경유하여 홍원(洪原)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13:50에는 제1연대가 열차편으로 흥남을 향해 출발하였다. 수도사단이 육로 및 해상으로 이동할 무렵 제3사단은 제22연대장의 지휘 아래 일부 선발대가 육로를 이용해 흥남을 향해 출발하였고, 다음날 이원에 도착하였다.

온수평(溫水坪) 일대에 급편진지를 구축하고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제22연대 제1대대는 19:30경 대대 전방에 나타난 적 차량을 제2대대와 합동으로 공격하여 40여 명의 적을 사살하고 차량과 화기 등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학성동에 방어진지를 강화하고 있던 제23연대의 정면에도 12월 6일 오후 무렵부터 적의 정진(挺進)부대[110]가 출현하였으나, 공군의 지원 폭격으로 격퇴되었다.

나) 성진-흥남 철수전(1950. 12. 7~12. 16)

미 공군에 의해 격퇴되었던 적의 정진부대는 점진적으로 길주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다음날 적은 고창동(高倉洞) 부근의 무명고지와 재덕 남쪽 8㎞ 지점, 단천 서북쪽 수하면 일대에서 수십 내지 수백 명 단위로 남하하였고, 홍군의 패잔병과 이원-단천 일대의 산악지대에 잠복한 적이 합류하여 단천을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부령-청진과 합수 부근에 연대규모의 적이 집결해 남하하고 있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제3사단 주력은 길주 일대에 엄호진지를 구축한 후 적의 정진부대를 견제하면서 공세적인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다. 고창동에서 교전 끝에 적을 격퇴한 제22연대 제1대대는 사단명령에 따른 이동을 위해 길주로 집결하고 있었다.[111] 또한 제23연대는 전날에 이어 학성동에서 방어전에 임하면서 성진으로 축차 이동하였다.

한편 홍원으로 이동한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는 흥남의 서호진 부두까지 이동 집결하였고, 전날 늦게 열차편으로 성진을 출발한 제1연대는 퇴조역(退潮驛)에서 하차하여 부대정비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사단장을 비롯한 잔류요원과 제18연대 주력이 성진항에서 미 해군함정에 승선하여 16:00에 서호진을 향해 출항하였다.

수도사단이 퇴조 및 서호진으로 해상과 육로를 이용해 기동을 완료하자, 12월 8일을 기해 국군 제3사단 주력인 제22연대와 제23연대도 해상기동을 위해 길주 부근의 엄호진지에서 성진으로 이동 집결하였다. 그리고 이들 연대는 성진항 부근에 집결하여 미 해군 LST에 승선할 준비를 갖추었다. 군단 직할인 제26연대 주력은 북청에서 성진-단천-이원-북청 가도를 고수하며 성진에서 흥남으로 육로 이동하는 최종부대를 수용하고 있었다. 전날 이원에 도착했던 사단 수송제단은 홍원을 경유하여 흥남으로 향하였다.

수도사단 제1연대는 미 제10군단 주력의 집결예정인 함흥 동남쪽을 엄호하고 흥남교두보 점령의 선견진지 역할을 하는 운주봉(雲柱峰)-초흥동(草興洞) 선을 점령하기 위해 신풍리(新豊里)를 출발하였다. 그리고 제1기갑연대는 흥남항의 동북

쪽 외곽 8~10㎞를 연하는 마제형 진지를 점령하기 위해 제1대대와 제2대대를 주흥리(朱興里) 일대에, 제3대대를 마전리 일대에 배치하였다. 서호 및 퇴조로 이동을 완료한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는 이로써 흥남 동북외곽의 엄호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군단 최종엄호부대로서 성진에 집결한 제3사단은 12월 9일 아침부터 미 해군 세인트 윈드(Saint Wind)호에 승선한 후 13:00에 성진항을 출항하였다. 이로써 길주 부근에서 최후까지 엄호임무를 수행한 제3사단 주력의 해상철수작전은 종료되었다.

성진에서 흥남에 이르는 육로 철수부대의 최종 엄호작전을 전개한 제26연대가 12월 9일 06:00를 기해 북청에서 철수를 개시할 무렵 200여 명의 적이 서북쪽 감제고지로부터 공격을 가해 철수를 방해하려 하였다. 북청역에 집결하고 있던 연대본부와 제3대대는 이러한 적의 기도를 간파하고 즉시 전투대형으로 산개하여 격퇴한 후 북청을 출발하여 흥남으로 향하였다. 이 무렵 수도사단은 운주봉과 주흥리-마전리 선에서 진지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성진항에서 해상 기동한 군단의 전 부대가 서호진 동북쪽에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군단의 제1차 철수작전이 완료될 무렵, 적은 동북지역에서 대병력으로 집결하여 공격태세에 들어갔다. 그리고 함흥 서북쪽 장진호 부근의 미 제1해병사단은 중공군의 강력한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토리-진흥리간 돌파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흥남항에 정박하며 대기하던 제3사단 해상철수부대는 전황의 급변으로 당초의 상륙계획을 바꿔 12월 10일 15:00에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고, 제18연대도 부산으로 해상철수하기 위해 흥남부두 내항에 집결해 승선을 대기하였다. 이는 흥남철수작전에 착수한 군단의 작전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군단은 제3사단을 제1제단(梯團)으로, 수도사단을 제2제단으로 편성하였고, 군단사령부 직할의 모든 부대는 군단사령부 제단으로 편성하였다.[112] 이에 따라 제1제단인 제3사단 주력은 미 해군 LST로 출항하였다.

한편 하갈우리-고토리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돌파하고 진흥리로 철수한 미 제1

해병사단은 12월 11일 22:30에 함흥-흥남간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이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교두보 진지의 점령과 흥남항에서의 해상철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113] 제대별 철수순위는 미 제1해병사단과 국군 제1군단, 이어 미 제7사단과 미 제3사단 순이었다.

그러나 군단은 마지막 철수일인 12월 24일까지의 승선준비를 위해 강력한 교두보가 필요하였다. 다행히도 교두보의 일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가 흥남 동북쪽 신흥리-운주봉선에 구축하고 있어 흥남 동부 외곽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었다. 또한 장진호에서 철수한 미 제1해병사단이 함흥에 집결하는 동시에 흥남항 서북쪽 교두보는 미 제3사단과 제7사단이 확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은 사단주력의 장악이 용이하도록 지휘소를 마전리에 일시 개설하였으나, 이후 철수부대의 순서에 따른 제반 대책강구를 위해 다시 서호진으로 복귀시켰다. 사단 주력인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는 운주봉과 주흥리, 마전리 부근에 진지를 점령해 흥남교두보를 선형(扇形)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이 무렵 제3사단 제22연대와 제23연대는 부산으로 항진하였으나, 흥남에 잔류한 사단 직할대는 군단의 지시로 전 병력을 부두에 집결하여 승선을 시작하였다.

한편 미 제7사단과 제3사단이 함흥 교두보의 선형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12월 12일, 흥남 외항에 정박중인 미 제7함대 소속 제77기동함대의 고속항공모함 전폭기들이 교두보 전면의 중공군 접근로에 근접지원 폭격을 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함포가 중공군의 행렬과 집결지에 사격을 집중하였다. 또한 96.8 호송항공모함전대는 시실리(Sicily)호와 스트레이트(Strait)호 외에 바탄(Bataan)호를 추가해 지상군과 수송선단을 지원하였다. 이런 엄호를 받으며 미 제1해병사단은 흥남내항에서 승선을 시작하였다.

수도사단의 주력인 제1기갑연대가 운주봉-신흥리선에, 제1기갑연대가 주흥리-마전리선에 진지를 점령하고 있던 12월 12일 제3사단은 이틀간의 항해 끝에 부산과 구룡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9:00를 기해 모든 상륙 및 양륙작업을 완료함으로써 혜산진-합수-성진으로부터 시작된 제3사단의 해상철수작전은 종료되었다.

한편 12월 13일 중부와 서부전선의 아군은 철수를 거듭하여 대체로 38도선 부근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고, 이와 병행해 동부전선의 38도선 북쪽에도 신편된 제9사단과 제5사단을 배치하여 차단진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 무렵 함흥-흥남 일원에서는 흥남교두보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과 이에 대한 방어가 피아간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 공방전은 중공군 3개 군단이 주공을, 북한군 제4군단과 제5군단이 조공을 담당하였다. 수도사단은 진지를 강화하고 철수순위에 따라 주력을 축차적으로 흥남부두에 집결 수용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제1연대는 신흥리의 지휘소를 운동리(雲洞里)로 옮겨 운주봉-초흥리 진지를 남쪽의 신흥리-신상리(新上里) 선으로 이동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리고 주흥리 진지를 계속 강화한 제1기갑연대는 제2대대를 마전리 북쪽 249고지-194고지선에서 유정동(柳亭洞)으로 이동시키고 서호진 북쪽 233고지 일대의 경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제26연대가 마전리에서 흥남시 신전리(新田里)로 이동해 진지를 점령한 가운데 사단 지휘소는 서호진에서 승선해 묵호를 향해 출항하였다.

수도사단과 미 제7사단, 미 제3사단은 흥남시를 중심으로 퇴조-함흥-선덕면을 미제형으로 연결하는 약 10㎞의 흥남교두보를 구축하였다. 12월 14일 미 제1해병사단의 승선이 완료되자, 교두보는 신흥리-호상리-연포를 잇는 주저항선으로 축소되었다. 흥남 동북쪽의 외곽진지를 전담하던 수도사단은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의 진지를 신흥리와 신상리로 이동하였다.

한편 12월 14일 5개 사단을 동원해 미 제10군단 정면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중공군은 지상부대와 해·공군의 입체작전에 의해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집중적인 파상공격을 가해왔다. 이는 함흥 부근과 함흥-흥남을 연하는 서쪽 및 해안선 일대의 아군 교두보를 와해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때 미 제3사단과 제7사단은 미 제7함대의 함포사격 및 공중폭격 지원을 받으며 반격을 펼쳐 적을 주저항선에서 격퇴시켰다.

이 무렵 수도사단 제1연대와 제1기갑연대는 흥남 동쪽의 진지를 더욱 강화하여 북한군 제4군단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일부 병력을 흥남부두로 집결시킬 준비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서호진의 군단지휘소도 지시에 따라 미 해군 LST에 승선할

준비를 하였으며, 제3사단 잔류부대 또한 승선을 완료하고 출항대기 중이었다.[114]

중공군의 파상공격은 12월 16일에도 계속되어 함흥 북쪽과 서쪽에서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미 제10군단은 전방지휘소를 흥남으로 이동하고, 일선 진지도 함흥-흥남간 주저항선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중공군을 견제하다 일거에 유인하여 계획된 화망에 의한 동시 집중사격으로 섬멸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차적인 철수계획에 따라 수도사단은 야간 이동으로 흥남의 서호부두에 집결하였다. 즉, 신상리-신흥리 진지를 점령중인 제1연대는 10:00부터 축차 이동하여 20:00에 집결을 완료해 미 해군 LST에 승선하기 시작하였고, 제26연대와 제1기갑연대도 24:00까지 부두 집결을 완료하여 출항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17일 새벽에 사단의 전 병력은 흥남항을 떠나 동해안의 묵호를 향해 항진하였다. 이로써 국군 제1군단의 모든 부대는 미 제10군단의 흥남교두보 확보와 엄호 아래 계획된 흥남해상철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

(3) 작전 결과

국군 제1군단의 해상철수 이후 흥남 교두보작전은 12월 24일 최종부대가 흥남항을 출항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적은 중공군 제9병단 예하 9개 사단과 북한군 3개 군단의 병력을 투입하여 아군의 철수작전을 저지하려 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철수작전은 12월 10일 흥남항을 출항한 제3사단 주력이 이틀 후 구룡포 및 부산에 상륙하여 홍천에 배치되고, 12월 17일 새벽에 흥남항을 떠난 수도사단이 다음날 오후 묵호에 상륙하여 양양으로 진출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해상철수가 미 제10군단 주력보다 선행된 배경은 동부전선 38도선 북방의 북한군 제2전선부대와 남진을 기도하는 적 정규군이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에 있었다.

군단이 상륙한 동해안 태백산맥 일대는 북한군 패잔부대로 편성된 제2전선부대가 거점을 두고 후방교란을 자행하면서 향후 남하가 예상되는 정규부대와의 연계에 앞서 아군의 전력을 분산시키려 기도하였다. 이러한 적의 기도를 간파한 육본은 38도선 일대에 배치된 제9사단 및 제5사단과 해상철수한 제1군단으로 차단진

지를 점령토록 하였다. 이는 12월 20일 서부전선의 중공군 15개 사단과 북한군이 개성 북쪽의 금천에 근접하여 38도선 이북을 재장악하기 위한 소위 '제2차 작전'을 기도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군단은 38도선 북쪽의 양양-서림-현리 선의 진지를 강화하는 한편 일대에서 출몰하는 적 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대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는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1차 공세 이후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1950년 11월 24일 총공격을 단행하자, 적유령산맥 남단과 장진호 일대에 잠복하고 있던 중공군이 11월 25일 야간을 기해 반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부전선의 청천강 일대와 동부전선의 장진호-함흥 일대에서 12월 3일까지 피아간에 전개된 작전이다.

유엔군은 중공군을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격퇴하기 위해 미 제8군을 주공으로 청천강 정면에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중공군과 북한군은 「결정적인 반격으로 전환하여 청천강과 장진호 그리고 청진지역에서 유엔군을 각각 포위 섬멸한 후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제2전선부대와의 연계하에 38도선 이북지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반격을 실시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작전지역을 서부와 동부로 구분하여 서부는 청천강 지역, 동부는 장진호 지역에서 연합집단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서부는 중공군 제13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동부는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3, 제4, 제5군단이 공격을 담당하였다. 적은 작전기간 동안 대규모의 포위기동과 우회전법술 비롯하여 적극적인 침투작전을 수행하였고, 기만 유인과 침투, 매복전술 등을 혼용하며, 특히 제2전선부대의 게릴라전을 활용하였다.

적의 제2차 공세에 대한 작전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첫째, 중공군 제13병단이 미 제2사단과 국군 제2군단간의 간격으로 침투하여 돌파구를 확대함으로써 미 제8군의 우측을 위협하여 서부지역으로 전선을 압축하였고, 둘째, 중공군 제9병단이 장진호 일대에서의 포위에 이은 계속적인 남진으로 제2전선부대의 원산점령과 함

께 흥남교두보를 압박하여 동부전선의 유엔군을 포위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제2차 공세를 주도한 중공군 지도부의 전쟁 지도(指導) 측면에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전장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반도 전국(戰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결심을 과감히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장을 평양-원산 정면에 두고 덕천-영원 북서쪽 지역을 후방으로 하여 서부전선에 6개 군단을 집중하는 한편 제9병단 3개 군단을 동부전선에 투입하였다. 둘째, 미군의 전략적 판단착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소부대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의 작전을 통해 미군 및 국군을 예정지역으로 깊숙이 유인하여 병력을 집중하여 기습공격을 실시하였다. 셋째, 퇴로차단을 두려워하는 미군의 약점을 적극 이용하였다. 중공군의 전술적 장기를 발휘하여 대담하게 전역(戰域)을 우회하여 분할 포위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넷째, 미군이 동요하고 있는 시기를 포착하여 승세를 타고 승리를 확대하였다. 청천강 일대에서 미 제9군단을 공격한 직후, 철수와 병력배치를 놓고 미군 지도부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 중공군 지도부는 서부지역의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추격토록 조치함으로써 예상을 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중공군 지도부는 제2차 공세작전에서 무기와 장비가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공군이 작전 간에 발생된 여러 장애요인, 즉 혹한으로 인한 동상과 동사, 보급체계의 미비로 인한 식량과 탄약의 부족 등을 이겨내고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확인하였다고 작전의 의의를 평하였다.

한편 중공군 지도부는 제2차 공세의 전과 및 손실을 앞의 <표 5-21>과 같이 제시

<표 5-21> 중공군 제2차 공세시 국군 및 유엔군의 인명피해 현황

단위 : 명

구분	국군	미군	기타	계
살상	5,962	20,867	116	26,945
포로	5,568	3,402	121	9,091
계	11,530	24,269	237	36,036

하였다. 작전기간 동안 중공군은 국군 및 유엔군 36,000여 명을 살상 및 포로 획득을 하였는데, 국가별로는 미군 24,000여 명, 국군 12,000여 명, 영국군을 비롯한 기타 국가군 230여 명이었다.

또한 무기 및 물자에 대한 전과는 전차 78대와 장갑차 3대, 차량 2,600여 대, 그리고 각종 화포 529문과 기관총 300여 정, 각종 소총류 4,200여 정을 노획하였다. 그리고 전차 88대와 장갑차 2대, 각종 차량 115대를 파괴하는 한편 다량의 각종 군용물자를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이번 제2차 작전에서의 중공군의 인명손실은 30,700여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실종되었다.[115]

<표 5-22> 중공군 제2차 공세시 중국인민지원군의 주요 전과

구분	전차	장갑차	차량	각종포	기관총	소총
노획	78	41	2,611	529	300	4,200
파괴	88	·	776	?	?	?
계	166	41	?	1,161	1,050	10,798

2. 중공군의 제2차 공세 분석

1) 적전술(기동전)

첫째, 기동전은 기습을 작전수행의 기초로 하였다. 유엔군은 중공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이 있기 전까지 그들의 개입 사실을 몰랐으며, 교전 후에도 정확한 중공군의 개입규모를 알지 못하였다. 이는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을 경시한 유엔군측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역이용한 중공군의 작전수행이 오히려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중공군은 최초 한반도로 진입시에 그들의 기도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주로 야간에 이동하였고, 그것도 산악위주의 기동을 실시하여 최소한의 노출과 최대한의 기도비닉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중공

군은 유엔군이 그들에 대한 대비를 미처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타격을 가해 유엔군의 피해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또한 제2차 공세시에는 유엔군이 중공군의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작전을 신중하게 실시하자, 일부 부대로 유엔군을 그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유인한 후 기습공격을 가하였다.

둘째, 중공군은 매 작전시마다 이동하는 적에게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동상태에 있는 부대는 진지방호라는 이점을 지니지 못하게 되며 연결된 방어선이 없기 때문에 침투가 용이해 상대방의 기습적인 타격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또한 적 병참선 방향으로의 배후 공격을 겨냥할 때에도 상대방이 정지해 있을 때 보다는 기동할 때 그 효과는 더 크게 마련이다. 더욱이 중공군은 타격시점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하고, 또 돌파 후의 배후 공격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공세이전시의 초기 타격 효과를 아주 크게 하였다.

셋째, 중공군은 작전시 적의 취약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중공군이 판단한 유엔군의 취약점은 부대와 부대 사이 간격, 국군, 그리고 미군의 도로위주 기동 및 전투근무지원 위주의 전투수행이었다. 부대와 부대사이 간격은 근본적으로 작전 수행시 취약한 지점으로 적 부대간의 전투지경선 부분에 주력을 지향하는 것은 군사작전 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이다. 부대의 규모가 클수록 전투지경선의 약점은 크게 마련이고 돌파구의 형성과 확대는 더 용이한 법이다. 이런 이유로 중공군은 작전기간 중 유엔군의 각 제대별 전투지경선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제2차 공세에서는 국군 제2군단과 미 제1군단의 경계선, 국군 제2군단 내의 전방 양개 사단의 전투지경선 부분을 주공 지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쉽게 돌파할 수 있었다.

국군을 취약점으로 선정한 것은 국군이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비와 훈련수준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급조된 부대들이 다수를 차지해 체계적인 지휘·통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공군은 작전기간 중 공격을 실시할 때는 최초에 국군을 대상으로 먼저 공격하고 거기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미군을 공격하였다.

미군의 도로위주 기동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전장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다. 즉, 당시 까지 미군은 한국과 같은 산악지형에서의 작전경험이 거의 없었다. 또한 화력전 위주의 전투를 수행하는 미군의 전투근무지원 소요는 방대하였으므로 병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공군이나 다른 군대에 비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중공군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작전에 반영하였다. 중공군 자신의 위치는 산악기동을 통해 미군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도로에 노출된 미군을 공격하여 기습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세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회기동을 통하여 미군의 전투력 발휘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병참선 차단에 중점을 기울였다. 상기 취약점들은 중공군이 두 차례에 걸친 공세에서 입체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그들의 돌파지역은 국군 정면과 부대간 전투지경선, 돌파 후의 기동은 적 병참선 방향으로 지향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넷째, 작전지도 측면에서 기동전이 추구하였던 것은 작전적 수준의 우회와 전술적 수준의 분할 포위의 결합이었다. 중공군은 공격을 실시하여 돌파에 성공하면 부대의 일부는 지체 없이 종심 깊은 후방으로의 진출을 감행하였다. 이때 그 규모와 거리는 전술적 차원이 아닌 작전적 수준이었다. 이러한 종심 기동의 목적은 상대의 철수로 및 병참선을 위협하거나 차단하여 적의 전반적인 균형에 동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특히, 중공군은 이러한 우회에 병행해서 정면에서 강한 압박을 가했는데, 이 압박의 특징은 전 전선에서 단순한 정면 공격이 아닌 소규모의 포위를 곳곳에서 완성하는 것이었다. 작전수행 결과, 전장은 비선형적으로 발전되고 전황은 유동적이면서 급변하게 되었으며, 유엔군의 전방 각 사단정면의 거의 모두가 붕괴되면서 아군 후방으로 우회기동하는 대규모의 중공군에 동시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섯째, 작전기간 중 적용된 기동전의 특징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지휘관들의 탄력적 지휘 및 간단한 기동계획, 실시간대의 독단활용 측면이다. 제1차 공세 시작 전 중공군은 방어위주의 작전방침을 급박하게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급박한 작전변경 하에서도 그들은 일사불란한 상하 지휘체제로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는 당시의 중공군에게는 그러한 대처능력이 통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오랜 유격전 전통에서 몸에 익힌 유동적 작전에의 적응력 때문

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각급 제대에서의 판단, 계획수립, 전파, 지휘 및 참모활동 등 절차의 신속성은 다른 나라 군대보다 훨씬 민첩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중공군 특유의 기동전 수행을 뒷받침해 준 요인이 되었다.

2) 정 보

예상 밖의 기습을 받아 청천강 선까지 철수한 미 제8군은 이 무렵에도 전쟁에 개입한 중공군의 규모를 중공의용군 2~3개 사단 규모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병력만 제13병단의 18개 사단이었고, 제9병단의 12개 사단도 압록강을 도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었다. 당시 미 제8군이 정보판단에 있어 착오를 일으켰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중공군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이었다. 사실 중공군 제1차 공세기간 동안 아군에게 투항하거나 포로가 된 중공군들은 대체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지만 당시의 상급지휘관들은 중공이 그와 같은 대병력으로 공식적인 개입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관계자들이 수집한 각종 첩보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정보획득 기술상의 결함 때문이었다. 당시의 정찰기는 야간정찰이 불가능한 관계로 야간에만 기동을 했던 중공군의 이동을 포착할 수 없었고, 또한 주간에 실시했던 정찰에서는 당시의 정찰장교와 사진해석장교가 중공군의 위장술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또한 중공군은 무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자랑하는 무선첩보가 중공군의 움직임을 포착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11월 27일 밤 유담리에서 중공군 대부대에 완전히 포위된 원인을 정보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중공군이 포위공격을 개시하기 전까지 미 제1해병사단이 입수한 정보자료는 “미 제10군단 지역 내에는 6개 중공군 사단의 단대호가 식별되었다. 항공정찰에 의하면 장진호 북쪽과 동북쪽에 중공군의 부대활동이 활발하다. 포로의 진술에 의하면 중공군

제9병단 선두부대인 3개 사단은 11월 20일경 이미 유담리 부근에 도착하여 유담리 일대의 해병대를 단번에 포위하려 하고 있다. 서부정면에서는 중공군 대부대가 미 제8군을 공격하여 압박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제1해병사단은 이러한 정보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중공군은 서측방으로 철수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미 제1해병사단의 판단은 유엔군사령부와 미 제10군단사령부와 같은 상급사령부의 판단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0월 15일 웨이크도 회담에서 맥아더 원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공군의 개입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했고, 10월 하순 중공군의 제1차 개입 이후에도 이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11월 24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진주한 중공군은 총 12개 사단으로서 병력은 4~5만 명이며, 미 제10군단 정면에는 그 중 2개 사단이 있다"라고 병력을 과소평가했고, 또한 "중공군은 방어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 제10군단도 이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미 제1해병사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3) 군수지원

장진호 전투에서 하갈우리로부터 고토리로 철수할 때, 미 제1해병사단의 군수지원 상황은 후방지역의 병참선이 중공군에 의해 차단되어 보급은 공중수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보급물자는 공군의 C-119 수송기에 의해 공중투하되고 C-4 및 해군의 R4D 수송기까지 동원해 군수지원을 실시하였다. 공중보급 수송은 제1항공통제 분견대가 투하지역에 근접하여 보급소를 설치하고 보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얼어붙은 땅위에 투하되었기 때문에 파손율이 높아 식료품의 70~80%, 유류 70%, 포병탄약 40%, 소화기 탄약은 45% 밖에 사용할 수 없었다. 공중투하로 보급된 물자는 사단이 요구한 물량에 비해 극히 적은 양만 보급되었으나, 이들 중 탄약과 연료는 철수작전을 수행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사용되었으며, 공중보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철수작전이 가능하였다.

작전기간 중 혹한은 군수지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탄약보다는 난방

장비의 보급을 우선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칼빈 소총은 혹한으로 기름이 얼어붙어 사격이 불가능하였고, 총대도 잘 부러졌으며, 자동소총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단발이 되는 일이 많았고, 기관총의 냉각수는 물대신 부동액을 사용하였다. 동파 방지를 위해 차량과 전차는 매 2시간마다 15분쯤 가동시켜야 했고, 이는 야간 기도비닉에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료와 노력이 필요하였고, 두꺼운 옷과 장갑은 전투수행에 제한을 주었다. 땅이 얼어 축성이 어려워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 엄체호를 만들었고, 전투가 심할 때는 전사자의 시체를 쌓아 방벽을 만들었다.

주로 고무로 만든 전투화는 땀이 많이 차서 가만히 있으면 곧 동상이 걸리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겨울철 행동은 가능한 한 땀을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식료품이 얼어붙어서 C-레이션은 난방 천막의 난로에 데워 먹었으나, 바깥쪽은 녹아도 속은 얼음덩어리가 남아있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하였고, 탄약이나 진통제인 몰핀 등도 얼어서 녹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혹한은 군수지원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군수지원은 전투에서 승리의 원동력이다. 장진호 전투의 혹한상황과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은 화력과 기동장비 등에서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미스 소장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보급에 중점을 두고 부대의 재편성과 안정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였다.

급속한 전진이나 철수작전, 방어작전에 있어 공중보급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전투력의 발휘가 가능하다. 장진호 전투에서 항공기는 중공군에 포위된 사단을 항공지원했을 뿐 아니라 군수 및 행정 지원까지 제공함으로써 전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군수관계 요원의 적극적 지원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 제1해병사단 철수작전 당시 미 극동군사령부는 낙하산포장 전문기술요원을 파견하여 수문교 복구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공중 투하해 부대를 철수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은 정상적인 군수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는 유리한 입장의 작전환경에서도 결정적인 승리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주요 전장기능 중 다른 제 요소는 상호보완으로 취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으나, 정상적인 군수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작전활동은 군수지원면의 열세를 보충할 만한 요소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장진호 작전에서 미 해병의 성공은 군수지원 보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3. 전훈 요소 도출

1) 냉철한 전황판단의 필요성

중공군의 제2차 공세를 경험한 유엔군 지휘부는 "대규모의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무너지며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군우리와 장진호에서의 패전은 유엔군 지휘부가 중공군의 능력이나 전술, 아군의 패배원인 등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여유조차 없이 "중공군과 접촉을 단절하는 것만이 전투력을 보존하는 길이다"라고 판단하게 하였다.

유엔군사령부가 중공군의 제2차 공세를 보다 냉철하게 대처했다면, 청천강 선에서 철수한 유엔군이 다음 방어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지역은 숙천-순천을 연하는 선이었다. 그러나 도쿄회의에서 확인된 맥아더 사령관의 평양확보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미 제8군은 1950년 12월 1일부터 오직 후방으로 철수할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공군의 여건은 미 제8군의 판단과는 너무나 상이하였다. 미 제8군의 철수가 거론되기 시작한 12월 1일 무렵에는 중공군도 사실상 한계상태에 처해 있었다. 제1차 공세 당시 휴대했던 식량과 탄약이 거의 고갈되었으나, 이후 재보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 제8군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엔군의 평양철수는 중공군의 실정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였다. 만약 미 제8군이 평양 북쪽과 원산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공군과 해군의 도움을 받아 강력히 저항했다면, 일방적인 철수는 없었을 수도 있다.

2) 이용 가능한 방어선의 확보

군사작전, 특히 방어작전의 경우에서 자연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협소한 지역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국경선은 1,200㎞에 달하는 광정면이지만, 한반도의 허리라 불리는 평양-원산을 연하는 지역은 약 200㎞에 달하는 협소한 지역이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군사적 부담도 압록강-두만강 선보다 1/6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허리는 전쟁기간 동안 한 번도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 등 유엔군의 입장에서는 "북진작전시 유엔군이 평양-원산 선에서 진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면, 이 선에서 중공군의 남진을 억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반면에 국군의 입장에서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국경선으로의 진격은 당연한 조치였으나, 중공군 제2차 공세에서 평양-원산을 연하는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38도선으로 철수한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3) 적 전술의 숙지와 대비책 강구

국군과 유엔군이 최종공세를 준비할 무렵, 중공군은 제1차 공세에서 패배하고 철수한 국군과 유엔군이 조기에 반격을 감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깊숙이 유인해 섬멸한다"는 '유인격멸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는 "유엔군이 공격해오면 계획적으로 철수하면서 예정된 공격지점까지 유인한 후 기습적인 타격을 가해 격멸한다. 이어 대규모 우회기동으로 유엔군의 후방을 기습하고, 전선을 평양-원산 선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최종공세를 개시하자, 이를 예측하고 있던 중공군은 철저한 기도비닉과 야간행동으로 유엔군의 통신감청과 항공정찰을 피하며 서부지역에서 18개 사단과 동부지역에서 12개 사단이 각각의 지정된 위치까지 이동하여 매복하였다. 또한 중공군은 전선의 정찰대들이 보급품을 유기하며 철수하고, 억류

하던 유엔군 포로 150명을 풀어주는 행동으로 유엔군을 철저하게 기만하였다. 최후 공세를 감행한 유엔군은 “중공군이 능력이 부족하여 철수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중공군은 유엔군을 교묘하게 유인하고 있었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72쪽.

2) Roy E. Appleman, *op. cit.,* p.771.

3) HQS, EUSAK 「Operation Plan No. 14」, 6 Nov., 1950; War Diary, G-3 Section, 6 Nov, 1950.

4) 미 제9군단은 국군 및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해 북진을 개시할 당시 군단사령부를 대전에 두고 미 제2사단과 미 제25사단을 통합 지휘해 삼남지역의 주보급로 확보와 북한군 유격부대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이후 전선의 북상과 함께 강동(江東)으로 이동하여 양덕-신창-진남포-삼등지역에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던 군단은 중공군 침입이후 북한군 유격부대가 철의 삼각지대와 멸악산맥 일대에서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미 제25사단을 투입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던 중 북상을 명령받았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 173쪽.

5) Roy E. Appleman, *op. cit.,* 771~772쪽. 당시 미 제8군은 김포비행장에서 평양으로 매일 1,000톤의 물자를 공중지원 받아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유류제품과 탄약의 보유량은 1일 사용량에 지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겨울로 접어들면서 동계피복과 난방유류의 소요가 급증하면서 수송능력의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다.

6) Eighth Army G4 SS Rpts, 7-18 Nov 50; Eighth Army Trans SS Rpts, 7-18 Nov 50; Rad, GX 50025 KGLX, CG Eighth Army to CINCFE, 22 Nov 50.

7) Billy C. Mossman, *op. cit.,* pp.45~46, p.61.

8) 육본정보참모부, 앞의 책, 273쪽.

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18쪽.

10)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203~204쪽.

11)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19~120쪽.

12) 위의 책, 144~145쪽.

13) 위의 책, 174~175쪽.

14) 육본정보참모부, 앞의 책, 279~280쪽.

1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5쪽, 559~560쪽.

16) 이러한 예는 중공군 제1차 공세 당시인 1950년 11월 4일 중공군 제39군단이 박천 동남쪽에서 미 제24사단을 포위 공격할 때, 순천으로 전진하던 북한군 전차사단이 중공군 제39군단을 미군으로 오인하여 공격함으로써 포위된 미군이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위의 책, 256쪽.

17) 위의 책, pp. 257-25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271~272쪽.

1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25~130쪽.

19) 소련군 총참모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180쪽.

20)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39쪽.

21) 위의 책, 173쪽.

22) 일례로 1950년 11월 10일 북한의 중부지역에서 편성된 북한군 제3군단의 경우, 예하 6개 사단의 개인화기 보급률은 60%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군 총참모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168쪽.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57쪽.

24) 위의 책, 59쪽.

25)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앞의 책, 93쪽.

26) HQS, EUSAK, 「Operation Plan No. 15」(Nov. 14, 1950); HQS, EUSAK, 「War Diary: Summary」(Nov. 1950).

2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 180~181쪽.

28) Billy C. Mossman, *op. cit.,* p.43.

29) HQS, EUSAK, 「Operation Plan No. 14」6 Nov. 1950.

30) Roy E. Appleman, *op. cit.,* p.771.

31) *Ibid.,* p.44.

32) 이외의 유엔회원국 지상군은 영연방군 11,186명, 터키군 5,051명, 필리핀군 1,349명, 타일랜드군 1,181명, 오스트레일리아군 1,002명, 네덜란드군 636명, 인도군 326명, 스웨덴군 168명 등 총 20,899명이었다. *op. cit.,* pp.23~24.

33) *Ibid.,* pp.26~27.

34) *Ibid.,* p.30.

35) *Ibid.,* pp.27~28.

36)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이원복(역), 『한국전쟁 4 :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서울 : 명성출판사, 1991), 331~332쪽.

37) Billy C. Mossman, *op. cit.,* p.45.

3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권 :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2009, 472쪽.

3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장진호전투』, 46쪽.

40)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4호」(1950. 11. 18. 01:00).

41)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7사단 전투상보」, 920~928쪽.

42) 제7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0호」(1950. 11. 21).

43) 제7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51호」(1950. 11. 24).

4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 208쪽.

45) Billy C. Mossman, *op. cit.,* p.69.

46) *Ibid.,* p.68.

4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7사단 전투상보」; 국방부, 앞의 책, 138쪽.

48) 육군본부, 「훈령 제10호」(1950. 11. 19). 육군본부는 11월 19일 이동명령을 통해 제2군단이 영원과 덕천지역을 확보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D-1인 11월 23일까지 사동-풍덕산-영원-만진덕산 선까지 진출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4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102쪽.

5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55), 1987, 926~927쪽.

51)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4호」(1950. 11. 18. 01:00).

52) 제8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91호」(1950. 11. 22).

53) Billy C. Mossman, *op. cit.,* p.45.

54) 제8보병사단사령부, 「구두 작전명령」(1950. 11. 26. 04:00). 작전명령은 "제10연대는 맹산으로 철수하여 덕천-맹산간 도로를 확보하여 적의 진출을 저지하고, 제21연대는 영원 남쪽의 제3번 도로로 철수하여 두류령을 점령 방어하라"는 내용이었다.

55)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 927쪽.

56) 1950년 11월 28일 현재 월포리에 집결한 제8사단 병력은 제10연대 755명(장교 42명), 제16연대 1,670명(장교 76명), 제21연대 462명(장교 47명), 공병대대 452명(장교 27명), 포병대대 194명(장교 14명), 교육대대 548명(장교 25명) 등 총 4,101명이었다.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 927~928쪽.

57)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 930쪽.

5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43~145쪽.

59) HQS, EUSAK, 「WAR DIARY, SECTION I : SUMMARY(1-30, NOVEMBER 1950)」, 14 Nov. 1950.

60) Billy C. Mossman, *op. cit.,* p.62.

61) HQS, US 25th Infantry Division, 「War Diary」, 25 November 1950; Billy C. Mossman, *op. cit.,* p.64.

62) *Ibid.,* pp.65~67.

63) *Ibid.,* pp.70~71.

64) 국방부, 앞의 책, 179쪽.

65) 1950년 11월 17일 미 제10군단 정기정보보고(PIR) 제37호는 터키여단의 병력을 5,055명으로 밝히고 있다. HQS, EUSAK, 「WAR DIARY, SECTION I : SUMMARY(1-30, NOVEMBER 1950)」, 20 Nov. 1950.

66)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A&M Univ. press, 1989), 87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청천강전투』, 241~242쪽.

67) HQS, EUSAK, 「WAR DIARY, SECTION I : SUMMARY(1-30, NOVEMBER 1950)」, 27 Nov. 1950.

68)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p.88.

69) 1952년 북한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군우리(軍隅里)를 개천시에 통합하였다. 안경상, 『조선지명편람(평안남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52~53쪽.

70) 태형(笞刑, Gauntlet)은 인디언이 적군 포로나 범법자를 처벌할 때, 두 줄로 늘어선 인디언 전사(戰士)의 사이로 이들을 들여보내고, 이들이 행렬을 빠져나갈 때까지 흠씬 두들겨 패는 형벌의 일종이다.

71) 미 제9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0호」(1950. 11. 19).

72) HQS, EUSAK, 「Command Report, Narration」, Dec. 50

7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 268쪽.

7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58~161쪽.

75) HQS, US 2nd Inf. Div., War Diary, Nov. 1950.

76) Billy C. Mossman, *op. cit.,* p.118.

7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 270~271쪽.

7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67쪽.

79) HQS, US 2nd Inf. Div. Atry., Periodic Operatioal Report, No. 98, 1 Dec. 1950; Billy C. Mossman, United States Army in Korean War: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p.118~119.

80)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p. 196.

8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230쪽.

82)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 『밀물과 썰물』(서울: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5), 114쪽.

83)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p. 286.

84) *Ibid.,* p.288.

85) HQS, EUSAK, 「Command Report, Narration」, Dec., 1950, Box 2436.

86)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상), 151쪽.

87) HQS, US XCorps, 「Operational Order, No.7」, Nov. 25, 1950.

88) HQS, US 1st Marine Div., 「Operational Order, No. 24-25」, Nov. 27, 1950.

89)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상), 151~152쪽.

90) 위의 책, 161~162쪽.

91) 이 전투에서 중공군 제235연대는 3차례의 공격을 시도해 2차례는 실패하고, 마지막 공격에서 주요 봉우리를 점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대대는 대대의 대부분이 사망해 전투력을 상실하였고, 제2대대는 연대와의 연락두절로 고지를 오인해 미군의 화력과 역습으로 많은 인명손실을 초래하였다. 위의 책, 161쪽.

92) 중공군 제27군단장은 포로 심문을 통해 신흥리쪽에 미 제7사단 5개 대대병력이, 유담리 지역에 미 제1해병사단 7개 대대병력이 각각 집결중인 것을 파악하고 제80사단과 제81사단의 5개 연대로 먼저 신흥리 지역의 미 제7사단을 공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때 군단소속의 제16포병연대 75㎜ 야포 1개 대대가 신흥리 지역의 공격을 지원하였다. 위의 책, 164쪽.

93) HQS, US X Corps, 「Operational Order, No. 20」Nov. 30, 1950.

94) HQS, US 1st Marine Div., 「Operational Order, No. 1-50」, Nov. 30, 1950.

95) HQS, US 1st Marine Div., 「Operational Order, No. 51」, Nov. 30, 1950.

96)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합동작전명령 제2-50호」(1950. 11. 30).

97) 육군본부, 『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상), 167쪽.

98) 중공군측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유담리 및 신흥리 지역 전투에서 포로 396명을 포함한 4,77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중공군은 8,8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중공군은 상당량의 무기 및 장비를 노획 및 파괴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5 및 155㎜ 유탄포 각 16문, 고사포 7문, 4.2인치 및 60㎜ 박격포 93문, 60 및 90㎜ 로켓포 137문, 30 및 50구경 중기 69문, 소총 890정, 전차 11대, 차량 186대 등을 노획하였고, 항공기 2대 및 전차 7대 등을 파괴하였다. 위의 책, 178~179쪽.

99) Billy C. Mossman, *op. cit.,* p.101.

100)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22호」(1950. 12. 3. 16:00).

101)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5-50호」(1950. 12. 5. 08:00).

102) 미 제1해병사단 제7연대본부, 「작전명령 제14-50호」(1950. 12. 6).

103)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26-50호」(1950. 12. 7. 18:50).

10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178쪽.

105)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8-5호」(1950. 11. 30)

106)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12호」(1950. 11. 30)

107) 국군 제3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1호」(1950. 11. 30)

108)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88호」(1950. 12. 5)

10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5권 : 중공군 침략과 재반격작전기(1950. 12. 1~1951. 4. 30)』, 228쪽.

110) 정진부대(挺進部隊)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본대를 떠나 적중에 독립 전진(前進)하거나 또는 적의 후방에서 본대의 작전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각종의 작전을 행하는 부대를 지칭한다. 이희승, 『국어대사전』(서울 : 민중서림, 1994), 3394쪽.

111) 제3보병사단사령부, 「작전명령 제60호」(1950. 12. 6)

112)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25호」(1950. 12. 10)

113) 미 제10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10-50호」(1950. 12. 11)

114) 국군 제1군단사령부, 「작전지시 제99호」(1950. 12. 15)

11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204쪽; 軍事科學院 軍事歷史硏究所 編著,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戰爭史』(북경 : 군사과학출판사, 198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앞의 책, 395쪽. 항공기의 격추 및 파손 수는 병참선을 엄호했던 소련공군의 전과도 포함함.



제 6 장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작전 계획
제 3 절	유엔군의 철수와 38도선 방어선 형성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작전은 1950년 11월 24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총공세를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반격, 즉 1950년 11월 25일부터 단행된 중공군 제2차 공세로 인해 청천강 일대 및 함흥-흥남 지역에서 철수작전으로 전환하여 38도선상에 방어선을 형성할 때까지의 작전을 일컫는다.

중공군은 제2차 공세를 통해 국군 및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격으로 전환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38도선 이남으로 몰아내면서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역량을 소멸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군은 주공방향을 서부전선의 안주-평양-개성 축선에, 보조공격 방향을 장진호-함흥-원산과 혜산-북청, 청진-함흥 축선에 두고 모든 전선에서 강력한 반격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따라 숙천-순천-성천을 연하는 선에 방어선을 구축한 미 제8군사령관은 대치중인 중공군과 청천강지역 전투에서 예상 밖의 큰 피해를 입어 재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미 제8군간에 전력 격차가 극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유엔군이 일정한 저지선에서 중공군을 저지한다는 것은 역부족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과 결정적인 전투는 회피하고 축차적으로 지연전을 전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간주하였다.[1)]

이에 따라 1950년 12월 1일에 발표된 미 제8군의 목표는 모든 전선에서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고 신속하게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 제8군이 청천강선으로부터 철수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주요 목표는 주 철수로인 평양-서울간 도로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은 평양으로의 접근로 경계임무를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에 부여하였고,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을 평양-서울간 도로의 동쪽 측면에 배치하였다. 이는 서울 북동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적

게릴라부대를 소탕하기 위해 주 철수로의 동쪽지역인 철의 삼각지대에 국군 2개 사단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한편 미 제8군의 축차방어선 중 임진강 하류에서 38도선을 따라 동해안으로 연결되는 B선 지역의 지형은 서부지역에는 천연적인 장애물로 활용이 기능한 임진강과 한강이 있고, 중부지역은 적이 접근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산악지형을 따라 남쪽과 남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지류들이 있었다. 지역 내의 도로는 이러한 지류를 따라 발달되어 있었고, 주요 도로는 한강 계곡을 따라 서울을 향해 남서쪽으로 연장되어 있었다. 원주 동쪽 지역은 동해안 도로 이외에는 북에서 남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작전기간 동안 중공군과 북한군은 연합체제 하에서 군 및 군단의 대부대 작전을 수행하면서 전선을 서부와 동부로 구분하였으며, 화천을 경계로 서쪽은 중공군이 동쪽은 북한군이 담당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유엔군에 비해 열세인 공군력과 화력을 만회하기 위해 재래식 전술에 입각한 포위와 침투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적은 대부대 포위 기동과 우회작전을 비롯해 적극적인 침투작전을 주로 사용하였고, 기만 유인과 침투, 매복전술 등을 혼용하였다.

적은 제2차 공세를 통해 청천강 선을 돌파하고 평양을 점령함으로써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완전히 양분하였다. 이후 적은 서부지역에서 개성과 금천까지 진출하였고, 동부지역에서는 유엔군의 지상퇴로를 차단하여 미 제10군단이 해상철수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적은 전쟁을 종결하려는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공세작전으로 전환하였고, 전장의 주도권을 재장악하기 위해 미 제8군의 청천강 선을 돌파하고 제2전선부대와의 연계하에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여 재차 남침을 준비하였다. 반면에 국군과 유엔군은 동부전선의 흥남철수와 병행하여 38도선 일대로 철수하여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반격으로 전환하기 위한 터전 마련에 착수하였다.

제 2 절 작전 계획

1. 유엔군의 작전계획

1) 작전 배경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의해 국군과 유엔군이 청천강 교두보를 포기하고 철수를 실시하던 1950년 12월 초, 유엔군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유엔군이 공세에서 방어로 전환하였으나, 병력의 열세로 강요에 의한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추가적인 병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의 방어전략 채택을 승인하면서, 추가병력의 증원보다는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하여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선을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다.[2)]

이에 대해 맥아더 원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거론하며 이 제안에 반대하였다. "첫째, 미 제8군과 제10군단을 통합해도 평양-원산 선의 정면이 250㎞에 달해 전선이 신장되고 종심이 얕아 중공군에게 돌파될 위험이 높다. 둘째, 지역 내에 위치한 태백산맥이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의 협동작전과 군수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해상 병참선이 갖는 이점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미 제10군단을 함흥에 계속 주둔시킴으로써 적의 측방을 위협함은 물론 이 간격을 통해 대부대의 후방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병력의 증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 그러나 미 합참은 맥아더 원수의 미 제10군단 운용방안이 산악 기동력이 우수한 중공군에게 오히려 넓은 기동공간을 제공할 것이라 우려하였다.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인한 유엔군의 막대한 병력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맥아더 원수의 판단은 우세한 병력을 동원한 중공군과의 전쟁임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북한군에 대응해 오던 정치적 결심과 군사전략은 수정되어야 하고, 병력의 우세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유엔군의 철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미 합참과 유엔군사령부 간에 의견 대립이 심각하게 표출되자,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J. Lawton Collins) 대장은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12월 4일 도쿄를 방문해 맥아더 사령관과 제1차 전략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대규모 병력의 증원이 불가함을 통보하는 한편 현 상황에서 유엔군의 병력보존이 최우선적인 고려요소이며, 따라서 유엔군을 해안교두보로 이동하려는 맥아더의 전략에 동의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4)]

12월 7일에 이어진 제2차 전략회담에서 콜린스 대장은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을 통합한 후 단계별 방어선을 설정하여 지연전을 전개하면서 부산으로 철수하는 계획에 최종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9개의 방어선이 설정되어 있었고, 서울을 중점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서울 북쪽에 4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으며, 최종 방어선은 개전 초기의 낙동강 방어선이었다. 이 계획은 1950년 12월 8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5호로 하달되어 미 제8군은 평양에서 38도선으로, 국군 제1군단과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남동해안 지역으로 각각 철수를 개시하였다.

2) 신전략의 채택

한편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철수는 유엔군의 한반도 철수 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극동군사령부와 미 합참은 물론 미국과 유엔 참전국 그리고 유엔에서 조차 철수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전쟁 전의 38도선 부근에서 휴전을 모색하는 안으로 압축되었고, 미 제8군도 군사작전을 이런 결정에 따라 축차 방어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새로 미 제8군사령관에 임명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중장은 부산으로의 철수를 주장하던 전임사령관 워커 중장과는 달리 “미 제8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부대를 신속히 재정

비하여 공세를 재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무렵 미 제8군의 작전방침은 38도선에서 부산까지의 공간지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여 적의 출혈을 강요한 후 공세작전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미 제8군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다.[5)]

① 제1통제선 : 38도선 진지로, 임진강 하구에서 양양에 이르는 주저항선
② 제2통제선 : 수원-양평-홍천-주문진을 연하는 선으로, 평택-삼척선의 방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③ 제3통제선 : 평택-안성-원주-삼척을 연하는 선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방어정면이 협소하여 방어에 유리한 지역
④ 제4통제선 : 금강선으로, 금강 남안과 소백산맥을 연하는 방어선
⑤ 제5통제선 : 소백산맥선으로, 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
⑥ 제6통제선 : 낙동강 방어선으로, 유엔군이 최대한의 저항을 시도할 진지로 이 방어선이 와해되면 유엔군은 일본으로, 국군은 연안도서로 철수시킬 계획이었다.

이와 같은 축차방어 개념을 확정한 후, 리지웨이 사령관은 한·미 양군 합동작전회의에서 "이 6개의 방어선은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까지 물러나기 위해 설정한 단계별 저지선이 아니다. 아군이 각 단계마다 중공군에게 최대의 출혈을 강요하고, 기회를 보아 즉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적을 섬멸하기 위한 선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하더라도 국군과 유엔군은 37도선 아래로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서부전선을 시찰한 리지웨이 장군은 미 군단장 작전회의에서 장차 전방부대들이 서울 남쪽으로 철수할 경우, 이를 엄호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북쪽에 중간 통제선인 교두보선을 설정하였다.

2. 공산군의 작전계획

1) 작전기도 및 방침

청천강 일대에 이어 평양을 점령한 적이 38도선을 향해 남진을 계속한 배경에는 유엔군을 38도선 이남으로 축출한다는 전략적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적의 전쟁 제3단계의 전략적 방침은 국군 및 유엔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격으로 전환하여 국군 및 유엔군을 38도선 이남으로 몰아내면서 지속적인 소모전으로 국군 및 유엔군의 역량을 소멸시키는 것이었다.[6]

이와 같은 전략적 방침에 따른 제2차 작전방침은 주공을 서부전선에 지향하고 전 전선에서 강력한 반격으로 전환하여 제2전선부대와의 긴밀한 합동작전으로 청천강과 장진호, 함흥, 청진 일대에서 국군과 유엔군의 기본집단을 포위 소멸하고 신속히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는 것이었다.[7]

이러한 작전방침의 배경에는 반격 역량을 중앙에 집중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서부와 동부로 분할하여 포위 소멸하고, 특히 국군 및 유엔군의 기본 주력으로 서부전선에 집중된 미 제8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주공방향을 서부전선으로 선정한 이유는 서부전선이 전선의 중심으로, 이 지역은 부대의 기동여건이 유리할 뿐 아니라 반격집단이 전선으로 신속히 진출해 국군 및 유엔군의 종심으로 전과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서부전선에 주공을 지향해 미 제8군을 포위 섬멸하면 서부전선은 물론 보조공격방향인 동부전선에서도 국군과 유엔군의 공격이 계속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주력부대와 제2전선부대간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국군과 유엔군을 압박할 기도였다. 이와 같은 작전방침에 따른 주공 방향은 서부전선의 안주-평양-개성 방향에, 보조공격은 장진호-함흥-원산과 혜산-북청, 그리고 청진-함흥 방향으로 지향하였다.[8]

2) 작전계획

중공군과 북한군의 계획은 공격작전으로 전환하여 국군 및 유엔군의 주력부대를 분산 및 각개 격파하고, 이들이 후퇴할 경우에는 차후 서울을 점령하고 이어 가평과 춘천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적은 화천을 경계로 서쪽은 중공군이, 동쪽은 북한군이 담당하여 38선 일대를 돌파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공으로 서울 방면을 담당한 중공군 제38군단과 제39군단, 그리고 제40군단과 제50군단의 임무는 전곡-서울 축선을 공격하여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을 격멸하고, 이들이 후퇴할 경우 남쪽으로 공격을 확대해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때 북한군 제1군단의 임무는 개성-문산 방면을 공격하여 미 제25사단을 고립시키고 전곡-서울 축선을 공격중인 주공의 우측방을 엄호하는 것이었다.[9)]

<표 6-1> 중공군 및 북한군의 제대별 임무

구 분	제 대	임 무
중공군	제38군단・제39군단・제40군단・제50군단	주공방향인 고랑포-영평 돌파, 국군 제1및 제6사단 섬멸 후 서울로 남진
	제42군단・제66군단	영평-화천을 돌파, 국군 제2 및 제5사단 섬멸 후 가평・청평방향으로 전과확대 및 경춘가도 장악
	제9병단	함흥지역 집결 후 휴식 및 재정비
북한군	제1군단	양동작전(문산방향) 실시 후 중공군 우익종대로 국군 제1사단 공격
	제2군단・제5군단	양군 좌우측에서 국군 제1및 제2군단 방어진지 돌파
	제3군단・제4군단	원산(제3군단) 및 서해안(제4군단) 방어
	해군 4개 여단	동해안 방어

조공으로 가평 방면을 담당한 중공군 제42군단 및 제66군단의 임무는 제66군단 예하 1개 사단의 좌측방 엄호 하에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을 격멸하고 가평과 춘천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단은 국군 수도사단과

제3사단 및 제9사단을 고립시킨 후 양구-홍천 방면으로 주공을 지향하여 국군 제7사단과 제8사단을 격멸하고 중공군 제42군단 및 제66군단과 협동작전을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북한군 제3군단은 총참모부 예비로 평강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10]

제 3 절 유엔군의 철수와 38도선 방어선 형성

1. 양측의 상황

1) 적 상황

(1) 전투편성

북한과 중공의 연합군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분할하여 서부는 청천강 지역, 동부는 장진호 지역에서 연합 집단을 형성하였다. 즉, 서부는 중공군 제13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으로 공격집단을 편성하였고, 동부지역은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 제3군단과 제4군단, 그리고 제5군단으로 공격집단을 형성하였다. 제2차 작전기간의 적 공격제대의 편성은 중공군 제9병단이 한반도로 진입해 동부지역에서 운용된 것 외에는 제1차 작전 당시와 큰 차이가 없었다.[11]

(2) 전투준비태세

작전기간 중 적의 공격방향은 중공군 제13병단이 주공으로 개성-서울 축선과 의정부-서울 축선에서, 북한군이 조공으로 화천 이동(以東) 지역을 담당하여 부대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였다. 첫째, 중공군이 개입한 이래 최초로 북한군이 대규모 작전에 참가함에 따라 양군은 연합작전을 위한 연합사령부를 12월 초순에 설치하고 작전범위 및 전선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결정하였다. 둘째, 참전이 결정된 중공군 제19병단을 1951년 3월경 전선에 도착하도록 계획을 추진하였다. 셋째, 보급문제의 개선을 위해 보급창고를 증설하고, 여러 지역의 철도와 도로, 교량 등을 수리 및 복구하였다. 또한 북한정부의 협조하에

약 3만 톤의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하였다. 넷째, 12월 27일경 지정된 공격지점으로의 병력배치를 완료하였다. 다섯째, 진지를 공격할 경우,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세한 병력 또는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도록 준비하고 공격개시일을 12월 31일로 결정하였다.[12]

(3) 전투력 수준

중공군의 공세작전은 주로 단기전으로 전개되었고, 지속일자도 대체로 20일 이상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보급체계와 기동수단, 그리고 화력운용의 취약성에 있었다. 먼저, 중공군의 보급문제는 건실하지 못한 보급체계와 병참선의 신장으로 작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수송 및 기동수단은 전혀 기동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엔공군의 폭격으로 인한 도로봉쇄와 파괴, 겨울철의 적설로 인해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전선의 각 병사는 작전개시에 앞서 5~10일 분의 식량과 탄약 및 의약품 등을 지급받았으나,[13] 12월 20일 중공군 지휘부는 식량을 현지조달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이 현지에서 조달해야 할 식량은 서부전선 6개 군단이 2만 톤이고, 동부전선의 제9병단은 1만 톤에 해당되었다.[14]

또한 중공군의 화력은 다량의 탄약을 필요로 하는 박격포와 기관총, 수류탄에 의존하였으나, 본래 충분한 탄약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야간기습과 같은 탄약소모가 많은 작전으로 인해 38도선에 이르렀을 무렵 탄약이 거의 고갈될 정도였다. 그리고 중공군은 신체적으로도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계속된 공세로 인해 휴식과 정비 및 보충이 시급한 상태였다. 더욱이 장티푸스 및 감기 환자의 속출은 공격작전에 많은 차질을 불러왔다.[15]

2) 아군 상황

(1) 배치 현황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미 제8군의 현 상태로는 중공군의 공세를 성공적

으로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지 지연작전만이 유일한 방책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미 제8군이 중공군에 포위되기 전에 현 전선에서 남쪽 전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계획하였다.[16] 이 무렵 중공군은 성천 동쪽으로 이동중이었고, 중공군과 북한군 유격대가 성천 동쪽 25마일 지점에서 양덕에 이르는 평양-원산 도로 남쪽에 저지진지를 설치하고 있었다. 적이 측면에서 평양으로 진격해 미 제8군을 평양 북쪽에서 포위하려 하자, 워커 중장은 이에 앞서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를 결정하였다.[17]

1950년 12월 2일 숙천-성천 선에서 후퇴를 시작한 미 제8군은 3일 후 평양 북방 20마일 지점의 잠정적인 방어선에 도착하였다. 이때 미 제8군사령관은 33번 국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쪽으로 예비대를 파견하였다. 33번 국도는 평양-서울을 잇는 1번 국도와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 미 제8군의 동측방 방호가 가능하였다. 워커 사령관은 미 제24사단을 평양 남동쪽의 율리에 전개시키고 국군 제2군단을 예성강 계곡의 신계에 배치하였다. 이에 앞서,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을 3번 국도상의 포천과 17번 국도상의 춘천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평양-서울간 전 도로의 동측방에 대한 방어준비를 완료하였다.[18]

12월 3일 미 제8군 진지의 동쪽 및 북동쪽에 상당규모의 적이 이동 집결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워커 사령관은 적이 정면공격뿐 아니라 예성강 계곡을 거쳐 깊숙이 서남쪽으로 공격하여 신계 부근에서 미 제8군의 퇴로를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사령관은 다음날 아침 일찍 전선부대를 평양 남쪽으로 후퇴시켜 대동강 하류의 겸이포로부터 예성강 상류의 곡산에 이르는 진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시 해주로부터 신계를 지나 임진강 계곡의 이천을 지나는 선으로의 이동준비를 명령하였다.

한편 미 제24사단을 배속받은 미 제9군단은 33번 국도로 이동하여 미 제8군의 동측면 방어를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을 지원하였다. 또한 미 제1군단은 1번 국도의 이서(以西) 지역을 맡아 후퇴하는 한편 평양을 통과할 때 시내에 남겨진 아군 물자의 파괴를 담당하였다.[19] 접적이 없는 상황에서 미 제8군은 24시간 내에 평양 남쪽으로 이동하였고, 후방 경비부대가 대동강의 마지막 교량을 파괴하고 대

동강 남쪽의 평양을 최종적으로 폭파하였다.

한편 워커 사령관은 중공군의 추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 제1군단장과 미 제9군단장에 대동강에 이르는 강력한 수색정찰활동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12월 6일 중공군이 평양에 입성하였고,[20] 미 제8군의 동쪽과 바로 후방에서 북한군의 정규부대와 유격대가 합류하였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워커 사령관은 12월 8일 전선부대를 해주-신계-이천으로 후퇴할 것을 지시하고 이 선을 동쪽의 김화까지 연장하였다.[21]

워커 사령관이 가장 우려했던 점은 중공군이 미 제10군단의 후방지역을 통과하여 미 제8군을 포위할 가능성에 있었다. 미 제10군단은 함흥과 흥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공군의 대병력이 이 간격으로 침투해 올 경우 미 제8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워커 사령관은 중공군의 이러한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6일 한반도 전역에 횡으로 전 부대를 전개시켰다.[22]

우선적으로 워커 장군은 맥아더 사령관의 동의하에 해주 남방 40마일 지점인 예성강 입구에서부터 시변리를 통과해 철원과 화천 그리고 양양을 거쳐 동해에 이르는 방어선을 설정하였다. A라인으로 명명되었던 이 방어선은 거리가 대략 150마일이었고, 가장 북쪽은 38선 북방 20마일 지점에 연하였다. 워커 사령관은 국군 제2군단 예하의 2개 사단을 비롯한 5개 사단에 A방어선의 동부 지역을 담당하도록 지시하였다. 반면에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A방어선의 서측 지역을 방어하도록 계획하였다.[23]

12월 7일 도쿄에서 회합한 맥아더 사령관과 콜린스 합참의장, 스트레트메이어 장군과 죠이 제독, 스트러블 제독, 세퍼드 태평양지역 해병대사령관 등은 맥아더 사령관의 작전참모인 라이트(Wright) 장군의 건의가 포함된 계획에 합의하였다. 라이트 장군의 건의는 신속히 미 제10군단을 흥남에서 해상철수시켜 남동쪽에 상륙시킨 후 미 제8군단에 합류시킬 것과 유엔군이 단계적인 방어선으로 후퇴할 때, 필요하다면 부산지역까지 후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맥아더 사령관은 이러한 계획을 12월 8일 유엔군총사령관 명령 제5호로 발효시켰다.[24]

그는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미 제8군이 담당할 9개의 방어선 중 서울 북쪽에 4

개의 방어선을 설정하였으며, 이 중 마지막 선은 서쪽의 임진강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선이었다. 이 선은 평양-원산 지역보다 약간 좁은 편이었고, 보급품 이동이 가능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었다.[25]

12월 7일 맥아더 장군은 성공적인 후퇴와 서울 방어, 그리고 미 제10군단의 미 제8군 예속에 관련하여 미 제8군과 미 제10군단에 준비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워커 사령관은 다음날 B선을 설정하였다. 이 선은 화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A선과 일부가 중복되고 화천 이서지역은 임진강과 한강 하류 제방을 따라 예성강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선이었다.[26]

워커 사령관은 12월 22일까지 점진적으로 미 제8군의 전선부대를 남쪽으로 후퇴시키는 대신 국군을 북상시켜 B선을 따라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은 1번 국도와 33번 도로를 통해 해주-김화선을 통과해 B선 서쪽 부분을 따라 A선 지구로 후퇴하였다. 12월 23일 이들 군단은 새로운 지역에서 안정적인 진지를 구축하였다. 2개 사단과 1개 여단으로 편성된 미 제1군단은 한강과 임진강 하류 제방을 따라 1번 국도를 가로질러 포진하였고, 미 제9군단은 2개 사단이 38도선을 지나는 33번 국도와 3번 국도를 통제하고 있었다.[27]

워커 사령관은 국군 제3군단의 3개 사단을 미 제9군단 동쪽의 중앙지역에 배치시켰다. 국군의 전선은 B선 남쪽 38도선과 평행하는 선에 두고 이 지역의 중앙부는 춘천 북방 8마일 지점이었다. 국군 제3군단의 동쪽에는 국군 제2군단이 홍천강 계곡을 남서쪽으로 지나가는 24번 국도 양쪽의 전선을 담당하였다. 국군 제1군단은 북동쪽 지역을 증원하기 위해 해상 수송으로 부산과 삼척 부근에 상륙하였다. 12월 23일까지 국군 제1군단 예하의 2개 사단은 산악도로와 동해안 도로를 저지하기 위해 진지를 점령하였다.[28]

⑵ 전투준비태세

청천강 일대에서 밀려 38도선을 향해 철수를 단행한 국군과 유엔군은 국군 8개 사단과 미군 2개 사단을 주저항선에 배치하였다. 이들 각 사단은 13~15㎞의 방어정면을 할당받았으나, 국군 제3군단 예하의 사단은 20~25㎞의 광정면을 담당

하였다.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방어를 위해 주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었다.[29]

주저항선에 편성된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진지는 참호와 개인호로 이루어졌고, 서부전선의 경우에는 나무와 진흙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진지 전방 200~300m 구간에는 철조망과 기타 장애물은 물론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는데, 지뢰지대는 모든 도로 및 전선지역으로 연결되는 방어지역 등에 설치하였다. 참호형태는 포위상태에서 적과 교전하기 위해 원형의 방어진지를 편성하였으나, 38도선 지역의 방어편성은 전반적으로 종심이 얕고 방어진지도 비교적 허술하였다.[30]

(3) 전투력 수준

1950년 12월 1일 미 극동군사령관이 한국 내에서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병력은 국군 121,000명과 미 육군 153,000명, 23,000명의 한국군 배속부대(KATUSA)와 25,000명의 미 제1해병사단 그리고 20,000명의 기타 유엔군 부대 등 총 342,000명이었다. 주한 미 육군 153,000명은 인가 병력보다 65,000명이 부족한 상태였다.[31]

그러나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인해 미 제8군의 철수가 결정될 무렵 운용할 수 있는 병력은 미군 4개 사단(제1기병사단·제2사단·제24사단·제25사단)과 국군 4개 사단(제1사단·제6사단·제7사단·제8사단), 그리고 영국군 2개 여단(제27여단·제29여단)을 비롯한 기타 유엔군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완전한 병력은 제1기병사단과 제24사단, 제25사단의 미군 3개 사단, 국군 제1사단, 영연방 제27여단과 제29여단이었다.

잔여 병력 중 사단 규모를 유지하고 있던 국군 제6사단은 예하 연대들의 전투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그리고 앞선 전투에서 손실이 컸던 국군 제7사단은 약 6,800명, 제8사단은 약 5,760명만이 재집결함으로써 총인원의 50%가 수습되었지만, 전투력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미 제2사단과 터키여단은 전투력을 상실하고 군우리에서 후퇴하여 부대를 재정비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예비대로서 대 게릴라작전에 투입되었던 국군 4개 사단은 훈련부족으로 전선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32]

2. 작전지역의 특징

1) 서부지역

(1) 평안남도

한반도의 북서부에 위치한 평안남도는 북쪽은 묘향산맥, 동쪽은 낭림산맥, 남쪽은 언진산맥으로 둘러싸여 대동강 유역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 동북부에는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태백산맥과 연속되며, 함경남도와의 도계에는 소백산(2,184m)과 동백산(2.096m) 등 높은 산들이 연이어 영원, 맹산, 양덕의 내륙고산지대를 이룬다. 묘향산맥은 북동에서 남서로 이어져 평안북도와의 경계에 웅어수산(2,019m)과 낭림산(2,014m) 등이 영원, 덕천의 산간지대를 형성하며, 언진산맥은 황해도와의 사이에 성천, 강동, 중화의 산지를 이룬다. 따라서 이 지역은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낮아져 서해안과 청천강 및 대동강 하류에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33]

지역 내의 주요 하천은 낭림산맥의 유곡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면서 영원과 덕천, 그리고 평양과 남포를 끼고 서해로 흘러드는 대동강이 있으며, 평안북도와 도계를 이루는 청천강은 평안북도의 동부를 흐르다 영변 부근에서 남류하여 개천과 안주 등의 평야를 이루며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34]

한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해 고산지대가 넓게 분포한 이 지역은 연평균 기온이 섭씨 8~10도로 낮은 편이다. 혹한기인 1월의 평균기온은 영하 7~15도이고, 동부 내륙산지로 갈수록 추워져 영하 15도 내외를 나타낸다. 연 강수량은 835~1,370㎜로 지역적 편차가 크며, 해안지방보다 대동강과 청천강 중류 및 상류에 많은 비가 내린다.[35]

지역의 교통망은 서부 평야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경의선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만포선 및 동부지대의 평덕선, 남부지대의 평양과 진남포를 횡단하는 평남선, 중앙의 평원선, 안주선 등의 철도가 있다. 그리고 도로는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과 평양-원산선, 평양-진남포선 등이 있다.[36]

⑵ 황해도

황해도 지역은 동쪽은 함경남도와 강원도, 서쪽은 서해, 그리고 남쪽은 경기도, 북쪽은 평안남도와 접하고 있다. 지역 내에는 언진산맥과 멸악산맥이 동서로 횡단하고 있는데, 언진산맥은 낭림산맥 남단에서 분기되어 지역의 동북부를 달리는 험준한 산맥으로 하람산(1,486m)과 언진산(1,120m) 등 1,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연이어 솟아 있으며, 멸악산맥은 멸악산(816m)과 수양산(899m) 등이 동서로 관통하며 800m 내외의 산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산맥 사이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구월산맥 등 4개의 소산맥이 발달해 있다. 이와 같은 산맥들의 형세에 따라 동북부와 서쪽은 고지대이고 중앙 북부의 재령강 유역과 남서부가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37]

지역 내 하천은 지형의 특성상 거의 중소 하천이며, 가장 큰 강인 예성강은 동부지역에서 남쪽으로 흘러 곡산, 수안, 신계, 평산, 금천, 토산 등을 거치며 한강에 합류한다. 그리고 재령강은 지남산에서 발원하여 재령, 안악, 은천, 신천 등을 거치며 북쪽으로 곡류를 형성하면서 대동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 강 유역에는 북한의 곡창지대인 연백평야와 재령평야가 발달해 있다.[38]

지역의 기후는 대체적으로 냉대하계고온 기후에 속해 혹한기인 1월의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5~8도로서, 같은 위도상의 동해안 지방에 비해 3~4도가 낮은 편이다. 지역의 최저 기온은 곡산에서 기록된 영하 33도였다.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어, 동북부 산악지대는 1,200㎜, 멸악산맥 이남지방은 1,000㎜ 내외, 그리고 멸악산맥 이북의 서북부 지방은 700~800㎜를 나타낸다.

지역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서북쪽 대륙방면으로 진출하는 요충에 해당되는 교통상의 요지이다. 따라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가도와 경의선 철도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또한 사리원-장연간의 사장선과 토성-해주간의 토해선, 해주-옹진간의 황해선 등이 부설되어 있다.[39]

2) 동부지역

(1) 함경남도

한반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함경남도는 동쪽은 동해, 서쪽은 낭림산맥, 남쪽은 철령을 경계로 강원도와 접하며, 북쪽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만주와 닿고 있다. 크게 고원지대와 평지대로 구분되는 이 지역은 백두산에서 소백산(2,174m), 북포태산(2,289m)으로 뻗어 내린 마천령산맥이 함경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맹부산(2,214m)과 동백산(2,096m)으로 이어지는 낭림산맥이 관서지방과 경계를 이룬다. 또한 만탑산(2,205m)과 부전령(1,445m)으로 이어진 함경산맥이 동해안과 나란히 달리고 있어, 이런 산맥들로 둘러싸인 개마고원은 북으로 완만하게 경사져 있다.

지역 내의 고원지대에는 장진호와 부전호, 황수원호 등 거대한 인공호가 축조되어 있으며, 주요 하천은 가림천과 허천강, 장진강이 압록강으로 유입되며, 남대천과 용흥강 그리고 성천강이 동해로 흘러든다.

이 지역의 기후는 한반도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넓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어 겨울철에 한랭건조하며, 혹한기인 1월의 평균기온이 동해안 저지대의 경우 영하 3~6도, 서북부 고지대는 영하 16~19도로 겨울철 기온의 동서차가 매우 크다. 강수량은 서북부 고원지대가 600~700㎜고 동부 해안지대는 800~900㎜를 나타낸다.

도로망은 서울-원산간 도로는 철령을 넘어 안변과 원산으로 연결되고, 평양-원산간 도로는 마식령을 넘어 덕원과 원산으로 이어지며, 원산-회산간 도로는 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마천령을 넘어 함경북도로 연결된다. 또한 철로는 함경선을 비롯해 길주-혜산진간의 혜산선, 함흥-장진간을 연결하는 송흥선 등이 부설되어 있다.[40]

(2) 강원도

대부분이 산지와 고원으로 이루어진 이 지역은 동쪽에 태백산맥이, 서쪽에 아호비령산맥과 마식령산맥, 광주산맥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어져 있다. 지형

은 일반적으로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를 이루며, 북부의 두류산(1,323m)과 마식령 일대는 동해에 접근하며 점차 낮아진다. 평균해발 1,020m인 태백산맥은 서쪽이 완경사이고 동쪽은 급경사를 이루는 비대칭산맥으로 금강산과 1,211고지 등이 있다.

주요 하천은 태백산맥과 마식령산맥을 경계로 안변남대천과 전탄강, 남강 등 동해로 직접 흐르는 하천과 서해로 유입되는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가 있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짧고 유속이 빠르나, 서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비교적 길고 상대적으로 유속이 느리고 굴곡이 심하다.

지역의 기후는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동서간의 기후 차가 심하며, 동부지역과 원산만 일대는 해양성기후인데 반해 서부지역은 대륙성기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혹한기인 1월의 평균기온은 해안지방이 영하 2도지만 내륙은 영하 10도로서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 연평균 강수량은 1,304㎜로서 북한 내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해안지방인 원산, 안변, 통천, 고성은 대표적인 강설지역이다.[41]

3. 서부지역 작전

1) 평양철수작전(1950. 12. 2~12. 4)

(1) 작전 개요

중공군의 공세로 인해 청천강 남안으로 철수한 미 제8군은 평양 북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미 제10군단과의 연결을 통해 평양-원산 선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11월 28일 우익인 제2군단을 성천-양덕 일대로, 중앙의 제9군단을 안주-군우리 일대로, 그리고 좌익인 제1군단을 신안주 일대로 철수시켜 차기작전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반면에 적은 북한 제1군단과 중공군 제50군단 및 제60군단이 정주-태천-영변 축선으로, 중공 제38군단과 제39군단, 제40군단 및 제42군단이 덕천-영원 축선으로 남하하여 미 제8군의 우측방을 압박하였다. 11월 29일과 30일 청천강 북안을 목표로 지향한 중공군은 구장동-덕천-영원을 점령한 후 개천-삼소리(三所里)-신창리(新倉里)를 연하는 방향으로 우회하며 아군의 퇴로차단을 기도하였다.

이에 따라 11월 30일 미 제8군은 미 제5연대와 영연방 제27여단의 엄호를 받으며 청천강 남안에서 숙천-순천 선으로 철수하여 평양 북쪽에 방어진을 구축하였다. 이때 미 제1군단은 제24사단이 평양 동북쪽의 삼성리(三成里)에서 강동 일대로 진출하고, 제1기병사단은 신창-성천을 연하는 선에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또한 서측에 인접한 국군 제2군단 제6사단은 신창리에서 은산-순천으로 이동하였고, 군우리-신안주-숙천과 군우리-순천간 도로를 이용해 철수한 미 제9군단은 제2사단이 순천-자산(慈山) 일대로, 그리고 제25사단이 순천-상팔리(上八里)까지 철수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태천-박천 일대에서 격전을 벌였던 국군 제1사단은 청천강을 건너 신안주-만성리 일대로 철수한 후 영유(永柔)에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우일선의 제12연대가 이동(以東) 지구를, 좌일선인 제15연대가 이서(以西) 지구를 담당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토록 지시하면서 제11연대를 예비대로 어은리(漁隱里)에 집결 배치하였다. 이로써 11월 30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은 평양 북쪽에서 좌우익으로 숙천-순천 일대의 방어선을 분담하였다. 그리고 미 제1기병사단은 동북쪽의 신창-성천 선을 점령하여 중공군의 주공을 방어하게 되었고, 미 제24사단은 강동 일대에서 적의 우회공격을 저지하게 되었다. 또한 국군 제2군단 예하의 제7사단은 성천-강동을 거쳐 삼등 부근으로 철수하였고, 제8사단은 화천리(貨泉里)-흑령산(黑嶺山) 일대에서 북한군 패잔부대의 출몰을 저지하였다.

작전에 참여한 중공군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이 투입된 병력이었으며, 신안주-안주 선을 연해 남하하면서 주력은 순천-성천 선으로 우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8군의 우익을 담당한 사단들은 압도적인 적과 격전을 전개한 이후로서 병력과 장비의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6-2> 전투서열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한국군	제1사단장		준장	백선엽(白善燁)	
	제11연대	연 대 장	대령	김동빈(金東斌)	
			중령	문형태(文亨泰)	'50.12.14부
		제1대대장	중령	유중수(柳重秀)	
		제2대대장	소령	배두룡(裵斗龍)	
		제3대대장	중령	정영홍(鄭永洪)	
	제12연대	연 대 장	대령	김점곤(金點坤)	
		제1대대장	중령	한순화(韓順華)	
		제2대대장	중령	조성래(趙成來)	
		제3대대장	중령	김기용(金基容)	
	제15연대	연 대 장	대령	조재미(趙在美)	
		제1대대장	중령	유재성(劉載成)	
		제2대대장	중령	최병순(崔炳淳)	
		제3대대장	중령	안병건(安秉健)	
	공병대대	대 대 장	중령	김영석(金永錫)	
	제17포병대대	대 대 장	소령	박영식(朴永湜)	배속부대
미군	제10고사포단장		대령	William H. Henning	지원부대
	제6전차대대장		중령	John S. Groeden	
중공군	제66군단	군 단 장		쑤신후이(蕭新塊)	
		제196사단장		청샤오푸(成小甫)	
		제197사단장		?	
		제198사단장		?	

⑵ 작전 경과

미 제8군은 중공군의 남진을 저지하고 평양 방어를 위해 숙천-순천-성천-양덕선의 방어진지 점령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적은 묘향산맥과 언진산맥이 서남으로 뻗은 평양 동북쪽의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남하한 반면 아군은 기동장비의 상실과 포격 및 폭격의 효능 감소, 함포지원의 결여 등으로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이 12월 2일 안주와 신창을 점령하고 계속 순천 동남쪽으로 진출하자, 미 제8군은 방어선을 축차로 이동하며 일부는 평양으로 철수를 단행하였

다. 이 무렵 적은 평양을 동남쪽에서 포위하기 위해 성천(成川)을 점령하였고, 평양 동쪽의 산악지대에서는 북한군 패잔병으로 구성된 유격대가 출몰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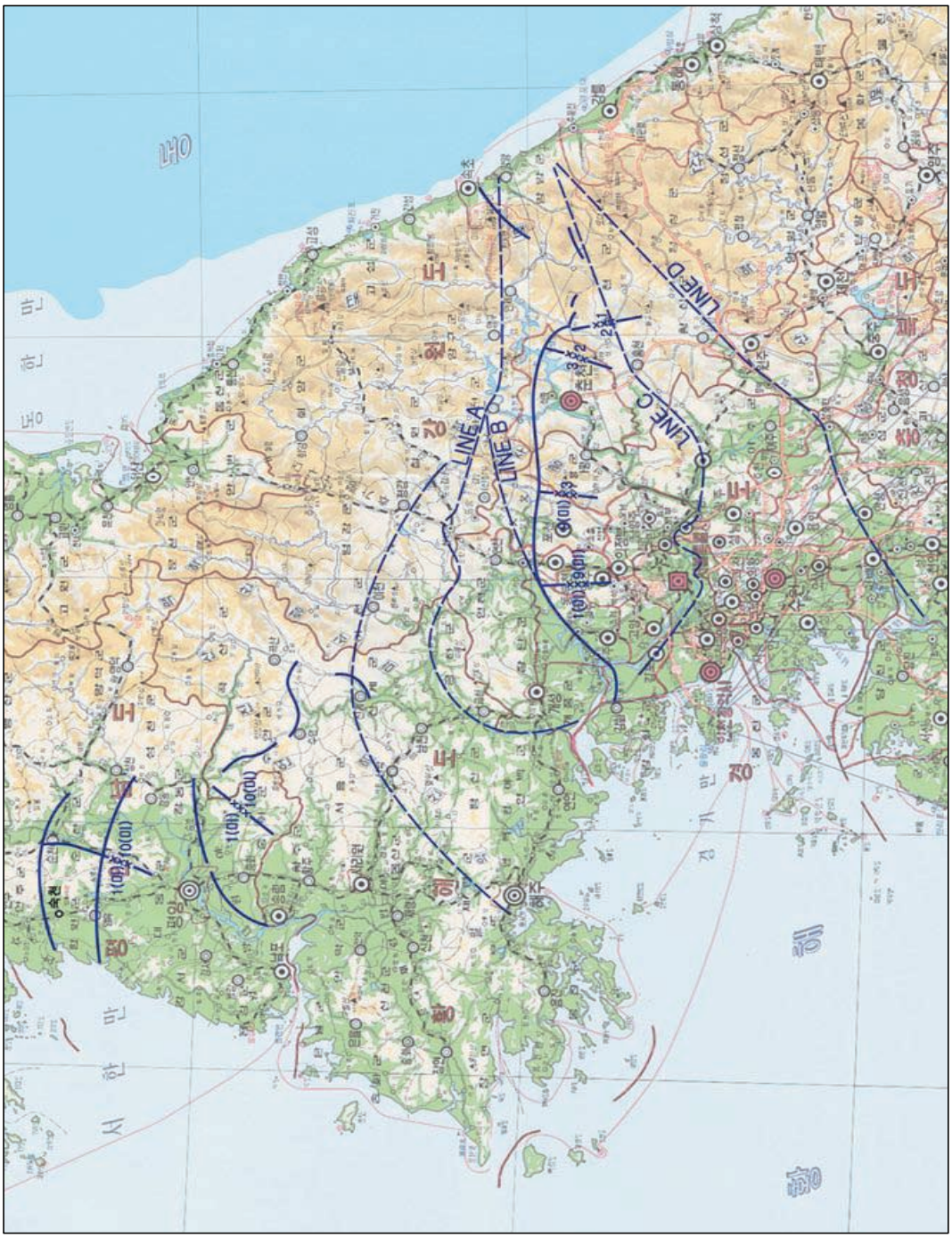
이에 맥아더 원수는 "현재의 불리한 여건에서 전력을 소모한 부대가 새로이 투입된 중공군을 격퇴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따라서 전술적인 후퇴가 불가피하다"며 철수를 결심하고 12월 3일 미 합참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하였다. 미 제8군 예하의 각 부대는 평양 포위 및 퇴로차단을 기도하는 적을 저지하는 한편 자체 전력을 유지하면서 축차적으로 38도선을 향해 철수를 개시하였다. 이때 미 제25사단과 함께 주력의 철수를 엄호한 후 후위부대로 평양을 떠나게 된 국군 제1사단은 제11연대를 예비대로 둔 상태에서 제12연대와 제15연대에 철수엄호 임무를 부여하고, 축차적으로 평양을 거쳐 황주(黃州)-사리원(沙里院)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안주와 신창에서 후퇴하여 순천-성천 선에서 위협을 받게 된 미 제8군은 12월 2일 방어선을 남쪽으로 이동시켰다. 미 제25사단은 상팔리-석곳-부용리-순천 일대에서 순천 서남쪽의 어중리(御重里) 일대로 진지를 이동한 후 평양으로 철수하는 부대의 엄호를 시작하였다.

제1사단은 사단작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일부 병력과 장비를 평양 이남으로 이동시켜 황주에 후방지휘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단은 우측의 미 제25사단이 후퇴함에 따라 12월 2일 저녁 무렵에 사령부를 영유에서 원장리(院場里)의 금제국민학교로 이동시켰으며, 또한 제1사단 예하의 제15연대도 숙천 서쪽의 용포리에서 덕산면 삼정리(三井里)로 지휘소를 옮겼다. 또한 미 제24사단이 계속 강동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에 머물고 있던 영연방 제27여단은 사인장(舍人場)으로, 미 제1기병사단과 터키여단은 각각 평양으로 철수하였다.

이와 같이 국군 및 유엔군의 철수가 개시된 12월 3일 적은 평양 동북쪽의 성천을 점령한 후 삼등을 위협하였다. 이때 미 제8군은 방어선의 일부가 와해되기 시작한 것을 인식하고 유엔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전면적인 철수를 단행하였다. 철수병력의 제일선은 국군 제1사단과 미 제25사단의 엄호를 받으며 평양 일대를 거쳐 남하하였고, 이를 후속한 국군 제1사단 주력은 평양 방면으로 철수를 시작해 19:00경에 사령부를 평양 서성리(西城里) 부근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12연대가

<상황도 6-1> 미 제8군의 철수계획





순천에서 평양으로 철수중인 미 제8군 병사들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1990. p.151)

숙천에서 순안(順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15연대는 외제리(外祭里)로 기동하여 우측방의 미 제25사단과 함께 평양 북쪽에서의 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12월 2일 자산에서 평양 북쪽으로 철수한 미 제2사단을 따라 국군 제8사단도 철수를 개시하였다. 사단은 삼등에 진지를 편성한 제16연대의 엄호 아래 제10연대를 율리(栗里)로, 제21연대를 신계(新溪)로 각각 철수시켰다. 다음날 사령부와 엄호부대인 제16연대마저 신계에 도달하였으나, 율리로 이동한 제10연대는 도중에 중대규모의 북한군 유격대의 공격을 교전 끝에 격퇴하고 군탄리(軍灘里)로 철수하였다.

남하를 계속한 중공군은 12월 4일 안주-신안주 지역으로 진출한데 이어 강동-삼등 일대로 우회하여 부근의 산악지대를 근거로 활동하는 북한군 패잔병과 합류하였다. 이로써 적은 평양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타원형으로 에워싸고 압박을 가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극동공군의 폭격기가 적진을 폭격하는 동안 평양에서의 철수를 완료하였다. 국군 제1사단은 이와 같은 유엔군의 철수를 엄호한

후 마지막으로 대동강을 건너 14:00에 사리원(沙里院)에 도착하여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 무렵 미 제25사단은 중화(中和) 부근까지 철수하여 진지를 점령함으로써 동쪽의 국군 제6사단 및 미 제24사단과 함께 송림(松林)-중화-수안(遂安)-곡산을 연하는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8사단은 신계에서 시변리(市邊里)를 향해 도보행군을 시작하였고, 제7사단이 뒤를 이어 남하하였다.

(3) 작전 결과

유엔군의 주력이 평양을 철수한 다음날인 12월 5일에 미 제25사단과 국군 제1사단을 주력으로 한 잔류부대는 적이 이용할 수 있는 평양 시내의 시설물에 대한 파괴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극동공군의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축차적인 철수



장진호 계곡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에 갇힌 미 제1해병사단 병사들 (출처 : 소장자 NARA / 유로크레온)

를 단행하여 12월 7일에 국군 제1사단은 사리원에서 남천(南川)으로 이동하였고, 다음날 미 제25사단은 중화 부근에서 방어진지를 편성하였다.

그리고 토산(兎山)을 목표로 남하를 시작한 제8사단은 도중에 북한군 패잔부대로부터 도로차단 기도를 물리치고 12월 7일 목적지에 집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10연대는 태봉동(胎峰洞) 일대에서, 제16연대는 하암동(下岩洞) 일대에서 적의 공격을 격퇴시켰다.

한편 대동강을 도하한 적은 12월 10일과 11일에 곡산-수안-신계를 점령한 가운데 북한군 제1군단의 일부가 사리원 일대까지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의 산악지대에서는 북한군 패잔부대가 출몰해 매복과 기습, 도로차단 등을 자행함으로써 유엔군은 이들을 격퇴하고 철수해야만 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06:00에 남천을 출발한 제1사단사령부는 위천리(渭川里)로 이동한 제12연대가 제11연대와 함께 의천-시변리-토산 일대에서 엄호하는 동안 고랑포(高浪浦)를 거쳐 임진강을 도하하여 19:00경 신산리(新山里)에 도착하였고,



서울 북방의 참호에서 경계중인 유엔군 병사들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1990. p.162)

이어 제15연대도 합류하였다. 그러나 제11연대는 다음날 구화리(九化里) 북쪽에서 아군의 철수를 저지하는 북한군 패잔병의 소탕작전에 돌입하였다.

본부를 구화리에 두고 제1대대를 우측, 제2대대를 좌측 공격제대로 편성한 제11연대는 12월 13일 07:00를 기해 학봉산(鶴峰山)-능현동(陵峴洞)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13:30경 어유동(魚喩洞)-원현동(元峴洞)-두문동(杜門洞)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받은 적이 동북쪽으로 퇴각하자, 연대는 사단의 지시에 따라 공격을 중단하고 제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한 후 12월 14일 고랑포에서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12월 13일 위천리로 철수한 제12연대는 임진강을 건너 행산리(幸山里)로 이동하였고, 제15연대도 다음날에 법원리(法院里)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제11연대가 전방 고랑포리 일대에, 제12연대와 제15연대가 행산리-법원리를 연하는 임진강 남안에 배치되어 38도선 방어태세에 돌입하였다.

4. 동부지역 작전

1) 원산-함흥 전투(1950. 12. 3~12. 15)

(1) 전투 개요

1950년 12월 2일 중공군 제9병단의 개입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이 철수를 시작한 이래로 동부전선의 국군 및 유엔군은 흥남과 원산 일대의 교두보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미 제10군단에 배속된 한국 해병대는 주력이 원산을 방어하고 제3대대가 동양(東陽)까지 전진했으나, 전황의 급변으로 12월 2일을 기해 사령부를 비롯한 제2대대와 제5대대는 함흥으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제3대대는 마전리(馬轉里)로 이동한 후 다시 원산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와 합류하였다.

한편 원산 부근의 적정은 북한군 3,000명이 덕원군 일대에서 원산을 위협하였

고, 1개 사단규모의 북한군과 중공군 혼성부대가 내륙 산악지대로부터 마식령(馬息嶺)까지 접근하면서 그들의 세력은 날로 증강되고 있었다.

<표 6-3> 참가부대 및 지휘관

구 분	직 책	계급	성 명	비 고
국군	해병대사령관	준장	신현준(申鉉俊)	
	제1대대장	소령	고길훈(高吉勳)	
	제2대대장	소령	염봉생(廉鳳生)	
	제3대대장	소령	김윤근(金潤根)	
	제5대대장	소령	김대식(金大植)	
중공군	제20군단장		장이샹(張翼翔)	
	제89사단장		?	
북한군	제4군단장	상장	박종덕(朴鍾德)	
	제41사단장		?	

⑵ 전투 경과

작전이 전개되는 시점인 1950년 12월 3일, 함흥에 사령부를 설치한 한국 해병대는 미 제10군단의 예비로 일선에 이르는 주보급로와 군단의 후방지역을 방어하던 미 제3사단으로부터 작전을 통제받고 있었다. 이 무렵 한국 해병대는 함흥 교두보의 남쪽을 방어하고, 미 제3사단 예하의 제7연대의 이동을 엄호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미 제7연대는 함흥 서북쪽 25㎞ 지점의 흑수리(黑水里) 부근에서 내륙으로부터 동진해 지경(地境)-흑수리간 도로를 위협하던 중공군과 교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사령관 신현준 준장은 교전중인 미 제7연대를 1개 대대로 증원하는 한편 1개 대대는 함흥 서남쪽 10㎞ 지점의 지경에 배치하여 지경-흑수리간 남쪽 기동로를 방어하기로 계획하고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42]

『① 부대는 미 제7연대를 증원하고, 미 제3사단과 합동으로 지경-흑수리간의 남쪽 기동로를 방호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지경으로 이동하여 부여된 지역을 방어하라.
③ 제5대대는 흑수리로 이동하여 미 제7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라.
④ 사령부는 지경국민학교에 위치한다.』

한편 원산에 잔류한 제1대대와 제3대대는 원산 방어임무를 계속 수행하여 아군의 해상기동을 최후까지 엄호한 후 함흥에서 부대 주력과 합세할 계획이었다.

명령에 따라 12월 3일 04:00에 함흥에 도착한 제5대대는 다시 흑수리로 진출하여 미 제7연대에 배속되었다. 13:00경 지경으로 출발하여 지경국민학교에 자리를 잡은 사령부는 함께 이동한 제2대대(-1)를 서북쪽 방어를 위해 지경 서쪽 3㎞ 지점의 추하리(楸下里)에 배치하였다.

다음날 사령관은 미 제3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연포(連浦)로 접근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해 사령부를 구만리(九萬里)로 이동시키는 한편 제2대대를 재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제2대대는 주력을 포항리-향중리-문장리에 배치되어 연포 방어 및 미 제3사단 제15연대와 연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마전리에 배치된 제3대대는 원산으로 이동하여 제1대대와 함께 방어계획을 수립한 후 제1대대는 원산 남쪽을, 제3대대는 원산 북쪽 일원의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미 제10군단장은 함흥지역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12월 5일부로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주요 내용은 함흥과 흥남을 중심으로 동북쪽은 국군 제1군단이, 서쪽은 미 제7사단이, 서남쪽은 미 제3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이 방어하고 한국 해병대는 미 제3사단의 통제 아래 지경 남쪽의 방어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43] 그러나 미 제3사단을 제외한 일선부대들은 중공군과 격전을 벌이며 함흥으로 철수중에 있어 명령에 의한 방어진지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무렵 원산지역은 3,000여 명의 북한군이 덕원으로 침입해 원산을 위협하는 한편 마식령을 넘은 중공군과 합세함으로써 전황은 더욱 긴박하였다. 12월 7일 원산을 위협하던 적은 덕원의 외곽고지를 점령하고 원산시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마식령을 넘은 중공군이 원산 동측으로 접근하자, 원산 시내에는 적 게릴라까지 출몰하였다.

이와 같이 전황이 급변하자, 원산 북쪽 일원을 방어하던 한국해병 제3대대는 미 제3사단장의 철수명령에 따라 원산부두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LST 845함 편으로 16:30에 부산을 향해 출항하였다. 그러나 갈마반도의 비행장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해병 제1대대는 원산 남쪽 방어진에서 철수하여 비행장을 중심으로 한 방어진지를 점령함으로써 원산지역의 최종방어부대가 되었다. 야간을 통해 원산 서북쪽으로 침입한 적이 12월 8일 10:00경 원산을 완전히 장악하자, 비행장을 방어하고 있던 제1대대는 아군의 이륙을 엄호하면서 비행장 시설의 반출작업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아군이 떠난 16:00에 명사십리 해안으로 집결해 20:30에 LST 898함과 973함 편으로 원산만을 출항하였다.

한편 함흥지역은 장진호에서 중공군의 포위를 돌파한 미 제1해병사단이 집결하고 있었고, 미 제10군단의 함흥방어계획에 따라 제1해병연대가 지경에, 제5해병연대와 제7해병연대가 연포비행장 부근을 점령하였다. 미 제10군단의 명령에 따라 국군 제3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11일 탑승을 시작하였다. 이때 지경 남쪽의 방어진지와 함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병대는 미 제3사단장으로부터 부대이동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 이에 한국해병대 사령관 신현준 준장은 예하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44]

『① 부대는 현 방어진지를 미 제7연대에 인계하고, 연포 부근으로 이동하여 부대의 후방 기동을 준비하려 한다.

② 제2대대는 12월 14일 12:00를 기해 연포 서쪽 방어진지를 점령하고, 항공이동을 위한 준비를 하라.

③ 사령부는 12월 14일 12:00 이후 연포비행장에 위치한다.』

이러한 명령에 따라 제2대대는 진지를 미 제7연대에 인계하고 12월 14일 14:00에 연포 서쪽의 서흥리로 이동하여 방어진지를 점령하였다. 다음날 정오를 기해 함흥의 제5대대가 미 제3사단의 지휘 통제하에서 해병대로 복귀하여 연포비행장에 집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 항공기편으로 연포비행장을 출발함으로써 해병대

의 함흥지역 방어임무는 완료되었다.

(3) 전투 결과

원산철수작전은 최종 방어부대인 해병대 제3대대가 12월 7일에, 제1대대가 이틀 후에 원산만을 출발하여 12월 12일 부산에 입항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한편 함흥지역에서는 해병대 주력이 12월 15일 연포비행장을 이륙한 후 미 제3사단의 마지막 해안방어부대가 흥남해안을 떠났다. 또한 연포비행장을 이륙한 한국 해병대 사령부와 제2대대 및 제5대대는 부산의 수영비행장에 도착하여 제1대대 및 제3대대와 합류하였다. 다음날 16:00에 선편으로 부산을 출발한 한국 해병대는 진해로 이동하여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차기 작전에 대비하였다.

2) 흥남철수작전(1950. 12. 14~12. 24)

(1) 작전 개요

흥남철수작전은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중공군의 반격에 밀려 38도선으로 철수하던 1950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흥남에서 해상으로 철수하여 38도선 남쪽에 병력을 재전개시킨 철수작전이다. 이 작전은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 계곡에서 철수작전을 전개하여 중공군 제9병단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동안, 흥남지역으로 집결한 국군과 유엔군이 함흥 외곽에 타원형의 저지진지를 구축하고 미 제1해병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해상철수를 개시하여 12월 24일 마지막 철수부대가 승선할 때까지 약 20일간 실시되었다.

1950년 12월 10일경 한반도의 전황은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이 동북지구 및 장진호 부근에서 함흥-흥남지역으로 철수하는 한편 서부전선에서는 중공군 제13병단이 38도선 부근까지 남진한 후 병력의 증강을 통해 38도선 돌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전선의 불균형으로 인해 함흥-흥남 일대에 고립된 미 제10군단은 퇴로를 모색한 결과, 해상을 통한 철수를 결정하였다. 이는 중공군의 남

하와 동시에 원산 일대의 미 제3사단이 함흥으로 북상함으로써 함흥-원산-38도선을 연하는 육로기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공군은 제2차 공세기간 동안 38도선 이북의 전 지역을 점령한다는 목표 아래 북한군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흥남교두보의 점령을 기도하였다. 이를 위해 중공군은 장진호를 경유하여 함흥으로, 북한군은 청진-혜산진 방면에서 흥남부근으로 남하하여 12월 13일경 함흥-흥남 외곽 10~30㎞ 지점까지 진출하였다.

<표 6-4> 흥남기동함대 편성

구 분	계급	성 명	편 성
Task Force 90 (기동함대)	소장	Joy H. Doyle	
Task Element 90.00 (기함)	대령	C. A. Printup	AGC 1
Task Element 90. 01 (전술항공통제함)	중령	R. W. Arndt	Tacron 1
Task Element 90.02 (보수 및 구조함)	중령	L. C. Conwell	ARG1, ARL1, ARS2, ATF1
Task Element 90.03 (통제함)	소령	C. F. Allmon	APD 2, PCEC 1
Task Group 90.2 (수송선단)	대령	S. G. Kelly	
Task Element 90. 21 (수송단대)	대령	A. E. Jarrell	APA3, AKA3, APD2, PCEC1, LSD3, LST11, Scajap LST27, 기타
Task Group 90. 8 (함포지원전단)	소장	R. H. Hillenkoetter	중순양함 2, 구축함 5, LSMR 3
Task Group 95.2 (차단·호위 및 소해전단)	소장	J. M. Higgins	
제7함대	중장	Arthur D. Struble	
Task Force 77 (고속항공모함부대)	소장	E. C. Ewen	
Task Group 77.1 (지원전단)	대령	I. T. Duke	전함1, 순양함1, 대공경순양함 1
Task Group 77.2 (호위전단)	대령	J. R. Clark	구축함 17~22척
Task Group 77.3 (항공모함전대)	소장	E. C. Ewen	항공모함 3~4척
Task Group 96.8 (호위항공모함전대)	소장	R. W. Ruble	호위항모 1~2, 경항모 1, 구축함 3~8
Task Group 79.2 (군수지원단)	대령	B. L. Austin	

주공인 장진호 방면의 중공군은 제9병단 예하의 제20군단과 제26군단, 제27군단의 총 9개 사단으로 장진호-진흥리 간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의 격전을 치렀고, 흥남교두보 일대에는 5개 사단을 전면에 배치하였다. 대부분이 소련제 장비로 무장된 이들은 인해전술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였으나, 선행 전투에서의 전사상자 발생 및 동상으로 인한 비전투손실의 급증으로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태였다.

이에 비해 조공인 청진-혜산진 방면의 북한군은 제4군단 주력이 해안선에 연한 길주-성진-단천-이원을 경유해 12월 13일경에 북청-홍원선에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제5군단도 혜산진 방면에서 합수-길주-해안선과 풍산-북청의 내륙도로를 따라 동남진하여 제4군단과 합류하였다. 그리고 제8군단은 증원을 위한 예비대로 회령에서 신편 되었다. 이들의 장비는 개인화기 수준을 보유하였고, 보급 등의 부족으로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었다.

한편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장진호-진흥리 돌파작전 등을 전개하며 12월 10일 무렵 함흥-흥남 일대로 이동을 완료하고 흥남교두보를 구축하였다. 국군 제1군단의 수도사단은 청진에서 성진-북청-흥남으로 철수하였고, 제3사단은 합수에서 성진으로 철수한 후 부산으로 해상 철수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유담리-고토리-진흥리를 경유하여 함흥으로, 미 제7사단은 혜산진-신갈파진에서 풍산-북청을 거쳐 함흥으로, 그리고 미 제3사단은 원산 부근에서 함흥으로 각각 철수하여 함흥 북쪽에서 진지를 점령하였다.

이 무렵 미 해군 지원부대도 흥남 근해로 집결하고 있었다. 한국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기동부대(Task Force 90)를 증원하기 위해 제7함대가 동한만으로 항진하고 있었으며, 함포지원군단 외에 해상철수를 위한 수송선단이 흥남외항에 진입하였다. 또한 미 해군 함대 이외에도 한국해군 함정과 흥남 연안의 대소 어선이 피난민 수송에 참여하였다.

(2) 작전 경과

1950년 12월 9일 맥아더 원수는 함흥-흥남 일대에 집결한 미 제10군단 및 국군 제1군단에 『미 제10군단은 흥남에서 부산과 마산 및 울산으로 해상철수하여 부대

<상황도 6-2> 미 제10군단 철수계획



를 집결시키고 미 제8군사령관 지휘 하에 들어가라』는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이에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국군 제1군단이 삼척에 상륙한 후 국군에 원대복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으로는 흥남철수작전의 총 지휘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작전계획을 구상하였다.

『① 함흥-흥남을 연하는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교두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해상철수작전을 완료한다.

② 교두보는 전초선(OPLR Ⅰ)과 제1주저항선(MLR Ⅰ) 및 제2주저항선(MLR Ⅱ), 그리고 최후방어선인 제3주저항선(MLR Ⅲ)을 축차적으로 형성하여 방어태세를 갖춘다.

③ 해상철수방법은 흥남항에서 사단별로 철수하고, 순서는 미 제1해병사단-국군 수도사단-미 제7사단-미 제3사단 순으로 한다.

④ 교두보를 축차로 압축 편성함에 따라 육지정면에 있어서의 최종방어선은 미 제3사단이 직접 담당하고 동 사단의 승선준비 이후는 미 해군이 함포사격으로 엄호한다.

⑤ 승선에 있어서는 병력을 우선 취급토록 하고, 장비를 그 다음에 탑재하는 동시에 피난민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용한다.

⑥ 함포 및 항공 지원계획은 군단 화력지원협조본부와의 협조 아래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흥남항의 동북과 서남쪽에서 각각 10마일 확장된 소해작업이 완료된 해상정면에서 재조정한다.』

이러한 작전구상은 맥아더 원수의 승인을 얻고 12월 27일부로 미 제10군단은 미 제8군의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다.

한편 미 해군은 12월 8일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 중장을 비롯한 주요 해군지휘관을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y)호로 불러 흥남철수에 관한 작전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90기동함대(Task Force 90)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지시된 대로 한국에 있는 유엔군의 재배치 작전을 위해 해상수송을 제공한다.

② 지정된 탑재지역에서의 모든 항공 및 함포 지원을 통제하라.

③ 탑재항으로부터 양륙항에 이르는 해상이동을 호위하라.
④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우군부대에 대한 함포지원과 해상차단임무를 수행하라.
⑤ 한국군과 유엔군을 포함하여 소규모 철수작전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
⑥ 미 제10군단장 및 다른 관계부대장들과의 철수작전을 협조하라.
⑦ 흥남 및 기타 지정된 탑재항에서 실시되는 재배치작전을 지원 및 엄호하라.』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흥남을 중심으로 반경 10㎞ 외곽선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전초선을 견고하게 구축하여 중공군 제9병단의 공격을 원거리에서 저지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전초선을 강화할 무렵, 중공군 제9병단은 예하 제20군단 및 제27군단의 5개 사단병력으로 함흥 북쪽에 집중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파상적인 인해전술로 압박을 가했으나, 아군은 전초선에서 적의 공격을 함포 및 항공폭격으로 저지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은 흥남에서 부대정비를 실시한 후 12월 14일 승선을 완료하고 출항을 대기하였다. 다음날 새벽 사단은 켈리(Kelly) 대령이 지휘하는 수송전단(Task Group 90.2)의 APA 1척, AKA 1척, AP 3척, LST 13척, LSD 3척과 7척의 용역상선에 분승하여 흥남항을 출항하였다. 동시에 적의 접근이 유리한 함흥 북쪽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3사단은 중공군의 파상공격에 대비한 교두보의 진지강화에 착수하였다.

한편 병력증강 요청에 따라 트루먼 미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와 동원령을 선포한 가운데 12월 15일 중공군 제9병단 주력은 전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시 강력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힐렌코에터(Hillenkoetter) 소장이 지휘하는 함포지원전단(Task Group 90.8)은 흥남에서 양쪽으로 10마일씩 확장시킨 해역에서 함포사격을 단행하였고, 미 제7함대 소속의 고속항공모함 또한 계획된 포격으로 적의 접근로를 차단하였다. 그리고 일몰 이후에는 함포지원전단의 세인트 폴(Saint Paul)호가 8인치 포로 교두보 전방지역까지 유도지원포격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함포사격이 진행되는 동안 해군 함재기는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였고, 지상부대의 포격도 더해져 적의 함흥진출을 강력하게 저지하였다.

연일 이어진 공격에도 1차 목표인 함흥 북쪽의 교두보 전초선 돌파에 실패한 중공군은 다음날에도 북한군을 제1선으로 내세운 채 연합전선을 형성해 공격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지상의 미 제3사단은 이러한 중공군의 집중공격을 함포지원 전단의 함포사격과 해군함재기의 항공폭격 지원을 통해 좌절시켰다. 이와 같이 함흥 북쪽과 일원에 대한 화력전을 전개하면서 미 제10군단장은 전방지휘소를 함흥에서 흥남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교두보를 축소시켜 함흥 남쪽의 주저항선(MLRI)으로 병력의 이동을 명령하였다.

흥남 동북 외곽의 신흥리 일대에 진지를 점령하고 북한군 주력을 견제하던 수도사단은 철수순위에 따라 신흥리-신상리 선의 제1연대, 유정동 부근의 제1기갑연대, 마전리 일대의 제26연대 순으로 부대를 기동시켰다. 그리고 12월 16일 야간을 기해 전 병력의 흥남집결을 완료한 사단은 승선을 개시하여 자정 무렵 모든 출항준비를 완료하고 해상대기에 들어갔다.

한편 해상철수작전이 계획대로 전개되는 동안 기동함대의 도일 소장과 참모들은 38도선 남쪽의 묵호(墨湖)에 수도사단을 상륙시키기로 결정하고 알몬드 소장 및 김백일 소장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 무렵 태백산-오대산-설악산 지역에는 적 정규군의 남하에 앞서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그들과의 합류를 용이하게 하려는 북한군 제2전선 유격부대가 출몰하고 있었다. 수도사단의 묵호상륙작전은 이러한 적의 기도를 사전에 무산시키기 위해 전개되었다.

12월 17일 새벽 수도사단의 주력은 수송전단 Task Element 90.21의 APA 및 LST 등에 탑승해 묵호를 향해 출항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15:00경 접적 없이 묵호에 상륙해 부근에서 인원과 장비를 점검한 후 양양으로 북상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로써 미 제10군단 예하의 각 사단 중 3개 사단이 흥남철수를 완료하였고, 잔류중인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이 흥남교두보작전에 참가하였으나, 미 제7사단도 이후 승선준비를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흥남항에서 승선과 출항이 연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두보 방어를 위한 함포지원사격도 계속되었다. 주저항선으로 축소 편성된 교두보는 동쪽으로부터 마전리-함흥 남쪽 3㎞-연포비행장을 연하는 선으로 미 제3사단과 미

제7사단의 일부가 방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주저항선의 진지점령은 순차적인 철수로 인한 교두보 압축의 일환이자 적을 유리한 지대로 유인하여 집중화력으로 섬멸하려는 계획이었다.

특히 기상조건의 악화로 함재기의 출격이 중단된 상태에 시속 40노트의 강한 서북풍으로 해상 및 공중작전은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로체스터호를 비롯한 대형함정은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지상의 교두보에서 요청하는 함포사격을 실시하여 적의 교두보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 무렵 부산항을 비롯한 울산과 마산항에서는 해상철수부대의 양륙이 실시되었고, 양륙작업을 완료한 LST 함정들은 즉시 흥남으로 회항하였다.

한편 흥남부두에는 공산치하로부터 벗어나려는 북한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러한 기세가 더욱 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 지휘부는 피난민 수송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였고, 결국 LST 1척당 5,000명을, 그리고 화물선 1척에 12,000명을 승선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피난민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미 제10군단의 철수와 병행하여 안전지대인 거제도 등 부산 부근과 멀리는 제주도까지 후송되었다.

12월 18일 미 제3사단은 흥남부두에서 승선을 시작한 미 제7사단을 대신하여 마전리-주흥리 북쪽-호상리-성천강 하류 동쪽제방을 잇는 선으로 축소된 흥남교두보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미 제7사단은 흥남항 양 해협에서 함포지원전단의 함포사격이 실시되는 동안 부산에서 회항한 수송선단에 병력과 장비를 승선시키고 있었다.

이 무렵 중공군은 전날의 소강상태와 달리 북한군 2개 사단을 선봉으로 강력한 공격을 실시하였고, 끝내 교두보 정면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아군의 유기적인 함포사격과 공중폭격은 물론 방어진지에서의 강력한 저항이 적 주력의 접근로 진출을 차단하였다. 이에 중공군은 주간공격 대신 야간우회공격을 기도하였으나, 오히려 아군은 연신된 화포로 적 후방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함흥 서북쪽의 적 탄약고를 파괴하였다.



공산치하를 벗어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든 북한주민들 (출처 : 소장자 NARA / 유로크레온)

조속한 흥남점령의 목표에 차질을 빚은 중공군 제9병단은 북한군 제4군단 및 제5군단과 연합으로 12월 19일 총공세를 가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아군의 육해공 입체적인 합동작전에 후퇴로까지 차단되자, 교두보 돌파를 단념한 듯 병력을 재정비하였다. 이때 미 제3사단 주력은 교두보 강화에 나선 한편 미 제7사단은 승선을 위한 축차적인 부대이동에 들어가 다음날 전 병력이 흥남부두에 집결해 승선준비를 완료하였다.

사단의 철수작전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12월 20일 알몬드 소장은 참모들과 함께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호에 승선해 기동함대에 합류하는 한편 군단지휘소를 해상함대로 이동하고 흥남방어임무를 기동함대에 인계하였다. 따라서 지상에는 미 제3사단이 교두보(MLR Ⅲ)를 흥남항 외곽 2~5㎞로 축소시켜 해안방어



흥남항에서 해상철수를 위해 함정에 승선하는 미군 병사들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1990. p.169)

를 전담하였으며, 흥남 외곽에 대한 방어임무도 미 해군에 인계되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연포비행장이 봉쇄된 시점부터 교두보 방어임무를 화력으로 전담하다시피 하였고, 이날까지 순양함 2척과 구축함 7척, 로켓발사함 3척 등이 총 34,000발의 포탄과 12,800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며 근접지원포격을 실시하였다.

승선을 완료하고 출항을 대기하던 미 제7사단이 12월 21일 새벽에 부산을 향해 출항을 시작함으로써 흥남항에는 미 제3사단 제7연대와 제15연대, 제65연대 등 3개 연대전투단과 전차부대, 그리고 6개의 포병대대와 3개 대공포대대만이 최종 방어부대로 남아있었다.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과 기동함대사령관 도일 소장은 흥남철수작전의 최종철수 D-Day를 12월 24일로 예정하고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함포지원사격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12월 22일 흥남교두보는 시내중심부로부터 반경 4㎞ 이내(MLR Ⅲ)로 축소되었고, 전초선마저 1㎞ 가량 축소되었다. 이때 함포지원사격에 기동이 극도로 제한된 적은 파상공격을 중단하고 교두보 전면에 대한 포격만을 실시하였다. 12월 15일부터 실시된 미 해군의 함포사격은 계속 고조

되어 공격모함 4척과 전함 1척, 구축함 22척 및 순양함 2척 등 대형전함 30여 척이 지원하였다. 흥남부두에서는 미 제10군단 포병부대 등의 중장비가 탑재되는 대로 출항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다음날까지 계속되어 미 제3사단의 탑승 전에 모두 출항하였다.

최종철수 D-Day를 하루 앞둔 12월 23일 중공군의 간헐적인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알몬드 소장과 도일 소장은 교두보에 남아있는 미 제3사단의 철수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최종대응책으로 동시승선을 위한 탑재지점을 선정하였다. 흥남항을 동쪽부터 서쪽까지 Yellow해안-Green해안-Blue해안-Pink해안으로 구분한 후, 7개의 탑재지점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그리고 미 제3사단 제7연대는 Pink해안, 제15연대는 Yellow해안, 그리고 제65연대는 Blue 및 Green해안에서 각각 탑재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작전지원을 위해 미주리호를 흥남항으로 급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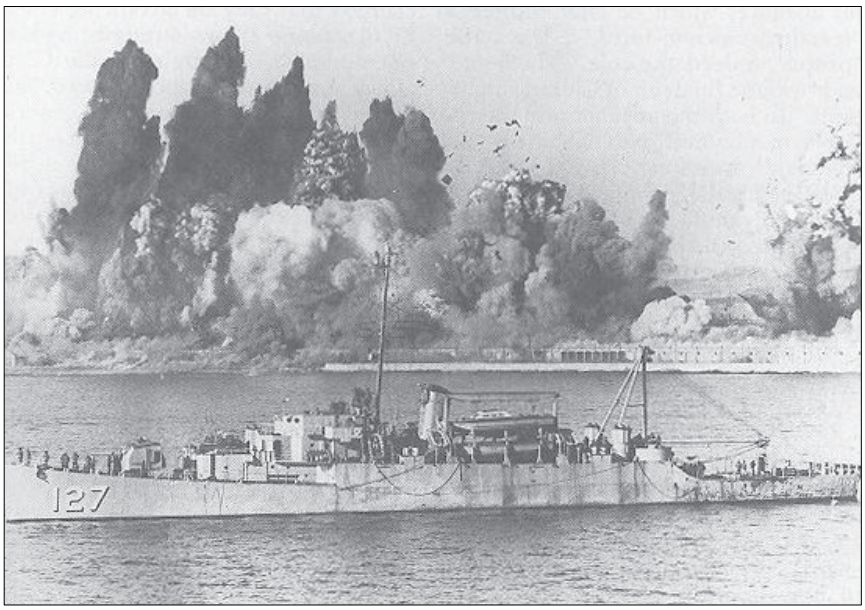
흥남항에서 미 제10군단 포병부대의 잔여 장비를 탑재해 출항시키고 교두보의 지상병력에 대한 승선을 준비하자, 적은 상당규모의 병력으로 흥남교외로 접근해 왔다. 이를 간파한 함포지원전단과 함재기들은 적을 향해 동시 집중포격을 가하는 한편 흥남으로 통하는 적의 예상접근로와 함흥 서쪽의 적 사령부를 폭격하였다.

한편 흥남부두에서는 이날을 기해 피난민 후송작전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미 제10군단 참모부장 포니(Edward H. Forney) 대령은 LST 2척과 빅토리(Victory)호 등 상선 3척을 지휘해 50,000여 명의 피난민을 안전지대로 수송하였다. 포니 대령은 최초에 25,000명 정도의 피난민만을 수송할 의도였으나, 함경남북도 전 지역에서 끊임없이 인파가 몰려들자 기존의 결정을 바꿔 가능한 한 많은 피난민을 후송하기로 하였다. 피난민의 후송은 수송선박의 부족으로 일시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미군측의 최대한의 배려로 약 100,000명에 이르는 북한주민을 안전지대로 수송할 수 있었다.[45]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흥남외곽선 1.5㎞에 대한 함포사격과 대지공격이 집중된 가운데 12월 24일 08:00에 지상 및 해상에서의 철수준비가 완료되었다. 이 무렵 7척의 LVT함정이 옐로우해안과 핑크해안에 선정해놓은 7개 지점을 향해 다가왔다. 11:00경 승선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자, 해안선을 경계하는 일부를 제외한 미 제3

사단 병력은 승선을 시작하였다. 14:00 무렵 최종부대인 보병 1개 중대와 상륙궤도차량대대 A중대와 B중대가 승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해안의 모든 지상부대의 승선이 완료되었다.

수송선단의 모든 출항준비가 완료되자, 14:15에 기동함대 함장인 도일 소장은 예하의 UDT 대원에게 부두의 주요시설과 해안가에 방치되어 있던 400톤의 다이너마이트 및 50만 파운드의 폭탄에 대한 폭파를 지시하였다. 약 5분 후 수송선단 함장인 켈리 대령은 수륙양용주정을 출동시켰고, 이로써 흥남항의 최종철수가 완료되었다. 수송선단이 흥남 외항을 빠져나갈 무렵 부두와 탄약적재소가 거의 동시에 폭파되었고, 방파제 및 크레인 등 주요 시설은 요란한 폭음과 치솟는 폭연, 불기둥을 내뿜으며 파괴되었다. 흥남철수작전은 수송전단이 흥남항구에서 완전히 출항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흥남항 최종철수와 함께 폭파되는 부두시설 및 군수물자 (출처 : Billy C. Mossman, Ebb and Flow, 1990. p.175)

(3) 작전 결과

중공군 제9병단은 흥남철수 완료일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난 1951년 3월 중순 제5차 공세 당시 중부전선에 출현하였다.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 부근 전투부터 흥남교두보 작전에 이르는 동안 장진호 부근에서 50~60%, 흥남교두보에서 20~30% 정도의 병력손실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공군 제26군단의 경우 90% 정도가 동상에 걸리고, 제27군단의 비전투손실도 10,000명에 달하였다. 또한 빈약한 보급과 혹한은 적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킨 요인이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투력 손실이 경미했던 북한군 제4군단과 제5군단은 12월말에 재편을 대략적으로 완료하고 다음해 1월 중순경 동부전선의 제2전선부대와 합류하여 전장에 투입되었다.

반면에 아군의 경우, 흥남철수작전은 육·해·공군의 입체적인 합동작전하에 교두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철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획득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 작전에서 아군은 중공군 제9병단을 15일 동안 동부전선에 고착시켜 서부전선의 제13병단과의 협동작전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중공군이 38도선을 조기에 장악하는데 실패하게 하였다. 미 제10군단과 국군 제1군단은 이 작전에서 105,000명의 병력과 17,000대의 차량은 물론 91,000명의 피난민과 350,000톤의 화물을 안전하게 해상으로 철수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군과 유엔군은 전투력을 보존하며 다음 단계의 작전으로 전용이 가능하였고,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에서부터 함흥 외곽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타격을 입고 3개월 간 전선투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5. 38도선 방어선 구축

1950년 12월 6일 철수를 단행한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13일까지 1주일에 걸쳐 38도선 이남으로 철수를 완료하였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은 12월 24일 흥남항에서 최종적인 해상철수를 실시하여 부산지역에서 집결을 완료하였다.

철수작전 과정에서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맥아더의 12월 8일 명령에 따라 방어선을 확정하고 임진강에서 38도선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 부대를 배치하였다. 한반도 250㎞를 횡단하고 종심이 60㎞인 전 전선에 두 개의 기본 방어선을 편성하였다. 제1방어선인 「A선」은 서쪽의 임진강구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문산을 경유 38도선을 따라 동해안 양양까지 연결되었다. 제2방어선인 「B선」은 서쪽 고양에서 시작하여 동으로 의정부, 가평, 자은리(自隱里)를 경유 동해안의 동덕리(冬德里)까지 연결되었다. 또한 방어종심의 확대를 위해 영등포에서 한강 남안을 따라 양평-횡성-강릉으로 이어지는 「C선」과 수원에서 이천-원주-평창-삼척을 연하는 「D선」, 37도선을 따라 평택-충주-삼척을 연결하는 「E선」의 방어선을 편성하였다.[46]

한편 미 제8군은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한 후 포천-김화 도로를 중심으로 중서부전선은 미군에, 동부전선은 국군에 방어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중서부전선의 좌측방인 미 제1군단은 좌측의 터키여단이 서울 서쪽 염하구(塩河口)-김포지역을, 중앙의 미 제25사단이 서울 북방의 임진강 하류 제방을, 그리고 우측의 국군 제1사단이 임진강 진지-33번 도로를 각각 방어하였고, 군단 예비대인 영연방 제29여단이 서울 근교 1번 국도를 따라 집결하였다. 중서부전선의 우측방인 미 제9군단은 좌측의 국군 제6사단이 주월리-양문리를, 우측의 미 제24사단이 의정부-포천의 3번 국도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였다. 그리고 군단 예비대인 영연방 제27여단은 33번 국도와 3번 국도 교차로 부근을, 마찬가지로 군단 예비대인 미 제1기병사단도 서울-춘천 도로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였다.

동부전선의 좌측방인 국군 제3군단은 좌측의 제2사단이 양문리-탑두울(榻豆鬱)을, 중앙의 제5사단이 탑두울-배후령(背後嶺)을, 그리고 좌측의 제8사단이 경운산-추전리(楸田里)의 방어를 각각 담당하였다. 또한 전선 중앙의 국군 제2군단은 제3사단이 추전리-갑둔리(甲屯里)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우측의 국군 제1군단은 좌측의 제9사단이 갑둔리-도채동(道采洞) 지역을, 우측의 수도사단이 도채동-동해안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다.[47]

<표 6-5> 미 제8군의 방어 배치

구 분	군 단	편성부대	담 당 지 역
중서부전선	미 제1군단	터키 여단	서울 서쪽 염하구-김포지역
		미 제25사단	서울 북방 임진강 하류 제방
		국군 제1사단	임진강 진지-33번 도로
		영연방 제29여단	서울 근교 1번 국도
	미 제9군단	국군 제6사단	주월리-양문리
		미 제24사단	의정부-포천 3번 국로
		영연방 제27여단	33번 국도와 3번 국도 교차로
		미 제1기병사단	서울-춘천 국도
동부전선	국군 제3군단	국군 제2사단	양문리-탑두울
		국군 제5사단	탑두울-배후령
		국군 제8사단	경운산-추전리
		국군 제7사단	춘천 및 횡성지구
	국군 제2군단	국군 제3사단	추전리-갑둔리
	국군 제1군단	국군 제9사단	갑둔리-도채동
		국군 수도사단	도채동-동해안
예 비 대	기 타	미 제2사단	제천-홍천
		미 제187공정연대	군포비행장
	미 제10군단	미 제3·제7·제1해병사단	부산 일원

한편 미 제8군의 예비는 미 제3사단과 제7사단, 그리고 미 제1해병사단으로 편성된 미 제10군단이었다. 그러나 미 제7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은 부대정비 중에 있었고, 흥남항을 최종적으로 출발한 미 제3사단은 상륙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무렵 병력증강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도록 계획된 병력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그리고 미 제2사단은 군우리 전투에서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네덜란드와 프랑스 대대의 증원을 받고 충주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서쪽의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은 타일랜드 대대를 배속받아 수원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들 병력 외에 이용할 수 있는 부대는 남한의 여러 곳에서 대 게릴라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국군 제11사단과 12월 중순 한국에 도착해 8주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던 캐나다군 경보병대대가 있었다. 그리고 12월 31일 도착 예정인 뉴질랜드 제16야전연대와 미 제2공수특전중대 및 제4공수특전중대가 있었다.[48]

1) 서부전선

평양에서 중화-사리원, 율리-신계를 경유하여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아군은 적의 추격이 경미하여 순조롭게 철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황해도와 경기도 간 도계를 이루는 멸악산맥 일대에서는 북한군 패잔병이 빈번하게 출몰하여 도로를 차단하고, 매복 및 기습을 실시하여 아군의 철수를 방해함은 물론 민가의 약탈을 자행하였다.

사리원에서 남천으로 이동한 국군 제1사단은 12월 7일 사단 수색중대가 구월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대대규모의 패잔병을 소탕한데 이어 사단은 위천리와 구화리 일대의 축차적인 지연진지를 점령하여 아군의 철수를 엄호하면서 지역내 패잔병 소탕작전을 실시하였다. 사단은 미 제1군단 주력부대의 철수가 완료되자, 12월 14일을 기해 제11연대를 고랑포, 제12연대를 법원리, 그리고 제15연대를 신산리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6개월 만에 전쟁발발 이전의 진지를 다시 점령하였다. 38도선으로 철수한 미 제1군단은 김포반도에 터키여단을, 개성-문산 도로를 가로지르는 임진강 하류에 미 제25사단을, 고랑포-적성 일대에 국군 제1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편성하고, 영연방 제29여단은 군단예비로 고양군 신둔리에 집결시켰다.

한편 신계에서 철수한 미 제9군단은 국군 제6사단을 연천-의정부 축선상의 전곡 일대에, 미 제24사단을 김화-의정부 축선상의 영평 일대에 배치하고 영연방 제27여단을 군단예비로 덕정 부근에 집결시켰다. 시변리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던 군단의 좌전방인 국군 제6사단은 계획된 철수로인 시변리-삭령-연천 도로에 북한군 패잔병의 출몰이 빈번해지자, 12월 11일 시변리-구화리-연천 도로로 우회하여 철수하였다. 국군 제6사단은 제7연대를 한탄강 남쪽에, 제19연대를 백의리 일대에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제2연대는 사단예비로 동두천에 집결시켰다.[49]

이와 같이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안 미 제8군사령관은 서울 고수에 주력하라는 맥아더 원수의 지시에 따라 현 방어선의 취약점인 얕

은 방어종심, 넓은 배치 공간, 국군 부대들의 과도한 방어정면을 보강하기 위해 군 예비인 미 제1기병사단을 퇴계원 일대에 배치하여 춘천 방면에서 서울로 진출하는 적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군우리 전투에서 큰 피해를 입고 영등포에 집결한 미 제2사단을 충주로 이동시켜 중앙이나 동쪽에서 적이 국군의 방어지역을 돌파하면 이를 저지하고, 서부전선의 미 제1군단과 미 제9군단이 철수할 경우 이들에 대한 우측방의 엄호 임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서울 북쪽에 저장된 보급품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시키고, 인천항에 비축된 물동량도 줄이도록 지시하였다. 미 제8군사령부도 최소한의 인원만 잔류시키고 주력은 대구로 이동 조치하였다.

2) 중부전선

1950년 12월 10일 국군 제3군단은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후방지역 공비토벌 작전을 완료한 국군 제9사단과 제11사단을 육군본부로 원복 조치하였다.[50] 그리고 군단은 양평으로 이동해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 제8사단을 배속받아 군단 창설 이후 최초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당시 국군 제2사단과 제5사단은 11월 27일부터 육군본부 통제하에 철의 삼각지대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고 있었다. 이들 패잔병은 개전초기 낙동강전선에서 낙오된 후 태백산맥을 통해 북으로 도주하여 철의 삼각지대에 집결한 병력이었다.

국군 제2사단(-1)은 가평으로 이동하여 제17연대를 철원 부근, 제32연대를 의정부 부근, 그리고 배속된 제5사단 제35연대를 구화리 부근에 배치하여 연대별로 패잔병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국군 제5사단(-1)도 춘천으로 이동하여 제27연대를 청평 동쪽의 호명산 일대, 제36연대를 가평 북쪽의 지암리, 사단에 배속된 제2사단 제31연대를 홍천에 배치해 주저항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군단의 우전방인 제8사단의 진출이 지연되어 군단의 방어진지 편성은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다. 당시 제8사단은 신계를 경유하여 12월 5일 시변리에 도착한 후 그동안 계속된 철수로 인한 장병들의 체력회복을 위해 4일간 휴식과 부대

정비를 실시하였다.[51] 이때 사단은 철수로인 시변리-연천간 도로가 아군의 항공포격으로 교량과 도로 10여 곳이 절단되어 중장비는 물론 차량도 이동이 어렵다는 항공정찰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사단장 이성가 준장은 사단 주력의 이동을 전투경험이 풍부한 제16연대장 유의준 중령에게 일임하고 사단본부와 중장비, 환자, 보급품을 실은 차량제대를 이끌고 시변리-개성 도로를 따라 먼저 철수하였다.

사단본부가 출발하자 유의준 중령은 연천을 목표로 제16연대, 제10연대, 제21연대 순으로 도보 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좌우측의 고지 사이로 흐르는 임진강과 연해 있는 도로를 따라 이동하였고, 잠시 후 제16연대의 선두부대가 신장리(新場里) 도섭장에 도착하는 순간, 사단을 포위한 2개 대대 규모의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았다. 적은 북한군 제2군단 소속의 패잔병으로 주력은 대안의 독동에 배치되어 있었다. 연대장들은 적의 저항이 완강하자, 임진강 동쪽의 독동으로 도섭하는 것을 포기하고 임진강 서쪽의 감제고지인 520고지를 점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군 제8사단은 적의 집중사격을 뚫고 매곡동에서 종격실로 연결된 능선을 따라 이동하여 저녁 무렵에 520고지 부근으로 진출하였다. 그리고 우전방 237고지에 제16연대, 중앙의 282고지에 제10연대, 좌전방 400고지에 제21연대를 배치하여 반원형의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적의 야간공격에 대비하였다. 하지만 사단은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적의 저항이 경미해지면서 사단은 연천으로 철수한 후 원주로 이동하여 국군 제3군단에 배속 전환되어 화천저수지 남쪽 전선에 투입되었다.[52]

한편 육군본부는 12월 15일을 기해 국군 제3사단의 방어종심을 보강하고, 유사시 증원부대로 운용하기 위해 홍천에서 정비중인 국군 제7사단을 춘천으로 이동시켜 육군 예비로 확보하였다.

3) 동부전선

동부전선을 담당한 국군 제2군단은 미 제8군이 청천강에서 철수할 무렵인 11월 28일 덕천전투에서 지연전을 전개한 국군 제6사단을 미 제9군단으로 배속 전환하

고, 군단 주력은 강동 일대에서 재편성을 완료한 후 평양 동측방을 방어하였다. 이후 군단은 신계-곡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8군의 우측방 방어와 미 제10군단과의 배치공간을 통한 적의 후방 진출을 차단하던 중 다시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이천-평강-김화 선을 방어하기 위해 12월 5일 시변리에 집결하였다. 그러나 12월 8일 유엔군의 38도선 방어계획에 의거 군단은 다시 화천 동쪽의 방어진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무렵에는 북한군 제2군단과 제5군의 패잔병들이 평강-김화-화천 도로를 차단하고 있어 군단은 부득이 연천을 경유하여 철수를 단행하였다.

한편 군단이 38도선으로 철수하는 동안 동부전선에는 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던 국군 제9사단이 12월 8일 긴급히 원주, 강릉으로 이동하여 춘천 동북쪽의 내평리에서 동해안의 인구리(仁邱里)에 이르는 구간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제28연대는 소양강 남쪽, 제29연대는 현리 일대, 제30연대는 인구리 일대에 각각 배치되어 적의 후방 진출을 저지하고 있었는데, 1개 연대의 방어정면이 30㎞를 넘어 방어에 매우 취약하였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국군 제2군단은 철수를 서둘렀으나, 12월 14일에서야 원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군단은 재정비할 겨를도 없이 육군본부 명령에 의거 청천강 교두보와 시변리에서 전투를 전개한 제7사단을 육본 직할로, 제8사단을 제3군단으로 배속 전환하는 대신 동부전선의 광정면을 방어하고 있던 제9사단과 함흥에서 구룡포로 해상 철수한 제3사단을 배속받았다.[53]

그러나 군단이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동부전선의 방어력을 보강하기 위한 육군본부의 조치에 따라 흥남에서 철수한 국군 제1군단이 묵호에 상륙하여 동해안지역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제9사단이 다시 제1군단으로 배속 전환됨으로써 군단은 홍천으로 진출한 제3사단으로 인제 남쪽의 부평리-관대리 간을 방어하였다. 제3사단장 최석(崔錫) 준장은 제8사단 제16연대가 방어하던 홍천고개와 하수내리-상수내리 지역은 제18연대, 제9사단 제28연대가 방어하던 음양리-수리봉 지역을 제22연대가 인수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도록 지시하고, 사단예비인 제23연대는 홍천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전투지경선을 통한 적의 후방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전투경찰과 경비대대로 측방경계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사단은 좌인접 국군 제3군

단의 우전방 제8사단과 우인접 국군 제1군단의 좌전방 제9사단과 연결하여 주저항선 방어에 임하였다.

4) 제1군단의 투입과 동부전선의 강화

1950년 12월 18일 흥남에서 철수한 제1군단은 묵호로 상륙하여 제2군단으로부터 제9사단이 방어중인 관대리-현리-서림-양양을 연하는 방어선을 인수하였다. 군단의 임무는 38도선 방어진지를 점령한 후 태백산맥 일대에서 준동하는 적 유격부대를 격멸함과 동시에 그들의 38도선 이남으로의 침투를 저지하는 것이었다. 군단장 김백일(金白一) 소장은 주저항선을 보강하기 위해 좌전방 관대리-서림에 제9사단, 우전방 서림-양양에 수도사단을 배치하여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군단 후방지역에는 3개 경비대대를 영월과 정선, 하진부리에 각각 배치하였다.

제9사단은 제30연대가 방어하던 서림리-인구리 지역을 수도사단에 인계하고, 제28연대의 부평리-관대리 지역을 국군 제3사단에 인계함으로써 관대리-현리-서림 지역으로 방어 정면이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9사단의 방어정면은 30㎞에 달할 뿐 아니라 우측 수도사단과는 1073고지-방대산-구룡덕봉이, 좌측 국군 제3사단과는 길향산-대암산-부봉-가득봉 등의 고산준령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어 좌우 인접부대와 전선연결이 어려웠다. 또한 사단은 신편부대로서 공비토벌 작전만을 수행함으로써 실제적인 전투경험은 부족한 상태였다. 그리고 작전지역이 험준한 산악지대로 도로망이 부실하여 기동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제9사단장 오덕준(吳德俊) 준장은 태백산맥을 통한 적 유격대의 북상을 차단하고, 원통-인제 축선으로 남하하는 적 주력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제28연대를 원대리-현리, 제29연대를 현리-하치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사단예비인 제30연대를 창촌에 집결시켜 후방지역 경계임무를 부여하였다.[54]

그리고 수도사단장 송요찬(宋堯讚) 준장은 적 정규군은 아직 전방지역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오대산 부근의 적 유격부대가 험준한 산악지역에 거점을 구축하고 후방지역 교란을 획책함과 동시에 장차 이 일대로 진출할 북한군과 연결작전

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단은 제1단계로 양양과 주문진 간에 제1연대, 제1기갑연대, 제26연대 순으로 종심 깊게 배치하여 방어종심을 유지하였다. 이후 사단은 제1연대는 남대천 남쪽의 하왕도리 일대, 제1기갑연대는 상광정리 일대에 배치하고, 제26연대는 주문진 남쪽의 방내리에 집결시켜 오대산 부근의 적 패잔병 준동에 대비하였다.

한편 군단이 방어진지를 재편성하는 동안 적 제69여단은 양양 북쪽에서 재편성을 완료하였고, 북한군 제2군단 예하의 패잔병들이 인제 부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2,000여 명의 패잔병들은 오대산을 중심으로 유격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국군 수도사단장은 제1연대에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제1기갑연대와 제26연대는 서쪽의 오대산 지역을 수색정찰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써 국군은 미 제1군단의 미 제25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문산 북쪽과 미 제9군단 제24사단이 방어중인 포천 북쪽을 제외한 38도선상의 전 지역에 방어편성을 완료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유엔군의 38도선으로의 철수작전은 1950년 11월 24일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총공세를 개시한 국군과 유엔군이 중공군의 반격, 즉 1950년 11월 25일부터 단행된 중공군 제2차 공세로 인해 청천강 일대 및 함흥-흥남 지역에서 철수작전으로 전환하여 38도선상에 방어선을 형성할 때까지의 작전을 일컫는다.

유엔군은 중공군을 청천강 이북지역에서 격퇴하기 위해 미 제8군을 주공으로 청천강 정면에서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중공군과 북한군은 「결정적인 반격으로 전환하여 청천강과 장진호 그리고 청진지역에서 유엔군을 각각 포위 섬멸한 후 남으로 전과를 확대하면서 제2전선부대와의 연계하에 38도선 이북지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반격을 실시하였다.

중공군과 북한군은 작전지역을 서부와 동부로 구분하여 서부는 청천강 지역, 동부는 장진호 지역에서 연합집단을 형성하였다. 이에 서부는 중공군 제13병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동부는 중공군 제9병단과 북한군 제3, 제4, 제5군단이 공격을 담당하였다. 적은 작전기간 동안 대규모의 포위기동과 우회전술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침투작전을 수행하였고, 기만 유인과 침투, 매복전술 등을 혼용하며, 특히 제2전선부대의 게릴라전을 활용하였다.

적의 제2차 공세에 대한 작전적인 측면에서의 평가는 첫째, 서부전선의 중공군 제13병단은 미 제2사단과 국군 제2군단간의 간격으로 침투하여 돌파구를 확대함으로써 미 제8군의 우익을 위협하여 서해안 지역으로 전선을 압축하였고, 둘째, 동부전선의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 일대에서의 포위에 이은 계속적인 남진으로 제2전선부대의 원산점령과 함께 흥남교두보를 압박하며 동부전선의 유엔군을 포

위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제2차 공세를 주도한 중공군 지도부는 이 작전에 대한 전쟁 지도(指導) 측면에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전장형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한반도 전국(戰局)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다는 결심을 과감히 확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장을 평양-원산 정면에 두고 덕천-영원 북서쪽 지역을 후방으로 하여 서부전선에 6개 군단을 집중하는 한편 제9병단 3개 군단을 동부전선 작전에 투입하였다. 둘째, 미군의 전략적 판단착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작전을 전개하였다. 소부대를 이용한 '치고 빠지기식'의 작전을 통해 미군 및 국군을 예정지역으로 깊숙이 유인하여 기습공격을 실시하였다. 셋째, 퇴로차단을 두려워하는 미군의 약점을 적극 이용하였다. 중공군의 전술적 장기를 발휘하여 대담하게 전역(戰域)을 우회, 분할 포위하는 전술을 구사하였다. 넷째, 미군이 동요하고 있는 시기를 포착하여 승세를 타고 전과를 확대하였다. 청천강 일대에서 미 제9군단을 공격한 직후, 철수와 병력배치를 놓고 미군 지도부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이 중공군 지도부는 서부지역의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추격토록 조치함으로써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중공군 지도부는 제2차 공세작전에서 무기와 장비가 미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중공군이 작전 간에 발생된 여러 장애요인, 즉 혹한으로 인한 동상과 동사, 보급체계의 미비로 인한 식량과 탄약의 부족 등을 이겨내고 세계 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재확인하였다고 작전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2. 전훈 요소 도출

1) 지휘관의 확고한 전투의지와 정확한 상황판단의 필요성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평양을 사수하는 동안 일부 중공군과 북한군 제2전선부대가 미 제8군의 후방으로 기동하여 퇴로를 차단할 것이라 판단하고 1950년

12월 3일을 기해 평양 철수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은 비록 청천강 전선에서 승리하여 유엔군을 추격하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중공군은 식량과 탄약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반해 미 제8군은 우세한 기갑부대 및 공중지원을 받고 있었고, 충분한 식량과 탄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운데 교두보선을 확보하거나 축차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미 제8군의 지휘관들 중에는 피아간의 전투력 및 보급지원 측면에서 미 제8군이 평양 방어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지휘관도 있었다. 그러나 워커 사령관은 이러한 요인과 상황을 간과하고 있었다.

유엔군이 평양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실패한 것은 6·25전쟁에서의 중요한 전술적 실수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절대적인 제공권과 중공군이 보유하지 못한 기갑부대, 상대적으로 훨씬 우세한 야포 및 박격포, 평양까지 연결된 철도는 물론 진남포항의 복구로 원활해진 군수지원 등 최상의 여건에서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였을 경우, 미 제8군은 군수 및 재보급 상황이 공세를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중공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2) 전선에서의 지상 정찰활동의 부재

미 제8군의 평양철수명령이 하달된 1950년 12월 3일에 미 제25사단 제35연대 제3대대 선임장교는 1950년 한국에서의 미군의 취약점을 '미 제35연대 지휘보고서'에 기록하였다. 그는 취약점 중의 하나로 "중공군의 공격기간과 그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실책으로 작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전선에서의 지상정찰 부대의 부재였다"라고 기술하였다.

12월 3일 이후 철수과정에서 지상 정찰 및 수색의 부재는 더욱 심화되었고, 미군이나 유엔군 수색대 및 정찰부대가 적의 이동이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활동한 적은 거의 없었다. 미 제8군은 이후 2주 동안 실제로 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미 제8군은 신속하게 남쪽으로 후퇴하는데 주안을 둠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전투의지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3) 상급부대 및 인접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1950년 11월 29일과 30일 미 제2사단장 케이저 소장은 미 제9군단 책임지역내의 군우리-순천간 도로가 아닌 미 제1군단 책임지역의 안주로 향하는 도로를 통해 철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 제1군단장 밀번 소장은 미 제2사단의 안주-신안주-숙천 도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근무지원부대와 같은 비전투부대 위주의 일부 병력이 이 도로를 통해 철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 제2사단에 대한 지휘권은 미 제9군단장 쿨터 중장에게 있었다. 쿨터 군단장은 군단 책임지역 내의 군우리-순천 도로를 따라 철수하도록 미 제2사단장에게 지시하였고, 이러한 명령은 결코 번복되지 않았다. 미 제2사단장 케이저 장군은 그의 상관인 쿨터 군단장이나 워커 미 제8군사령관으로부터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단을 안주 도로를 통해 철수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케이저 장군은 적 화력봉쇄지역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의 막대한 손실 없이 자신의 사단을 순천 도로를 따라 이동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임무라고 판단하였다.

만일 미 제9군단장이나 미 제8군사령관이 11월 30일의 전개 상황을 계속 주시해 고개 남단으로부터 적 봉쇄지역으로 공격하는 미들섹스대대를 강력히 증강시켜 미 제2사단과 협공을 실시했더라면 미 제2사단은 최소한의 피해로 적의 봉쇄지역을 통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 제9군단과 미 제8군은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순천 인근에 보유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미 제9군단과 미 제8군사령부는 미 제2사단 정면의 상황을 과소평가했거나 중공군의 공격에 관한 정보를 오판하고 있었다.

4) 철수작전에 있어서의 혼란방지

1950년 12월 3일 미 제8군은 평양으로부터 철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보급품과 장비를 대동강의 교량들이 폭파되기 이전에 후송할 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물자를 적재할 화차와 적재된 화차를 견인할 기

관차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례로, 철수 당시 신형 M46 패튼전차 16대가 여전히 평양의 철도 야적장에 있는 무개화차에 실려 있었는데, 기화기와 같은 일부 부품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었다.

평양철수작전은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작전이지만, 평양을 미군이 통제하고 있던 마지막 며칠간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비록 정보상에는 군사 보급품과 장비를 후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미 제8군내에서는 중공군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두려움과 성급함이 지나치게 팽배해 있었다. 미 제8군의 근무부대와 보급시설들은 하달된 철수명령을 수행하기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8,000~10,000톤의 보급품 및 장비를 불필요하게 손실하였다. 그러나 손실된 대부분의 보급품 및 장비는 철수기간이 2~3일만 연장되었다면 충분히 후송이 가능하였다.

만일 지휘부에서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이나 중공군에 대한 공포감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시간은 실제로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공군은 미 제8군의 평양철수가 완료된 후 얼마 동안 평양에 진입하지도, 가까이 접근하지도 않았다. 후방 경계부대인 영국 제29여단은 적과의 접전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만일 유엔군이 평양을 철수하기 전에 적이 평양을 공격했더라도 적과 교전하는 동안 시간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집필 : 손규석)

주(註)

1) HQS, EUSAK, 「Command Report No. 1(1-31 December 1950)」, 10 April 1951.

2) James F. Schnabel, op. cit., p.279.

3) *Ibid.,* p. 280. 또한 맥아더 원수는 미 제10군단이 미 제8군의 우측방으로 압력을 가해오는 적의 주보급로를 위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써 중공군이 자신들의 보급로를 위협하는 미 제10군단을 경계하기 위해 8개 사단을 투입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 제8군에 대한 중공군의 공격에서 8개 사단병력을 제외시킬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4) *Ibid.,* p.282.

5) Billy C. Mossman, *op. cit.,* p.159.

6)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앞의 책, 144쪽.

7) 위의 책, 203쪽.

8) 위의 책, 204쪽.

9) 소련군 총참모부 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240쪽.

10)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앞의 책, 104쪽; 소련군 총참모부 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 「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240쪽.

11) 육군정보참모부, 앞의 책, 279쪽.

12)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제5권 : 중공군개입과 새로운 전쟁』, 1992, 98~99쪽.

13)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앞의 책, 101쪽: 전쟁기념사업회, 앞의 책, 81쪽; Roy E. Appleman, Disaster in Korea :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 p.156. 중공군 제120사단 제359연대 제2대대 문화장교는 포로가 된 후 심문에서 "중공군 병사들은 옥수수와 수수로 된 5일분의 식량과 100발의 소총 실탄 그리고 수류탄 4발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14)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271~272쪽. 현지조달을 위해 각급 정치기관의 간부들을 차출하여 식량조달부대를 조직하였고, 북한의 지방정부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양식은 모두 관인이 찍힌 식량차용증을 발급하여 추후 중국정부가 전액 상환하기로 하였다.

15) 앞의 책, 250쪽; 전쟁기념사업회, 앞의 책, 81쪽.

16) GHQ, EUSAK, Command Report, Narrative, Dec 50.

17) GHQ, EUSAK,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42, Dec. 50;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43, Dec. 50.

18) GHQ, EUSAK, Command Report, Narrative, Dec 50.

19) Billy C. Mossman, *op. cit.,* p.153.

20) 12월 6일 중공군 제39군단 제116사단과 북한군 제1군단이 평양에 진입해 대동강변에서 합류하였다.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200쪽.

21) GHQ, EUSAK, Command Report, Narrative, Dec 50; GHQ, EUSAK, Periodic Intelligence Report No. 147, 6 Dec 50.

22) Billy C. Mossman, *op. cit.,* p.156.

23) *Ibid.,* pp.156~157.

24) *Ibid.,* p.159.

25) 모스맨 지음, 백선진 옮김, 앞의 책

26) Billy C. Mossman, *op. cit.,* p. 160.

27) *Ibid.,* p.161.

28) GHQ, EUSAK, Command Report, Narrative, Dec 50.

29)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앞의 책, 102쪽.

30) 위의 책, 103쪽.

31) Roy E. *op. cit.,* p. 298. 이 내용은 1950년 12월 1일 미 육군성 작전참모부장 볼트(Charles Bolte) 장군이 참모차장 리지웨이 장군에게 보고한 것으로 육군의 능력을 요약한 각서에 의한 것이다.

32) HQS, EUSAK, 「Periodic Information Report, No. 142」1 December 1950; Billy C. Mossman, *op. cit.,* p.149.

33)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 황해북도』(서울 : 신흥인쇄, 2004), 24쪽.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5』(서울 : 삼화인쇄, 1991), 445쪽.

35)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앞의 책, 27쪽.

3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447쪽.

37) 위의 책, 522~524쪽.

38)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앞의 책, 30쪽.

3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526쪽.

40) 위의 책, 325~329쪽.

41)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평화문제연구소, 앞의 책, 28~31쪽.

42) 해병대사령부, 「작전명령 제44호」(1950. 12. 3).

43) 미 제1군단사령부, 「작전명령 제9-50호」(1950. 12. 5)

44) 해병대사령부, 「작전명령 제46호」(1950. 12. 13)

45) 흥남부두에서 안전지대로 수송된 피난민의 총수는 공식기록으로 91,000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유아가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쇄도하는 피난민의 승선인원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실제 피난민의 수는 100,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앞의 책, 296쪽.

46) HQS, EUSAK, 「Command Report No. 1(1-31 December 1950)」, 10 April 1951; Billy C. Mossman, *op. cit.,* pp. 160~161.

47) *Ibid.,* pp.180~182: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 앞의 책, 265쪽; 러시아 국방부 편, 김종국 역, 앞의 책, 102쪽.

48) Billy C. Mossman, *op. cit.,* p.182.

49)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252~253쪽.

50)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251호」(1950. 12. 10)
51) 제8사단사령부, 「오뚜기 약사」, 1969. 209쪽.
5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중)」, 255쪽.
53) 위의 책, 257쪽.
54) 위의 책, 258쪽.



제 7 장 해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 해군과 유엔 해군 상황
제 3 절	유엔 및 한국 해군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이 장에서는 한국 해군과 유엔 해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원산상륙작전에 이어 패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면서 북진을 단행, 한·중 국경선까지 진출하였다가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던 1950년 10월 25일부터 중공군의 제3차 공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12월 30일까지 한반도 해역에서 수행된 주요 해군작전을 기술하였다.

이 기간 중 해군작전은 북한 해군의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유엔 해군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으며, 크게 지상군 작전지원을 위한 함재기 및 함포지원, 해상철수, 후방지역에서의 수송지원 형태의 작전이 이루어졌다.

이 중 먼저 가장 중요한 작전형태였던 해상철수작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25일 이후 약 한 달이 경과한 11월 28일 일본 도쿄에 있는 극동군총사령부에서 맥아더 장군 주관하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과 제10군단장 알몬드(E. M. Almond) 장군 등이 참석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엔군 수뇌부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한 당시의 상황을 "세력의 열세와 통제가 불가능한 위기의 상황"으로 판단하여 유엔군의 작전중점을 기존의 공격태세에서 방어태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유엔군은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였다(We face an entirely new war)"라고 결론을 내렸다.[1)]

새로운 전쟁의 시작에 따라 동부지역 지상군 작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에게 함흥~흥남지역으로의 철수를 명령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미 극동해군사령부에서는 지상군의 철수에 대비하여 11월 13일 긴급 해상 철수계획인 『작전계획 116-50』을 관련부대에 배포하였다. 해상 철수

작전의 기본개념은 원산상륙작전 시의 역순으로 해상철수작전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철수작전에 사용될 항구의 정보상황, 즉 수로 조건, 함선 수용능력, 수송함선의 병력탑재능력 등을 작전계획에 포함하였다.

해상철수작전의 시행을 위해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 Joy) 중장은 해군의 상륙전문가인 제90기동부대장 도일(J. H. Doyle) 소장을 동해지역 철수작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제90.1기동전단장 태크레이(L. A. Thackrey) 소장을 서해지역 철수작전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 실시된 해상철수작전 중 먼저 성진철수작전은 미 공격수송함(APA)과 LST 등에 12월 7일 탑재가 시작되어 9일에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 병력의 승선이 완료되었다. 이어 먼저 흥남에서 교두보 구축병력 보강을 위하여 수도사단의 1개 연대 병력을 상륙시키고 항해를 계속하여, 12월 12일 국군 제3사단을 구룡포로 철수시켰으며, 잔여 부대는 부산으로 철수시켰다.

한편, 원산에서는 12월 3일부터 미 제3사단의 잔류병력과 장비의 탑재를 계속하여 12월 8일까지 갈마반도(葛麻半島)에 있는 제12해병항공전대의 이동을 엄호하도록 명령 받은 한국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군부대의 탑재가 완료되었다.

동해안 지역에서의 철수작전 중 가장 큰 대규모의 작전은 흥남철수작전으로 1개월 동안 실시된 유엔군의 교두보 구축작전을 통해 대부분의 지상군이 집결되고, 이어 1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해상철수가 시작되었다. 12월 11일 알몬드 소장이 하달한 미 제10군단 『작전명령 10-50』에 따라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31연대 임시대대, 영국 해병 제41 코만도, 국군 제1군단, 미 제7사단, 미 제3사단의 순서로 철수를 준비하였다.

한편, 해상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항공 및 함포지원사격이 대규모로 실시되었는데, 항공작전으로 완벽한 공중엄호를 제공하고 함포지원사격으로 철의 장막을 형성하여 지상군을 방호하였다. 이를 위해 7척의 항공모함[2]과 13척의 전투함[3]이 지원되었으며, 15일부터 최종 철수일인 24일까지 총 1,700회의 출격이 실시되었다.[4] 함포지원사격은 제90.8함포지원전대가 책임을 맡았으며, 16인치, 8인치, 5인치

함포로 흥남지역에 대해 집중사격을 실시하였다.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발사탄수는 8인치 2,932발, 5인치 18,637발로써 인천상륙작전에서 소모한 탄약량의 8인치 800발, 5인치 12,800발을 훨씬 능가하였다.[5)]

12월 20일 모든 부대들의 승선이 완료되었고, 21일 알몬드 소장과 그의 참모진들은 제90기동부대의 기함인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함에 승선하였다.

마지막으로 흥남항에 남아있던 모든 장비와 탄약, 보급품의 전부를 폭파하고 마운트 맥킨리함에 있던 알몬드 소장과 도일 제독이 12월 24일 16시 32분 흥남항에서 이탈함으로써 흥남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동해안에서의 해상철수작전 결과 미군과 국군의 병력 105,000여 명과 피난민 91,000여 명이 수송되었다.[6)]

한편, 서해안 지역에서도 유엔군의 철수로 인하여 진남포 및 인천철수작전이 진행되었다. 진남포 주둔 해군기지사령관은 100척의 가용 선박과 5만 명의 피난민이 있으므로 3만 명은 해상으로 탈출시키고 나머지는 육로로 철수시키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12월 4일부터 진남포 철수작전이 시작되어 12월 5일 이탈을 완료하였고, 이때 잔류한 피난민 약 3,000명은 미 해군 MSTS[7)] 선박으로 수송되었다. 한편 인천에서는 육군의 군수물자 적재가 7일부터 시작되어 31일까지 인원 32,428명, 차량 1,103대, 그리고 화물 54,741톤이 각각 수송되었다.[8)]

이 기간 중 해군 항공기를 이용한 지상작전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압록강 교량을 통하여 중공군의 병력과 장비들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자, 미 극동해군사령관은 제77고속항공모함부대로 하여금 유엔공군과 함께 압록강과 두만강의 교량을 파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다.[9)]

제77고속항공모함부대는 3척의 항공모함 즉, 밸리 포즈, 필리핀 시, 레이테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인 스카이레이더(Skyraider), 코사르(F4U Corsair)와 폭격기 엄호를 위한 팬더(F9F2 Panther)기를 이용하여 지정된 교량을 폭파하였다.

이들 항공기들은 미 제1해병사단이 장진호에서 철수하는 동안 매일 200소티 이상 출격하여 중공군 부대와 그들의 시설을 공격하였다. 12월 4일의 경우 근접

항공지원 239소티를 실시하였는데 고속 항공모함에서 128소티, 호위 항공모함에서 34소티 그리고 연포비행장에서 77소티 출격하였다.[10]

계속해서 이 기간 중 한국해군의 활동으로 한국해군은 지상군의 북진에 따라 남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해군기지를 완전히 수복하였고, 북한 해역에 대한 해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산, 진남포, 장전 등에 해군 전진기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해군 전진기지 임무를 본격화하기 이전인 10월 하순, 대규모의 중공군이 한·중 국경선을 넘어 6·25전쟁에 개입하였고, 중공군의 남진으로 국군 및 유엔군은 퇴각을 하였다.

지상군의 남하에 따라 북한지역에 설치되었던 장전, 원산, 진남포, 흥남 등의 한국해군 전진기지는 철수되었다.[11] 또한 한국해군은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군의 수송선인 LST와 FS 함정 이외에도 해운공사에서 징발한 선박으로 수송활동을 전개하였다. 동·서·남해안에서 수행된 수송작전은 국군의 병력과 보급물자 수송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고, 그 외 정부 각 기관의 요원 및 물자와 피난민 수송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부산항은 유엔군의 보급기지로서 모든 군수물자를 이 곳에서 집결하여 전방 각지로 수송하였는데, 육군의 군수물자를 부산항에서 성진항으로 수송하였고, 한국해병대 병력을 부산항에서 묵호항으로 호송 및 이동시켰으며, 원산전진기지에 필요한 보급물자를 부산항에서 원산항으로 수송하였다. 또한 한국 해병대 병력과 육군의 군수물자를 부산항에서 진남포항으로 수송하기도 하였다.

제 2 절 북한 해군과 유엔 해군 상황

1. 북한 해군 상황

북한 해군은 전쟁 초기 아군 후방지역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고, 대상륙 방어작전을 통해 미군의 상륙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북한 해군의 작전중점은 아군 후방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에서 점차 해안방어작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소규모로 운용되던 북한 해군이 전쟁초기에 대부분의 전투함을 손실했기 때문이었다.

중공군 개입 이후부터 1950년 12월 30일까지의 시기에도 대부분의 전투세력을 잃은 북한 해군은 강력한 유엔 해군 및 한국 해군의 작전을 방해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전쟁초기에 보유했던 어뢰정과 소형 선박 등이 대부분 와해되어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함정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북한 해군의 작전활동 역시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2. 유엔 해군 상황

1) 일반상황

해상통제권을 완전하게 장악한 유엔 해군은 동·서해안에서 함포사격으로 북진하는 지상군을 지원하고,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로 북한 지역 주요의 목표지역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 해군의 임무는 지상군 북진지원에서 지상군의 안전한 해상철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 해군은 함포지원사격 및 항공기의 근접항공지원사격으로 중공군의 남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동시에 극동함대에 소속되어 있는 수송선박을 총 동원하여 유엔군의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였고, 이때 피난민의 철수작전도 병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요한 해상철수작전은 원산·성진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 진남포 및 인천철수작전이었으며, 항공모함에서 이륙한 항공기에 의한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도 대표적인 유엔 해군작전 중의 하나였다.

2) 부대편성 및 지휘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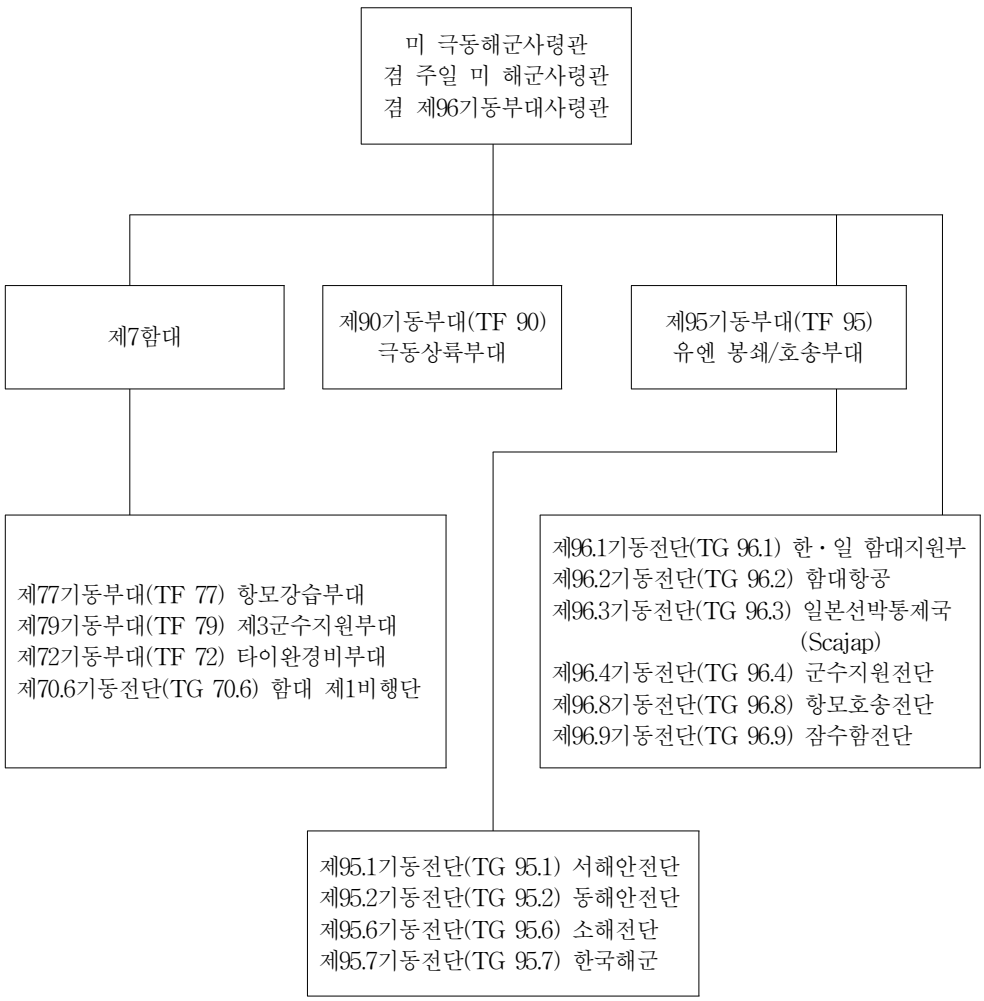
미 극동해군은 미 제7함대에 대한 작전통제와 함께 전쟁수행에 필요한 기동조직으로 부대구조를 개편하였다. 전쟁발발 당시 미 극동해군의 예하에는 수척의 전투함으로 편성된 제96기동부대(TF 96)와 상륙부대인 제90기동부대(TF 90), 일본선박통제국(Scajap)의 함선들이 있었다. 이 중 제90기동부대는 맥아더의 요청에 따라 주일 미 육군의 상륙작전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와 있었다. 일본인들에 의해 운용되었던 일본선박통제국의 선박들은 미 극동해군사령관이 통제하고 있었으며,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군의 군수지원과 일본군 전쟁포로를 일본이 점령했던 여러 나라로부터 일본으로 송환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12)]

미 극동해군은 미국으로부터 증원전력이 도착함에 따라 전쟁초기부터 1950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동조직을 재편성하였는데, 1950년 9월 12일에 세 번째 재편성의 일환으로 제96.5기동전대를 제95기동부대로 승격시켜 기동조직을 재편함으로써 중공군 개입 시부터 흥남철수작전 기간 동안 제95기동부대가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한국 해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기 이전인 7월 10일 제96.7기동전단(TG 96.7)으로 편성되어 미 극동해군의 작전지휘를 받았다. 그리고 9월 12일 기동조직이 재편성될 때 제95.7기동전단(TG 95.7)으로 편성되어 운용되었다.[13)]

유엔 해군의 주요 함정은 해상철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세력으로 편성되어 병력을 수송하기 위한 공격수송함(예: AGC, APA)과 상륙함정(LSD, LST) 및 항공모함(CV, CVL), 함포지원함(CA, DD, BB)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7-1> 미 극동해군의 지휘체계(1950. 9. 12)



제 3 절 유엔 및 한국 해군작전

1. 지상군 작전 및 전선 개황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중공군 개입 시기 지상군의 주요 지휘관으로는 서부전선 작전을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이 책임지고 있었고, 동부전선은 미 제10군단장인 알몬드(E. M. Almond) 소장, 인천상륙작전 시부터 해병사단을 지휘한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O. P. Smith) 소장, 그리고 육군으로는 미 제3보병사단장 소울(R. H. Soule) 소장, 미 제7보병사단장 바아(D. G. Barr) 소장이었다.

국군은 제1군단장에 김백일 소장, 예하에 제3사단장 최석 준장, 수도사단장 송요찬 준장이었다.

구 분	지 휘 관
미 제10군단장	소장 Edward. M. Almond
미 제1해병사단장	소장 Oliver. P. Smith
미 제3보병사단장	소장 Robert. H. Soule[14]
미 제7보병사단장	소장 David G. Barr
한국 제1군단장	소장 김백일
한국 제3사단장	준장 최석
한국 수도사단장	준장 송요찬

2) 중공군 개입과 해상철수 준비

1950년 10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멀지 않아 이 전쟁을 종결지을 것이라는 희망에 찬 국군과 유엔군은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고 있었고, 이 중 한반도의 서부전선에는 미 제8군과 국군 제2군단이 청천강을 도하하여, 그중 일부 부대가 압록강 선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제1군단이 북동해안선을 따라 두만강 지역으로 북진 중에 있었고, 미 제10군단 예하 부대 중, 제7사단은 이원-풍산-혜산진으로 전진하고, 미 제1해병사단은 함흥에서 장진호 방면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며, 미 제3사단은 주로 원산-함흥지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동부전선의 알몬드 소장의 의도는 가능한 빨리 국경선에 이르는 교통과 통신의 동맥선을 제압하려는데 있었으며, 이와 같은 그의 작전방침은 쉽게 성취될 것 같이 보였으나 산발적으로 보고되는 중공군 출현 소식으로 인하여 낙관적인 전망은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12월 2일 마침내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중공군 부대가 장진호 계곡을 진격중이던 미 해병대의 전면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공군 제124사단이 진흥리(眞興里) 남쪽에서 리첸버그(H. L. Litzenberg) 대령이 지휘하는 제7연대를 공격한 것이었고, 이후 5일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보다 결정적인 국면의 전환은 소위 "크리스마스 공세" 직후에 일어났는데, 11월 25일 서부전선에서 일몰과 더불어 중공군 제4야전군(38, 39, 40, 42, 50, 66군단 등 6개 군단)의 18개 사단이 미 제8군의 우익을 공격하였고, 동부전선에서는 제3야전군(20, 26, 27군단 등 3개 군단)의 12개 사단이 장진호(長津湖) 서안의 유담리(柳潭里)에 진출한 미 제7해병연대를 포위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크리스마스 전에 6·25전쟁에 참가한 미군 장병들을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이라는 약속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유엔군의 공세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 좌절되었다. 11월 28일 저녁 워커 장군과 알몬드 장군은 극동군사령부 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로 갔다. 회의결과 유엔군 수뇌부는 미 제8군과 미 제2사단이 처한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유엔군이 세력의 열세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

하여 방어태세로 전환되었고, 유엔군은 전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였다"(We face an entirely new war)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15]

29일 저녁, 알몬드 소장은 제1해병사단장에게 수세로의 전환을 명령하였으며, 30일에는 하갈우리(下碣隅里)에서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 소장과 제7사단장 바아(Barr) 소장 및 각 부사단장들과 진중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다음과 같은 군단명령을 하달하였다.

"군단은 적과 최대한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 주력을 함흥~흥남지역에 집결한다."

이 작전명령에 따라 미 제10군단 예하 각 부대의 철수가 시작되었는데, 미 제1해병사단은 유담리(柳潭里)에서 혈투 끝에 중공군이 형성한 여러 겹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예정된 집결지로 후퇴하게 되었으며, 미 제7사단도 앞서 11월 21일 제17연대전투단(H. B. Powell 대령)이 혜산진을 점령함으로써 대망의 국경선까지 진출한 바 있었으나 역시 함흥으로의 철수를 시작하였다.

또한 미 해군의 제1순양함전단(R. H. Hillenkoetter 소장)의 순양함 세인트 파울(Saint Paul)함과 구축함 젤라스(Zellars)함의 함포지원을 받으면서 합수(合水)와 청진(淸津) 교외까지 진출하였던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도 일단 성진(城津)으로 집결하였다가 차후의 이동에 대비하게 되었다. 미 제3사단은 원산에 상륙한 뒤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질러 서진하고 있었으나 다시 원산으로 재집결하게 되었다.

한편 미 극동해군사령부에서는 전쟁의 국면이 이와 같이 바뀌기 전인 11월 중순에 이미 심상치 않은 전세의 역전을 걱정하고 최악의 경우 유엔군을 한반도로부터 철수시켜야 될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고 사전에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조이 중장은 11월 13일 『작전계획 116-50』을 통하여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의 긴급철수 절차를 배포하였다. 이 작전계획에는 어떤 작전계획도 "역공격의 원칙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과 일본 항구의 상세한 지리적 여건과 수용능력, 상선과 전투함정의 병력 탑재능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16]

11월 28일 드디어 구체적인 첫 지시가 내려졌다. 미 극동해군사령관 조이(C. T. Joy) 중장은 미 제90기동부대장 도일(J. H. Doyle) 소장에게 지상군의 철수에 대비한 제반 계획을 작성할 것과 앞으로 이 철수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도일 소장이 모든 지휘를 맡게 될 것이라는 전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도일 제독은 자신이 직접 동해안 재배치 작전을 지휘하고, 제90.1기동전단장 태크레이(C. A. Thackrey) 해군소장이 서해안 재배치 작전을 지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지시는 공교롭게도 미 해병대가 유담리(柳潭里)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바로 몇 시간 뒤에 내려졌다.

11월 29일 조이 제독은 제90기동부대의 모든 함정에게 6시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명령하였다. 전장 상황이 악화되자 11월 30일 제90기동부대의 모든 함정에게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17]

2. 원산, 성진 및 흥남철수작전

1)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원산, 성진 및 흥남철수작전의 제대별 주요 지휘관은 극동해군사령관인 조이(Joy) 중장, 예하의 제90기동부대장이고, 상륙작전의 전문가인 도일(Doyle) 소장, 수송전단장 켈리(Kelly) 대령, 함포지원전단장 힐렌코에터(Hillenkoetter) 소장 및 봉쇄·수송·소해전단장 히긴스(Higgins) 소장이었다.

그리고 제7함대사령관은 스트러블(Struble) 중장, 고속항공모함부대장은 어윈(Ewen) 소장, 호송항공모함전단장은 러블(Ruble) 소장 및 보급지원전단장은 오스틴(Austin) 대령이었다.

구 분	지 휘 관
극동해군사령관	해군 중장 C. T. Joy
제90기동부대장	해군 소장 J. H. Doyle
제90.2수송전단장	해군 대령 S. G. Kelly
제90.21수송전대장	해군 대령 A. E. Jarrell
제90.8함포지원전단장	해군 소장 R. H. Hillenkoetter
제95.2봉쇄·수송·소해전단장	해군 소장 J. M. Higgins
제7함대사령관	해군 중장 A. D. Struble
제77고속항공모함부대장	해군 소장 E. C. Ewen
제96.8호송항공모함전단장	해군 소장 R. W. Ruble
제79.2보급지원전단장	해군 대령 B. L. Austin

2) 원산·성진 철수작전

1950년 12월 1일 원산에서는 적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미 제77기동부대(E. C. Ewen 소장)의 항공기들이 밤새 쉬지 않고 계속하여 출격하고 있었다. 미 제10군단으로부터 원산-흥남 사이의 육로와 철로가 이미 차단되었다는 상황보고를 듣고, 도일 소장은 더 이상 원산으로부터 철수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도일 소장은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A. D. Struble) 중장에게 함포지원을 위해 순양함 세인트 파울(Saint Paul)함과 구축함 젤러스(Zellers)함을 급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국군의 후퇴를 지원하면서 원산만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세인트 파울(Saint Paul)함은 즉각 함수를 남으로 돌려 3일 낮에는 원산만 내에 투묘[18]하게 되었고 젤러스(Zellers)함도 이어서 도착하였다.

한편 원산만에는 사전 명령을 받고 유엔군의 해상철수작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달려온 제90.21수송전대(A. E. Jarrell 대령)의 헨리코(Henrico)함 외에 4척의 공격수송함(APA)과 2척의 공격화물선(AKA)이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12월 3일 오후 도일 소장은 자렐 대령에게 미 제3사단을 승선하도록 지시하였고, 조이 중장에게는 해상철수탑재를 위한 함정소요를 건의하였다. 자신은 이 작전을 직접 감독하기 위하여 원산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당시 원산에는 적의 위협이 거의 없었으며 미 제3사단 병력의 대부분은 이미 함흥을 향해 도로 및 철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었고, 원산에는 단지 4,000여 명의 잔류병력과 12,000톤의 장비만이 남아 있었다.

원산의 상황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곳에 집결시켰던 함선의 일부는 성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성진항은 광석과 목재수출의 중심지로써 훌륭한 하역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즉, 반도로 보호된 1,800피트의 부두는 수심이 27피트 이상으로 대형함의 계류가 가능하였다.[19] 성진에는 이미 집결을 완료한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의 일부 병력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12월 5일 공격수송함(APA)인 노블(Noble)함에 승선한 플래어티(Michael F. D. Flaherty) 대령은 원산에서 2척의 수송선을 지휘하여 성진으로 향했고, 미리 도착하여 대기하고 있던 일본 선박통제국(Scajap) 소속 LST 1척 및 한국 해군 LST 1척과 더불어 국군의 수송을 맡게 되었다.

탑재는 7일부터 시작되어 9일에 완료되었으며, 이 수송부대를 호송하기 위하여 구축함 무어(Samuel N. Moor, 함장 : R. H. Wainless 대령)함과 매독스(Maddox, 함장 : P. B. Haines 대령)함도 도착하였다. 원래 플래어티 대령은 이 수송부대를 거느리고 부산으로 직항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었으나, 9일 오후에 성진을 출항한 다음 자정에 이르러 새로운 명령을 받기 위해 흥남에 기항하라는 명령을 접수하였다.

이후 곧 흥남에 도착, 이 지역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군 수도사단의 1개 연대 병력을 상륙시킨 다음 다시 남하를 계속, 12일 19시 20분에 드디어 국군 제3사단을 구룡포(九龍浦)에 상륙시키고, 나머지 부대는 15시 부산으로 상륙시킴으로써 동부전선에서의 첫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한편 원산에서는 12월 3일부터 미 해병대의 크라운(Crown) 소령이 지휘하는 제1해안부대의 엄호 아래 미 제3사단(R. H. Soule 소장) 잔류병력과 장비의 탑재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5일에는 미군 1개 대대와 국군 해병대 2개 대대가 교두보를 구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상에서는 제90.8함포지원전단(R. H. Hillenkoetter 소장)의 순양함 세인트 파울(Saint Paul)함과 구축함 젤라스(Zellars)함 그리고 스페리(Sperry)함 및 행크(Hank)함 등이 밤낮으로 함포지원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90.21수송전대의 자렐(A. E. Jarrell) 대령도 그의 예하 함선이 탑재를 계속하는 사이에 원산만 내의 주요 도서에 있는 적의 군사시설에 대해 포격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여도(麗島)에는 적의 관측소가, 신도(薪島)에는 4대의 76밀리포와 2개의 탄약저장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12월 7일 드디어 갈마반도(葛麻半島)에 있는 미 제12해병항공전대의 이동을 보호하도록 명령받은 한국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군의 탑재가 완료되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해병대 요원들은 12월 15일 비행기로 철수하였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서 몰려든 피난민을 7일 05시부터 야간까지 수송선 레인 빅토리(Lane Victory)호에 승선시켰는데 그 수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7,009명이었다.

9일 세인트 파울(Saint Paul)함과 구축함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철수부대는 원산만을 빠져나갔고, 이 원산철수를 통해 병력 3,834명과 피난민 7,009명 그리고 차량 1,146 및 화물 10,013톤이 부산으로 수송되었다.[20]

한편 알몬드 소장의 명령에 따라 제10군단 예하의 각 부대가 함흥~흥남지역으로 집결하고 있을 때 한국전선에서의 급변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 고위지휘관들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다.

12월 6일에 태평양함대의 해병대사령관인 쉐퍼드(Shephard) 중장이 진주만에서 달려왔으며, 미 육군참모총장 콜린스(Collins) 대장도 워싱턴에서 도착하였다. 12월 7일, 맥아더 원수는 동경에서 회의를 열고 유엔군을 부산으로 후퇴시키기 이전에 서울을 사수하는 문제와 미 제10군단을 남으로 이동시켜 미 제8군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회의에 해군에서는 극동해군사령관 조이(Joy) 중장과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 중장 등이 참석하였다.[21]

3) 흥남철수작전

(1) 단계별 철수작전

12월 8일, 제90기동부대의 기함인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 함상에서 주요 해상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조이(Joy) 중장(극동해군사령관), 쉐퍼드(Shephard) 중장(태평양함대 해병대사령관), 스트러블(Struble) 중장(제7함대사령관), 도일(Doyle) 소장(제90기동부대장), 히긴스(Higgins) 소장(제95.2봉쇄·수송·소해 전단장)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 회의에서 흥남~함흥의 교두보를 사수하는 문제와 해상으로 철수하는 문제 등 2가지 안이 토의되었으나 다음 날인 9일 맥아더 원수의 해상철수안이 미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얻어 발표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단일화되었다.[22]

그런데 제90기동부대에서는 이미 1주일 전부터 철수에 대비하여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흥남항만 내의 가용한 해역을 확장시키고, 함포사격 시 함정들의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소해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아울러 교두보의 방어와 철수에 대한 작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었다.

유엔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항만으로서 흥남을 선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곳은 미 제10군단 사령부가 있는 함흥에서 4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항공통제소 임무를 수행한 미 해병항공전투단이 위치한 연포(連浦)비행장에서도 거의 같은 거리에 있었다.

또한 원산에서 이천(利川) 북쪽에 걸쳐 전개해 있었던 미 제10군단 예하부대의 집결과 탑재 시의 전술적 고려 차원에서도 가장 유리한 지점이었으며, 항만여건 면에서도 동해안에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항만이 다소 협소하기는 하였으나 간만의 차도 1피트를 넘지 않았으므로 항구로서의 여건 역시 양호한 편이었다. 선착장소도 도크에 7척을 계류(繫留)할 수 있었으며, 만일 2척을 겹쳐 계류할 경우에는 4척을 더 추가할 수 있었고, 해변에는 LST가 접안할 수 있었다.

<표 7-2> 흥남철수작전 기동함대 편성

부 대 명	지 휘 관
Task Force 90 Task Element 90.00(기함) AGC 1척 Task Element 90.01(전술항공통제) Tacron 1척 Task Element 90.02(수리 및 구조) ARG 1척, ARL 1척, ARS 2척, ATF 1척 Task Element 90.03(통제) APD 2척, PCEC 1척	소장 J. H. Doyle 대령 C. A. Printup 중령 R. W. Arndt 중령 L. C. Conwell 소령 C. E. Allmon
Task Group 90.2(수송전단) Task Element 90.21(수송전대) APA 1척, AKA 3척, APD 2척, PCEC 1척, LSD 3척(9 LCU 탑재), LST 11척, Scajap LST 27척, 기타 MSTS 소속 함정	대령 S. G. Kelly 대령 A. E. Jarrell
Task Group 90.8(함포지원전단) CA 1척, DD 3척, LSMR 3척, 기동전단 95.2에서 배속된 CA 1척, DD 1척 Task Group 95.2(봉쇄, 수송, 소해전단) CA 1척, DD 4척, PF 6척, 기동전단 95.6에서 배속된 DMS, AM, AMS 각 1척	소장 R. H. Hillenkoetter 소장 J. M. Higgins
7함대 Task Force 77(고속항공모함 부대) Task Group 77.1(지원전단) BB 1척, CL 1척, CLAA 1척 Task Group 77.2(경계진전단) 구축함 17~22척 Task Group 77.3(항공모함전단) CV 3~4척	중장 A. D. Struble 소장 E. C. Ewen 대령 I. T. Duke 대령 J. R. Clark 소장 E. C. Ewen
Task Group 96.8(호위항공모함전단) CVE 1~2척, CVL 1척, 구축함 3~8척	소장 R. W. Ruble
Task Group 79.2(군수지원전단)	대령 B. L. Austin

흥남에서의 철수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90기동부대장 도일(Doyle) 소장에게 부여된 임무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유엔군의 철수를 위한 해상수송계획의 수립과 실행
② 철수지역에 대한 모든 공중 또는 해상에서의 화력지원 통제
③ 양륙항(揚陸港)까지의 함정 호송
④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군을 위한 해상봉쇄와 함포지원
⑤ 철수작전 도중에 국군 등을 위한 소규모 상륙작전 수행
⑥ 흥남과 그 밖의 지정된 이동지역에서의 지원과 협조
⑦ 철수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 제10군단장 및 그 밖의 지휘관과 협조

해상철수가 결정이 되자 도일(Doyle) 소장은 모든 노력을 이 작전의 수행에 집중하였다.[23] 우선 유류와 탄약의 해상저장고가 설치되었으며, 구명대(求命袋)와 기타 상륙용 장비도 대량으로 준비되었고, 상륙용 선박의 집결이 진행되었다. 서해안에서 철수작전을 지휘하던 태크레이(Thackrey) 소장에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공격수송함(APA)과 공격화물선(AKA)을 1척의 LSD와 더불어 흥남으로 회항시키도록 하였다. 극동해군사령관 조이(Joy) 중장에게는 별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매일 10척의 화물선을 흥남에 대기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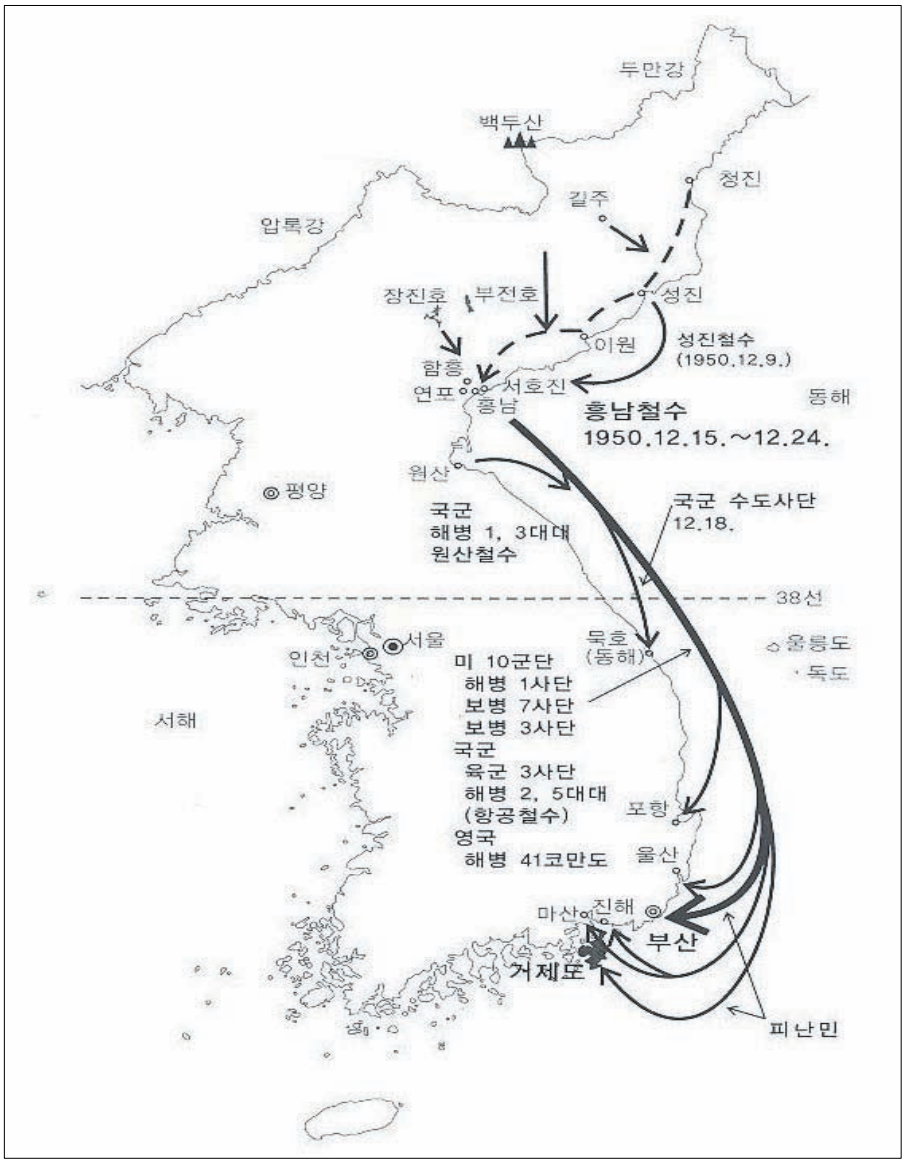
또한 원산과 성진에서의 철수부대의 계획도 수정되었는데, 자렐(Jarrell) 대령이 지휘하는 원산과 성진으로부터 철수부대는 당초에 부산으로 직행하도록 명령을 받았었으나, 12월 9일 계획을 변경하여 해병대의 해안부대 등을 흥남으로 수송토록 지시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성진에서 철수하여 남하하던 한국군 병력 일부를 흥남에 내리도록 해서 교두보 구축에 참가시켰던 것이다.

성진~원산에 이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동해안에서의 철수는 준비되었다. 국군 및 미 육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 각종 상선대 등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철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12월 10일에는 행정 및 관리상의 모든 준비가 거의 완료되었다.

12월 11일 알몬드 소장이 명령한 미 제10군단『작전명령 10-50』에 의하면 흥남

에서의 철수는 ① 미 제1해병사단, 미 육군 제7사단 31연대전투단 임시대대, 영국 해병 41코만도 ② 국군 제1군단 ③ 미 제7사단 ④ 미 제3사단의 순서로 계획되어 있었다.[24]

<상황도 7-1> 흥남철수작전 일정과 철수 방향



미 제1해병사단은 유담리(柳潭里)로부터 중공군의 포위망을 돌파하고, 11일 13시에 사단의 전 병력이 진흥리(眞興里)를 통과하였으며, 그날 21시에는 전차대대를 제외한 총원이 함흥~흥남 간의 집결지에 도착하였다. 전차대대도 23시 30분에 LST 승선지역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이들의 수송을 담당한 제90.2기동전단(S. G. Kelly 대령)도 때를 같이 하여 도착하였다. 켈리 대령은 서해안에서 철수작전을 수행하다가 흥남으로 직행하라는 명령을 받고, 11일에 도착하여 미 해병사단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12월 11일 미 해병대의 승선이 시작되었는데 다음날인 12일, 사단장 스미스 소장이 현지를 시찰하기 위하여 왔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13일에 제5연대 및 제7연대가 승선을 완료했고, 이날 스미스 사단장은 진흥리(眞興里)에서 온 마지막 유체(遺體)를 흥남에 매장하고 간소한 장례를 치른 다음 15시에 베이필드(Bayfield)함에 승함하여 함상에 사단 지휘통제실(C. P)를 설치하였다.

사단은 14일 승선을 완료하고, 15일 10시 30분에 흥남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항해했다. 175년에 걸친 미 해병대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전투의 막이 내려진 것이다.

이때 승선한 사단의 총 병력은 22,215명으로써, 동원된 선박은 APA 1척, AKA 1척, 수송선(APO) 3척, LST 13척, LSD 3척 그리고 Scajap의 LST 7척이었다.[25] 부산에 상륙을 마친 미 제1해병사단은 다시 마산으로 이동하여 부대를 재정비하게 되었다.

동해안 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38도선 남방 40마일 지점에 있는 삼척지역에 국군 제1군단의 투입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25,000명의 병력이 승선할 수 있고, 700대의 차량이 탑재할 수 있는 선박이 배정되었다. 15일에서 18일에 걸쳐 제95.6소해기동전단(R. T. Spofford 대령)은 삼척해안의 소해작업을 실시하였다.[26] 한편 제90.21수송기동전대의 사령관 자렐(A. E. Jarrell) 대령은 헨리코(Henrico)함 등 2척의 APA와 3척의 AKA 그리고 Scajap의 LST 2척을 거느리고 부산에서 출항하였다.

12월 17일 오후, 자렐(A. E. Jarrell) 대령이 지휘하는 수송부대는 국군 제1군단의 탑재를 완료하고 흥남을 출발하여 18일에 삼척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12월 17일 기상이 악화되어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고, 서풍이 40노트로 강하게 불어 4척의 LCM이 바람에 밀려 기뢰원[27]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시부터 자정까지 소주정의 운행은 중지되었다. 또한 좁은 항구에 다수의 선박들이 주야로 출입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가중되었다.

이러는 상황하에서 3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다. 12월 10일 저녁 늦게 도착한 MSTS 소속 엔디 빅토리(Enid Victory)호는 동쪽으로 너무 접근하여 좌초되었다. 다음날 오후 ARL 아카리(Akari), 예인함인 타와코니(Tawakoni)함 그리고 항만예인정 2척이 구조작업을 실시하였고, 좌초된 선박은 부산으로 항해했다.

또한 5만 포대의 밀가루를 적재한 일본 국적 용선인 센잔 마루(Senzan Maru)호가 이른 아침 어둠 속에서 수로를 통과하다가 기뢰에 접촉되었다. 피해가 심각하여 함수가 8피트 정도 가라앉았으며, 2피트 정도의 건현[28]만이 물 위에 남아 있었다. 아카리호의 잠수부들이 손상 정도를 조사하였고, 구조전문요원들이 구조방안을 강구하였다. 밀가루 포대들을 센잔 마루호의 전부 창고에서 꺼냈고, 나머지 화물들도 옮겼으며, 빈 드럼통을 이용하여 전부 창고에 채워 부력을 유지시켰다. 10일간의 구조작업을 실시한 후에 센잔 마루호는 수리차 모항까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사고는 한국 해군 LST에서 발생했다. 프로펠러 추진축에 마닐라 로프가 걸려 해변에서 이안[29]할 수 없게 되었다. 구조함 컨저버(Conserver)함 요원들이 얽힌 줄을 풀고, 출항을 시도하였으나 이번에는 양쪽 추진축에 이상이 있었다. 더욱이 LST는 엔진과 자이로 등이 고장이 났고, 좌현 추진축이 1 1/8인치 와이어에 감겼으며, 우현 추진축은 다수의 8인치 마닐라 로프에 감겼다. 7,400여 명의 피난민이 승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식량의 부족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컨저버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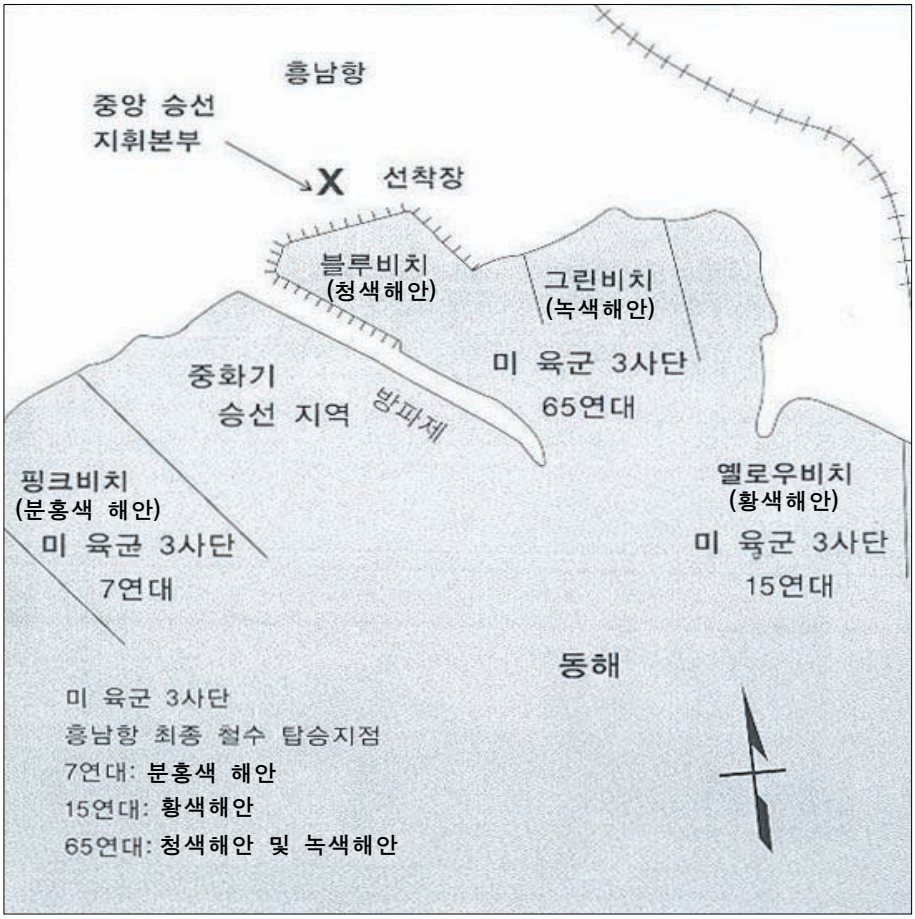
잠수사들은 좌현 추진축에 얽힌 로프를 제거하였다. 아스카리호는 26,000갤런의 식수를 공급했으며, 다른 선박으로부터 1,500명분의 빵과 다량의 식량을 조달받았다. 또한 해안의 육군부대로부터 8톤의 식량을 제공받았다. 12월 19일 이 함정은 디아첸코(Diachenko)함과 다른 한국 LST에 의하여 삼척항으로 예인되었다.[30]

미 제7사단(사단장 D. G. Barr 소장) 병력의 탑재도 국군의 철수와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었으며, 국군의 마지막 부대가 흥남을 뒤로 하였을 때까지 겨우 반 정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20일에는 전 사단의 승선이 완료되었다. 21일에는 드디어 알몬드 소장이 그의 참모들과 함께 제90기동부대의 기함인 마운트 맥킨리(Mount Mckinley)함에 승선하였다. 이제 흥남지역 방어의 책임은 도일(Doyle) 소장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소울(R. H. Soule) 소장이 지휘하는 미 제3사단은 독자적으로 해안방어를 하면서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 제3사단의 승선을 위하여 7개소의 탑재장소가 준비되었고, 좌로부터 분홍색 해안, 청색해안, 제1녹색해안, 제2녹색해안, 제1황색해안, 제2황색해안, 제3황색해안으로 명명되었다. 좌익을 담당하였던 제7연대 전투단은 분홍색 해안에서 탑재토록 계획되었으며, 중앙의 제65연대전투단은 청색해안과 제1녹색해안을 할당받았고, 제15연대전투단에게는 제2녹색해안과 세 곳의 황색해안이 지정되었다.

작전개시시간(H-hour)은 24일 11시로 예정되었는데 이날 08시에 이들을 수송할 7척의 LST가 도착하자 각 연대도 곧 지정된 해안에 도착하기 시작하였다. 각 부대의 탑재는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 14시 36분에 마침내 모든 탑재는 완료되었다.

<상황도 7-2> 미 육군 제3사단 흥남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은 함대기동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예였다. 기간은 짧았고 각종부대가 참가하여 협동작전의 수행을 극도로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 작전의 특이성은 그것이 상륙작전을 역순으로 실시한 데 있다. 이와 유사한 작전은 전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항공모함의 전투기나 해상 함정의 화력지원은 지상군의 사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해상수송작전이 끝난 뒤의 최종집계에 의하면 유엔군은 이 작전을 통해 미군과 국군의 병력 105,000여 명과 피난민 91,000여 명, 그리고 차량 17,500대, 화물

350,000톤(연료 29,500드럼, 탄약 9,000톤 포함)을 6척의 APA, 6척의 AKA, 12척의 TAP, 76척의 Scajap 수송선, 81척의 LST, 11척의 LSD를 이용하여 후방지역으로 안전하게 수송하였다.[31] 이 밖에도 공군수송기 112대에 의해 병력 3,600명, 차량 196대, 화물 1,300톤, 그리고 피난민 약간 명이 공수되었다.[32]

⑵ 항공지원작전

해상철수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흥남지역의 항공세력은 강화되었다. 즉 흥남 지역의 항공세력은 해상철수의 진행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욱 증가하였다. 12월 1일 3개 전투기대대가 원산에서 연포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4일에는 코르세이어기 1개 대대가 경항공모함인 바탄(CVL, Bataan)호에 탑재하기 위하여 이타미(Itami)기지로 날아갔다.

12월 5일 프린스톤(Prinston)호는 제19항공전대를 탑재하고 합류하였고, 다음날 시실리(Sicily)호는 제214해병전투기대대의 인원과 장비를 탑재하고, 항공기도 탑재하였다. 12월 10일 연포 비행장에는 해병전투기 1개 대대가 증강되어 13일까지 작전을 수행한 후 부산으로 이동하였다.[33]

12월 11일 해군은 흥남 주변에 공중방패(aerial canopy)와 철의 장막(steel curtain)을 설정할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즉 이 계획은 7척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하는 함재기로 완벽한 공중엄호를 제공하고, 13척의 전투함에서 제공되는 함포사격으로 철의 장막을 형성하여 지상군을 방호한다는 것이었다.[34]

이번 작전에 있어서 항공지원의 임무를 맡은 어윈(E. C. Ewen) 소장의 제77기동부대는 본래 2척이었던 예하 항공모함이 4척으로 증강되었다. 즉 11월 초부터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과 레이테(Leyte)함이 동해에서 지상군에 대한 항공지원을 수행하여 왔는데, 새로이 미 본토로부터 밸리 포지(Valley Forge)함이 제2항공대대를 탑재하고 긴급소환되어 왔으며, 프린스톤(Prinston)함도 제19항공전대를 탑재하고 합류하였다.

12월 12일에 이르러 제7함대의 작전계획에 따라 제77기동부대의 고속항공모함들은 주간에는 우군을 엄호하기 위하여 근접항공지원과 공중방어에 집중하였으며,

교두보 외곽지대에 대한 원거리출격 및 교통로 차단작전 그리고 흥남에 출입하는 함선의 엄호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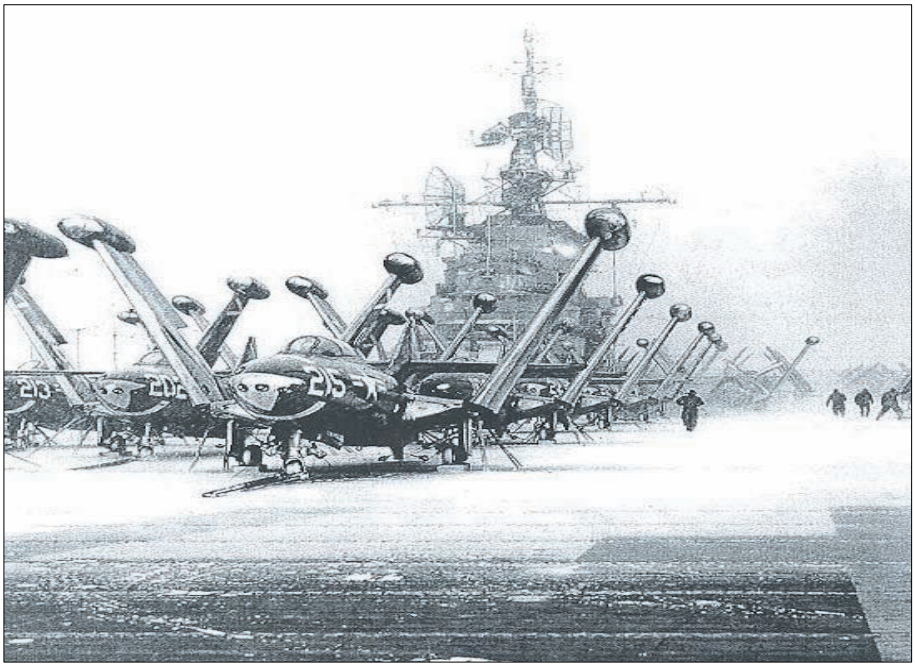
한편 제96.8호송항공모함전단(R. W. Ruble 소장)은 본래의 예하함정인 시실리(Sicily)함과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함에 추가하여 바탄(Bataan)함이 배치되어 지상군과 흥남해역의 호송선단에 대한 항공지원을 수행하게 되었다.

12월 15일 도일(Doyle) 소장은 흥남 주변의 반경 35마일 안의 모든 항공지원작전을 총괄하여 지휘하게 되었다. 이는 제77기동부대와 제96.8기동전단의 모든 항공작전을 포함하는 것이었다.[35]

탑재가 시작된 12월 중순경 항공공격은 장진호 부근 도로상에 있는 적 병력과 성진지역에 버려진 장비와 부전호 근방의 표적에 대해 실시되었다. 하갈우리(下碣隅里)로 가는 좁은 철도 터널은 11인치 로켓탄에 명중되었으며, 서쪽으로 비행 중인 무장정찰 전투기는 원산~평양 간의 도로를 넘어 이동하는 적군에 공습을 실시하였다.

10일 후(12월 24일)로 예정된 마지막 철수가 임박해지자, 전선은 흥남시 주변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비록 무장과 야포가 부족하였지만, 많은 수의 적 병력이 흥남시 교외에 도착하였다. 항공세력의 3분의 1은 흥남 북쪽에서 운용되었지만 대부분의 세력은 35마일 반경 내에서 활용되었다. 흥남으로 접근하는 도로상에서 이동하는 병력을 발견 즉시 공격하였으며, 비행 중에 발견된 기름통과 로켓탄 집적소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 그리고 함흥에 있는 적 지휘소와 흥남 서쪽 끝단의 건물들도 파괴하였다.[36]

15일부터 최종철수일인 24일까지 총 1,700회의 출격이 흥남 교두보의 안팎에서 실시되었다.[37]



항공작전 중인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

<표 7-3> 흥남철수작전시 항공기 운용

1. 유엔군 보유 총 비행대대 수

일 자	연포비행장			함 재 기			계
	F9F	F4U	F7FN	F9F	F4U	AD	
12. 1	0	3	2	3	5	2	15
12. 10	1	1	2	4	9	3	20
12. 16	0	0	0	4	10	3	17
12. 23	0	0	0	4	14	4	22

2. 보유 항공기 수(CV 80, CVL 30, CVE 24, VMF 24, VMFN 12)

일 자	해안기지	항공모함	계
12. 1	96	184	230
12. 10	72	288	360
12. 16	•	318	318
12. 23	•	398	398

⑶ 함포사격 지원작전

함포지원의 책임은 제90.8함포지원전단 힐렌코에터(R. H. Hillenkoetter) 소장이 맡고 있었으며, 그의 함대는 새로이 히긴스(Higgins) 소장의 제95.2봉쇄·수송·소해전단으로부터 기함인 중순양함 로체스터(Rochester)함과 2척의 구축함의 증원을 받게 되었고, 그 세력은 다음과 같았다.

<표 7-4> 함포사격 지원작전 참가함정

함정종류	함 정 명
전함	1척, Missouri함
중순양함	2척, Saint Paul함, Rochester함
구축함	7척, Forest Royal함, Hank함, Massey함, Norris함, Borie함, English함, Lind함
로켓 포함 (LSMR)	3척, 401함, 402함, 403함

또한 제95.2봉쇄·수송·소해전단 히긴스 소장과 제95.6소해전단 스퍼포스 대령은 해안선의 봉쇄와 수송선단의 호송 그리고 기뢰소해 등 여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함흥 북쪽 해상봉쇄구역에 2척의 구축함을 배치하는 것과, 원산의 소해완료 수로 밖에 1척의 대형경비함(Frigate)으로 순찰을 하는 것 그리고 함정 3척으로 흥남의 항구 안팎을 출입하는 함선을 통제하는 것 등이 중요한 임무였다.

12월 15일 야간에 세인트 파울(Saint Paul)함은 8인치 포를 이용하여 내륙 10마일에 걸쳐 원거리지원사격을 실시하였으며, 철수작전의 진행에 따라 교두보가 축소되자 함포지원함들은 보다 유리한 사격목표를 찾아 해안에 접근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17일에는 로체스터(Rochester)함 그리고 21일에는 3척의 로켓 포함이 각기 함포사격을 실시하였으며, 23일에는 전함 미조리(Missouri)함이 처음으로 흥남 밖의 오리(五里)마을 근방에 16인치 주포와 5인치 포로 집중적인 화력지원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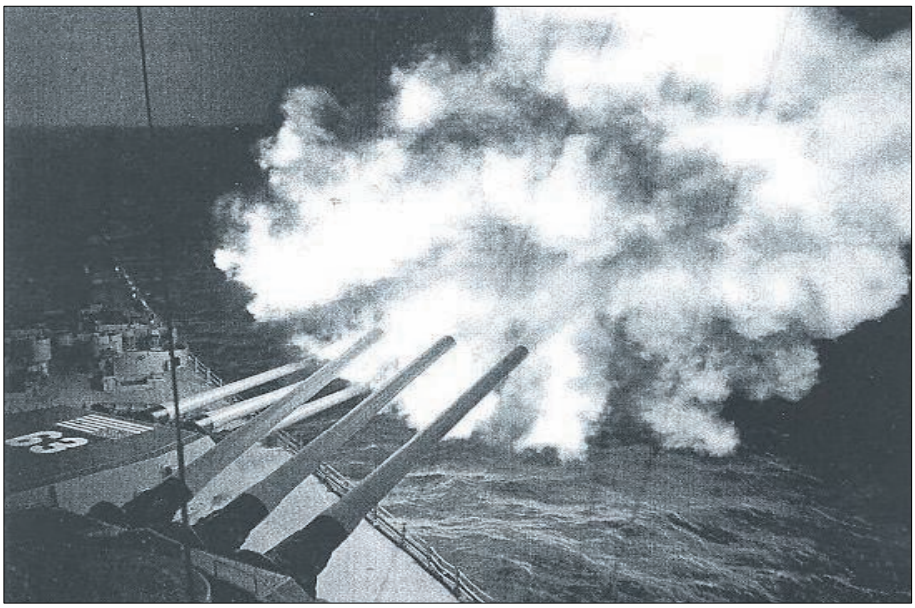
12월 23일 알몬드 장군의 요청에 의하여 미조리함은 오도리와 흥남 사이의 도로를 목표로 주포를 발사하였다. 아군 정찰기가 그곳에서 많은 중공군들이 도망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 철수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항구를 중심으로 한 폭 2,500야드, 깊이 3,000야드에 걸친 지역에 함포사격을 집중하였다.[38]

함포사격 결과 12월 7일부터 24일까지 제90기동부대가 소모한 탄약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39]

<표 7-5> 함포사격 탄약소모량

구 경	소모량	구 경	소모량	구 경	소모량
16인치	162발	8인치	2,932발	5인치	18,637발
3인치	71발	40밀리	185발	로켓포탄	1,462발

이 수량은 인천상륙작전에서 소모한 탄약량과 비교할 때, 8인치 포탄은 800발을 5인치 포함은 12,800발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함포사격 중인 미조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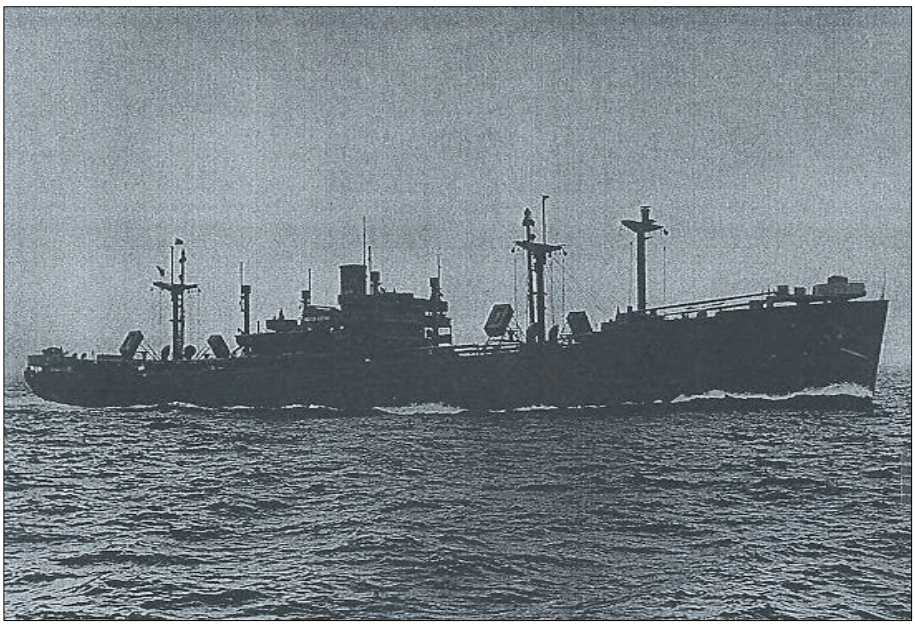
(4) 피난민 수송작전

유엔군 해군은 한국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해 새로운 작전계획[40]을 수립해야만 하였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자유를 찾아 밀려오는 수많은 피난민들로 유엔군 작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공군 침입과 함께 유엔군이 후퇴하므로 수많은 피난민들이 다시 몰려들게 된 것이다.

장진호 고원지대에 있는 마을의 집들을 중공군에게 빼앗긴 주민들은 흥남으로 피난을 갔다. 미 해병사단이 하갈우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수천 명의 주민들이 뒤를 따랐다.[41]

피난민 수송에 있어서 당초 미군 측에서는 피난민 수를 25,000명 정도로 추산했었으나 함경남북도의 거의 전 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밀려드는 군중으로 말미암아 50,000명 선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100,000명을 육박하게 되었다.

피난민들의 승선은 12월 19일에 시작되었다.[42] LST 1척에 5,000명 이상이 승선을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10,500명까지 탑재하는 등 상상할 수 없이 인산인해를



항해 중인 메러디스 빅토리호

이루었다. 약 14,000명은 용선인 빅토리(Meredith Victory)[43]호에 의해 수송되었다.



메러디스 빅토리 호를 승선하고 있는 피난민(사진촬영 : 거제도 흥남철수작전기념비)

12월 23일 잠정적으로 함선의 여유가 있었으므로 포니 대령은 3척의 상선과 2척의 LST를 보내어 5만 명의 한국 피난민을 추가로 탑재하였다. 부모의 팔에 안기거나 짐 속에 있는 어린이를 제외하고도 91,000여 명의 피난민이 철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44]

이렇게 엄청난 수의 피난민 후송 문제는 수송선의 부족으로 한때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으나 한국정부의 강력한 요청과 미군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부분의 피난민을 수송할 수 있었다.



흥남항에서 철수를 기다리는 피난민들

⑸ 흥남부두 폭파작전

흥남철수작전 최종 철수시간은 1950년 12월 24일 11시였다. 계속되는 폭설 및 강풍과는 달리 이날은 맑게 개었으며 해상도 잔잔하였다. 미 육군 제3사단은 11시부터 제90.2수송전단 지원하에 예정대로 7개의 지점에서 7대의 상륙장갑차(LVT)와 동시 탑재를 시작하여 14시까지 탑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탑재가 완료되기 이전 흥남항의 핑크비치에 있던 탄약이 적재된 장소에서 폭발사고로 미 해병 중위 1명과 해군 사병 1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든 병사들이 철수를 완료하였지만, 보급품을 탑재할 선박이 부족하여 흥남항에는 400여 톤의 다이너마이트와 227여 톤의 폭탄, 200여 드럼의 휘발유가 남아 있었는데, 끝내 적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흥남항 폭파준비를 하고 있는 미 수중폭파팀(UDT)

미 육군 제3사단 병력들이 해안을 떠나자 제90기동부대의 도일 제독은 미 해군 수중폭파팀(UDT)과 미 10공병대대에게 제90.03통제단 소속의 베고(USS Begor) 함의 지원을 받아 흥남부두의 모든 시설과 해안에 내버려졌던 탄약을 적군이 사용할 수 없도록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병력과 장비 그리고 피난민이 흥남항을 떠나자 24일 흥남부두는 수백 톤에 달하는 폭약으로 폭파되어 화염이 치솟았으며, 부두는 파괴되었다.

당시의 광경을 미 육군 중위 페렌바크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수많은 반공주의자와 목숨을 내건 북한 주민들이 미군과 함께 배에 탔다. 그러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약품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배 안에서 죽어 갔다. 전투부대의 전초선은 날마다 얼음이 깔린 해안 선쪽으로 좁아졌다. 마지막에는 선창가에서 주위의 고지에 사격이 가해지는 동안에

병사들은 배에 승선했다. 흥남은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고, 항구의 도크는 파괴되어 버렸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흥남 해안선은 불바다 그대로였다."[45]

흥남항에 남아있던 모든 장비와 탄약, 보급품을 모두 폭파하고 마운트 맥킨리함에 승선해 있던 미 육군 10군단장 알몬드 소장과 미 해군 제90기동부대장 도일 제독 일행이 16시 32분 흥남항을 떠남으로써 흥남철수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1950년 12월 24일 흥남항 폭파 장면

3. 진남포 및 인천철수작전

1) 작전 이전의 개황

1950년 11월 초순 아군이 압록강을 목전에 두고 빠르게 북진을 계속하고 있을 무렵에 한가닥의 어렴풋한 두려움이 극동해역의 미 해군 고급 장성들의 심중을 괴롭히고 있었다. 중공군의 출현을 알리는 산발적인 보고라던가 후퇴를 계속하는 적이 집요한 저항을 시도하지 않은 점이었다. 그리고 서부전선의 미 제8군과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 사이의 단절된 전선 및 중공 북경방송의 호전적인 선전 등은 앞으로 닥쳐올 불길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조이 중장의 미 극동함대사령부에서는 한국전선에 중공군이 나타났을 무렵부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총체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이 전쟁지도의 방향을 기존의 공세전략에서 방어전략으로 변경하겠다고 미 합참에 보고하기 전부터 해군은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위급한 상황의 전개 가능성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조이 제독의 극동해군사령부는 중공군이 처음 출현하였을 때 이미 우려를 표명하였고, 서둘러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으로부터 유엔군의 긴급철수 절차를 명시한 『작전계획 116-50』을 11월 13일에 관련부대에 배포하였다.

작전지시를 수령한 제90기동부대장과 그의 참모들은 상륙군 세력의 절반을 태크레이 제독 지휘하에 있는 서해안 지역에, 나머지 절반은 원산, 흥남지역에 배치하는 등의 예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날 작전명령이 시달되어 모든 함정은 대공경계에 돌입하였으며, 제90기동부대는 6시간 출동태세에 들어갔다.

한편, 육상에서는 11월 29일과 30일의 양일에 걸쳐 미 제8군이 청천강을 건너 계속 남으로 철수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한반도의 중부나 동부에서와는 달리 별다른 적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 제2사단은 순천 북쪽 5마일에 걸친 적의 도로봉쇄와 공격으로 험난한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도로 인근에 위치한 언덕에서 적의 공격을 받고 사단 병력의 약 40%와 대부분의 야포 및 장비를 손실

하였다.[46]

적의 공격이 대단했지만 이 정도의 손실만을 받고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은 것은 고속항모전대 함재기와 제5공군의 전면적인 근접항공지원을 받은 결과였다. 12월에 들어서자 제2사단의 나머지 부대들도 순천에 도착하였으며, 미 제8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평양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11월 30일 지상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가운데 도일 제독은 모든 함정을 두 시간 출동태세하에 있도록 하였고, 그의 함정들이 한국해역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수송 함정들은 반반씩 나누어 4척의 APA와 2척의 AKA는 인천으로, 비슷한 규모의 함정들은 원산으로 출동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해안 항구 내의 대형 선박 수용상의 문제점과 미 제8군의 치명적인 상황 때문에 다른 상륙 함정의 3분의 2를 태크레이 제독의 제90.1기동전대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태크레이 제독은 29일 항만작전을 점검하고 건의하기 위해 워커 장군과 함께 인천으로 비행하였다. 다음날인 30일에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2명의 참모를 직접 진남포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나서 APA 벡사(Bexar)함과 LSD 카타마운트(Catamount)함 그리고 2척의 LST를 그의 지휘하에 추가시켰다.

12월 1일 태크레이 제독은 도일 제독과 장차 작전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흥남에 있는 마운트 맥킨리함으로 이동하였고, 그의 기함 엘도라도(Eldorado)함과 2척의 LSD 그리고 고속수송함 바스(Bass)함에게 10척의 일본 선박통제국 소속 LST와 함께 서해안으로 향하도록 명령하였다.[47]

다음날인 12월 2일 10대의 항공기가 출격하였으나 이 출격이 서부전선에서는 마지막 출격이 되었다. 서부전선에서는 이미 미 제8군은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진남포로 밀리게 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평양-원산을 잇는 중앙전선을 유지한다는 기대는 할 수 없었다.

12월 3일 마침내 미 제5공군은 남한과 일본으로 이동하는 첫 단계의 작업을 완료하였고, 미 제8군의 워커 중장의 지휘소도 평양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다. 그 밖의 후방지원 부대들도 남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철수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은 드디어 평양으로 진입해 왔으나 미 제8군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남진하였기

때문에 진남포를 순식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진남포항의 철수는 시급하게 되었다.[48]

2) 참가부대 및 주요 지휘관

진남포 및 인천철수작전의 주요지휘관은 극동해군사령관인 조이(Joy) 중장 예하의 태크레이(Thackrey) 소장이었으며, 주요 세력은 앤드류(Andrews) 영국 소장이 지휘하는 영국연방 세력들이었다.

구 분	지 휘 관
극동해군사령관	중장 C. T. Joy
제90기동부대장	소장 J. H. Doyle
제90.1기동전단장	소장 L. A. Thackrey
제1수송부대전단장	대령 S. G. Kelly
제95기동부대장	소장 A. E. Smith
제95.1기동전단장	영) 소장 Sir. W. G. Andrews
제95.12기동부대전대장	캐) 대령 J. V. Brock

3) 작전 경과

상륙함정들이 한국해역으로 이동하던 중에 APA 베이필드(Bayfield)함에 승선한 미 해군의 제1수송부대 전단장 켈리(S. G. Kelly) 대령은 제90.1기동전단에 소속되어 인천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출항하였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APA 베이필드, 벡사(Bexar) 및 오카노간(Okanogan)함과 AKA 알골(Algol) 및 몽타그(Montague)함은 일본 항구에서 각각 출항하였다. 12월 3일 오후 서해로 항해하는 중에 켈리 대령은 극동해군사령관이 제90.1기동전단장 태크레이 소장에게 보내는 전문을 수신

하였다. 미 제8군의 긴급요청에 따라 이 수송함들을 진남포로 파견할 것과 많은 부대를 보호하고 탑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전문이었다. 그러나 태크레이 제독은 아직 한국 내에 있었고, 그의 기함은 해상에 있었으므로 참모들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이필드함이 북쪽으로 항해하는 5시간 동안 별다른 지시가 없었고, 극동해군사령관의 전문지시 내용을 알고 있는 켈리 대령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22시경 켈리 대령은 더 이상 별도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진남포로 항해할 것을 결심하고 산재된 함정들에게 다음날 아침 진남포항의 소해된 항로 외해에 집결하라고 명령하였다.

12월 4일 03시 30분 켈리 대령은 미 제95기동부대장 스미스(A. E. Smith) 소장으로부터 태크레이 소장에게 보내는 전문을 접수하였다. 거기에는 케유가(Cayuga)함에 승선한 캐나다 해군의 블록(Jeffrey. V. Brock, 제95.12 기동부대전대장) 대령이 지휘하는 6척의 연안 구축함이 수송부대를 호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실론(Ceylon)함 역시 일본의 사세보항을 출항하여 서해로 항해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켈리 대령이 모르는 더 많은 지원세력이 항해 중에 있었다. 즉 홍콩으로부터 사세보항에 긴급히 돌아온 앤드류(Andrew) 소장은 기함인 테세우스(Theseus)함과 4척의 구축함을 거느리고 서해로 출항을 준비 중에 있었다.

진남포에는 이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호송구축함 포스(Foss)함(함장 소령 H. J. Ereckson)과 3척의 모터보트를 보유한 한국 해군기지사령부가 이미 편성되어 있었다.

12월 4일 02시 36분 에릭슨 소령은 진남포의 상황이 불안정하나 가능한 한 전원을 공급할 것이며, 미 제8군 요원들이 철수하면 현장 선임장교로서 호송단을 형성하여 함정들을 지휘하여 철수하겠다고 켈리 대령에게 보고하였다. 잠시 후 한국 해군기지사령관은 현재 100척의 범선과 5만 명의 피난민이 있으므로 3만 명은 해상으로 탈출시키고 나머지는 육로로 철수시키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밤을 새워 항해하고 있던 수송전대가 04시 25분에야 진남포로 향하라는 명령을 최종적으로 받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켈리 대령의 적극적인 조치로 수송전단이 6시간 이상 진남포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09시 30분까지 벡사(Bexar)함을 제외한 모든 함정들이 진남포 외항의 소해완료구역 외곽의 84마일 지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작전 수행상 필요한 정보, 즉 철수부대의 규모와 그 형태, 해안의 전술적 상황, 지상과 항공지원문제, 또 누가 이 작전을 지휘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받았으므로 육군부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믿고 진남포항으로 접근하였다. 정오에 이르러 켈리 대령은 모든 포대에 요원을 배치하고 모든 주정을 내려 즉각 탑재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고 좁은 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였다. 마침내 모든 함정들이 도착하였고, 호송임무를 맡고 있는 제95.12기동전대의 구축함들도 항해 중에 있었다.

함정들이 투묘하고, 주정들은 출항하였다. 구조요청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수송전대는 항해위험을 감수하면서 입항하였다. 진남포지역에는 미 제8군의 군수지원 요원 17,000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자체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송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약 6,000명의 부상병, 공무원, 군사·정치 포로, 경찰, 소년단 등의 한국인이 수송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수송전대에 승선시켰다.

모든 수송함정들은 항내에 도착하여 탑재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무사히 외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항해상의 위험은 없었으나 진남포항은 포위를 당하기 쉬운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언덕 경사면에서 투묘지까지는 박격포 사정권 내에 있었다. 해안에 있는 육군에 의하면 북쪽 전선과는 80마일 가량 떨어져 있으며, 적은 평양을 점령하고 진남포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대동강 입구에서 구축함들은 21시에 출발하였는데, 그 수로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항해 도중에 와라문가(Warramunga)함이 우선 좌초하였다가 얼마 뒤에 다행히도 이탈할 수가 있었고, 시악스(Siaux)함은 부표계류선이

추진기에 감겨서 할 수 없이 되돌아 갔다. 다음날인 12월 5일 02시 40분에 나머지 케유가(Cayuga)함과 아싸바스칸(Athabaskan)함 그리고 바탄(Bataan)함과 포레스트 로얄(Forrest Royal)함이 포 사격을 하면서 진남포 내항에 투묘를 하였다.

구축함이 도착함에 따라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 같이 보였다. 아침까지 탑재가 계속되어, 소주정들이 강을 따라 피난민들을 태우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포스(Foss)함은 전력을 시가지에 계속하여 공급하고 있었다. 한국해군의 해안단 요원들은 부두를 지키는 동시에 소형 주정들로 항내를 순시하였다.

12시 30분에 드디어 탑재를 완료한 선박부터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하였으며, 14시 30분에는 이탈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뒤늦게 도착한 피난민 약 3,000명이 부두에 남아 있게 되었다. 적 중에 무고한 시민을 버려두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하던 순간이었는데 이들의 수송문제는 다행히도 기대하지 않았던 미 해군 MSTS 선박이 나타남으로써 해결되었다.

수로 입구에 대기 중인 실론함은 그대로 외항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받았다. 17시 30분에 수송전단의 마지막 벡사함이 포스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수로 밖으로 항해하였다. 항내에는 항만 군수요원들이 승조한 LST들이 그날 밤 투묘 중에 있었으며, 구축함들은 유류저장소, 크레인, 철로 등을 포격하였다.

마지막 위기상황으로 벡사함이 야간 항해 중 석도 북쪽에서 좌초되었으나 손상이 없이 빠져 나왔다. 아침이 되자 구축함과 LST들이 수로를 따라 항해하여 정오경에는 초도 근해에 도착하였으나 엄청난 폭설로 인해 투묘하였다.[49]

한편 인천에서 진행된 육군의 군수물자 적재는 다음날인 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31일까지 인천으로부터 후방지역으로 수송된 인원과 물자는 총 인원이 32,428명이고, 차량은 1,103대 그리고 화물이 54,741톤이었다.[50]

4. 해군 항공작전

1) 개 요

1950년 11월 초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했을 때, 제77항공모함기동부대는 아주 독특하고 평소임무와는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것은 중공군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전장을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해군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되었다.

① 만주와 북한을 연결하는 압록강의 17개 다리 중에서 6개를 폭파시키는 역할
② 한반도 북동쪽에 대한 무장정찰[51] 수행(동경 127도 동쪽)

위의 역할은 제77항공모함기동부대 소속 항공기들이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2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임무의 시작이었다. 중공군을 고립시키기 위한 이 작전은 항모 소속 항공기, 해안 봉쇄함정과 호송항모, 한국에 있는 미 제5공군 소속 항공기, 해병 제1항공단 항공기 및 한국에 전개하고 있는 다른 부대 항공기들이 상호협조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제공권을 이용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지역과 중국 대륙을 차단하고 해군의 해상봉쇄와 함께 적의 보급로를 파괴[52]하여 그들을 고립시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제77항공모함기동부대가 그 지역에서 150여 대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어떻게 미네소타주와 비슷한 크기의 중공군의 보급로를 차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중공군은 사기가 넘치고 6,000~8,000대의 트럭과 수백 대의 기차를 운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들을 기묘하게 위장하거나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보급품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중공군의 대공포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해군 조종사들이 수행한 임무, 해군이 거둔 성공적인 사례, 그리고 조종사들이 보인 우수성과 함께 항공세력만으로 전투

지역을 고립시키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한 분석은 앞으로도 해군전술과 군사작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53]

2)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 이후 유엔군 측에서 지속적으로 공중정찰을 실시한 결과, 중공군의 증원부대와 보급품들이 압록강상의 철교들을 통하여 꾸준히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런 가운데 압록강 만주 쪽에 있는 대공포들이 유엔군 항공기에 대하여 5회에 걸쳐 대공사격을 했으며, 소련제 MIG-15 항공기가 11월 1일 전쟁개시 이후 최초로 압록강 상공에 출현하여 유엔군 항공기와 교전을 하였다.

압록강 교량을 통해 중공군과 그들의 장비 및 보급품이 유입되는 것이 확인되자, 제77기동부대 항공모함들은 유엔공군과 함께 압록강과 두만강상의 교량을 파괴하고 공산군의 병참선을 단절시켜 적을 고립화시키는 차단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과 그 의도가 명백해짐에 따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국경선 5마일 이내에 대한 항공공격을 금지시킨 이전의 지령을 취소하고 11월 8일을 기해 압록강 교량들에 대한 공격을 허가하였다.[54]

이에 따라 북한의 임시 수도 신의주와 압록강 상 교량들의 북한 쪽 절반에 대한 공격이 자동적으로 허가되었다.[55]

미 제7함대사령관 스트러블 해군 중장은 11월 8일 오전에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중장으로부터 다음의 전보를 접수하였다.

"적이 한국에 있는 중공군에 대한 보급을 위해 압록강과 두만강상에 있는 국제교량들을 활발하게 사용하므로 맥아더 장군은 북한 쪽에 있는 교량을 파괴하는 것이 작전상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주의 중공 영토나 영공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범하지 말아야 한다. 청성진 인근에 있는 두 교량의 공격임무를 부여받았다. 중공군은 신의주 인근에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1950년 11월 8일 항모기동부대에 부여된 압록강 교량을 폭파하라는 임무는

그동안 고속항모기동부대가 해군 고유의 정밀 항공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해군 비행사들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었다.[56] 이제 공군에서도 해군에게 저고도의 정밀조준으로 대형 폭탄을 투하하여 전략형 표적을 파괴해 달라는 지원요청을 하고 있었다. 맥아더 장군이 조이 해군 중장에게 하달한 명령에는 제한요소가 많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압록강 교량 전체를 폭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쪽의 첫 번째 교각과 두 번째 교각 사이를 파괴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압록강 교량의 대부분은 공군의 B-29로는 공격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B-29로 폭격한다면 고공비행으로 인하여 만주의 공산 측 지역을 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고공폭격은 조준을 하기 위해 상당거리의 직선비행이 필요하였으나, 그러는 동안 B-29 항공기는 굴곡이 심한 압록강을 횡단하게 되므로 중공의 만주 영토를 범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동일한 이유로 B-29에 대한 전투기 엄호를 주간에도 제공할 수 없었다. 아울러 B-29에서 투하된 폭탄이 운좋게 압록강의 만주 쪽으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역시 어리석은 일이었다.

해군 조종사들은 만주 상공을 비행하지 말며 압록강의 중공 쪽에 있는 대공포에 발포하거나 폭격하지 말고 공격하는 적 MIG기를 중공 본토 상공까지 추적(추적권 행사)하지 말라는 명령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해군기들은 교량 폭격의 상식적 전술인 교량에 평행한 급강하 폭격 대신 교량을 향해 직각으로 폭격을 해야만 했다. 또한 대공포와 MIG기 공격을 받고도 응사할 수 없는 조건은 심리적으로 임무수행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조이 제독은 모든 비행조종사들에게 보낸 전보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중립적 영토의 지역에서 비행하는 적 항공기의 엄호를 받는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공격에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맥아더 장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해군 항공기에 의한 교량들의 파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중하게 고려했다. 우리는 모두 현재 적의 증원부대와 보급품들이 이러한 교량들을 경유하여 유입되고 있고, 교량이 불능화될 때까지 계속 투입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항공모함 항공기들만이 정밀 항공공격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만주 상공을 침범하거나 만주 영토를 공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한 공격을 한다면 제3차 세계대전의 대재난으로 휘말려들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 해군 조종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업이 부여되었다. 이 과업을 완수하는 동안 하느님이 그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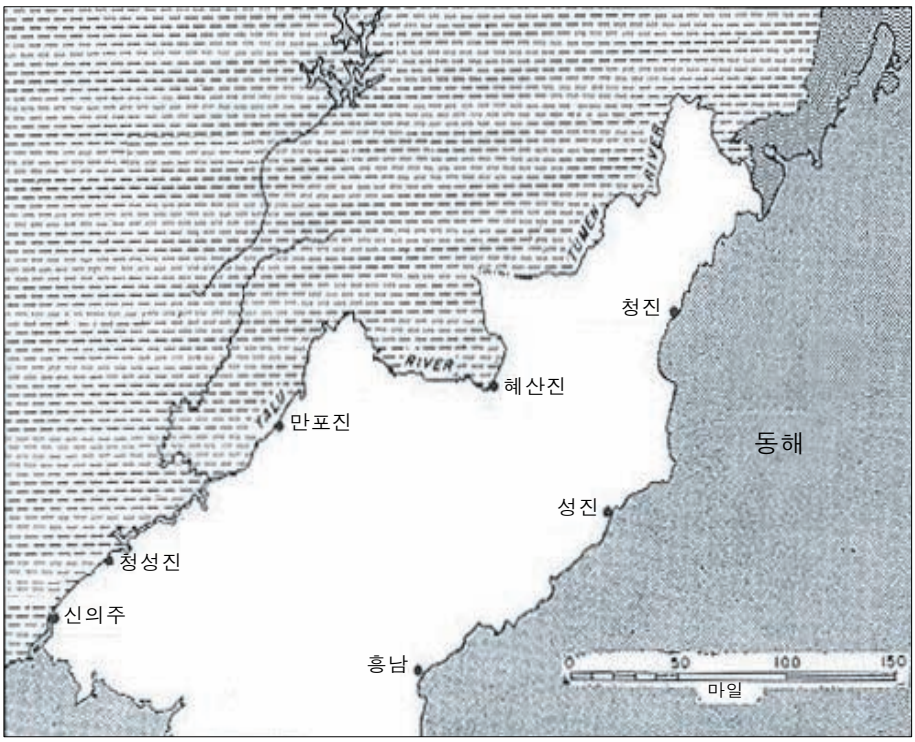
이러한 제반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해군 항공기의 공격은 유효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굴곡이 심한 압록강은 한국과 중공 간 국경의 5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강의 근원은 백두산에서 연유된다. 그 근원에서 압록강은 혜산진 인근으로 30마일(48킬로미터) 흐르고, 그곳에서 숲이 우거진 산악지역의 계곡을 통하여 450마일(720킬로미터)을 흐른 다음 서해로 유입된다.

압록강의 하구는 3,000피트(약 915미터) 이상 넓으며, 평균 저조시의 수심은 12피트(약 3.7미터)이다. 봄, 여름 및 초가을에 1,000톤 이하의 배는 압록강의 신의주와 단둥지역까지 항해할 수 있다. 그러나 동계기간인 11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해수가 유입되는 하구를 제외하고 강 전체가 견고한 빙판으로 변한다.

전쟁 이전에 압록강 양쪽 강변에는 수풍댐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 이외에 목재공장, 제지공장, 제철공장과 기타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압록강 인근의 주요 군사표적은 강을 횡단하는 17개 교량이었으며, 그 중 6개 교량이 주된 교통로였다. 가장 중요한 2개의 교량은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3,098피트(약 944미터) 길이의 철교와 차량용 교량이었다. 차량용 교량은 1910년 미국 교량회사에 의하여 건조된 것으로 석재 교각에 12개의 교폭으로 구성되었다. 이 차량용 교량에서 불과 1,000피트(약 305미터) 북방에 위치한 2차선 철교는 동경 요꼬가와 교량회사와 오사까 열차 제조회사에 의해 건설되었다. 기타 주요 교량들은 만포진, 혜산진, 청성진 및 강구에 위치하고 있었다.



압록강상의 주요 교량의 위치

한국 동해에서 작전하는 항모 항공기가 서해의 신의주에 있는 주요 교량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험한 산악들의 상공을 지나서 225마일을 장거리 비행해야 했으며, 앞으로 닥쳐오는 동계절의 악천후까지도 극복해야 했다. 이러한 표적들이 해군의 표적으로 할당된 것이다.

압록강 교량들의 항공 공격에는 3척의 항공모함이 가용하였다. 즉 벨리 포즈(Valley Forge)함, 필리핀 시(Philippine Sea)함, 레이테(Leyte)함이었다. 1950년 10월 3일 지중해에 있었던 제6함대에서 늦게 도착한 레이테함은 평균속력 22노트로 18,500마일을 항해하여 항공모함의 기동성과 해군력의 신속성을 과시하였다.

교량공격을 위한 항공모함의 강습전대는 스카이레이더(AD Skyraider) 항공기 8대로 편성되는 기본 편대였으며, 각 항공기는 2개의 1,000파운드 폭탄(때때로 2,000파운드 폭탄 한 개를 적재하기도 함)과 20밀리미터 기관포로 무장하였다.

코사르(F4U Corsair) 전폭기는 다양한 무장을 적재했다. 5인치 로켓 8발 또는 100파운드 폭탄 8발(압록강 북한 측 강변에 있는 적 대공포 제압용) 또는 500파운드 폭탄 1개와 5인치 로켓 6발을 적재했다. 각 항공모함의 강습전대는 적게는 항공기 8대, 많게는 16대로 편성되어 출격하였다. 또한 폭격기와 전폭기의 상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팬더(F9F2 Panther) 제트기 8대 내지 16대가 각 강습전대에 제공되었다.

그래서 각 강습전대는 최소한 24대 내지 40대의 항공기로 편성되었다. 제트기는 빠른 속력 때문에 뒤에 별도로 이륙하였다. 제트기는 3개 비행편대로 항공모함을 출발했다. 첫째 편대는 프로펠러 추진 항공기(Props)가 출발한 50분 후에 출격했고, 둘째와 셋째는 각기 15분 간격으로 출격했다. 교량에 접근할 때 첫 번째 제트기 편대들은 프로펠러 항공기들과 같이 진입하고 두 번째 제트기 편대는 목표 상공에서 엄호를 제공하며, 세 번째 제트기 편대는 공격팀이 철수하여 귀함할 때 엄호를 제공하였다.

11월 9일에서 21일까지 해군 항공기들은 압록강 다리 폭파를 위하여 총 593회 출격을 했고, 500파운드, 1,000파운드 및 2,000파운드 폭탄 232톤을 투하했다. 1950년 11월 12일 신의주 교량에 대한 첫 공격에 대하여 밸리 포지호의 제53비행전대장 피트맨(W. R. Pittman) 소령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밸리 포즈함의 공격전대는 16대의 F4U-4B기와 12대의 AD기 및 8대의 F9F 제트기로 편성되었다. 나는 강습지휘관이었고 필리핀 시호의 공격전대의 공격에 이어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이테호의 공습전대는 우리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었다.

우리가 신의주 부근에 접근했을 때, 보이드스턴(H. J. Boydstun) 소령이 인솔하는 F9F 제트기들이 5분 내에 추월하여 우리의 상공에 도착할 것이라고 무선으로 보고했다. 제55비행전대 소속 갤러허(M. R. Gallaher) 대위가 스카이레이더기를 지휘하였다.



파괴된 신의주 다리(2008년 12월 촬영)

우리의 표적은 한국 측에 있는 신의주 다리였다. 기상은 불량하였고, 시정도 좋지 않았다. 상공에는 구름이 동해에서부터 목표지역까지 덮여 있었다. 다행히 신의주 상공은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밸리 포지호의 공습전대가 다른 두 항모의 공습전대보다 먼저 목표에 도착하였다. 나는 표적조정관(target coordinator)으로부터 먼저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트기들은 우리보다 훨씬 전방에서 비행을 했으며, 우리 상공에 위치하고 있었다. 프로펠러 조종사들은 제트기 조종사들에게 감사하고 있었다. 제트기들이 적 MIG기에 대한 유일한 보호수단이었다.

협조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우리는 국경선을 월경하지 않기 위해 선정된 전환점에 도착했다. 급강하할 때 나는 단둥 비행장에서 MIG 4대가 이륙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먼저 코사르 8대가 적 대공포를 공격하고 이어서 다른 코사르 8대가 500파운드 근접신관 폭탄을 투하하고, 다음에 스카이레이더 항공기들이 폭탄을

교량 위에 투하하는 패턴으로 공격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은 적의 대공포 진지를 파괴함에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다(이 당시 우리 전대의 각 조종사들은 한국상공에 50회 이상의 출격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전 전대는 이 계획을 완수하였고, 우리는 명중이 되고 있음을 관측했다."

3척의 항공모함은 11월 9일, 10일, 12일, 14일, 15일, 16일, 18일 및 21일에 그리고 11월 말까지 2~3회 더 압록강 교량에 대하여 공습전대를 출격시켰다. 조종사들은 압록강 건너 만주 쪽에 대공포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북한 쪽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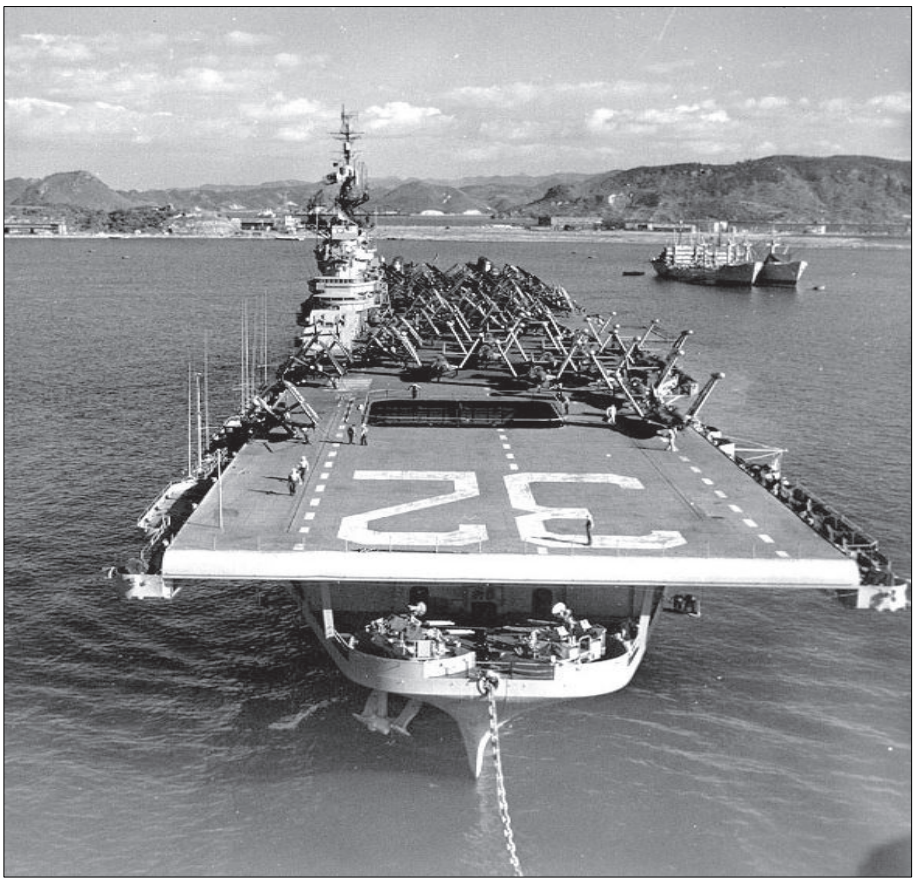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 시 활약한 코사르 항공기

제33비행대 부장인 시스크(H. M. Sisk) 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정찰 사진을 분석해 보니, 적들은 그들의 방공포를 비롯한 그들의 부대들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압록강 남쪽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없는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북한 쪽에 있는 대공포들은 잘 위장되어 있었지만 중국 쪽에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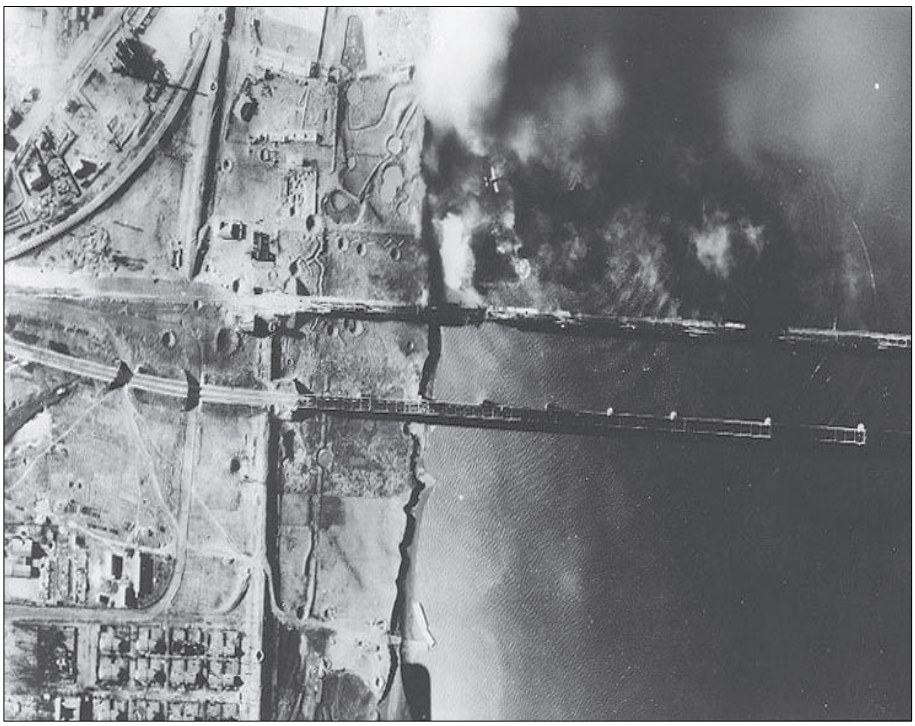
"레이테 항모의 공격 항공기들이 투하한 수발의 폭탄이 명중했다. 보다 대형의 폭탄이 사용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것이다."



미 해군 레이테 항공모함(일본 사세보항, 1950년)

해군 조종사들이 MIG 전투기들을 최초로 격추하는 데 성공한 것은 이 무렵의 압록강 공격 때였다. 11월 9일 최초 공습 시 항공모함 필리핀 시함의 조종사 제112편대 소속 아멘(W. T. Amen) 소령이 첫 번째로 MIG기 격추의 공적을 세웠다. 두 번째 MIG기 격추의 영예는 밸리 포즈함의 조종사 제52편대 소속 램(W. E. Lamb) 소령이 차지했다. 세 번째 영예는 레이테함의 제31편대 소속 웨버(F. C. Webeb) 소위가 획득했다. 해군 제트기의 손실이나 손상은 전혀 없었다.

압록강 교량들에 대한 공격은 많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의주의 차량용 교량과 혜산진의 두 교량을 전파시켰고, 나머지 교량 넷은 피해를 입혔다. 적의 전진은 둔화를 시켰지만 1950년 11월 24일에 시작된 중공군의 대공세를 생각하면 중공은 막대한 노동력과 세력으로 그들의 장비와 보급품을 북한으로 유입시킬 수 있었음을 시사해 주었다.[57]



파괴된 신의주 다리(1950년 11월)

그래서 11월 29일 항공모함들의 주요 임무는 근접항공지원으로 변경되었다. 흥남철수의 예비적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고 북한에 깊숙이 진입한 미 제1해병사단은 항공기를 통한 화력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에는 압록강이 결빙되기 시작했다. 항공모함들이 교량공격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중공군은 결빙된 압록강의 어느 지점에서나 도하할 수 있는 것이었다.[58]

11월 30일부터 함재기들은 동부전선의 제10군단 예하부대 즉,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의 집결을 위하여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11월 27일 밤부터 중공군 7개 사단이 장진호 부근의 미 제1해병사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2일부터 유담리-하갈우리-고토리를 거쳐 혹독한 추위 속에 혈전을 벌이며 중첩된 적의 포위망을 돌파하여 집결지인 흥남으로 철수하였다.

미 제1해병사단이 철수하는 동안 제77기동부대의 고속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와 흥남의 연포비행장에서 출격한 해병대 항공기가 근접항공지원을 제공하였다. 항공기들은 매일 200소티 이상 출격하여 제1해병사단의 철수를 방해하는 적군과 그들의 시설을 공격하였다. 12월 4일의 경우, 근접항공지원을 위하여 총 239소티 출격하였는데, 고속항공모함에서 128소티, 호위 항공모함에서 34소티, 그리고 연포비행장에서 77소티 출격하였다.[59] 동시에 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군의 C-119 수송기들이 탄약, 식량, 연료 및 의약품 등을 낙하산으로 투하하였으며, 헬리콥터들이 부상자들을 후송하기 위하여 지원되었다.[60]

5. 한국 해군작전

1) 중공군 참전과 전진기지 철수

지상군이 북진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해군은 남한기지를 완전히 수복

하는 동시에 북한의 원산, 진남포, 장전 등에 전진기지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북한 해역 작전을 전개하였다. 전함 미조리(Missouri)함을 기함으로 하는 유엔해군과 우리 함정은 함포사격으로 지상부대를 지원하고 주요 도로를 파괴하여 적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그러나 10월 25일 국군이 청진에 진입하였을 때 미 제1해병사단은 장진호 북서쪽에서 중공군과 교전을 하고 있었고 10월 하순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이 확인됨에 따라 북동부 전선의 알몬드 중장은 11월 30일 미 제10군단에게 철수를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6·25전쟁은 그 성격과 양상에 있어서 새로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12월 초순 재편된 북한 제5군단은 중공군 제3야전군의 뒤를 따라 양덕(陽德), 곡산(谷山)으로 남하하여 중부 산악지대에서 유격전을 하고 있던 북한 제2군단과 합류하였다. 이로써 동부전선의 알몬드 장군 예하 미 제10군단은 육상의 퇴로를 차단당하고 흥남지역에서 고립되었다. 이후 장진호 부근에서는 11월 29일부터 중공군 약 7개 사단이 투입되어 퇴로가 차단당한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이 고군분투하여 12월 4일 드디어 함흥평야 일대로 철수하였고, 동해안에서는 적이 청진까지 남진하여 국군은 길주(吉州)-명천(明川)-합수(合水) 선에서 부대를 정비하였다.[61]

한편, 서부전선에서도 11월 말에 실시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중공군의 2차 공세에 맞부딪혀 실패한 후 미 제8군 예하 전 부대가 청천강 선으로 후퇴한 데 이어서 12월 초에는 유엔군 주력부대들이 평양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지상군의 철수에 따라 남하를 희망하는 수십 만의 피난민이 혹한의 고통과 질병 및 기아(飢餓)를 무릅쓰고 동해안의 함흥, 흥남, 원산지역과 서해안의 진남포 지역에 모여들고 있었다. 이 모든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철수는 유엔군과 우리 해군의 해상수송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하에서도 우리 해군과 유엔해군은 매일 함포사격으로 적의 진출로를 강타하여 남하를 저지하는 동시에 동·서해안에 위치한 도서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점을 활용하여 해상봉쇄를 할 수 있었고, 동시에 해양통제권의

확보로 전쟁역사상 가장 완벽한 해상철수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유엔해군과 함께 성공적인 임무를 완수한 우리 해군은 장전, 원산, 진남포, 흥남 등의 전진기지에서 철수하였다.[62]

2) 원산, 성진 및 흥남철수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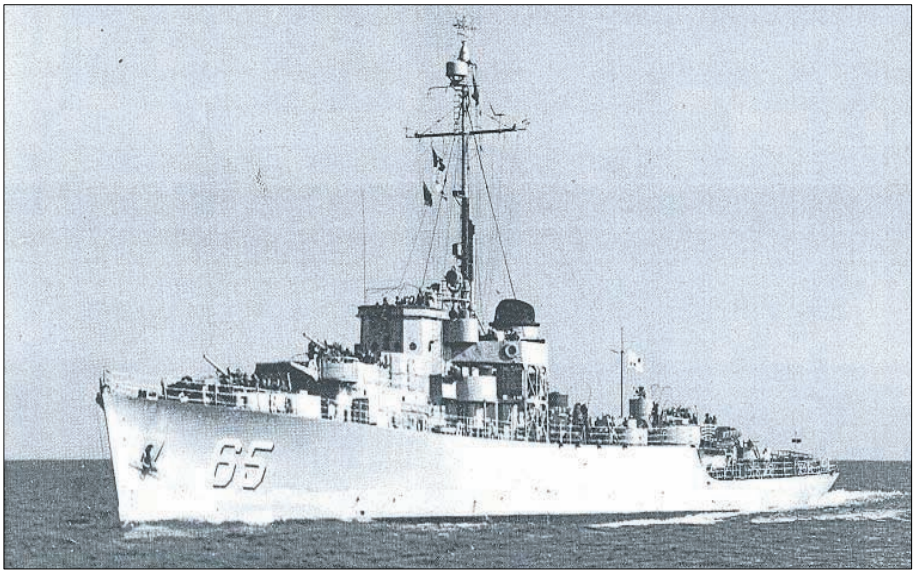
중공군이 함흥과 원산지역으로 진입하자 유엔군은 흥남, 함흥평야 일대에 강력한 교두보를 설치하고, 야포, 함포 및 공중폭격으로 침투하는 적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교두보작전은 북동부지역 철수부대가 함흥평야에 집결하여 해상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중공군 7개 사단 이상의 병력에 포위된 장진호의 미 제1해병사단, 제7사단과 영국해병대는 12월 11일 장진호에서 완전히 철수하여 25,000명의 미 해병사단과 제7사단이 함흥평야에 도착하였다. 청진을 탈환하였던 국군 수도사단과 혜산진 진입부대인 미 제7사단 예하 제17연대와 국군부대도 12월 14일 흥남에 도착하였다.

해상에서는 우리 해군이 11일 30일부터 상황이 급하게 전개됨에 따라 38도선 이북에 출동하여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함정, 선박 이외에는 일체의 항해를 금지시키고, 원산근해의 경비강화를 위하여 YMS 518, 514정을 배치하였다.

유엔 해군과 우리 해군의 원산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은 점차로 증가되었다. 12월 5일에는 원산전진기지사령부를 철수시키고, 12월 24일까지 10만 명의 피난민과 원산전진기지 요원을 LST 삼랑진호 등으로 부산을 경유하여 제주로 이송하였다. 최후까지 원산에 잔류하였던 한국해병대는 12월 15일 비행기로 수영으로 철수하였다. 철수작전 시에 해군 함정 이외에도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박과 많은 수의 북한 민간인 선박도 수송작전에 참가하였다.

성진철수는 흥남철수작전 이전에 시작되었다. 11월 16일 62함[63], 701함은 철수에 앞서 성진근해를 봉쇄하고, 미 소해함정은 성진항을 소해하여 부대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12월 12일부터 수도사단 18연대가 성진항에서 해상으로 철수하였다.



PF-61, 62함과 동일한 유형의 PF-65함의 위용

그러나 동해안 철수작전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의 작전은 함흥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흥남철수작전으로 1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해상철수가 시작되었다. 함흥, 흥남 교두보를 기습한 중공군은 유엔군에 의하여 격퇴되었고, 12월 15일에 다시 공격해왔으나 유엔군에 의해 궤멸되었다. 이와 같은 원거리 철수, 포위망 탈출과 교두보 방어전에 있어서 유엔 지상군의 유일한 철수 방안은 오직 함정을 통한 해상철수 뿐이었다.

유엔함정과 LST 단양호, 가평호는 군수품을 흥남으로 수송하였다. 전함 미조리(Missouri)함, 중순양함 세인트 폴(Saint Paul)함 및 로체스터(Rochester)함과 한국 해군 PC 702함은 철수작전시에 함포지원사격을 하였다. 유엔군의 대규모 수송선박은 국군을 포함하여 10만여 명의 유엔 지상군과 9만여 명에 달하는 피난민, 17,500대의 각종 차량과 350,000톤에 달하는 군수품을 철수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2월 12일에는 이 철수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FS 왜관호 및 발동선 10여 척이 증파되었고, 14일 PC 702함은 인근해역의 전 선박을 동원하는 한편 LST 단양호, 조치원호 및 FS 왜관호와 대형발동선 7척이 출동하였으며, 16일에는 LST 삼랑진

호도 참가하여 철수부대와 피난민 수송을 실시하였다.[64]

20여 일 동안 실시한 북동부 해안의 철수작전은 대체로 완료되었다. 철수부대인 수도사단은 묵호로 철수하고, 미 해병사단과 제7사단은 포항으로, 미 제10군단은 부산으로 각각 철수하였다. 한편 12월 16일 부산에 도착한 피난민들은 FS 평택호에 승선되어 거제도로 이송되고, 12월 27일에는 진해로 수송되었다. 12월 29일 우리 해군은 다시 부산지역의 피난민을 LST 단양호를 이용하여 거제도로 수송하고, 미 수송선은 제주도에 피난민을 수송하였다. 우리 해군은 흥남에서 철수한 거제도 피난민에게 구호미와 구호물자 및 의료품을 수송하여 제공하였다.[65]

3) 진남포 및 인천철수작전

(1) 해상철수작전의 경위

서부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한 미 제8군 예하부대들은 11월 29일에 순천(順川), 숙천(肅川)으로 후퇴하였고, 12월 2일부터는 평양에 주둔한 유엔군이 철수를 시작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30일에는 정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우리 해군은 서해안에 있어서도 비상태세에 돌입하여 38도선 이북으로 운항하는 작전참가 함정 이외의 선박 운행을 일체 금지시키고 철저한 해안봉쇄를 단행하였다.

12월 1일에는 진남포 해상철수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진남포 근해의 경비강화를 목적으로 JMS 303정을 출동시키고, 12월 4일에는 PF 61함을 비롯한 PC 704함과 JMS 301, 302, 303, 306, 308정 등의 함정이 인근해역을 봉쇄하였다. LT-1호정으로 진남포 주둔부대에 군수품을 보급하였고, 주둔부대는 항구를 출입하는 선박의 운행을 금지시키고 지구경비를 실시하였다.

중공군이 함흥지역에 압박을 가하고 있던 12월 4일 평양의 전 행정기관과 군사기관 및 아군에 협력하던 민간단체는 이미 철수를 완료하였다. 12월 5일 중공군은 대동강을 도하하여 10일에는 해주에 침입하여 왔다.

중공군은 곡산(谷山), 수안(遂安), 신계(新溪)에 도착하였고, 계속하여 중공군과 북한군은 중부전선 연천(漣川) 방면에서 포천(抱川)으로 남하하고 있었다. 중공군과

북한군이 해주에 침입하자 북한 피난민들은 연백(延白) 지역에 집결하였다. 14일에 해주를 통과한 중공군과 북한군은 해안선을 따라 연안(延安) 방면으로 진출하고 16일에는 백천(白川) 방면에 침투하였다. 이로써 서해안의 황해도 일부와 연백 옹진(甕津) 지역은 완전히 육로에서 차단되었으므로 남하한 피난민과 부상병 및 정부요원의 일부는 해상으로 철수하였다.[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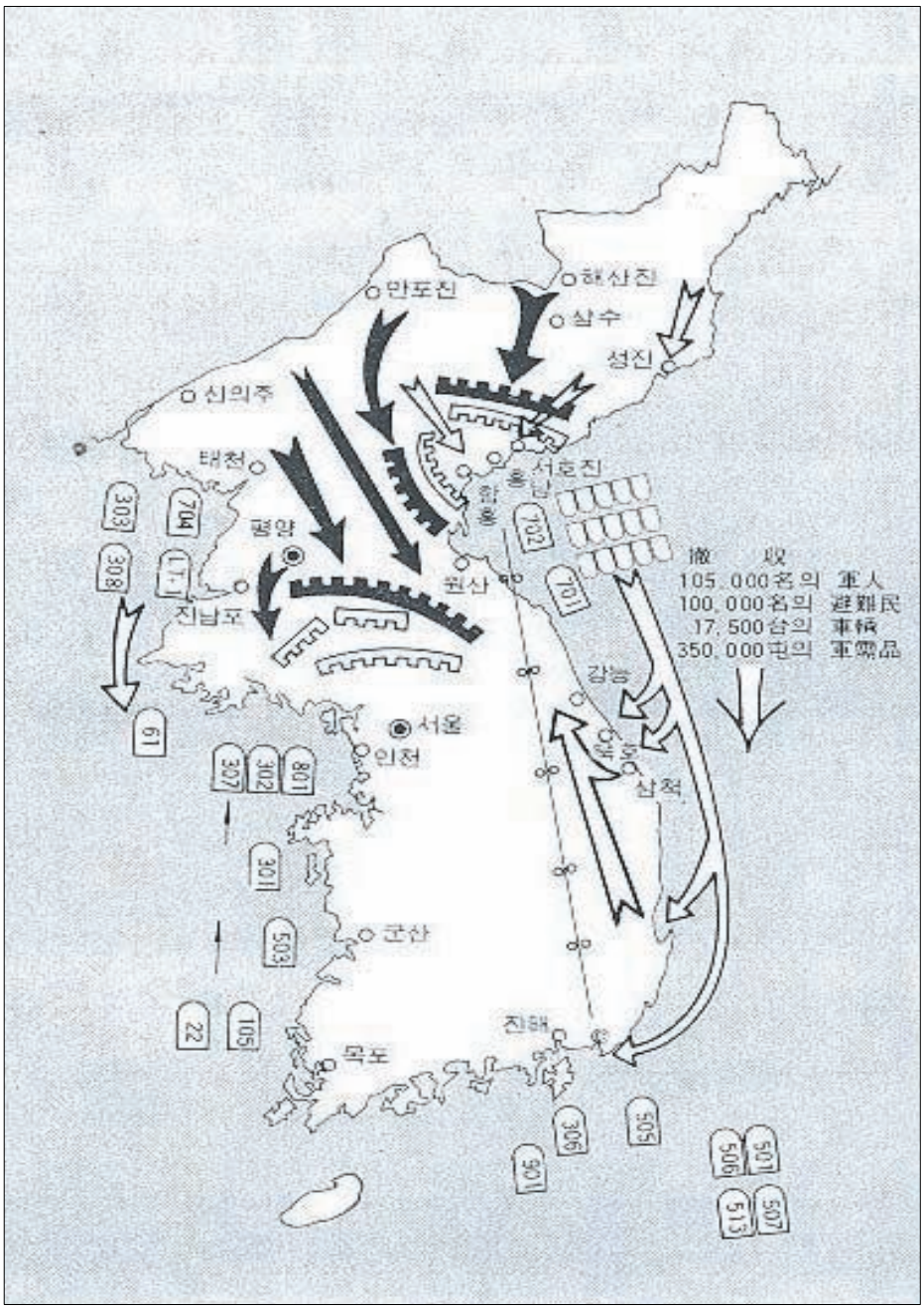
⑵ 작전경과

이와 같은 전쟁 상황하에서 PC 704함은 유엔함정과 협력하여 38도선 이북의 군 병력과 피난민을 남하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진남포 주둔부대는 12월 5일 이미 해상으로 인천으로 철수하였고, 14일에는 한국 해군 및 유엔해군 함정에 의하여 피난민 약 8,400명이 철수되었다.

이 기간에 있어서 PC 704함을 기함으로 JMS 303, 308정은 신의주로부터 진남포에 이르는 해상을 봉쇄하였고, PF 61함을 기함으로 하는 LST 801, YMS 502, 503, JMS 301, 302, 307, LT-1호 등의 함정은 진남포-해주-인천에 이르는 해상을 봉쇄하고 해상철수 인원의 안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적의 기뢰부설에 대하여 경비를 실시하였다. 그 후 중공군은 개성 지역에 투입되어 28일에는 중공군 제40군의 정예부대가 38도선을 돌파하여 개성을 점령하고 다시 수도 서울을 향하여 남진을 계속하였다.

12월 30일에 이르러 유엔군은 38도선 이남까지 후퇴하였고, 1월 3일에는 의정부를 포기하고 1월 4일에는 서울을 다시 포기하였다.[67]

<상황도 7-3> 동서해안 철수작전



4) 수송작전

(1) 수송활동 개황

한국 해군은 유엔 기동함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남서해안의 연안과 해상을 경비하는 한편, 한·미 양군의 보급지원을 위하여 수송작전을 전개하였다.

한국 해군의 수송활동은 국군의 병력과 보급물자 수송이 주를 이루었고, 그 외 정부 각 기관의 물자와 피난민의 수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행되었다.

이때 부산항은 유엔군의 보급기지로서 모든 군수물자가 이곳에서 수령, 분배되었으며, 해군에서는 LST와 FS 등의 함정과 함께 해운공사에서 징발한 선박으로 지상군 작전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주요 수송활동은 다음과 같다.

(2) 동·서해 수송작전

11월 17일부터 19일 사이에 육군의 군수물자를 부산항에서 성진항으로 수송하였으며, LST 천안호는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의 사이에 해병대 제1대대(대대장, 고길훈 소령)를 탑승시키고, PC 704함(함장, 현시학 소령)의 호송을 받으면서 부산항을 출항한 후, 묵호항으로 바로 입항하였다. 또한 11월 14일과 15일의 이틀 동한 해군 원산전진기지에 보급할 물자를 부산항에서 원산항으로 수송하였다.

LST 홍천호는 11월 9일부터 11일에 이르는 동안 육군의 병력과 군수물자를 만재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성진항으로 수송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11월 15일부터 17일에 걸쳐 성진항에 육군 1개 중대와 포로 41명을 부산항으로 수송하였고, 11월 22일에서 24일에 걸쳐서는 유엔군의 군수물자를 부산항에서 성진항으로 수송하였다.

한편 LST 조치원호는 11월 20일 육군의 군수물자를 부산항에서 원산과 흥남으로 수송하였다.

FS 왜관호는 11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육군의 군수물자를 부산항에서 진남포항으로 수송하였다. 그리고 LST 원주호는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해병대 1개 중대를 부산에서 진남포항으로 수송하여 상륙시켰다.[68]

제 4 절 분석 및 평가

1. 작전의 성격과 의의

1950년 10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유엔해군이 설정한 최초의 작전목표는 북진하는 지상군의 측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봉쇄와 함포지원사격을 실시하고, 강력한 해상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유엔해군은 함포지원사격으로 도주하는 적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하였고, 이때 한국해군은 북한지역에 전진기지를 설치하여 북진하는 아군의 보급지원과 항무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유엔해군의 작전목표는 가능한 한 다수의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서부지역에서 해군은 지상군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함포지원사격과 함재기를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였고, 진남포 및 인천에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원산, 성진 및 흥남해상철수가 결정되어 해군은 철수에 필요한 수송함, 이를 지원할 함포지원 및 호송함 등 가용한 전 세력을 동원함으로써 다수의 병력과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후방지역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해상철수작전 중 최대 규모인 흥남철수작전에서 미 제10군단 및 한국육군 병력은 안전하게 철수되어 전력을 재정비함으로써 중공군의 남진에 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방대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난관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수의 북한주민을 남한지역으로 후송시킨 한·미 해군의 노력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성과였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미 제8군의 신속한 철수로 진남포항이 위협을 받는 상황하에서도 극동해군지휘부의 신속한 조치로 진남포 및 인천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총 인원 32,428명을 비롯한 다수의 차량 및 화물이 안전하게 후방으로 수송됨으로써 차기 작전을 위하여 전투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해상철수작전이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해상통제권을 바탕으로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작전과 차단작전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해군작전 관련 교훈이다.

2. 원산, 성진 및 흥남철수작전

동해안 철수작전은 다수의 중공군이 지상에서 유엔군을 압박하는 상황하에서 수행된 작전으로 안전한 해상철수를 위한 육상 교두보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욱이 지상방어와 이를 지원하는 함포지원사격 및 근접항공지원 등 효과적인 지·해·공 합동작전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원산 및 성진 철수작전에서도 지상군의 교두보 확보 작전과 함포지원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다수의 병력과 피난민 그리고 차량과 화물이 구룡포 및 부산으로 안전하게 후송되었다. 이 병력들은 전투력이 복원되어 차후작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흥남철수작전은 작전 준비시간이 짧았고, 여러 단계의 작전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등 매우 복잡했지만 다수의 병력과 장비 특히 많은 민간인을 구출하는 등 성공적인 작전이었다. 만약 중공군의 해군력과 공군력이 철수작전을 방해했더라면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즉 유엔해군과 공군이 해양우세권과 공중우세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전이었다.

흥남철수작전의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흥남철수작전은 상륙돌격작전을 역순으로 적용시킨 것이 매우 효과적

이었다. 즉 바다에서 해안으로 하는 상륙작전과는 반대로 해안에서 바다로 하는 작전이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구성된 부대가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철수작전이 역순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해상철수작전 시 지휘권 관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였다. 다양한 국적과 군종의 구성부대들이 참가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복잡하였다. 그러나 조이 제독은 항공과 함포지원의 통제권을 상륙작전의 전문가인 도일 제독에게 부여하는 등 단일한 지휘체계를 부여하여 지휘·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셋째, 함포지원사격과 근접항공지원은 지상군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데 유용한 자산이었다. 지상군이 내륙으로부터 해안까지 그리고 탑재까지 축차적으로 철수가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은 해상에서 함포지원함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작전에서 소모한 해군의 탄약은 인천상륙작전에서 소모한 탄약량보다 훨씬 상회하였다. 또한 함재기의 총 1,700회 출격은 중공군의 남진을 지연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넷째, 해상수송능력의 확보 및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바다를 통하여 병력 105,000여 명, 피난민 91,000여 명 등 약 20만 명을 수송하여 전투력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이 충분한 해상수송자산과 호송자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미 제10군단이 흥남에서 피난민 문제에 대처했던 방법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피난민이 대량으로 많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미 제10군단 참모들은 대책을 수립하고자 팀원을 조직하여 세밀한 철수작전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피난민들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여서 미 제10군단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었으며, 군의 주 보급로를 통한 병참지원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 지역의 민간 행정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군이 주동하여 피난민 문제를 해결하였어도 전투부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전투부대들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피난민들을 처리하면서 부대의 이동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처하였다.[69]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으로 유엔군은 전투병력 뿐만 아니라 장비 대부분과 전략물자도 안전하게 철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육·해·공군의 입체적인 합동작전을 통한 해상철수의 성공은 차기 작전을 준비하는 유엔군의 사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진남포 철수작전

미 제8군의 신속한 철수로 진남포항이 무방비상태에 있었지만, 해군 지휘부의 신속하고도 시기적절한 조치 그리고 현장지휘관의 건전한 상황판단으로 진남포 철수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진남포 철수작전의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철수부대 편성을 위한 미 해군 지휘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극동해군사령부는 중공군의 출현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1월 13일 긴급철수절차를 명시한 작전계획을 배포하는 등 신속하게 철수준비를 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홍콩에 있던 영연방 함정을 소집하였고, 미국으로 이동 중인 미국함정들도 소집되어 철수부대에 편성되었다.

둘째, 현장 지휘관의 건전한 상황판단과 헌신적인 사명감 등이 아군의 작전과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진남포 철수작전을 수행한 켈리 대령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행동지시가 없었지만, 사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6시간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더욱이 진남포 접근수로의 여건으로 보아 대형 수송함들의 야간 입항이 곤란함을 감안할 때, 그의 조치는 작전을 하루 정도 단축시킨 결과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철수작전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4. 해군 항공작전

해상철수와 함께 항공모함 함재기를 이용한 항공작전 역시 유엔군 지상군이 전투력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철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해군 항공작전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으로 미 해군의 정밀 항공공격 능력 확보의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원자탄 사용에 필요한 전략 공군력이 중요하며, 전술항공 부대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미 공군이 보유한 B-29에 의한 고공비행으로는 압록강 교량을 정확하게 폭파시킬 수 없었고, 저공비행으로 표적으로 선정된 부분을 정밀하게 폭격할 수 있는 자산과 조종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함재기의 차단작전으로 중공군의 남진을 둔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극동해군사령관 조이 제독은 적 병참선, 집결지 및 병력에 대한 차단작전을 지시하여 가용한 항공모함과 전함을 동해안지역에 집결시켰다. 항모 함재기는 1950년 11월 총 593회 출격하여 폭탄 232톤을 투하함으로써 보급로 파괴 및 압록강 교량을 폭파하여 중공군의 남진을 둔화시켰다. 그러나 이미 10월 말에 한반도로 진입한 중공군과 압록강의 결빙으로 적이 어느 지점이나 도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재기의 주요 임무는 근접항공지원으로 변경되었다.

5. 한국 해군작전

한국 해군은 유엔 해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면서 창군 시 미국으로부터 인수한 함정(YMS, JMS 등), 6·25전쟁 전후 인수한 함정(PF, PC급), 대한해운공사로부터 징발한 LST 등으로 해상철수작전에 참가하여 함포지원과 함께 병력 및

피난민 수송을 지원하였다.

이때 유엔 해군의 대형 함선은 대규모의 병력과 피난민을 수송하였지만, 소형 함선을 보유한 한국 해군은 소규모의 병력과 피난민을 수송하고, 대규모 피난지인 부산에서 거제도 및 진해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구호물자 및 의료품을 수송하여 피난민을 구제하는데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서해안에서는 한국해군이 PF 61함 및 PC 704함을 기함으로 신의주~진남포, 진남포~해주~인천까지 해상을 봉쇄하고 적의 기뢰부설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여 철수인원들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인천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한국해군은 6·25전쟁 발발 시 함정세력의 대부분이 소해정(YMS, JMS)으로 전투함은 1척만 보유한 열악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50년 12월 30일까지 미국에서 추가로 2척의 PF(호위함), 4척의 AKL(수송함)함들을 인수하여 흥남철수작전 및 진남포, 인천철수작전에서 유엔해군과 연합하여 해상봉쇄작전, 소해작전, 함포사격 및 수송작전 등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끝으로 1950년 10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전쟁기간 중 한국 및 유엔해군은 북한 해군력이 무력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해상 우세권을 유지하면서 함재기와 함포지원, 해상 철수작전, 수송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여 위기에 처했던 유엔군 전체의 작전 성공과 전투력 보존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집필 : 최권삼)

<미국함정 주요제원>

1. 항공모함

함정명	유 형	제 원	비 고
Leyte	CV-32	• 톤수: 27,100톤, 전장: 566미터 전폭: 41미터, 속력: 33노트 승조원: 3,448명 • 무장: 5인치 12문, 40밀리 72문 항공기 80대	2 Battle star
Prinston	CV-37	• 톤수: 33,000톤, 전장: 566미터 전폭: 44미터 • 무장: 5인치 12문, 40밀리 44문 20밀리 59문, 항공기 80대	
Sicily	CVE-118	• 톤수: 10,900톤, 전장: 566미터 전폭: 104피트, 속력: 19노트 승조원: 3,448명 • 무장: 5인치 2문, 40밀리 36문 20밀리 18문	
Battan	CVL-29	• 톤수: 11,000톤, 전장: 1,622피트 전폭: 109피트, 속력: 31.6노트 승조원: 1,569명 • 무장: 40밀리 26문, 20밀리 10문 항공기 45대	

2. 순양함

함정명	유 형	제 원	비 고
Rochester	CA-124	• 톤수: 13,700톤, 전장: 674피트 전폭: 70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1,142명 • 무장: 8인치 9문, 5인치 12문 40밀리 48문, 20밀리 20문 항공기 4대	
Saint Paul	CA-73	• 톤수: 13,600톤, 전장: 1,673피트 전폭: 70피트, 속력: 32노트 승조원: 1,700명 • 무장: 5인치 12문, 40밀리 48문 20밀리 22문, 항공기 4대	
Manchester	CL-83	• 톤수: 10,000톤, 전장: 1,610피트 전폭: 66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992명 • 무장: 6인치 12문, 5인치 12문 40밀리 28문, 20밀리 10문	

3. 전 함

함정명	유 형	제 원	비 고
Missouri	BB-63	• 톤수: 45,000톤, 전장: 1,887피트 전폭: 108피트, 속력: 33노트 승조원: 1,921명 • 무장: 16인치 9문, 5인치 20문	

4. 구축함

함정명	유 형	제 원	비 고
Forest Royal	DD-872	• 톤수: 2,425톤, 전장: 1,390피트 전폭: 41피트, 속력: 35노트 승조원: 267명 • 무장: 5인치 6문, 어뢰 5기 폭뢰 6기	
Zellars	DD-777	• 톤수: 2,200톤, 전장: 1,376피트 전폭: 40피트, 속력: 34.2노트 승조원: 345명 • 무장: 5인치 6문, 40밀리 12문 20밀리 11문, 어뢰 10기	4 Battle star

5. 공격수송함

함정명	유 형	제 원	비 고
Mount Mckinley	AGC-7	• 톤수: 12,560톤, 전장: 1,459피트 전폭: 63피트, 속력: 15노트 승조원: 664명 • 무장: 5인치 1문, 40밀리 4문	8 Battle star
Eldorado	AGC-11	• 톤수: 7,234톤, 전장: 1,459피트 전폭: 63피트, 속력: 16노트 승조원: 684명 • 무장: 5인치 2문	8 Battle star

주(註)

1) James A. Field,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1962) p.264.
2) 필리핀 시(Philippine Sea), 레이테(Leyte), 밸리포지(Valley Forge), 프린스톤(Prinston), 시실리(Sicily), 바둥 스트레이트(Badoeng Strait), 바탄(Bataan)함
3) 전함(1척) : 미조리(Missouri) ; 중순양함(2척) : 세인트 폴(Saint Paul), 로체스터(Rhochester) ; 구축함(7척) : 포리스트 로얄(Forest Royal), 행크(Hank), 매씨(Massey), 노리스(Norris), 보리(Borie), 잉글리쉬(English), 린드(Lind) ; 로켓 포함(3척) : LSMR-401, 402, 403
4) Cagle and Manson, *op. cit.*, p.189.
5) Cagle and Manson, *Ibid.*, pp.188~189.
6)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The Sea War in Korea* (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p.191.
7) MSTS : 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8) Cagle and Manson, *op. cit.*, p.183.
9) Field, *op. cit.*, p.257.
10) Cagle and Manson, 앞의 책, p.178.
11) 흥남철수작전에 따라 원산전진기지는 1950년 12월 5일에 철수되었고, 전진기지 요원들은 LST 삼랑진호로 부산으로 후송되었다.
12) Field, *op cit.*, pp.45~46.
13) Field, *Ibid.*, p.211.
14) 소울 장군은 흥남에서의 성공적인 철수작전으로 미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나, 아쉽게도 다음해인 1952년 1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망했다. Glenn C. Cowart, *Miracle in Korea* (Columbia, 1992) p.83.
15) Field, *op. cit.*, p.264.
16) Field, *Ibid.*, p.265.
17) Cagle and Manson, *op. cit.*, p.180.
18) 배를 정박하고자 닻을 내리는 것.(anchoring)
19) Field, *op. cit.*, p.286.
20) Cagle and Manson, *op. cit.*, pp.184~185.
21) Field, *op. cit.*, p.288.
22) Cagle and Manson, *op. cit.*, p.181.
23) Cagle and Manson, *Ibid.*, p.184.
24) Cagle and Manson, *Ibid.*, p.185.
25) 전사편찬위원회,『장진호전투』1981. 289쪽.
26) Field, *op. cit.*, p.295.

27) 기뢰를 집중적으로 부설한 바다의 구역

28) 상선에서는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수면에서 상갑판까지의 뱃전 부분

29) 함정이 해안에서 이탈함.

30) Field, *op. cit.*, pp.296~298.

31) Cagle and Manson, *op. cit.*, p.191.

32) 전사편찬위원회,『장진호전투』1981. 290쪽.

33) Field, *op. cit.*, pp.298~300.

34) Cagle and Manson, *op. cit.*, p.186.

35) Cagle and Manson, *Ibid.*, p.189.

36) Field, *op. cit.*, p.301.

37) Cagle and Manson, *op. cit.*, p.189.

38) Cagle and Manson, *Ibid.*, p.188.

39) Cagle and Manson, *Ibid.*, pp.188~189.

40) 흥남철수작전 당시 민간인 철수결정과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구출과정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참모들의 작전수행 : 한국주둔 10군단, 1950년 12월』, Richard W. Stewart, 1991 ②『10군단 사령부 지휘 보고서, 1950년』Edward Almond 사령관, John S. Guthire 참모장 ③ 극동군사령관 작전계획 205호, 1950년 12월 8일, 극동군사령부 ④ 10군단 작전지침 27호, 1950년 12월 9일, 10군단사령관

41) Field, *op. cit.*, p.302.

42) 빌 길버트 원저, 안재철 편역『마리너스의 기적의 배』2004. 123쪽.

43) 메러디스 빅토리 호 : 1950년 12월 23일 흥남에서 유엔군의 철수가 한창일 때 공산군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안전하게 구출하였다. 물도 약도 없이 3일간의 항해 끝에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항해 도중 5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승선한 피난민들 중 단 한명의 사망자도 없었던 기적적인 피난민 구출작전이었다.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출한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빅토리호의 승무원들은 1958년과 1960년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수상하였다.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 선장은 귀국 후에 1954년 카톨릭의 성 베네딕도회 뉴튼 수도원의 수사로 일생을 봉헌하였다.

44) Field, *op. cit.*, p.304.

45) 전사편찬위원회,『장진호전투』1981. 290~291쪽.

46) Field, *op. cit.*, pp.265~267.

47) Field, *Ibid.*, pp.268~269.

48) Field, 위의 책, p.271.

49) Field, *Ibid.*, pp.272~274.

50) Cagle and Manson, *op. cit.*, p.183.

51) "무장정찰"은 지시된 지역에서 표적을 탐색하고 공격하는 공중정찰임무로 정의된다.

52) 미 합참 군사용어사전에서 "파괴"라는 용어는 가용한 수단으로 적지와 기동로의 사용을 저지 또는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53) Cagle and Manson, *op. cit.*, pp.222~223.

54) Field, *op. cit.*, p.257.

55) 1950년 11월 7일 미 합참은 극동군사령관에게 급전을 타전하였다. "압록강 교량들의 북한 쪽 절반을 포함하여 전선에 대한 공중공격을 허가한다."

56) 한국전쟁 이전에 미 군사정책은 전략목표의 공격은 전적으로 공군 소관이므로 해군은 전술항공기를 보유하는 수준으로 고려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원자탄 사용에 필요한 전략 공군력이 중요하며 전술항공 부대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공군의 주장이었다.

57) 나중에 평가된 것이지만 10월 말까지 북한의 중공군은 275,000명으로 조직된 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제66, 42, 40, 39 및 38군이 확인되었다.

58) Cagle and Manson, *op. cit.*, pp.223~229.

59) Cagle and Manson, *Ibid.*, p.178.

60) Cagle and Manson, *Ibid.*, p.174.

61) 해본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해군본부, 2001), 제3편, 6~7쪽.

62) 해본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1집(해군본부, 1954), 142~143쪽.

63) 1950년 10월 23일 미 해군의 PF-48(최용호 중령), PF-49(박옥규 대령)를 인수해 11월 5일 PF-61(두만강), PF-62(압록강)로 명명하였다. 인수할 당시 PF함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 해군이 소련해군에게 빌려 줬다가 돌려받은 까닭에 군함 내·외부에 러시아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PF(호위함)의 주포는 3″/50이고, 대잠병기인 Hedgehog, 소나와 레이더를 구비하고 있어서 6·25전쟁 기간 주력함으로 활약하였다. 오진근, 임성채 공저, 『손원일 제독』(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437쪽; 해군본부, 『해군 30년사』 1945~1975(해군본부, 1978), 56쪽.

64)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해군본부, 2001), 제3편, 8~12쪽.

65)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1집(해군본부, 1954), 145~146쪽.

66) 해군본부, 『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해군본부, 2001), 제3편, 13~15쪽.

67)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1집(해군본부, 1954), 147~148쪽.

68)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 제1집(해군본부, 1954), 145~146쪽.

69) 안재철, 『생명의 항해』(자운각, 2008), 304~305쪽.



제 8 장 공군작전

제 1 절	작전 개요
제 2 절	북한 공군 복원 및 소련 공군 참전
제 3 절	유엔 및 한국 공군작전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제 1 절 작전 개요

1. 개 요

1950년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으로부터 12월 30일까지 전쟁 기간 중 전황은 먼저 10월 말에 유엔군이 추수감사절 공세를 통해 일부 부대가 한·중 국경까지 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중공군의 1차 공세로 인해 청천강 선까지 후퇴하여 방어선을 구축하였고, 계속해서 11월 하순에 실시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 역시 중공군의 2차 공세에 의해 좌절됨으로써 12월 말에는 유엔군이 동·서부 전선에서 전면적인 후퇴를 감행하여 38도선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 기간 중 공군의 작전은 11월에는 압록강 교량 및 한·중 국경선에 인접한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폭격을 통해 중공군의 참전을 차단하고 중공군의 남하속도를 지연하기 위한 작전과 함께 아군의 공세유지를 위한 근접지원작전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아군의 철수가 시작된 12월에는 무장정찰 및 차단작전을 통한 적의 증원 차단과 함께 공중수송을 통해 지상군의 원활한 철수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되었다.

이 기간 중에 이루어진 특이사항으로 11월 1일부터 중국 주둔 소련공군과 MIG-15 전투기가 참전함으로써 유엔공군은 공중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고, 이에 따라 이전까지 지속되어 왔던 공중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F-84(Thunder-jet), F-86(Sabre-jet)전투기를 전장에 배치하여, 소련공군과 미그회랑(MIG Alley) 지역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쳤으며 그 결과 공중우세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2. 전선 개황

1950년 10월 1일 국군이 38도선을 돌파한 후 미 8군 또한 10월 초순 북한에 진입하여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였다. 태백산맥 동부 전선에 투입된 미 제10군단은 원산항 상륙이 지연되어 10월말에야 원산지역에 상륙하였지만 미 8군의 작전통제 하에 있었던 국군 제3사단과 수도사단은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하고 파죽지세로 북쪽으로의 진격을 계속하였다.

한편 국군의 38도선 돌파가 이루어진 다음날인 10월 2일 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周恩來)는 북경 주재 인도대사인 파니카(Kavalam M. Panikkar)를 통해 '한국군을 제외한 미군과 유엔군이 38도선 월경 시 중국은 공식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저우언라이의 경고와 더불어 중국의 '인민일보'와 '북경방송'과 같은 중국 매체들에 의해서도 유사한 경고가 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중국의 전쟁 개입경고는 워싱턴과 맥아더에 의해 무시되었다. 중국의 전쟁개입 경고가 워싱턴에 전달된 이후에도 미 합동참모본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맥아더 장군에게 "예하 병력으로 확실한 승리가 판단되면 한국 내에서 중국군과 교전하여도 좋다."는 지시를 하달하여 중공군과의 교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1)]

워싱턴과 맥아더는 이미 패배한 북한을 위하여 중국과 소련이 소모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중공군이 개입하더라도 공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공군의 전투력은 유엔군의 전력에 대항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낙관적인 평가와 북한군의 미미한 저항에 힘입어 맥아더 장군은 10월 24일 잔여 북한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소위 '추수감사절 공세'를 단행하였다. 이때 유엔군은 낭림산맥을 기준으로 동·서부 지역으로 작전구역을 분할하여 서부지역작전은 미 제8군이 담당하고 미 제10군단은 동부지역을 관할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0군단에게는 국군과 유엔군의 가용한 전 병력을 동원하여 국경선을 향해 진격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10월 17일 내려진

유엔군 진격한계선(선천-성진) 이북의 국경근처로의 진격은 국군에 한 해 가능하다는 이전 지침을 폐기하는 것으로써, 한국군 단독 능력으로는 북쪽 국경선으로의 진격이 불가능하다는 맥아더의 주장을 워싱턴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지시였다.[2)]

맥아더의 작전구상에 따라 미 제8군은 북한 북서부 방향 압록강을 향해 병력을 수개부대로 나누어 진격을 이어갔으며 예하부대인 국군 6사단 제7연대는 10월 26일 마침내 압록강 변에 위치한 초산에 이르렀고, 동부지역의 제10군단 예하부대는 동해안과 산악지대를 통해 장진호와 혜산진 일대까지 진출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북진에 대응하여 중공군은 10월 25일 온정리(운산) 부근에서 국군 6사단 2연대와의 최초교전을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제1차 공세를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미 제8군과 예하 부대들은 청천강 선으로 후퇴하였으며,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서부 지역 깊숙이 진입한 부대의 고립을 우려할 정도로 전선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11월 7일부터 중공군의 제1차 공세는 일시 중지되었고 이것은 워싱턴과 맥아더의 중공군에 대한 판단을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중공군 공세의 일시적 정지는 맥아더로 하여금 야전에서 제기된 최근 정보를 통해 그 규모는 약 4~7만 명 정도의 소규모 병력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중공군의 대규모의 전면적인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하였다.[3)]

이를 근거로 맥아더 장군은 합참에 어떠한 작전변경도 반대한다는 보고를 제출하였고 오히려 전진하여 적과 교전하는 것만이 적의 병력을 파악할 수 있고, 현재 북한지역으로 진입한 중공군을 제압할 수 있으며 유엔공군은 압록강을 넘어 증원되는 중공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맥아더의 입장은 워싱턴에도 전달되었고 결국 11월 9일 개최된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으로 하여금 국경선까지 진격하도록 하고 추수감사절(11월 23일)까지 유엔군의 전면 공격재개에 필요한 부대와 계획을 준비하도록 승인하였다.

11월 24일, 전쟁을 종료하고 미 제8군 병력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미 본토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맥아더 장군의 야심찬 계획인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시작되었으나, 연내에 한차례 대규모 공격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6~7개 연대

규모 병력을 소진시켜 전선을 평양-원산 선으로 확장시키려는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부딪혀 3일 만에 좌절되었다. 중공군의 1, 2차 공세로 인해 국군 및 유엔군은 미처 방어태세를 갖출 겨를도 없이 11월 30일을 기점으로 남쪽으로의 철수를 가속화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은 12월 초 평양 철수를 시작으로 12월 말에는 임진강-연천-춘천 북방-양양을 연하는 38도선 부근에 방어선을 형성하였고, 동부전선의 미 제10군단도 12월 말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흥남에 집결, 함정을 통해 부산으로 해상철수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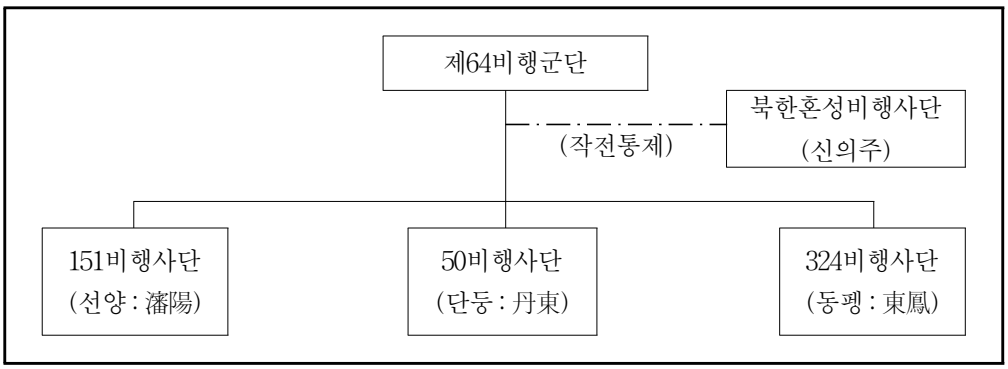
3. 북한 및 소련 공군작전

6·25전쟁 발발 불과 이틀 후 미 공군의 참전과 함께 달성된 공중우세로 인해 북한 공군의 활동은 7월이 되면서 급속히 위축되기 시작하여, 8월에는 출격횟수가 10회에도 못 미치는 등 궤멸상태에 이르렀다.[4] 이러한 압도적인 미 공군의 우세와 북한공군의 궤멸은 7월 초부터 김일성과 북한 지도부의 전쟁실패에 대한 우려로 작용하였고, 지상전에서의 전세가 역전된 인천상륙작전 이후에는 전쟁 초기 공군력의 몰락이 패전의 원인으로 각인되었다.[5] 이런 이유로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공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군력 복원이 없이는 전세 회복이 불가능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요구와 전세의 급박함을 인식한 소련은 중국 옌지(延吉)에서 북한 공군 인력을 충원할 조종사 및 정비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1950년 11월에 중국 단둥(丹東)에서 1개 혼성비행사단을 창설하였다. 북한 공군 혼성비행사단은 Yak-9기 24대와 조종사 26명으로 구성된 1개 추격기 연대와 PO-2기로 구성된 습격기 연대로 편성되었고 사단장에는 이활이 임명되었다. 또한 북한지역내의 대공방어능력 보강을 위해 대공포부대를 증설하였는데 1950년 11월까지 대공포 연대 1개, 독립 대공포 대대 10개, 대공기관총 중대 2개가 새롭게 창설되었다.

북한 공군에 대한 지휘와 통제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작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 11월 말 이전에는 소련공군 고문단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제64전투비행군단이 북한공군을 지휘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6]

<표 8-1> 북한 및 소련공군 지휘관계(1950년 12월말 기준)



중국 단둥에서 창설된 북한 혼성비행사단은 중국 주둔 소련공군과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경지역이 안정화되자 11월에 신의주 비행장으로 이동 전개하였고, 이들에게는 평양이북 공중에서의 제한적인 방공요격임무[7]와 북한 및 중공군의 지상군에 대한 엄호 임무가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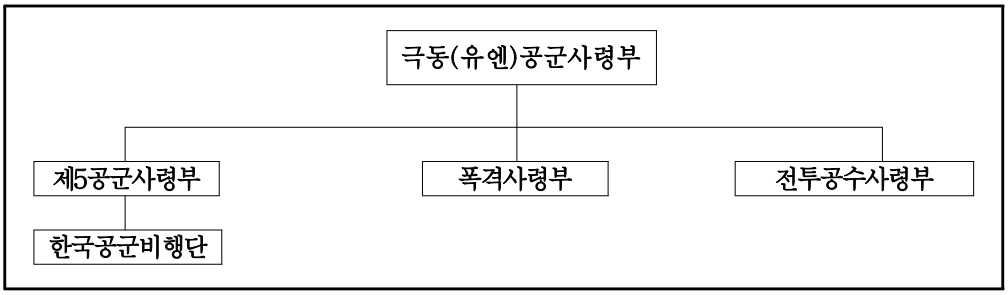
소련 공군의 6·25전쟁 참전은 1950년 11월에야 이루어졌지만 중국 공군 창설을 위해 중국에 소련공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1949년 10월 이래 소련의 참전준비는 이미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3월 소련 MIG-15기 40대를 포함 총 156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보유한 소련 제106요격비행사단이 상하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시작된 소련공군의 중국주둔은 1950년 8월 제151전투비행사단의 선양(瀋陽) 전개로 이어졌고 1950년 말까지 총 14개 비행사단이 전개하여 중국 공군 양성과 함께 6·25전쟁 개입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결국 중공 지상군의 참전과 교전이 이루어지자 11월 1일을 기해 선양에 주둔해 있던 제151전투비행사단을 전투에 참가시켰으며 이후 11월 말에 한국 전역(戰域) 항공력운용을 책임질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창설하여 본격적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였다.

제64전투비행군단에게 부여된 임무는, 첫째 미 공군의 공중타격과 공중정찰로부터 북한과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정치, 행정 및 경제 중심, 산업시설, 철도거점, 교량, 군대집결지 그리고 다른 중요한 대상들을 엄호하고, 압록강 교량과 단둥 지역의 발전소 엄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과 둘째는 북한지역 내에서의 중공군 및 북한군 엄호, 셋째는 이러한 전투임무 외에 중국 및 북한 공군 조종사의 조속한 양성이었다.

소련공군은 11월과 12월 중에 총 1,079회를 출격하여, 유엔 공군기 68대를 격추하는 등 이전까지 누려오던 유엔공군의 완벽한 공중우세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 부여된 임무수행 결과에 대해 제64전투비행군단은 중국 동북지역 방호 임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북한지역 내의 지상군 및 주요시설 엄호는 출격기지와 임무지역간의 원거리 이격 등 전술적 여건의 제한으로 성과가 미흡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렸다.[8)]

4. 유엔 및 한국 공군작전

<표 8-2> 유엔공군 지휘관계(1950년 12월말 기준)



국군과 유엔군의 지상군이 북한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완전히 철수가 종료된 시점인 1950년 12월 26일까지 극동공군사령부의 임무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령부는 현재의 전술적 상황에 즉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통신선의 완벽한

차단, 보급소와 수송시설 및 지상군을 비롯한 기타 군사 표적에 대한 완전한 파괴임무를 지속하고, 공중우세를 지속 유지하면서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공수작전을 수행한다."[9]

위의 언급과 함께 당시 전세와 전술상황을 고려하면 극동공군사령부가 수행해야할 임무는 다음 3가지였던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10]

① 아 지상군과 해군의 활동을 방해하는 적 공군활동 방어

② 적 지상군을 파괴하여 아 지상군의 자유로운 상태 허용

③ 보급품과 병력 공수를 통한 지상군 철수 지원

극동공군사령부는 우선 새로운 적인 중국 주둔 소련 공군의 MIG-15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에 전개된 항공 전력이 성능과 무장면에서 열세를 보이게 되자 제공권 확보를 위해 12월에 MIG-15에 대응할 수 있는 F-84E(Thunder-jet)와 F-86A (Sabre-jet) 전투기를 극동공군에 전개시켜 제공전력을 보강하였으며 11월에는 제452폭격비행단(B-26 보유)을 전개하여 폭격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급증하는 공수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11월에는 제437공수비행단(C-47 보유), 12월에는 61수송전대 제4대대(C-54 보유)를 추가로 본토로부터 전개하였다.

극동공군은 유엔 지상군의 전선 상황 변화에 따라 부대배치를 단행하였는데 11월에는 소련의 MIG-15전투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을 위해 연포(K-27), 평양(K-23), 미림(K-24)기지에 3개 전술부대 및 이를 지원하는 전술지원비행단을 전개하였고, 1개 항공관제경보부대를 신안주비행장(K-29) 근처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11월 말 전 전선에서 아군이 후퇴를 결정함에 따라 북한지역에 전개했던 부대는 남한 및 일본지역으로 철수를 단행하여 12월초에 모든 철수를 완료하였다.

유엔공군은 11월과 12월 중 총 36,300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였고 이중 공수비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 순이었다. 공수비행활동은 주로 전방 지상군에 대한 물자 및 장비보급을 위한 것으로써 지상군이 위기에 처한 상황하에서는 유일한 생존수단을 제공하였고, 12월에는 지상군의 장비와 인원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작전의 증가는

수세적 국면에서 적의 기도에 의해 전선 상황이 결정되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의 증원과 후속전력 및 보급지원을 차단하여 적의 기세를 완화시키고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전술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1월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의 중점은 중공군의 북한지역 진입과 남하를 저지하는 것이었고, 12월에는 중공군의 남진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중공군 병력과 장비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여 약 4만여 명의 병력을 살상하였다.

<표 8-3> 공군 주요부대 및 지휘관(1950. 12. 31 기준)

부 대		주둔기지	주력 기종	지 휘 관
한 국	공군본부	대 구		총참모장 : 소장 김정렬
	항공기지사령부	대 구		사령관 : 준장 최용덕
	공군비행단	제 주	F-51, T-6	단장 : 대령 장덕창
	공군 정찰비행전대	대 구	L-4, L-5	전대장 : 소령 오점석
미 국	**극동공군사령부**	도쿄(東京)		중장 George E. Stratemeyer
	제5공군사령부	이다쯔게(板付)		소장 Earl E. Partridge
	제8전폭비행단	일본 존슨(Johnson)	F-80	대령 Charles W. Stark
	제18전폭비행단	이다쯔게(板付)	F-51	대령 Curtis R. Low
	제49전폭비행단	요코타(横田)	F-51, F-80	대령 Aaron W Tyer
	제35전투요격비행단	미자와(三澤)	F-51	대령 Jack D. Dale Jr.
	제51전투요격비행단	이다쯔게(板付)	F-80	대령 Oliver G. Cellini
	제27전투엄호비행단	이다쯔게(板付)	F-84E	대령 Ashley B. Packard
	제4전투요격비행단	일본 존슨(Johnson)	F-86A	준장 George F. Smith
	제3폭격비행단	이와쿠니(岩國)	B-26	대령 Henry S. Brady
	제452폭격비행단	이다쯔게(板付)	B-26	준장 Luther W. Sweetser
	폭격사령부	요꼬타(横田)		소장 Emmett O' Donnell
	제19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Payne Jennings. Jr.
	제98폭격전대	요코타(横田)	B-29	대령 Richard H. Carmichael
	제307폭격전대	가데나(嘉手納)	B-29	대령 John A. Hilger
	전투공수사령부	아시야(蘆屋)		소장 William H. Tunner
	제1병력수송전대	다찌가와(立川)	C-46, C-47	중령 Edward H. Nigro
	제314병력수송전대	아시야(蘆屋)	C-119	대령 Richard W. Henderson
	제374병력수송전대	아시야(蘆屋)	C-46/47/54	대령 Charles W. Howe
	제437병력수송전대	일본 브래디(Brady)	C-46	대령 John R. Roche
	제61병력수송전대	아시야(蘆屋)	C-54	대령 Frank Norwood
호 주	제77전투비행대대	수영(K-9)	F-51	대대장 R. C. Cresswell
남아공	제2전투비행대대	진해(K-10)	F-51	
그리스	제13수송전대 파견대	이다쯔게(板付)	C-47	

또한 이 시기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은 전체 비행활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으나 중공군과 교전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전후방에서 엄호하고 퇴로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1950년 11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 1개 전투비행대대(F-51)와 그리스 수송대(C-47)가 파견되어 극동공군에 합류함으로써 이전에 참가한 미국(전투/수송기), 호주(전투기), 캐나다(수송기)를 포함 총 5개 외국공군이 유엔의 깃발아래 참전하게 되었고, 이들과 한국 공군은 미 극동공군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중국 지상군과 소련공군이 참전한 새로운 전쟁 국면에서 한국의 방어와 승리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11]

제 2 절 북한 공군 복원 및 소련 공군 참전

1. 북한 공군력 복원 및 재편성

약 2,800여 명의 병력과 Yak-9, IL-10 등 총 226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전쟁개시일인 6월 25일 오전 김포와 여의도 비행장 상공에서 정찰을 목적으로 최초 작전을 개시한 이래 김포, 여의도, 수원 등의 아군 전방 소재 비행장과 서울, 영등포, 인천, 부평, 수색 등 주요 철도역 및 이들 역 주변의 군수품 공장, 군용창고, 군 막사 등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던 북한 공군은 6월 27일 미 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급격히 세력을 상실하였다. 그 결과 6월에 활발하던 북한 공군 활동은 7월 들어 전투 활동이 급감하였고 전과에 있어서도 미 공군기 5대와 폭격기 2대만을 격추시켰을 뿐이다.[12] 또한 북한 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8월 24일 기준 추격기(전투기), 습격기(대지공격기) 총 109대가 손실되고 잔여 항공기는 습격기 34대, 추격기 2대만이 남아 있었다.[13] 결국 북한 공군은 7월 이후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미 공군 전투기들이 사라지면 공격을 감행하는 소위 '공중 게릴라 전술'로 작전개념을 변경하였다. 또한 7월 이후 북한 공군은 미군 전투기와의 교전을 회피하면서 미군의 공습에 시달리는 북한 지상군부대를 엄호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나 이마저도 미 공군의 완전한 공중우세로 인해 여의치 않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상군 엄호비행이 채 10여회도 되지 않았다.[14]

이러한 북한공군의 전력상실과 미 공군의 압도적인 공중우세 장악은 전쟁 초기 지상전에서의 일방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에 전쟁 실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였고 소련에 대해 공군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해 1950년 7월 7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인 T. F. 슈티코프는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철도 분기점과 역사, 공항, 공장과 항구 등에 대한

미 공군의 대대적인 폭격 및 군함들의 연안 사격은 조선 지휘성원들과 주민들에게 어두운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김일성, 김책, 박일우를 제외한 북한 지도부가 전쟁 성공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고 박헌영은 "소련항공대가 북조선을 엄호하도록 소련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필요성"을 직접 김일성에게 제기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15] 이러한 우려감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지상전에서마저 패퇴를 거듭하자 더욱 증대되었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전쟁 지도부는 북한 공군의 복원과 강화의 시급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1950년 10월 5일 김일성은 비서이자 소련어 통역관인 문일을 불러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만약 외부에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선을 잃게 될 것이며 전쟁의 수세국면을 전환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조종사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련에게 재소 한인을 선발하여 1,500명 가량의 조종사와 기타 전문 군관들을 훈련시킬 것과 이에 관해 스탈린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하는 문제에 대해 북한 주재 소련대사의 의견을 타진할 것을 지시하였다.[16] 김일성은 결국 10월 9일 북한 주재 소련 대사를 통해 스탈린에게 서한을 보내 "최근 군사 과학과 기술로 무장된 강력한 적과의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우리는 조종사, 탱크병, 무선사와 공병군관 등을 신속히 양성하여야 하며 북한에서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요청하였다.[17]

① 소련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 중 2~300명을 조종사로 양성

② 소련계 조선인 중 탱크병 1천명, 조종사 2천명, 무전병 500명, 공병 군관 500명 양성

이에 따라 다음날인 10월 10일 소련 주재 북한 대사인 주영하는 소련 외무성 제1부상인 A. 그로미코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만난 자리에서 소련 내에 대학 및 대학원 등에서 수학중인 모든 북한 학생과 기업 내 생산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북한의 기술자 총 669명을 소련 항공학교로 이적시켜 줄 것과 여학생 69명을 소련 무선통신학교로 보내 교육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련 육군상인 A. 바실레프스키는 김일성의 10월 9일 요청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스탈린에게 이미 제출하였다.[18] 그러나 김일성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스탈린의 결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

되었는데, 스탈린의 답변이 지연되자 김일성은 11월 16일 다시 스탈린에게 소련 영내에서의 조종사 양성을 포함한 공군력 증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다.[19]

① 소련 내 유학중인 조선 대학생들 중에 200~300명을 소련영토 내에서 조종사로 양성해 줄 것.

② 소련 영토 내에서 교육 받고 있는 조선인민군 조종사 119명 가운데 제트기 2개 연대와 폭격기 1개 연대의 편성을 위한 비행요원을 양성해 줄 것.

③ (북한) 현지에서 양성이 불가능한 항공기술자 90명과 습격기 조종사 30명의 소련 파견을 허용해 줄 것.

④ 1951년 1월 1일까지 이론 과정을 마칠 조선 조종사 170명의 항공실습을 위해 소련에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이러한 김일성의 요청은 전문 전달 과정의 착오로 11월 20일에야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스탈린은 전문 접수의 지연사실을 고지하면서 김일성이 동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군사령부에 하달하여 실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20]

① 만주 지역 옌지(延吉)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비행학교에서 조선 학생 중 200~300명을 조종사로 훈련시킬 것임. 추가로 양성되는 인원을 위해서는 소련교관이 지원될 것임.

② 2개 제트전투비행연대에 필요한 조종사는 만주에 있는 우리의 MIG-15기로 구성된 비행사단 중 1개 사단 내에서 훈련시킬 수 있음. 조종사가 훈련을 마치면 MIG-15기가 제공될 것임. 1개 폭격비행연대의 조종사 훈련은 연해주 소재 조선학교에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군수기재와 폭격연대용 Tu-2 또한 제공될 것임.

③ 우리는 연해주 소재 조선인 비행학교에 추가로 120명을 수용하여 항공 정비기술자와 습격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동의함.

④ 조선인 조종사들의 비행 실습 장소로는 그들이 훈련받게 될 만주나 연해주 지역이 더 나을 것임.

김일성이 북한공군 복원을 위해 소련 영토 내에서 조종사를 비롯한 전문 요원

들을 추가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스탈린은 기존 소련 영토 내에서 훈련받고 있는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소재한 옌지 소재 조선인 비행학교에서 북한공군 복원에 필요한 전문요원양성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관요원을 파견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11월 21일 스탈린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감사 서한을 전달했다.[21]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요청과 스탈린의 공식적인 승인 이전에도 소련의 북한 공군 인력에 대한 양성은 실시되고 있었는데 1950년 10월 26일 소련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중장 N. 로모프)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 10월 21일 이전 공군 관련 북한인 전문가 양성현황은 다음과 같다.[22]

① 조종사 비행교육 수료자(1950년 10월 14일 현재)

기 종	Yak-9	IL-10	PO-2	계
인 원	16	26	15	57

② 조종 훈련 중인 자는 총 270명으로 소련 연해주에 201명, 중국 옌지에 69명이며 1950년 10월 30일까지 훈련 종료 예정자는 연해주에서 훈련 중인 81명으로 기종별로는 La-9기 71명, Yak-9p기 10명임. 또한 연해주에서 훈련 중인 나머지 120명의 훈련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들 중 80명은 La-9기와 Yak-9p 조종사로, 40명은 IL-10기 조종사로 분류되었고 옌지에서 양성 중인 69명 중 60명은 추격기 조종사로, 9명은 폭격기 조종사로 분류될 것임.

③ 소련 내 북한 유학생과 소련 국적 조선인들 중 비행 및 기술 성원은 총 2,400명으로 이중 1,320명은 조종사로, 1,080명은 기술자로 양성 가능하며 이 인력은 2개 전투비행사단, 1개 폭격비행사단, 1개 습격비행사단의 구성이 가능한 병력임.

이로 볼 때 소련은 북한 공군의 복원을 위해 1950년 10월 이전에도 중국 옌지 비행장과 소련 연해주에서 조종사 및 기술요원을 양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소련의 북한 공군 복원 목표가 최소 2개 전투비행사단과 1개 이상의 폭격사단임을 엿볼 수 있다. 소련의 북한 공군 재편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슈티코프에

이어 1950년 11월 6일 소련 대사 겸 군사고문단장으로 취임한 라주바예프(B. H. Разуваев)에게로 이어졌다. 그는 2개 제트전투비행연대와 1개 폭격기연대의 창설과 이를 위한 북한 공군 구성원의 재교육에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였는데, 이와 관련 하여 그는 특히 소련 교관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소련 영토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영토 내의 조선인 학생들 중에서 비행사를 양성하는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23]

이러한 소련의 지원으로 북한공군은 1950년 11월 1일에 단둥(丹東) 기지에서 소련 고문관 페트라체프(Петрачев) 대좌의 지도아래 혼성비행사단을 창설하였고 사단장에는 이활(李闊)[24]이 임명되었다. 이 혼성비행사단은 Yak-9기 24대와 조종사 26명으로 구성된 추격기 연대와, PO-2기 6대와 조종사 14명, IL-10 조종사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IL-10기는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소련 고문관 페트라체프 공군 대좌는 소련군 총참모부에 IL-10기 25대와 PO-2기 10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25] 이로써 북한 공군은 궤멸 상태에 이르렀던 항공 전력을 소련의 지원으로 중국 땅에서 복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항공전력 복원과 더불어 북한군 지도부는 대공 방어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공포부대를 증설하였는데 1950년 11월까지 대공포 연대 1개, 독립 대공포 대대 10개, 대공기관총 중대 2개가 새롭게 창설되었다.[26] 이들 부대는 평양, 진남포(鎭南浦), 청진, 함흥, 원산 등 각 도시의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대공방어에 투입되었지만 이들 전력만으로 많은 수의 산업과 행정 중심지, 철도망, 교량 등을 국군과 유엔군 항공기의 대규모 공습으로부터 방호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새롭게 창설되어 전투력을 복원한 북한 공군은 중공군의 참전과 더불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는데 10월 14일 오전 04:00와 09:15에 PO-2기 2대가 김포비행장에 기습적으로 나타나 폭탄을 투하한 이래 10월 30일과 31일간에는 PO-2기를 이용하여 국군과 유엔군을 공격하였다.[27] 그리고 11월 1일에는 단둥기지 추격기 연대 소속 Yak-9 8대가 안주지역에서 전투임무를 띠고 출격하여 2대의 B-29와 F-51을 격추시켰으나 Yak-9 2대 또한 격추되었다.[28] 이후 북한 공군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25회 출격하여 염주, 선천, 정주 상공에서 유엔 공군과 공중전을

벌였으며 이들 지역에서 북한 지상군을 엄호하고 국군과 유엔군 지상부대에 대한 공습을 실시하였고 청천강상의 교량과 아군 집결지역, 기지, 도로 등을 폭격하여 아군의 군수물자 수송과 예비대의 진출을 저지하였다.[29] 또한 11월 24일부터 27일 동안 신의주, 강계, 안주, 평양 상공에서 미 공군과 공중전을 벌였으며, 청천강 지역에서 철수하는 아군 지상부대에 대한 공격임무와 비행장, 보급품창고, 열차 등에 대한 폭격임무뿐만 아니라 평양, 순천 일대에 전단 살포 임무도 수행하였다.[30]

이로써 미 공군의 압도적인 전력과 공중우세 확보로 자취를 감추었던 북한 공군은 소련군의 지원으로 옌지와 연해주에서 조종사, 기술자를 포함한 인원을 충원하고 Yak-9, PO-2와 같은 항공기를 지원받아 중국 단둥기지에서 혼성비행사단 창설과 함께 전투력을 복원하여 중공군의 지상전 개입과 더불어 중국 주둔 소련공군의 참전과 때를 같이하여 전투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중공군의 참전과 본격적인 소련공군 개입으로 압록강지역의 공중방호가 가능해지고 북한 서북부 압록강 지역이 안정화되자 북한 혼성비행사단은 11월에 신의주로 전개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31]

2. 소련 공군의 참전

1) 소련 공군의 참전의도와 목표

스탈린이 구상하고 있었던 소련군의 6·25전쟁 개입의 한계와 범위는 명백했다. 1950년 10월 8일, 마오쩌뚱의 중공군 파병결정이 내려지고 이틀 뒤인 10월 10일 중공군의 출병사실을 소련에 통보하고 출병에 따른 군사협력문제를 최종 마무리하기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저우언라이(周恩來)와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소련군의 참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스탈린은 북한이 처한 위험한 상황과 유엔군이 한·중, 한·소 국경에 이르렀을 때 중·소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면서

소련군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는 "소련은 조선과의 접경지역이 너무 좁고 이미 소련군을 조선반도로부터 완전히 철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부대를 파견할 입장에 있지 않다. 만일 그곳에 병력을 파견한다면 이는 미군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의미한다."며 6·25전쟁 개입으로 인한 미국과의 전쟁 확산을 우려하면서 "중국이 출병하면 소련은 충분한 무기와 전쟁 물자를 공급해 주고 동시에 공군을 출동시켜 동북(東北)지역과 북경, 천진, 상해 등 해안지역을 방어하고 북한지역 압록강 연안에 전개하는 중공군을 엄호하겠다."라고 하여 소련의 역할과 공군임무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였다.[32] 즉 소련군의 직접적인 참전은 공군에 한하며 공군의 임무 또한 중국 동북지방을 방어하고 북한지역 압록강 연안에 전개한 중공군을 엄호하는 것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탈린의 의도는 이전에도 명백히 드러났는데, 낙동강방어선에서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소련 군부 일각에서 제기된 수 개의 소련 탱크 사단을 투입하여 전투를 종결하자는 의견을 묵살했던 사실에서도 나타났지만 1950년 9월 말경 제기된 소련 전투비행연대의 평양 파견에 대해서도 동조하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이 한국에 위치한 미군비행장을 소련 공군이 폭격할 것을 자주 제안하였지만 이것이 미군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공군의 참전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스탈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33] 그리고 6·25전쟁이 전투행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휴전협상에 초점이 기울었던 시기인 1952년 6월 소련군 총참모부장 슈테멘코 장군의 명령에 따라 제64전투비행군단을 시찰했던 아갈쪼프 및 사비쯔끼 장군이 제출한 제64전투비행군단을 3~4개 사단으로 증편하여 소련의 공군력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소련 정치 지도부와 스탈린이 이 제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거부하였다.[34]

이러한 스탈린의 입장은 전쟁기간 내내 견지되었는데 소련 공군 비행활동을 소위 MIG 회랑(MIG Alley)이라 불리는 압록강과 강계, 덕천, 신안주, 선천, 신의주를 잇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제64전투비행군단의 전력을 2~3개 비행사단 규모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주둔 공군력을 교체 투입함으로써 소련 공군의 과도한 참전으로 인한 확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결국 소련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 주둔한 소련 공군 전력을 제한된 지역에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미국과의 대규모적이고 직접적인 지상교전은 북한군과 중공군에게 위임하고, 향후 공중전투에도 중국을 참전시킨다는 계획 하에 중국공군 조종사의 양성에 박차를 가했다.

2) 소련 공군의 중국 배치와 64전투비행군단 창설

1950년 8월 이후 유엔공군은 북한공군과의 공중전을 한 차례도 치르지 않은 채 한국 전장에서의 절대적인 공중우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중우세의 확보는 유엔공군의 활동에 제약이 없는 공군력 운용의 최적·최고의 조건 확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아 지상군의 전투 기동지역 확대와 아울러 기동자율성을 확보하는데도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한국군과 유엔지상군의 질주를 방불케 하는 진격속도는 유엔공군의 공중우세 확보와 이로써 가능해진 대량의 근접항공지원으로 수세에 있는 북한군에 대한 실질적인 병력살상과 함께 전투의지를 말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공군의 공중우세확보는 지상에서는 중공군의 참전과 함께 유엔지상군의 진격이 정지된 것처럼 중국 주둔 소련 공군의 참전으로 서서히 감세되어 나갔다.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성공과 함께 서울을 탈환하고 38도선을 위협하자 소련은 9월 말 경 전세를 극복하고 평양을 방어하기 소련 공군을 직접 평양으로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소련 연해주 스파스크(Спаск)기지에 배치된 제32전투비행사단 예하 제304전투비행연대를 평양 지역 비행장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보유 항공기 LA-9 40대와 함께 비행장 대공방어를 위한 85mm 대공포 3개 중대와 37mm 대공포 1개 중대로 구성된 대공포 1개 대대와 피·아 항적식별과 탐지를 위한 레이더 4대를 보유한 전파탐지기부대가 함께 파견되는 것이었다.[35]

이 부대는 10월 3일을 임무개시일로 맞추고 항공기는 공로로 10월 1일에서 2일

간에 이동을 완료하고 기타 인원 및 장비는 9월 25일부터 30일간에 철도편으로 연해주와 단둥을 거쳐 평양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평양으로 소련공군을 직접 파견했을 경우 노골적으로 소련의 6·25전쟁 개입을 공식화한다는 점과 전투기 40대로 구성된 비행연대 규모로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적처럼 하루에도 1,000여 회 이상의 유엔공군의 전투기로 지원을 받으면서 파죽지세로 북진을 감행하고 있는 국군과 유엔군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에 실행되지는 못했다.[36]

이러한 이유로 북한으로의 소련 공군의 직접파견이 곤란하게 되자 스탈린은 소련군의 직접개입 사실이 공개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미국과의 확전 가능성을 포함한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련군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모든 지원은 중국을 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6·25전쟁기간 동안 이루어진 소련 공군의 참전과 모든 지원은 중국 주둔 소련 공군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련 공군이 중국에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대만이 보유한 공군력에 대한 불안과 대만 침공 시 공군력의 유용성을 인식한 중국의 지휘부가 요청한 중국 공군력 건설 지원요청을 스탈린이 승인한 1949년 10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37] 스탈린의 승인이 있은 후 2주 후에 프루트코프(M. Prutkov) 공군소장을 단장으로 23명의 고위장교로 구성된 소련 공군 고문단이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것이 최초로 이루어진 소련공군의 중국주둔이다. 이들 고문단은 향후 중국 공군력 건설의 기초가 될 조종사를 포함한 각종 항공전문가를 양성할 비행학교를 운영할 책임자들과 교관, 기술전문요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련 공군의 중국 주둔은 1950년 3월 7일 배티츠키(Pavel F. Batitskiy) 공군중장이 지휘하는 제106요격비행사단이 상하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인원과 전투장비가 완비된 명실상부한 소련공군의 중국주둔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38] 소련 제106요격비행사단은 MIG-15기 40대와 La-2기 40대, IL-10기 56대, Tu-2 폭격기 2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106요격비행사단 다음으로 중국에 전개한 소련 공군비행부대는 제151전투비행사단으로 1950년 7월 21일 소련 내각회의의 중국 파견 결정에 따라 8월 4일 중국 선양기지로 전개하였다.[39] 제151전투

비행사단(사단장 : 벨로프 소장)이 중국으로 파견되기 이전인 7월 13일 스탈린은 중국 지도부(마오쩌뚱, 저우언라이)에게 보내는 전문에서 중국이 9개 사단을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소련은 이 부대들을 엄호하기 위해 124대의 제트전투기로 편성된 비행사단을 중국에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2~3개월 동안 중국 조종사를 훈련시켜 중국에게 모든 장비를 전달할 것임을 천명하였다.[40]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은 120대의 MIG-15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퉁화(通化), 테링(鐵嶺), 랴오위안(遼原), 단둥지역에 집결된 중공군 제13병단을 엄호하고, 중국군 조종사를 양성한 후 물자와 장비를 중국군에게 인도하여 중국 공군전투비행대로 전환하는 것이 파견 목적이었다. 그러나 1950년 8월 27일 미 공군 제67폭격비행단 소속 F-51 2대가 중국 국경을 넘어 공습을 감행하여 중국 주민 거주지 및 철도역에 대한 기총소사를 실시한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군 엄호를 위한 전투임무를 즉각 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41]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9월 13일 소련 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여순 지역에서 전투비행대를 강화할 것과 1951년 2월 1일까지 중국조종사의 교육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42]

이로써 소련 공군의 6·25전쟁 참전은 지연되었고 중국 동북지역의 공군전투력 강화와 중국 공군 확대를 위한 조종사 양성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중공군의 엄호와 점증하는 북한 지도부의 공군지원요청에 부응하고자 소련 공군전투부대의 중국 영내 파견을 지속하게 된다. 이로부터 1950년 12월 말까지 소련이 중국으로 파견한 공군부대는 총 14개 비행사단으로 세부 사항은 <표 8-4>와 같다.

<표 8-4> 중국 주둔 소련 공군부대 현황(1950. 12. 31 기준)

부 대	항공기 보유/기종	병 력	주둔지	중국 도착일	지 휘 관
제64전투비행군단/ 제81통신중대		123	선양(瀋陽)	'50.11.27 창설	소장 벨로프
제17전투비행사단	62/MIG-9	1,304	선양	'50.11.20	대좌 필립포비치
제20전투비행사단	62/MIG-9	1,308	탕산(唐山)	11. 19	대좌 레온티에비치
제50전투비행사단	62/MIG-15	1,295	안산, 단둥	11. 20	대좌 A. A. 바실리예비치
제65전투비행사단	62/MIG-9	1,317	광저우(廣州)	12월	대좌 스테파노비치
제144전투비행사단	62/MIG-9	1,288	상하이(上海)	11. 19	대좌 N.A. 이바노비치
제151전투비행사단	62/MIG-15	2,000	선양	8. 10	중좌 야코블레비치
제28전투비행사단	62/MIG-15		칭다오	11. 1	대좌 P. A.바실리예비치
제297전투비행사단	62/La-9	984	지린(吉林), 하얼빈 (哈爾濱)	12. 18	대좌 표도로비치
제324전투비행사단	62/MIG-15	1,312	동펑(東鳳)	12. 23	중좌 니키토비치
제328전투비행사단	62/MIG-9	1,317	베이징	11. 14	대좌 안토노비치
제309전투비행사단	62/MIG-9	1,318	군추린	12. 10	중좌 아그나티예비치
제186습격항공사단	62/IL-10	1,761	카이위안 (開原)	11. 25	대좌 그레고리예비치
제846습격비행사단	30/IL-10	?	쉬저우(徐州)	11. 20	?
제162폭격비행사단	62/TU-2	1,479	스피이가이	12월	대좌 P.M.이바노비치
계	372/MIG-9 248/MIG-15 62/La-9 92/IL-10 62/TU-2	16,806			

그러나 중국에 전개된 모든 공군 부대가 전개와 함께 6·25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소련은 우선적으로는 급박한 전세 회복과 함께 10월 말부터 교전을 시작한 중공군 지원을 위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향후 지속되는 공중전투 수행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11월 15일 소련군 총참모장의 명령에 따라 한국 전역(戰域)을 책임질 군단 규모의 전투비행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고 1950년 11월 27일 제64전투비행군단(Fighter Aviation Corp)을 창설하였다.[43] 이로써 6·25전쟁에서 소련공군의 운용을 책임질 제64전투비행군단이 창설되었는데, 제64전투비행군단은 창설 이후 예하 연대의 주둔 기지를 전투작전지역으로 근접시키기 위해 기지재배치를 실시하였는데 창설 당시 편성은 <표 8-5>와 같다.

<표 8-5>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의 예하부대 편성

구 분	보유량/항공기	주둔기지 (11.27일 기준)	기지 재배치 (일자)	지 휘 관
제64군단		선양(瀋陽)		소장 벨로프
제151전투비행사단		선 양		중좌 사포즈니코프 A. Y.
28전투비행연대	30/MIG-15	선 양		소좌 콜랴딘 V. I
72전투비행연대	30/MIG-15	안산(鞍山)	선양북부기지 (12.7)	중좌 볼코프 A. I.
제50전투비행사단		상하이(上海)		대좌 파쉬케비치 A. B
177전투비행연대	30/MIG-15	안 산	단둥(丹東) (12.25)	중좌 티렌티예프 B.
29전투비행연대	30/MIG-15	안 산	단둥(12.3)	소좌 비리치 D. B
제28전투비행사단		랴오량 (遼源)		대좌 알렐류힌 A. B
139전투비행연대	30/MIG-15	랴오량		중좌 톨카체프 P. D.
67전투비행연대	30/MIG-15	랴오량		중좌 젬추코프 P. N.
총 계	**180/MIG-15**			

1950년 12월 15일 중국 공군조종사에 대한 교육을 종료한 제28전투비행사단은 중국 제4전투비행단에게 항공기를 인계하고 제64전투비행군단의 편제에서 이탈하여 칭다오(青島)로 기지를 옮겼고, 이를 대신하여 12월 25일 제176, 196전투비행연대(연대 별 MIG-15 30대 보유)를 예하부대로 보유한 제324전투비행사단이 동펑(東鳳) 기지에 도착하였다.

소련 총참모부로부터 제64전투비행군단에게 부여된 기본 전투임무는 "선양, 안산, 단둥, 지안, 동펑 지역에서 미 공군의 공중타격과 공중정찰로부터 정치, 행정 및 경제중심, 산업시설, 철도거점, 교량, 군대집결지 그리고 다른 중요한 대상들을 엄호하고, 압록강 교량과 단둥 지역 발전소의 엄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이었으며, 작전 범위는 최초 압록강까지 규정되었으나 11월 6일 이후부터는 북한 지역으로의 진입이 허용되었다.[44]

또한 예하 각 사단별로 세부임무가 부여되었는데 먼저 12월 3일 비행군단에게 하달된 "북조선에서 중국의용군 주력의 후방, 특히 안주와 사타항기(Сатахянги) 계선까지의 보급로 엄호" 임무는 다른 비행사단의 소속기지가 작전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함으로 인해 12월 3일 작전구역에 인접한 단둥으로 전개한 제50전투비행사단 예하 제29전투비행연대에 주어졌고, 제28, 151전투비행사단과 제50전투비행사단 예하 177전투비행연대는 기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비행군단의 2제대 전력으로 자체 지역의 경계 내에서 미 공군의 대대적인 공습의 격퇴와 공중전에서 제29전투비행연대의 예비전력으로서 대기태세를 유지했다. 그리고 제28, 151비행사단에게는 전투임무 이외에도 중국 조종사 및 항공기술 전문가 양성이라는 부가업무가 부여 되어 각 사단은 사단 내에서 비행교관 및 유능한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1개 대대를 편성하여 이 임무를 담당시켰다. 제28비행사단은 중국 공군 제4전투비행사단에 대한 재교육을 12월 12일까지 완료하였고, 제151비행사단은 1951년 1월 10일까지 중국 공군 제3전투비행사단의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12월 25일 동펑에 전개한 제324전투비행사단에는 북한 공군에 대한 재교육 임무가 부여되었고 교육은 1951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26일 제50전투비행사단에 특별한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1950년

1월 10일까지 중국 제4전투비행사단 소속 조종사들을 전투대열에 편성하여 2~3차례 전투비행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45] 이는 중국공군 조종사들에게 실제 전투를 체험하게 하고 전투기량을 습득하게 하여 중국공군의 6·25전쟁 조기 참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1950년 12월 하순부터 1951년 3월 초까지 중국공군 제4전투비행사단 예하 제10, 12비행연대가 안둥(安東)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 제50비행사단에 파견되어 소련조종사와 함께 전투임무에 참여하였다. 최초 12월 21일 제10비행연대 예하 28비행대가, 1951년 1월 17일에는 제10비행연대 소속 제29, 30비행대가 파견되었으며, 1951년 2월 2일에는 제12비행연대가 제10비행연대를 교체하여 안동으로 파견되었고 제10비행연대는 모기지인 랴오량(遼陽)으로 귀환하였다.[46] 1950년 12월 28일 중국공군 조종사가 최초의 실제 전투임무를 위해 안주 상공으로 소련 MIG-15기 2대와 함께 출격하였으나, 유엔공군 전투기와 조우 없이 귀환하였고 12월 중 전과는 없었다.

제64전투비행군단은 이후 예하부대를 교체하면서 정전 시까지 전투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는 임무부대를 교체함으로써 전투력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모의 참전으로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3) 소련 공군의 활동

1950년 11월 1일은 6·25전쟁 공중전 역사상 기억될 만한 날이다. 왜냐하면 이날은 1950년 7월 이후 약 4개월 간 완벽한 공중우세 속에 남·북한 상공을 거침없이 비상하던 유엔 공군이 중국에서 이륙한 북한공군 및 소련 공군과 조우하여 전투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아침에는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군혼성비행사단 소속 Yak-9기 8대가 출격하여 북한 안주(安州)상공에서 미 제452비행단 소속 제730폭격대대 B-26기와 T-6 모스키토기를 공격하여 이를 엄호하던 제18전대 소속 F-51(Mustang)기와 교전하였다.[47] 그리고 이날 오후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 예하 제72비행연대(안산)와 제28비행연대(선양) 소속 각 연대별 MIG-15 8대가 출동하여 미 공군과 6·25전쟁 중 최초의 공중 전투를 벌였고 전투결과 F-82 2대를

격추하였다.[48]

이러한 소련공군의 전격적인 참전은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것이었다. 스탈린은 10월 13일 마오쩌뚱(毛澤東)의 출병 재확인 결정이 날 때까지도 중국에게 소련공군의 지원과 엄호를 약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10월 10일 저우언라이와 회담에서 강조한 "소련공군의 참전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기간은 2~2.5개월이 소요된다."[49]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 때문에 중공군의 북한 지역 진입 시기는 2차례나 변경되어 최초 '10월 15일 압록강 도하' 계획은 결국 '10월 16일 선발대 투입'에 이어 '10월 19일 본대 압록강 도하'로 변경되게 되었다. 스탈린의 약속대로라면 소련공군의 6·25전쟁 참전은 해를 넘겨 1951년 1월에야 이루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당초의 결정과는 달리 10월 17일 소련 공군부대의 6·25전쟁 참가를 허락했고,[50] 11월 1일 소련공군은 북한 안주와 신의주 상공에서 미공군기와 최초의 교전을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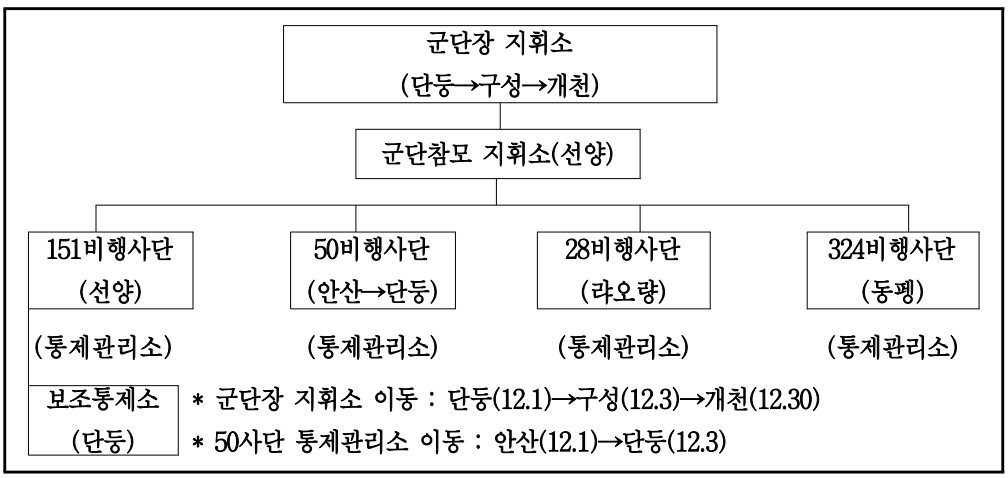
스탈린이 당초의 결정을 번복하여 소련공군의 조기 참전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0월 13일 마오쩌뚱의 '중국 인민지원군' 파병 결정 재확인에서 보듯이 중국의 결연한 참전의지와 신속한 참전에 따른 스탈린의 심경변화 가능성이다. 마오쩌뚱은 10월 13일 출병재확인을 위한 회의에서 공군지원에 대한 스탈린의 약속위반과 공군지원 없이 싸우게 된 '중국인민지원군' 지휘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 참전은 가장 큰 보상이 될 수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51]라며 중공군 개입으로 인한 전세변화에 대해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중공군이 참전하자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유엔 공군이 중국과 북한을 잇는 압록강 상의 교량과 철교, 그리고 북한 내 주요 도로망에 대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중공군은 주간에는 활동의 제약을 받아 주로 야간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약 소련공군의 지원 없이 참전한 중공군이 초기 전세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이전의 합의를 깬 스탈린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10월 8일 미 공군 제49폭격전대 소속 F-80전폭기 2대가 소련 영공을 침범하여 블라디보스토크 남서쪽 35km에 위치한 소련 제5함대 비행장 '수하야 레츠카'를 공격, 기총소사로 비행기 1대를 전소시키고 6대에 대해 손상을 입힌 사건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0월 10일 소련정부는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이를 미국에 항의하였고, 소련의 항의에 대해 미 공군은 제49폭격전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조종사 2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후속조치를 단행하였다. 중국이 6·25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미 공군의 중국지역에 대한 오폭사례를 국제사회에서 공개 비난함으로써 개입의 구실을 만든 것처럼[52] 이 사건은 소련 공군 참전의 국제적 명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전투 통제를 위해 지휘소와 통제관리소, 보조통제소를 작전지역에 <그림 8-6>과 같이 배치하였다. 군단 지휘소는 무선을 통해 각 사단지휘소를 통제하였으며 군단에는 1개, 사단에는 2개의 무선통제소가 설치되었고 이들 무선통제소비는 만족할 만큼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53]

<표 8-6>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 지휘소 및 통제관리소(1950년 12월)



참전 초기 소련 공군기들은 당시 전쟁에 참전하고 있던 미군 전투기 주력기종인 F-51과 F-80에 비해 전투기동능력과 무장에 있어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중전에서 우세를 보였다.[54] 11월 1일부터 소련공군은 중공군의 압록강 도하를 저지하고, 북한지역에 진입한 중공군 13병단과 접전을 벌이고 있는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엄호작전과 북한군의 전투력 복원 및 후방지원 능력 말살을 위한 도심지역 폭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유엔 공군에 대항하여 중공군을 엄호하고 전략 지역을 방어하는 기본임무에 전력을 다하였다.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련 공군은 유엔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B-29 12대를 포함하여 총 46대의 유엔 공군기를 격추시켰다.[55] MIG-15기의 출현으로 인해 유엔공군이 이전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완전한 공중우세가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연한 결과로 유엔공군은 기존의 공중전술을 변경해야만 했다.

유엔 공군은 우선 F-51, F-80과 같이 MIG-15기에 비해 전투기동능력이 떨어지는 항공기들은 공중전을 회피하도록 했고, 12월 6일 F-84(Thunder-Jet)가 대구기지에서 첫 임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압록강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나 정찰기에 대해 엄호기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다수의 F-80이 엄호비행을 해야했다.[56] 이러한 유엔공군의 위축된 전술 활동은 12월 15일 MIG-15기와 대등한 성능을 지닌 F-86(Sabre-jet)이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유엔공군의 작전은 이전보다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었다.

소련 공군은 전투임무 시 최소 8기 1편대 기준으로 전력을 구성하였고 상대방의 전력구성과 임무중요도에 따라 편대를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이 사용한 전술은 상승고도가 높고 최대속도와 상승속도가 높은 MIG-15기의 기동능력을 최대한 살려 중국지역에서 이륙하여 8기 1편대, 2~3개 편대로 유엔 공군의 엄호기보다 높은 고도에서 대기하다가 태양을 등지고 상대를 공격한 후 다시 고도를 높여 압록강을 달아나는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유엔 공군 조종사들을 괴롭혔다.[57] 그러나 이러한 작전수행 간에도 그들의 임무지역과 공역은 철저히 준수되었는데 북한지역에서의 임무고도는 약 18,000~24,000ft(6천~8천m), 작전반경은 기지로부터 100km(대대 전술적 행동반경)로 제한되었고 이를 위해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하지 않고 출격하였다.[58]

<표 8-7> 6·25전쟁 참가 제트전투기의 성능 및 제원(1950년 12월 기준)

기 종		성 능 / 제 원	
MIG-15		• 중 량 : 13,327 lbs.	• 상승한도 : 51,000 ft.
		• 최대속도 : 670 mph.	• 상승속도 : 42~46(m/sec)
		• 항속거리(NM) : 1,156	
		• 무장 : 기관포 23밀리 2문 , 37밀리 1문, 로켓/폭탄 2,000 lbs.	
F-80		• 중 량 : 16,856 lbs.	• 상승한도 : 45,000 ft.
		• 최대속도 : 580 mph.	• 상승속도 : 23(m/sec)
		• 항속거리(NM) : 1,380	
		• 무장 : 기총 12.7밀리 6문, 8×5인치 로켓, 폭탄 2,000 lbs.	
F-84		• 중 량 : 15,227 lbs.	• 상승한도 : 43,240 ft.
		• 최대속도 : 620 mph.	• 상승속도 : 29(m/sec)
		• 항속거리(NM) : 1,485	
		• 무장 : 기총 12.7밀리 6문, 8×5인치 로켓 , 폭탄 2,000 lbs.	
F-86		• 중 량 : 13,791 lbs.	• 상승한도 : 49,000 ft.
		• 최대속도 : 685 mph.	• 상승속도 : 35(m/sec)
		• 항속거리(NM) : 1,200	
		• 무장 : 기총 12.7밀리 6문, 8×5인치 로켓 , 폭탄 2,000 lbs.	
F-2H		• 중 량 : 14,234 lbs.	• 상승한도 : 48,500 ft.
		• 최대속도 : 586 mph.	• 상승속도 : 23(m/sec)
		• 항속거리(NM) : 1,200	
		• 무장 : 기총 20밀리 4문, 폭탄 1,000 lbs.	
F-9F2		• 중 량 : 19,494 lbs.	• 상승한도 : 44,600 ft.
		• 최대속도 : 526 mph.	• 상승속도 : 31(m/sec)
		• 항속거리(NM) : 1,353	
		• 무장 : 기총 20밀리 4문, 로켓 및 폭탄 2,800 lbs.	

195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이 총 1,079회를 출격하여 거둔 전투성과는 유엔 공군기 68대를 격추하고 MIG-15기는 9대만이 손실을 입어 소련공군과 유엔 공군의 항공기 손실은 약 1:8의 비율을 보였다.[59] 그러나 소련공군은 이와 같은 외형적 작전 성과에도 불구하고 1951년 1월 초, 제64전투비행군단은 전투 활동 보고서를 통해 1950년 11월과 12월의 작전성과를 평가하면서 북한지역 내의 철도와 도로, 행군 중인 부대들에 대해 공격을 벌이는 유엔 공군에 대항하여 이들 목표들에 대한 방어는 부분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실패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60]

<표 8-8> 제64전투비행군단 전투 활동 결과(1950. 11~12월)

구 분		11월		12월	총 계
		제28전투 비행사단	제151전투 비행사단	제50전투 비행사단	
전투출격횟수		151	251	677	1,079
편대 공중전 횟수		7	18	33	58
유엔기 손실	B-29	6	1	5	12
	RB-45			1	1
	F-47	2			2
	F-51	1	8		9
	F-80	7	4	11	22
	F-84		2	8	10
	F-86			12	12
	계	16	15	37	68
소련기 손실	조종사	2	1	4	7
	MIG-15	2	1	6	9

① 주둔기지와 작전지역간의 이격으로 인한 작전지연 : 제50비행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단둥기지를 제외하고 제28(랴오량), 151사단(선양)의 주둔기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전투지역 도착지연으로 신속한 대응 미흡

② 무선 및 통신장비의 미비로 인해 적기에 대한 탐지·추적 및 유도체제와 전술 통제가 미흡하여 아군의 '공회전 출동' 비율 증가 : 출격 후 적기와 조우하여 전투를 벌이는 전력 외에 적기를 발견하지 못해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61]

③ 강도 높은 출격으로 조종사들의 피로도 심화 : 1950년 11월~12월간 조종사 개인별 출동횟수는 122회로 출동일수를 고려할 때 1일 3회 이상의 높은 출동횟수로 이로 인해 제29전투비행연대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평균 10~13명이 비행에서 제외되었고 12월 평균은 7명이었음.

그러나 제64전투비행군단은 자체평가를 통해 위에 제시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지역 내에서 비행군단의 기본임무인 '단둥지역의 도하시설과 발전소,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의 다른 목표물들을 방호하는 것'은 모두 완수되었고 이로 인해 기간 내 유엔공군이 이들 목표물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병행하였다.

제 3 절 유엔 및 한국 공군작전

1. 유엔 공군 전력강화 및 재배치

1) 전력강화

개전 불과 이틀 뒤인 6.27일부터 6·25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한 미 공군은 점진적인 부대 증편과 이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진작전이 시작되면서 수송기와 폭격기를 제외하고 일본에 주둔했던 F-51과 F-80전투기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전개시켜 보다 적시 적이고 신속한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주둔 소련 공군의 MIG-15기 출현과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인해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장군은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로 MIG-15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되었다. 이에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미 공군에 F-84E(Thunder-jet) 전폭기 2개 비행단을 미 극동공군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공군참모총장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대장은 F-84E 1개 비행단과 F-86A(Sabre-jet) 1개 비행단을 25일 이내에 극동공군에 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이를 즉각 수락하였다. 11월 9일 미 공군은 델라웨어 주(Delaware State) 뉴캐슬(New Castle) 공군기지에 주둔중인 동부 방공군 소속 제4전투요격비행단(F-86A, Fighter-Interceptor Wing)[62]과 텍사스주(Texas State) 벅스트롬(Bergstrom) 공군기지에 주둔중인 전략사령부 소속 제27전투엄호비행단(F-84E, Fighter-Escort Wing)[63]에 일본으로 긴급히 전개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는 12월 13일 요코스카(横須賀)항에 마지막 탑재분이 도착하였다. 일본에 먼저

도착한 제27전투엄호비행단 소속 F-84E는 이다쯔게(板付)기지를 후방기지로 삼고 대구기지로 전개하여 12월 6일 한국전에서 최초 임무를 수행했으며, 제4전투요격비행단은 일본 도쿄(東京) 근처 존슨(Johnson)기지에 후방기지를 두고 12월 15일 F-86A 7대를 김포에 파견하여 최초 임무를 수행하였다.[64] 이와는 별도로 8월 10일 동원령이 내려짐에 따라 캘리포니아 롱비치(Long Beach)에 주둔 중이던 제452동원비행단(Air Mobility Wing)[65]이 전력화 된 제452폭격비행단(B-26 보유) 선발비행대가 10월 25일 일본 이다쯔게 기지에 도착하여 10월 27일부터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본진은 11월 16일에 도착하였다.

두 번째로 시급한 전력증강이 요구되는 것은 11월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공수요구량으로 인한 공수 전력이었다. 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전선이 길어지기도 했지만 일본에 도착된 각종 장비와 지원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지상 및 해상수송로가 모두 막혀 있어 공중수송 의존도는 급격히 증대되어 갔다.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육상 수송로는 거의 파괴되었고, 더욱이 북한지역에 겨울이 다가와 도로가 결빙됨에 따라 육상수송로는 거의 불통상태였으며 또한 모든 항만에 기뢰가 부설됨에 따라 수송선의 접근이 곤란하여 해상수송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병참상의 이유로 11월 6일부터 약 2주간 유엔군은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 맥아더 사령관은 “유엔군의 작전지연은 전적으로 병참선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미 합참에 보고했다.[66] 또한 중공군의 참전으로 적의 저항이 맹렬해지자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제2, 25사단으로 구성된 미 제9군단을 북동부 전선에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미 제8군에게만 할당해야 할 1일 공수량이 1,500톤에 이르렀다.

또한 미 제5공군사령관인 패트리지(Earle E. Partridge) 소장은 중공군에 대한 공격과 국군과 유엔 지상군 엄호를 위해 F-51전투기를 북한지역으로 배치하여 신의주 상공에서 공중초계를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기경보 레이더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였고 이를 위해 제5공군에 할당된 1일 450톤의 공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7월 31일 미 극동공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미 시카고(Chicago) 오헤어(O'Hare)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437공수비행단

소속 C-46 수송기는 11월 8일 일본 큐슈(九州) 브래디(Brady) 기지에 도착하여 36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왕복 공수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스트레이트메이어 극동공군사령관과 전투공수사령부(FEAE Combat Cargo Command) 터너(William H. Tunner) 사령관은 한국에서의 기지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많은 수의 수송기를 증가하여 비행장을 복잡하게 하기 보다는 한국지형에 적합하고 장거리 수송이 가능한 C-54(Skymaster) 수송기 가동시간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조종사를 포함한 인력과 장비증원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11월 하순 조종사 22명과 정비사 279명이 도착하여 제374수송비행단의 C-54 수송기 2개 대대의 가동을 기당 1일 8시간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33% 수송능력을 신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조치로 급증하는 공수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11월 21일 미 공군에 추가적인 C-54의 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미 제61수송전대 소속 제4대대가 워싱턴 맥코드(McChord) 공군기지에서 12월 10일 일본의 아시야(蘆屋)기지로 이동하여 3일 뒤에 흥남지역에서 고립되어 있는 유엔군에게 탄약과 보급품, 장비를 공수하였고 일본으로 돌아올 때는 부상병을 후송하였다.[67] 이러한 조치와 아울러 11월 중순부터 진남포항이 사용가능하게 되고 평양으로의 철도가 복구되자 미 제8군에 대한 육상과 해상수송이 가능해지면서 미 제8군의 공수요청이 감소되어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의 작전운용은 다소 여유를 찾게 되었다.

한편 1950년 8월 4일에 6·25전쟁에 공군 1개 전투비행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이 11월 16일 부산 수영기지(K-9)에 도착하여 11월 19일 미 공군과 함께 최초 출격하였다. "날으는 표범(Flying Cheetah)"으로 호칭된 남아프리카연방 공군 제2대대는 49명의 장교와 157명의 사병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일본 존슨(Johnson) 기지에 도착하여 F-51기로 기종전환 훈련을 수행하였으며 미 제18전투폭격비행단에 편입되어 11월 22일 평양 미림기지(K-24)로 전개하여 작전에 임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C-47수송기 9대와 장교 67명, 사병 27명 규모의 그리스(Greece) 공수비행단 제13전대 예하 수송대가 11월 11일 그리스를 출발한지 약 58시간 만에 일본의 이다쯔게(板付) 기지에 도착

하였고, 이들은 미 제374공수비행단 예하 제21공수대대에 배속되어 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2) 부대 재배치 및 후퇴

1950년 11월 초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소장은 북한 북부지역에서 전선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MIG-15가 출현하자 지상군에 대한 신속한 근접지원작전 및 엄호와 신의주 상공에서의 공중초계를 통해 MIG-15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F-51의 북한지역 배치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패트리지 장군의 이러한 구상은 그동안 급증하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의 공수요구 충족을 위해 지연되었으나 미 제10군단이 원산과 이원을 점령하고, 진남포항 개설과 함께 평양으로의 철도 개통이 이루어져 공수 수요가 감소하자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

먼저 단둥에서 이륙해오는 MIG-15기의 항적을 포착하고자 조기경보레이더 부대인 제606항공관제경보대대가 육로와 공로로 신안주 비행장(K-29) 근처로 이동하여 11월 21일부터 레이더 운용을 시작했으며, 제6150전술지원비행단은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포항에서 연포(K-27)비행장으로 이동하였고, 제35전투요격전대와 호주공군 제77대대 또한 포항에서 작전 중 11월 17~19일 사이에 연포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11월 22일 제6002전술지원비행단과 제18전폭전대, 남아프리카연방 공군 제2대대가 평양 미림비행장(K-24)에 전개하였으며 제18전폭전대 소속 F-51기 대부분도 미림비행장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11월 7일 제6131전술지원비행단의 선발대가 평양비행장(K-23)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11월 25일 주력부대가 이동을 완료하였고 제8전폭전대는 11월 25일 F-51전폭기 2개 대대를 평양기지에 전개하였다. 이들 부대의 이동은 대부분 공수에 의존하였으며 중장비는 김포에서 진남포로 해상 수송되었고 차량은 육로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미 제5공군은 11월중에 8개 F-51전폭기 대대를 북한지역에 전개함으로써 작전거리를 단축하여 북한 북부 지역에서 중공군과 대치한 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나, 전세 악화로 얼마 되지 않아 다시금 철수준비를 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한편 일본 이와쿠니(岩國)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폭격사령부 예하 제3폭격전대 소속 B-26 16대가 11월 17일 대구로 전개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극동공군사령관과 제5공군 사령관은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을 고려하여 이전부터 고민해 오던 미 제5공군의 지휘체계 이원화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였다. 즉 일본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제5공군 전투부대를 한국전에 참가시킴으로서 한국에는 패트리지 사령관과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부사령관이 지휘하는 제5공군 전방사령부가, 일본에는 일본주둔 전투부대와 지원부대를 관할하기 위한 스피베이(Delmar T. Spivey) 준장이 지휘하는 후방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각종 행정상의 공백발생과 함께 두 개의 사령부간 임무분담이 명확치 않아 혼선이 초래되었고, 특히 패트리지 사령관의 과도하게 넓어진 지휘 폭으로 인해 효율적인 지휘가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68]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11월 18일 일본 나고야(名古屋)에 항공사단지휘소를 편성하는 방안을 미 공군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12월 1일 나고야에 제314항공사단을 편성하고 스피베이 준장을 사단장으로 임명하고 다음 3가지 임무를 부여하였다.

① 일본 영공방어

② 주일 미 공군에 대한 군수지원과 한국에서의 전술항공작전에 필요한 병참지원 제공

③ 일본 내의 비행장 건설 공사

또한 이와 동시에 12월 1일 그간 임시편제로 미 공군의 정식편제에 올라있지 않았던 한국에 전개된 전투부대에 대한 개편명령을 하달하여 정규부대로 승격시켰는데, 그 내용은 <표 8-9>와 같다. 이러한 정식편제로의 승격은 부족한 인원과 장비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던 한국 전개 전투부대에 인원과 장비의 획득을 용이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전시편제를 기준으로 인원과 장비 획득을 가능케 한 것으로, 향후 장기화될 전쟁국면을 대처하는 기본적인 조치였다.

<표 8-9> 한국 전개 전투부대의 재편성(1950. 12. 1)

구 편성	신 편성	주둔 기지
제6002전술지원단	제18전폭비행단	이다쯔게(板付)
제6131전술지원단	제8전폭비행단	일본 존슨(Johnson) 기지
제6149전술지원단	제49폭격비행단	요코타(横田) 기지
제6150전술지원단	제35전투요격비행단	미자와(三澤) 기지
제6133전술지원단	제3폭격비행단	이와쿠니(岩國)

11월 24일 야심차게 시작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작전 개시 3일 만에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좌절되자, 맥아더는 미 합참에 미 제8군의 공세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고하면서 "중공군이 대병력으로 그리고 어느 때보다 강력한 병력으로 북한에 투입"되었으며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전쟁(an entirely new war)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69] 또한 이날 저녁 비밀리에 일본 도쿄 주일 미 대사관 내 맥아더 장군의 관저에서는 미 제8군 워커 사령관,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 극동 해군사령관 조이 제독,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 및 다수의 장성급 참모가 모여 미 제8군은 중공군에 의해 측방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남쪽으로 철수하며, 제10군단은 함흥-흥남지역으로 철수해야 된다는 결론을 짓고 회의를 마쳤다.[70] 결국 12월 1일 맥아더는 유엔군과 국군에 대해 38도선 이남으로의 철수를 명했다.

지상군의 철수결정은 매우 긴급히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유엔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과 엄호임무를 수행하던 미 제5공군은 북한 지역에 전개한 부대들의 철수를 위한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는 신안주(新安州) 비행장 근처에서 적 항공기의 조기경보와 아군 전폭기의 유도·통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606항공관제경보대대(Aircraft Control & Warning Squadron)의 레이더를 비롯한 장비 상실이었다. 11월 29일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3시간 이내에 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대장은 시간이 촉박하고 수송차량이 부족하자 인원부터

우선적으로 철수할 것을 결심하고 레이더를 포함한 주요 장비들을 파괴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길버트 마이어스(Gilbert Meyers) 제5공군 작전참모차장은 "15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트럭 몇 대가 없어 손실되었다."라고 아쉬워했다.[71] 그러나 평양근처에 전개했던 제6132항공관제경보대대는 평양에서 아무런 장비손실 없이 대구로 철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 때문에 북한지역에 전개했던 전투부대들은 공중과 육상수송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신속히 철수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북한지역으로 지상군지원과 엄호를 위해 11월 중·하순에 걸쳐 전개했던 F-51전폭기 대대의 철수였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미림(K-24), 평양(K-23), 연포(K-27)기지에 전개하여 제대로 된 작전을 펼치기도 전에 후퇴를 결정해야 했는데, 우선 평양비행장에 11월 25일 주력부대를 전개시켰던 제8전폭비행단은 적의 공중공격이 시작되자 11월 29~30일간 전방제대가 철수를 시작하였고 12월 3일 후속제대가 완전히 서울 여의도(K-16,)기지로 이동하였다.[72] 그러나 서울이 적으로부터 위협받자 제8전폭비행단은 기종 전환 계획에 따라 F-51전폭기를 제18, 35전폭비행단에 인계하고 12월 10일 일본 이다쯔게 기지로 이동하여 12월 31일 3개 F-80전폭기대대를 인수 받아 기종 전환을 완료하였다. 또한 미림기지에 11월 22일 부대를 전개시켰던 제18전폭비행단은 12월 1일 아침 C-119수송기로 병력과 보급품 등을 적재한 후 철수를 시작하여 12월 4일 수원비행장(K-13)으로 철수를 완료하였다.

수원비행장으로 이동한 제18전폭비행단은 12월 중순 전황이 불리해지자 다시 철수명령을 받아 진해기지(K-10)로 이동하였다. 한편 제18전폭비행단과 함께 평양비행장에 주둔하고 있던 제822공병대대는 장비의 대부분을 철도 무개화차에 적재하여 철수할 계획이었으나, 평양 조차장에서 출발 전에 탄약을 실은 화차가 폭발하여 철도가 마비되자 보유 장비의 약 75%인 트럭 185대 분량의 시설장비와 보급물자를 폐기해야만 했다. 이날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822공병부대의 전사에는 "땀과 눈물은 많이 흘렸으나 피는 흘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73] 제822공병대대는 12월 중순 다시 김해기지(K-1)로 이동하였다.



평양비행장(K-23)에서 철수할 수 없는 보급품을 태우고 있는 미 공군

미 제5공군 전투부대 중 가장 빠른 11월 19일 주력부대 전부를 연포기지에 전개했던 제35전투요격전대와 예하 2개 대대(제39, 40대대)는 12월 3일 부산으로의 철수를 명령받고 해군 수송함 편으로 부산 수영기지(K-9)로 철수를 완료하였고 같은 비행장에서 제1해병비행단을 지원해 온 제6151공군기지부대는 12월 17일 철수하여 미 해병항공부대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는 포항(K-3)으로 이동하였다. 전술부대의 후퇴와 함께 이들을 지원하는 부대들의 후퇴도 잇따랐다. 제6147전술항공통제대대는 평양에서 철수를 시작하여 여의도를 거쳐 대구로 이동하였고, 한국 공군비행단 고문단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제6146항공기지부대는 북한군이 미림기지를 점령하기 12시간 전인 12월 6일 마지막 제대가 육상으로 평양을 출발하면서 철수를 종료하여 대전비행장(K-5)로 이동하였다가 12월 17일 제주도에 1개 파견대를 설치하여 한국 공군비행단의 조종사 양성을 지원하였다.

전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던 12월 6일 서울에서는 제5공군부사령관 팀버레이크 장군 주재로 제5공군참모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공군부대 재배치 문제가 논의

되었으나, 지상군의 후퇴선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 고려되어 재배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틀 뒤인 12월 8일 미 제8군이 부산방어선지역으로 철수 전까지는 가능한 한 서울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유엔공군은 향후 서울, 수원, 김포비행장을 상실할 것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준비조치에 따라 12월 10일 김포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51전투요격비행단은 예하 비행전대와 주요 후방지원부대들을 남긴 채 일본의 이다쯔께 기지로 이동하였고, 12월 20일 제80전폭대대 또한 이다쯔께 기지로 이동하여 모 부대인 제8전투비행단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1950년 12월 현재 김포비행장에는 제51전폭전대 소속 2개 대대(제16, 25대대)와 일본 존슨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4전투요격비행단 소속 제336대대가 잔류하게 되었지만 이들도 이듬해인 1951년 1월초 각기 일본 이다즈께 기지와 존슨기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한편 이다즈께 기지가 번잡해지자 B-26을 보유한 제452폭격전대는 12월 초 미호(美保)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예하부대의 이동이 완료되자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5공군사령부 예하 합동작전본부(Joint Operation Center)와 전술항공통제본부(Tactical Air Control Center)는 12월 20일 수송기와 철도, 차량 편으로 대구로 철수를 완료했고, 주한 제5공군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도 대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2. 유엔 공군작전

1) 중공군 진출저지와 아 지상군 엄호작전

중공군의 정찰대와 선발대가 압록강을 넘은 것은 10월 12~16일이었으며, 본대인 13병단 예하 2~3개 사단이 압록강을 도하한 것은 10월 19일 새벽 무렵이었다. 이들 중공군은 10월 25일 국군 6사단과 최초의 교전을 치렀고, 11월 1일 야간에는 미 제1기병사단 제8기병연대를 포위하고 공격을 가하여 미군과의 최초 교전을

치름으로써 국군과 유엔군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1950년 10월 26일까지 압록강을 넘은 중공군 규모는 13병단 소속 6개 군 18개 사단 약 29만 명에 달했다.[74] 이러한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앞세운 파상적인 공세를 저지하는 것은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으로 극동공군은 중공군의 북한지역 진출과 국경 이남으로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1950년 11~12월간 항공력의 대부분을 투입하였다. 이 작전은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11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시행된 압록강 교량과 압록강 국경지역 주요 교통로 및 보급시설 폭격을 통한 중공군의 북한지역 진출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이며, 두 번째 단계는 12월에 진행된 아군의 후퇴를 보장하고 중공군의 전진 속도를 지연하기 위한 엄호 및 지원 작전이었다.

(1) 중공군 진출 차단을 위한 압록강 교량 폭파 및 진출로 차단작전

10월 23일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공군 총사령관인 펑더화이(彭德懷)에게 내린 '안정적 기초위에서 가능한 모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총 작전방침을 통해 공군력이 없는 상황 하의 우려와 이에 대응한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있다.[75] 마오쩌뚱은 우선 "적 항공기가 우리 인원을 살상하고, 우리의 활동에 방해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만약 적 항공기에 의한 살상과 방해가 커서 우리가 작전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없다면, 반년이나 1년 안에 항공기를 구비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아군은 앞으로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숙달된 야간행군작전을 잘 이용한다면 적이 비록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살상과 방해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동 간에 행동지침을 하달하면서, "평양, 원산,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그 부근 지구에서는 우리가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지만, 다른 지역의 적은 모두 우리가 각개섬멸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아군은 계속 개활지 전투나 혹은 여러 고립거점을 타격"해야 한다는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지침에 의거 압록강을 넘은 중공군은 아 공군의 관측과 폭격을 회피하기 위해 행군 간 정지 시에는 은폐와 엄폐를 위한 진지를

구축하였고 야간에만 행군을 지속하였으며 차량이동은 라이트를 소등한 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11월 4일까지도 중공군의 전면적이고 대규모적인 참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였고,[76] 11월 6일이 되어서야 "한반도 안팎에서 중공군의 적대활동에 대해 유엔군이 주목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77] 또한 마찬가지로 극동공군사령관도 11월 1일 이후 출현한 MIG-15기에 대해 소련공군을 배제한 채 중국 공군인지, 또는 재건된 북한 공군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78]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공군 지휘부는 현재의 전선 상황은 매우 강력한 항공작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더욱이 제5공군사령관은 신의주 근처에서 대공포로 인한 조종사 희생이 발생하자 신의주에 대한 초토화공격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5일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작전명령을 통해 향후 2주간 최대의 항공공습을 실시하라고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공군 승무원 전원을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공격의 목적은 중공군의 북한지역 진출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병력투입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것으로, 압록강상의 모든 교량의 북한 측 연결 첫 번째 경간(徑間)을 모두 파괴하고 압록강으로부터 북한지역 남부로 연결되는 모든 수송로, 각종시설, 공장, 도시, 촌락 등을 완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진과 수풍 댐을 포함한 수력발전시설은 폭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국경침범'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 작전의 시행 시기는 극동시간 11월 7일 03:00(미국동부시간 11월 6일 13:00)였다.[79] 이전보다 중공군의 개입에 관해 보다 심각한 우려가 표시된 맥아더의 11월 5일자 명령서를 받아든 미 합참은 11월 6일 이러한 공격이 자칫 만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 문제를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한중·한소 국경 5마일 이내의 표적에 대한 폭격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시를 맥아더에게 하달하였다. 이에 대해 맥아더는 즉시 "대규모의 병력과 물자가 만주로부터 압록강을 넘어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적의 증원을 차단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압록강의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국제교량(International Bridge)을 폭파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자, 이 회신을

접한 미 합참은 11월 6일 늦은 시각에 이전의 지시를 번복하여 한중국경 압록강 상의 교량파괴에 맥아더 장군 예하의 공군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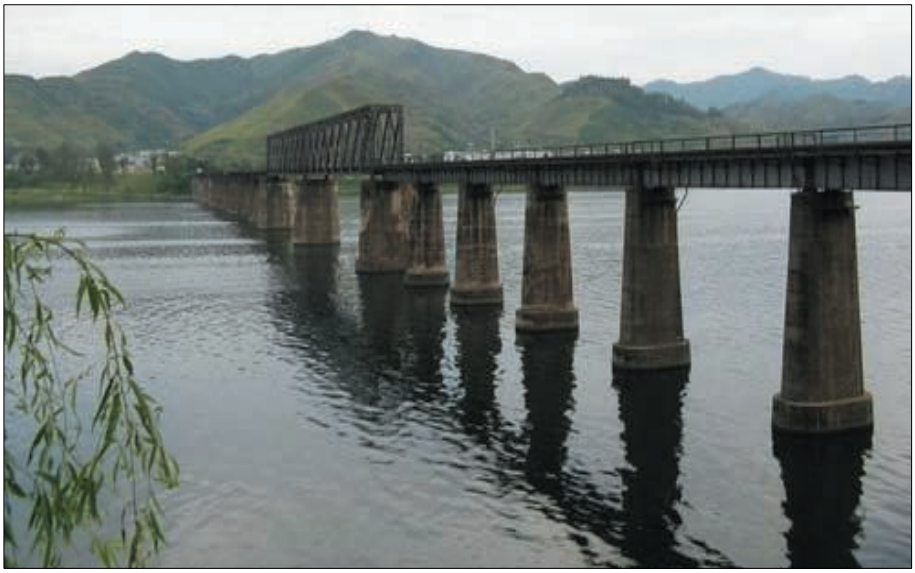
이에 따라 맥아더 사령관은 극동공군 및 해군에게 압록강 상의 교량에 대한 폭파임무를 하달하였고 작전은 11월 8일부터 시작되었다. 극동공군은 폭격사령부에 이 임무를 하달하였고, 극동해군은 제77기동함대에 임무를 부여하였다. 미 극동공군은 폭격사령부의 압록강 교량 폭파 임무와 더불어 제5공군에게는 북한 내 도로와 철도를 따라 이동 중인 모든 표적에 대해 주야로 무장정찰을 통해 파괴할 것을 지시하였다. 압록강 상에는 12개의 국제교량이 가설되어 있었으며 이중 전술적으로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교량은 6개로 신의주 복선철교와 차량인도교(40°06′56″N, 124°23′25″E), 청성진(淸城鎭) 인도교(40°24′37″N, 124°49′29″E), 만포진(滿浦鎭)의 인도교와 철교(41°09′23″N, 126°16′20″E), 남산리(南山里)의 철교(40°27′27″N, 124°52′44″E)이고, 그 밖의 전술적 중요 교량으로는 중강진, 혜산진, 삼안고, 회령 등의 인도교가 있었다.[81] 이 임무를 부여받은 B-29폭격기 조종사들은 이전에도 교량폭격에 대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 임무는 이전과는 여러 면에서 상이하고도 불리한 조건하에서 실시되는 것이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첫 째로 적의 대공포 위협이었다. 특히 만주지역에서 날아 오는 대공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폭격고도를 18,000피트 이상으로 높여야 했고 이는 폭격의 정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는 비행경로와 폭격범위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는 점인데, 교량 폭격 지점은 북한 측에 연결된 첫 번째 경간으로 한정되었고 비행경로는 국경을 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적의 대공포에게는 화망구성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반면, 우군 폭격기에 대해서는 기동에 제한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셋째는 시계비행 하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만주지역에 대한 오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적과 비행경로 확인을 목측(目測)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시정이 불량한 때에는 임무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넷째는 국경침범금지령으로 정풍(正風)을

맞으며 폭격임무를 수행해야 했고 높은 고도로 인해 120노트 이상의 강풍과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공군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 11월 8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교량에 대해 폭격임무를 감행하였다. 제19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 7대가 신의주 교량 교각과 입구에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다른 두 대는 레이존(Razon) 폭탄을 투하하였다.[82] 신의주 교량 폭격은 11월 13일 재개되었는데 제98폭격전대 소속 B-29 9대가 교량입구에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고 11월 14일에는 제19폭격전대와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21대가 신의주 교량에 1,000파운드와 2,000파운드 폭탄 111톤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임무중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 2대가 적의 대공포와 MIG-15기의 공격에 의해 손상을 입고 김포에 비상착륙하였다.

11월 24일에는 제98폭격전대 B-29기 8대가 만포진 철교에 1,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대부분은 철교에 명중하였으나 이중 8발이 만주지역에 떨어졌으며, 제19폭격전대 B-29기 9대는 청성진 인도교에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다. 다음날인 11월 25일에는 제19폭격전대 B-29기 4대가 청성진 인도교를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만포진 교량을 공격하여 최소 1개의 경간을 파괴하였다. 제307폭격전대는 소속 B-29기 각각 8대를 동원하여 11월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청성진 교량을 공격하였고, 11월 30일에는 제19폭격전대 소속 B-29기 8대가 청성진 인도교를 재차 공격하였고 임무조종사들은 1개 경간이 파괴되었다고 확인하였다.

한편 유엔공군과 해군 조종사들이 해당 교량이 압록강 만곡부에 위치하여 폭격 시 국경침범이 불가피하여 폭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교량도 있었는데 그것은 남산리 철교로써 미 해군 함재기조종사들은 처음부터 임무를 포기하였고, 11월 24일 제19폭격전대 B-29 1개 편대(4대)가 1차례 폭격을 실시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극동 공군과 해군 조종사가 파괴를 포기한 남산리 철교

이로써 유엔공군은 11월 말까지 압록강 교량 4개를 차단하고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도 손상을 입혔다. 한편 해군 77기동함대 함재기들은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시행된 압록강 교량폭파작전에서 총 593회 출격하여 폭탄 232톤을 투하하였고 신의주 철교 및 인도교를 파괴하고 청성진과 혜산진지역 교량 4개에 대해 손상을 입혔다.[83]

그러나 이러한 극동 해·공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공군의 북한 진입은 차단할 수 없었다. 이미 작전이 개시되기 전인 10월말에 중공군의 병력 대부분이 압록강을 넘었고, 11월 19일부터 신의주와 의주 간 압록강의 결빙이 시작되었으며, 11월 마지막 주 공중정찰결과 중공군은 이미 압록강 상에 3개의 부교와 1개의 목재교량을 새로이 건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극동공군과 해군은 투입된 전력과 화력에 비해 효과가 적다는 결론을 내렸고 11월 24일 재개된 유엔군 공세로 인해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이 시급한 임무로 대두됨에 따라 극동해군은 11월 29일부터 지상군근접항공지원으로 임무를 전환하였으며 극동공군사령부는 12월 5일 정식으로 폭격사령부에 압록강 교량 폭파임무 중지를 하달하였다.



유엔공군폭격으로 파괴된 신의주 철교(좌)와 청성진 차량인도교(우)

중공군의 진출저지를 위해 압록강 교량 폭파와 더불어 압록강과 연결된 북한지역 주요 교통·수송로 및 보급품 집적소, 주요 도시에 대해 집중적인 폭격이 시행되었다. 이는 일단 북한지역에 유입된 중공군에 대한 직접공격을 통해 전선지역으로의 남하를 저지하고 주요 교통로와 수송로 및 보급품 집적소를 파괴하여 병력 및 보급품의 이동을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미 극동공군은 주력폭격기인 B-29기가 기동 및 성능 특성상 압록강 교량파괴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작전에 더욱 치중하였다. 극동공군사령부는 주요도시에 대한 폭격은 폭탄을 대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B-29기가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폭격사령부에 임무를 할당하였고, 제5공군에게는 폭격기의 엄호, 제공권의 지속 유지를 위한 공중초계, 보급품 집적소 및 수송로 파괴와 주야간 적 보급로에 대한 무장정찰과 함께 적의 대피소가 될 만한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사령관은 폭격사령관 오도넬(Emmett O'Donnell) 소장에게 단편명령을 통해 11월 4일에는 강계(江界)를, 11월 5일에는 삭주(朔州)와 북진(北鎭), 그리고 11월 7일에는 신의주를 폭격하도록 지시하였다.[84] 이 명령에 따라 폭격사령부 소속 B-29 24대가 강계지역 폭격을 위해 출격하였으나 강계지역 기상불량으로 인해 청진지역에 소이탄 공격을 실시하였고, 11월 5일에는 B-29폭격기

24대가 강계지역에 대해 170톤의 소이탄 공격을 감행하여 강계지역 교량 2개를 파괴하고 강계시내 건물의 약 65%를 파괴하였다.[85]

신의주는 중국과 북한의 교통로이며 중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도시로써 이전에도 극동공군사령관이 집중폭격과 초토화를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요청하였지만 국제여론을 의식한 워싱턴과 맥아더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지역이었고, 당시 미군은 신의주에 김일성이 피신하여 전쟁 지휘부가 위치하고 있을 것을 판단하고 있었다.[86] 따라서 중공군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11월 4일 극동공군은 11월 7일을 기해 폭격사령부에 B-29기를 최대로 동원하여 신의주의 주요 수송로와 보급시설, 통신시설 등을 공격하고 제5공군에게는 이를 엄호하고 공중초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명령은 11월 7일의 기상불량과 합참의 승인지연으로 11월 8일에 실시되었다. 이날 B-29기 79대가 동원되어 500파운드 소이탄과 1,000파운드 일반폭탄 584.5톤을 압록강 철교 입구를 비롯한 신의주 지역 전역에 투하하였다. 폭격결과 신의주 시설밀집지역 1,858,106㎡ 중 약 60%이상에 해당하는 1,114,863㎡가 파괴되었다. 이때 B-29 폭격기의 엄호와 공중초계를 위해 F-80전투기 48대와 F-51전투기 21대가 출격하여 적 대공포진지를 폭격하였고 MIG-15기와 조우하여 공중전을 벌여 1대를 파괴하고 4대를 손상시켰다.[87] 이날 공격 시에도 어김없이 만주지역에서 대공포화가 작열하였지만 B-29 폭격기들은 고도 18,000~21,500피트를 유지한 채 각 대대별 밀집편대 대형을 유지하여 대대별 폭격간격을 최소화함으로써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 10일 제307폭격전대 소속 B-29기 한 대가 의주를 폭격 중에 MIG-15에 피격되어 추락했으며, 이틀 후인 11월 12일에는 제98폭격전대 B-29기 1대가 만포진을 공격하던 중 만주로부터 날아온 대공포에 피격되어 불시착 하였다.[88] 11월 28일까지의 10개 주요 도시에 대한 폭격성과는 <표 8-10>과 같다. 폭격사령부 예하 다른 B-29기는 이외에도 북한 서북부 지역의 곽산, 구성, 벽동, 구읍동, 무평리, 별하리 등에 대한 폭격도 감행하였다.

<표 8-10> 북한지역 주요도시 파괴율(출처 : Robert F. Futrell, 앞의 책, p.226)

지 역	파 괴 율(%)	지 역	파 괴 율(%)
만 포 진	95	초 산	85
강 계	75	삭 주	75
회 령	90	희 천	75
남 시	90	고 인 동	90
신 의 주	60	의 주	20

한편 11월 19일 제5공군 소속 제3, 452폭격전대 소속 B-26 50대가 일본으로부터 날아와 무산지역 병영에 소이탄을 투하하여 병영지역 75%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극동공군의 주요 도시와 수송로 폭격으로 인해 중공군과 북한군은 이동간의 휴식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참선 차단으로 인한 보급물자의 부족으로 인해 후속 작전에 곤란을 겪었다. 이는 그 이후 가속화된 혹한으로 인해 중공군을 괴롭히는 주요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작전에서 중공군 다수 병력이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유엔공군의 작전결과와 관련하여 마오쩌둥의 지시로 제1차 전역의 경험을 분석하고 제2차 전역을 위한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11월 13일 개최된 '중국지원군 당위 확대회의'에서 펑더화이는 "적 항공기는 아군 후방에 와서 아군을 정찰하고, 교통로를 파괴하고, 물자를 폭격하여 아군으로 하여금 밥을 먹을 수 없도록 하고, 탄약 보충을 못하게 하여 우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89]

(2) 지상군철수 엄호 및 지원 작전

중공군의 갑작스런 출현과 그들의 1차 공세로 인해 북한지역 석권의 좌절과 함께 청천강으로의 철수를 감수해야 했던 미 제8군은 중공군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8일부터 시작된 유엔공군의 한·중 국경지역과 주요 거점도시 및 병참지원선에 대한 집중적이고 대규모적인 공격으로 인해 숨통을 틀 수 있었다. 이에

대해 11월 18일 맥아더 사령관은 “지난 10일간의 공중공격으로 유엔군은 전장을 적의 추가적 증원으로부터 고립시키는데 크게 성공하였으며, 적의 보급도 현저히 감소되었다.”라고 평가하였다.[90] 이에 고무된 맥아더 사령관은 11월 24일을 기해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불리는 유엔군 공세를 시작하였으나,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의해 서부전선에서 11월 26일 미 제8군 예하 제1군단 및 제9군단이 패퇴하고 국군 제2군단이 11월 27일 붕괴되어 미 제8군 전체가 11월 28일 전선에서 퇴각하였다. 동부전선에서는 12월 3일 미 제10군단 예하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이 장진호 근처에서 중공군에게 퇴로를 차단당한 채 심각한 병력손상을 입은 채 후퇴함에 따라 유엔 지상군은 전면적인 후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극동공군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첫째, 지상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아군을 엄호하고, 둘째, 적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지상군에 대한 공중을 통한 보급지원과, 셋째, 철수하는 아군을 지원하여 장비와 병력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었다.

후퇴하는 아 지상군의 엄호는 기본적으로 임무계획과 임무실시 간에 큰 차이를 보였고 이로 인해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첫째 임무계획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기가 매우 곤란하였는데, 이유는 지상군의 제대별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 전력할당을 전적으로 지상군부대의 요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유엔공군은 전력할당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었다. 둘째 임무수행 간에는 아군과 적군이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아군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폭격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특히 야간에 근접한 피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극동공군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상군 엄호임무를 무장정찰과 근접항공지원 형태로 운영하였다. 우선 임무지역만을 할당받고 구체적인 표적을 갖지 않은 채 출격한 무장정찰임무 항공기는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적의 병력이나 긴급한 지상군의 요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계획 가능한 지상군 지원임무는 근접항공작전임무를 부여하여 출격시켰다.

또한 폭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선에 근접해 있는 제3903 레이더폭격기록대대(RDR Bomb Scoring Squadron)는 MPQ-2 레이더의 통제하에 야간에 우군진지

에서 1,000야드(약 910미터) 이내 지역을 폭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는 11월 28일 B-26이 미 제1군단을 지원할 때 적용하였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극동공군은 12월 24일 10군단이 흥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아군 전면의 적을 분쇄하고 아군 배후에서 진출로를 봉쇄하고 있는 적을 소탕하는 등 임무수행에 전력을 다하였다.

이러한 유엔공군의 지상군 엄호작전은 특히 아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1월 28일 새벽 1:30경 영변 서부 용산동 근처에서 중공군의 공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미 제25보병사단의 킨(William B. Kean) 장군은 전방아군초소를 지형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야간상황에서 전투정면에 대해 B-26 경폭격기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요청 30분 만에 임무지역에 도착한 B-26 경폭격기는 아 지상군이 박격포로 쏘아올린 조명탄에 의존하여 아군진지 약 45미터 이내의 목표물에 기총소사를 가해 중공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미 제25보병사단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11월 28일 군우리(개천) 북동쪽의 북원-와원(瓦院) 방어를 위해 투입된 미 제2사단 예하 터기 여단이 중공군에 의해 포위공격을 당하여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11월 19일 11:00경 전사상자가 속출하고 궤멸직전의 위기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전폭기 8대를 동원하여 신립리 지역을 폭격하여 터키여단이 개천으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91] 또한 11월 29~30일간 군우리(개천)에서 중공군과 조우하여 제2사단 제38연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B-26을 포함한 총 72회의 근접항공지원을 실시하여 중공군의 포격을 중지시켰고, 철수 제대는 이틈을 이용하여 군우리(개천)을 빠져나왔다.[92] 제5공군이 미 제2사단의 철수를 보장하기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수행한 공중엄호 및 근접지원비행은 총 763회였으며 이에 대해 카이저(Lawrence B. Keiser) 미 제2사단장은 "공중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사단은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없었을 것"[93]이라며 공군의 지원을 격찬하였다.

서부전선의 미 제8군이 12월 4일 평양을 포기 후 후퇴를 거듭하여 12월 23일에는 문산과 서울 북방 임진강 부근의 축선을 거쳐 동해 양양에 이르는 선까지 철수하자, 12월 23일 맥아더 장군은 극동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B-29폭격기의 약

2/3를 미 제8군의 전선 인근에 있는 적의 집결지에 집중 폭격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웨이랜드(Otto P. Weyland) 소장은 B-29 중폭격기의 새로운 후방차단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B-29기의 1/4 또는 1/3을 적 후방의 철도차단에 전력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전선에 있는 적 지상군병력과 보급품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야간폭격기들도 미 제8군의 주저항선에서 새로운 야간 폭격전술을 개발하여, 보다 긴밀한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새로운 폭격전술이란 B-26 경폭격기가 F-82 전천후 요격기나 전술항공통제반의 지시에 따라 폭격지역에 조명탄을 투하하면 폭격기가 표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조명탄 1회 투하 시 2~3회 표적에 진입하여 폭격을 감행하였다.[94] 이 전술을 사용함으로써 야간 접적지역에서 중공군에 대한 정확한 식별을 통해 폭격 정밀성을 높일 수 있어 항공공격을 피해 야음을 이용하려는 중공군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한편 동부전선 10군단에 대한 항공지원은 기본적으로 미 제1해병비행단과 극동해군함재기들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11월 28일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이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위협에 처해있다는 보고를 받고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 장군은 연포에 주둔하고 있던 제5공군 예하 제35전폭전대에게 미 제10군단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12월 1일에는 악천후로 해병항공대와 항모 함재기가 출격을 중지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제5공군의 공중지원을 더욱 확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또한 12월 3일 직접 흥남을 방문한 패트리지 장군은 미 제10군단의 야간폭격지원 요청에 대해 예하의 B-26 경폭격기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제5공군 전술기의 10군단에 대한 화력지원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미 제10군단이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화력지원보다도 장진호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미 제1해병사단과 제7보병사단에 대한 전투물자를 포함한 보급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육상으로의 보급방안이 완전히 차단당한 상태에서 유일한 보급방안은 공중을 통한 수송이었으며, 이는 고립된 유엔군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원산에 주둔하고 있던 제21수송대대 C-47수송기 파견대는 11월 내내 제10군단의 선발부대들에게 보급품을 공중투하 해왔는데, 11월 28일에는 예정시간을 초과하여 유담리(由潭里)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 제5, 7해병연대에

10톤의 탄약을 투하하였고, 진흥리(眞興里)에 있는 미 제7보병사단 제31연대에 16톤의 탄약을 투하하였다.



1950.11.29 유담리 지역에 물자를 공중 투하하는 C-47

한편 미 해병대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공수지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갈우리와 고토리에 간이비행장을 건설하였는데 제21공수대대는 12월 10일까지 이들 간이비행장을 통해 총 240회의 수송비행을 실시하여 273톤의 화물과 환자 및 부상병력 4863명을 후송하였다.[95] 또한 11월 11일 일본에 도착하여 제21공수대대에 편입된 그리스 공군 C-47 공수파견대도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 30회에 걸친 공수비행을 실시하였고, 미 공군 제801의무후송비행대대는 위급한 전상자들의 철수와 치료를 담당하였다.

미 공군 제21공수대대 파견대는 11월 29일 오전까지 차단 고립된 각 부대에 약 400톤 이상의 탄약과 보급품을 공수투하 해 달라는 알몬드(Edward M. Almond) 미 제10군단장의 요청이 있었으나 C-47 파견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요구였다. 사실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가 1일 가능한 공중 투하량은 70톤을 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화물 공수투하는 정상적인 화물공수와는 달리 포장과 적재방법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 아시야(蘆屋)기지에서 일본인

노무자를 증원시켜 포장과 적재능력을 강화하여야 했고 철야로 탄약 및 무기, 의류, 가솔린, 비상식량 등을 포장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전투공수사령관 터너(William H. Tunner) 소장은 C-119 3대를 연포비행장(K-27)에 파견하였으며 다음날인 12월 4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전투공수사령부 예하 C-46, C-47, C-119 수송기를 미 제10군단 지원에 활용하도록 지시했다.[96] 이러한 극동공군의 기민한 조치로 미 해병 제1사단의 마지막 부대가 흥남으로 철수한 12월 10일까지 전투공수사령부는 약 1,268톤의 장비와 보급품을 제1해병사단 작전지역에 공중 투하하여 미 제1해병사단의 후퇴를 지원하였다.

<표 8-11> 미 제1해병사단 철수 간 극동공군의 공수 지원량[97]

일 자	화물 공중 투하량(톤)	일 자	화물 공중 투하량(톤)
11월 29일	103	12월 4일	176
11월 30일	118	12월 5일	225
12월 1일	175	12월 9일	60
12월 2일	162	12월 10일	2
12월 3일	247	**총 계**	1,268

특히 화물 공주투하작전의 백미는 12월 7일 시행된 고토리 남부 4마일에 위치한 계곡 간 수문교의 파괴로 인해 미 제1해병사단의 진흥리로의 퇴로가 차단된 상태에서 미 제1해병사단장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M-2 임시교량 경간목(徑間木) 공중투하작전이었다. 이 수문교는 약 1,500피트 길이의 계곡 간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이 교량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미 해병사단은 차량, 전차, 야포 등 각종 전투 장비를 유기하고 후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복구를 위해서는 경간목(무게 2톤, 5×2×15피트) 최소 4개가 필요하였다. 이에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는 12월 6일 경간목 1개에 G-1 낙하산 6개를 달아 시험투하

하였으나 실패하자 12월 7일 09:00에 C-119 8대에 각기 크기가 큰 G-5 낙하산[98] 2개를 부착한 경간목 1개씩을 싣고 5분 간격으로 연포비행장을 이륙하여 임무지역상공에 도착, 고도 800피트에서 공중 투하하였다. 이중 1개는 중공군 주둔지역에 떨어졌고, 1개는 파손되었으나 6개는 안전하게 투하되어 교량을 가설할 수 있었다. 12월 9일 15:30에 파괴된 수문교에 임시교량이 가설되자 미 제1해병사단의 철수가 시작되었고 12월 11일 최종 후미에서 철수하던 전차중대가 수문교를 통과하자 02:00에 가교를 폭파하였다.[99]



파괴된 고토리 수문교를 응시하는 미 해병대(上)
12월 10일 공중투하된 경간을 이용하여 가설된 임시교량을 통해 이동하는 미 해병대와 장비(下)

마침내 12월 8일 맥아더 사령관에 의해 미 제1해병사단을 포함한 미 제10군단의 흥남을 통한 전면적인 철수 명령이 하달(작전명령 5호)되었으나, 제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은 중공군의 추격을 우려하여 철수 시 최대한 공수 전력을 활용해 줄 것을 요망하였다. 이에 따라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는 연포비행장을 활용하여 12월 12~13일까지 약 320톤의 화물을 먼저 수송하였고, 미 제10군단에 대한 본격적인 철수지원은 12월 14일부터 시작되어 적군이 연포비행장에 근접한 12월 17일 오전 09:00에 종료되었다. 미 제10군단 철수지원을 위해 4일간 전투공수사령부는 가용인원과 수송기를 총동원하여 약 5분 간격으로 1일 24시간동안 수송기를 이륙시켰다. 이러한 노력으로 4일 동안 393회 출격하여 부상자 228명, 병력 3,891명, 화물 약 2,088톤을 부산, 대구 등 후방지역으로 수송하였다.[100]

한편 12월 11일 연포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장군에게 제10군단의 해상을 통한 흥남철수 계획이 보고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성진에서 서호진에 상륙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국군 3사단이 상륙을 취소한 채 서호진을 방어 중이던 수도사단 제18연대를 승선시킨 후 부산으로 제일먼저 철수를 시작했으며, 연포비행장과 함흥에 집결한 미 제1해병사단은 12월 12일 선적을 시작하여 12월 15일 09:00경에 부산으로 출항하였다. 흥남 철수 작전 간 제5공군 B-26 경폭격기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중공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 해군 항공모함 함재기와 함께 탄막을 형성하여 엄호작전을 수행하였다.

2) 미그회랑(MIG Alley)과 MIG-15 요격작전

1950년 11월 11일 중국 주둔 소련공군의 MIG-15 전투기가 6·25전쟁에 참가함으로써 6월 27일 참전 이래 줄곧 한반도 상공을 자유자재로 누벼오던 유엔공군의 공중우세(Air superiority)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오히려 기존의 유엔공군기를 압도하는 성능과 무장을 지닌 MIG-15기는 공중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새로운 전쟁국면을 만들어 버렸다. 먼저 공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과 무장에서 열세인 기존 F-51, F-80, F-82 전투기들은 MIG-15를 대적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수로 임무편조를 구성해야 했고 단독으로 MIG-15를 만났을 때에는 신속한 회피기동을

해야만 했다.[101] 또한 B-29와 B-26 폭격기는 이전에 전투기의 엄호 없이 폭격임무를 자유롭게 수행하였지만 이제는 전투기의 엄호비행 없이는 임무가 불가능 했다. 이러한 공중에서의 전투양상변화와 함께 지상에서는 과거 공중의 위협이 없는 가운데 지상의 적만을 고려하여 전투를 수행해왔지만 비록 빈도는 낮지만 적의 공중공격에 대비하여 아 지상군 또한 대공경계와 방어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미 공군이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 예하 제72연대(안산)와 제28연대(선양) 소속 MIG-15기 공격을 처음 받은 것은 11월 1일 13:30경이었다. 선천 북부 2마일 상공에서 제67전폭비행대대 소속 F-51이 6~9대의 MIG-15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이에 F-51 4대가 이에 대응하여 공중전을 벌여 1대에 손상을 입혔으나 곧 압록강을 건너 만주지역으로 사라졌으며 이들 MIG-15기 오른쪽 날개 상부에는 붉은 별이 그려져 있었다.[102]

새로운 적의 출현이 있은 후 극동공군사령부는 혼란에 휩싸였다. 극동 공군은 임무조종사의 증언에 기초하여 이 비행기가 후퇴익인 점을 고려할 때 소련이 생산한 MIG-15임과, 날개에 붉은 별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공군 항공기로 추정하였으나 중국 공군이 이러한 신예기를 인수하고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했다.[103]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하에서 유엔공군 조종사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유엔공군조종사들이 '치고 빠지기(hit and run)'로 불렀던 소련공군이 구사한 전술이었다. 이들 소련 공군기들은 압록강 주변 및 평양 북서부 지역 내에 표적을 가진 아군 항공기들이 임무지역에 들어서면 최소 8기 이상의 편대로 유엔공군이 배후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고, 압록강을 건너 안전지대인 중국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 지침으로 인해 유엔공군 조종사들은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칠 시간도 없이 피해를 입은 채 돌아와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로 야기된 것이 '긴급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이다. 11월 7일 맥아더 사령관은 이러한 유엔공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미 합동참모본부에 유엔공군기를 공격하고 중국으로 달아나는 MIG-15기에 대해 극동공군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104] 이에 대해 미 합참은 신중한 고려 끝에 해전에서 사용하는 추적권 이론을 발견하고 이를 적용할

경우 공군작전에 대한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유엔군 조종사들이 만주국경선 너머 6~8마일까지 적의 공격기를 추격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애치슨 국무장관과 트루먼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이를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한 미국 지도부는 한국전에 참전 중인 다른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고 11월 13일부터 미 국무부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게 긴급추격권을 유엔공군에게 부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나 이들 5개국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105] 결국 이 문제는 11월 24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 유엔군이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밀려 후퇴를 결정하면서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불필요하게 되어 결국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말았다.[106]

소련 공군의 MIG-15전투기 참전은 유엔공군의 지속적인 제공권 확보여부에 의문을 발생시켰다. 그것은 먼저 MIG-15의 탁월한 성능 때문이었는데 극동에 전개해 있는 미군 전투기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지닌 F-80C보다 비행속도가 시속 100마일 이상 빨랐으며 상승속도에서도 거의 배 이상 빨랐고 최대 상승고도 또한 6,000피트 이상 높았다. 또한 11월 18일 신의주 상공에서 이루어진 해군 F-9F (Panther) 제트 전투기와의 실제 공중전을 통해 MIG-15는 F-9F 대비 비행속도, 상승하강한도, 회전속도 등에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107]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엔공군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공대공 무장능력이었다. 당시 미군 전투기들의 공대공 무장은 공군전투기의 경우 12.7mm 기관총이었고 해군 함재기의 경우 20mm 기총이었으나 MIG-15는 23밀리 기관포 2문과 37mm 기관포 1문을 장착하고 있어 폭발력이나 사거리 면에서 극동에 배치된 모든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공군의 F-51이나 해군의 콜세어(Corsair) 전투기들은 MIG-15와 조우했을 경우 전투를 회피하고 기지로 귀환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MIG-15의 출현은 유엔 항공세력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다행히 소련은 미국과의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공군력을 압록강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지역에서의 소극적인 방어 작전에만 투입했고 활동범위도 작전기지에서 평균 90마일을 벗어나지 않았다. 즉 1950년 11월과 12월중 북한지역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중전은 북한 북서부 모서리 지역인 압록강과 강계, 덕천,

신안주, 선천, 신의주를 잇는 이른바 MIG 회랑(MIG Alley)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유엔공군의 작전의도와는 별개로 소련공군의 작전의도에 의해 획정(劃定)된 구역으로 "소련공군의 참전은 중국 동북(東北)지역과 북경, 천진, 상해 등 해안지역을 방어하고 북한지역 압록강 연안에 전개하는 중공군을 엄호한다."[108]는 스탈린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련공군의 소극적 방어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엔 공군의 전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는 방안은 MIG-15에 필적할 만한 전력을 도입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 공군 제27전투엄호비행단(F-84E, Fighter-Escort Wing)[109] 소속 F-84E 전투기는 이다쯔게(板付) 기지를 후방기지로 삼고 대구기지로 전개하여 12월 6일 한국전에서 최초 임무를 수행했으며, 제4전투요격비행단(F-86A, Fighter-Interceptor Wing)은 일본 도쿄(東京) 근처 존슨(Johnson)기지에 후방기지를 두고 12월 15일 F-86A 7대를 김포에 파견하여 임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유엔공군은 이전에 겪을 수 없었던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특히 B-29 폭격기와 같은 저속·대형 항공기의 희생이 컸으며, 전투기들도 임무편조를 증가시키고 탄약과 연료를 기존에 비해 더 많이 탑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또한 MIG-15기의 엄호를 받는 북한 Yak기들은 유엔 지상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피해를 입혔다. 구체적인 전투사례를 몇 건 열거하면 11월 5일 09:45 Yak기 한 대가 신안주지역서 아 지상군에 대해 공습을 가했고 길주 북서부에서 Yak기 2대가 아군의 전술항공통제소(Tactical Air Control Party)를 공격하였으며, 또한 Yak기 4대가 B-26 2대를 공격하여 Yak기 1대와 B-26 한 대가 각기 손상을 입었고 F-51 3대가 Yak-9 2대를 격추하였다.[110] 11월 9일에는 F-80 4대의 엄호 하에 신의주 지역 사진정찰 임무를 나갔던 B-29 한 대가 MIG-15 2대의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고 일본 존슨기지에 불시착 하던 중 5명의 승무원이 사망하였고, MIG-15 6~10대와 조우했던 다른 F-80 4대중 한 대가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으나 김포기지에 무사히 착륙하였다. 다음날인 11월 10일에도 신의주 상공에서 임무중인 B-29폭격기가

MIG-15 6대의 공격을 받아 추락하였으나 승무원 11명은 비상탈출 하였다.[111] 11월 14일에는 신의주 지역에서 폭격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B-29 4대가 MIG-15 10~12대의 공격을 받아 2대가 파괴되었다. 11월 19일 적 항공기가 선천 동부 6마일 지점에 폭격을 가했으며, 국군 2군단 지역에도 단발 엔진 적 항공기가 선천 군수품야적장에 고도 3~6,000피트 상공에서 폭탄 6발을 투하하였다. 11월 28일에는 03:00경 기종을 알 수 없는 적 전투기가 평양비행장(K-23)에 25~50파운드 파열폭탄을 투하하여 미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F-51 11대가 파괴되었으며, 다른 적 전투기가 평양에서 김포로 향하던 C-47 한 대를 공격해 손상을 입혔다.

그러나 유엔공군은 이러한 불리한 여건에서도 전투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MIG-15기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11월 8일 신의주 상공에서 F-80 4대가 MIG-15 6~8대와 교전하여 제16전투요격기대대 브라운(Russell J. Brown) 중위가 MIG-15 1대를 격추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제트 전투기간 공중전에서 미 공군이 거둔 최초의 승리로 기록되었고,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F-84가 전개한 이후 최초 임무 수행일인 12월 6일 이전) 유엔공군은 공중전과 지상공격을 통해 MIG-15 4대를 포함 총 23대를 파괴하고 총 24대에 대해 손상을 입히는 전과를 거두었다.

<표 8-12> 유엔공군 1950년 11~12월 5일까지 전과 현황[112]

일 자	MIG-15		Yak 및 기타	
	파괴(Destroyed)	손상(Damaged)	파괴(Destroyed)	손상(Damaged)
11.1			9	10
11.2			5	2
11.6			2	1
11.7		3		
11.8	1	4		
11.10	2	3	3	
11.14	1	1		
계	4	11	19	13

12월 6일 대구에서 첫 임무를 시작한 제27엄호비행단의 F-84전폭기는 중폭격기(B-29폭격기)의 장거리 엄호비행을 위한 특별훈련을 받았으나 현재의 전술적 상황에 따라 즉각 무장정찰과 근접지원임무에 투입되었다. 한편 제4전투요격비행단의 F-86 전폭기는 항공기 성능 상 김포기지만이 수용 가능하여 12월 15일 최초 7대가 파견되었으나 12월 25일에 25대까지 증가하였고 MIG-15와의 공중전투(요격)와 공중초계임무에 한정되어 임무에 투입되었으며, 패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MIG-15와 가능하면 교전하여 격추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F-86A 전투기는 MIG-15 대비 대등한 수준의 능력을 가졌으나 상승 및 급상승 능력에서는 MIG-15가 우세했고 저고도에서의 기동능력은 F-86A가 우세했다. F-86A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무장에서 M-3 50밀리 기관포 6문을 장착하고 있어 23밀리와 37밀리 기관포 각 1문씩을 장착하고 있는 MIG-15에 비해 사거리 및 위력에서 우위에 있었고, 조종사들이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5대 이상의 적기를 격추시킨바 있는 공중전에 숙달된 전투요원이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F-86A의 최대 약점은 짧은 항속거리였는데 양쪽 날개에 120갤런의 보조연료탱크를 장착했을 경우 약 490NM(약 880km)로서 김포에서 이륙하여 압록강 지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할 시 최대 허용시간이 20분간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반해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소련공군은 안전한 미그회랑지역에서 공격을 가하고 공중전을 끝내고 싶으면 언제나 만주 쪽으로 달아났으며, 태양을 등지고 유리한 고도에서 F-86이 초계임무를 거의 마칠 무렵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격을 가해왔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제4전투요격비행단의 조종사들은 MIG-15 대응전술 수립에 고심하였다. 그리하여 김포기지에서 이륙하여 압록강까지의 임무지역 도달까지는 최대로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속도인 마하 0.62로 비행하였고, 고고도 작전능력이 우수한 MIG-15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비행운(飛行雲 : 비행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분사열로 인해 생기는 구름) 식별이 용이한 27,000~33,000피트 고도를 유지한 채 목표지역에 진입하여 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F-86A 전투기가 MIG-15를 조우하여 첫 공중전을 벌인 것은 김포기지에 전개한 지 이틀 후인

1950년 12월 17일이다. 이날 F-86A 4기로 편성된 각 편대는 5분 간격으로 김포기지를 이륙하여 기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쐐기대형(fingertip)을 유지한 채 압록강 상공 고도 27,000~33,000피트에 도착하여 초계 중 오후에 편대장 힌턴(Bruce H. Hinton) 중령이 아래 방향에서 전투대형을 갖춘 MIG-15 4대를 발견하였다. 이에 힌턴 중령은 가속하여 하강하면서 MIG-15를 선제공격하였고 이를 알아차린 적기가 기수를 압록강 쪽으로 돌려 하강하면서 도피하려고 하자 힌턴 중령의 편대는 적 2번기 후미에 접근하여 M-3 50밀리 기관포를 발사하여 추락시켰고 다른 적기들은 압록강 너머로 도주해버렸다. 이로써 제336전투요격대대장 힌턴 중령은 공중전에서 MIG-15를 최초로 격추한 F-86A 조종사로 기록되게 되었다.

한편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 임무지역까지 경제속도(마하 0.62)를 유지하는 것이 임무지역에서 갑자기 적기를 조우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급가속을 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견되어 12월 19일 이후부터는 연료절약을 위해 저속으로 임무지역에 진입하는 계획을 바꿔 최소한 마하 0.85, 가능한 마하 0.87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대신 초계임무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키는 지침이 조종사들에게 내려졌다. 또한 임무는 4개 편대(1개 편대 4대)로 구성되고 각 편대는 5분 간격으로 시간과 고도차를 두고 임무지역에 도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작전기준이 표준화되었다.

이러한 고속비행전술의 유효성은 12월 22일 제4전투요격전대 전대장인 메이어(John C. Meyer) 중령이 이끄는 2개 편대가 15대 이상의 MIG-15기와 공중전을 벌였을 때 입증되었다. 최고 30,000피트와 최저 나무 꼭대기 사이의 고도범위에서 약 20분간 벌어진 공중전에서 메이어 중령이 이끄는 F-86A 편대는 MIG-15 6대를 격추시켰으나 불행하게도 바츠(L. V. Bach) 대위가 조종하던 F-86A 한 대가 피격 당했고 조종사는 사망하였다.[113] 12월 30일 또 한 번 압록강 상공에서 대규모의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F-86A 전투기 16대와 MIG-15 36대가 공중전을 벌였지만 이전의 패배를 의식한 소련조종사의 신중한 전투운영으로 이전전투와는 달리 MIG-15 2대에게 손상을 입혔다고 임무조종사들은 주장했다.[114] 제4전투요격비행단 F-86A의 활동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50년 12월 15일 김포에 전개한 이후

12월 31일까지 제공임무(counter air)에 총 234회를 출격, 총 76회에 걸쳐 MIG-15와 조우하여 공중전을 벌였고, 이를 통해 MIG-15 8대를 격추하고 파괴추정(probably destroyed) 2대와 함께 7대에 손상(damaged)을 입혔으며 F-86A 한 대를 잃었다.[115]

결과적으로 F-86A의 김포전개는 중국 주둔 소련공군 MIG-15의 출현으로 위축된 유엔 공군 활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 넣으며, 미그회랑 지역에서 다시금 제공권을 장악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3) 주요작전형태별 비행운영

1950년 11월과 12월간 유엔공군의 비행활동은 총 36,300소티(sortie)로 11월에 18,116소티, 12월에 18,184소티를 운영하였고 6월 25일 전쟁발발 이후 비행활동은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116] 특히 11월과 12월은 개전 초(6~7월)를 기준으로 할 때 약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8-13> 1950년 6~12월간 총 비행활동 추이

구 분	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행활동(소티)	8,499	15,586	15,839	16,634	18,116	18,184
증감(6~7월 기준)	100%	183%	186%	195%	213%	214%

이 기간 중 주간비행은 35,053소티이고 야간비행은 1,247소티로 야간비행활동비율은 약 3.4%에 지나지 않았다. 항공기형태별로는 제트 전투기(F-80/84/86) 9,695소티, 프롭전투기(F-51) 5,427소티, 폭격기(B-29/26) 4,214소티, 수송기 11,967소티, 정찰기 1,176소티, 전술통제, 구조 등 기타 비행활동 3,821소티를 각각 운영하여 수송기의 활동비중(32%)이 가장 높았다.

<표 8-14> 1950년 11~12월 중 주·야, 항공기 형태별 비행활동 현황

구 분		11월 비행활동	12월 비행활동
주/야	주간 비행활동	17,847(98.5%)	17,206(94.6%)
	야간 비행활동	269(1.5%)	978(5.4%)
계		18,116	18,184
항공기 형태별	중폭격기(B-29)	715(3.9%)	727(4.0%)
	경폭격기(B-26)	1,112(6.1%)	1,660(9.1%)
	제트 전투기(F-80/84/86)	4,083(22.5%)	5,612(30.9%)
	프롭 전투기(F-51)	2,868(15.8%)	2,559(14.1%)
	정찰기(RB-29/26 등)	612(3.4%)	564(3.1%)
	수송기(C-47/54/119 등)	6,685(37.0%)	5282(29.0%)
	기타(T-6 전술통제, 구조헬기 등)	2,041(11.3)	1,780(9.8%)
계		18,116	18,184

또한 작전 형태별 비행운영은 근접항공지원작전 6,988소티,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10,672소티, 제공작전 1,676소티, 수송작전 12,082소티를 실시하였다. 이중 특이한 점은 12월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 작전이 이전 최대 실시량(10월 : 4,474소티)보다 약 2,000소티(44%) 증가하였는데 이는 아군이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 긴급히 퇴각하는 상황 하에서 적의 이동 상황이나 피아간의 교전을 예상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고육지책으로, 이륙 전 공격 표적을 부여받지 않고 무장 출격하여 일정지역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병력과 차량 및 물자의 이동대형을 발견하거나, 지상에서 피아간의 예상치 못한 교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차단하고 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작전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11월부터 제공(Counter Air) 작전이 급증한 것도 주목해야할 점으로서 제공작전이 전쟁초기인 6~7월 546소티, 8월 327소티, 9월 126소티, 10월 117소티로 급감하였다가, 11월 916소티, 12월 760소티로 급증하였는데, 이런 추세는 복원된 북한공군의 활동재개와 소련 공군의 MIG-15의 참전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15> 1950년 11~12월 작전형태별 비행운영

구분	근접 지원	무장정찰/ 항공차단	제공	정찰	구조	수송	항공 통제	기타	총 계
11월	3,652	4,210	916	664	173	6,772	1,473	256	18,116
12월	3,336	6,462	760	748	102	5,310	1,259	207	18,184
총계	6,988	10,672	1,676	1,412	275	12,082	2,732	463	36,300

맥아더가 언급했던 '새로운 전쟁' 국면인 이 시기에 유엔공군은 초기에는 근접항공지원을 통해 유엔지상군의 공세 유지를 지원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전선의 붕괴를 막아 아군의 퇴로를 열었으며,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을 통해 중공군의 급속한 진격을 지연시켰다. 또한 공중수송작전을 통해서는 아군이 적에게 포위된 위급한 상황 하에서 장비 및 물자를 공중에서 투하하여 포위망을 돌파하여 생존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마지막에는 후퇴하는 병력과 물자를 안전하게 후방지역으로 철수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 근접항공지원작전(Close Air Support)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작전 구역은 통상적으로 지상군의 접촉선과 거의 일치되어 있고 사전에 지상군의 요청에 의해 전력이 할당되어 운영된다. 또한 지상전의 접전정도에 따라 근접항공지원의 중요도와 실시량은 비례한다. 즉 피아간에 지상전력이 대등하여 접전이 확대되고 심화되면 근접항공지원은 이에 비례하여 증가되고, 그렇지 않고 일방의 우세가 지속되면 근접항공지원은 감소된다.

이 시기 유엔군 지상군의 전선형성은 10월 말 초산, 혜산진 등 한중국경선까지 확대되었으나 10월 25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참전에 이은 제1차공세로 11월 6일 미 제8군은 청천강 선으로 후퇴하였고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중공군의 제2차

공세로 좌절됨에 따라 12월 말에는 38도선을 따라 새로운 방어선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전선 상황에 따라 유엔공군의 항공근접지원작전도 11월과 12월에는 아군의 공세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접적지역 아군 전방에서의 적군 격멸과 전과확대를 위한 작전보다는 접적지역 아군 전방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아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기동하거나 집결중인 적에 대한 공격을 통한 아군의 퇴로를 확보하기 위한 임무에 치중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지상 작전양상의 변화는 곧 근접지원작전의 실시량에 직접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활동을 보였는데, 12월 근접항공지원 비행은 총 3,336소티로 전월 11월의 3,652소티에 비해 약 10% 감소되어 실시되었고, 아군이 파죽지세로 북진을 감행했던 10월의 3,340소티와 거의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

<표 8-16> 1950년 6~12월 근접항공지원 비행활동 현황

구 분	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접지원비행 (소티)	3,942	6,774	6,250	3,340	3,652	3,336

이 시기에도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은 10월 말에 수립된 지침에 따라 미 제8군에 대한 근접지원은 제5공군이 담당하였고 미 해병비행사단 및 해군 함재기들은 동부지역 10군단에 대한 근접지원작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2월 들어 동부전선에서 제10군단이 위기에 처하자 극동공군사령관은 제5공군의 근접지원작전을 동부전선 10군단 관할지역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중공군의 1차공세로 과도하게 정면이 확대된 국군 제2군단(제6, 8사단 배속)이 무너지고 미 제1군단 또한 11월 2일 중공군에게 포위 공격을 받아 전력이 손실되자, 워커사령관은 11월 3일 청천강으로의 후퇴명령을 하달하였고 미 제8군은 11월 7일까지 청천강으로의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 제5공군은 아군의 후퇴를 보장하기 위해 중공군의 추격과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근접지원작전을 펼쳤다. 11월 4일에는 기상이 매우 불량한 가운데 B-26경폭기가 정주지역에서 대규모의 적 병력에 대해 약 30분 이상 지속된 공습을 통해 약 500여 명을 사살하였다.[117]



적진지에 폭탄을 투하하는 B-26 경폭기

또한 11월 5일 새벽에는 영국 제27여단이 중공군의 퇴로차단 위협에 따라 후퇴를 결정하자 근접항공지원작전을 펼쳐 중공군의 추격을 저지하였다.[118] 이날 극동공군은 짙은 구름으로 시정이 1~3마일로 불량한 상태에서 국군 제2군단 지역에 38소티, 미 제1군단지역에 50소티, 미 제10군단 지역에 7소티를 지원하여 약 610여 명의 적군을 사살하였다. 11월 7일에는 미 제1군단지역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소강상태에 이르자 근접항공지원은 공격을 받고 있는 국군지역으로 집중되었는데 이날 국군 제2군단 지역에 105소티, 미 제1군단 지역에 50소티가 지원되었고,

국군 제2군단 지역인 덕천 북부 지역에서 F-51 1개 편대가 중공군 600여 명에 대해 공격을 가해 이중 400~500명을 사살하였다.[119] 11월 12일에는 103소티의 근접지원비행이 실시되었는데 덕천 남서부 10마일 지점에서 중공군 2개 연대에 대한 공습을 가하여 약 1,00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120]

11월 24일 개시된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가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중공군의 강력한 제2차 공세에 부딪혀 전선이 급격히 붕괴되고 38도선으로 후퇴가 결정되자 극동공군의 지상군 근접지원소요는 감소하였으나 지상군의 퇴로확보와 엄호를 위한 근접지원은 계속되었다. 11월 27일과 28일 야간에는 중공군으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미 제25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제5공군 소속 B-26경폭격기가 출격하여 전멸직전에 있던 중대 병력을 구출하였다. 또한 11월 28일~12월 2일까지 미 제2사단의 퇴로를 확보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을 보호하기 위해 총 763회의 근접지원 및 엄호비행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군의 근접지원 및 엄호작전은 전 전선에 걸쳐 12월말 유엔군이 안전한 지역으로의 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⑵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중공군의 예상치 못한 대규모 참전과 공세로 인해 유엔군의 공세가 좌절되고 수세로 전환되면서 유엔공군의 작전양상도 달라졌다. 우선 임무비중에 있어서 항공차단작전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는데 이는 수세국면에 처한 유엔지상군의 전력을 보존하여 전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의 공세를 뒷받침하는 후속 전력과 지원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무전 특정 표적을 부여받지 않고 무장한 채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이동 중인 적의 병력이나 물자, 장비를 발견하거나 표적을 공격하는 형태의 무장정찰의 증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군의 공세기도가 유지된 11월과 공세기도를 포기한 채 38도선 상으로 전면적인 후퇴를 결정한 12월의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 횟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2월에는 11월 대비 약 2,250소티(53%) 증가한 6,462소

티를 실시하였다.[121] 동시에 11월과 12월중 전체 비행활동 중에서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각각 23%와 35%로 공수작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8-17> 1950년 6~12월 무장정찰/항공차단 비행활동 현황

구 분	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무장정찰/후방차단 (소티)	2,199	3,299	3,281	4,474	4,210	6,462

기간 중 항공차단작전은 11월 한 달 동안은 중공군의 북한지역 진입저지를 위해 폭격사령부 소속 B-29를 주축으로 한 압록강 교량폭파작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제5공군 전폭기들은 중공군의 남진을 막기 위하여 압록강과 남부를 연결하는 주요 수송로, 철도, 교량 등에 대한 수송 및 이동로 차단 작전을 실시하였다. 11월 중순 이후에는 B-29와 B-26 경폭격기를 동원하여 중공군의 은거와 중간 보급기지 및 휴식처로 이용될 수 있는 신의주, 만포진, 강계 등 압록강 지역 및 북한 북서부 주요도시의 건물과 시설들을 공격하여 도심과 보급기지로서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12월 들어서면서 유엔 지상군이 전면적인 후퇴를 감행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자 무장정찰과 항공차단작전을 확대하여 적의 공격속도를 둔화시키고 적의 병력, 보급품 및 장비를 파괴하겠다는 방침 하에 유엔공군의 노력은 배가되었고, 이러한 노력은 동부지역에서 미 제10군단의 흥남철수가 완료되는 12월 하순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방침은 12월 9일 극동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인 웨이랜드 소장의 언급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는 "중폭격기(B-29)를 우선 적 병력과 재 보급품이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수송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된 후방차단작전에 사용하여야 하며 후방차단적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촌락과 도시폭격은 병력과 보급품이 축적되어 특별히 적에게 유용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공격해야 할 것이다."라며 폭격사령부에 북한 내의

철도를 차단하는데 주력하라고 지시하였다.[122]

그리고 12월 15일부로 극동공군사령부는 북위 37도선 이북지역을 주요 교통로를 기준으로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파괴해야할 목표 172개(철교 45개, 교량 12개, 터널 13개, 철도조차장 39개, 보급품집적소 63개)를 지정하고 전술상황에 따라 추가표적을 지정하기로 한 항공차단계획 4호(Interdiction Campaign No.4)를 시행하였다.[123] 이 차단계획의 부차적 목적은 목표지역의 철도교량을 모두 파괴함으로서 적이 30마일 이상 연장된 철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었고, 극동공군과 해군은 협의를 통해 이들 11개 지역 중 원산에서 소련국경에 이르는 북한지역 북동부 해안 3개 지역 표적에 대해서는 극동해군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공군이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폭격사령부는 12월 들어 3주간 B-29를 동원하여 만포진, 군우리, 희천, 신안주, 덕천, 안주, 북창리, 순천, 송천, 숙천, 강계, 양덕, 사리원, 평양, 정주, 구봉동, 박천의 조차장과 철로시설 및 보급소를 공격하였고, 12월 10일에는 최근 유엔공군이 포기한 평양비행장(K-23), 미림비행장(K-23)에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여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파괴하였다. 또한 12월 14일에는 제19폭격전대 소속 B-29폭격기가 유엔군이 철수 시 평양조차장내 유기시킨 장비와 보급품을 적이 사용할 수 없도록 폭파하였고, 12월 21일과 22일에는 폭격사령부 전 전력을 4기 1편조로 구성하여 북한지역 교량파괴에 동원하였다.

한편 미 제8군에 대한 근접지원을 책임지고 있던 제5공군은 제8군이 12월 첫 주 이후 교전이 소강상태를 보이자 무장정찰과 후방차단작전에 전력의 대부분을 할당하여 집중하였다. 또한 12월이 되면서 중공군이 청천강 이북과 대동강 지역에서 미 제8군에 대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려던 그들의 의도가 무너지자 유엔군을 신속히 추격하기 위해 주간에 간선도로와 지방 국도로 이동함으로써 유엔공군의 공중공격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는 10월 23일 마오쩌뚱이 유엔공군의 공중공격을 회피하고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제시한 야간행군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중공군의 행동변화와 함께 12월 들어 증가한 극동공군의 무장정찰 비행으로 인해 유엔공군의 공중공격에 의한 중공군의 희생이 급증하게 된다.

<표 8-18> 1950년 12월 유엔공군 공격에 의한 적 사망자 현황[124]

구 분	12월 1일	2일	4일	5일	6일	8일	9일	13일	14일
적군 사망자 (명)	2,406	1,096	2,083	2,916	2,291	879	2,011	2,199	407
구 분	19일	21일	22일	24일	26일	27일	29일	31일	계
적군 사망자 (명)	478	360	223	281	780	985	443	22	19,86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에 기록된 12월 중 항공공격에 의한 중공군 및 북한군 사망자는 19,860명이며, 극동공군사령관은 12월 16일까지 유엔공군의 조종사들의 주장에 근거하여 약 33,000명의 중공군 병력을 살상(殺傷)하였다고 평가하였다.[125] 약 2주간에 걸친 유엔공군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중공군은 다시 이전의 지침으로 돌아가 주간이동을 금지하였고 이전 보다 강화된 위장과 기도비닉을 통해 아군의 공중공격을 회피하려 했다. 이러한 중공군의 야간이동과 기도비닉으로 인해 이전보다 무장정찰과 후방차단의 효과가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가치있는 성과를 보였는데 12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극동공군 조종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1개 사단에 육박하는 중공군 6,694명을 사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126]

12월 중순 들어 중공군의 이동이 야간으로 제한되고 기온이 하강하면서 유엔공군의 항공차단작전 수행에는 어려움이 가중 되었는데, 그 첫째는 중공군의 야간이동 및 교묘한 기도비닉 함께 강설로 인해 공격표적 식별이 곤란해졌다는 점과 둘째는 기온강하 및 강설로 인해 이착륙 시 쌓인 눈과 얼음이 폭탄걸이에 얼어붙어 네이팜탄을 투하하기가 어려워 졌다는 점이다. 또한 제5공군전력 중에서 야간에 운용 가능한 전력은 대구기지에 주둔한 제3폭격전대 소속 B-26 47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B-26의 경우 연료문제로 인한 곤란뿐만 아니라, 방한장치가 없어

결빙상태하에서는 항공기와 승무원의 활동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여 비행 중 임무를 중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다.[127] 그러나 이러한 여건 가운데서도 제3폭격전대 소속 B-26경폭격기는 12월 중 매일 출격하여 총 865회의 출격기록을 수립하였다.

12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극동공군이 수행한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작전의 공포가 중공군에게 서서히 각인되기 시작했는데, 12월 28일 제67전폭대대 소속 F-51기 4대가 화천호 근방에서 아군 방어선 전방 약 70미터 지점의 적진지에 폭격과 기총소사를 실시하였고, 공격이 끝나자 약 130여명의 중공군이 유엔 지상군 측에 투항하였는데 이들은 공습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진술했다.[128] 또한 극동군사령부의 한 정보 출처는 12월 마지막 주에 중공군의 대규모 부상병이 북쪽으로 후송되었는데 이들 중 반수 이상이 손과 발에 동상을 입었으며 이들은 "유엔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소속부대와 단절됨은 물론 정상적인 보급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29] 결국 유엔공군의 12월에 증가된 무장정찰과 후방차단작전은 적을 직접 살상하는 목적 이외에도 적의 숙영시설이나 중간 보급기지, 수송로 등을 파괴하여 향후 전력증원이나 지원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적의 전투의지를 상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혹한의 추위로 중공군을 내몰으로서 동상에 의한 비전투손실을 유도하였다.

⑶ 공수 작전

1950년 9월 전선의 변화는 항공수송 소요의 급증을 불러왔다. 1950년 9월 10일 창설된 극동공군 전투공수사령부(Combat Cargo Command)는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9월 15일부터 10월말 까지 총 8,307소티의 비행을 실시하여 인원을 포함한 약 36,635톤의 물동량을 수송하였다.[130] 이 기간 중 전투공수사령부에 부여된 임무는 북한지역으로의 전선확대로 인해 전진하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에 대한 공수지원 임무와 숙천-순천지역에서 이루어진 미 제187공정연대전투단에 대한 공중강하 임무였다. 이때에도 전투공수사령부 공수취급소는 24시간 운영되었으며, 11월과 12월에도 전투공수사령부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급한 공수소요는

더욱 증대되었다. 중공군의 개입과 함께 10월 말부터 아 지상군의 진격은 좌절되었고, 전선 전방지역에 대한 지상수송로가 차단됨으로써 공수소요는 더욱 급증했다.

<표 8-19> 1950년 6~12월 공수비행 활동

구 분	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수비행(소티)	1,279	2,717	3,301	6,275	6,772	5,310

1950년 11~12월간 실시된 전체 비행활동 중에서 공수비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1월은 약 37%, 12월에는 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전투공수사령부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중공군의 포위 및 지상수송로의 차단에 따라 전방지역에 고립된 부대에 대해 공중투하를 통해 탄약, 장비, 식량, 보급물자 등을 지원하는 것과 철수하는 지상군부대의 병력과 장비를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투공수사령부는 11월에 실시된 공군전술부대의 북한 지역 전개에 따라 두 가지 임무에 추가하여 이들 부대의 장비와 물자에 대한 공수지원도 함께 실시해야만 했다.[131]

이 시기에 전투공수사령부가 처한 입장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북한지역에 진출한 미 제8군과 제5공군이 필요로 하는 1일 공수소요 충족이 곤란하다는 점이었다. 10월 하순 미 제8군 지휘관과 참모는 앞으로 자신들이 직면한 장애물은 북한의 저항이 아니라 보급품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였고, 보급품의 원활한 지원이 보장된다면 2주안에 북한 전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여 지상 작전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0월 22일 회의에서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미 제8군 군수참모는 제5공군 부사령관인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장군에게 미 제8군의 추가적인 북진을 위해서는 차량연료, 식량, 탄약 등 매일 1,000톤의 공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투공수사령부의 제5공군에 대한 공수할당량을 줄여야 된다고 제5공군에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팀버레이크

장군은 추가적인 F-51 2개 비행단의 북한 지역 이동이 계획되어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일 450톤의 공수지원이 필요하며 전투공수사령부의 북한 북서부 지역 1일 최대공수할당량이 1,000톤임을 감안할 때 미8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설명하였다.[132] 이에 대해 미 제8군에서는 근접항공지원을 덜 받더라도 공수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런 가운데 10월 말이 되면서는 유엔공군의 후방차단작전으로 대부분의 전방 지역 지상수송로가 파괴되고 후방에서는 적 게릴라가 출몰하여 기차와 트럭을 기습하였으며, 강설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는 등 지상수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여기에 해상수송까지 항구와 해안에 설치된 기뢰로 어려움에 처하자 패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향후 2주일 동안 전투공수사령부의 전력 중 대부분을 미 제8군의 보급품수송에 사용하도록 조치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5공군부대에 대한 공수할당량을 1일 60톤으로 제한하도록 지시하였다.

두 번째로 제5공군과 전투공수사령부간의 기지사용문제가 제기되었다.

터너(William H. Tunner) 전투공수사령관은 공수소요의 증가에 따라 일본에서 직접 요청지역에 화물을 공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제기되자 한국 내 공수를 위한 기지 확장을 요청하였고, 제5공군 또한 신속한 전술작전 시행을 위해 추가적인 한국 내 기지사용을 극동공군사령부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MIG-15의 출현과 함께 적 공군력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한국 내 기지사용의 우선권을 제5공군에 주었고 이로 인해 전투공수사령부는 공수지원이 최대로 요구되는 시기에 비행장 사용규모가 축소되어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극동공군사령관은 터너 소장에게 유엔군 예하부대들의 공수요청에 대해 적합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11월 10일에는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공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수송이 불가능한 비상보급품에 한하여 공수요청을 수락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133] 더욱이 11월 중순 이후 미 제8군이 사용할 수 있는 진남포, 해주 항과 서울-평양간 철도가 사용가능하게 되고, 또한 미 제10군단이 사용할 수 있는 이원과 원산

항이 열리게 되어 이들 부대에 소요되는 수송을 지상과 해상수송으로 전환하면서 전투공수사령부는 다소 숨통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전투공수사령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차원에서 11월에는 제437공수비행단(C-47 보유), 12월에는 61수송전대 제4대대(C-54 보유)를 추가로 본토로부터 전개하였고, 인원과 장비를 증원하여 제374수송비행단의 C-54 수송기 2개 대대의 가동을 기당 1일 8시간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33% 수송량을 증가하는 등 수송능력 신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중공군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미 제1해병사단 작전지역에 약 1,268톤의 장비, 물자, 식량, 탄약 등을 공중투하 하였으며 제801의무후송대대는 하갈우리와 고토리 간이비행장을 통해 부상자 4,863명을 후송하였다. 그리고 제10군단의 흥남철수 지원을 위해 전투공수사령부는 연포비행장을 활용하여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약 320톤의 화물을 수송하였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지속된 미 제10군단의 철수지원을 위해 가용인원과 수송기를 총동원하여 총 393회에 걸쳐 부상자 228명, 병력 3,891명, 화물 약 2,088톤을 부산, 대구 등 후방지역으로 수송하였다.

전투공수사령부는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미담을 만들었는데 제5공군 군목 울버튼(Wallace I. Wolverton) 대령과 블래이즈델(Russell L. Blaisdell) 중령은 1950년 가을부터 서울에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돌봐왔다. 그러나 전세가 바뀌었고 서울이 다시 적에 의해 점령될 경우 고아들이 희생당할 것을 염려한 황온순 원장[134]이 고아들을 피난시키려고 인천항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래이즈델 중령은 이들을 공수



제주도에 도착한 황온순 여사와 어린이들

하여 줄 것을 전투공수사령부에 요청했다. 이 요청을 접수한 터너 소장은 12월 20일 제61수송전대 소속 C-54 12대를 눈보라치는 가운데 김포기지로 보내 고아 989명 전원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공수시켰다. 공수비행에 참가했던 인원들은 이를 '성탄절 어린이 공수작전(Operation Christmas Kid-Lift)'이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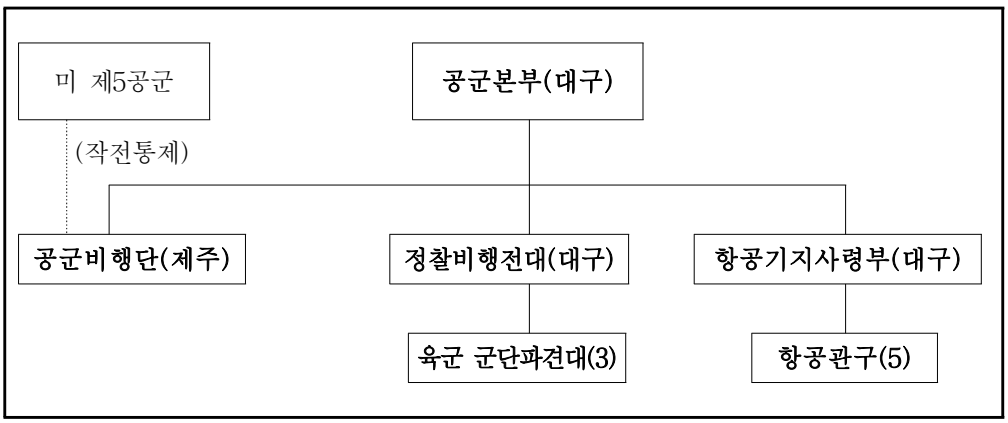
3. 한국 공군작전

중공군은 1950년 10월 중순 압록강을 넘어 북한지역으로 이동하여 10월 25일 국군 6사단 2연대와 온정리(운산) 서북쪽에서 첫 교전을 치름으로써 6·25전쟁 개입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국군과 유엔군의 중공군에 대한 3차 공세가 시작된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공군의 활동은 북한지역에 전개된 각급부대에 대한 철수 명령이 내려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 작전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11월 30일 이전에는 북한지역 점령기지에서 전투준비 활동에 주력하였고 이후에는 부대의 안전한 후방지역 철수와 전투력 보강준비에 착수하였다. 먼저 11월 30일 이전의 공군활동으로 미림기지에 전개했던 공군비행단은 미 제6146기지부대 조종사의 평양 서부(순천, 박천, 삭주, 희천, 강계 등) 및 동부(원산, 함흥, 장진 등)지역에 대한 출격작전임무를 지원하였고 T-6기는 F-51의 작전지역 유도 및 정찰, 지휘관 수송 등 지원임무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찰비행전대는 육군 각 군단과 함께 이동하면서 공중정찰과 및 연락임무, 포병을 동승한 관측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철수 명령이 내려진 11월 30일 이후 공군비행단은 대전기지로 철수하여 중공군 개입에 따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여 전투력 강화 계획에 착수하였고 정찰비행전대 소속의 정찰파견대는 후퇴하는 육군의 각 군단과 함께 철수하면서 작전지원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 시기 C-47 1대가 한국공군에 인도되어 공군은 최초 수송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 한국 공군 편성 및 지휘관계

이 시기 한국공군은 독자적인 공중전투를 위한 완전한 조직과 편성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유일한 전투비행부대인 공군비행단은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의 자문과 지원을 받으며 제5공군의 적전통제하에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표 8-20> 한국 공군 지휘관계(1950년 12월말 기준)



1950년 12월 31일 기준 한국공군의 조직과 편성은 공군본부(총참모장 : 김정렬 소장) 예하에 비행부대로는 비행단(단장 : 장덕창 대령)과 정찰비행전대(전대장 : 오점석 소령)를 두고 있었고, 비행기지에 대한 방호, 보급, 시설 등 각종 지원을 위해 항공기지사령부(사령관 : 최용덕 준장)를 두었다. 공군본부는 4개국(인사, 정보, 작전, 군수), 5개실(고급부관, 재무감, 법무감, 정훈감, 병참감)로 구성되었고 비행단은 예하에 2개 비행중대, 정비대, 보급대를 편성하였다. 항공기지사령부는 전국을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5개 항공관구(航空管區)를 두었고 항공관구는 예하에 각 기지를 지원하는 기지대(基地隊)를 두었다. 이중 제4, 5관구는 1950년 10월부터 12월 하순까지 북한지역 비행장점령 시에 운용되었다. 또한 한국공군은 기타 교육 및 지원부대로 공군사관하교, 통신대, 헌병대, 병원 등을 설치 운영하였다.

2) 비행단 및 정찰비행전대 작전

국군 및 유엔군의 진격작전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주둔 중이던 여의도기지가 미 제5공군의 전진기지가 되어 C-46 수송기 30여 대가 전개되는 등 기지가 혼잡해짐에 따라 10월 30일 미림기지로 전개했던 한국공군비행단은 순천, 박천, 삭주, 희천, 강계 등의 평양 서부지역과 원산, 함흥, 장진 등 동부지역에 대한 중공군의 남하 저지작전을 전개하는 미 제6146기지부대와는 별도로 전투훈련에 전념하였다.[135] 아군이 급속하게 북진을 하게 됨에 따라 공군의 F-51전투기는 임무를 중지한 채 여의도 기지로부터 평양 미림기지로의 전개를 준비하였으며 미림 전개 후에는 전투 임무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제6146기지부대가 중공군의 야간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출격작전에 전력의 대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간 전투비행 경험이 없는 한국공군 조종사들은 향후 출격에 대비한 훈련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136]

한편 미림기지에는 11월 22일 미 제18전폭비행단과 제6002전술지원단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대대가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기지는 미 제5공군의 한국 서북부 지역에 대한 작전 및 보급을 위한 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1월 중 미 제6146기지부대 미군조종사가 수행한 비행은 총 81소티(Sortie)였으며 F-51 한 대가 손실되었는데, 11월 11일 잭슨(Melvin T. Jackson) 대위가 신안주 지역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 적 대공포에 피격되어 엔진이 파손되었으나 불시착하였다. 이 사고로 잭슨 대위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항공기는 완전히 대파되어 손실되었다.[137]

11월 중 거둔 전과는 차량 파괴 122대, 차량 및 선박 각각 10대 및 5척 손상, 물자집적소 10개소를 파괴하였고, 열차 15대, 탱크 2대를 손상시켰다. 11월 중 소모한 탄약은 250파운드(lbs) 폭탄 100개, 5인치 로켓 300개, CAL-50기관총 200,000발이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이 불리해짐에 따라 11월 말부터 준비된 공군비행단과 미 제6146기지부대 철수는 12월 2일 여의도 기지를 거쳐 12월 5일 대전으로 이어졌다.[138] 12월 중 F-51전투기는 총 39소티의 전투

임무를 실시하였고 트럭 7대, 야포 2문, 교량 2개 등을 파괴하였다. 또한 무장으로 250파운드 폭탄 78개, 5인치 로켓 234개, CAL-50 58,500발을 사용하였다. 이 기간 한국조종사에 의한 F-51 출격실적은 전무하며, 미림기지와 대전기지에서 이루어진 전투임무 출격은 미 제6146부대 미군 조종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미림기지에서 작전을 실시했던 11월에는 야간출격 경험이 없는 이유로 해서 한국공군 조종사의 출격이 제한되었고, 12월에는 전쟁장기화를 대비한 공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전투임무 중지와 함께 제주기지로 전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공군비행단 소속 T-6기의 활동은 이전과 차이 없이 진행되었다. 우선 11월 중에는 여의도기지(K-16)와 평양 미림기지(K-24)에 각기 2대씩 주둔하고 있던 T-6기가 미 공군의 F-51전투기를 작전지역으로 유도하고 타격지점을 통보하는 등의 항공통제임무를 수행하였고 공군본부 파견대로 여의도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2대는 주요지휘관의 일선시찰, 작전명령 하달, 지휘관 수송, 긴급연락 임무 등을 수행하였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작전이 시작된 이후 공군의 여의도 작전이 시행된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T-6기는 총 698소티(정찰 : 334소티, 연락업무 364소티)를 실시하였으며 심리전 임무도 수행하여 북한지역에 전단 23만여 매를 살포하였다. 12월 중에는 제주기지(K-40)에 2대, 대구 동촌기지(K-2)에 2대, 여의도 기지(K-16)에 2대의 T-6기가 배치되었다. 이들 중 제주기지에 배치된 2대는 12월 하순부터 시작된 조종사 비행훈련에 투입되었는데 12월 중 57소티의 훈련비행을 실시하였다. 작전 중 손실도 있었는데 1950년 11월 12일 15:00경 공군참모부장(현 참모차장)인 박범집(朴範集) 준장이 작전국장 서한호(徐漢浩) 중령과 함께 함흥상공에서 기체결함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표 8-21> 공군비행단 T-6 활동(1950. 9. 24~11. 30)

부 대	작전 기지	기 간	임 무(소티)	
			정 찰	연 락
본 대	여의도	'50. 9. 24~10. 24	113	68
	미 림	'50. 10. 24~11. 30	136	175
공군본부 파견대	여의도	'50. 9. 24~11. 30	85	121
총 계			334	364

정찰비행전대의 작전활동은 육군 각 군단의 전진 및 철수와 함께 이동을 반복하면서 육군 군단에서 요청되는 적정정찰 및 연락, 포병 관측 장교를 동반한 관측활동임무를 수행하였고 정찰 결과는 공군비행단 및 미 제5공군에 통보하여 작전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한국공군 정찰비행전대는 1950년 9월 16일 미군으로부터 L-4기 4대를 증여 받아 총 14대(11대/L-4, 2대/L-5, L-19/1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11월이 되면서 7대로, 12월에는 4대로 감소하게 된다.[139] 기간 중 정찰비행전대 본대는 여의도 기지에 주둔하다가 12월 31일 대구 동명기지로 이동하였고, 제1군단 파견대는 군단의 이동에 따라 경주에서 강릉(10월 4일), 원산(10월 14일), 함흥(10월 23일), 흥원(11월 7일), 성진(11월 15일)으로 전진하였다가 군단 후퇴와 더불어 여의도 기지(12월 7일)로 철수하였다. 제2군단 파견대 또한 안동(9월 27일), 여의도(9월 29일), 포천(10월 11일), 평강(10월 15일), 곡산(10월 17일), 성천(10월 22일), 개천(10월 27일), 평안남도 순천(11월 1일)까지 전진하였다. 이후 여의도(12월 5일)로 철수하여 정찰비행전대 본부에 합류하였다가 12월 13일에 제2군단이 주둔한 춘천으로 재차 파견되었다. 제3군단 파견대는 1950년 10월 16일에 창설되었지만 기간 중에는 비행활동 없이 차후 작전을 준비 중에 있었다. 확인 가능한 정찰비행전대의 출동기록은 <표 8-22>와 같다.

<표 8-22> 정찰비행전대 비행활동(1950. 10. 1~12. 31)

부 대	작전기지	작전 기간	기종/임무별 비행활동						
			총계	L-4		L-5		L-16	
				정찰	연락	정찰	연락	정찰	연락
전대 본부	영 천	10.1~5	107	11	94				2
	여의도	10.5~12.31	537	33	235	34	165	1	69
1군단 파견대	경 주	10.1~4	11	4	7				
	강 릉	10.4~10	25	10	3	4	8		
	고 성	10.10~11	5	1	2	1	1		
	고 저	10.12~14	3	1	2				
	원 산	10.14~23	26	5	12	3	6		
	함 흥	10.23~11.17	21	11	10				
	흥 원	11.7~15	12	2	10				
	성 진	11.15~12.5	11	2	9				
2군단 파견대	포 천	10.11~15	12	2	10				
	평 강	10.15~17	6	1	5				
	곡 산	10.17~29	28	7	21				
	성 천	10.22	12	2	10				
	희 천	10.27	7	2	5				
	개 천	10.27~31	34	10	24				
	순 천	11.1~12.5	129	43	86				
	맹 산		5		5				
	강 동		2		2				
총 계			993	147	552	42	180	1	71

3) C-47 수송기 인수와 공군 공중수송반 창설

서울을 수복한 9월말 여의도 기지를 방문한 미 제5공군사령관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소장은 한국 공군에 F-51 전투기 10대와 C-47 수송기 1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그 후 11월 초 우선 C-47 1대를 한국 공군에 양도하겠다는 미 제5공군의 통보가 있자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 소장은 11월 9일 장덕창(張德昌) 비행단장에게 수송기 인수를 위해 조종사 6명을 훈련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11월 10일 평양 미림기지에서 미국으로부터 C-47 1대를 인도받은 한국 공군은 미 조종사들과 함께 항공기 운영을 시작하였다.[140] 이에 공군은 C-47 수송기의 운영을 위한 공중수송반을 창설하게 되는데 초대 공중수송반장에는 장성환(張盛煥)중령이 임명되어 조종을 담당하였고 정비는 김영재(金英哉), 이규석(李奎奭), 윤근섭(尹根燮) 대위와 한찬동(韓讚東) 소위, 이기준(李基駿) 하사 등이 담당하였으며, 통신은 김전택(金田澤) 중위가 담당하였다. 이로써 창군 이후 최초로 수송전력을 획득하게 된 공군은 C-47 수송기를 군 관련 인원과 화물 수송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주요 인사 수송임무와 미 공군 제6146기지부대 관련 수송임무 등에 활용하였다.[141] 공중수송반은 여의도 기지에서 미림기지 간 인원 및 물자를 수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 제6146기지부대의 지원업무를 위해 일본까지 장거리 비행을 실시하였다. 특히 철수 작전기간에는 미림기지 병력 철수를 위해 미림에서 여의도까지 3차례 비행을 실시하였다.

4) 북한지역 전진 공군부대의 철수

1950년 10월 25일 국군 6사단 2연대와 온정리(운산) 서북쪽에서 6·25전쟁 최초로 교전을 시작한 중공군은 대규모병력으로 국군과 유엔군을 포위하는 인해전술로 아군을 위협하면서 아군을 전진을 중지시킴은 물론 후퇴를 강요하여 전쟁의 국면을 역전시켰다. 이에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 소장은 1950년 11월 30일부로 북한에 전개된 공군부대를 서울과 대전지역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담은 작전명령(공본 작전명령 제 55호)을 하달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비행단장 장덕창 대령은 12월 1일 00:00부터 12월 3일 24:00까지 예하부대 전 병력과 장비를 육로와 공로로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여 차기 작전을 대비할 것.

② 항공기지사령관(최용덕 준장)은 12월 4일 00:00부터 12월 8일 24:00까지 북한의 각 기지를 관할하고 있는 제4관구와 제5관구의 전 병력과 장비를 서울로 집결시키고 기지전개를 위한 태세를 완비할 것.

③ 헌병대장(김득룡 소령)은 북한 내 각 기지의 주요 시설을 사용 불가능상태로 파괴하고 12월 9일 24:00까지 전 병력을 서울로 철수시키고 서울지역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작전명령에 따라 북한에 전개된 비행단을 비롯한 각급 부대는 자체적인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을 시작했다. 먼저 미림기지에 전개해있던 비행단은 부대이동에 관한 비행단 명령 제5호(1950.11.30)를 하달하여 철수계획을 구체화하였다. 비행단은 4개 제단(梯團)으로 이동부대를 구성하고, 제1제단(비행단 본부 및 정비대)는 김규철(金圭澈) 대위, 제2제단(정비소대를 제외한 비행장중대 및 비행대)은 장지량(張志良) 소령, 제3제단(경비소대 및 군수처)은 박성진(朴性鎭) 중위, 제4제단(조종사 및 정비사 11명)는 정영진(鄭永鎭) 대위를 각각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이를 총괄하는 책임은 장지량 소령이 지도록 하였다. 12월 2일 제2, 4제단이 공로(空路)로 여의도 기지로 철수하였고 제1, 3제단은 육로로 대전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육로 이동은 이날 새벽 5:30분에 비행단장 장덕장 대령과 김신(金信) 중령 지휘 하에 출발하였고 공중이동 부대는 날이 밝자 먼저 김영환(金英煥) 중령이 지휘하는 T-6 편대가 여의도기지를 향해 이륙하였고 이어 F-51 전투기도 여의도기지로 이동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성환 중령이 C-47 수송기를 이용해 잔류 병력과 장비를 이동하였다.[142] 공로로 여의도 기지로 전개했던 공군 비행단은 여의도기지에서 재보급 후 최종 목적지인 대전기지로 이동하였다.

한편 공군비행단 고문단 역할을 수행했던 미 제6146기지부대는 이동이 시작되기 전 벨로빈(Milton Bellovin) 중위를 포함 8명을 서울기지 전개를 위한 선발대로 파견하여 기초공사를 수행하였고 공군 C-47(ROK 301) 수송기를 이용해 상당량의 물자를 여의도로 전개하였다. 다시 철수기지가 대전기지로 변경되자 12월

2일 선발대를 대전으로 보낸 이후 미림기지로부터 공수비행이 가능하도록 활주로를 정비하였다. 수송물동량이 많은 관계로 미 제5공군에서 제공한 C-47 3대와 공군 소속 C-47(ROK 301) 1대를 이용함에 따라 철수는 순조로이 이루어져 유기물자 없이 부대 물자 전량을 이동하였고, 이로써 대전기지로의 철수작전은 적군이 미림기지를 점령하기 12시간 전인 12월 6일 트럭 20대가 미림기지를 출발하면서 종료되었다.[143]

아군의 북진과 함께 효율적인 전방지원을 위해 예하부대를 평양(제4항공관구)과 원산(제5항공관구)에 전개했던 항공기지사령부는 명령(항공기지사령부 작전명령 2호)을 하달하여 12월 7일까지 서울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4항공관구(관구장 : 허영걸 許永杰 대위)는 본부병력 70명과 신안주(新安州) 파견대 병력 30명이 관구장 지휘 하에 서울로 출발하였으나 신막(新幕) 북쪽 20km 지점에서 빙설로 인해 장비를 적재한 수송차량이 전복되자 신막에서 하루 밤을 숙영한 후 다음날인 12월 7일 15:00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제5항공관구(관구장 : 전경남 全京南 중위) 소속 함흥기지부대와 원산파견대는 미 공군 수송기편으로 12월 7일 각각 서울과 대구동명기지로 이동하였다. 대구동명기지로 이동한 원산파견대 소속 인원은 동명비행장 확보와 아울러 공군본부가 이동할 대구 시내 효성여자중학교 건물의 보수작업에 착수하였다. 또한 평양에 파견돼 있던 평양지구헌병대 병력 40명은 김상태(金相台) 중위 지휘로 서울로 이동 중 미림기지의 주요시설 및 유류저장고 등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아 미림기지의 통신시설과 연료 및 탄약저장소, 급수시설 등을 폭파한 후 12월 7일 08:00에 평양을 출발하여 12:00에 신막기지 파견대 병력 30명과 합류하여 16:00에 서울로 이동함으로써 북한에 전진배치되었던 공군 전부대의 철수작전을 모두 종료되었다.

5) 전력 재정비를 위한 공군부대 제주기지 전개

12월초 북한으로 전개했던 비행단과 기지사령부 소속 예하부대, 헌병파견대 등이 서울과 대전, 대구 등으로 철수한 이후 국군과 유엔 지상군이 38도선으로 철수 하는 등 전세가 계속 불리하게 전개되자 공군은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

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다.

① 전투조종사 양성과 전술전기 연마에 주력하고 전비태세를 갖추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한다.

② 육군 각 군단에 파견된 정찰비행파견대는 계속 육군을 지원하고 정찰임무를 수행한다.

③ 전투부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기지에 백구부대를 창설한다.

④ 공군부대와 백구부대 및 각 기지경비요원을 제외한 공군 전 부대는 제주기지로 철수한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선 조종사 양성을 위한 기지를 물색하였다. 그러나 우선 고려 대상인 대전기지는 활주로 길이가 짧고 거칠 뿐만 아니라 주기장도 불비한 상태여서 전투기의 작전기지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 제5공군도 대전기지 활용을 기피 한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국 공군이 미 제5공군으로부터 기지사용 승인을 받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점이 불리한 상황인데다, 아직 F-51 전투기 조종에 숙달되지 않은 한국 조종사들도 대전기지에서의 작전과 훈련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군 총참모장 김정렬 소장은 미 제6146기지부대장인 헤스(James D. Hess) 중령과 기지 선정문제를 논의하였다.

김정렬 총참모장은 대전기지의 부적합성과 함께 새로운 기지 선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헤스 중령에게 제주기지의 장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선 제주기지는 기후가 온난하여 훈련기지로 적합하다는 점과 전선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후방지원기지로서의 제주기지의 높은 안전성과 생존성을 강조하면서 공군 조종사의 전투력 향상이 매우 절실한 현 시점에서 조종사를 훈련시키기에 제주기지는 매우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비를 필요로 하는 미군 항공기를 정비하여 전투에 재투입하는 항공후방지원기지로서의 높은 활용가능성을 들어 헤스 중령을 설득하였고 이를 위해 제주기지에 조종사 훈련을 담당할 비행교관요원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헤스 중령은 즉각 이를 수락하였고 12월 17일 제주기지에

1개 파견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미 공군의 고장 난 항공기를 제주기지에서 정비한 다음 대전 기지로 이송하여 출격하도록 결정하였다.[144]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제주기지는 장기전을 대비한 한국 공군의 모기지로 결정되었고 대전기지는 전진기지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공군본부는 12월 19일 비행단을 제주기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고 비행단은 이 명령에 의거 12월 20일에 대전에서 군산으로 이동하여 해군의 LST(홍천호)편으로 제주기지로 출발하였으며 비행단 선발대는 이보다 하루 전인 12월 19일 T-6 3대와 C-47 1대로 제주기지로 이동하였다. 이때 대전기지에 주둔중인 제6146기지부대의 전투지원을 위해 김신 중령을 지휘관으로 정비사 등 약 2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일명 백구부대는 이동에서 제외되었다. 제주기지로 이동한 비행단은 F-51비행부대 예하에 제11전투비행중대와 12비행중대 및 이들 비행부대를 지원할 정비대와 보급대를 편성하고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을 시작하였다.

제 4 절 분석 및 평가

중공군의 지상전 참전과 더불어 중국 주둔 소련공군과 중국에서 소련공군의 지원을 받아 1개 항공사단규모로 복원된 북한공군의 참전은 맥아더가 언급하였듯이 6·25전쟁을 이전 양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으로 변화시켰다. 이 기간 중 피아간 공군작전의 양상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1. 북한 및 소련 공군작전

11월 1일 1개 혼성비행사단 규모로 중국 단둥(丹東)에서 복원된 북한 공군은 11월 중 신의주비행장으로 기지를 옮겨 주로 평양 서북부상에서 접전중인 국군 및 유엔군에 대한 공습과 아 공군이 점령하고 있던 북한지역비행장(평양, 미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보유한 Yak-9, PO-2를 이용하여 제한적인 방공임무와 근접지원작전을 펼쳤다. 북한 공군은 이로써 궤멸상태에서 전력을 복원하여 다시금 전쟁에 모습을 드러냈고 중공군과 북한 지상 전력을 지원하고 유엔공군 저속항공기에 대해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한편 11월 1일 중국 동북부 지역의 선양과 안산에 주둔한 제151비행사단 소속 MIG-15 전투기들이 미 공군기와 교전하면서 시작된 소련공군의 참전은 중공군의 지상전 개입과 함께 6·25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사건이었다. 소련 공군의 참전으로 유엔공군이 이전까지 누려왔던 완벽한 제공권 확보는 도전을 받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성능과 무장에서 열세를 보인 유엔항공기들은 소련 공군을 맞아 새로운 전술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소련 공군은 1950년 12월까지 14개 비행사단을 중국에 파견하였고 6·25전쟁 참전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제64비행

군단을 창설하여 중국에 주둔한 2~3개 비행사단을 예하에 교대로 편입시킴으로써 미국과의 확전방지를 기도하는 동시에 전투의 효율성을 증대하였다. 스탈린에 의해 명확하게 한정된 목표와 임무인 중국 동북부 주요 도시에 대한 방호와 중공군의 엄호를 위해 활동을 펼친 소련공군은 자평을 통해 기간 중 유엔공군과의 전투를 통해 발생한 소련공군 대 유엔공군 항공기의 손실비율을 1:8로 분석함으로써 성과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소련공군은 미국과의 확전을 우려하여 소련공군을 중국군으로 위장하는 등 그들의 참전사실을 철저하게 은닉하였고, 또한 작전한계를 명확히 하여 소극적 방공임무로 임무를 국한하는 등 대단히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작전을 펼쳤다. 이리하여 그들의 작전지역은 소위 미그회랑(MIG Alley)으로 한정되었고 작전형태도 미그회랑으로 진입하는 유엔공군기에 대한 요격과 방어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소련공군의 소극적인 전략은 아군이 후퇴국면에서 입을 수 있는 대규모의 치명적인 피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공중전에서도 소련공군 조종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불러왔는데, 자신들이 수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거나, 태양을 등지고 있는 상태 등 유리한 국면에서만 전투를 시행했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압록강을 넘어 중국으로 도주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성능과 무장, 전투지형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유엔공군이 점차 MIG-15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이전의 제공권을 확보하게 되는 한 가지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은 이 기간의 전투를 통해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연해주와 만주에서 조종사 및 기술요원을 추가로 양성하였으며, 향후 확대되는 전세에 대비하여 전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고, 소련 공군은 새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실전에 배치하여 성능을 점검하고, 실전경험을 통해 조종사를 포함한 전투원의 기량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의도한 유엔공군의 제공권에 손상을 입히고, 활동영역의 일정부분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유엔 공군작전

1) 지상군 전선 상황과 밀접히 연계된 공군작전

1950년 8월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 지상군의 전선 상황을 피아간 접전, 아군 북진, 아군 후퇴로 구분하고 이 기간 동안의 비행활동(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군작전이 지상군의 전선 상황에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8-23> 지상군 상황과 공군비행활동 추이

지상군 상황	기 간	비행 운영(소티)				
		총비행 활동	근접 지원	항공차단/ 무장정찰	공 수	제 공
피아간 접전	8월	15,586	6,774	3,299	2,717	317
	9월	15,839	6,250	3,281	3,301	126
아군 북진	10월	16,634	3,340	4,474	6,275	117
아군 후퇴	11월	18,116	3,652	4,210	6,772	916
	12월	18,184	3,336	6,462	5,310	760

먼저 총 비행활동 측면에서는 피아간에 낙동강방어선 및 북한군 후퇴국면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 8월과 9월의[145] 평균 비행활동은 15,712소티(8월 : 15,586소티, 9월 : 15,839소티), 아군 북진기간인 10월에는 16,634소티, 아군 후퇴기간인 11월과 12월 평균비행은 18,150소티를 실시하였다. 11월과 12월 총 비행활동은 8~9월 대비 15%, 10월 대비 약 9% 증가하여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엔공군 전술부대의 추가전개에 따른 비행자산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한 비행작전형태도 지상군 전선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우선 근접지원작전의 경우 피아간에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8~9월에는 월 평균 6,512소티로 전체 비행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아군이

급속한 북진을 단행했던 10월에는 3,340소티(20%)로, 그리고 아군이 후퇴를 단행한 11~12월에도 평균 3,494소티(19%)로 급감하였다. 이는 지상전에서 피아간의 백중한 접전이 거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한 압도적인 우세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공군의 근접항공지원소요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항공차단 및 무장정찰임무는 8~9월에는 평균 3,290소티로 총 비행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를 보였고, 10월에는 4,474소티(27%), 11월~12월간에는 평균 5,336소티(29%)로 증가하였다. 전선이 없는 공군작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무장정찰 및 항공차단작전은 지상군 근접지원소요가 감소하자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아군이 전면적인 후퇴를 결정한 12월에는 6,462소티(36%)로 급증하게 된다. 이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긴급한 퇴각상황에서는 전선 상황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해짐 따라 내려진 고육책(苦肉策)으로, 이륙 전 공격 표적을 부여받지 않고 무장 출격하여 일정지역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병력과 차량 및 물자의 이동대형을 발견하거나, 지상에서 피아간의 예상치 못한 교전이 발생 시 이를 차단하고 아 지상군을 지원하기 위한 무장정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공수작전 추이도 전선이 고착되어 치열한 접전을 벌인 8~9월에는 평균 3,009소티로 총 비행활동에서 약 19%의 비중을 보였으나, 지상전선이 확대되고(10월), 아군의 전면적인 후퇴로 수송소요가 급증(11~12월)하자 각각 6,275소티(38%), 6,041소티(33%)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상군의 전선 상황에 연계된 공군작전운영은 당시 전장상황의 불요불급한 여건과 북한 공군의 조기궤멸로 인해 공군의 최우선 임무인 제공권이 확보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문제점을 발생시켰는데 첫째는 공군력의 특성을 살리고 공군 본래 전술운영의 목적인 적의 전쟁의지 말살과 후속 증원차단을 위한 작전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공군 개입과 후속증원전력 차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유엔군 지상군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적을 만나 패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둘째는 지상군 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군작전을 적시에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는 아군의 북진과 후퇴 시에 공수지원문제로 나타났는데 미 제8군과 제10군

단에 대해 공수지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군 전술부대의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전개나 북한지역으로의 이동이 지연되어 공군작전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공군전력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 웨이랜드 소장은 "지상 전력에 대한 공군작전을 단지 육군에 대한 직접 지원이 전부라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146]

2) 정보부족과 항공정찰의 문제점

국군과 유엔 지상군이 중공군의 기습적인 참전을 예상하지 못하여 극심한 곤란을 겪은 것처럼, 적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공군작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정확한 중공군의 참전규모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예측하지 못함에 따라 11월에 F-51전폭기 8개 대대를 북한지역에 전개하였으나 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철수를 단행해야 했고 급박한 철수 과정에서 장비와 탄약을 유기해야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야 했다. 또한 작전수행 측면에서도 11월에 극동공군의 가용한 전 전력을 투입하여 실시했던 압록강 교량폭파 작전은 이미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이 도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MIG-15가 출현하여 북한 북서부에 대한 제공권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아 항공기의 피해가 확인된 지 한 달여가 넘은 12월이 되어서야 F-84와 F-86항공기가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상군 지원에 있어서도 먼저 기동하여 교전 예상지역을 선점하고 적 지상군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의 불의의 기습으로 위기에 처한 아군에 대한 지원과 퇴로확보에 근접항공지원이 이루어져 작전 효과가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보지원의 문제점은 당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제8군과 제10군단이 적정을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 수집을 오직 포로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정찰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극동공군의 공중정찰 부족으로 인해 더욱 더 문제가 심화되었다.[147] 극동공군은 11월 중 모스키토 조종사에 의한 시각 정찰 외에 기타 정찰기에 의한 시각정찰비행이 전혀 없었고 야간 정찰수단을 유일하게 갖고 있던 제162전술정찰대대 RB-26은 114회 출격을 단행하였는데 이마저도 대부분을 F-7F 해병야간폭격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명탄

투하 임무에 할당하였다. 제8전술정찰대대와 제91전략사진정찰대대가 그나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지만 부족한 자산으로 인해 적의 주요보급로 및 중요지역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전략정보 부재와 전술정보자산의 부족은 적정파악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는 유엔공군의 작전에 혼선을 불러왔으며 예측성을 감소시켜 작전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한국 공군작전

중공군의 참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50년 10월 25일부터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철수가 완료된 12월 30일까지 한국 공군 비행단의 작전활동은 비교적 소강상태를 보였다. 특히 F-51의 미림비행장(K-24) 전개 이후 유엔공군의 활동이 중공군의 진입저지를 위한 야간작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야간작전 경험이 전무한 한국군 조종사들은 임무에서 제외된 채 훈련비행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공군비행단에 대한 자문과 지원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미 공군 제6146부대 조종사들에 의한 북한 북서부지역 출격과 미 제8군에 대한 지원활동은 지속되었고 이때 한국 공군요원들은 정비지원 등 미 공군 제6146부대의 작전활동에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찰비행전대는 이전과 변함없이 국군 제1, 2군단과 함께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공중정찰, 포병관측, 업무연락 등의 지원임무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 기간 중 한국공군은 C-47 1대를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하여 공중수송반을 창설함으로써 공수자산을 최초로 보유하게 되었고 미림기지 철수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주요인사 수송 등을 통해 공수작전능력을 배양하게 되었다.

유엔군의 철수와 함께 한국 공군 비행단과 정찰비행전대는 대구, 대전 등으로 이전하였고, 향후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자 전력증강을 위해 비행단을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12월 하순 제주도로 이동한 비행단은 예하에 2개 비행중대와 정비대 등을 편성하여 향후 조종사 양성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12월 말부터 미

제6146부대의 지원 하에 본격적인 조종사 비행훈련에 돌입하였다.

장기전을 대비한 전력증강과 조종사 양성을 위해 제주기지로 비행단을 이동한 것은 이전의 비행훈련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던 조종사의 무모한 희생을 막고 보다 많은 수의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확대될 전장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이듬해 4월에 시작된 중공군 춘계공세 저지를 위한 한국 공군의 출격 및 성공적인 작전성과의 밑거름이 되었다.

1950년 10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북한과 소련, 그리고 한국과 유엔군 측의 공군작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 보면 먼저 북한 공군은 복원된 혼성비행사단 전력을 활용하여 평양이북 공중에서의 제한적인 방공요격임무와 북한 및 중공군에 대한 지상엄호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소련공군은 제64전투비행군단을 창설하여 예하에 2~3개의 전투비행사단을 두고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행정 및 경제중심과 산업시설, 철도거점, 군대집결지 등과 같은 주요 전략거점을 유엔공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 및 중국의 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해 미그회랑을 중심으로 유엔공군과의 치열한 교전을 수행하였다.

한편 유엔공군과 한국공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공군과 소련공군의 참전으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 직면하게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11월에 시행된 2주간의 집중적인 대규모 항공차단작전을 통해 중공군의 남하 속도를 지연시켰다. 그리고 전 전선에 걸친 철수가 이루어졌던 12월에는 약 5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을 살상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활발한 근접지원작전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지상군을 구출하였다. 또한 주야를 불문하고 진행된 공수작전은 중공군의 포위에 고립된 유엔군에게 물자와 장비, 탄약 등을 공급하여 전투의지를 고양하고 생존성을 증대시켰으며 철수 시에는 인원과 장비의 안전한 철수를 통해 전력을 보존하였다. 이러한 공군의 활동은 유엔군이 후퇴하는 동안 유일하게 적군과 싸우고, 적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고, 중공군을 살상시킨 전력이었다는 평가를 낳게 하였다.[148]

(집필 : 이근석)

주(註)

1) 백선일 譯,『밀물과 썰물』(서울 : 대륙연구소출판부, 1995), 33쪽.

2) 이와 관련 맥아더 장군은 한국군만으로는 북한을 확보하기에는 강력하지 않으며, "그들의 지휘관들은 가끔 너무나 감정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언급(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中),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996), 100쪽.

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上), (서울 : 전사편찬위원회, 1990), 261쪽.

4)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권』,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34~635쪽.

5) 이에 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제6권,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725~736쪽을 참고할 것.

6) 이 같은 추정 사유는 첫 번째, 북한 혼성비행사단의 창설을 소련고문단이 직접 지휘(고문관 페트라체프 공군 대좌)하였고, 두 번째는 당시 북한 지휘부가 이 부대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 할 여력이 없었고, 세 번째는 소련 제64전투비행군단이 1950년 11월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소련 해군 전투기는 물론 중국 공군에 대한 항공력 운용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7) Yak-9 전투기는 프로펠러기로 아군이 보유한 프로펠러 항공기인 F-81, T-6기, B-29, B-26 등 저속 프로펠러 항공기에 대한 제한적인 방어요격임무에 운용이 가능함.

8) 국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6), 300~305쪽.

9) FEAF Opns. Order #158-50 for 30 Nov. 1950. The Air University of USAF,『*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1955, p.28에서 재인용.

10) *Ibid.*, p.20

11) 호주공군(Royal Australian Air Force)의 제77전투비행대대(F-51)는 1950년 7월 1일부터 참전하였으며, 캐나다 공군 제426수송대대는 1950년 7월 26일 미 공군과 한국으로의 병력과 물자수송을 위해 미국 맥코드(McChord)기지로 이동하여 1954년 6월까지 일본 하네다(羽田)기지로의 공수임무를 수행하였다.

12)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권』, 634쪽.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제6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662쪽. <표 8-3>에는 추격기 34, 습격기 2대로 오기되어 있음.

14) 전현수, 앞의 글, 635쪽.

1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74~75쪽.

16) 위의 책, 166쪽.

17) 위의 책, 172쪽.

18) 위의 책, 174쪽.

19) 위의 책, 210쪽.

20) 위의 책, 566~577쪽.

21) 위의 책, 214쪽.

22) 위의 책, 183~184쪽.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7쪽.

24) 이활은 일본 고베항공학교 출신으로 북한공군 창설을 주도한 인물로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 구인 '신의주 항공대'를 주도적으로 발족시켰으며, 1946년 6월에는 평양학원 항공과 부과장(과장 왕련)과 항공연대 부연대장을 거쳐 1949년 12월에는 25항공연대가 항공사단으로 증편되자 부사단장을 역임하였다.

25)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3쪽.

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405~406쪽.

27) 전현수, 앞의 글, 642쪽.

2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3쪽. 이 전투에 대해 미국자료에는 "11월 1일 신의주 남쪽 15마일 지점의 양시 부근에서 3대의 공산군 Yak기가 모스키토 통제기와 미 제452비행단 제730폭격비행대대의 B-26 폭격기를 공격했다. B-26 폭격기 승무원들은 Yak기 1대를 격추하였으며, 엄호비행중인 제18전대의 F-51 전투기 2대가 즉시 이들을 요격하여 모두 격추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북한공군이 요격시켰다고 주장하는 B-29는 B-26을 오인한 것임.(공군본부, 『6·25전쟁 항공전사』, (계룡 : 공군본부), 2002, 231쪽)

29) 북한사회과학원, 『조선전사 26권』, (평양 :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155쪽. 이와 관련한 자료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지상부대들의 반 타격과 때를 같이하여 전선서부 지역 상공에서 행동하던 인민군비행대들도 큰 위훈을 세웠다. 용감한 인민군 추격기 비행사들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사이에 만도 25회나 출격하여 염주, 선천, 정주 상공에서 수량 상 우세한 미제 공중비적들과 과감한 공중전을 벌려 적기를 수없이 격추하였으며 이 계선에 침입한 적 지상부대를 습격하여 심대한 타격을 주고 아군 지상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엄호하였다. 인민군 폭격기비행대는 청천강에 설치된 다리와 적의 집결구역, 군사기지, 도로들을 폭격하여 적들의 군수물자 수송과 예비대들의 전선진출을 저애하였다."

30) 위의 책, 209쪽. 이와 관련 자료를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지상부대들이 청천강 일대에서 적의 주력집단을 포위 섬멸하는 시기에 아군 비행대들은 신의주, 강계, 안주, 평양 상공에 오만하게 덤벼드는 적 비행대와 치열한 공중전을 벌여 미제공중비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편 적의 퇴각종대들을 기습하여 놈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주었으며 적의 비행장, 군수창고, 군용열차 등에 대한 폭격도 자주 벌리었다. 아군 비행대는 또한 평양, 순천, 일대에 수십만 매의 선전문을 뿌려 적의 일시적 강점 밑에서 신음하던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그들을 더욱 힘 있게 불러일으켰다."

31) 이와 관련 1950년 11월 30일 소련의 중국 파견 비행사단 편성과 배치에 관해 작성된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서에는 "조선 혼성비행사단은 신의주에 배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25쪽)

32)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중), 72쪽. 재인용.

33) 신범식, 「소련의 북한 군사 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권,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16쪽.

34) 위의 글, 616~617쪽.

3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사료, 1950~'53년』, 112쪽.

36) 소련 공군의 평양파견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전현수는 위의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 '전세의 급격한 악화'를 들고 있다.(전현수, 「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1권』), 638~639쪽.

37)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p.38.

38) *Ibid.,* pp.61, 217.

39)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의 중국 전개시기에 관해서는 1950년 8월 10일(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사료, 1950~'53년』, 2006, 108, 110쪽)과 8월 4일(Zioming Zhang, 앞의 책, p.217)이라는 주장이 있음.

4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사료, 1950~'53년』, 81쪽.

41) 이와 관련 소련 육군상인 바실리에프스키는 8월 28일 내각회의 부의장인 불가닌에게 보낸 전문에서 소련 제151전투비행사단이 중공군 13군단 엄호임무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9월 1일부터 중공군에 대한 엄호임무 개시 내용이 포함된 제151전투비행사단장 벨로프(Belov)에게 보낼 명령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8~109쪽)

42) 위의 책, 111쪽.

43) 위의 책, 132쪽.

44) 위의 책, 133쪽.

45) 위의 책, 134쪽.

46)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2002), pp.105~107.

47) 이 공중전투결과는 교전 당사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련 기록에는 2대의 B-29기와 '무스탕'을 격추하고 Yak-9 2대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기록(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5, 71~72쪽)하고 있는 반면, 미국자료에는 B-26기 기총수가 Yak기 1대를 격추하고, F-51기가 잔여 Yak기 2대를 격추한 것으로 기록(Robert R.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p.219)하고 있다.

48) 이와 관련 소련 측은 "단둥-신의주 지역 전투에서 우리 조종사들이 탄 MIG-15기들에 의하여 F-82 2대가 격추되었으며, 또 고사포에 의해 2대가 격추된 바, 도합 4대의 비행기가 격추되었다. 공중 전투 시 우리 측 손실은 없었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3쪽)고 기록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미군 자료에는 "오후 1시 35분 공산군은 구형 Yak기보다 훨씬 위협적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는 후퇴익(swept wing) 제트기 6대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모스키토기와 무스탕기 편대에 사격을 가해왔다. 미군 조종사들은 다행히도 이 공격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었고, 모스키토기도 평양기지로 귀환하여 이 새로운 제트기에 관해 정확히 보고했는데, 이 신예기는 소련제 MIG-15로 판명되었다."(*Ibid.*, p.219)로 기록하고 있다.

49)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72~73쪽.

50) 신범식, 앞의 글, 617쪽.

51)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75쪽.

52) 이에 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6·25전쟁사 제6권』, 717~723쪽을 참조할 것.

5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5쪽.

54) Robert R. Futrell, *op. cit.,* p.244.

55) 소련공군의 전과는 구체적으로 B-29 12대, F-80 전투기 19대, F-51 전투기 11대, F-84 전투기 3대,

B-45폭격기 1대임.(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5쪽)

56) Robert R. Futrell, *Ibid.*, p.246.

57) 이러한 MIG기의 전술을 미군 조종사들은 고무로 만든 튀어 오르는 도깨비 장난감에 비교하여 "요요(yo-yo)"라고 불렀다.(전현수, 앞의 글, 657쪽)

58)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7쪽.

59) 위의 책, 300, 304쪽.

60) 위의 책, 300~305쪽.

61)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예를 들고 있는데 12월 21일에는 MIG-15기가 26회 출동하여 4회만 적기와 조우하였고, 12월 18, 26, 28일 3일간에는 74회 출동하였으나 적기와의 조우는 전무하였다. 또한 12월 24일에는 30대가 출동하여 4대가, 12월 30일에는 18대가 출동하여 4대만이 적기와 조우하여 전투를 치렀고 이러한 "공회전출동"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고 적고 있다.

62) 제4전투요격비행단은 예하에 제4전투비행전대를 두었으며, 전대 예하에는 3개 비행대대(제334~336전투요격대대)를 두고 있었음.

63) 제27전투엄호비행단은 예하에 제27전투엄호비행전대를 두었으며, 전대 예하에는 3개 비행대대(제522~525전투엄호비행대대)를 두고 있었음.

64)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17.

65) 이 부대는 1949년 5월 10일 폭격비행단으로 창설되어, 1949년 6월 27일 동원비행단(The Mobility Wing)으로 전환되었다. 이 비행단의 임무는 동원령이 내려지면 예비역들을 훈련시켜 전투에 참가시키는 것이었고, 1950년 8월 10일 최초로 동원령이 내려져 한국전에 참전하였고 임무가 종료된 1952년 5월 10일까지 정찰, 폭격, 지상군 근접지원 등 약 14,000회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66) Robert R. Futrell, *op. cit.,* p.230.

67) 미 공군역사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홈페이지(www.afhra.af.mil) 한국전 관련자료(USAF Organizations in Korea 1950-1953)

68) 1950년 11월 패트리지 제5공군사령관은 11개 전투비행단, 1개 정찰대대, 1개 항공통제대대 및 기타 소규모부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고 25개 기지의 활동을 통제하는 등 지휘폭이 과도하게 확장되었다.

6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상), 362쪽.

70) 위의 책, 269쪽.

71) Robert R. Futrell, *op. cit.,* p.266

72) 평양비행장에 주둔했던 제8전폭비행단은 11월 27일 야간 적 공군기로부터 비행장을 공격받아 F-51전폭기 11대가 파손되고 병사 1명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야간작업을 통해 파손된 11대 중 9대를 수리 완료하여 철수하였다.

73) Robert R. Futrell, *op. cit.,* p.266.

74) 박동구 譯,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②,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15쪽.

75) 위의 책, 23쪽.

76) 맥아더는 11월 4일 미 합참에 보낸 보고서에서 중공군의 향후 활동에 대해 4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 중공정권은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의 군사력으로 개입하려는 의도와 두 번째, 중국은 비밀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이나 외교상의 이유로 이를 비익할 것이며 세 번째, 중국은

북한을 원조하기 위한 의용군의 진입을 허용하거나 네 번째, 중국은 한국군만이 압록강에 진출할 것이라는 오판 하에 중공군에게는 대단치 않은 상대라는 판단하에 참전할 것을 제시하였다. 맥아더 장군은 첫 번째 가능성은 병참상의 이유를 들어 부정하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머지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인정하였다.(Robert F. Futrell, *op. cit.,* p.220)

77) *Ibid.,* p.220.

78)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은 중국 소련공군의 참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중국 공군은 제트기를 다룰 만한 조종사의 존재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극동공군 전투요원들이 중공 공군과 싸워야하는지, 재건된 북한공군과 싸워야하는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Ibid.*, p.220)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4쪽.

80) 미 합참은 맥아더 장군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전에 내려졌던 만주와 한소국경 부근과 무산-청진선 이북에 대한 공격금지는 해제하지 않았다.(Robert F. Futrell, *op. cit.,* p.222)

81) *Ibid.*, pp.223~224.

82)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8 November 1950)

83) 신형식 譯,『한국전쟁 해전사』, (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3), 276~278쪽.

84) Robert F. Futrell, *op. cit.,* p.221.

85)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4 November 1950)

86) 북한은 평양이 아군에 의해 함락되자 평양방송을 통해 신의주로 전쟁지휘부를 옮길 것이며, 후퇴 병력은 신의주로 집결하라고 방송하는 등 허위, 교란 방송을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강계지역으로 전쟁지휘부를 이전하였음.

87)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20.

88) Robert F. Futrell, *op. cit.,* p.226.

89) 박동구 譯, 앞의 책, 123쪽.

9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52쪽.

91)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中), 216쪽.

92) 위의 책, 218쪽.

93) Robert F. Futrell, *op. cit.,* p.255.

94)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32.

95) Robert F. Futrell, *op. cit.,* p.258.

96) *Ibid.*, p.258.

97)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November~December 1950)에서 발췌

98) 당시 미군 화물공수용 낙하산은 G-1~5 명칭의 5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G-1은 캐노피 지름이 24피트로 300파운드 화물운반용이며 G-5는 캐노피 지름이 48피트로 3,000파운드까지 운반 가능함.

99)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234쪽.

100) William M. Leary,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p.25.

101) MIG-15의 출현으로 극동에 배치된 모든 미국 전투기들이 폐품(obsolete)이 되었다고 평가되었다.(Robert F. Futrell, *op. cit.,* p.244)

102)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1 November 1950)

103) 11월 3일 반덴버그 미 공군참모총장은 극동공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11월 1일과 2일의 적기는 Yak-7, Yak-9과 MIG-15기로 밝혀졌습니다. <중략> 북한군 조종사와 중국군 조종사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으나, 아직 극동에서 유엔군과 필적할 만한 적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중공 공군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공군본부,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 (계룡 : 공군본부, 2005, 232쪽) 소련은 6·25전쟁이 끝난 이후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소련공군의 직접 참전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결국 구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중국공군이 참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주둔한 소련 공군이 직접 참전한 것임이 밝혀졌음.

104)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19.

10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47쪽.

106) 유엔 지상군의 철수로 유엔공군의 북한지역 전개기지인 미림(K-24), 평양(K-23), 연포(K-27) 기지가 폐쇄됨으로 최전방 기지인 김포에서 F-86이 이륙할 경우 연료문제로 만주 깊숙이 추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MIG-15는 단둥기지 외에도 선양, 안산 등 만주 내륙 지역에 기지를 두고 있었으므로 국경에서 6~8마일 추격을 상정한 '긴급추격권'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

107) Robert F. Futrell, *op. cit.,* p.244.

108)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72쪽. 재인용.

109) 제27전투엄호비행단은 예하에 제27전투엄호비행전대를 두었으며, 전대 예하에는 3개 비행대대(제522~525전투엄호비행대대)를 두고 있었음.

11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6 November 1950)

111)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10 November 1950)

112)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November 1950)에서 발췌

113) Robert F. Futrell, *op. cit.,* p.252. 이 전투와 관련 소련기록은 "12월 22일 선천지역과 양책관(신의주 남동쪽 25km)에서 벌어진 2회의 공중전에서 제50전투비행사단 조종사들은 미 F-86 분사식 전투기 5대를 격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98쪽)

114) Robert F. Futrell, *op. cit.,* p.252

115) *Ibid.*, p.252. 이와 관련하여 소련 관련기록은 "적이 F-86 최신전투기 1개 전투비행대로 전투활동을 벌인 12월 7일부터 31일까지, 제50전투비행사단은 385회 출동하였고 이때 공중전에서 26대의 분사식 전투기를 격추시켰는데, 그중에서 F-84기와 F-86기가 18대였습니다."라고 적고 있음.(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02쪽)

116) 여기에 인용된 유엔공군 비행관련 통계자료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를 인용한 것이며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주(註)로 처리하였음.

117) Robert F. Futrell, *op. cit.,* p.220.

118)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26쪽.

119)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8 November 1950)

12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13 November 1950)

121) 12월 무장정찰 및 후방차단작전 비행활동을 7,654소티로 기록한 예도 있다.(Robert F. Futrell, *op. cit.,* p.261.)

122)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29.

123) Robert F. Futrell, *op. cit.,* p.260.

124)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cember 1950)에서 발췌.

125) Robert F. Futrell, *op. cit.,* p.262.

126) *Ibid.*, p.263

127)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30.

128) Robert F. Futrell, *op. cit.,* p.263.

129) *Ibid.*, p.264

13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 - July 1953)와 극동군사령부 G-3 일일작전보고서를 종합한 내용임.

131) 1950년 11월의 공군전술부대 북한지역 전개는 MIG-15의 출현으로 인해 공중초계 및 아 공군기 엄호, 지상군 적시적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먼저 단둥에서 이륙해오는 MIG-15기의 항적을 포착하고자 조기경보레이더 부대인 제606항공관제경보대대가 신안주 비행장(K-29) 근처로 이동하였고, 제6150전술지원비행단, 제35전투요격전대, 호주공군 제77대대가 포항에서 연포(K-27)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제6002전술지원단과 제18전폭전대, 남아프리카연방 공군 제2대대가 평양 미림비행장(K-24)에 전개하였으며, 제6131전술지원단의 선발대가 평양비행장(K-23)으로 이동을 개시하여 11월 25일 주력부대가 이동을 완료하였고 제8전폭전대 F-51전폭기 2개 대대 또한 평양기지에 전개하였다.

132) Robert F. Futrell, *op. cit.,* p.215.

133)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13.

134) 황온순(黃溫順 1901~2004) : 황해도 연안 출생으로 1938년 전북 이리(익산)에서 보화원이란 탁아소를 열어 사회사업을 시작하였고 1950년 12월 서울 종로국민학교에서 전쟁고아를 보살피던 중 미 공군의 도움으로 이들 고아를 제주도로 공수하여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수용하였으며 1951년 초 '한국보육원'을 설립하여 이후 고아지원 사업에 몰두하였다. 5.16민족상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생전 '전쟁고아의 어머니'로 불렸음.

135) 공군본부, 『항공 전사 -한국전쟁-』, (계룡 : 공군본부, 1989, 143쪽, 미림기지에서 한국 조종사들의 출격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F-51 전투출격상황을 기록한 전투요보(공군본부, 『전투요

보』, (계룡 : 공군본부, 2000)상에 1950.10.13~1951.4.3 동안의 출격 기록은 없다.

136) 한국 조종사들은 1950년 7월 2일 F-51 전투기 도입 이후 야간전투 임무 수행 경험이 전무하였고, 이로 인해 미림기지 야간전투임무에서 한국 조종사들은 배제된 것으로 보임.

137) 공군역사기록단 역, 『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 (계룡 : 공군역사기록단, 2010), 24~26쪽. 이 자료를 보면 한국 공군 보유 F-51을 미군 조종사도 조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38) 미 제6146부대와 한국 공군비행단의 철수에 대해 미 제6146부대 부대일지는 "12월 2일에 선발대를 대전으로 보냈다. ....<중략>.... 후퇴로 인한 혼잡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병부대는 3일만에 F-51을 대전으로 이동,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음.(위의 책, 27쪽)

139) 공군본부, 『항공전사 -한국전쟁-』, 232쪽.

140) 공군에 인도받은 C-47에 대해 미 제6146부대는 '부대 수송기(ROK 301)'로 불렀다. (공군역사기록단 역, 앞의 책, 34쪽)

141) 한국 공군에 인도된 C-47의 주 용도는 대통령 전용기라는 증언이 많다.(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계룡 : 공군본부, 2002), 334쪽.

142) 장성환, 『나의 항공생활』, (서울 :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4, 58~60쪽에서 발췌.

143) 미 제6146부대 대전기지 철수과정은 '공군본부, 『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제1집)』, 27쪽'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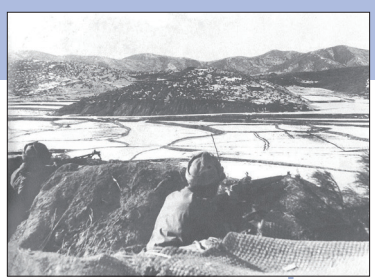
144) 이와 관련 미 제6146부대는 12월 17일 크랙웰(Ernest Craigwell Jr.) 중위와 병사 7명을 제주기지에 선발대로 파견하였다.

145) 1950년 9월 15일에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었지만 낙동강 방어선에서 피아간 접전은 계속되었고 북한군이 낙동강전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것은 9월 하순 이후이며 아군이 38도선을 넘은 것은 10월 1일이었으므로 9월은 지상군 피아간 접전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146)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28.

147)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26.

148) The Air University of USAF, *op. cit.,* p.28.



제 9 장 총 평

제 1 절	전쟁지도
제 2 절	작전 및 전술
제 3 절	결 론

6·25전쟁사 제7권『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는 중공군의 참전 이후 변모된 전쟁양상 즉, '새로운 전쟁'에 대해 연구하여 수록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까지 서울을 수복하고 9월 말에는 38도선까지 진출했다. 이어 10월 9일, 서부전선에서 38도선을 돌파한 유엔군이 신속한 진격을 계속하게 되자 북진의 성공에 고무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는 예하부대에게 "최대한 빠른 속도로 국경선을 향해 진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중공군의 대공세를 맞아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유엔군은 전투의지마저 상실한 채 12월 말, 다시 38도선으로 철수해야만 했다.

이 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총평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양측의 전쟁지도에 대한 분석을 기술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돌파와 북진에 따라 북한정권이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었던 위기상황하에서의 김일성의 조치와 김일성을 구원하기 위한 스탈린(Joseph Stalin)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전쟁지도를 분석했다. 이어서 38도선 돌파·북진 과정에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의 전쟁지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변모를 거듭했던 미국정부 및 유엔의 한반도정책과 함께 중공군의 개입가능성을 단호하게 무시했던 맥아더 유엔군사령관과 미국의 전쟁지도를 분석했다. 또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 파병국가들의 전쟁지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제2절은 작전 및 전술적 측면의 평가로 국군과 유엔군의 추수감사절 공세에 이은 중공군의 제1차 공세, 국군과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제2차 공세,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철수 및 중공군의 38도선 진출에 이르기까지 양측이 취한 작전적 차원의 조치사항과 그 결과를 분석했다. 아울러 중공군의 공세과정에서 있었던 마오쩌둥의 작전지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3절에서는 6·25전쟁사 제7권의 편찬이 갖고 있는 의의와 6·25전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교훈을 제시했다.

제 1 절 전쟁지도

1. 북한과 소련 · 중국의 전쟁지도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이어 계속된 반격작전으로 주력이 붕괴된 북한군은 외부의 지원이 없는 한 38도선 이북지역을 지키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미국정부와 유엔의 안팎에서 거의 공공연하게 38도선 돌파·북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진격을 멈출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따라서 김일성이 채택할 수 있는 대책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뿐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의 주력이 38도선에 근접하고 있던 9월 29일, 김일성은 박헌영과 공동명의로 된 서신을 스탈린에게 보내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공군의 지원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김일성의 서신은 10월 1일, 흑해 연안 휴양지에서 휴식 중이던 스탈린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김일성은 박일우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베이징(北京)에도 파견해 중국의 파병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일성은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건국 1주년 기념연회에 참석해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의 화급한 지원요청을 접수한 스탈린이 다시 마오쩌둥에게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중공군이 파병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김일성은 중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 공산군측의 전쟁지휘권을 마오쩌둥과 중공인민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다. 물론 북·중 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해 공동으로 전쟁을 지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전쟁지도는 물론 휴전협상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 나아가 중공군의 참전은 전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소련 수상 스탈린은 소련군이 미군과 직접 대결하는 상황만큼은 절대적으

로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가 채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았다. 유엔군의 거침없는 북진을 지켜 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서한을 보내 일단 중국 둥베이(東北)지방으로 철수하도록 했다. 최악의 경우 그 곳에 김일성 망명정부를 수립하게 할 계획이었다. 그에 앞서 그는 마오쩌둥에게 중국의 파병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국과의 직접대결을 우려해 마오쩌둥이 파병을 조건으로 요구했던 소련공군의 파병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파병이 어렵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마오쩌둥에게 있어 "6·25전쟁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생 중국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소련공군이 중공군을 엄호한다는 조건하에 출병(出兵)을 결정했지만 그 과정은 그들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스탈린이 북한에 진입한 중공군에 대한 소련공군의 엄호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일단 파병을 중지시킨 채 고심을 거듭했던 마오쩌둥은 소련공군의 엄호 없이도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펑더화이의 보고에 따라 재차 파병을 결심함으로써 25만여 명의 지원군 주력이 10월 19일에 압록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중국의 입장에서 분석해 볼 때 중공군의 참전은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과거 역사, 해방 이후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표현되는 그들의 주변국 관련 안보전략, 기타 정치적 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수뇌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 또한 매우 큰 것이었다. 그들이 당면과제로 여기고 있던 타이완(臺灣) 점령과 해방을 접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국공내전으로 피폐된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문제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마오쩌둥이 중공군의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할 때까지만 해도 소련의 공군파병에 소극적이었던 스탈린은 중국의 강력한 요구를 계속 모른 채만 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중공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14개 비행사단을 중국에 파병했다. 이어 제64비행군단을 창설해 6·25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50년 11월 1일, 중국 둥베이지방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공군의

제151전투비행사단 소속 MIG-15 전투기들이 미군 전투기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소련공군의 참전은 공중에서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련공군의 참전은 미국과의 확전을 우려한 스탈린의 통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2. 한국정부의 전쟁지도

맥아더 원수가 지휘하는 인천상륙작전이 경이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가장 크게 염려했던 것은 유엔군이 38도선 남쪽에서 정지한 채 종전(終戰)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 같은 우려에 따라 9월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만일 유엔군이 38도선에서 정지하더라도 국군은 북진한다."라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어 국군총사령관 정일권 소장에게 은밀하게 국군의 북진을 명령했다.

이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명령과 국민들의 강력한 통일염원은 국군은 물론 유엔군의 작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군의 북진 이전에 미국정부가 38도선 돌파·북진 방침을 정해두고 있었고, 그때쯤엔 유엔에서도 38도선 돌파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어진 국군의 38도선 돌파가 미국의 북진정책과 유엔의 북진결의에 명분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반면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장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38도선까지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국민들은 미국과 유엔의 전쟁지도와 그에 따른 조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이북지역으로의 북진과 철수과정에서 점령지역에서의 군정을 둘러싸고, 유엔군사령부와 한국정부간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미국과 유엔의 의도대로 정책이 결정되었고 한국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3. 미국과 유엔의 전쟁지도

1950년 북한군이 기습남침을 시작한 다음날인 6월 26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에게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즉 한반도의 전쟁상태를 “전쟁 이전의 분단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유엔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그 후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방어선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치열한 교전을 계속하고 있던 9월 11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결심을 했다. “중국과 소련이 개입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지상작전을 북한지역으로 확대한다.”라는 합참의 건의를 승인한 것이었다.

이어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 수복을 목전에 두고 있던 9월 27일, 미국의 합참은 훈령으로 맥아더 원수에게 38도선 돌파 방침을 하달했다. 이른바 ‘9·27훈령’이 그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분단상태 유지로부터 통일정부 수립으로 바뀐 것이다. 이어 10월 7일, 유엔총회가 38도선 돌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얻게 되었다.

그 같은 미국과 유엔의 38도선 돌파방침은 소련 또는 중국의 개입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정부와 군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중국 또는 소련의 개입가능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부수립 1년 차의 신생국가로서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이완(臺灣)과 티벳(Tibet)의 해방문제였다. 또한 재래식 장비로 무장된 중공군이 유엔군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은 참전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해 북진할 경우 자신들이 군대를 파병할 것이라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다.

또한 타이완의 장제스(蔣介石)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타이완 측 정보에 의해 중공군의 개입 가능성과 그 징후를 여러 차례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미국정부와 맥아더 원수는 “그 같은 정보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확대 해석한 결과일 것이다.”라고 간주해 신뢰하지 않았다. 편견에 따라 정보의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추구했던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목전에서 무산된 것은 당시 국제적인 역학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영국 등 유엔군 파병국가들의 전쟁지도

중공군의 공세로 인해 유엔군 부대들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황급히 평양에서 철수하고 있을 무렵 트루먼(Harry S. Truman) 미국 대통령은 “필요시 미국이 보유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즉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때 유엔군을 파병하고 있는 우방국 중에 가장 당황해 했던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홍콩 등의 문제로 인해 중국과 관련된 국익의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중국 대륙으로 확대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같은 이유로 애틀리(Clement R. Attlee) 영국 수상은 12월 4일~8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루먼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문제를 조율했다. 애틀리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을 걷잡을 수 없이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한전쟁 및 휴전을 촉구했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유엔군을 파병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안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따라서 전쟁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만은 없었다. 당시에는 영연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영국의 영향력이 상당했다. 따라서 영국의 제안은 영연방 파병국가들을 대표하는 제안으로 간주되

었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도 애틀리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의 핵무기와 관련된 언급은 소련과 중공에 대한 으름장을 놓는 수준에서 봉합되었다. 오히려 소련과 중국에게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 2 절 작전 및 전술

1. 맥아더 원수의 국경선 진출 독려와 중공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거침없는 북진에 나선 맥아더 원수는 전쟁의 조기종결을 확신하고 최단시간 내에 국경선까지 진출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워싱턴의 통제, 즉 "한·중 국경선에는 국군부대만 진격시킨다."라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맥아더 원수는 압록강으로부터 90~170㎞ 남쪽에 위치한 정주-개천-영원-함흥-흥남을 연하는 선을 유엔군 전진한계선으로 설정하고 그 북쪽의 작전은 한국군이 전담하도록 했다.

그 후 10월 17일, 그는 당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던 작전상황을 고려해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을 기존의 전진한계선에서 대략 48㎞ 정도 북쪽에 위치한 선천-부전호-성진을 연하는 선으로 북상시켰다. 이어 10월 24일에는 아예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을 철폐하고 국군과 유엔군의 총 진군을 명령했다.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 입장이나 우발상황보다는 오로지 조기에 국경선까지 진출해 북한군을 일소할 경우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군사적 입장에 충실했던 맥아더 원수의 작전지도였다. 실제로 중공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또는 그들이 전쟁개입을 지체했다면 맥아더 원수의 희망은 달성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의 상대였던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중공군 제4야전군의 주력이 이미 한·중 국경선에 근접해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군의 북진을 경고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규모의 중공군 개입 사실을 오판한 맥아더 원수의 작전지도는 후일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2. 중공군의 제1차 공세

맥아더 원수가 유엔군의 전진한계선을 철폐하고 국경선을 향해 총 진군을 명령했던 다음날인 10월 25일을 기해 돌발상황이 발생했다. 운산(구읍리)과 온정리(운산) 등 서부전선 지역이었다. 당시 국군과 유엔군은 연대 또는 대대단위로 각개약진하면서 도주하는 북한군을 쫓아가는 방식의 추격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중공군의 기습을 자초했다.

그때 국군 제1사단과 제6사단 등은 전선에서 잡았던 포로의 신문(訊問)을 통해 대규모의 중공군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미 제8군사령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제8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무시했다. "중공군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수풍발전소 방호를 위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이하의 병력일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나아가 그들은 전투에 실패한 국군부대들이 변명을 위해 중공군의 규모를 과장한 것으로 오판했다. 그 결과 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행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진격은 대참사를 불러오고야 말았다. 특히 국군 제1사단과 교대를 위해 투입되었던 미 제1기병사단은 중공군에게 포위된 제8기병연대 제3대대의 구출을 단념한 채 철수해야만 했다.

한편 10월 25일, 국군과 유엔군을 상대로 제1차 공세를 감행한 중공군의 작전지도는 보다 치밀했다. 그들은 국군과 유엔군의 능력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했다. 유리한 지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사냥감을 쫓아가듯 북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군과 유엔군을 기습하기로 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유엔군보다는 기동력과 화력이 미약한 국군부대를 먼저 격파한 후 유엔군의 후방으로 진출해 주력을 격멸하도록 지도했다.

그 같은 중공군의 기도는 온정리(운산)와 운산(구읍리) 일대에서 기습공격으로 국군 제6사단을 붕괴시키고, 미 제1기병사단 제8연대 제3대대를 포위망에 가두어 섬멸함으로써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중공군은 비호산을 방어하던 국군 제7사단의 강력한 저항으로 전과확대에 실패했다. 기동·화력·보급 등 전반적인 전투

력 부족으로 유엔군 주력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데도 실패했다.

반면 그들의 기습공격은 국군과 유엔군을 청천강선으로 철수하도록 강요해 그들의 전개시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들은 많은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의 전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중공군은 제1차 공세 후 "운산전투 경험에 관한 결론"이라는 전훈속보(戰訓速報)를 제작해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이 문건에서 중공군은 미군과 국군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미군은 전차와 포병의 협동전투에 의한 충격력을 잘 활용하고 있다. 공군의 대지(對地)공격력도 강대하다. 그러나 보병은 약하다.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과감한 공격이나 진지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주간에만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야간전투나 근접전에는 아주 미숙하다. 보급이 두절되면 곧 전의를 상실하고, 후방을 차단당하면 스스로 물러난다."

"한국군은 모든 면에서 미숙하다. 훈련이 절대 부족하다. 화력과 전투력을 비교할 때 한국사단은 미국사단의 1/3분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의(戰意)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3. 유엔군의 크리스마스 공세와 중공군의 유인전술

중공군 제1차 공세를 겪은 후 맥아더 원수는 중공군의 참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력한 공격력으로 그들을 격파하고 국경선까지 진출한다고 하는 그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국군과 유엔군에게 최종공세를 명령했다. 서부지역의 미 제8군이 공격을 시작한 11월 24일, 미 제1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맥아더 원수는 휘하의 장병들에게 "유엔군이 한·중 국경선에 진출하게 되면 늦어도 성탄절까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에 찬 어조로 장병들을 격려했다.

첫날의 공격작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군 제2군단이 공격하는 묘향산맥 일대에는 중공군의 강력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막상 공격해 보니 적의 저항은 예상 외로 경미했다. 그러나 공격 이틀째인 11월 25일, 날이 밝으면서부터 상황이 돌변했다. 덕천-영원선에서 묘향산맥을 향해 공격하던 국군 제2군단은 묘향산맥의 중턱에서부터 중공군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미 제1군단과 제9군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어서 중공군은 해질 무렵부터 전 전선에서 일제히 공격으로 전환했으며, 아군 후방지역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엔군 지휘부는 중공군이 제1차 공세 후 잠적한 이유에 대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 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중공군은 유엔군을 교묘하게 유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공군 지도부는 "유엔군이 그들의 유인작전을 눈치채고 추격을 중단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었다.

중공군의 전술에 말려들어 진격이 저지된 유엔군은 청천강 후방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방의 요충지에 매복하고 있던 중공군의 공격으로 유엔군의 철수작전은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군우리(개천)전투와 장진호전투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중공군의 유인작전과 유엔군의 무모한 공세 사례는 많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즉 적을 경시하는 것과 적의 능력·작전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채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과 의지만으로 감행하는 작전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이다.

4. 중공군의 제2차 공세와 군우리(개천)전투

국군과 유엔군을 유인하던 중공군은 11월 25일부터 일제히 공세로 전환했다. 이때 중공군은 주공을 덕천-영원선의 국군 제2군단 정면에 두고 9개 사단을 집중투입했다. 국군 제2군단이 담당하고 있는 산악지역에는 갑자기 중공군의 물결로

넘치게 되었다. 군단의 주요 전투지휘 시설이 중공군에게 습격을 당하고, 후방 교통의 요충지가 대부분 점령되면서 국군 제2군단은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다. 그때가 11월 26일 아침이었다.

중공군의 공격방식은 어디서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편성된 방어진지를 공격하지 않았다. 반드시 야간공격을 실시하되 소수의 병력으로 후방에 있는 지휘소를 기습하고, 주요 목을 차단했다. 그리고 상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공격하고 후방으로 철수할 때를 기다려 격멸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같은 중공군의 전술에 말려든 미 제2사단의 군우리(개천) 철수작전은 중공군의 일방적인 공격을 감수해야만 했다. 중공군이 곳곳의 요충지에 매복하고 있던 구간, 즉 개천에서 갈고개를 넘어 용원리에 이르는 10㎞ 구간은 소위 "죽음의 계곡"이었으며 그곳을 통과했던 부대들의 피해는 처참했다.

반면 8인치 곡사포 대대인 미 제17포병대대가 같은 지역을 큰 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빠져 나온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였다. 제17포병대대는 출발시부터 보병과 같은 전투능력을 갖추고 대대장의 일사불란한 지휘하에 야음을 이용해 철수했다. 그 결과 대대는 30일 21시 30분에 갈고개를 넘을 때까지 전사자 없이 단 8명의 부상자만 발생했으며 8인치 곡사포 12문 중 11문과 함께 부대건제를 유지하면서 철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미 제2사단이 전멸(全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후방을 차단한 중공군이 사격만으로 도로를 봉쇄해 유엔군을 정지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도로를 따라 흐르는 조통강(槽桶江) 계곡을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미군 전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미군에겐 천만다행이었다.

이 같은 전례에서 볼 때 아군의 후방지역에서 도로 또는 지역차단 임무를 수행하는 중공군이 철수부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주로 화력을 이용했고 기동에 의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음으로써 일부 부대의 철수를 허용하게 되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공군은 유엔군의 공중공격으로 인해 주간활동이 거의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후방 기동부대의 능력 면에서도 전차 등 중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량화된 부대였다. 따라서 유엔군 후방지역의 중공군은 작전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후방차단부대가 될 수도 있고, 유엔군 지역에 고립된 부대가 될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1월 30일, 군단의 후위부대로 가장 늦게 철수한 미 제2사단이 군우리 남쪽에서 악전고투를 거듭하고 있을 때 평양과 순천 일대로 철수한 미 제8군과 제9군단의 위기는 대부분 해소되어 있었다. 또한 제9군단은 영국군 여단을 예비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위기에 처해있던 제2사단의 구출을 위해 군단이 조치한 사항은 영국군 1개 대대로 하여금 '갈고개'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군의 공격이 저지된 이후에도 군단 차원의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만약 제9군단의 예비대들이 철수하는 제2사단과 협조된 작전으로 후방지역에서 보다 강력한 공격으로 중공군 차단부대를 압박했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을 것이다.

5. 미 제1해병사단의 장진호전투

1950년 10월 26일, 원산에 행정상륙한 미 제1해병사단은 11월 16일에는 장진호 남단의 하갈우리(장진)를 점령했다. 이어 유엔군의 크리스마스공세에 따라 11월 27일, 장진호 서쪽을 따라 공격을 시작, 유담리까지 진출했으나 중공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저지되고 말았다.

미 제1해병사단을 공격한 중공군은 장진호 일대에 제9병단(야전군 규모) 예하 3개 군단(12개 사단)을 투입하고, 그 중 8개 사단으로 해병사단의 포위·섬멸을 시도했다. 따라서 제1해병사단이 상대하게 될 중공군은 수적으로 해병사단의 10배 정도의 규모였던 것이다. 다음날부터 제1해병사단은 유담리의 제5·7연대를 철수시켜 하갈우리에 있는 사단사령부와 합류한 후 흥남을 향해 철수하기로 했다.

그때 극동군 수송사령관 터너(William H. Tunner) 장군이 사단을 방문해 모든 전투장비를 버리고 병력만이라도 공중철수할 것을 제안했으나, 사단장 스미스 소장은 "해병대 역사상 그와 같은 불명예는 없었다."며 일축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철수방침을 굳힌 사단장은 각 제대가 철수준비를 하는 동안 장병들에게 "사단은 철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후방의 적을 격멸하고 함흥까지 진출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을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장병들의 전투의지를 고양시켰다.

준비를 마친 사단은 12월 6일, 철수를 시작해 살인적인 혹한과 사투를 거듭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6일 만인 12월 11일, 함흥을 거쳐 흥남에 도착했다. 기나긴 철수작전의 막을 내리고 적과의 접촉을 단절하게 된 것이다. 해병사단과 맞섰던 중공군 제9병단은 8개 사단을 투입해 해병사단을 포위 및 차단했다. 그러나 해병사단의 강력한 화력과 강인한 공격에 의해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제9병단은 이때 막대한 병력손실을 입어 함흥 일대에서 4개월 동안의 부대정비 후에야 차후작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중공군은 미군의 정예부대로 이름난 미 제1해병사단이 포위·섬멸될 경우 미국 국민이 입게 될 심리적 충격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해병사단을 포위한 이후 각종 매체를 통해 그들의 승전을 계속 선전하고 있었다. 미국 언론들도 미 제1해병사단이 포위된 사실과 철수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장진호 전투는 단순한 1개 사단의 철수작전이 아니라 미·중 양국의 자존심이 결린 대결의 장이 되었다. 그런 상징적인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포위망을 뚫고 철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철수과정에서 해병사단이 항공기로 철수하지 않고, 부대건제를 유지하면서 중공군 제9병단에 가한 치명타는 중공군 전체 작전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반적인 국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만약 해병사단이 중공군 제9병단의 포위망을 돌파하지 못했거나 항공철수를 했을 경우 함경도 일대까지 진출한 국군 수도사단과 국군 제3사단은 물론 미 제10군단 전체가 중공군에게 포위당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단순히 1개 사단의 후퇴작전 성공이 아니라 1개 군단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이다.

중공군 제9병단은 장진호전투에서 입은 피해로 인해 1950년 12월 31일 시작되어 또 다시 서울을 점령했던 그들의 제3차 공세에 참가하지 못했다. 당시 유엔군은 중공군의 제3차 공세를 맞아 한반도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정도로 위기에 몰렸다. 따라서 제9병단이 장진호전투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제3차 공세를 감행한 중공군이 수원 일대에서 진격을 멈추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당시 중공군이 제9병단을 투입하여 금강 또는 대전선까지 진출했다면, 유엔군은 또 다시 낙동강까지 철수하거나 또는 한반도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 제1해병사단이 수행한 장진호전투는 6·25전쟁 전체의 국면전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전투로 평가될 수 있다.

6. 국군과 유엔군의 평양철수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원수는 중공군의 제2차 공세 이전까지만 해도 대규모 중공군의 개입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11월 28일이 되면서부터는 중공군의 참전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러나 그때도 중공군의 규모를 실제의 1/2 정도인 20만 명 정도로 판단했다.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사실을 인정한 맥아더 원수는 도쿄에서 긴급 작전회의를 개최하고 평양-원산을 연하는 선으로 전면적인 철수를 결정했다.

유엔군사령부의 방침에 따라 국군과 유엔군은 11월 26일, 청천강 교두보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숙천-순천을 연하는 선을 향해 철수했다. 12월 1일이 되면서부터는 중공군도 적극적인 추격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맥아더 원수가 희망했던 바와 같이 평양을 방어하는 것은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 제2사단이 군우리(개천) 남쪽에서 붕괴된 충격이 너무 컸다.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엔군 지휘부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결과 12월 3일, "대규모의 중공군이 성천을 향해 남하 중이다."라는 보고를 접수한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사실여부를 판단해 볼 겨를도 없이 "중공군이 평양에서 유엔군 주력의 포위격멸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각 평양철수를 건의했다.

한편 제2차 공세에 임하는 중공군은 유엔군이 평양-원산을 연하는 선에서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마오쩌둥은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에게 보낸 12월 2일자 전문에서 "서부전선의 주력부대는 숙천-순천선 이북에서 4~5일간 휴식을 취하면서 탄약 및 식량의 재보급과 함께 부대정비에 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마오(毛)의 판단과 달리,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포기하고 신속한 철수를 거듭하고 있었다.

결국 미 제8군사령부의 심리적 공황상태는 맥아더 원수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얻은 성공과 버금가는 승리를 중공군에게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맥아더는 일방적인 해·공군의 우세 속에 대규모의 장비와 화력을 동원해 승리했지만 중공군은 인적자원 위주의 인해전술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에 버금가는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대륙에서 수많은 전쟁으로 단련된 결과였다.

7. 평양-원산 북쪽을 연하는 방어선 활용

중공군 제2차 공세를 경험한 유엔군사령부와 제8군사령부는 이제까지의 "대규모의 중공군이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무너지면서 정신적 공황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 특히 군우리(개천)의 제2사단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했던 상황과 장진호의 해병사단이 고전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유엔군 지휘부는 "중공군과 접촉을 단절하는 것만이 전투력을 보존하는 길이다."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중공군의 능력이나 전술, 아군이 패배하게 된 이유 등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다. 유엔군사령부가 중공군의 제2차 공세에 좀 더 냉철하게 대처했다면, 청천강선에서 철수한 유엔군이 다음 방어선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은 숙천-순천-원산 북쪽을 연하는 선이었다. 그러나 도쿄회의에서 확인된 맥아더 원수의 '평양확보 지침'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제8군은 12월 1일부터 오로지 후방으로 철수할 생각만을 갖고 있었다. 당시 제8군의 입장은 "전선에서 철수라고 하기보다는 적으로부터 도망이다."라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중공군의 여건은 제8군사령부의 판단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중공군이 공세를 시작할 때 휴대했던 식량과 탄약은 이미 바닥이 났으며 그 후 전혀 재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8군사령부는 알지 못했다. 12월 1일경에는 중공군도 지쳐서 거의 탈진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유엔군의 평양철수는 중공군의 실정을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며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았다. 만약 제8군이 평양-원산 북방을 연하는 선에서 방어진지를 구축한 후 공군과 해군의 도움을 받아 강력히 저항했다면 1·4후퇴처럼 서울을 다시 내어주는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군사작전 특히 방어작전의 경우는 자연장애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협소한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국경선은 1,200km에 가까운 광정면이지만 소위 '한반도의 허리'라고 불리는 평양-원산의 북쪽을 연하는 지역은 200여km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군사적 부담도 1/6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허리는 전쟁기간 동안 한 번도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 등 우방국의 언론 매체들은 "북진작전시 유엔군이 평양-원산선에서 진격을 중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면 그 선에서 중공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국경선으로 진격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다만 중공군의 제2차 공세시 평양-원산의 북쪽을 연하는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38도선으로 철수했던 것은 매우 아쉬운 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8. 평양의 피난민과 대동강 철교

12월 3일, 평양철수를 결정한 제8군은 민간인에 대한 철수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 평양의 피난민 대열은 12월 3일이 되면서부터 대규모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난민들이 제8군의 철수에 필수적인 도로로 몰려드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말았다.

특히 대동강 북쪽의 피난민이 문제였다. 피난민들에게는 교량을 이용한 도하가 허용되지 않았다. 제8군은 철수로의 혼잡을 막기 위해 바지선과 소주정(小舟艇)을 이용해 일부 피난민을 도하시키기도 했으나 이렇게 철수한 피난민은 전체 피난민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많은 피난민들이 파괴된 대동강철교로 몰려들었다. 수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커다란 보따리와 어린이를 등에 지고 철교의 난간을 붙잡고 대동강을 도하했다. 피난민들의 살기 위한 몸부림은 줄타기 곡예사와 같은 필사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강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한편 평양 남쪽 중화에서 신막에 이르는 도로 주변은 약 5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피난민들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계속 증가했다. 이들은 하루 약 24km의 속도로 이동하여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열흘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들 피난민들이 평양에서 불타고 있는 자신의 집을 돌보지 않고 엄동설한에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고난의 행렬에 스스로 가담하는 모습은 자유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9. 국군과 유엔군의 38도선 방어선 구축

1950년 12월 6일, 중공군과 북한군이 평양에 진입했다. 한편 평양에서 38도선을 향해 황급히 철수하는 국군과 유엔군은 그들의 철수 속도가 중공군의 예상을 초

월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순조로운 철수를 계속할 수 있었다. 12월 20일을 전후해 38도선으로 철수를 완료한 국군과 유엔군은 김포반도-임진강-화천-양양을 연하는 선을 주저항선으로 선정했다. 서부전선은 미군이 담당하고 동부전선은 국군이 전담하는 임무분담 체제를 갖추었다.

중공군은 평양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했던 유엔군이 의외로 신속하게 철수하자 그들도 38도선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추격은 한계가 있었다. 현대식 수송장비를 이용해 철수하는 유엔군에 비해 그들은 도보, 우마차, 썰매, 짐말, 심지어는 쌍봉낙타까지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도 얼마간의 트럭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엔군의 공중폭격으로 주간에는 꼼짝도 못하고 야간에만 이동했기 때문에 차량의 사용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8군이 평양으로부터 임진강 방어선까지 도망치듯이 200여km를 후퇴하는 2주 동안 평양 남쪽의 광활한 전투지대에는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중공군이 38도선 북쪽에 진출했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난 것은 12월 21일이었다. 그날 고랑포 축선의 국군 제1사단에서 대규모의 중공군을 목격했으며, 2명의 중공군 병사를 포로로 잡았다. 또한 23일에는 유엔군의 전투기가 철원 서쪽 15km 지점 도로상에서 수 미상의 병력과 4~5마리의 낙타를 사살했다.

이로써 전쟁은 6개월 만에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갔고 국군과 유엔군은 38도선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올 중공군을 기다리게 되었다.

10. 해상작전

1950년 10월 25일 이후 한·중국경을 향한 유엔군의 진격이 개시되었을 때 유엔해군의 작전목표는 해상봉쇄와 함포지원사격을 통해 북진하는 지상군의 측방을 지원하고 강력한 해상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유엔해군은 함포지원사격을 통해 도주하는 적의 퇴로와 보급로를 차단했다. 그때 한국해군은 북한지역에 전진기지를 설치해 북진하는 아군의 보급지원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중공군의 대규모 참전이 확인된 이후 유엔해군의 작전목표는 가능한 한 다수의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상군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함포지원과 함재기를 이용하여 적의 공격을 저지하면서 동·서해안에서 해상철수를 지원했다.

먼저 동해안지역에서 해군은 원산, 성진 및 흥남에서 해상철수작전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철수에 필요한 수송함, 함포지원 및 호송함 등 가용한 전 세력을 동원함으로써 다수의 병력과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후방지역으로 후송할 수 있었다. 특히 흥남철수작전은 최대 규모의 해상철수작전으로 미 제10군단 및 국군 제1군단의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켜 중공군의 차후 공세에 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병력과 장비·물자를 철수시켜야만 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북한주민을 남한지역으로 후송시킨 한·미 해군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였다.

한편 서해안지역 진남포 및 인천에서도 해상철수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인천에서는 제8군의 군수지원요원, 부상병 등과 공무원, 경찰 그리고 피난민 등 3만 2천여 명의 인원과 다수의 장비 및 화물을 안전하게 후방지역으로 철수시켜 차후작전을 위해 전투력을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유엔해군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간인 철수를 포함한 해상철수작전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차후작전을 통해 전세를 전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11. 공중작전

미 공군의 참전과 함께 작전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한 유엔군은 적의 공중 위협이 거의 없는 가운데 근접항공지원과 후방차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 참전 이후부터는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중의 상황도 일변했다. 1950년 11월 1일, 중국 동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공군 제151전투비행사단 소속 MIG-15 전투기들이 공중에서 미군 전투기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공중전은 소련공군 참전의 서막이었다.

소련공군은 중공군이 참전한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14개 비행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 이어 제64비행군단을 창설해 2~3개 비행사단을 교대로 편입시켜 미군 전투기들과 공중전을 벌이는 등 중공군과 북한군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과 확전을 우려한 스탈린의 통제에 따라 중공군으로 위장하고 작전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간 중 유엔공군과 대결한 공중전에서 1:8로 유엔공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자평했는데 이는 그들이 소련공군의 참전성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유엔군의 공중작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중공군의 참전규모와 이동상황은 물론 소련공군의 참전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11월 하순, F-51 전폭기 8개 대대를 북한지역에 전개시켰으나 채 10일을 넘기지 못하고 황급히 철수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장비와 탄약을 유기해야만 하는 불행한 사태를 겪어야 했다. 또한 MIG-15가 출현해 북한 북서부 지역의 제공권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아군 항공기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2월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F-84 및 F-86항공기를 투입할 수 있었다.

둘째는 공군력의 특성을 살리고 공군 본래의 전술운영 목적인 적의 전쟁의지 말살과 후속 증원차단을 위한 작전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북한공군이 궤멸된 후부터 중공군과 소련공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유엔공군은 지상군의 상황과 연계된 공중작전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중공군 개입과 소련공군의 참전 이후에는 후속 증원전력 차단이 더 중요한 임무였다. 이를 위해 압록강 교량폭파 작전이 필수적이었으나 11월에 들어서야 시행된 극동공군의 집중적인 교량폭파 작전은 이미 중공군의 대규모 병력이 도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그럼에도 중공군의 참전 이후부터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으로 철수를 완료한 12월 말까지 유엔공군의 작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는 동안 중공군 및 북한군, 나아가 소련공군과 싸우면서 그들을 살상하고 급속한 남진을 저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아울러 한국공군의 경우도 C-47 1대를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해 공중수송반을 창설하는 등 공수작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또한 비행단을 제주기지로 이동시켜 체계적인 조종사훈련에 돌입함으로써 차후작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던 시기였다.

한편 소련이 그들의 공군참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정부도 그들의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공군의 참전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미군이 소련공군과 교전한 사실을 정식으로 공표할 경우 대응책이 마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련군의 전면참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탓이었다.

결론적으로 소련공군의 참전에 따라 6·25전쟁의 국제전적 성격이 더욱 짙어졌지만 전쟁의 확대를 우려한 미국과 소련은 이심전심으로 공중작전구역을 제한하는 등 공중전력을 제한적으로 운용했다. 그 결과 공중작전의 본래 목적 즉 적 후방에 대한 전략폭격으로 상대방의 전쟁수행 의지를 말살하고, 지상군전력이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격파하는 전략적인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결 론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여 동안 계속된 6·25전쟁은 그 성격으로 볼 때 초기에는 남·북한간의 내전과 유사한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미국과 유엔 등 자유진영과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거의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전쟁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6·25전쟁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북한군 기습남침시부터 한강방어선전투까지로 남·북이 내전과 유사한 형태로 싸웠던 시기다. 둘째, 유엔군 참전으로부터 압록강 진격까지로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침략자를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대결했던 시기다. 셋째 중공군의 참전으로부터 정전까지로 참전국들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결한 국제전 시기다.

한편 6·25전쟁은 중공군의 참전을 계기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의 전쟁이 전개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중공군 참전 이전과 참전 이후의 2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 같은 관점에서 총 11권으로 계획된 6·25전쟁사 편찬도 크게 본다면 제1~2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 제2권 『북한군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제3권 『한강선 방어와 초기 지연작전』, 제4권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 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제6권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을 제1부로 보고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38도선 철수』 이후를 제2부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감안해 제2부의 시작인 제7권은 전쟁의 국제전적인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6·25전쟁사 제7권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38도선 철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교훈은 6·25전쟁 당시 한반도를 놓고 전개

되었던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가 오늘날에도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80년대 말에 이루어진 냉전구도의 해체로 인해 세계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었지만 한반도에서만은 오늘날까지도 남북관계에는 물론이고 국제질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역사적 사실과 생생한 교훈은 오늘날에도 한민족 모두와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갈망하는 인류 전체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집필 : 최용호)

부 록

1. 영문약어 및 함정명칭
2. 연 표

1. 영문약어 및 함정명칭

(1) 영문약어

ADCOM — Advance Command and Liaison Group 전방 사령부
AGC — Amphibious Force Flagship 상륙전 기함
AKA — Attack Cargo Ship 공격 화물 수송함
AMS — Motor Minesweeper(YMS의 신형) 소해정
ANGLICO — Air and Naval Gunfire Liaison Company 항공·함포 연락 중대
APA — Attack Transport 공격 인원 수송함
APD — High Speed Transport 고속수송함
ASCOM — Army Service Command 육군 기지창
ATF — Fleet Tug 예인함
BB — Battleship 전함
BLT — Battalion Landing Team 대대 상륙단
CA — Heavy Cruiser 중(重) 순양함
CP — Command Post 지휘소
CL — Light Cruiser 경(輕) 순양함
CV — Aircraft Carrier 항공모함
CVE — Escort Aircraft Carrier 호위 항공모함
CVL — Light Aircraft Carrier 경항공모함
DD — Destroyer 구축함
DE - Escort Destroyer 호위 구축함
DUKW — Amphibious Truck(Dual Utility Cargo Waterborne) 수륙양용트럭
FBHL — Force Beach Head Line 해안두보선
FMF — Fleet Marine Force 함대해병대
GQ — General Quarters 전투 배치
SPOG — Joint Strategic Plans and Operations Group 합동전략 계획단
JTF — Joint Task Force 합동기동부대
KLO — Korean Liaison Office 한국연락사무소
LCM — Landing Craft, Medium 중형 상륙정

LCVP — Landing Craft, Vehicle and Personnel	상륙 주정
LD — Line of Departure	공격개시선
LF — Landing Force	상륙군
LSD — Landing Ship Dock	상륙 선거함
LSMR — Landing Ship Medium-Rocket	로켓 포함
LST — Landing Ship Tank	대형 상륙함
LSU — Landing Ship Utility	대형 상륙정
LVT — Tracked Landing Vehicle	수륙 양용차
LVT(A) — Armored Tracked Landing Vehicle	장갑 수륙 양용차
MAG — Marine Aircraft Group	해병 비행 전대
MAW — Marine Air Wing	해병 항공 사단
MTT — Mobile Training Team	이동 교육반
OP — Observation Post	관측소
PC — Submarine Chaser	구잠함
PF — Frigate	호위함
RCT — Regimental Combat Team	연대전투단
RLT — Regimental Landing Team	연대상륙단
SFCP — Shore Fire Control Party	해안 사격 통제반
TAC — Tactical Air Command	전술 항공 본부
TF — Task Force	기동부대, 특수임무부대
TG — Task Group	기동전대
TTU — Troop Training Unit	부대훈련대
USAFIK — U. S. Army Forces in Korea	주한 미 지상군
VMF — Marine Fighter Squadron	해병 전투기 대대
VMF(N) — Marine Night(All-weather) Fighter Squadron	해병 전천후 전투기 대대
YAK — Russian Fighter Aircraft	소련제 전투기
YMS — Motor Minesweeper(AMS의 구형)	소해정

(2) 함정명칭

Athabaskan(DD, HMCS*)	아타바스칸
Battan(CVL, USS)	바탄
Belfast(CV, HMS*)	벨파스트

Bexer(APA, USS*)	벡사
Charity(DD, USS)	채리티
Collett(DD, USS)	콜레트
Eldorado(AGC, USS)	엘도라도
Endicott(DD, USS)	엔디코트
Forest Royal(DD, USS)	포레스트 로얄
Helena(CA, USS)	헬레나
Henderson(DD, USS)	헨더슨
Henrico(APA, USS)	헨리코
Jamaica(CL, HMS)	자메이카
Kenya(CL, HMS)	케냐
Leyte(CV, USS)	레이테
Manchester(CL, USS)	맨체스터
Mansfield(DD, USS)	맨스필드
Missouri(BB, USS)	미조리
Montague(AKA, USS)	몬태규
Mount McKinley(AGC, USS)	마운트 맥킨리
Pickaway(APA, USS)	피카웨이
Prinston(CV, USS)	프린스턴
Rochester(CA, USS)	로체스터
Saint Paul(CA, USS)	세인트 파울
Sicily(CVE, USS)	시실리
Toledo(CA, USS)	톨레도
Triumph(CVL, HMS)	트라이엄프
Zellars(DD, USS)	젤라스

* HMCS(Her Majesty's Canadian Ship) : 캐나다 해군 함정
HMS(Her Majesty's Ship) : 영국 해군 함정
USS(United States Ship) : 미 해군 함정

2. 연 표

연 도	사 건 내 용
10월 1일	• 국군 제3사단·수도사단, 38°선 돌파 • 스탈린, 마오쩌둥에게 중공군 파병 요청 • 김일성, 중공군 파병 요청(평양주재 중국대사에게 전달)
10월 2일	• 국군 제3사단·수도사단, 양양 탈환 • 유엔군사령부, 38도선 돌파 북진명령(작명 제2호) 하달 • 마오쩌둥, 김일성 파병 요청 접수 • 저우언라이, 유엔군이 38도선을 돌파할 경우 중공군 개입 경고
10월 6일	• 중국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 중공군 파병을 결정 베이징주재 소련 대사에게 통보
10월 7일	• UN총회, 영국 등 8개 국가가 제안한 38°선 돌파를 47:5(기권 7)로 가결
10월 8일	• 마오쩌둥, 중공군 파병 결정을 김일성에게 통보
10월 9일	• 맥아더 사령관, 김일성에게 최후 항복권고문 통고 • 미 제1기병사단, 개성 북방에서 38°선 돌파
10월 10일	• 제3사단·수도사단, 원산 탈환
10월 11일	• 국군 제1사단, 고랑포에서 38°선 돌파 • 김일성, 항복을 거부하고 북한군에게 최후항전을 명령
10월 13일	• 김일성,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평양 탈출
10월 14일	• 미 제1기병사단, 금천 탈환
10월 15일	• 트루먼 미 대통령, 웨이크섬에서 맥아더 원수와 만나 전쟁 전반에 대한 논의
10월 16일	• 중공군 선두부대(제42군단 정찰부대), 압록강 도강 북한 진입(18시경)
10월 17일	• 맥아더 원수, 맥아더라인(유엔군 전진한계선)을 정주-영원-함흥을 연하는 선으로부터 선천-고인동-평원-풍산-성진을 연하는 선으로 북상시킴(20일부 유효)
10월 19일	• 제1사단, 11:00 평양 돌입, 제7사단은 평양 동북방 돌입, 미 제1기병사단도 평양 남단에 돌입함으로써 평양 탈환 • 중공군 주력, 압록강 도강 북한 전개
10월 20일	• 평양을 탈환한 각 사단(국군 제1사단, 제7사단 제8연대, 미 제1기병사단), 잔적 소탕작전 • 미 제187공수연대, 숙천-순천 지역에 투하되어 북한군 퇴로 차단 • 유엔군사령부, 종전 후 미군 철수계획 하달(작전명령 제202호)
10월 21일	• 김일성, 대유동에서 중국 지원군사령관 펑더화이와 만나 대처방안 논의
10월 22일	• 펑더화이, 김일성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중공군 작전계획을 마오쩌둥에게 보고

연 도	사 건 내 용
10월 24일	• 맥아더 원수, 맥아더라인을 철폐하고 예하 전 부대에게 “국경선을 향해 최대한의 속도로 진격하라.” 명령
10월 25일	• 중공군 제1차 공세 시작 • 제1사단, 운산(구읍리) 북방에서 중공군 포로 1명을 최초로 획득 • 제6사단 제2연대, 온정리(운산)에서 벽동을 향해 출발 • 제6사단 제7연대, 고풍(풍장) 진입 • 제8사단, 구장동 진입
10월 26일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제1대대, 초산 북방 신도장(앙토리) 점령, 국경선 도달(14:15) • 국군 제3사단·수도사단, 원산 평정작전 완료 • 미 제10군단 제1해병사단, 원산 행정상륙 • 중공군, 운산(구읍리) 및 온정리(운산) 일대 국군 제1·6사단 포위 공격
10월 27일	• 국군 제6사단장, 제7연대장에게 초산으로부터 회목동으로 철수 명령 하달 • 미 제8군사령관, 미 제1기병사단장에게 국군 제1사단 초월공격 명령 하달 • 국군 제3사단 제26연대, 장진 부근 제2발전소 인근에서 중공군 포로 16명 획득 • 미 제1해병사단 제5·7연대, 하갈우리로 철수 명령 접수 • 유엔공군, 고립된 부대에 대한 공중보급
10월 28일	•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수색대, 백벽산 부근에서 2명의 중공군 포로 획득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초산에서 고풍으로 철수 • 국군 제6사단 제2연대, 태평(BV5357)에 집결 재편성
10월 29일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고풍에서 온정리(운산) 방향으로 철수, 주원고개(YE4186)에서 퇴로가 차단되어 적진에 고립됨, 각 대대 및 중대 단위로 분산 탈출 • 미 제1기병사단 제8연대, 용산동 진출 • 미 제24사단·영 제27여단·호주 제3대대, 구성·정거동 진격전 시작 • 국군 제3사단, 함흥 집결 • 미 제7사단 제17연대, 이원 행정상륙 • 이승만 대통령, 평양시민 환영대회 참석
10월 30일	• 국군 제6사단, 제2·19연대 병력을 수습해 개천에 집결 • 미 제1기병사단 제8연대, 국군 제1사단과 진지교대 • 중공군, 미 제1기병사단 및 국군 제1사단 포위공격
10월 31일	• 유엔군사령부, 중공군 포로 10명을 확인했으나 중공군의 조직적인 참전 여부는 미확인이라고 발표
11월 1일	• 미 제1기병사단, 국군 제1사단과 진지교대 완료 • 미 제1군단, 제1기병사단 제8연대,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 철수명령 하달 • 미 제1기병사단 제8연대 제3대대, 중공군 포위망에 갇혀 고립됨 • 미 제24사단·영 제27여단·오스트레일리아 제3대대, 구성·정거동 진격작전 종료 • 미 제1군단, 긴급작전회의 개최 • 국군 수도사단·미 제7사단 제17연대, 동해안 풍산 북쪽의 적과 교전 • 북한 상공에서 유엔군 전투기와 MIG 및 YAK-9 전투기의 최초 공중전

연 도	사 건 내 용
11월 2일	• 국군 제7사단, 비호산(BV5300)을 중심으로 방어진지 편성 • 국군 제1사단, 영변으로 철수 • 미 제1군단장, 제1기병사단장에게 “제8기병연대 제3대대의 구출을 포기하고 철수하라!” 명령
11월 3일	• 국군 제7사단, 중공군 공세를 맞아 비호산에서 공방전 계속
11월 4일	• 국군 제3사단, 예하 연대를 홍원-신포-북청-이원-단천 지구로 이동시킴 • 미 제7사단 제31연대, 이원 행정상륙
11월 5일	• 국군 제7사단, 중공군의 공세로 인해 비호산 피탈 • 국군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 길주 점령(10:00경)
11월 6일	• 국군 제6사단 제7연대, 소부대 단위로 분산되어 개천에 집결 • 국군 제7사단, 공세로 전환해 비호산 돌파구 회복 • 소련공군, 공군기의 북한지역 진입 허용(최초의 작전범위는 압록강까지로 규정) • 미 합참, 압록강 교량에 대한 공중폭격 승인(국경선 5마일 이내 항공폭격 금지 명령 취소)
11월 7일	• 국군 제7사단, 비호산 확보 중공군 퇴각 • 북한공군, 11월 1일 이후 총 51회 출격
11월 8일	• 국군 수도사단, 길주에 지휘소 설치 • 미 제7사단 제31연대, 백산 기슭에서 중공군 1개 대대규모와 교전 50여 명 사살
11월 9일	• 유엔군사령부, 중공군 50개 사단 중국 동북지방에 대기 중이라고 발표
11월 10일	• 미 해군함재기, 신의주교량 폭파
11월 11일	• 그리스 공수비행단 제13전대 예하 수송대, 일본 아타쯔케(후쿠오카) 기지에 도착
11월 12일	• 미 제10군단장, 풍산 도착
11월 13일	• 국군 제1군단·미 제3사단, 성진으로 이동 • 중공군, 지원군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2차 전역방침 채택 • 미 극동해군사령부, 작계116-50(긴급 철수절차) 하달
11월 14일	•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한국부흥재건안 심의
11월 15일	• 소련공군, 한국 전역(戰域)을 담당할 군단 규모의 전투비행부대 창설 결정
11월 16일	• 미 제1해병사단 하갈우리(장진) 점령 • 미 제7사단 제17연대, 갑산 남쪽 16㎞ 지점 석우리 도달 • 남아프리카연방 공군 제2대대,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
11월 17일	• 북한군, 부대 재편 새로운 전투편성 완료 • 미 공군 제5공군사령부 제3폭격전대, B-26 16대를 대구비행장에 전개
11월 18일	• 영국의회 의원 22명, 종전을 위해 유엔군 진격 정지선을 설치하자고 제안
11월 19일	• 영국 적십자사, 한국의 민간인 구제사업을 위해 적십자군 파견 결정
11월 20일	• 서울시, 부역자 총 14,000여 명 검거
11월 21일	• 미 제7사단 제17연대, 혜산진 도달(10:00경) • 유엔 항공기, 압록강의 교량을 폭파하기 위해 총 593회 출격(11월 9일~11월 21일)

연 도	사 건 내 용
11월 22일	• 터키여단, 군우리(개천) 도착 • 국군 제3사단, 함수 점령 •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 주을 점령 • 미 공군 제6002전술지원비행단·제18전폭전대·남아프리카연방 공군 제2대대, 평양 미림비행장 전개
11월 23일	• 국군과 유엔군, 총반격을 위한 공격개시선 점령
11월 24일	• 국군과 유엔군, 크리스마스 공세 시작 •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 나남 점령
11월 25일	• 중공군, 제2차 공세 시작 • 국군과 유엔군, 중공군 전면공세로 인해 급편방어 전환 • 국군 제3사단 제23연대, 백암 점령 •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 청진 점령 • 미 제1해병사단 제7연대, 유담리 진출 • 미 공군 제8전폭전대, F-51전폭기 2개 대대 평양기지에 전개
11월 26일	• 중공군, 반격으로 전환 • 국군과 유엔군, 중공군 전면공세로 인해 청천강선으로 철수 시작 • 국군 제7사단 제5·8연대, 지휘체계 붕괴, 분산된 채 후방 철수 • 미 제2사단, 제9연대를 청천강 좌측에 제38연대를 우측에, 제23연대를 정면에 배치 • 터키여단, 와원(개천 북방) 진출, 일몰이 되자 급편방어진지를 편성해 야간경계 돌입
11월 27일	• 터키여단, 와원에서 여일령을 공격해 방어진지 편성 • 미 제1해병사단, 크리스마스 공세 시작 • 중공군 제9병단 예하 4개 사단, 미 제1해병사단 제5·7연대 포위 공격 • 소련공군, 선양(瀋陽)에 제64비행군단 창설
11월 28일	• 미 제8군, 서부전선에서 청천강 남쪽으로 전면철수 시작 • 미 제1해병사단 제5·7연대, 유담리 방어진지 편성 • 미 제7사단 제17연대,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을 격파하고 신갈파진 점령 • 중공군, 터키여단을 3면에서 포위 공격
11월 29일	• 터키여단, 신립리에서 중공군과 격전, 봉명리로 철수 • 미 제2사단, 개천에서 야간철수 시작
11월 30일	• 서부전선의 국군과 유엔군, 청천강 남쪽으로 철수 • 미 제2사단, 개천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철수 계속, 중공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많은 피해 발생 • 국군 제3사단 제22연대, 혜산진 돌입(13:00경) • 국군 수도사단 제18연대(부령 부근), 제1기갑연대(부거 부근)에 각각 진지 점령 • 미 제1해병사단 제5·7연대, 하갈우리로 철수 명령 접수 • 미 극동해군사령부, 제90기동부대 모든 함정에 출동 명령 하달

연 도	사 건 내 용
12월 1일	• 미 제1해병사단 제5·7연대, 하갈우리로 철수 시작
12월 2일	• 국군 제1사단, 사단 작전과 관련 없는 일부 병력·장비를 평양 이남으로 철수 • 국군 제7사단, 승호리 집결 • 미 제8군사령부, 숙천-성천을 연하는 방어선을 포기하고 후방 철수 결정
12월 3일	• 중공군, 성천·순천 지구에 대한 공격 후 평양 점령 기도 • 국군과 유엔군, 평양에서 병력 철수 시작 • 유엔공군, 평양비행장에 전개했던 부대 철수 완료
12월 4일	• 중공군, 안주-신안주 진출 • 국군과 유엔군 주력, 평양에서 철수 • 국군 제3사단, 길주 집결 완료
12월 5일	• 미 제25사단, 평양 북쪽에서 국군 제1사단·영 제29여단과 연계 철수엄호 부대 임무 수행 • 국군 제8사단, 토산(시변리)으로 철수부대 재편 • 미 제10군단장, 함흥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한 작전명령 하달 • 국군 수도사단, 성진 집결 완료
12월 6일	• 중공군 평양 입성·점령 • 국군 수도사단 지휘부·참모부 및 2개 중대, 성진항에서 미 해군 LST 승선 흥남으로 해상 기동
12월 7일	• 국군 제1사단, 사리원에서 남천으로 철수, 사단 수색대가 구월산 일대의 북한군 패잔병 소탕 • 미 제1해병사단, 고토리 도착 • 중공군, 덕원 외곽 고지를 점령하고 원산에 대한 공격 개시
12월 8일	• 미 제25사단, 평양 남쪽 중화 점령 중공군의 신속한 남진 저지 • 미 제1해병사단, 고토리에서 황초령을 향해 출발 • 중공군 제9병단, 원산 시가지 점령(10:00경) • 미 제8군사령부, 맥아더 원수의 명령에 따라 차후 방어선으로 38도선을 확정 • 미 극동해군사령부, 마운트 맥킨리호 함상에서 주요 해상지휘관회의 개최
12월 9일	• 미 제1해병사단, 수문교 통과 • 국군 제3사단, 성진항에서 미 해군 LST 승선 흥남으로 해상기동
12월 10일	• 미 제1해병사단, 황초령 통과 • 국군 제3사단, 흥남항의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부산을 향해 출항(15:00) • 북한지역 피란민, 흥남항에 모여들기 시작해 이후 계속 증가함 • 국군 제3군단,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공비토벌작전을 완료한 국군 제9·11사단을 원복 조치
12월 11일	• 국군 제1사단, 남천에서 출발 고랑포를 거쳐 신산리 도착 • 미 제10군단, 작명10-50(철수 준비명령) 하달 • 미 제1해병사단, 흥남도착 장진호 철수작전 종료
12월 12일	• 국군 제3사단, 부산과 구룡포에 상륙, 해상철수작전 종료

연 도	사 건 내 용
12월 13일	• 중공군, 함흥-흥남 외곽 10~30㎞ 지점 진출 • 북한군 제4군단 주력, 길주-성진-단천-이원 경유, 북청-흥원선 진출 • 국군과 유엔군, 38도선 철수 방어진지 편성 착수 • 소련공군, B-29 12대를 포함 총 46대의 유엔공군기 격추(11월 1일~12월 23일)
12월 14일	• 국군 제1사단, 고랑포 일대의 38도선 방어진지 점령 • 중공군 제9병단, 5개 사단을 동원해 미 제10군단의 교두보 방어선을 공격 • 미 제1해병사단, 흥남항에서 승선 완료, 흥남 외곽 교두보 방어선 축소 조정 • 국군 제2군단, 원주 도착, 제7사단을 육본 직할로, 제8사단을 제3군단으로 전환, 제9·3사단을 예속 받음
12월 15일	• 육군본부, 국군 제7사단을 춘천에 배치 육군예비로 확보 • 중공군 제9병단, 전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흥남교두보에 강력한 공격 재개 • 미 공군 제4전투요격비행단, F-86A 7대를 김포비행장에 전개 • 소련공군 제28전투비행사단, 중국공군 조종사 교육 종료, 중국 제4전투비행단에 항공기 인계 후 제64전투비행군단 편제에서 이탈 칭다오(靑島)로 기지 이전 • 소련공군 제324전투비행사단, 둥펑(東平)기지에 전개, 제28전투비행사단과 교대
12월 16일	• 중공군 제9병단, 파상공격 계속, 함흥 북쪽과 서쪽에서 치열한 교전 • 미 제10군단, 전방지휘소를 흥남으로 이동 • 국군 수도사단, 흥남항에서 승선 완료 후 해상에서 대기 • 국회, 국민방위군법을 통과시킴.
12월 17일	• 국군 수도사단, 흥남항 출항 묵호항을 향해 항진
12월 18일	• 미 제3사단, 승선을 시작한 미 제7사단을 대신해 흥남항 교두보 방어임무 수행 • 국군 제1군단, 묵호에 상륙 제2군단으로부터 38도선 방어진지 인수
12월 19일	• 중공군 제9병단, 북한군 제4·5군단과 연계 흥남 교두보에 대한 총공세
12월 20일	• 중공군 15개 사단·북한군, 개성 북쪽의 금천 접근 • 미 제10군단 지휘부, 마운트 맥킨리호에 승선, 해상지휘소 운용
12월 21일	• 국군 제1사단, 중공군 포로 2명 포획, 중공군 38도선 북쪽 진출 사실 확인 • 미 제7사단, 흥남항을 출항한 후 부산을 향해 항해
12월 22일	• 미 제10군단, 흥남교두보 방어선을 시내 중심부로부터 반경 4㎞로 축소
12월 23일	• 국군과 유엔군, 38도선 방어진지 점령 •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 전사 • 미 제10군단 지휘부, 미 제3사단의 철수계획을 재검토해 동시승선을 위한 탑재지점 선정. 피란민 후송작전 대대적으로 전개(91,000여 명의 피란민 승선)
12월 24일	• 미 제10군단, 흥남의 지상 및 해상 철수 준비 완료 • 미 제10군단, 흥남에서 국군 및 유엔군 병력 105,000여 명, 피란민 91,000여 명 철수 완료
12월 25일	• 리지웨이 신임 미 제8군사령관, 도쿄 유엔군사령부 도착 • 리기붕 서울시장, 서울시민에게 피란 권고

연 도	사 건 내 용
12월 26일	• 맥아더 원수, 흥남철수작전 성공 발표 • 리 유엔사무총장,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성명 발표
12월 27일	• 유엔군사령부, 미 제10군단을 제8군사령부에 배속 • 제8군사령부, 38도선 방어배치 완료 • 리지웨이 제8군사령관, 전선 시찰
12월 28일	• 중공군, 38도선 돌파 개성 점령
12월 29일	• 리지웨이 제8군사령관, 전선 시찰 후 승리 자신감 표명
12월 30일	• 서울시, 서울시민의 49%인 84만여 명 피란
12월 31일	• 중공군, 개성 부근에 차량·장갑차 증강 배치, 30도선 일대 병력 증강

참 고 문 헌

※ 본문에 직접 인용된 자료만 수록했다. 배열순서는 1. 먼저 언어순으로 분류하고, 2. 사료와 연구논저로 구분했다. 3. 연구논저는 저서와 논문으로 세분했다. 4. 각 문헌에 해당되는 언어의 저자 및 편자(혹은 편저자)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저자 및 편자의 성명이 명기돼 있지 않을 경우는 문헌명의 머리글자 자모순으로 배열했다. 단 중국어의 경우, 중국음이 아닌 한국어의 한자음 순으로 했으며, 중국의 간체자로 된 자료도 대만의 번체자 자료와 같이 일률적으로 취급, 처리했다. 5. 번역본은 일괄적으로 역자의 이름순으로, 또 역자미상인 경우 원저자명 순으로 배열했다.

Ⅰ. 한국어 문헌

작전 명령, 전투상보, 훈령, 보고서, 자료집, 문서집, 서한(집)

국군 제1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78호」(1950. 11. 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서울 :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2001년), 제1권.

국사편찬위원회편역,『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과천 : 편역자 출판, 2006년).

國史編纂委員會,『大韓民國史資料集』(과천 : 편자출판, 1996년), 제29집.

김일성、「尊敬하는 이・브・쓰딸린 同志에게」(1950년 9월 29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한국전쟁 관련 주요 문서』, No.9.

金日成、朴憲永,「敬愛的毛澤東同志」(1950年10月1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소장,『6・25전쟁 관련 주요 문서』, No.10.

大韓民國公報處,『大統領李承晩博士談話集』(서울 : 편자출판, 1953년).

대한민국외무부 편역,『韓國戰爭 關聯 蘇聯極秘外交文書』(서울 : 편역자 소장, 1994년).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조선전사』(평양 :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년), 제26권.

수도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26호」(1950. 11. 6).

수도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10호」(1950. 11. 8).

육군본부,「작전명령 제221호」(1950. 10. 20. 13:00) ;「작전명령 제251호」(1950. 12. 10).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1사단 전투상보』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6사단 전투상보』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7사단 전투상보』
육군본부,「한국전쟁사료 : 제8사단 전투상보」(55), 1987.
육군본부,「작전훈령 제4호」(1950. 11. 18. 01:00).
육군본부,「훈령 제10호」(1950. 11. 19).
제1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143호」(1950. 11. 9) ;「작전지시 제88호」(1950. 12. 5).
제1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20호」(1950. 11. 15. 16:00) ;「작전명령 제121호」(1950. 11. 27. 17:00) ;「작전명령 제112호」(1950. 11. 30) ;「작전명령 제125호」(1950. 12. 10) ;「작전지시 제99호」(1950. 12. 15).
제3보병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5호」(1950. 11. 27) ;「작전명령 제52호」(1950. 11. 4) ;「작전명령 제55호」(1950. 11. 16. 20:00) ;「작전명령 제56호」(1950. 11. 20. 10:00) ;「작전명령 제11호」(1950. 11. 30) ;「작전명령 제60호」(1950. 12. 6)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43호」(1950. 11. 6) ;「작전명령 제50호」(1950. 11. 21) ;「작전명령 제51호」(1950. 11. 24).
제8보병사단사령부, 「구두 작전명령」(1950. 11. 26. 04:00).
해병대사령부,「작전명령 제44호」(1950. 12. 3).

신문, 방송, 사전, 연감, 일지

『경향신문』(2010년 4월 30일).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編,『韓國戰亂一年誌』(서울 : 편자출판, 1952년).
사회과학출판사,『조선지명편람(함경남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서울신문』(1995년 5월 29일).
연합뉴스,『2009 북한연감』(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YTN특별기획,『한국전쟁을 말한다』, 2010년 6월 23일 방영.
『朝鮮日報』(2010년 5월 17일) ; (1950년 10월 25일) ; (1950년 10월 27일) ; (1950년 10월 31일) ; (1950년 11월 4일) ; (1950년 11월 10일) ;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제6권(평안북도Ⅱ).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4년), 제11권(강원도).
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저,『조선향토대백과』(서울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3년), 제12권(함경남도Ⅰ).
朝鮮中央通信社,『朝鮮中央年鑑』(平壤 : 편자출판, 1952년), 國內篇(1951~1952年).
『중앙일보』(2010년 5월 3일).
崔鍾泰 編著,『韓國戰爭日誌』(서울 : 軍事問題硏究所, 1991년).

부대사, 증언집, 회고록, 전기

공군역사기록단 역,『미 공군 제6146부대 부대사』, (계룡 : 역자 출판, 2010년), 제1집.
공군본부,『6·25전쟁 증언록』, (계룡 : 공군본부, 2002년).
공군본부,『전투요보』, (계룡 : 공군본부, 2000년).
매튜 B. 리지웨이, 김재관 역,『한국전쟁』(서울 : 정우사, 1984년).
白善燁,『6·25전쟁 회고록 : 軍과 나』(서울 : 재단법인 대륙연구소, 1989년).
劉載興,『激動의 歲月』(서울 : 乙酉文化社, 1994년).
林富澤,『林富澤의 韓國戰爭秘錄 :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 그루터기, 1996년).
장도영,『望鄕 :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 숲속의 꿈, 2001년).
장성환,『나의 항공생활』, (서울 : 공군본부 정훈감실, 1954년).
丁一權,『丁一權회고록 : 6·25秘錄 전쟁과 휴전』(서울 : 동아일보사, 1986년).
쑨요우지에 지음, 조기정, 김경국 옮김,『압록강은 말한다—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서울 : 살림출판사, 1996년).
조병옥,『나의 회고록』(서울 : 해동, 1986년).
주영복,『내가 겪은 조선전쟁』(서울 : 고려원, 1991년), 제1권.
韓徹永,『自由世界의 巨星 : 李承晩大統領』(서울 : 文化春秋社, 1953년).
韓豹頊,『韓美外交 요람기』(서울 : 중앙일보사, 1984년).

연구 저서 및 논문

공군본부,『항공 전사 : 한국전쟁』, (계룡 : 공군본부, 1989년).
공군본부,『6·25전쟁 항공전사』, (계룡 : 공군본부, 2002년).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서울 : 편자 출판, 1996년), 상권, 중권.
국방부,『한국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1972년), 제5권(중공군 침략과 재반격작전기).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서울 : 저자 출판, 1985년).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서울 : 전사편찬위원회, 1990), (上).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韓國戰爭史』(서울 : 편자 출판, 1980년), 제11권(UN軍參戰篇),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戰爭史』(서울 : 편자출판, 2004년), 제1권(戰爭의 背景과 原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2009년), 제6권(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년), 제6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주한 미군의 정보보고 체계(1945~1953년 미 정보보고서 중심으로)』(서울 : 저자 출판, 2007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장진호전투』(서울 : 저자 출판, 1981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전투사 : 청천강전투』(서울 : 저자 출판, 1985년).
국방부,『한국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1971년), 제4권(총반격작전기).
국방부,『한국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1972년), 제5권(중공군 침략과 재반격작전기).
소련군 총참모부 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역,「소련군 총참모부 전투일지 : 1950년 6월 25일~1951년 12월 31일」(미발간)
김경준,『CEO, 역사에게 묻다』(서울 : 위즈덤하우스, 2009년).
예프게니 바자노프, 나딸리아 바자노프 저, 김광린 역,『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서울 : 도서출판 열림, 1998년).
劉慶元著, 김옥준 역,『탈냉전시대 중국 국가안보전략』(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2005년).
러 國防部編, 김종국 역,『러시아가 본 韓國戰爭』(서울 : 오비기획, 2002년).
박명림,『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서울 : 나남출판사, 1996년), 제1권.
박명훈,『조선지명편람(평안북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2년).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지음, 박상수 옮김,『중국현대사 : 공산당, 국가, 사회의 격동』(서울 : 심산, 2009년).
백선일 譯,『밀물과 썰물』(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95년).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 옮김,『한국전쟁』(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9년).
서상문,『毛澤東과 6·25전쟁—파병결정과정과 개입동기—』(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년).
서상문,『혁명러시아와 중국공산당 1917~1923』(서울 : 백산서당, 2008년).
서울新聞社 編著,『駐韓美軍 30年』(서울 : 杏林出版社, 1979년).
신형식 譯,『한국전쟁 해전사』, (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2003년).
빌 길버트 원저, 안재철 편역,『마리너스의 기적의 배』(서울 : 2004년).
안재철,『생명의 항해』(자운각, 2008년).
오진근, 임성채 공저,『손원일 제독』(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년).
마이클 살러 지음, 유강은 옮김,『더글라스 맥아더』(서울 : 이매진, 2004년).
이충환,『미국비밀 문서로 본 한국현대사 35장면』(서울 : 삼인, 2003년).
육군본부,『중공군이 경험한 6.25전쟁』(서울 : 편자 출판, 2009년), (하).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한국전쟁사』(서울 : 일신사, 1996년 수정판).
육본정보참모부,『북괴 6.25남침분석』(서울 : 보진재, 1970년).
이태호,『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서울 : 다섯수레, 1991년).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한국전쟁 4 :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서울 : 명성출판사, 1991년).
任德淳,『地政學—理論과 實際』(서울 : 法文社, 1999년).
마틴 러스 저, 임상균 역,『브레이크 아웃 : 1950년 겨울, 장진호 전투』(서울 : 나남출판사, 2004년).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저, 박동구 역,『중국군의 한국전쟁사 2』(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년).
전사편찬위원회,『장진호전투』(서울 : 저자 출판, 1981년).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1992년), 제4권(낙동강에서 압록강으로).
전쟁기념사업회,『한국전쟁사』(서울 : 저자 출판, 1992년), 제5권(중공군개입과 새로운 전쟁).
데이비드 햄버스탬 지음, 정윤미, 이은진 옮김,『The Condest Winter : 한국전쟁의 감추어진 역사』(서울 : 살림출판사, 2009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중공군의 한국전쟁사』(서울 : 세경사, 19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서울 : 편자 출판, 1991년), 제25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연구소,『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서울 : 선인, 2001년).
해본본부,『해군작전사 개설』, 제1집(해군본부, 2001년), 제3편.
해군본부,『대한민국해군사 : 작전편』제1집(해군본부, 1954년).
해군본부,『해군 30년사 1945~1975』(해군본부, 1978년).
홍학지 지음, 홍인표 옮김,『중국이 본 한국전쟁』(서울 : 고려원, 1992년).

김영호,「6·25전쟁과 유엔의 역할」『軍史』, 제59호.
남정옥,「6·25전쟁 초기 미국의 정책과 전략, 그리고 전쟁지도」『軍史』, 제59호.
서상문,「6·25전쟁 초기 사적 대응—군대이동과 배치를 중심으로—」, 육군본부 군사연구실,『軍事硏究』, 제122집.
서상문,「6·25전쟁과 臺灣'안전'의 상관관계 論析」,『軍史』, 第54號(2005년 4월).
서상문,「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毛澤東의 6·25전쟁 개입동기」, 한국해양전략연구소,『STRATEGY 21』, Summer 2007, Vol.10 No.1.
신범식,「소련의 북한 군사 지원」『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제1권.
원태재,「6·25전쟁과 영국의 역할」『軍史』, 제59호.
이종석,「한국전쟁 중 중·조연합사령부의 성립과 그 영향」『軍史』, 제44호.
李種判, 小柳順一,「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미 극동군사령부의 정보활동을 중심으로」『軍史』, 제67호.
이춘근,「공산 세력의 남침과 자유 세력의 대응」, 이주영 외 8명 공저,『한국현대사 이해』(서울 : 경덕출판사, 2007년).
전현수,「소련공군의 한국전 참전」『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서울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년), 제1권.
丁世鉉,「中華우월의식의 형성과정과 배경」『中蘇硏究』, 제7권 제1호.

Ⅱ. 영어 문헌

명령서, 보고서

Eighth Army G4 SS Rpts, 7-18 Nov 50; Eighth Army Trans SS Rpts, 7-18 Nov 5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1950 Vol.Ⅶ

GHQ, UNC,「Operations Order No. 4」Oct. 17, 1950.

HQS, Ⅰ US Corps,「Operations Order No. 111」Oct. 26, 1950.

HQS, EUSAK,「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106」, 26 Oct. 1950 ;「Periodic Operations Report, No. 325」, 28 Oct. 1950.

HQS, EUSAK,「Command Report No. 1(1-31 December 1950)」, 10 April 1951.

HQS, EUSAK,「Command Report, Narration」, Dec. 50.

HQS, EUSAK,「Command Report, Narration」, Dec. 1950, Box 2436.

HQS, EUSAK,「Periodic Information Report, No. 142」1 December 1950.

HQS, EUSAK,「Operation Plan No. 14」, 6 Nov. 1950.

HQS, EUSAK,「Operation Plan No. 15」(Nov. 14, 1950).

HQS, EUSAK,「War Diary: Summary」(Nov. 1950).

HQS, EUSAK,「WAR DIARY, SECTION Ⅰ : SUMMARY(1-30, NOVEMBER 1950)」, 14 Nov. 1950.

HQS, EUSAK,「WAR DIARY, SECTION Ⅰ : SUMMARY(1-30, NOVEMBER 1950)」, 20 Nov. 1950.

HQS, Ⅰ US Corps,「Operation Direction No. 15」, 26 Oct. 1950.

HQS, US 1st Marine Div.,「Operational Order, No. 24-25」, Nov. 27, 1950.

HQS, US 1st Marine Div.,「Operational Order, No. 1-50」, Nov. 30, 1950.

HQS, US 1st Marine Div., 「Operational Order, No. 51」, Nov. 30, 1950.

HQS, US 2nd Inf. Div., War Diary, Nov. 1950.

HQS, US X Corps,「Operational Order, No.7」, Nov. 25, 1950.

HQS, US X Corps,「Operational Order, No. 20」Nov. 30, 1950.

Kesaris, Paul, ed., *Records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Part Ⅱ : 1946-1953 The Far East, Washington*, A Microfilm Project of University Pub. of America, Inc., 1979, No.9.

Rad, GX 50025 KGLX, CG Eighth Army to CINCFE, 22 Nov 50.

War Diary, G-3 Section, 6 Nov,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1 November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6 November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8 November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10 November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13 November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November~ December 1950).
미 공군 일일상황보고서(RG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Air Staff, Deputy Chief of Staff, Operations Director of Intelligence, Deputy Director for Estimate Topical Intelligence Division, Current Intelligence Branch korean Daily Reports, Apr. 1951-July 1953)
미 제1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9-50호」(1950. 12. 5).
미 제7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57호」(1950. 11. 12).
미 제9군단사령부,「작전명령 제10호」(1950. 11. 19).
미 제10군단사령부,「작전지시 제13호」(1950. 10. 25) ;「작전지시 제22호」(1950. 12. 3. 16:00) ;「작전명령 제8-5호」(1950. 11. 30) ;「작전명령 제10-50호」(1950. 12. 11).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18-50호」(1950. 10. 25).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합동작전명령 제2-50호」(1950. 11. 30).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25-50호」(1950. 12. 5. 08:00).
미 제1해병사단 제7연대본부,「작전명령 제14-50호」(1950. 12. 6).
미 제1해병사단사령부,「작전명령 제26-50호」(1950. 12. 7. 18:50).

회고록, 홈페이지

Acheson, Dean, *Present At the Creation :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1969).
Ching-Wen, Chow, *The Years of Storm : The True Story of the Communist Regime in China*, translated and edited by Lai Ming(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anikkar, K. M., *In two Chinas : Memoirs of Diplomat*(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955).

Rongzhen, Nie, *Inside the Red Star—The Memoirs of Marshal Nie Rongzhen*(Beijing : New World Press, 1988).

Stratemeyer, George E., *The Three Wars of Lt. Gen. George E. Stratemeyer His Korean War Diary*(Washington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9), Edited by Blood, William T. Y.

Truman, Harry S., *Memoirs :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 Double day & Co., Inc., 1956), Vol.Ⅱ.

미 공군역사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홈페이지(www.afhra.af.mil) 한국전 관련자료(USAF Organizations in Korea 1950-1953).

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 홈페이지 한국전 통계자료(http://www.afhra.af.mil/shared/media/document/AFD-090611-098.pdf)

연구 저서 및 논문

Appleman, Roy E., *Disaster in Korea, The Chinese Confront Macarthur*(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9).

Appleman, Roy E., *Escaping the Trap, The US Army X Corps in Northeast Korea, 1950*(Texas : A&M University Press, 1988).

The Air University of USAF,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 1 November 1950 - 30 June 1952*, 1955.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The Sea War in Korea*(Annapolis : U.S. Naval Institute, 1957).

Clausewitz, Carl Von, *On War*(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edited and translated by Howard, Michael and Paret, Peter.

Cowart, Glenn C., *Miracle in Korea*(Columbia, 1992).

Crane, Conrad C., *American Airpower Strategy in Korea, 1950-1953*(Lawrence, Kansas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Field, James A.,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 Korea* (Washington, 1962).

Futrell, Robert R.,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Washington D.C.: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83).

Goncharov, Sergei N., Lewis, John W. and Litai, Xue.,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Stanford :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Griffith, Samuel B.,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1967).

Jian, Che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Hammel, Eric M., *Chosin : Heroic Ordeal of Korean War*(CA Novato : Presidio Press, 1990).
Kissinger, Henry, *Diplomacy*(New York : Simon & Schuster, 1994).
Leary, William M., *Anything, Anywhere, Anytime Combat Cargo in the Korean War*, 2000.
Mossman, Billy C., *United States Army in Korea War : Ebb and Flow November 1950-July 1951*(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 The First Year*(Washington, D. C. :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Shrader, Chares R., *Communist Logistics in the Korean War*(Lond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5).
Stueck, William, *The Korean War : An International History*(New Jerse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Zhang, Shu Gu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 China and the Korean War, 1950-1953* (Lawrence : University of Kansas, 1995).
Zhang, Xiaoming, *Red Wings over The Yalu* (Texas : Texas A&M University, 2002).

Alexader, Joseph H., "Fleet Operations in a Mobile War, September 1950-June 1951", Ed. by Marolda, Edward J., *The U. S. Navy in the Korean War*(Annapolis Maryland :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Press, 2007).
K. Spate O. H.,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D., Jackson W. A., ed.,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 Readings on the Nature of Political and Geography*(Prentice Hall : Englewood Cliffs, 1964).
Zhang Xiao Ming, "China'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the Korean Wa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편, 『6·25전쟁과 東北아 군사관계의 변화』(서울 : 편자출판, 2005년 6월).

Ⅲ. 중국어 문헌

全集, 文集, 資料集, 文獻集

高麗書林편, 『美國國立公文書館所藏 北韓解放直後極秘資料(1945年 8月～1951年 6月)』(서울 : 편자출판, 1980년), 제5책.
沈志華編, 『朝鮮戰爭 :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臺北 : 中央研究所近代史研究所, 2003年), 上冊, 中冊.
外國文出版社編, 『金日成著作集』(平壤 : 編者出版, 1981年), 第6卷.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建國以來毛澤東文稿』(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7年), 第1冊.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毛澤東文集』(北京 : 人民出版社, 1999年), 第6卷.
中共中央文獻研究室彭德懷傳記編寫組編,『彭德懷軍事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88年).
中國人民抗美援朝總會宣傳部編,『偉大的抗美援朝運動』(北京 : 人民出版社, 1954年).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外交文選』(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0年), 第4卷.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한국전쟁기 중공군문서(1949~1953. 3)』(춘천 : 한림대학교 출판부, 2000년), 제1권, 제2권.

大事記, 사전, 年譜, 회고록, 전기

姜思毅主編,『中國人民解放軍大事典』(天津 : 人民出版社, 1992年).
江擁輝著,『三十八軍在朝鮮』(瀋陽 : 遼寧人民出版社, 1988年).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編著,『中國人民解放軍八十年大事記1927-2007』(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7年).
"當代中國人物傳記"叢書編輯部,『彭德懷傳』(北京 : 當代中國出版社, 1993年).
杜平,『在志願軍總部』(北京 : 解放軍出版社, 1989年).
薄一波,『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北京 : 人民出版社, 1997年修訂本), 上冊.
師哲,『在歷史巨人身邊 : 師哲回憶錄』(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5年修訂本).
吳瑞林,『抗美援朝中的第42軍』(北京 : 金城出版社, 1995年).
柴成文、趙勇田,『板門店談判』(北京 : 放軍出版社, 1992年第2版).
楊迪,『在志願軍司令部的歲月里—鮮爲人知的眞情實況』(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8年)
王焰主編,『彭德懷年譜』(北京 : 人民出版社, 1998年).
李慶山,『志願軍援朝紀實』(北京 : 中共黨史出版社, 2008年).
鄭文翰主編,『軍事大辭典』(上海 : 辭書出版社, 1992年).
鄧禮峰,『建國後軍事行動全錄』(太原 : 山西人民出版社, 1992年).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傳1949-1976』(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8年), 上冊.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周恩來年譜1949-1976』(北京 : 中央文獻出版社, 1997年), 上卷.
"中國軍事辭典"編審委員會編,『中國軍事辭典』(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0年).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毛澤東軍事思想研究年譜組編,『毛澤東軍事年譜1927-1958』(南寧 : 廣西人民出版社, 1994年).
中國人民解放軍歷史資料叢書編審委員會編,『空軍回憶史料』(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2年).
中國人民解放軍戰士出版社編,『蘇聯軍事百科全書』(北京 : 編譯者出版, 1982), 第2卷.
陳章華、榮肇隆主編,『中國軍事史辭典』(武漢 : 湖北人民出版社, 1993年).
"彭德懷自述" 編輯組,『彭德懷自述』(北京 : 人民出版社, 1981年).
洪學智,『抗美援朝戰爭回憶』(北京 : 解放軍文藝出版社, 1991年第2版).

신문, 잡지

孔憲東、張隨軍、吳天軍,「志願軍空軍在朝鮮戰場」『縱橫』, 總第130期(2000年10月).
『時事手冊』, 第2期(1950年11月5日)
外交部外交史研究室,『當代中國使節外交生涯』(北京 : 世界知識出版社, 1995年第), 第1輯.
『人民日報』(1950年12月17日).
『解放日報』(1945年2月10日).

연구 저서 및 논문

瞿唯佳、曹宏編,『中國雄師第四野戰軍』(北京 : 中共黨史出版社, 1996年).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抗美援朝戰爭史』(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0年), 第1卷, 第2卷.
南佐民等譯,『朝鮮戰爭內幕』(杭州 : 浙江人民出版社, 1989年).
譚趙,『中國人民志願軍人物錄』(北京 : 中共黨史出版社, 1992年).
鄧力群、馬洪、武衡主編,『當代中國空軍』(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年).
徐焰,『毛澤東與中抗美援朝戰爭—正確而輝煌的運籌帷幄』(北京 : 解放軍出版社, 2003年).
沈志華,『毛澤東, 斯大林與朝鮮戰爭』(廣州 : 廣東人民出版社, 2003年).
沈志華,『毛澤東, 斯大林與韓戰—中蘇最高機密檔案』(香港 : 天地圖書, 1998年).
沈志華,『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桂林 :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年).
楊鳳安、王天成,『駕馭朝鮮戰爭的人』(北京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93年).
王樹和,『四十軍征戰紀實』(瀋陽 : 白山出版社, 1997年).
遼寧公路交通史編委會編,『遼寧公路交通史』(瀋陽 : 瀋陽出版社 1998年), 第2冊.
魏白編,『志願軍十大虎將傳奇』(濟南 : 黃河出版社, 2000年).
林長盛,『解放軍的武器裝備』(香港 : 明鏡出版社, 1996年).
張玉良主編,『戰役學』(北京 : 國防大學出版社, 2006年).
趙功德、張明金編著,『中國人民共解放軍歷史上的七十個軍』(天津 : 人民出版社, 1993年).
中國人民志願軍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編寫委員會,『抗美援朝戰爭經驗總結(草稿)』(北京 : 編者出版, 1956年), 第1卷(戰爭簡史—內部文件), 第2卷(戰術經驗總結—內部文件).
陳培雄,『毛澤東戰爭藝術』(臺北 : 新高地出版社, 1996年).
楚云,『朝鮮朝戰內幕全公開』(北京 : 時事出版社, 2005年).
總後勤部軍事交通部編著,『中國人民解放軍軍事交通史(1927-1987)』(北京 : 解放軍出版社, 1990年, 內部參考).
浦興祖主編『中華人民共和國政治制度』(上海 : 人民出版社, 1999年).
胡海波編,『云山大碰撞—第一次戰役戰事報告』(北京 : 軍事科學出版社, 2007年).

姜廷玉,「中朝聯合司令部成立始末」『縱橫』, 總第130期(2000年10月).
穆俊杰,「消滅美軍一個建制團 : 宋時輪抗美援朝戰爭片段」『湘籍將帥』, 2007年第2期.
徐相文,「毛澤東與韓戰 : 介入背景、決策過程和動機」(臺灣國立政治大學歷史研究所博士學位畢業論文, 2006年7月).
徐相文,「關於“毛澤東預言美軍仁川登陸”的時間考」『中共黨史資料』, 第73輯(北京 : 2000年3月).
徐澤榮,「“中國介入朝鮮戰爭之始末與目標”分章摘要」『傳記文學』, 第77卷第4期(2000年10月號).
沈志華,「抗美援朝戰爭中的蘇聯空軍」『中共黨史研究』, 2000年第2期.
劉利民, 張廣蘇、黃進,「試論抗美援朝戰爭中炮兵的運用」,『軍事歷史』, 2000年第3期.
李海文,「中共中央究竟何時決定志願軍出國作戰?」『黨的文獻』, 1993年第5期.
張東岳,「抗美援朝戰爭中的鄧華將軍」,『百年潮』, 2001年第9期.
張希,「中國人民志願軍入朝前夕“突然”暫停的經過」『黨史研究資料』, 1993年第1期.

Ⅳ. 일본어 문헌

연구저서

A. V. トルクノフ著, 下斗米伸夫, 金成浩譯,『朝鮮戰爭の謎と眞實』(東京 : 草思社, 2001年).
松井芳郎,『現代の國際關係と自決權』(東京 : 新日本出版社, 1981年).
民族問題研究會編,『朝鮮戰爭史 : 現代史の再發掘』(東京 : コリア評論社, 1967年).
陸戰史研究普及會,『中共軍の攻勢』(東京 : 原書房, 1971年).
安田寬 外 6人共著,『自衛權再考』(東京 : 知識社, 1987年).

찾아보기

ㄱ

가래주 103
가오강(高崗) 36, 37, 39, 41, 44, 56, 61, 101, 111, 140, 141, 157, 176, 178, 207, 231, 237
개천 274, 278, 304, 320, 327, 337, 374, 393, 412, 450, 462, 535, 539, 698, 727
게이(Hobart R. Gay) 301
겸이포 448, 456, 531
경제속도(마하 0.62) 709
고토리 209, 286, 346, 367, 394, 471, 477, 481, 484, 489, 497, 508, 552, 629, 701, 722
공중 게릴라 전술 660
공중우세 651, 654, 656, 657, 660, 665, 667, 673, 676, 703
공회전 출동 679
구룡강 186, 303, 304, 305, 307, 330, 410
구성 278, 286, 294, 296, 309, 311, 315, 373, 411, 441
구진리 395, 396, 397, 769
국제교량(International Bridge) 690
국제의용군 30, 32
군우리 97, 107, 172, 218, 294, 315, 328, 390, 411, 442, 446, 449, 453, 455, 456, 459, 463, 466, 534, 574, 698, 717
그로미코(Andrei Gromiko) 230
극동(유엔)공군사령부 656
극동해군사령관 582, 583, 586, 591, 592, 594, 595, 597, 615, 616, 620, 641
근접항공지원작전(Close Air Support) 712
글라시스(glacis) 76
긴급추적권(right of hot pursuit) 704
길주 209, 356, 357, 358, 359, 363, 368, 369, 407, 412, 493, 494, 496, 537, 552, 630, 706
김백일 290, 358, 365, 370, 492, 494, 556, 569, 588
김일 20
김일성(金日成) 19, 23, 30, 36, 42, 49, 52, 57, 61, 64, 78, 84, 99, 109, 118, 130, 141, 157, 169, 176, 203, 214, 228, 241, 245, 284, 400

ㄴ

나폴레옹(Napoleon Bonaparte) 243
날으는 표범(Flying Cheetah) 682
녜룽전(聶榮臻) 34, 44, 74
니즈량(倪志亮) 31, 102

ㄷ

다둥커우(大東溝) 26
대령강 293, 296, 310, 311, 394, 410
대유동 110, 157, 162, 175, 176, 186, 214, 215, 333
덕동통로 475, 476, 477, 478, 479
덕실리-구진리 선 177
덕천 43, 53, 97, 101, 108, 109, 114, 139, 156, 171, 182, 202, 217, 286, 318, 322, 374, 396, 416, 419, 423, 431, 439, 450, 460, 535, 539, 567, 572, 666, 715, 717
덕천-영원 176, 177, 181, 210, 285, 503, 572

덩화(鄧華) 36, 138, 176, 177, 184, 202, 207, 235, 284, 399,
도일 힉키(Doyle Hickey) 211
둥베이변방군 24, 44, 72
둥베이철도 선양임시지휘소 143
딘 애치슨(Dean Acheson) 32, 200

ㄹ

라구샤오(拉古哨) 26
라오카이위안 26
라이트(Edwin K. Wright) 211
랴오양 26, 47, 143, 163
량싱추(梁興初) 144
로신(N. V. Roshchin) 37, 40
류샤오치(劉少奇) 83
류시위안(劉西元) 144
류허(柳河) 26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238, 239, 240, 524
린뱌오(林彪) 36, 160

ㅁ

마오안잉(毛岸英) 39, 162, 215
마오쩌둥 19, 22, 23, 30, 32, 43, 45, 48, 51, 63, 67, 101, 108, 136, 141, 169, 171, 184, 192, 197, 206, 229, 241, 689, 696
마운트 맥킨리(Mt. Mckinley) 342
만포진 276, 289, 293, 294, 315, 325, 328, 390, 393, 411, 412, 426, 443, 471, 490, 622, 691, 692, 695, 716, 717
맥아더(Douglas A. McArthur) 25, 33, 105, 128, 133, 141, 160, 169, 210, 288, 355, 377, 378, 405, 442, 510, 523, 524, 613, 620, 653, 681, 685, 690, 691, 695, 703, 704, 712, 721, 734
메이지(梅輯)선 144
모스크바 22, 37, 46, 48, 54, 83, 230, 665, 675
몰로토프 46, 54
묘향산 112, 114, 115, 116, 171, 173, 176, 178, 181, 182, 202, 418, 419, 421, 426, 443, 445
묘향산맥 272, 293, 326, 410, 427, 429, 457, 535, 540
무장정찰 604, 619, 651, 657, 658, 691, 694, 697, 708, 711, 712, 715, 716, 717, 718, 719, 737
무초(John Joseph Muccio) 125
무평리 148, 210, 274, 394, 695
미 제10군단 98, 131, 160, 271, 277, 289, 290, 291, 349, 356, 364, 393, 394, 395, 399, 408, 470, 488, 494, 496, 499, 613, 630, 683, 697, 699, 714, 716, 721, 722
미 제7함대 24, 27, 498, 499, 555, 586
미 제8군 97, 105, 121, 171, 182, 190, 208, 289, 301, 308, 314, 315, 316, 349, 358, 373, 374, 376, 391, 393, 394, 399, 405, 617, 630, 737, 738, 739
미그회랑(MIG Alley) 651, 703, 735
밀번(Frank W. Milburn) 189, 289, 305, 307, 320, 574

ㅂ

박일우 31, 284, 401, 661
박헌영 22, 30, 31, 118, 225, 661, 668
반덴버그(Hoyt S. Vandenberg) 대장 680
백령천 319, 320, 413, 416, 418, 425, 428, 429, 443, 444, 447
백선엽 187, 189, 290, 303, 305, 308, 540
백암 289, 358, 363, 370, 371, 394, 406, 407, 493, 494
번시(本溪) 26
베이징 22, 28, 31, 35, 42, 53, 59, 64, 70, 101, 137, 192, 229, 668
비신스키 52
비호산 315, 320, 322, 323, 413, 427, 428, 447

ㅅ

삼소리 460, 461, 539
선안(瀋安)선 143
선양 27, 40, 41, 42, 43, 44, 53, 60, 70, 72, 73, 149, 655, 672, 673, 678, 704, 734
성불참 418
성진 277, 352, 357, 358, 359, 368, 369, 407, 493, 494, 495, 498, 552, 590, 593, 597, 604, 631, 637, 638, 703, 727
성진철수작전 582, 586
세팡 139, 158, 161, 176, 177, 284, 399
소련 공군 고문단 668
소련 제106요격비행사단 655, 668
소련공군 제64전투비행군단 197
송스룬 46, 202, 204, 214
송스룬과 타오융(陶勇) 204
수송작전 584, 608, 631, 636, 642, 711
수위(粟裕) 41
수풍댐 71, 72, 115, 183, 186, 195, 197, 207, 276
수풍호 276, 289, 293, 295, 296, 299, 301, 314, 393, 410
순망치한 57, 71
쉬티코프 30, 32, 52, 195, 228, 235
스미스(Oliver P. Smith) 소장 291, 471, 588
스탈린 19, 30, 37, 68, 77, 84, 87, 101, 119, 169, 195, 203, 228, 230, 244, 247, 660, 665, 666, 668, 669, 674, 706, 735
스트러블(Arthur D. Struble) 339, 349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210, 680
시변리 236, 440, 532, 544, 545, 565, 566, 567, 568
신갈파진 351, 356, 469, 493, 552
신계 440, 448, 456, 531, 532, 536, 543, 544, 545, 565, 566, 568, 633
신카이위안 26
싼위안푸(三源浦) 26
쑹스룬 399, 470

ㅇ

아시아 공산당, 노동당 코민포름 20
아시아 정보국 20
안둥 26, 43, 47, 72, 73, 111, 115, 139, 140, 144, 146, 147, 149, 150, 177, 178, 184, 185, 197, 204, 673
안둥 철도분국 143
알몬드(Edward M. Almond) 277, 394, 700
압록강 교량 폭파작전 586, 620, 641
애치슨(Dean Acheson) 200
야오수스 44
야지시(Tahsin Yazici) 218
야콥 말리코(Jacob A. Malik) 28
양디(楊迪) 176
엘모베스 131
연안파 59, 84, 119
영원 273, 285, 286, 328, 393, 394, 396, 403, 412, 413, 426, 427, 428, 429, 431, 432, 437, 440, 441, 503, 535, 539, 572
오로리 285, 340, 397
오마 브래들리 33, 241
온정리 210, 271, 295, 303, 315, 316, 318, 325, 327, 328, 330, 331, 332, 335, 336, 338, 378, 405, 406, 427, 653, 723, 729
와원 446, 448, 449, 450, 451, 452, 453, 460, 698
용산동 296, 303, 305, 308, 393, 394, 698
우신촨 159, 196, 284, 297, 399
우회전술 288, 326, 373, 390, 571
운산 108, 162, 175, 187, 191, 196, 202, 210, 276, 279, 286, 296, 299, 330, 377, 412, 413, 441, 443, 457, 653, 723, 729
워커(Walton Waker) 97, 105, 222, 242, 273, 275, 316, 524, 530, 531, 532, 533, 538, 572, 574
원리 320, 426, 427, 443, 447, 460
원산 276, 277, 293, 351, 365, 367, 372, 389, 590, 591, 592, 593, 594, 595, 637, 638, 652, 654, 664, 683, 689, 699, 717

월터 스미스(Walter B. Smith) 190
웨이크섬 회담 124, 212
웨이크섬(Wake Island) 97
윌로비(Charles Willoughby) 190
유담리 204, 209, 210, 295, 339, 347, 348, 349, 394, 411, 469, 471, 472, 476, 477, 507, 508, 552, 589, 590, 591, 599, 699
유엔군 진격한계선(선천-성진) 652
유엔소총회 125
유엔안보리 33, 246
유엔한국임시위원회 123
유엔한국통일 및 부흥위원단 123, 125, 132
유엔한국통일위원단 122
유재흥 275, 289, 318, 326, 414, 429
육본훈령 제86호 120
율리 440, 531, 543, 565
이다즈께 기지 688
이승만 30, 36, 127, 132, 191, 224, 239, 248, 729
이원 295, 342, 351, 352, 354, 355, 356, 367, 390, 411, 495, 496, 552, 589, 683, 721
이활(李闊) 664
인천철수작전 583, 586, 613, 615, 633, 637, 642
임부택 182, 327

ㅈ

장제스 21, 223, 229
장진호 109, 195, 271, 272, 479, 481, 482, 488, 489, 490, 491, 497, 498, 502, 508, 509, 510, 571, 583, 589, 604, 608, 629, 699
저우언라이 25, 37, 46, 55, 71, 80, 101, 139, 199, 236, 652, 665, 669, 674
적유령산맥 98, 108, 271, 293, 296, 326, 373, 389, 390, 410, 502
전술지원비행단 657
전술항공통제본부(Tactical Air Control Center) 688
전투공수사령부 656, 658, 682, 700, 701, 703, 719, 720, 721, 722, 723
정주 98, 99, 141, 175, 177, 179, 183, 195, 201, 214, 272, 279, 286, 294, 313, 325, 390, 395, 411, 441, 539, 665, 714, 717
정찰비행전대 723, 724, 725, 727, 739
정치국 서기처회의 35
제10군단의 500, 522
제13병단 25, 26, 36, 43, 206, 279, 280, 284, 286, 326, 389, 398, 412, 427, 440, 469, 488, 502, 507, 529, 550, 562, 571, 669
제151전투비행사단 655, 668, 669, 673, 704
제1차 공세 111, 182, 213, 246, 271, 278, 282, 286, 295, 323, 373, 374, 375, 376, 402, 427, 440, 441, 456, 502, 506, 510, 511, 653
제2전선부대 272, 278, 281, 373, 389, 390, 391, 395, 427, 439, 440, 500, 502, 522, 526, 562, 571, 572
제2차 공세 389, 390, 396, 402, 441, 491, 502, 503, 504, 522, 523, 534, 551, 571, 572, 654, 685, 697, 705, 712, 715
제314항공사단 684
제32전투비행사단 667
제374수송비행단 682, 722
제3903 레이더폭격기록대대(RDR Bomb Scoring Squadron) 697
제452동원비행단(Air Mobility Wing) 681
제452폭격비행단 657, 681
제4전투요격비행단 681, 688, 706, 708, 709
제5공군사령부 656, 658, 688
제6002전술지원비행단 683
제606항공관제경보대대(Aircraft Control & Warning Squadron) 683, 685
제6131전술지원비행단 683
제6146기지부대 723, 724, 725, 729, 730, 733

제6150전술지원비행단 683
제64전투비행군단 655, 656, 666, 667, 671, 672, 673, 675, 678, 679, 740
제67폭격비행단 669
제9병단 376, 389, 395, 398, 399, 402, 404, 412, 427, 488, 489, 490, 491, 500, 502, 507, 527, 529, 530, 546, 550, 552, 555, 558, 562, 571, 572
제공전력 657
조지 마셜(George C. Marshall) 33, 108
종이호랑이(paper tiger) 155
중공군 제1차 작전회의 184
중공군총사령부 175, 186, 193, 237, 238
중국 제4전투비행단 672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 281
중국인민지원군사령부 157, 401
중난하이(中南海) 39, 137
중소동맹 23, 59, 62, 67, 69, 75, 82, 84
중소우호동맹조약 21
진남포 철수작전 583, 640
진남포항 393, 407, 573, 584, 615, 616, 617, 636, 637, 640, 682, 683

ㅊ

차이청원(柴成文) 41
처치(John H. Church) 289
천이(陳毅) 28
청진 271, 272, 280, 356, 358, 359, 362, 363, 372, 394, 395, 412, 490, 493, 494, 495, 496, 502, 521, 526, 551, 552, 571, 590, 630, 631, 664, 694
초산 276, 279, 289, 294, 303, 315, 325, 326, 327, 328, 331, 332, 335, 338, 377, 393, 411, 427, 443, 456, 653, 712
최용건 79, 189, 400
추수감사절 공세 271, 292, 358, 373, 392, 651, 652
취푸(曲阜) 46
치고 빠지기(hit and run) 704
칭다오(青島) 45, 672

ㅋ

카이저(Lawrence B. Keiser) 463, 698
커트니 휘트니(Courteny Whitney) 211
콜린스(J. Lawton Collins) 524
콜터(John B. Coulter) 445, 450
콴뎬(寬甸) 71, 195
크리스마스 273, 389, 407, 412, 426, 440, 450, 456, 491, 502, 589, 612, 630, 651, 653, 685, 697, 712, 715
크리스마스 공세 407, 412, 426, 440, 450, 456, 491, 502, 651, 653, 697, 712, 715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85, 216

ㅌ

타이완 24, 34, 38, 64, 67, 75, 87, 135, 200, 208, 221, 223, 244
터너(William H. Tunner) 사령관 682
터키여단 406, 408, 442, 443, 448, 449, 451, 452, 455, 456, 459, 460, 463, 464, 466, 468, 534, 541, 563, 565, 698
테링 26
투자툰 26
퉁화 26, 117, 149, 195, 669, 766
트루먼 25, 33, 97, 108, 125, 190, 208, 221, 246, 273, 508, 555, 653, 705

ㅍ

파니카(Kavalam M. Panikkar) 652
파니카르(K. M. Panikkar) 37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소장 681, 729
펑더화이(彭德懷) 37, 113, 119, 139, 145, 157, 162, 168, 173, 177, 192, 202, 217, 230, 284, 399, 689
펑청(豊城) 26

페도렌코 48
평양방어사령부 112
폭격기사령부 658
폭격사령부 656, 684, 691, 693, 694, 695, 716, 717
풍산 273, 295, 342, 347, 352, 354, 357, 358, 390, 411, 491, 494, 589
프랭크 보웬(Frank S. Bowen) 100
피난민 수송작전 608

ㅎ

하갈우리 209, 214, 220, 345, 347, 348, 367, 394, 469, 471, 472, 473, 476, 477, 479, 481, 482, 483, 484, 485, 489, 494, 497, 508, 604, 608, 629, 700, 722
하이청 26, 163
한국 해군작전 629, 641
한국공군비행단 656, 725, 726, 739
함흥 42, 52, 294, 344, 345, 348, 351, 359, 404, 411, 469, 497, 499, 502, 547, 549, 551, 594, 595, 599, 685, 726, 727, 731
합수 358, 359, 363, 369, 370, 490, 491, 493, 494, 496, 498, 590, 630
항공관제경보부대 657
항공지원작전 603, 604
항공차단계획 4호(Interdiction Campaign No.4) 717
해군 항공작전 619, 641
해상철수작전 497, 498, 554, 556, 581, 582, 583, 586, 587, 633, 637, 638, 639, 641
해상통제권 585, 637, 638
허후창장커우(厚昌江口) 204
헤스(James D. Hess) 중령 732
혜산진 171, 187, 208, 212, 213, 224, 272, 289, 295, 349, 351, 354, 355, 356, 358, 369, 371, 390, 394, 411, 412, 491, 493, 494, 495, 498, 537, 552, 589, 590, 622, 628, 631, 653, 691, 693, 712
호도반도 105
호주공군 제77대대 683
혼성비행사단 654, 655, 664, 665, 734, 740
홍쉐즈(洪學智) 176, 177, 184, 207, 284, 399
화베이(華北) 60
황초령 187, 189, 198, 209, 214, 272, 294, 295, 346, 367, 411
후방기지 681, 706
후방차단작전 658, 716, 717, 719, 721
후차오무(胡喬木) 199
훈장커우 183, 184
흥남교두보 389, 496, 498, 499, 500, 503, 551, 552, 557, 559, 562, 571
흥남부두 폭파작전 610
흥남철수작전 497, 550, 554, 559, 561, 562, 583, 586, 591, 595, 596, 598, 602, 610, 612, 631, 632, 637, 638, 640, 642

집 필 자

김 상 원 전쟁사부장
손 규 석 선임연구원
최 권 삼 연구원
최 용 호 책임연구원
서 상 문 선임연구원
이 근 석 연구원

자문위원

백 선 엽 자문위원장
김 동 호 자문위원
정 용 근 자문위원

감 수

한 용 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오 규 열(한국디지털대학 교수)
김 현 영(군사편찬연구소 객원연구원)
김 희 철(해군 역사기록관)
온 창 일(육군사관학교 교수)
허 남 성(국방대학교 교수)
정 석 균(군사편찬연구소 객원연구원)
이 준 혁(공군 역사기록관)

6·25전쟁사 7

중공군 참전과 유엔군의 철수

2010년 8월 19일 인쇄
2010년 8월 31일 발행

발 행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인 쇄 : 국군인쇄창(10079384)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1337번으로!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
국 군 기 무 사 령 부

이 책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집필 및 편집한 내용을 인쇄한 것입니다.